E-Book

# 대당서역기

현장 저 | 권덕주 역

중국 당나라 고승(高僧) 삼장법사 현장(玄奘)이 17년 동안 인도와 중앙아시아 137개국을 여행하고 남긴 총 12권의 견문록. 중국 4대기서(四大奇書)인 《서유기(西遊記)》의 모태가 된다. 역대의 여행기 중 분량의 방대함과 그 내용의 상세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吳承恩)은 이 책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모험담을 만들어 냈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62

# 대당서역기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olje

##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대당서역기》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기아자동차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 권덕주 님께 감사를 전하며,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권호장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 역자 해제

### 1. 시대적 배경

《대당서역기》 1부 제12권은 당승 현장법사가 태종 정관 3년〔서기 629년〕 8월 장안을 출발해서부터 19년〔서기 645년〕 정월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사이에 그가 체험하고 견문한 서역 · 인도의 기후 · 풍토 · 민족 · 습속 · 언어 · 경역 · 물산 · 전설 등에 대해 적은 그의 《지기(志記 : 기록)》에 바탕 하여 편찬된 지지(地志)이다.
스스로의 체험과 견문에 따라 기록된 이 책은 7세기 전반에 있어 인도 · 서역에 대한 개괄적 지식으로서, 당시 웅대한 대외적 경략(經略)을 짜고 있던 당조(唐朝)에 있어 그 기초적인 지침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이 없겠으나 그와 함께 오늘날에 있어서는 궐일(闕逸)된 많은 그 종류의 서책 가운데서도 완존(完存)하는 상세한 기록으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것이 되어, 다방면의 모든 학자가 이 책을 의연한 중요 자료로서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의 손에 의한 불국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관점에서는 논픽션 기행문으로서의 값어치까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장법사의 행적의 자세함을 알고자 한다면, 그가 입적하여 4반세기가 지난 측천무후(則天武后) 수공(垂拱) 4년〔서기 688년〕에 찬술된 《대당대자은사 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 三藏法師傳)》 10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거기에는 법사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월을 따라 행동의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술했을 뿐 아니라 극적인 일화까지 곁들였으며 그 문채(文彩) 또한 전아(典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법사의 여행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한토(漢土)로의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의 불교 도입으로 서역 · 인도의 승도로서 도래하는 자가 차츰 많아지고 역경(譯經)도 증대하여 나갔다. 그러다가 한토에서도 서역 · 인도쪽으로 구법수경(求法搜經)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세기부터 11세기 말까지만도 약 1백




현장의 서역 여행 경로

80명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서도 법현(法顯)의 도천(渡天)에 자극되어서인지 5세기 전반에는 약 90명에 이르는 성황을 보였다. 역경에 있어서도 5세기 초엽의 나집(羅什)으로부터 7세기 중엽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종사한 수는 47명에 이르렀으며 양무제(梁武帝)의 천감(天監) 14년〔서기 515년〕 화림원(華林園)에서 석씨(釋氏) 경전을 총집하고 승소(僧紹)의 《화림전중경목록(華林殿衆經目錄)》 4권을 찬함에 이르러 모두 5천 4백 권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6세기 후반에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폐불(廢佛)을 만나 경상·불상(經像佛像)과 승도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그 신하 양견(楊堅)이 수조(隨朝)를 일으켜 불법의 부흥에 노력한 결과 국도 장안은 북위기(北魏期)때보다 더한 불교의 흥륭을 보였다. 《수서(隨書)》〈경적지(經籍志)〉 4권에는 불경의 총수 '1천 9백 50부, 6천 1백 98권'의 큰 숫자를 보여 줌으로써 주무의 폐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타격이 적었음을 알려 준다. 그 수나라도 전제 군주 아래서 외정(外征)과 내란이 잇따랐고 착취와 전란으로 쇠미해지고 황폐해진 가운데 당에 천하를 물려주게 되었다. 서기 618년, 당(唐)의 초대인 고조(高祖), 그 창업을 보좌한 2대 태종(太宗 : 626년에 즉위)의 최초의 사업은 안으로는 피폐해진 국토를 회복하고 산망감소(散亡減少)한 국민을 안도부흥시키는 일이었으며, 밖으로는 서북쪽에서 겁박하는 최대의 외환인 동돌궐(東突厥)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현장이 밀행도천(密行渡天)하는 정관(貞觀) 3년은 바로 태종이 즉위한 뒤 이 동돌궐 평정 작전이 한창인 때였으며 이는 이듬해 4년 명장 이정(李靖)에 의해 완결된 것이었다.

한편 서역에서는 서돌궐이 6세기 중엽에 엡탈〔嚈噠 : Ephtalites〕을 쳐 소그디나(Soghdina)를 수중에 넣고 철문(鐵門 : Derbent Pass) 이북으로부터 차츰 남하하여 카피시국으로부터 서북 인도 간다라에 이를 정도의 강대한 세력이 되었던 것이지만, 태종이 동돌궐을 궤멸시키자〔서기 630년〕, 그 연쇄반응으로 먼저 돌궐의 하미〔哈密 : 伊州〕의 소구드인 수령이 귀복한 것을 빌미로 하여 당나라의 세력이 차츰 서쪽으로 뻗어 정관 14년〔서기 640년〕에는 한나라의 식민 국가로서 긴 역사를 갖게 되는 고창(高昌)이 귀속함으로써 파미르 서쪽에까지 이르는 당조(唐朝)의 강대한 위세를 나타내는 실크로드 지배의 기회까지 갖게 되었다.

또 티베트는 당나라 초기에는 강력한 통일 국가를 창건하여 서북쪽 청해(靑海) 지방이나 북방의 서역 남도 일대를 침입하곤 했으나 태종 정관 8년〔서기 634년〕에 입공하면서 정관 15년에는 문성공주(文成公主)가 서장국왕〔《唐書》의 棄宗弄讚〕에

게 출가하여 입번(入蕃)할 정도로 우호 관계가 성립되었다.

눈을 인도 쪽으로 돌리면, 서기 320년 파탈리푸트라 성에서 기반을 쌓은 굽타 왕조〔Gupta 王朝〕가 북방 인도를 정복하고 375년에 즉위한 찬드라굽타 2세〔Candragupta Ⅱ; Vikramadiya〕 치세에는 나르마다(Narmade) 강 이북을 그 손안에 거둠으로써 마우랴(Maurya) 왕조 · 아쇼카(Asoka) 왕 이래의 인도 통일을 기하면서 서북 인도에 세력을 갖고 있던 쿠샨(Kusana)조도 인더스 강 이북으로 쫓겨났다. 6세기에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침입한 백훈〔白Huna : 嚈噠〕이 폭독하게 굴었으나 굽타 왕조의 군대는 이를 잘 막아냈고〔서기 528년〕 그 때문에 침입왕 미히라쿨라는 물러가 카시미르에 웅거하면서 간다라의 불교를 파괴하고 승도를 학살했다.

북위(北魏) 때 돈황(敦煌) 사람인 송운(宋雲)이 이곳으로 왕을 찾아온 것은 효명제(孝明帝)의 정광(正光) 원년〔서기 520년〕 4월이었다. 이 백(白)훈을 잘 막아 온 발라디탸 왕을 마지막으로 하여 굽타 왕조의 전인도 지배도 끝나고 인도는 다시금 소국으로 분열하여 서로 그를 계승하려고 다투었다. 그것이 Pusyabhuti조의 Harsa-bardana〔戒日王 : 서기 606년 즉위 647년 사망〕에 의해 재통일되었으며 633년에는 현장을 만나 융숭하게 대접하기도 한다. 이 계일왕은 태종 정관 15년〔서기 641년〕에 당나라로 사절을 보내고〔이해 文成公主 入蕃〕 그 다음다음 해 태종의 답례사로서 정사(正使)에 이의표(李義表), 부사(副使)에 왕현책(王玄策)이 선발되어 갔다가 현장이 돌아온 다음 해 정관 20년〔서기 646년〕 사명을 다하고 귀국했다. 이어 이듬해에 다시 왕현책(王玄策)이 정사가 되어 인도를 방문했을 때는 계일왕은 이미 사거한 다음이었으며 그에 따라 북인도는 혼란에 빠졌고 그 여파로 왕현책은 입국을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는 우호국 티베트와 북인도의 네팔에서 군사를 모집해 인도에서 싸운 끝에 승리를 거두고서 22년에 귀국했다. 그는 고종 현경(高宗 顯慶) 3년〔서기 658년〕에서 5년 사이에 세 번이나 인도를 방문하고 있다.

그와 같이 현장이 출발한 시기는 당조(唐朝)의 초창기 북방에서 위급을 고하는 때였으나 인도에 머물 때에는 당조의 위무(威武)가 사방으로 뻗어 귀국할 때의 국도 장안(長安)은 정히 세계 최고 · 최대의 도시가 되고 있었다.

## 2. 현장법사의 약력

그의 속성(俗姓)은 진(陳), 이름은 위(褘), 하남성(河南省) 진류(陳留)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후한의 하남성 태구현(太丘縣)의 장이었던 진식(陳寔), 자를 중궁(仲弓)이라 했다고 전한다. 법사의 조부 강(康)은 학문이 깊어 북제(北齊)에서 국자박사(國子博士)를 지냈고 부친 혜(慧)는 경술(經術)에 영명이 높았으나 수말(隨末)에 정치의 퇴락을 탄식하면서 오로지 고서(古書)에 전념했다. 법사는 그의 넷째 아들이었다.

법사는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와는 달리 고전을 가까이 하고 오직 옛 성현의 글과 행실을 본받을 뿐이었다. 그런데 먼저 출가(出家)한 법사의 둘째 형인 낙양(洛陽) 정토사(淨土寺)의 장첩(長捷 : 이름은 素)은 법사가 전법사로서의 그릇임을 알고 데리고 가서 경업(經業)을 가르쳤다. 마침 낙양에서는 특지(特旨)에 따라 몇몇 승도를 뽑는 칙령(勅令)이 내렸는데 법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자(使者)인 대리경(大理卿) 정선과(鄭善果)가 그 풍골을 가상히 여겨 선(選)에 넣었다. 그리하여 정토사에서 경법사(景法師)에게서는 열반경(涅槃經)을, 엄법사(嚴法師)에게서는 섭대승론(攝大乘論)을 배웠던바 한 번 들으면 그를 깨우쳐 다시 볼 때는 모두 기억하여 주변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때가 13세였다.

수(隨)가 망하고 당이 새로 일어서자 무덕(武德) 원년〔서기 618년〕, 형제가 모두 장안으로 왔으나 천하의 명승들은 모두 촉(蜀 : 四川省)으로 도망쳐 강석(講席)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제는 한천(漢川 : 陜西省)에서 촉의 성도(成都)에 이르러, 거기서 섭대승론, 아비담론(阿毘曇論), 팔건도론(八犍度論 : 發智論의 舊譯) 등을 듣는 가운데 정려하여 마지않았다. 그리하여 2~3년 사이 제부(諸部)에 통달, 법사 자신이 강경(講經)했던바 그 강좌에는 항시 수백 명의 승도가 참석했다.

무덕 5년, 법사 나이 20세에 이르러 성도에서 구족계를 받았다[이 수구(受具)의 해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일치하며 법사의 나이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그 당시 이미 당의 천하 통치는 표면상 확정되어 있었다. 법사는 장안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과 작별, 단신으로 배에 올라 강을 타고 내려 형주(荊州 : 湖北省 江陵縣)에 이르렀다. 여기 머무르면서 강경을 잠시 하다가 북으로 상주(相州 : 河南省 彰德部)에 가서 의문을 풀고 조주(趙洲 : 河北省 趙縣)에서는 성실론(成實論)을 배웠으며 잠시 후 장안으로 돌아와 대각사(大覺寺)에 머무르면서 구사론(俱舍論)을 학습했다. 당시 장안에는 법상(法常) · 승변(僧辯)의 두 대덕(大德)이 섭대승론을 강경하고 있었던바 모두 법사의 학덕에 깊이 감탄하여 “그대는 석문천리(釋門千里)의 구(駒)라고 할 만하다. 혜일(慧日 : 불교)을 다시금 밝히는 것은 그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늙은 몸으로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로구나”라고 말했다. 그 이후 승도들이 모두 법사를 더욱 우러르는 가운데 법사의 성예(聲譽)는 경읍(京邑)에 가득 찼었다고 말해진다.

법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스승에게 배우고 또 가르침을 청했으나 그들의 소설(所說)에 해석도 가지가지였으며 경전에 비추는 것도 명확하지 못해 갈팡질팡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법사는 스스로 인도로 건너가 의문점을 묻는 한편 대소승(大小乘) 불교 연구의 보고인 《십칠지론(十七地論 : 陳 · 眞諦譯. 5권으로 지금은 散逸)》의 완본을 얻어 모든 의문을 해소해야겠다고 결의하게 되었다. 상(常) · 변(辯)의 두 대덕도 법사의 그 길을 크게 권장했다.

법사는 동지들과 더불어 인도에 유력할 것을 청원드렸으나 조정에서는 변경에 변

고가 많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지들은 하나같이 단념했으나 법사만은 굽힘이 없이 비록 금령(禁令)을 범한다 해도 단호히 고유잠행(孤遊潛行)을 실현한 것이었다. 그때가 태종 정관 3년〔서기 629년〕 8월 법사의 나이 28세였다.

정관 19년 정월에 돌아와서 3월부터 역경(譯經)을 준비, 6월에는 그 일에 착수하였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는 이듬해 20년 7월에 완성되었다. 그 이후 17년 동안 역경에 정려한 끝에 고종(高宗) 인덕(麟德) 원년〔서기 664년〕 장안의 옥화사(玉華寺)에서 입적한바 그가 번역한 경전은 크고 작은 것을 합쳐 1천 3백 40권, 실로 5일에 1권씩의 비율이었다.

법사의 풍모에 대해서는 《자은전(慈恩傳)》에 "키 7척, 몸은 적백색이고 미목이 소랑(疎朗)하며 단엄(端嚴)하기가 조각과 같고 미려하기가 그림과 같다. 음사(音詞)가 청원(淸遠)하고 언담(言談)이 아량(雅亮)하여 듣고 싫어하는 자가 없다"라고 적고 있다.

현장법사의 전기는 그 위대함과 저명함에도 불구하고 연보(年譜)에 있어 여러 갈래의 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 적어 본다.

첫째, 당고조(唐高祖) 무덕(武德) 5년〔서기 622년〕 법사 21세〔만 20세〕 때 성도에서 수구한 점에 대해 이론이 없이 일치한다는 점에 근거해, 隨 文帝 仁壽 22년〔서기 602년〕 탄생 唐 太宗 貞觀 3년〔서기 629년〕 8월 1일 首途〔28세〕. 貞觀 19년〔서기 645년〕 1월 24일 歸朝〔44세〕. 高宗 麟德 원년〔서기 664년〕 2월 5일 遷化〔63세〕.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설이 가장 근거 있다 하여 채택하는 이가 많다.

둘째,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에 "인덕(麟德) 원년 번경승(飜經僧)과 문인들에게 유위(有爲)의 법은 반드시 마멸(磨滅)에 돌아간다. 포환(泡幻)의 형질이 어찌 오래도록 있음을 기약하랴. 행년(行年) 예순다섯, 반드시 옥화에서 마치리니 경론에 의문 있는 자는 어서어서 묻도록 하라고 했다. ……2월 4일, 오른쪽으로 기대어 발을 포개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짚었으며…… 5일 밤중에 이르러 제자

의 물음과 화상정(和上定)으로 미륵(彌勒) 앞에 태어나리라 하자마자 기절하여 숨을 끊다"라고 하는 데 근거하여, 隨 文帝 開皇 20년〔서기 600년〕 탄생, 唐 太宗 貞觀 3년〔서기 629년〕 首途〔30세〕, 貞觀 19년〔서기 645년〕 歸朝〔46세〕, 高宗 麟德 원년〔서기 664년〕 遷化〔65세〕라고 생각하는 설이 있다.

셋째, 제1설에 따르면서도 법사의 서유(西遊)의 해를 《자은전》에 '나이 26세'라고 한 점에 근거하여, 隨 文帝 仁壽 2년〔서기 602년〕 탄생, 唐 太宗 貞觀 19년〔서기 645년〕 歸朝〔44세〕, 高宗 麟德 원년〔서기 664년〕 遷化〔63세〕라고, 밖에 있었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해석도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생략한다.

### 3. 《대당서역기》의 성립

현장법사가 인도에 건너간 주목적은 그곳의 대덕(大德)들을 만나 의문 나는 점을 풀어야겠다는 것, 중국에 빠져 있는 범본(梵本), 특히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완본을 가져온다는 것, 거기에 성지(聖地)를 순배한다는 점도 있었다. 따라서 그가 목적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 그 다음의 일이 오로지 역경(譯經)에 있었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시의 당조(唐朝)는 동방의 여러 나라가 입공(入貢)하고 토번(吐藩)과의 관계도 호전, 문성공주(文成公主)를 시집보내며 돌궐(突厥)을 평정하고 고창(高昌)을 토벌하는 등 사방에 위무(威武)를 떨치고 있는 때이기는 했으나 서역(西域)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자라 할 수 있는 법사를 오직 역경의 일에만 전심하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법사가 돌아와 다음달 2월 낙양의 의란전(儀鸞殿)에서 배알했을 때 왕은 설령(雪靈)의 서쪽 인도 경계의 옥촉(玉燭) · 화기(和氣) · 물산(物産) · 풍속 팔왕(八王)의

고적(故迹) · 사불(四佛)의 유종(遺蹤), 그리고 박망(博望 : 張騫)이 전하지 못한 곳, 반마(班馬 : 班固와 司馬遷을 이름이니 곧《漢書》와《史記》)에 실리지 않은 것을 묻고 난 다음 "불국(佛國)이 하원(遐遠)하여 영적법교(靈跡法敎)는 전사(前史)에 소상히 할 수 없었던 바요, 법사가 이미 친히 가 보았으니 아무쪼록 소상히 전해 듣지 못한 바를 전하도록 하오" 하는 조명(詔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은 법사로 하여금 공보(公輔)를 부탁하면서 귀속(歸俗)하여 속무(俗務)를 도울 수 있도록 권했으나 "바라옵건대 이 몸을 다 바칠 때까지 법도를 행하여 국은에 보답하게 해 주시면 현장의 심행(甚幸)으로 여기는 바입니다"라고 아룀으로써 환속하는 일을 고사(固辭)하여 그로써 마무리 지었다. 그와 같이 왕의 애고(愛顧)가 있었던 것은 법사의 재식(才識)이 출중함에 연유함은 물론이거니와, 서역과 인도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법사에 대한 집착에 연유했으리라는 것도 또한 추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다음달 3월, 법사는 낙양에서 장안으로 돌아와 홍복사에 머무르면서 관사(官司)의 공급자즙(公給資什) 아래 역장(譯場)의 개설에 착수하여 6월에는 철문(綴文)의 대덕(大德) 9인, 자학(字學)의 대덕 1인, 범어와 범문의 대덕 1인, 그밖에 잡무 볼 사람들을 구했다.《대당서역기》의 찬자(撰者)인 변기(辯機),《속고승전(續高僧傳)》,《석가방지(釋迦方志)》의 찬자인 도선(道宣)은 철문을 맡았고, 25권본《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의 찬자인 현응(玄應)은 자학(字學)을 맡았다.

대소의 경전을 차례로 번역해 내는 동안, 전에 낙양에서 칙명이 있었던 인도와 서역에 관한 것은 그 이듬해 정과 20년 7월 13일에 완성,《대당서역기》로서 1부 12권으로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 명을 받은 지 겨우 1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실정은 권말에 쓰인 찬(讚)의 끝부분에 변기가 말한 가운데 "과재(寡才)의 몸을 고무하면서 삼가 현장법사의 지기(志記)를 이어받아 문장에 차례로 매긴다"라고 한 데에서 엿보인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지기(志記)》란 현장의

여행 기록이나 인도에서 찬술(撰述)한 서적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추측된다. 글 안에도 《선지(先志)》·《선기(先記)》·《인도기(印度記)》·《국지(國志)》 등의 서책 이름이 나오는 것이다. 또 도선(道宣)의 《속고승전》의 〈현장전(玄奘傳)〉에 "또 《서역전(西域傳)》 12권을 냈다. 사문 변기(辯機)가 친히 시사(時事)를 받아 전후를 연비(連紕)했다"고도 쓰여 있다. 이러한 당시의 글로써 살펴볼 때 변기는 관계되는 자료들〔원문은 외국어였던 것으로 짐작〕을 법사로부터 받아 법사의 지휘 아래 이를 연결하면서 편찬했다는 생각이 가장 온당한 것이리라. 따라서 그 기사의 배열 순서도 《지지(地志)》라 했으면서도 거의 법사의 여정(旅程)에 따라 서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법사 자신은 역장을 개설하여 1년 7개월 동안에 이미 《대보살장경(大菩薩藏經)》 20권, 《불지경(佛地經)》 1권, 《육문다라니경(六門陀羅尼經)》 1권,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20권, 《대승잡집아비달마론(大乘雜集阿毗達磨論)》 16권 등 56권의 번역을 끝낸 다음, 현안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1백 권의 번역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초능력도 놀랍거니와 그 다망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대당서역기》 찬술에는 변기의 역할이 컸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玄奘 譯 · 辯機 撰'이라고 병기(併記)한 데에서 후세인의 잘못이 있었다는 설도 있으나 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 대당서역기 역서(大唐西域記 譯序)

당대(唐代) 문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불교문화라고 규정짓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부정의 시대, 육조(六朝)와는 달리 생활에 대한 환희와 긍정에로의 전환이 당대 문화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상호 모순이 되는 듯이 보이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이야말로 당대 문화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불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보다도 인생철리(人生哲理)의 탐구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다. 불가에서, "마음을 알고 본성을 깨달아서, 스스로 불도를 성취한다〔識心見性 自成佛道〕"고 하는 말은, 유가에서,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다하면 하늘을 알게 된다〔盡心知性 盡性知天〕"는 이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즉 불교와 유교의 접근 내지는 융합적 특성을 엿볼 수가 있다.

현장법사(玄奘法師)가 인도에 건너간 목적은 그 곳의 대덕(大德)을 만나 불경의 의문점을 질의하고, 또 불경을 얻어 오며, 성지(聖地)를 직접 순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여, 보기 어려운 실상을 공(空)과 유(有) 사이에서 보고 정묘(精妙)한 이법(理法)을 고찰하여, 듣기 어려운 정법을 생(生)과 멸(滅) 사이에서 풀어서, 미맹을 해소하는 바른 법을 터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17년 동안 그가 답파한 나라는 110개국이었으며, 귀국 후 그가 번역한 불경은 1,340권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신불(神佛)의 가호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거니와, 또한 정법과 진리를 갈구하는 성자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해내기 어려운 거창한 작업이었다. 유가에서 특별히 경전을 존중하는 것은, 그 속에 성인(聖人)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하여 천하의 공리(公理)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간 능력의 한계를 거의 초월했다고 보여지는 현장의 서역 · 인도 순례와 역경(譯經)사업도 따지고 보면 역시 불경을 통해서 석가의 크고 바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석가의 마음을 통해서 천하의 공리를 밝히고자 함이 아니었겠는가?

《대당서역기》 1부 12권은 당 태종 정관(貞觀) 3년(629년) 8월 현장의 나이 28세에

장안(長安)을 출발하여, 19년(645년) 1월 귀환하기까지, 전후 17년간 스스로 체험하고 견문한 서역과 인도의 계후(季候) · 풍토 · 민족 · 습관 · 인어 · 경계 · 물산 · 종교 · 미술 · 전설 등을 기록한 지기류(志記類)로서, 사부총간(四部叢刊) 사부(史部)에 수록되어 있다. 7세기 전기의 당토(唐土)와 서역 · 인도 관계의 기록으로서는 유일무이한 것이며, 오늘날의 서역과 인도, 버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의 중고시대(中古時代) 역사 지리 연구서로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본서의 찬자(撰者)는 변기(辯機)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현장의 실제 메모와 구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의 역경 사업을 도왔던 변기가 서역기의 편찬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잘못 그의 찬(撰)으로 된 것 같다〔이 책 말미에 있는 발문과 찬문을 참조〕. 그리고 본서의 번역은 일찍이 서구인들에 의해서 먼저 시도되었다. 1857년 파리에서 나온 Julien, S.의 번역본이 있고, 1884년 런던에서 나온 Beal, S.의 역본이 있다.

소야현묘(小野玄妙)의 역본은 1936년 대동출판사간(大東出版社刊)으로 나왔고, 굴겸덕(掘謙德)의 《해설서역기(解說西域記)》는 1912년 동경 전천문영각간(東京前川文榮閣刊)으로 나왔으며, 그 밖에 《대당서역기》의 연구 자료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적이 나와 있다. 근래에 나온 평범사의 중국고전문학대계22 수곡진성(水谷眞成)의 번역본은 1971년 그가 명고옥 대학(名古屋大學) 문학부 교수로 있을 때 나온 역작으로서, 종래에 나온 번역서의 결함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 이 《대당서역기》는 난해한 곳이 너무 많고, 특히 지명과 인명의 원음 복원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도 당대 중국어음의 전문가인 수곡 씨(水谷氏)의 번역과 자상한 주석은 종래 이 책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수곡씨의 번역본을 근거로 하고〔수곡 씨가 저본으로 한 것은 고려장경본(高麗藏經本)에 근거한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과대학 총서본, 메이

지 44년 간본), 대만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발행의 사부총간초편본(四部叢刊初編本)을 참조로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에 있어서는 언론인 박갑천(朴甲千) 형의 노고가 크다. 그는 중국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사실 중국의 사지(史地) · 문자 · 풍속 등에 관해서 남달리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기실 본서의 번역은 대부분 그의 노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름이 실리는 것을 마다하였다. 그의 결백한 마음과 학자적 양심은 또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당(唐)과 서역(西域) · 인도의 언어 · 사지(史地)를 전공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현장이 생명을 걸고 불도를 구하듯, 석가의 마음을 구하고 천하의 공리를 구하는 많은 불제자들의 정신적 계발에 일조가 되기를 기구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번역이 법사의 본뜻에 크게 어긋난 점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잠시 두 손 모아 합장을 드린다.

1983년 4월 권덕주

# 차 례

역자 해제 ··· 5

대당서역기 역서(大唐西域記 譯序) ··· 15
경파(敬博)의 머리말 ··· 21

## 제 1 권

1. 고대 인도의 세계상〔須彌山說〕 ··· 28
2. 잠부주의 사주 ··· 29
3. 여러 나라 풍속 ··· 31
4. 호인의 습속 ··· 31
5. 아기니국 ··· 32
6. 쿠차국 ··· 33
7. 발카국 ··· 37
8. 누지칸드국 ··· 40
9. 타시켄트국 ··· 40
10. 페르가나국 ··· 40
11. 수토리시나국 ··· 41
12. 사마르칸드국 ··· 41
13. 마이무르그국 ··· 42
14. 카푸타나국 ··· 42
15. 쿠샤니야국 ··· 42
16. 카리간카트국 ··· 43
17. 부하라국 ··· 43
18. 벌지국 ··· 43
19. 콰리즘국 ··· 43
20. 캐상나국 ··· 44
21. 테르메즈국 ··· 45
22. 차가야나국 ··· 45
23. 훌로마국 ··· 46
24. 슈만국 ··· 46
25. 쿠와야나국 ··· 46
26. 왁슈국 ··· 46
27. 쿳탈국 ··· 46
28. 쿠마드국 ··· 47
29. 바글란국 ··· 47
30. 루시민강국 ··· 47
31. 쿨룸국 ··· 48
32. 발크국 ··· 48
33. 예말타국 ··· 50
34. 구즈간국 ··· 51
35. 탈라칸국 ··· 51
36. 가치국 ··· 51
37. 바미얀국 ··· 52
38. 카피시국 ··· 54

## 제 2 권

1. 인도 총설 ··· 63
2. 남파국 ··· 77
3. 나가라하르국 ··· 78
4. 간다라국 ··· 82

## 제 3 권

1. 웃디야나국 ··· 97
2. 발로라국 ··· 107
3. 탁샤실라국 ··· 107
4. 싱하푸라국 ··· 112
5. 우라샤국 ··· 114
6. 카시미르국 ··· 115
7. 파르노차국 ··· 125
8. 라자푸라국 ··· 125

## 제 4 권


1. 탁카국 ········ 127
2. 치나북티국 ········ 131
3. 잘란다라국 ········ 133
4. 쿨루타국 ········ 134
5. 샤타드루국 ········ 135
6. 파리야트라국 ········ 135
7. 마투라국 ········ 136
8. 스타네시바라국 ········ 138
9. 스루그나국 ········ 140
10. 마티푸라국 ········ 142
11. 브라흐마푸라국 ········ 148
12. 고비사나국 ········ 148
13. 아이찻트라국 ········ 149
14. 비라사나국 ········ 150
15. 카핏타카국 ········ 150


## 제 5 권


1. 카냐쿠브자국 ········ 154
2. 아유다국 ········ 165
3. 아야무카국 ········ 168
4. 프라야가국 ········ 169
5. 코샴비국 ········ 173
6. 비사카국 ········ 176


## 제 6 권


1. 시라바스티국 ········ 179
2. 카필라바스투국 ········ 188
3. 라마국 ········ 195
4. 쿠시나가라국 ········ 199


## 제 7 권


1. 바라나시국 ········ 210
2. 전주국 ········ 221
3. 바이샬리국 ········ 224
4. 브리지국 ········ 232
5. 네팔라국 ········ 235


## 제 8 권


1. 마다가국 ········ 237
2. 파탈리푸트라성 ········ 237
3. 계원사와 그 부근 ········ 245
4. 텔라다카 가람 및 그 부근 ········ 251
5. 불타성도 전의 사적 ········ 258
6. 불타 성도지(成道地)의 사적 ········ 260


## 제 9 권


1. 니란자나 강 동쪽 기슭의 사적 ········ 279
2. 옛 왕사성 부근의 사적 ········ 283
3. 날란다 부근의 사적 ········ 298


## 제 10 권


1. 이라냐파르바타국 ········ 311
2. 참파국 ········ 314
3. 카추기라국 ········ 315
4. 푼나밧다나국 ········ 316
5. 카마루파국 ········ 317
6. 사마타타국 ········ 319
7. 탐랄리프티국 ········ 320
8. 카르나수바르나국 ········ 321
9. 우드라국 ········ 322
10. 콩고다국 ········ 324

11. 칼링가국 ·····························324
12. 코살라국·····························325
13. 안드라국····························· 331
14. 다냐카타카국 ·························334
15. 초다국·······························336
16. 드라비다국 ···························338
17. 말라이콧타국·························339

## 제 11 권

1. 싱갈라국 ·····························343
2. 콩카나푸라국··························353
3. 마하랏타국 ···························354
4. 바루카차파국··························356
5. 말라바국 ·····························357
6. 아탈리국 ·····························360
7. 캇타국·······························360
8. 발라비국 ·····························360
9. 아난다푸라국··························362
10. 수랏타국·····························362
11. 굿자라국 ·····························363
12. 웃자야니국 ···························363
13. 척지타국·····························364
14. 마헤시바라푸라국 ·····················364
15. 신두국·······························365
16. 무라삼부로국·························366
17. 파르바타국 ···························367
18. 아점바시라국 ·························367
19. 랑갈라국·····························368
20. 페르시아국···························369
21. 피타샤일라국 ·························370
22. 아반다국·····························370
23. 바르나국····························· 371

## 제 12 권

1. 자구다국 ·····························374
2. 브리지스타나국························375
3. 안다라바국 ···························376
4. 카스타국·····························376
5. 와르국·······························377
6. 뭉간국·······························377
7. 아리니국 ·····························378
8. 라그국·······························378
9. 크리시마국 ···························378
10. 파리가르국 ···························378
11. 히마탈라국···························379
12. 바다크샤나국 ·························379
13. 얌바간국·····························380
14. 쿠라나국·····························380
15. 다르마스티티국························ 381
16. 시키니국·····························383
17. 상미국·······························383
18. 카르반다국 ···························385
19. 우사국·······························388
20. 카샤국 ·······························390
21. 차쿠카국····························· 391
22. 쿠사타나국···························392

발문 · 찬·································407

## 경파(敬搏)의 머리말

생각건대 천지는 광대한 것이나 인류의 종족의 상위(相違)에 대해서는 《담천(談天 : 전국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저술한 고대 천문서)》도 그 극한을 연구해 밝혀내지 못하고 《괄지(括地)》〔우(禹)가 얻었다고 하는 고대 지리서인 《괄지상도(括地象圖)》를 가리킴〕 또한 그 시작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지(方志)》가 전해 주고 있지 않은 지역이나 중국의 정치가 미치지 않은 방면에 관한 것을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내력이 매우 오래 되었으며 성현의 수도 많고 또 인의(仁義)가 그 나라의 습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한 고대의 일이며,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이므로 《산해경(山海經 : 先秦의 지리책)》에도 적혀 있지 않고 《왕회(王會 : 周公이 법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여 만든 책)》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한(漢)나라 때 박망후 장건(博望侯 張騫)은 서역으로의 길을 개통시켰지만, 촉(蜀) 땅의 경영에 뜻을 두었을 뿐이며, 무제(武帝)는 곤명(昆明)의 토민(土民)에 의한 통행 방해 때문에 그 평정을 위한 훈련에 힘을 쏟았을 뿐입니다.

이리하여, 그 옛날에는 석가 탄생의 상서(祥瑞)를 별의 운행에 나타내어 그 불가사의한 조짐을 주대(周代)에 알렸는가 하면, 가까이는 백일(白日)의 빛을 띤 부처의 모습을 명제(明帝)의 꿈에 보임으로써 장엄한 부처의 빛을 만 리 머나먼 중국 땅에 비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채음(蔡愔)이 서역을 방문하여 마등(摩騰)을 대동, 낙양에 돌아온 다음에야 비로소 경전이 난대(蘭臺)의 석실에 간수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그것이 용궁 깊숙이 있는 것을 전부 포함했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비록 불상을 양대(凉臺)에 그렸다고는 해도 영취산(靈鷲山)의 미를 따를 수 있는 것도 못 되었습니다.

그 뒤, 시국은 다난해졌습니다. 환관이 권세를 믿고 대립한 가운데 국도는 혼란에 빠져들고, 등후(鄧后)는 조정에 불화를 심어 국정의 기능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국가의 질서는 낙양 장안에서조차 유지되지 못했으며, 국경에서는 밤낮없이 외적의 침입을 고하는 봉화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방에는 성채가 쌓여 교통 사정이 어렵게 되었으니, 인도와 같은 절역(絕域)에 쉽사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행운을 얻어 가본 사람이 있고, 얼마간의 기록을 남기고도 있습니다만, 그 풍습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 채, 다만 경전을 가져왔을 뿐, 진리의 구극을 꿰뚫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나라는 천하통일 후, 경역(境域)의 확대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역시 서해(西海 : 隨書 《지리지(地理志)》에 "서해군은 옛날의 복사성(伏俟城)에 둔다. 즉 토곡혼국(吐谷渾國)이다"라고 되어 있음)를 돌아보면서는 역부족에 장탄식을 하고 동락(東洛 : 보통 낙양을 가리키지만, 이본에 東離라고도 되어 있다. 한 대 서역의 나라 이름)을 멀리 바라보면서는 생각이 천만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을 옥문관(玉門關) 밖에 내건 자는 많았습니다만 총령(葱嶺)의 하원(河源)까지 발섭(跋涉)한 자는 기록할 정도의 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설산(雪山 : 히말라야)을 목표로 하여 멀리 길을 떠나고 용지(龍池 : 히말라야 북쪽의 아나바타부타)를 바라보며 피로해진 발을 쉰 자는 있었을 턱이 없습니다. 이 또한 수 왕조의 덕이 만물을 덮지 못하고 그 위신이 멀리까지 뻗치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대당(大唐)이 천하를 영유하자 천자는 우주를 열어 제왕의 대업을 도모하고, 모든 장애를 일소하여 국가의 전도를 안태하게 하였습니다. 그 공적은 천지에 필적할 만큼 위대하며 그 광휘는 일월의 빛과 같이 밝습니다.

백성들은 시랑(豺狼)의 위험에서부터 구출하여 소생하게 하고, 어느 집이나 음험한 자들의 마수로부터 해방시켜 수명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민족의 거주구를 장안(長安)의 호가〔한 대 장안성문 안에 있었던 여러 이족이 산 주택가를 이름〕에 일괄시키고, 변경 만이(蠻夷)의 땅 역시 그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리하여 십주(十洲 : 仙人이 산다는 섬들)를 뜰로 하고 사해(四海)를 못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 대업은 오히려 오제(五帝)의 공업을 작다 하고, 상고(上古)의

제왕의 발자취를 또한 내려다 볼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어려서 불문에 귀의한 이래, 기원정사(祇園精舍)를 찾는 자 없음을 탄식하고, 자라서도 석가의 발자취를 사모하여 녹야원(鹿野園) 저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불적(佛跡)으로의 여행은 법사의 염원이었습니다.

때마침 대당의 덕화(德化)가 서쪽으로 뻗치고, 변새 지방 또한 동방에 귀복(歸復)하게 되었으므로, 정관(貞觀 : 당나라 태종 때의 연호) 3년, 석장(錫杖 : 지팡이)을 손에 쥐고 출발하였습니다.

천자의 은덕을 받고 외지에 나갔기 때문에 험난한 길도 평지를 가는 것과 같았으며, 또 신불(神佛)의 도움을 받고 험로에 임했기 때문에 위험이 닥쳐왔어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기후가 몇 번씩 바뀌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진리를 탐구하여, 보기 어려운 실상을 공(空)과 유(有) 사이에서 보고, 정묘한 이법(理法)을 고찰하여, 듣기 어려운 정법(政法)을 생(生)과 멸(滅) 사이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문을 깊은 고구(考究)로써 해결하고, 바른 이해에 의하여 미맹(迷盲)을 해소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경전을 모조리 음미하고, 모든 불적(佛跡)을 하나도 빼지 않고 조사하면서 각지를 돌아다니기 수년, 겨우 귀로에 올라 19년 정월, 장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입수한 경론이 6백 57부, 법사는 임금의 뜻이 담긴 문서를 받고서 이를 번역하였습니다.

친히 돌아다닌 나라가 1백 10국, 전해 들은 나라는 28국으로서, 전대의 기록에 있는 나라도 있고 이제 처음 듣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건 간에, 이제 나무 열매를 먹고 못의 물을 마시는 고생을 하면서도 예를 갖추어 우리 대당에 귀복하며, 관원에서 통역을 부탁하여 험한 산길을 넘어 봉물짐을 날라 오고 있는가 하면, 궁정에 열석하는 것을 영광스런 명예로 여겨 손뼉치면서 정장(正裝)하여 모이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각국의 산물 풍토의 차이나 습속, 지형의 상위는, 옛것은 서적에 비추어 알아보고,

가까운 것은 고로(故老)에 좇아 바로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법사는 먼 외국의 모습을 눈으로 본 대로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록할 필요 없이, 이미 서적으로서 종합하여 이름을《대당서역기》라 하고 1질(帙) 15권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생각건대 나의 이 머리말은, 내용을 잠깐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줍잖은 말일 뿐이므로 모자람을 보충해 줄 것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비서 저작좌랑(秘書著作佐郎 : 문서를 관장하는 비서성 저작랑의 속관)인 경파(敬播 : 貞觀 때의 進士)가 머리말에 갈음합니다.

**본서(本序)**

널리 제왕의 도를 상고해 보고, 또 고대 천자의 기록을 살피건대, 처음에 태호 복희씨(太昊伏羲氏 : 상고시대의 제왕)가 동방에 즉위하고, 황제 헌원씨(黃帝 軒轅氏 : 상고시대의 제왕)가 천하에 군림한 것은 백성을 무육(撫育)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천하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뒤 제 요(帝堯)가 천명을 받아 즉위하자 위광은 사방에 미치고, 제 순(帝舜)이 익지(益地)의 도(圖)를 수납하면서 덕화(德化)는 구주(九州)에 넓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훗날에는, 사람들이 성인군자의 기록을 헛되이 전승하고, 또 전현(前賢)의 말도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서 귀에 탈 뿐, 지난날의 유도(有道)의 시대, 무위태평(無爲太平)의 기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왕의 대에 이르러, 천자는 하늘을 본떠 황위에 즉위하고 시운에 따라 정치의 중추를 쥐었으며, 천하를 하나로 사방을 덕화함으로써 상고 때의 삼황(三皇)에 비견할 정도로 훌륭하게 천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감화는 사방에 미치고, 서풍(瑞風)은 멀리까지 불어 천지가 만물을 감싸는 것과 같고, 또 비바람이 자연의 은총을 베푸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 동이(東夷)가 조공을 하고, 서융(西戎)이 질서에 복종하게 되면서, 나라의 기초를 다져 자손에 전하고, 난세를 평정하여 바른 세상으로 되돌린 업적은 말할 것도 없이 전대의 제왕을 능가하여 오히려 전세의 사적을 모두 포함시킬 만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천하의 통일을 성취한 신(神)의 재주와 같은 이 공적은 글로 쓰지 않을 때 그 큰 업적을 찬미할 수 없고, 일일이 명언(明言)하는 이외에는 그 대사업을 칭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장은 오직 서역 여러 나라를 여행한 그대로 각기의 풍토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풍속을 충분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에는 삼황오제 때 이상으로 천자의 은총이 미치고 있고, 살아 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어느 민족이나 천자의 공적을 찬양하고 있는 터입니다. 중국에서 멀

리 천축(天竺)에 이르기까지, 변경의 이민족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모두 대당의 달력을 쓰면서 덕화를 받고 있으며, 수많은 당 왕조의 무공담을 화제로 문덕(文德)의 성대함을 또한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록 전적을 자세히 조사한다고 해도 전대미문의 일이며, 상고의 지리 · 역사를 훑어봐도 무엇 하나 비슷한 사실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서술해 두지 않으면 당 왕조의 교화가 어떻게 성대했나 함을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견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일부 전말을 기술하고자 하는 터입니다.

# 제 1 권

### 1. 고대 인도의 세계상〔須彌山說〕

사하세계〔索訶 : 옛날에는 娑婆世界 또는 娑訶世界라 했지만 모두 잘못임〕의 삼천대천국토(三千大千國土 : 一佛이 중생을 攝受化益하는 境域)는 일불(一佛)이 교화섭수하고 있다.

지금 일일월(一日月)이 비추고 있는 사천하(四天下 : 須彌山 사방에 있는 4대 주)는 삼천대천세계의 안에 위치해 있으며 제불세존(諸佛世尊)은 모두 이 세계에 교화를 펴면서 생(生)을 나타내고 멸(滅)을 나타내어, 성(聖)과 범(凡)을 인도하고 있다. 이 세계의 중앙에 선 수메루 산〔蘇迷盧山 : 唐에서는 妙高山이라 한다. 옛날에는 須彌 또는 須彌婁라 했는데 모두 잘못임〕은 사보(四寶 : 황금 · 백은 · 琉璃 · 頗璃)로 만들어졌는데 대해 안에 있고 금륜(金輪 : 金剛輪 또는 鐵圍라고도 함) 위에 위치해 있다. 해와 달이 비추며 여러 천인(天人)이 노니는 곳이다. 그 주위를 일곱 개의 산과 일곱 개의 바다가 고리 모양으로 잇고 있으며, 산과 산 사이의 바닷물은 팔공덕(八功德 : 甘 · 冷 · 輭 · 輕 · 淸淨 · 不臭 · 飮時不損喉 · 飮已不傷腹)을 갖추고 일곱 개 금산(金山)의 바깥쪽은 함해(鹹海)이다. 짠 바닷물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4주(四洲)이다.

동은 비데하주〔毘提訶洲 : 옛날에는 弗婆提, 弗于逮라 했으나 잘못임〕, 남은 잠부주〔贍部洲 : 옛날에는 閻浮提洲, 剡浮洲라 했으나 잘못임〕, 서는 구다니주〔瞿陁尼洲 : 옛날에는 瞿耶尼 또는 瞿伽尼라 했으나 잘못임〕, 북은 구루주〔拘盧洲 : 옛날에는 鬱單越 또는 鳩樓라 했으나 잘못임〕이다.

금륜왕(金輪王)은 그 교화로 사천하(四天下)를 다스리고, 은륜왕(銀輪王)은 그 정치에 있어 북 구루를 제외하고, 동륜왕(銅輪王)은 북 구루 및 서 구다니를 제외하고, 철륜왕(鐵輪王)은 다만 잠부주만을 다스린다.

대저 윤왕(輪王 : 몸에 三十相을 갖추고 그 輪寶로 사방을 항복시킴으로써 생긴 이름)은 그 대위(大位)에 즉위하자 그 복덕(福德)이 미치는 바에 따라 큰 윤보(輪寶)가 공중에 뜨면서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감득하는 윤보에 금 · 은 · 동 · 철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통치하는 경역에도 4 · 3 · 2 · 1의 차이가 생긴다. 즉위에

즈음해서 서상(瑞祥)에 따라 그 칭호로 하는 것이다.

잠부주의 중앙이 아나바탑타지〔阿那婆答多池 : 唐에서는 無熱惱라 함. 옛날에는 邪耨達池라 했으나 잘못임〕이다. 향산(香山)의 남쪽 대설산(大雪山 : 히말라야) 북쪽에 있는 바, 주위가 8백 리이다. 금 · 은 · 유리 · 파지(頗胝 : 玉 · 水晶)가 그 기슭을 장식하고 있다. 금모래가 한껏 펼쳐져 있고, 맑은 물결은 거울과 같다. 팔지(八地 : 菩薩修行의 차례를 52로 나누고 그 4위부터 50위까지를 十地로 하는데, 팔지는 그 여덟 번째)의 보살이 그 원행(願行)의 힘 때문에 용왕이 되어 이 못 속에 살면서 맑고 시원한 물을 흘려 잠부주로 공급하고 있다.

못의 동쪽 은우(銀牛)의 입에서 강〔巨反勝〕, 가하(伽河 : 지금의 갠지스 강, 옛날에는 恒河 · 恒伽라 했으나 잘못임)가 흘러나와 못을 한 바퀴 돈 다음 동남쪽 바다로 든다.

못의 남쪽 금상(金象)의 입에서는 신도하(信度河 : 옛날에는 博叉河라 했으나 잘못임. 지금의 암타야 강)가 흘러나와 못을 한 바퀴 돈 다음 서북쪽 바다로 든다.

못의 북쪽 파지사자의 입에서는 시다하(侍多河 : 옛날에 私陁河라 했으나 잘못임. 지금의 얄칸드 강)가 흘러나와 못을 한 바퀴 돈 다음 동북쪽 바다로 든다. 혹은 지하로 스며들어 적석산(積石山)으로 나오는 것이 시다하이며 중국 황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 2. 잠부주의 사주

때에 따라 윤왕(輪王)의 시운에 맞지 않아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잠부주에 네 사람의 군주가 나온다.

남쪽은 상주(象主)인데 더운 곳으로 코끼리에 걸맞고, 서쪽은 보주(寶主)로 바다를 바라보며 보배가 가득 차 있다. 북쪽은 마주(馬主)로 추위가 심하여 말에 걸맞고, 동쪽은 인주(人主)로 온화하여 사람이 많다.

상주의 나라는 기성(氣性)이 거세고 학문에 열심인데 특히 이술(異術)에 출중하다.

복장은 천을 가로 감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놓았으며, 머리는 상투를 틀고 나머지는 사방으로 늘어뜨리고 있다. 같은 종족이 부락을 이루어 모여 살며, 집은 몇 층의 각(閣)을 이루고 있다.

보주의 나라는 예의가 없고 재화만을 소중히 여긴다. 의복은 짧고, 왼쪽 깃을 앞으로 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기르고 있다. 성곽을 갖추어 주거를 만들고 재화를 늘리는 것에 힘쓴다.

마주의 습속은 천성이 거칠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별로 개의함이 없다. 모직 휘장을 두른 궁려(穹廬 : 모양이 활처럼 굽은 천막 주거)에 살며, 마치 새와 같이 여기저기로 주거를 옮기면서 풀을 따라 목축(牧畜)을 한다.

인주의 고장은 기민하고 인의(仁義)가 세상에 밝은 곳이다. 복장은 관을 쓰고 신대(紳帶)를 했으며 오른쪽 앞깃, 수레나 의복의 제(制)에도 서열이 있다. 고향에 안주하려 하면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일에는 각기의 구분이 있다.

남 · 서 · 북 삼주의 습속은 동방을 최상으로 여겨 그 거실은 동쪽으로 문을 달고 해돋이 때는 동쪽을 향하여 예배드린다. 그러나 동방 인주의 고장에서는 남쪽을 가장 존중한다. 이것이 고장에 따른 풍습 대강의 차이이다.

군신 상하의 예의, 법도장전(法度章典), 문자차궤(文字車軌) 등의 제정에 있어서, 인주의 고장은 이제 더 덧붙일 것이 없을 정도이다.

마음을 맑게 하고 욕(欲)을 없이 하는 것을 가르치며, 생사의 고뇌를 떠나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은 상주의 나라가 그 도리에 있어 가장 출중하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책에 의하여 이를 밝히고,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말을 들었으며, 한편 널리 고금에 물어 자상하게 견문한 바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하여 불타는 서방에서 일어나고, 불법은 동국에 전해졌지만, 통역한 음이 잘못되고 방언으로 하여 잘못됨이 있음을 알았다. 음이 잘못되면 뜻을 잃고 말이 잘못되면 이치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않겠는가(必也正名乎, 《논어》 〈자로〉편)"라고 한 말은 오류 없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 3. 여러 나라 풍속

대저 사람에게는 성질의 굳세고 부드럽고를 달리하고 언어 · 음성을 같이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이는 풍토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습속에 의한 것도 있다.

산천 물산이나 풍속 성질의 차이로 볼 때, 인주의 고장은 국사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마주의 고장의 습속과 보주의 고장의 습속도 역사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거의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주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불분명하여, 혹은 그 고장은 아주 덥고 습기가 많다고 쓰여 있기도 하고, 혹은 그 습속은 인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지방지(地方志)에 실려 있기도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찌 도(道)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할 도리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본디 세상 돌아가는 명운(命運)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칙을 보아 귀화하거나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온 사람, 험준을 넘어 옥문관(玉門關)에 정의(情證)를 통하거나 여러 지방의 진기한 산물을 바쳐 왕궁의 주문(朱門)에 참배하는 자들은 생각한 대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런 까닭으로, 길을 물어 멀리 여행을 하고, 가르침을 청한 틈틈이 여러 지방의 풍토에 대해 썼을 뿐이다.

## 4. 호인의 습속

흑령(黑嶺 : 바미얀〔梵衍那〕에서 카비시〔迦畢試〕에 이르는 곳에 있는 산. 아프가니스탄 중앙부에 동서로 뻗친 산맥으로 동북동에서 힌두쿠시로 연결됨)보다 이쪽은 호풍(胡風) 아닌 곳이 없고, 미개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같은 종족만으로 떼를 지어 나뉘었으며 영토의 경계를 구분 지은 가운데 대체로 땅에 의지하여 생을 영위한다. 성곽을 짓고 농업 ·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질은 재화를 중히 여기고 습속은 인의(仁義)를 가벼이 여기며 결혼에는 정해진 예도 없고 귀천의 질서도 없다. 여자의 말을 존중하므로 남자의 격은 떨어진다. 죽으면 그 유해는 태우고 복상(服喪)의 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안면을 상처내고 귀를 자르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찢으며 많은 가축을 도살하여 사자의 혼을 제사 지낸다. 좋은 일에는 흰 옷을 입고 나쁜 일에는 검은 옷을 입는다.
이상은 풍속을 같이하거나 혹은 달리한 점을 대충 추려 쓴 것이다. 그러나 정치나 제도를 달리한 점은 그 고장 고장에 따라 별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인도의 풍속은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다. 고창(高昌 : 지금의 新疆省 투르판〔吐魯番〕 동남동의 카라코자〔喀喇和卓〕 고지(故地)를 나서서 가까운 곳은 우선 아기니국(阿耆尼國 : 옛날에는 焉耆라 함)이다.

## 5. 아기니국

아기니국(지금의 카라샤르 지방)은 동서 6백여 리, 남북이 4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6~7리, 사방은 산에 둘러싸여 길은 험하고 지키기 좋은 곳이다.
우물의 흐름이 서로 뒤섞여 물을 끌고 밭으로 간다. 토양은 수수 · 보리 · 대추 · 포도 · 배 · 사과 등에 적합하며 기후는 따뜻하고 풍속은 소박하며 순직하다. 문자는 그 본을 인도에서 떠서 약간 증감하고 있다. 옷은 무명 · 모직물을 몸에 걸치고 머리는 짧게 하고 두건은 쓰지 않고 있다.
화폐는 금전 · 은전 · 소동전을 사용하고 있다. 왕은 이 나라 사람이며 용감하기는 하나 병략에는 어둡고 스스로 병란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나라에 규율이 없고, 법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절은 십여 군데, 승려는 3천여 명으로 소승교(小乘敎)의 설 일체유부(一切有部)를 학습하고 있다.
교의의 규범이 되는 표준은 인도에 따르고 있으므로, 학습하는 자들은 인도 원문을 읽고 있다. 계행(戒行)의 규준은 청결과 근면이지만, 식사는 세 가지 정육(淨肉)을 먹는 것을 허용하여 점교(漸敎)에 머물러 있다.

이보다 서남쪽으로 2백여 리 가서, 한 작은 산을 넘고 큰 강을 둘 건너면 서쪽은 평탄한 곳으로 되는데, 거기서 7백 리를 걸으면 쿠차국〔屈支國 : 옛날에는 龜玆〕에 이른다.

## 6. 쿠차국

쿠차국〔지금의 庫車 : kucha 지방〕은 동서 1천여 리, 남북이 6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7~8리 된다. 땅은 수수 · 보리를 심기에 알맞고 찹쌀도 생산한다. 포도 · 석류가 나며 배 · 사과 · 복숭아 · 살구가 많다. 땅에서는 금 · 동 · 철 · 연 · 주석이 생산된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질박하다. 문자는 인도에서 본뜬 것을 조금 개변시키고 있다.

관현기악(管弦伎樂)은 특히 여러 나라 가운데 이름이 높다. 의복은 비단이나 모직물을 사용하며, 머리카락은 짧게 하고 두건을 쓴다. 화폐로는 금전 · 은전 · 소동전을 사용한다.

국왕은 쿠차 종족인이다. 지략은 빈약하여 강력한 가신들한테 눌려 지낸다.

그 습속으로서는 아기를 낳으면 나무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려 한다. 절은 1백여 군데, 승려는 5천여 명으로, 소승교의 설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교의의 기준은 인도에서 따고, 그 읽는 것은 인도문이다.

아직껏 점교에 머무르고 있으며, 식사는 세 가지 정육을 섞고 있다. 청결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공덕 쌓기를 다투고 있다.

### 1) 용지(龍池)

나라 동쪽에 있는 성의 북쪽 천사(天祠 : 마헨스바라〔摩醯首伐羅〕 즉 大自在天을 받드는 사당) 앞에 큰 용지가 있다.

여러 용이 모습을 변하여 암말〔牧馬〕과 교접함으로써 용구(龍駒)를 태어나게 했다.

사나워서 타기가 어려웠는데, 새끼였을 때 겨우 순치시켜 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좋은 말이 많이 난다. 이것을 옛사람들에게 들었더니 근대에 금화(金花)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정교(政敎)에 명민했다. 그는 용을 감복시켜서 탈것으로 삼고 있었는데 왕이 죽을 무렵, 채찍이 용의 귀에 닿자마자 용은 삽시간에 쓰러진 채 그곳이 연못으로 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안에는 우물이 없어서 그 연못의 물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용은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부인네들과 만났다. 부인들이 낳은 아기는 용감하고 발이 빠르기는 분마(奔馬)를 따라잡을 정도였다.
이래서 차츰 번져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용종(龍種)으로 되면서 힘을 믿고 위세를 떨쳐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왕은 돌궐(突厥)을 끌어들여 이 성 사람들을 죽였다. 노약자까지 모두 죽여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성은 지금은 황폐해져 인연(人煙)이 끊어지고 말았다.

2) 소호리 가람

황성(荒城) 북쪽 40여 리, 산 어귀에 접하여 하나의 산 속에 두개의 가람(사원)이 있다. 똑같이 소호리(昭怙釐 : 현재의 고차 북북동 약 20km 떨어진 수바시 근방 銅廠江 동서 양기슭에 있는 절터라 함)라는 이름으로 위치에 따라 동소호리, 서소호리라 부르고 있다.
불상의 장엄함은 거의 인공(人工)의 것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승도는 계율이 맑고 참으로 잘 정려하고 있다.
동소호리 불당 안에 옥석이 있는데, 그 면의 넓이는 2척 남짓이며 색은 황백을 띠고 대합조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위에는 불타의 발바닥 자국이 있고(이른바 佛足石), 길이는 1척 8촌, 넓이는 6촌 남짓하다. 재일(齋日)에 광휘를 내는 일도 있다.

3) 무차회(無遮會)와 행상(行像)

대성(大城) 서문 바깥 길 좌우에는 각기 입불(立佛)의 상의 높이가 90여 척 되는

것이 있다. 이 상(像) 앞에 5년 일대회(五年一大會 : 5년마다 道俗貴賤을 가리지 않고, 대중을 공양하는 齋會) 회장을 세운다. 해마다 추분(秋分) 때 수십일 동안은 나라 안의 승려가 모두 여기에 모여든다. 위로는 군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병사 · 서민에 이르기까지 세속의 일을 그만두고 재계(齋戒)를 지키며 경(經)을 받고 설법을 듣는데 오랫동안 날을 보내고도 오히려 피로를 잊을 정도이다.

많은 가람의 장엄한 불상은 진귀한 보석으로 빛을 내고 비단으로 장식하고서 이를 가마에 싣고 간다. 이를 행상(行像)이라고 하는데, 천(千)을 헤아릴 정도로 회장에 구름처럼 모인다. 보통은 보름날과 그믐날에 국왕 · 대신이 국사를 의논하고 고승을 찾아 물은 연후에 처음으로 선포한다.

4) 아시차리야 가람

회장의 서북쪽에서 강을 건너면 아시차리야 가람(阿奢理貳伽藍 : 唐에서는 奇特이라 함)에 이른다.

뜰이나 건물이 툭 트였으며 불상은 정교하고도 장엄하다. 승도는 엄숙히 정려하여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다. 어느 누구고 간에 장로유덕(長老有德)하고 학식 깊으며 재능 있는 사람들이다.

먼 곳의 준재(俊才)들도 의(義)를 사모하여 유학하고 있다. 국왕 · 대신으로부터 사민(士民) · 호족에 이르기까지 사사공양(四事供養 : 의복 · 臥具 · 음식 · 湯藥을 시주하는 것을 이름)을 하고, 오래 감에 따라 더 존경한다.

고로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옛날, 이 나라의 선왕은 깊이 삼보(三寶 : 일체의 불타를 佛寶, 불타가 설교한 교법을 法寶, 그 교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를 僧寶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합한 것)를 경모했으며, 곧 멀리 불타의 성적(聖跡)을 참배하려고 했다. 그래서 동복(同腹)의 아우에게 나랏일을 보아 주도록 명령했다.

그 아우는 명을 받자, 몰래 제 손으로 제 남근(男根)을 잘랐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려 한 일이었다. 이것을 금 상자에 넣어 봉하여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다.

아우는 "돌아오시게 되는 날 열어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것을 집사(執事)에게 주어 군대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왕이 돌아오자 과연 거짓으로 얘기하는 자가 있어, "왕의 아우는 중궁(中宮)의 풍기를 어지럽혔습니다"라고 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대단히 노하여 엄한 형에 처하려고 했다.

아우는 "책망을 벗어나려 함은 아니옵시다만, 아무쪼록 금 상자를 열어 봐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이 아우의 말대로 금 상자를 열고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절단한 남근이었다. 왕은 "이건 무슨 이물(異物)인가. 무엇을 분명히 하려 함인가?"라고 말했다.

아우는 "왕께서 먼 곳으로 떠나실 때, 나랏일의 부탁을 명령받았습니다. 저는 혹시 참언을 받을 일도 있을지 모른다 싶어 남근을 잘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상한 대로 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굽어 살피소서" 하고 대답했다.

왕은 이 뜻밖의 일에 아주 놀랐고 이후 형제의 우정은 아주 두터워졌으며 중전으로 드나들어도 허물이 없게 되었다. 왕의 아우는 그 뒤, 길에서 한 사내가 5백 마리의 소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다. 거세시키고자 함이었다. 아우는 이를 보고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세될 소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꼈다. 내가 지금 신체를 손상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전세의 숙업(宿業)이리라 생각한 그는 곧 많은 돈을 지불하여 그 소떼를 사들였다. 이 자선의 힘으로 남근이 차츰 원상태로 되어 갔다. 남근이 원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중전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왕이 의아스럽게 생각해 물었으므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왕은 기특한 일이라며 가람을 세워 미사(美事)를 표창하고 미담을 후세에 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기 6백여 리, 작은 사막을 지나면 발카국에 이른다.

## 7. 발카국

발카국(跋祿迦國 : 지금의 阿蘇克(Aq-su)라느니, 哈拉玉爾滾(Qara-yurgen), 혹은 雅卡阿里克(Yakaaryk)라 하는 등 제설이 분분함. 옛날에는 姑墨 또는 亟墨이라고도 함)은 동서 6백여 리이고 남북이 3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5~6리이다.

산물 · 기후 · 인정 · 풍속 · 문자의 법칙은 쿠차(屈支)국과 같으나 언어는 다소 다르다. 이 나라의 가는 올로 짜는 모전(毛氈)이나 모직물은 이웃 나라에서 소중히 여겨 준다. 가람은 수십 군데로, 승려는 1천여 명이며 소승의 설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 1) 능산(凌山)

이 나라의 서북쪽으로 가기 3백여 리, 돌이 많은 사막을 지나 능산(凌山 : 氷山의 뜻)에 닿았다. 이것이 총령(葱嶺 : 파미르)의 북쪽 시작이며 물은 대부분이 동으로 흐르고 있다.

산이나 골짜기에 쌓인 눈은 봄 · 여름에도 얼어붙어 있어서, 간혹 가다가 녹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또 결빙해 버린다. 길은 험조(險阻)하고 찬바람이 몰아치며 난폭한 용(龍)의 난을 당하는 일이 많아 길손을 괴롭힌다.

이 길을 가는 자는 결코 붉은 상의를 걸치거나 박(瓠)을 지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대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이 사항을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재화(災禍)는 가는 곳마다 따르고 폭풍이 휘몰아치며 모래가 날고 돌이 비같이 쏟아져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거니와 잃기도 한다.

### 2) 대청지(大淸池)

산길을 가기 4백여 리 해서 대청지(大淸池 : 혹은 熱海, 海라고도 함. 지금의 이식쿨湖)에 닿았다.

주위는 1천여 리, 동서는 길고 남북은 좁다. 사면은 산에 둘러싸였고 많은 하천의

물길이 여기에 모여 있다. 색은 검푸르고 맛은 짜거나 쓰다. 커다란 물결이 끝도 없이 거칠게 일고 있으며 용(龍)과 고기가 함께 잡거하여 가끔씩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왕래하는 나그네는 희생물을 바쳐 복을 빈다. 고기류는 많지만 굳이 잡는 자는 없다.

3) 수얍수 성(素葉水城)

청지(淸池)에서 서북으로 가기 5백여 리에 수얍수 성에 이른다. 성의 주위는 6~7 리이고, 제국의 상호(商胡 : 상업에 종사하는 胡人)가 잡거하고 있다.

땅은 수수 · 보리 · 포도에 좋고, 나무는 듬성듬성하고, 기후는 바람 끝이 차며, 사람들은 전(氈 : 細毛의 직물)이나 갈(褐 : 거친 모직물)을 입고 있다.

4) 술리총기(利總記)

수얍에서 서쪽으로 수십 개의 고성(孤城)이 있는데, 성마다 장(長)을 세워 놓고 있다.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돌궐(突厥)에 예속되어 있다.

카상나국(竭霜那國)에 이르기까지의 고장은 술리(窣利 : 동양사 사상 유명한 Soghdiana)라 이름하며, 사람은 술리인이라 한다. 문자 · 언어도 그 명칭에 따라 술리 문자 · 술리어라고 일컫는다. 글자의 생김새는 간략하여 본래는 20여 문자인데, 그것이 조합하여 어휘가 되고 그 방법이 차츰 번져 글을 기술하고 있다.

기록이 있으며 그 글을 세로로 읽고 있다. 그 방법을 차례로 전수하여 스승도 제자를 바꾸는 일이 없다. 전이나 갈을 몸에 감고, 가죽이나 첩(氎 : 무명 직물)을 걸치고 있으며 치마나 옷은 좁아서 몸에 찰싹 붙고,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정수리를 내고 있든지 혹은 아주 배코를 쳐서 색띠를 이마에 두르기도 한다.

몸집은 크지만 성격은 겁쟁이이며, 풍속은 경박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있다. 대체로 욕심꾸러기여서 부자가 함께 이식(利殖)을 꾀하고 있다. 재산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신분이 좋은 것, 천한 것의 구별이 없다.

가령 거액의 부자라 해도 의식은 조악하다. 역전(力田 : 백성)과 축리(逐利 : 장사치)가 절반씩이다.

5) 천천(千泉)

수얍수 성 서쪽으로 4백여 리 가면 2백여 평방리의 천천에 이른다. 남쪽은 설산이고 삼방은 평지이다. 땅은 물이 풍족하고 숲의 나무들은 가지가 무성하며 늦봄에 피는 꽃은 비단과 같다.

샘〔泉〕이나 못이 1천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다. 돌궐의 가한(可汗)이 해마다 피서하러 온다. 이곳에는 무리를 지은 사슴이 있는데, 대부분 방울을 단 목걸이를 걸었고 사람과 친숙해 놀라 도망치는 법이 없다.

가한은 이를 사랑하여, 부하들에게 만약 이를 살해하는 일이 있으면 주벌(誅罰)을 받되 절대로 사면되지 못하리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 무리를 이룬 사슴은 그 수명대로 온전히 살 수가 있었다.

6) 달라스 성과 중국인 거류지

천천에서 서쪽으로 1백 4~50리 가면 달라스 성(呾邏私城 : 지금의 Talas강 굴곡점에 있는 다잠불 근방에 그 廢址가 있음)에 이른다.

성의 주위는 8~9리인데, 제국의 상호(商胡)가 잡거하고 있으며 산물과 기후는 대체로 수얍과 같다.

남쪽으로 십여 리 가면 자그마한 3백여 호의 성이 있으며 본래는 중국인들이다. 옛날에 돌궐에 납치당하여, 그 뒤 그대로 한 고장에 모이면서 함께 이 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성안에서는 주거 · 의복 · 거취는 그대로 돌궐에 동화되었으나 언어나 예의는 지금 오히려 중국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

7) 악수 성

이보다 서남쪽으로 2백여 리를 가면 악수 성〔白水城〕에 이른다. 성의 주위 6~7리로 고장의 산물 · 기후는 달라스보다 월등히 낫다.

8) 콩고 성

서남으로 가기 2백여 리 해서 콩고 성〔恭御城〕에 이른다. 성의 주위는 5~6리로 토

지는 원습(原隰 : 고저가 있고 좋음)하고 숲은 무성하다. 이보다 남쪽으로 4~50리 가면 누지칸드〔笯赤建國 : 奴故反〕에 이른다.

## 8. 누지칸드국

누지칸드국(笯赤建國 : 분명치 않음. 중세 이슬람 문헌에 보이는 Nujkath, Nuikand인 듯)은 주위가 1천여 리이다. 토지는 기름지고 농업을 충분히 영위하며 초목은 무성하고 꽃이나 과일도 아주 잘 된다. 포도가 많은데 이것도 귀히 여겨지고 있다.

성이나 고을은 1백이나 되고, 각기 주군(主君)을 달리하고 있는데, 진퇴왕래는 서로 지시를 받지 않는다. 토지를 나누어 구분은 하고 있지만, 전체를 누지칸드국이라 총칭한다. 이보다 서쪽으로 2백여 리 가면, 타시켄트국〔赭時國 : 唐에서는 石國이라 함〕에 이른다.

## 9. 타시켄트국

타시켄트국〔赭時國 : 지금의 Tashkent〕은 주위, 1천여 리로, 서쪽으로 얍하〔葉河 : 지금의 Syr Darya. 지난날에는 Jaxrtes〕를 바라보고 있다.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다. 산물 · 기후는 누지칸드와 같다. 성이나 고을은 수십 개 있으나 각기 주군을 달리 받들고 있다. 전체의 군주는 없고 돌궐에 예속되어 있다. 이보다 동남쪽으로 1천여 리 가면 페르가나국에 이른다.

## 10. 페르가나국

페르가나국〔拔汗國 : 唐代에는 寧遠國, 明淸代에는 코간드〔霍罕, Khokand〕국이라 했음〕은 주위 4천여 리, 산이 사방으로 두르고 있으며 토지는 비옥하고 농업이 성하다. 꽃이나 과일이 많고, 양이나 말치기에 적합하다. 기후는 쌀쌀하고 사람의

성질은 강용(剛勇)하다. 언어는 제국과는 다르고, 얼굴 모습은 보기 싫게 뒤져 있다.
수십 년 사이 대군주(大君主)는 없고, 힘 있는 호족(豪族)이 서로 다투며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 강이나 험준한 산세에 의해 토지를 구획 짓고, 수도(首都)를 달리하고 있다. 이보다 서쪽으로 1천여 리 가면 수토리시나(窣堵利瑟那)국에 이른다.

## 11. 수토리시나국

수토리시나국(窣堵利瑟那國 : 지금의 Ura-tyube 남서 26km에 있는 Shahri-stan이라고 생각되나 반면 Ura-tyube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설도 있음)은 주위가 1천 4~5백 리, 동쪽은 얍하를 바라보고 있다. 얍하는 파미르(葱嶺)의 북쪽 끝에서 나와 서북으로 흐른다. 끝없는 물길은 흐리고 거칠며 빠르다. 산물 · 풍속은 타시켄트와 같다. 스스로 왕을 받들고는 있으나 돌궐에 예속되고 있다.
이보다 서쪽으로 향하면 대사적(大砂磧 : 대사막 · 키질 · 쿰 사막)에 이른다. 이곳은 물도 풀도 전혀 없고,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나라의 경계도 알 수가 없다. 큰 산을 멀리 바라보면서 유골(遺骨)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방향을 알고 경로를 찾는다. 그렇게 가기 5백여 리 가면 사마르칸드(颯秣建國 : 唐에서는 康國)국에 이른다.

## 12. 사마르칸드국

사마르칸드국(颯秣建國 : 옛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 파괴되어 그리스 · 로마 地誌에는 Soghdiana의 일부의 首都 Maracanda로 전해지나 그 후 5세기까지의 史書에는 안 나옴)은 주위가 1천 6~7백 리, 동서가 길며 남북은 좁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아주 험고(險固)하며 주민은 많고, 제국의 귀중한 산물이 이 나라에 많이 모인다. 토지는 비옥하여 농업이 충분히 되고 있으며, 수림은 울창하고 과일도 잘 되고 있다. 좋은 말이 많이 나며 베 짜는 기술은 특히 다른 나라보다 빼어났다. 기후는 온화하나 풍속은 격렬하다. 모든 호국(胡國)은

이곳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진퇴예의(進退禮儀)는 멀고 가까운 제국 모두가 이곳을 그 중심으로 친다. 이곳 왕은 호용하여 이웃나라는 그 명을 받고 있다. 병마는 강성하고, 대부분이 차갈(赭羯 : 종래에는 지명으로 생각되기도 했으나, 용감한 전사라는 뜻)이다. 차갈 사람은 그 성질이 용렬(勇烈)하여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 싸움에 있어 그 앞에 나타날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이보다 동으로 가면 마이무르그국(弭秣賀國 : 唐에서는 米國이라 함)에 이른다.

## 13. 마이무르그국

마이무르그국(弭秣賀國 : 傳聞國으로, 西方 문헌에 보이는 Maymurgh인 듯)은 주위가 4~5백 리, 강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다.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다. 산물 · 풍속은 사마르칸드와 같다. 이보다 북으로 가면 카푸타나국(劫布呾那國 : 唐에서는 曹國이라 함)에 이른다.

## 14. 카푸타나국

카푸타나국(劫布呾那國 : Samarkand 서북쪽 Kodym Tau 산기슭 Bulanghyr강 유역에 Gubdan, Gubdun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옛 Kaputana이 유적이라 생각되고 있다)은 주위가 1천 4~5백 리, 동서는 길고 남북은 좁다. 산물 · 풍속은 사마르칸드와 같다. 이 나라보다 서쪽으로 가기 3백여 리 해서 쿠샤니야국(屈霜你迦國 : 唐에서 何國이라 함)에 이른다.

## 15. 쿠샤니야국

쿠샤니야국(屈霜你迦國 : 서방 문헌에서의 Kushaniya Kushani를 이르는데 Samarkand 서북쪽 지점이라 생각됨)은 주위가 1천 4~5백 리, 동서는 좁고 남북

이 길다. 산물 · 풍속은 사마르칸드와 같다. 이 나라에서 서쪽으로 2백여 리 가면 카리간카트국(喝捍國 : 唐에서 東安國이라 함)에 이른다.

## 16. 카리간카트국

카리간카트국(喝捍國 : 서방 문헌에 보이는 Kharghankath임에 異論은 없으나 지금의 Kermine라 하는 설과 그 북쪽에 있는 Kalkan-ata라고 하는 설이 있음)은 주위가 1천여 리, 산물 · 풍속은 사마르칸드와 같다. 이 나라에서 서쪽으로 가기 4백여 리, 부하라국(捕喝國 : 唐에서는 中安國이라 함)에 이른다.

## 17. 부하라국

부하라국(捕喝國 : 고대 Buchara의 遺趾는 지금 都城의 서북쪽 수 마일 강기슭에 있으며 Riyamitan이라 불렀다)은 주위가 1천 6~7백 리,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다. 산물과 풍속은 사마르칸드와 같다. 이 나라에서 서쪽으로 가기 4백여 리 해서 벌지국(伐地國 : 唐에서는 西安國이라 함)에 이른다.

## 18. 벌지국

벌지국(伐地國 : 지금의 어디인지 불확실)은 주위가 4백여 리로 산물과 풍속은 사마르칸드와 같다. 이보다 서남쪽으로 5백여 리 가면 콰리즘국(貨利習彌伽國)에 이른다.

## 19. 콰리즘국

콰리즘국(貨利習彌伽國 : 서방 문헌에 보이는 Chorasmia로 지금의 Khiva라고 하는 설이 있음)은 암타리야 하(縛蒭河) 양 기슭을 따라 동서 2~30리, 남북 5백여

리가 된다. 산물 · 풍속은 벌지국과 같지만 언어는 조금 다르다. 사마르칸드국에서 서남으로 가기 3백여 리 해서 캐상나국에 이른다.

## 20. 캐상나국

캐상나국(羯霜那國 : 현재의 Shahr-i-sabz, Shakhr-i-syabz)은 주위가 1천 4~5백 리이다. 산물과 풍속은 사마르칸드국과 같다.

### 1) 철문(鐵門)

이보다 서남쪽으로 2백여 리를 가면 산으로 든다. 산길은 험하고 계곡의 길도 위태롭다. 사람 사는 마을도 없고 물과 풀도 드물다.
동남쪽으로 산길을 가기 3백여 리 해서 철문으로 들어선다. 철문은 좌우로 산을 끼고 있는데, 그 산은 지극히 험준하다. 좁은 길이 있다고는 하나, 좁은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양쪽에는 돌이 벽과 같이 있는데 그 색깔은 철과 같다. 철문짝이 만들어졌으며, 많은 쇠방울이 문짝에 달렸다. 그 험고(險固)에 따라 철문이라 이름지어졌다.

### 2) 도카라국 총기

철문을 나와 도카라국(覩貨邏國 : 옛날에 吐火羅國이라 했으나 잘못임. 현장에 의하면 그 영역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동으로는 파미르, 서로는 페르시아, 북은 철문, 남은 대설산으로 되지만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따른다)에 이른다.
그곳은 남북 1천여 리로 동서가 3천여 리이다. 동쪽은 파미르, 서쪽은 페르시아에 접해 있으며, 남쪽은 대설산, 북쪽은 철문에 의거한다. 암타리야의 대하가 나라의 가운데를 서쪽으로 흐른다.
이 수백 년 이래, 왕족은 후사(後嗣)를 끊고 호족들은 힘을 다투어 각기 군주를 제멋대로 내세우고 있다. 강에 의거하고 있으며 험준에 의존하여 27개국으로 나뉘어

들판을 잘라 구획 짓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로서 돌궐(突厥)에 예속되고 있다.
기후가 따뜻해 역병(疫病)도 많다. 겨울이 끝날 무렵의 초봄에는 장마가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이 지역보다 남쪽, 즉 남파국 북쪽은 어느 나라고 간에 열병이 많다.
그래서 승려들은 12월 16일로써 안거(安居)에 들며, 3월 15일에 이를 해거하게 된다. 이것은 곧 비가 많기 때문인 까닭이며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도 적당한 때를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겁이 많고, 얼굴 모습이 비천하다. 대체로 신의는 터득하고 있어서 그다지 사람을 기만하는 법은 없다. 언어진퇴(言語進退)는 약간 제국과는 다른 데가 있다. 글자는 25언으로 성립되었고, 그것이 조합하여 차츰 어휘 · 문장이 되는데 이로써 필요에 응하고 있다.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로 읽는다. 기록도 많아서 술리보다 훨씬 더 보급되어 있다. 대체로 첩(氎 : 무명천)을 많이 입고 갈을 입는 경우는 적다. 통화는 금 · 은과 같은 돈을 사용하는데, 모양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암타리야 강 북쪽을 따라 내려가면 테르메즈국에 이른다.

### 21. 테르메즈국

테르메즈국〔呾蜜國 : 지금의 Termez, Timid〕은 동서 6백여 리, 남북 4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인데, 동서는 길고 남북이 좁다. 가람은 십여 군데, 승려는 1천여 명이다. 많은 수토파〔窣堵婆 : 佛舍利가 경전의 봉안이나 절의 장엄을 나타내며 공양 · 모표(模表)를 위해 쌓은 탑〕 및 부처의 존상(尊像)에서는 이상한 일이 많아 영감(靈鑒)이 많다. 동쪽으로 가면 차가야나국에 이른다.

### 22. 차가야나국

차가야나국〔赤鄂衍那國 : 지금의 Denau인 듯〕은 동서 4백여 리, 남북 5백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다. 가람은 다섯 군데이며 승려는 적다. 동쪽으로 가면 홀로마국에 이른다.

### 23. 홀로마국

홀로마국(忽露摩國 : Denau와 Stalinabad 사이인 듯)은 동서 1백여 리, 남북 3백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인데 그 왕은 해소돌궐족(奚素突厥族)이다. 가람은 두 군데, 승려는 1백여 명이다.
동쪽으로 가면 슈만국(愉漫國)에 이른다.

### 24. 슈만국

슈만국(愉漫國 : Stalinabad인 듯)은 동서 4백여 리, 남북 1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6~7리이며 그 왕은 해소돌궐족이다. 가람은 두 군데, 승려는 적다.
서남쪽으로 가서 암타리야강을 바라보면 쿠와야나국에 이른다.

### 25. 쿠와야나국

쿠와야나국(鞠和衍那國 : 지금의 Kabadian인 듯)은 동서 2백여 리, 남북 3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인데 가람은 세 군데며 승려는 1백여 명이다.
동쪽으로 가면 왁슈국에 이른다.

### 26. 왁슈국

왁슈국(鑊沙國 : 지금의 Halaward인 듯)은 동서 3백여 리, 남북 5백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6~7리이다. 동쪽으로 가면 쿳탈국에 이른다.

### 27. 쿳탈국

쿳탈국(珂咄羅國 : 지금의 Khuttal, Khttalan 지역인 듯)은 동서 1천여 리, 남북 1

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고 동쪽으로 총령(葱嶺 : 파미르)에 접근해 가면 쿠마드국에 이른다.

## 28. 쿠마드국

쿠마드국(拘謎陀國 : 지금의 Darwaz 지방)은 동서 2천여 리, 남북 2백여 리이며 대총령(大葱嶺 : 파미르) 안에 자리하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서남으로는 암타리야강에 이웃해 있고 남쪽으로는 시기니국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 암타리야강을 건너면, 달마수티티국 · 발탁창나국 · 음박건국 · 굴랑라국 · 히마타라국 · 발리갈국 · 흘률슬마국 · 라그국 · 아리니국 · 몽건국에 이른다. 활국(活國)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활실다국 · 안다라바에 이른다. 사실에 대해서는 회기(廻記 : 낯선 말이긴 하나, '귀도의 기사'라는 뜻인 듯함)에 적어 놓았다. 활국에서 서남으로 가면 바글란국에 이른다.

## 29. 바글란국

바글란국(縛伽浪國 : 지금의 Kunduz강 기슭에 Baghlan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는데 그곳인 듯)은 동서 50여 리, 남북이 2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며 남쪽으로 가면 루시민강국(紇露悉泯健國)에 이른다.

## 30. 루시민강국

루시민강국(紇露悉泯健國 : 제설(諸說)이 분분함. 지금의 Haibak, 옛날 Simingan · Siminjan이라 불리던 곳인 듯)은 주위 1천여 리,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이다. 서북쪽으로 가면 쿨룸국에 이른다.

## 31. 쿨룸국

쿨룸국〔忽懍國 : 지금의 Tashkurgan 北郊에 있는 廢址가 옛날의 Khulm이다〕은 주위 8백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5~6리이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려는 5백여 명이다. 서쪽으로 가면 발크국에 이른다.

## 32. 발크국

발크국〔縛喝國 : 지금의 Balkh, 옛날에는 Baetria〕은 동서 8백여 리, 남북 4백여 리이며, 북은 암타리야강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20여 리이다. 사람들은 모두 소왕사성(小王舍城)이라 부르고 있다. 그 성은 견고하나 주민은 아주 적다. 고장이 산출해 내는 물건의 종류는 아주 많으며 수생(水生) · 육생(陸生)의 여러 가지 꽃은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가람은 1백여 군데이며 승려는 3천여 명으로써 모두 소승(小乘)의 교의를 학습하고 있다.

### 1) 나바산가라마

성 밖 서남쪽에 나바〔納縛 : 唐에서는 新이라 함〕 산가라마〔僧伽藍〕가 있는데 이 나라의 선왕이 세운 것이다. 대설산(大雪山 : 히말라야)의 북쪽 작론제사(作論諸師 : 불교의 교리를 깊이 考究하여 논저를 하는 여러 학자)는 이 가람에서만 뛰어난 업적이 쇠퇴함이 없이 행해지고 있다. 이 가람의 불상은 훌륭한 보물로 닦여 있고 당우(堂宇)는 진기한 보물로 장식되었다.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이를 입수하려고 공격하여 위협하고 있다. 이 가람에는 본래 비사문천(毘沙門天)의 상이 있는데 영감(靈鑒)이 신묘하고 명명중(冥冥中)에 가호가 있다.
근자에 돌궐의 엽호가한(葉護可汗)의 아들 사엽호가한(肆葉護可汗)이 그 부락의 힘을 기울여 군대를 이끌고 이 가람을 급습하여 진기한 보물을 빼앗고자 하여,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대를 주류시키고 야영을 했다. 그날 밤 비사문천이, 너

는 어떠한 힘이 있기에 가람을 파괴하려 하느냐 하면서 긴 창으로 가슴에서 등으로 찌르는 꿈을 꾸었다. 가한은 놀라 눈을 뜨고서 심히 마음 아파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꿈에 본 응징을 말하면서 사자(使者)를 보내어, 승려들에게 참회하고 사죄하려 했으나 그 복명(復命)이 닿기도 전에 운명(殞命)하여 버렸다.
가람 안의 남쪽 불당에 부처님의 조관(澡罐 : 澡甁이라고도 하는데, 미륵보살 왼쪽 손에 있는 水甁이 그것으로, 비구승의 용물의 하나)이 있다. 양은 한 말들이 남짓인데 갖가지 색으로 번쩍여, 금이라고도 돌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부처님의 치아(齒牙)도 있다. 그 길이 1촌 남짓 넓이 8~9푼으로 황백색에 질은 맑다.
또 부처님의 빗자루도 있다. 카샤초(迦奢草)로 만들어져 있으며 길이는 2척 남짓하고 주위는 7촌 정도. 그 손잡이는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육재(六齋 : 매월 8, 14, 23, 29, 30일. 6회의 재일) 때마다 승려이건 속인이건 모두 모여 벌려 놓고 공양을 한다. 진심으로 감복할 때, 가끔 빛을 발하기도 한다.
가람 북쪽으로 높이 2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금강니(金剛泥)로 바르고, 많은 보석을 섞어 장식해 놓았다. 그 안에 사리(舍利)가 있는데 때로는 영묘(靈妙)한 빛을 번쩍이기도 한다.
가람 서남쪽에 한 정려(精廬 : 精舍, 寺)가 있는데 건립한 이래 많은 세월이 지났다.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이 왔다. 사과(四果 : 小乘敎에 있어서의 네 가지 깨달음을 말함)를 깨달은 사람은 상세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나한(羅漢 : 阿羅漢果를 證得한 사람으로 修學을 성취한 자)들은 열반에 들어감에 있어 신통(神通)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수토파를 세우는 자가 있다.
그 기반은 잇대어져 수백여 개다. 성과(聖果)를 깨달았다고는 해도 마침내 신변(神變)을 나타내지 못한 자는 생각건대 1천을 훨씬 넘지만 봉기(封記 : 塔)는 세우고 있지 않다. 이제는 승려가 1백 명 남짓으로 조석으로 게으름 없이 일하고 있으나 그 범(凡)과 성(聖)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2) 트라푸사 성과 발리카 성

대성(大城)에서 서북쪽으로 50여 리 가면 트라푸사성(提謂城)에 이른다. 이 성의 북쪽으로 40여 리에 발리카성(波利城)이 있다. 성에는 각기 한 수토파의 높이가 3장(丈) 남짓 되는 것이 있다.

옛날 여래(如來)가 처음으로 불과(佛果)를 깨닫고 보리수 아래서 녹원으로 왔다. 마침 그때 두 장자(長者)가 있었는데, 여래의 위광을 받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여비를 털어 초밀(麨蜜 : 麨는 곡물을 가루로 한 食物. 蜜은 蜂蜜 · 石蜜 등)로 바쳤다.

그래서 세존은 두 사람을 위해 인간계와 천상계의 복을 설파하여 두 사람은 첫 번째로 오계(五戒 : 殺生 · 偸盜 · 邪婬 · 妄語 · 飮酒를 피하라는 戒) · 십선(十善 : 不殺生 · 不偸盜 · 不邪婬 · 不妄語 · 不惡口 · 不兩舌 · 不綺語 · 不貪欲 · 不瞋恚 · 不邪見)에 들을 수가 있었다.

법회(法誨)를 다 들은 두 사람은 공양하는 곳의 물건을 얻고자 청원했다. 여래는 청하는 대로 머리카락과 손톱을 주었다.

두 사람의 장자는 그들의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면서 공양예경(供養禮敬)하는 방법을 물었다. 여래는 상가티(僧伽 : 옛날에는 僧伽梨라 했으나 잘못. 가사(袈裟))를 네모로 접어 아래 깔고, 다음에 웃타라 상가(上衣), 그 다음에 상칵시카(옛날에는 僧祇支라 했으나 잘못. 겨드랑이를 덮는 속옷)를 놔둔 다음 다시 발(鉢)을 엎고서 석장(錫杖)을 세웠다. 이와 같은 순서로 수토파를 만들었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고 각기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 성지(聖旨)와 같이하여 훌륭하게 건립했다. 이것이 곧 석가의 가르침에 의한 최초의 수토파이다.

성의 서쪽 70여 리에 높이 2장(丈) 남짓한 것이 있는데 옛날 카샤바 때 세운 것이다. 발크국의 대성에서 서남쪽으로 설산의 산협으로 들어가면 예말타국에 이른다.

## 33. 예말타국

예말타국(鋭秣陀國)은 동서 5~60리, 남북 1백여 리로,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

여 리이다. 서남쪽으로 가면 구즈간국에 이른다.

### 34. 구즈간국

구즈간국(胡寔健國 : 지금의 Ab-i-Safid강 기슭 Sar-i-pul인 듯)은 동서 5백여 리로 남북 1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산이나 강이 많고 좋은 말을 많이 산출한다. 서북으로 가면 탈라칸국에 이른다.

### 35. 탈라칸국

탈라칸국(呾剌健國 : 지금의 Maimana 근방 Chachaktru 가까이에 있는 遺址가 그곳인 듯)은 동서 5백여 리, 남북 5~60리로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다. 서쪽은 페르시아국(波剌斯國)의 경계와 접하고 있고, 발크국보다 남으로 가기 1백여 리 해서 가치국에 이른다.

### 36. 가치국

가치국(揭職國 : 지금의 Dasrah Gaz 즉 Tamaris 계곡인 듯)은 동서 5백여 리에, 남북은 3백여 리로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4~50리이다.
토지는 돌이 많고 척박하며 크고 작은 구릉이 잇대어져 있다. 꽃과 과일은 적고 콩 · 보리가 많다. 기후는 춥고 풍속은 강맹(强猛)하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려는 3백여 명이다. 모두 소승교의 설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동남쪽으로 가면 대설산에 이른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으며 암석은 위험하다. 바람과 눈은 잇대어지고 한여름에도 얼어 있는 상태이다. 눈은 골짜기에 쌓여 개천길도 건너기가 힘이 든다. 산신이나 요괴가 마음대로 포악을 부린다. 산적은 횡행하여 살해를 업으로 삼고 있다. 6백여 리를 가서 토카라국의 경계를 나서면 바미얀국에 이른다.

## 37. 바미얀국

바미얀국(梵衍那國 : 이곳은 Hindukush와 Koh-i-Bada 양 산맥 사이 동서로 길게 뻗은 계곡에 있었으며 예로부터 東西의 교통 요충지)은 동서 2천여 리이며 남북 3백여 리로 설산 안에 있다. 사람은 산이나 골짜기를 이용하여 지세(地勢)대로 살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낭떠러지에 의거해 골짜기를 걸터타고 있다. 길이는 6~7리이며 북쪽은 높은 바위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콩 · 보리는 있으나 꽃 · 과일은 없다. 목축에 좋아 양 · 말이 많고 기후는 차며 풍속은 야만스럽다. 가죽이나 갈을 입는 자가 많은 것과 어울린다. 문자 · 교화(敎化)와 화폐의 용법은 토카라국과 같다. 언어는 다소 다르지만 겉모양은 엇비슷하다.

신앙이 두터운 마음은 이웃나라보다 더하다. 위로 삼보(三寶)로부터 아래로 백신(百身)에 이르기까지 진심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마음으로써 공경하고 있다. 상인이 왕래하는데도 천신은 징상(徵祥)을 보여 흉변을 보이기도 하고 복덕을 보이기도 한다. 가람은 수십 군데, 승려는 수천 명으로 소승의 설 출세부(出世部)를 학습하고 있다.

### 1) 대석불(大石佛)

왕성 동북의 산 귀퉁이에 입불(入佛)의 석상이 높이 1백 4~50척이나 되는 것이 있는데 금빛으로 번쩍이며 보식(寶飾)이 빛나고 있다.

동쪽에 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의 선왕이 세운 것이다. 가람 동쪽에 유석(鍮石)의 석가불 입상이 있는데 높이가 1백여 척이다. 몸체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조해 맞춘 것이다.

### 2) 대열반 상

성 동쪽 2~3리 되는 가람 안에 부처님의 입열반(入涅槃 : 부처님 入滅 때의 옆으로 누운 像)의 길이 1천 척 되는 와상(臥像)이 있다.

이 나라의 왕은 여기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 때마다, 위로는 처자(妻子)로부터

아래로는 국가의 진보(珍寶)에 이르기까지 기사(寄捨)하며 관아의 창고가 비게 되면 다시 자기의 몸까지도 보시한다. 상하 관리들은 금품을 내고 승려로부터 다시 사들인다. 이러한 일을 자기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3) 세 현성(賢聖)의 유물을 수장하는 가람

부처님이 옆으로 누워 있는 와상가람에서 동남으로 2백여 리 가서 대설산을 넘어 동으로 가면 자그만 천택(川澤)에 이른다. 못은 거울과 같이 맑고 수풀의 나무들은 푸르다. 승가람이 있는데, 그 안에 부처님의 이〔齒〕와 겁초(劫初 : 인도 전설에 있어서의 이 세계 성립의 시작) 때의 독각(獨覺 : 이 세계에 아직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師友의 教導 없이 자연히 깨달음을 얻은 자)의 이가 있는데 길이 5촌 남짓, 넓이 4촌이 못 된다. 또 금륜왕(金輪王 : 四天下의 지배자)의 이로써 길이 3촌, 넓이 2촌인 것, 샤나카바사〔商諾迦縛娑 : 옛날에는 商那和修라 했으나 잘못〕 대아라한(大阿羅漢)이 가졌던 철발(鐵鉢)의 양은 8~9승(升) 정도이다. 이 세 현성의 유물은 모두 황금으로 함봉(緘封)해 두었다.

또 샤나카바사의 9조(條)의 상가티가 있다. 심홍색 샤나카〔設諾迦 : 麻 비슷한데 껍질을 벗겨 짜서 옷을 만듦〕 풀의 껍질을 벗겨 짜서 만든 것이다.

샤나카바사는 아난(阿難)의 제자이다. 전세에 샤나카 풀의 옷을 안거(安居) 해지하는 날에 승려들에게 보시했다. 이 복력(福力)에 의해 5백 생(生) 동안 중음(中陰 : 현세와 내세의 중간의 존재를 말함)이든 생음(生陰 : 내세에 태어나는 찰나)이든 언제나 이 옷을 몸에 걸치고 있다가 마지막 태어날 때 태내에서 옷과 더불어 나왔다.

신체가 차츰 커짐에 따라 옷도 넓어지고 아난(阿難)이 출가함에 이르러 그 옷은 법복(法服)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구계(具戒 : 具足戒 : 비구는 2백 50계, 비구니는 3백 48계가 맡는 계. 이 계를 보전하면 無量의 德을 具足할 수 있음)를 받을 때 다시 변하여 9조(條)의 상가티로 변했다.

적멸(寂滅)을 깨닫고 변제정(邊際定 : 邊際란 사물의 究極이며, 定이란 마음을 一境에 集注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이름. 그래서 邊際定이란 가장 뛰어난 定)에 들려

고 할 때 지원(智願：깊은 지혜로 세운 誓願으로서 大悲의 弘願)의 힘을 일으켜, 이 가사를 남겨 석가가 남긴 가르침을 다하자, “가르침이 다했을 때 비로소 이 옷이 썩게 하소서”라고 서원(誓願)했다. 지금 이 옷은 조금 헤졌지만 참으로 영험(靈驗)스런 일이다. 이곳에서 동행해 설산에 들어선 다음 흑령(黑嶺)을 넘으면 카피시국에 이른다.

## 38. 카피시국

카피시국(迦畢試國：Kabul 북동쪽 약 72km의 Charikar에서 멀지 않은 Panjshir강과 Gorband강 합류점에 있음)은 주위는 4천여 리, 북은 설산을 등으로 하고 삼방은 흑령(黑嶺)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다. 모든 곡물에 좋고 과일이 많다. 좋은 말〔馬〕과 울금향(鬱金香)을 산출한다. 제국의 진귀한 보물이 이 나라에 많이 모인다.
기후는 바람 끝이 차고 사람들의 성질은 거칠며 언동이 천하고 혼인은 질서가 문란하다. 문자는 대체로 토카라국과 같으나 습관 · 언어 · 교화(敎化)는 아주 다르다. 옷은 펠트〔毛〕를 사용하며 모피(毛皮)나 갈(褐：모직물)도 사용한다. 화폐는 금전 · 은전 · 소동전을 사용하는데 규격은 제국과 다르다.
왕은 크샤트리야〔刹利種〕이다. 지략이 있고 성질이 용감하여 그 위광은 이웃 나라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10여 국을 통괄하고 있다. 인민을 사랑하고 삼보(三寶)를 경모한다. 해마다 1장 8척의 은불상을 만들고 겸하여 무차대회를 열어 빈민에게 널리 급여하여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려는 6천여 명이다. 대부분이 대승교(大乘敎)를 학습하고 있다. 수토파나 승가람은 높고 크며 넓고 깨끗하다. 천사(天祠)는 수십 군데, 이도(異道：불교 이외의 제교)는 1천여 명이다. 어떤 자는 노형(露形：露行外道. 露行은 본래 인도의 外道 수행법의 하나였음)이고 어떤 자는 도회(塗灰：塗灰外道. 獸主〔自在灰〕 外道라고도 함. 大自在天을 만물의 창조신으로 삼고 몸에 회를 바르고 苦

行하여 昇天을 구하는 종교임)이며, 어떤 자는 촉루(髑髏)를 가지런히 관(冠)의 만(鬘 : 늘어뜨린 장식)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1) 질자 가람(質子伽藍)과 그 주변

대성 동쪽 3~4리, 북산(北山) 아래 대가람이 있다. 승려는 3백여 명, 모두 소승(小乘)의 교의를 학습하고 있다. 고로의 얘기를 들으면 다음과 같다.

옛날 간다라국의 카니시카 왕은 그 위광이 이웃나라를 덮고 교화는 멀리까지 널리 뻗쳐, 군비를 다스리고 영지를 넓힘으로써 총령 동쪽까지 이르렀다.

황하(黃河)보다 서쪽의 외국인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인질을 보내 왔다. 카니시카 왕은 질자(質子)를 얻었기 때문에 특히 예우를 하여 한서(寒暑)에 따라 주거지를 바꿨다.

겨울에는 인도제국에 있고, 여름에는 카피시국에 돌아가며 봄가을은 간다라국에 머문다. 그래서 질자의 겨울 · 여름 · 봄가을 3시의 주거지에 각기 가람을 세웠다. 지금 이 가람은 바로 여름 주거지에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의 벽에도 질자가 그려져 있다. 그 용모나 복식은 거의 중국과 같다.

그 뒤, 질자는 본국에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마음은 주거지에 있어, 산천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그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하여 지금의 승려도 입안거(入安居) · 해안거(解安居) 때마다 법회(法會)를 열어 질자들을 위해 복을 빌고 선을 행함에 끊임이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람 불원(佛院)의 동문 남쪽에 대신왕상(大神王像)이 있다. 이 오른쪽 발아래에는 땅속 깊이 보물이 묻혀 있다. 질자가 묻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명(銘)에는 "가람이 썩어 부서질 때는 꺼내서 수선하라"고 적혀 있다.

요 근래, 어떤 변방에 탐람(貪婪)하고 흉폭한 왕이, 이 가람이 보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승도를 내쫓고 발굴하려 했다. 그런데 신왕의 관에 달려 있는 앵무새의 조상(鳥像)이 날갯짓을 하면서 놀라 울어대자 대지는 그 때문에 진동했다. 왕과 군인들은 꽁무니를 빼 넘어졌다가 잠시 후 겨우 일어나 잘못을 사죄하고 돌아갔다.

가람의 북쪽 산 위에 몇 개의 석실(石室)이 있다. 질자가 좌선한 곳이다. 그 안에는 갖가지 보물을 많이 두고 있으며, 그 곁에 "약샤〔藥叉 : 八部鬼衆의 하나. 사람을 해하거나 골탕먹이는 등 포악한 짓을 한다〕가 지킨다"고 하는 명(銘)이 있다. 깨어서 안의 보물을 꺼내려는 자가 있으면, 이 약샤는 이상한 모습을 나타낸다. 혹은 사자(師子 : 獅子)가 되고 뱀 · 맹수 · 독충이 되어 보통이 아닌 형상으로 크게 성을 낸다. 이런 까닭으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려 하는 자가 없다.

석실의 서쪽 2~3리에 있는 큰 산마루에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의 상이 있다.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보기를 원하면 보살은 그 상에서 절묘한 색의 몸을 나타내어 행자(行者)를 위로하는 일이 있다.

2) 라훌라 승가람

대성의 동남으로 30여 리 가면 라훌라 승가람〔曷邏怙羅僧伽藍〕에 이른다. 곁에 높이 1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재일(齋日)이 되면 때로 빛을 비추고 복발(覆鉢 : 鉢을 엎은 것 같은 半球形의 塔身)의 세(勢 : 모양) 위 돌 틈바구니에서 검은 향유(香油)를 흘리는 일이 있고, 고요한 밤에는 때때로 음악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고로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옛날 이 나라의 대신 라훌라가 세운 것인데 작업이 완성되던 날 밤 꿈속에서 "그대가 세운 수토파는 아직 사리(舍利)가 없소. 내일 아침에 헌상(獻上)할 사람이 있으니 왕에게 청하시오" 하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아침이 되어 왕에게 가서 "스스로의 용렬함도 잊고 감히 청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왕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고?" 하고 묻자, 이에 대답하여 "오늘 첫째로 헌상하는 자가 있거든 아무쪼록 제게 은사(恩賜)를 내려 주시기 바라나이다"라고 했다.

왕은 그러마고 했다. 라훌라는 궁문(宮門)에 서서 오는 자들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사리병을 들고 오고 있었다. 대신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헌상하려 하는가?" 하고 묻자, "부처님의 사리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대신은 "내가 그대를 위해 부처님의 사리병을 지켜 주리라. 먼저 왕에게 아뢰도록 하자."

라훌라는 왕이 사리를 진중히 여겨, 아까 은사한다고 한 것을 후회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서둘러 가람에 가서 수토파에 올렸다. 진심에 감동했던지, 그 돌의 복발(覆鉢)은 자연히 열렸다. 사리를 다 안치했을 때 서둘러 나왔지만 복발이 닫히면서 옷깃이 끼었다. 왕의 사자(使者)는 대신을 좇아갔으나 돌은 이미 닫혀져 버렸다. 그래서 그 옷깃이 낀 틈바구니에서 검은 향유가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 3) 스베타바라사 성과 아루노 산

성 남쪽으로 40여 리를 가면 스베타바라사 성에 이른다. 지면이 크게 진동하여 산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때도 이 성을 주변한 경역(境域)은 동요하는 일이 없다.

스베타바라사 성〔霫蔽多伐剌祠城〕에서 남쪽으로 30여 리 가면 아루노 산〔阿路猱山〕에 이른다. 낭떠러지나 봉우리는 험준하고 깊은 골짜기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깜깜하다. 그 봉우리는 해마다 높이를 수백 척씩 증가하다가 자구다국의 슈나시라 산과 멀리 서로 바라보게 되면 허물어져 떨어진다. 이에 대해 그 고장 전설에 의하면, 처음에 나천신(那天神)이 멀리서 와서 이 산에 머물려고 했는데 산신이 크게 노하여 계곡을 뒤흔들었다.

천신은 말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리라. 잠깐만 나를 손님으로서 대우해 주면 반드시 재보를 잔뜩 선물할 것인데, 나는 이제부터 자구다국의 슈나시라 산으로 가겠소. 해마다 내가 국왕이나 대신의 재물을 받을 때가 되면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시오."

그래서 아루노 산은 높아지다가 마침내 허물어진다는 것이었다.

### 4) 대설산정(大雪山頂)에 있는 용지(龍池)의 전설

왕성에서 서북으로 2백여 리 가면 대설산에 이른다. 산정에는 못이 있다. 비를 청하거나 개이기를 원하면 구하는 바에 따라 소망이 성취된다. 이에 대해 고로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옛날, 간다라국에 아라한(阿羅漢)이 있었는데, 항상 이 못에 있는 용왕의 공양을 받고 있었다. 중식 때마다 신통력으로 앉아 있는 승창(繩牀)과 함께 허공을 헤집고 나가는 것이었다. 시자(侍子)인 사미가 승창 아래 달라붙어 숨어 있었다. 그런데 아라한이 시간이 되어 용궁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식사하던 중 처음으로 사미를 발견했다. 용왕은 그대로 식사하도록 말했다.

용왕은 하늘의 감로(甘露)를 아라한에게 먹이고, 인간계의 간맞춤으로 사미에게 식사를 주었다. 아라한은 식사를 끝마치고 용왕을 위해 여러 가지 법(法)의 요지를 설명했다. 사미는 여느 때와 같이 스승을 위해 식기를 씻었다. 식기에는 밥풀이 붙어 있었는데 그 향미(香味)에 놀란 사미는 금방 악원(惡願)을 일으켜 스승을 원망하고 용왕에게 분노를 느껴 "모든 몸에 지닌 복덕(福德)의 힘이 이제 모조리 나타나 이 용의 명을 끊고 제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이다" 하고 빌었다.

사미가 이 서원을 일으키자, 그때 용왕은 이미 두통이 났다. 나한은 설법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고 용왕은 스스로의 잘못을 빌면서 스스로를 책했다. 그러나 사미는 분노를 안고 후회함이 없이 가람에 돌아가서도 마음으로 서원했던바 복력(福力)이 뻗쳐, 그날 밤 목숨이 다해 대용왕(大龍王)으로 되었다.

위세 좋게 서원한 바와 같이 연못으로 들어와 용왕을 죽이고 용궁에 살면서 용왕의 부하들을 거느려 그 통수(統帥)를 한손에 쥐었다. 전세의 서원과 같이 폭풍우를 일으켜 나무들을 뿌리째 뽑고 가람을 파괴하려 했다.

마침 그때 카니시카 왕이 이상히 여겨 내력을 물었다. 그 아라한이 자세한 내용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곧 용을 위해 설산 기슭에 승가람을 세우고 높이 1백여 척의 수토파를 세웠다. 용은 숙원을 품은 대로 폭풍우를 일으켰다. 왕은 중생제도(衆生濟度)를 염원했고 용은 증오심에 불타 난폭을 부린 것이다.

승가람 수토파는 여섯 번 파괴되고 일곱 번 만들어졌다. 카니시카 왕은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긴 끝에 용지를 메워 그 주거지를 부숴 버리고자 군대를 동원해 설산 기슭으로 왔다.

그때 용왕은 깊이 두려움을 느껴 늙은 바라문으로 몸을 바꾸어 왕의 코끼리를 잡고 말했다.

“대왕은 전세게 선근(善根)을 심고 좋은 인연을 맺어 인계(人界)의 왕으로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뜻대로 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용과 싸움을 벌이려 합니까.

생각건대 용이란 짐승입니다. 비천한 악류(惡類)입니다. 그러나 큰 위력을 지니고 있어 힘으로 상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바람을 움직이며 허공을 밟고 물을 밟아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왕이 성을 낼 상대이겠습니까. 왕은 지금 온나라의 군사를 일으켜 한 마리의 용과 싸우고 계십니다. 왕이 이긴다고 하면, 왕에게는 원방(遠方)을 복종시킬 위광(威光)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진다면, 왕에게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부끄러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왕을 위해 도모할 양이면 모름지기 군사를 철수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카니시카 왕은 이 말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용은 곧장 못으로 돌아가, 소리 울리기를 뇌성과 같이하고 폭풍을 쏟아지게 했으며 나무를 뽑고 사석(沙石)을 비와 같이 운무(雲霧)를 일으켜 깜깜하게 하니 왕의 군마(軍馬)는 놀라 달아났다.

왕은 할 수 없이 삼보(三寶)에게 귀명(歸命)하여 가호 있기를 청하면서, “전세에 복덕을 심어 인계의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위(威)는 강적도 두렵게 만들고 잠부주를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인 용한테 굴복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나의 복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모든 복덕의 힘을 다만 지금 눈언저리에 나타내 주시기를”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의 양어깨에 큰 연기와 불길이 일면서 용은 물러나고 바람은 잤으며 안개는 걷히고 구름은 흩어졌다. 왕은 군사들에게 저마다 돌 하나씩을 들게 하고 그것으로 용지를 메우려고 했다. 용왕은 또 바라문의 모습이 되어 거푸 왕에게 “저는 이 못의 용왕입니다만 왕의 위광에 눌려 귀순하겠습니다. 다만 왕께서 불쌍히 여겨 저의 전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애육(愛育)의 정으로써 살아있는 생물들을 감싸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오직 악해(惡害)를 가할 뿐입니다. 왕께서 만약 저를 죽인다면, 저와 왕은 함께 악도(惡道)에 떨어짐으로써 왕은 목숨을 끊는다는 죄가 있게 되고 저는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업보(業報)는 분명하고 선악(善惡)은 명백합니다”라고 청원했다.

그래서 왕은 용과 확실한 약속을 하고 앞으로 다시 범접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용은 말했다.

"저는 악업(惡業) 때문에 몸을 바꿔 용이 되었습니다. 용은 성질이 맹악하여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자제할 것을 잊을 것입니다만, 왕께서 이제 다시 가람을 세워도 결코 다시 파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한 사람에게 산꼭대기를 감시하게 해, 만약 검은 구름이 일어난다면 서둘러 건추(犍椎)를 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저의 악심은 반드시 멎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래서 다시금 가람을 수축하고 수토파를 세워 구름의 형편을 감시하게 한 것이 지금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수토파 안에는 여래의 골육사리(骨肉舍利)가 1되 정도 있으며 불가사의한 사적(事跡)은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언젠가, 수토파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 오르다가 조금 후에는 맹염(猛炎)을 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토파는 벌써 타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참 쳐다보는 사이 불은 꺼지고 연기도 멎었다. 그러더니, 사리가 마치 하얀 구슬로 장식한 기(旗)와 같이 표주(表柱 : 깃대)를 돌면서 하늘 높이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5) 구왕 가람

왕성 서북쪽 큰 강의 남쪽 기슭에 구왕의 가람이 있다. 그 안에 석가보살이 어렸을 때의 유치(乳齒)로 길이 1촌 남짓한 것이 있다. 그 가람 동남쪽에 하나의 가람이 있는데, 이것도 '구왕'이라 이름 지어졌다. 그 안에 여래의 정골(頂骨) 한 조각, 표면의 넓이 1촌 남짓한 것이 있다. 그것은 황백색인데, 머리카락의 구멍도 분명하다. 또 여래의 머리카락도 있다. 색은 청감(靑紺)이고 오른쪽으로 곱슬곱슬하며 당기면 길이 1척 남짓 한데 감기면 5푼 정도이다. 이 세 가지는 육재(六齋) 날이 될 때마다 왕이나 대신이 산화(散花 : 부처 공양을 위해 꽃을 뿌림)하여 공양을 한다.

6) 구왕비 가람

정골 가람 서남쪽에 구왕비의 가람이 있다. 그 안에 금동으로 된 높이 1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그 고장에 전해져 오는 말을 들으면, 그 수토파 안에는 부처님 사리가 한 되 남짓 있는데, 매월 15일 밤이 되면 원광(圓光)을 내어 노반(露盤)을 빛나게 한 다음 새벽녘에 이르러서야 겨우 수토파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7) 상견(象堅) 수토파와 비탁구(鞞鐸佉) 가람

성 서남쪽에 필루사라 산〔比羅娑洛山 : 唐에서는 象堅이라 함〕이 있다. 산신이 코끼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견(象堅)이라 한다.
옛날 여래가 존세(存世)할 때, 상견신(象堅神)이 세존과 1천 2백 명의 대아라한(大阿羅漢)을 초청한 일이 있다. 산의 꼭대기에 크고 단단한 바위가 있는데 여래는 거기에 좌정하고 신의 공양을 받았다. 그 뒤 아쇼카 왕이 그 반석 위에 높이 1백여 척의 수토파를 세웠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상견 수토파라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래의 사리가 1되 정도 있다는 것이다.
상견 수토파 북쪽 산 바위 아래 하나의 용천(龍泉)이 있다. 이곳은 여래가 신이 공양하는 식사를 다 받고 아라한과 이 샘에서 입을 헹구고 이쑤시개로 이를 친 곳이다. 그에 연원하여 나무뿌리를 심었는데, 지금은 무성한 숲이 되어 있다.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 가람을 세우고 비탁구〔唐에서는 이쑤시개로 이를 친다는 뜻〕라 이름 지었다. 이보다 동쪽으로 가기 6백여 리, 산이나 골짜기가 연이어지고 봉우리의 암석 또한 험준하다. 흑령(黑嶺)을 넘어 북인도의 경계로 들어서면 남파국에 이른다.

# 제 2 권

## 1. 인도 총설

### 1) 인도의 명칭

천축(天竺)의 명칭에 대해 상고해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타난다.

옛날에는 신독(身毒)이라 하고 혹은 현두(賢豆)라고도 했으나 지금은 정음(正音)에 따라 인도(印度)라 해야 할 것이다.

인도 사람들은 각 지방에 따라 각기의 국호를 일컫고 있지만, 먼 외국에서는 전체로서의 이름을 사용해 그중 아름다운 것을 택해 인도라 하고 있다.

'인도'는 당나라에서는 달〔月〕이라는 뜻이다. 달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인도는 그중 하나를 일컬음이다. 그 뜻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윤회(輪回 : 轉生)하여 그침이 없고, 그 무명(無名)의 장야(長夜)에는 새벽을 고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백일(白日)이 숨어 버리면 밤의 등불이 빛을 잇는 것과 같아서, 가령 별빛이 비추는 일은 있어도 어찌하여 또렷한 달의 밝음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진실로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 달에 비유한 것이다.

사실 그곳의 성현이 유법(遺法)을 이어받아 보통 사람들을 이끌고 사물을 다스리는 법은 마치 달이 천하를 비추는 것과 같아서, 이런 의미에서 이곳을 인도라고 한다.

인도는 종성·족성(種姓·族姓 : 이른바 四姓, 카스트)이 집단을 이루어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바라문〔브라만(Brahman)〕이 특히 깨끗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 아칭(雅稱)에 따라 입으로 전해져서 일반의 습속으로 삼고, 땅의 경계 구별이 없이 전체를 한데 묶어서 바라문국이라 이르고 있다.

### 2) 인도의 강토와 기후

인도 경계의 구역은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오인도(五印度 : 五天竺·五印·五天이라고도 함)의 경역은 주위가 9만여 리이다. 삼면은 바다에 면해 있고 북으로는 설산을 지고 있다. 북쪽은 넓고 남쪽은 좁으며 모양은 반달과 같다. 들을 구획지어 70여 국으로 나누고 있다. 기후는 특히 덥고 땅은 못〔泉池〕이나 습지가

많다.
북쪽은 산악이 이어지고 구릉은 사석(沙石)이 많다. 동은 내와 들이 습윤(濕潤)하고 밭은 기름지다. 남쪽은 초목이 무성하고 서쪽은 돌이 많아서 땅이 척박하다. 이것이 대강이다. 우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 3) 인도의 수량

대저, 수량의 기준의 호칭은 요자나〔踰繕那 : 옛날에는 由旬 · 由延이라 했으나 다 잘못임〕라 한다.
요자나란, 옛날 성왕의 하루 동안의 군대 행정(軍隊行程)이다. 원래 1요자나는 40리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30리이며, 성전(聖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 16리이다. 궁미(窮微)의 수량은 1요자나를 나누어서 8크로샤로 한다. 크로샤란 커다란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한도이다. 1크로샤를 나누어 5백 궁(弓)으로 하고 1궁을 나누어 4주(肘)로 하며, 주를 나누어 24지(指)로 하고, 1지절(指節)을 나누어 7숙맥(宿麥)으로 하는데, 거기서 슬(虱) · 기(蟣) · 극진(隙塵) · 우모(牛毛) · 양모(羊毛) · 토호(兎毫) · 금수(金水)의 차례로 칠분(七分)하여 세진(細塵)에 이른다. 세진을 칠분하여 극세진(極細塵)으로 한다. 극세진은 더 분할할 수가 없다. 분할하면 공(空 : 無)으로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극미(極微)라고도 한다.

### 4) 인도의 시간과 역일(曆日)

한편, 음양(陰陽)의 역운(歷運 : 星辰의 운행), 일월의 순서의 호칭은 다르다 해도 때와 절후의 다름은 없고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성수(星宿)에 따라 달의 이름을 정하고 있다.
시간의 아주 짧은 것을 찰나(刹那)라고 한다. 1백 20찰나를 타특샤나〔呾刹刹那〕라고 한다. 60타특샤나를 1라바(臘縛)라 한다. 30라바를 1무후리타〔牟呼栗多〕라 한다. 5무후리타를 1시(時)라 한다. 6시가 모여 일일일야(一日一夜 : 낮이 3, 밤이 3)로 된다.
통속적으로 밤낮을 나누어 8시〔낮 4, 밤 4〕로 한다. 달이 차기 시작하여 만월에 이

르는 사이를 백분(白分)이라 하고, 달이 기울기 시작해서 그믐까지의 사이를 흑분(黑分)이라 한다. 흑분은 14일일 때도 있고 15일일 때도 있다. 달에 대소(大小)가 있기 때문이다.

흑분에서 시작해 백분으로 연속되고, 합쳐서 한 달로 되며 6개월이 합쳐져 1행(行)이 된다. 태양의 운행은 적도(赤道)의 내북(內北)에 있고, 동지(冬至)에서 시작되는 6개월이 북행(北行)이다. 태양의 운행이 적도의 외남(外南)에 있고 하지(夏至)에서 시작되는 6개월이 남행(南行)이다. 이 2행을 합쳐 1년으로 한다.

또 1년을 나눠 6시(時 : 季)로 한다. 정월 16일부터 3월 15일에 이르기까지는 점열(漸熱 : 봄)이다. 3월 16일부터 5월 15일에 이르기까지는 성열(盛熱 : 여름)이다. 5월 16일부터 7월 15일에 이르기까지는 우시(雨時 : 비)이다.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무시(茂時 : 가을)이다.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점한(漸寒 : 겨울)이다. 11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는 성한(盛寒 : 冬盡)이다.

여래의 성교(聖敎)는 1년을 3시로 하고 있다. 정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열시(熱時 : 여름)이다. 5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우시(雨時 : 비)이다. 9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는 한시(寒時 : 겨울)이다.

혹은 4시로 나누기도 한다. 춘하추동(春夏秋冬)이다.

봄의 3개월을 차이트라〔制呾羅 : 1월〕· 바이샤카〔吠舍佉〕· 지에시타〔逝瑟吒〕라 한다. 당나라의 정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에 해당한다.

여름 3개월을 아샤다〔頞沙荼 : 4월〕· 시라바나〔室羅伐拏 : 5월〕· 바드라파다〔婆達羅鉢陁 : 6월〕라고 한다. 당의 4월 16일부터 7월 15일에 해당한다.

가을의 3개월을 아시바유자〔頞濕縛庾闍 : 7월〕· 카르티카〔迦剌底迦 : 8월〕· 마르가시라〔末伽始羅 : 9월〕라 한다. 당의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당한다.

겨울의 3개월을 포샤〔報沙 : 10월〕· 마가〔磨祛 : 11월〕· 팔구나〔頗勒窶拏 : 12월〕라 한다. 당의 10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 해당한다.

예로부터 인도의 승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안거(雨安居)에 들어가지만, 그 기일은 혹은 앞 3개월이기도 하고 뒤의 3개월이기도 하다. 앞 3개월은 당나라의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당하고, 후 3개월은 당의 6월 16일부터 9월 15일

까지에 해당한다.

종전의 경률(經律)을 번역하는 사람은 혹은 좌하(坐夏)라 하고 혹은 좌랍(坐臘)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모두 변지(邊地)에서 풍습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며, 중국(中國 : 中印度)의 정음에 통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방언을 잘 모르거나 하여 잘못 옮긴 것이다.

한편, 여래의 탄생, 출가, 성불(成佛), 열반(涅槃) 등의 일 · 월을 추정하는 데도 모두 갖가지이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술한다.

5) 시읍(市邑)과 주거

고을과 마을에는 울이 있어 넓고 높다. 큰 거리와 샛길은 구불구불 뻗쳐 있다. 고을의 문은 길을 향해 있고, 요리점은 길을 끼고 있다. 도살(屠殺) · 고기잡이 · 배우 · 괴회(魁膾) · 제분업(除糞業)을 하는 자는 그 주거에 표지를 달고 마을 밖에 살며, 길을 왕래할 때는 왼쪽으로 피한다.

주택의 구조에 담과 벽을 만드는 것은, 지세가 낮고 습하기 때문이며 성에 전(塼 : 벽돌)이 많이 쌓여 있다. 담장이나 벽은 어떤 것은 대〔竹〕나 나무로 엮어 놓고 있다. 거실이나 노대(露臺)는 판자로 만들고, 평면의 지붕으로 했으며, 석회를 바르고, 전(甎 : 구운 기와)이나 격(墼 : 햇볕에 말린 기와)으로 덮었다. 여러 가지 큰 건물을 짓는 법은 중화(中華)와 같으며, 지붕을 띠로 이거나 풀로 이거나, 혹은 전으로 혹은 판자로 하고 있다. 벽은 석회로 장식하고, 땅은 쇠똥을 발라 깨끗하게 하며, 시절에 따른 꽃씨를 뿌린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모든 승가람(僧伽藍)은 건축법이 특출하다. 망루는 네 귀퉁이에 서고, 중각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서까래 · 차양 · 대들보 등에는 진귀한 형태의 조각이 되어 있으며 창문이나 담장에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서민들의 주거는 안은 말짱하고 밖은 깔끔하며 안방이나 안채의 높이나 넓이도 여러 가지다. 층대나 집의 계단도 그 형태가 일정하지는 않다. 문은 동쪽으로 나 있고, 군주는 동쪽으로 향해 좌정한다. 앉을 때는 모두 새끼로 만든 의자를 사용한다. 왕족 · 대관 · 선비와 서민 그리고 호족들의 것은 장식에 차이가 있으나 형태에

차이는 없다.

군왕의 옥좌는 한 층이 높고 넓으며 보석이 박혀 있는데 사자상(師子牀)이라 한다. 가는 모직물을 깔개로 하고 보석을 섞어 박은 궤짝〔几〕을 디딤대로 삼고 있다. 일반 서민이나 관속들은 좋아하는 바에 따라 갖가지 물건을 조각해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다.

### 6) 인도의 옷과 음식

의상 복식은 재봉해서 만들지 않고, 백색을 귀히 여기며 색이 든 것을 가볍게 여긴다. 남자는 허리와 겨드랑이에 천을 두르고 또 가로하여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는 벗는다. 여자는 무릎을 덮는 긴 옷인 첨의(沾衣)를 아래까지 늘어뜨리며 양 어깨는 모두 덮어 버린다. 머리에는 자그마한 상투를 만들고서 남은 머리카락은 늘어뜨린다. 혹은 수염을 깎고 특별히 진묘한 모양을 내는 수도 있다. 머리에는 화만(花鬘)을 쓰고 몸에는 목걸이를 건다.

입고 있는 것은 이른바 코세야 옷〔憍奢耶衣〕이나 무명 등이다. 코세야는 들 누에의 실로 짠 것이다. 그 다음 쿠쇼마 옷은 마(麻) 종류이다. 칸발라 옷은 가는 양털로 짠 것이다. 그 다음, 갈라리 옷은 들짐승의 털로 짠 것이다. 짐승의 털은 가늘고 부드러우며 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귀중하게 여겨지며 착용에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북인도는 추위가 극렬해, 짧게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며 호복과 아주 비슷하다. 겉옷은 복잡하여 좀 특이하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공작의 깃을 꽂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몸에 목걸이를 장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형태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판자로 몸을 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뽑고 수염도 깎으며, 어떤 사람은 구레나룻을 풀어헤치고 상투를 틀며, 의복에도 정해진 바가 없이 일정하지 않다.

사문(沙門)의 법복으로는 세 가지 옷이 있다. 즉 상가티〔僧伽胝〕, 웃타라상가〔欝多羅僧〕, 안타라〔安多羅〕나 상각시카〔僧伽崎〕· 니바사나〔泥縛些那〕가 있을 뿐이다. 삼의를 입는 법은 종족에 따라 같지 않아서, 혹은 가장자리가 넓고 좁은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엽〔접는 곳〕에 대소가 있다.

상각시카(唐에서는 掩腋이라 함. 옛날에는 僧祇支라 했으나 잘못)는 천으로 왼쪽 어깨를 덮고 양쪽 겨드랑이를 덮어 싸는 것인데(왼쪽 어깨를 덮는다) 왼쪽이 열리고(오른쪽 겨드랑이를 덮음) 오른쪽이 맞춰져 있으며 길게 허리를 두른다. 니바사나(당에서 裙이라 함. 옛날에는 涅槃僧이라 했으나 잘못)는 허리끈이 달려 있지 않으므로 입고자 할 때는 옷을 모아 주름을 만들어서 두르는 끈으로 감듯이 하여 입는다. 주름은 각기 색깔을 달리하는데 노랑 · 빨강 등 한결같지 않다.

크샤트리야, 브라마나는 청결하고 질박하며 신중하다. 국왕, 대신의 복식은 아주 달라서,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거나 보석으로 만든 관을 머리의 장식으로 하고 있으며,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몸을 장식한다. 대상인이나 부자 중에는 오직 팔찌만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맨발인 사람이 많아서 신을 신은 사람은 적다. 이빨을 물들여, 빨갛게 혹은 까맣게 하고 있다. 머리를 정돈하고 귀에는 구멍을 뚫어 장식을 했으며, 긴 코에 큰 눈, 이것이 그들의 용모이다.

생각건대 그들이 청결을 스스로 지니는 것은 결코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사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남은 음식을 두 번 다시 내놓는 법이 없다. 식기는 계속 사용하지를 않고 기와나 나무 그릇은 사용하면 반드시 폐기한다. 금 · 은 · 동 · 철의 기구는 항상 닦으며 식사가 끝나면 이쑤시개로 이의 소제를 한다. 입을 씻고 헹군 다음이 아니면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항상 용변을 마치면 몸을 물로 씻으며 몸에는 갖가지 향료를 바른다. 이른바 전단(旃檀) · 울금(鬱金) 같은 향료이다. 군왕이 목욕하고자 할 때는 악기로 노래를 부르고, 제사에 참예함에 있어서는 목욕하여 몸을 청정하게 한다.

### 7) 인도의 언어 · 문자와 교육

인도의 문자를 조사해 보면, 범천(梵天 : Brahma-deva, 사바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만들었으며, 처음에는 수칙(垂則)하여 47언(言)으로 했다. 사물을 만나 어(語)를 합성하고 사물에 따라 전전운용(轉轉運用)되는 사이에, 흐름이 뻗고 가지가 파생하여 그 영역은 차츰 넓어졌다. 곳과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변은 있었으나 그

대체를 말한다면 본원(本源)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중인도는 특히 상세 정확하고 말의 억양도 온화하고 정확하여 범천의 언어와 같으며, 맑고 분명한 것이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 그런데 인근 경계나 외국은 잘못된 것을 배워 법칙으로 삼으면서 다투어 경박한 풍조에 치달음으로써 바른 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언어를 기록하고 사적(事跡)을 쓰는 기록의 면에 이르러서는 각기 관리가 있다. 기록 문서를 총칭하여 닐라피타〔尼羅蔽茶 : 당에서는 靑藏이라 함〕라 하는데, 선악간에 자세히 적고 재해길상(災害吉祥) 역시 자상하게 적고 있다.

아이들의 몽(蒙)을 개발 지도함에 있어서는 먼저 실담(悉曇 : 梵字의 母音字 · 子音字를 배합 철자하는 방법을 悉曇章이라 하며 아이들에게 교습시켰음) 12장에서 시작하여 7세 이후에야 오명(五明 : 五種)의 대론(大論 : 學藝)을 교습받는다.

오명이란 제1은 성명(聲明)을 말한다. 말을 해석하고 글자를 새기며 줄거리를 확실하게 분류 구별한다. 제2는 공교명(工巧明). 기술 · 공예 · 음양(陰陽) · 역수(曆數)이다. 제3은 의방명(醫方明). 주술을 금하고 사악을 막으며 약물 · 치료 · 침구(鍼灸)를 한다. 제4는 인명(因明)이다. 정사(正邪)를 탐구하고 옳고 그름을 명백히 한다. 제5는 내명(內明)으로 이는 오승(五乘 : 人 · 天 · 聲聞 · 緣覺 · 菩薩)의 인과의 묘리를 연구한다.

바라문은 사베다론〔四吠陀論 : 옛날에는 毘陀라 했으나 잘못〕을 공부한다. 그 제1은 수(壽)이다. 삶을 이어나가고 성(性)을 좋게 하는 것이다. 제2는 사(詞)로,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을 이른다. 제3은 평(平). 예의 · 점복(占卜) · 병법 · 군진(軍陣)을 말한다. 제4는 술(術)이다. 특수기능 · 기술수학 · 금주(禁呪) · 의학을 뜻한다.

스승 된 자는 반드시 미세한 점까지 널리 연구하고 깊게 파고들어 이를 개론으로서 미묘한 말로 후진을 이끌면서 재능 있는 자를 격려한다. 만약 견식과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은둔(隱遁)을 바라는 자가 있으면 방에 가두어 밖에서 잠그고 학행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준다.

연령이 30이 되어 뜻을 세우고 배움을 이루었을 때는 일찍 봉록을 받고 관직에 있는 것이므로, 첫째로 스승의 은덕에 보답한다. 풍아(風雅)를 즐겨 세속을 떠나 행동이 바르며, 세속 밖에 몸을 두어 거기서 뜻을 펴는 자는 세평에 놀라는 법이 없

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군왕이 상찬한다 해도 그를 등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총명하고 명민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세상은 재주 있고 안목 높은 사람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상찬이 높으며 대우 또한 두텁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뜻을 굳혀 학문에 정진하고 피로를 잊고 학예에 마음을 쓰며 도를 구하여 인자를 찾아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는다. 집은 설사 부자라 해도, 뜻은 나그네 길에 있음과 같고, 배를 채우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구하면 된다.

도를 깨달음은 존중하며 재(財)가 모자람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 놀아나고 게으르며 미식(美食)에 빠지고 의복을 사치하는 것은 미덕도 아니거니와 시세의 흐름도 아니어서, 스스로의 면구스러움과 세상으로부터의 치욕이 한 몸에 이르게 되면서 악평이 높아진다.

8) 불교계의 상황

여래의 교리는 듣는 사람 각자의 분수에 따라 이해를 얻는 것인데, 더구나 오늘날에는 여래의 시대가 지난 지 오래여서, 여래의 정법 전달에 순수한 것과 그다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 각자가 보고 듣는 그대로 깨달음을 얻어, 각 파마다 서로 등을 대고 논란을 들끓게 하고 있다. 배우는 곳을 달리하고 한 과(科)의 학(學)을 오로지 정진하여 나아가는 길이 비록 다르다 해도 돌아갈 곳은 결국 같은 곳인데, 18의 각파가 각기의 창끝을 제멋대로 돌리고 있다.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두 파는 존재 양태가 제각기여서, 앉아서 심사숙고하는 자, 행동으로 수행하는 자들이 있으며, 마음을 침착하게 하는 것이나 지혜를 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시끄러운 것, 조용한 것 등 참으로 각각이다.

각기의 집단에 따라 각기의 규칙을 정하고 있다. 율론(律論)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그 큰 줄거리는 부처님의 경전이다. 일부의 경전을 강의하여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지사(知事 : 가람에서 衆僧의 雜事庶務를 장악하는 직책)를 면제받고, 2부의 사람에게는 좋은 방과 침구가 주어지며, 3부의 사람에게는 하인을 불러 일을 시키며, 4부의 사람에게는 정인(淨人)을 붙여 사역(使役)하게 하며, 5부의 사람은 외출함에 있어 코끼리 가마에 타며, 6부의 사람에게는 다시 그 전후에 호위병을 붙이는

식으로, 덕행이 높으면 그 대우 또한 다르게 된다.

가끔씩 모여 논의를 하고, 승려들의 우열을 생각하여, 논(論)의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분명히 나누면서 둔하고 미련한 자를 물리치고 명민한 자를 끌어올리도록 한다. 만약 여래의 미묘한 설법을 고정(考定)하여 뛰어난 도리를 선양하고 그 언사가 아름다우면서 변설이 훌륭하면 보석으로 장식한 코끼리에 타고, 선도(先導) · 종자(從者)가 수풀과 같이 많이 늘어설 정도의 영예를 얻는다.

만약 교의(敎義)의 내용이 빈약하고 말이 끊기거나 이치가 맞지 않고, 도리가 모순되어 있는데도 주절주절 말이 많으면 얼굴에 황토를 바르고 몸은 흙으로 더럽혀서 광야에 내쫓거나 계곡에다 버린다. 선과 악을 분명히 하고 현자도 우자도 결코 감싸지 않는다.

사람들은 도를 즐기는 것을 터득하여 모두가 학문에 부지런하지만, 출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각기의 취향에 따르고 있다. 죄를 범하고 계율을 어기면 승려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가벼운 경우는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고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하지 않으며, 중한 자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함께 살지를 않는다. 함께 살지 못한 자는 배척당하고 정해진 주거를 나와 몸 둘 곳이 없게 되므로 떠도는 신세에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환속을 하게 된다.

9) 족성

족성(族姓 : 종족의 성)이 다른 것에 사류(四流 : 四姓, 인도에 있어서의 네 가지 사회 계급)가 있다. 그 하나를 브라마나(婆羅門)라고 하며 정행(淨行)이다. 도를 지켜 행하고 바르며, 그 절조(節操)를 결백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가 크샤트리야(刹帝利 : 옛날에 刹利라 함은 생략한 것)이며 왕의 종족이다. 대대로 군림하여 인애(仁愛)에 뜻을 두고 있다. 셋째는 바이샤(吠奢: 옛날에는 毗舍라 했으나 잘못)로서 상인들이다. 남과 서로 유무(有無)를 거래하고 원근간에 이재(利財)를 좇는다. 넷째가 슈드라(戍陀羅 : 옛날에 首陀라 했으나 잘못임)로서 농부이며 힘을 전답에 쏟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대저 이 사성은 청탁(淸濁)의 흐름을 달리하여 섞이는 일이 없고, 결혼은 같은 성

사이에서 통하며, 걷는 데도 길을 달리 한다. 일족(一族) 내외의 종지(宗枝 : 主카스트와 거기서 분파한 亞카스트) 모두 혼인은 타성과는 섞어 하지 않는다. 여자는 한 번 출가하면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4성 이외의 잡성은 그 종족이 대단히 많은데, 각자 끼리끼리 모이며, 상세한 것은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10) 병제(兵制)

군왕은 대대로 크샤트리야만이 된다. 군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을 죽이는 일도 때로는 일어나며 이성(異性)인 자가 왕의 존위를 일컫는 일도 있다.
나라의 전사는 용감한 자를 모조리 뽑아 부자(父子)가 그 일을 세습함으로써 무술을 다하게 하며, 평상시에는 궁성의 수위를 맡고 전시에는 대중을 격려하여 그 선봉이 된다. 대체로 보(步) · 마(馬) · 차(車) · 상(象)의 4개의 병종(兵種)이 있다.
상병대는 코끼리에게 튼튼한 갑옷을 입히고 어금니〔牙〕에는 날카로운 침을 달고 한 사람의 사관이 타고 지휘하며 두 사람의 군사가 좌우에서 코끼리를 조종한다. 차병대는 네 마리의 말을 차에 연결하여 지휘관이 거기에 탄다. 군사들은 주위를 둘러 차를 지키며 속바퀴〔轂〕 도는 것을 돕는다. 기병대는 떨어져서 적을 막으며 도망치는 적을 열심히 뒤쫓는다. 보병대는 날렵하고 용기 있는 자를 뽑아 쓰는데, 큰 방패를 짊어지고 긴 창을 들던지 혹은 칼을 들고서 전진 행군한다. 이들 모든 병기는 전부 다 예리하다. 이른바 창과 방패 · 활과 화살 · 칼과 검 · 월부(鉞斧) · 장삭(長矟) · 과수(戈殳) · 윤삭(輪索) 등은 모두 대대로 익히고 있다.

11) 민족성과 형법

대저, 그 습속은 성질이 급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대단히 바르고 곧아서 금전도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을 손대지 않으며, 의(義)에 있어서는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다. 명계(冥界)에서 받을 죄를 두려워하여 이 세상일에 집착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약속을 잘 지킨다.
정교(政敎)는 곧바르고 풍속은 온화하다. 흉악한 소인들이 때로는 국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 군주를 해하려고 계획하면, 그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감옥에 유폐한

채 처형은 하지 않고 그 생사에 맡기면서 사람들 축에 끼워 주지 않는다.
예의에 어긋나고 충효에 반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코를 베거나 귀를 자르거나 손목을 자르거나 발목을 자르기도 하고, 혹은 나라 밖이나 먼 곳으로 추방한다. 그 밖의 범죄는 돈을 내어 죄를 보상한다.
재판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어로써 판단하여 태장(笞杖)으로 때리는 일이 없고 질문에 따라 정직하게 대답하면 사실에 따라 공평하게 죄를 과한다.
범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과실을 부끄러이 여겨 자기 죄를 감추려는 자가 있으므로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사하는 방법에는 수(水) · 화(火) · 칭(稱) · 독(毒)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수란 죄인과 돌을 묶은 다음 자루에 넣어 이를 깊은 물속에 가라앉혀서 그 진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라앉고 돌이 뜨면 범행이 있었다고 치고, 사람이 뜨고 돌이 가라앉으면 감추고 있는 것이 없다고 친다.
화란, 쇠를 달궈 죄인을 그 위에 앉히고서 발로 밟게 하고 손바닥으로 만지게 하며 그 위에 혀로 핥게 한다. 무실(無實)하면 상처가 안 나지만, 사실일 때는 상처가 난다. 마음이 약한 자는 심한 불꽃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덜 핀 불꽃을 들려 이를 뿌리면서 불꽃 쪽으로 가게 한다. 무실할 때는 불꽃은 지고 사실이면 불꽃은 탄다.
칭이란, 사람과 돌과의 평형을 잡아 저울에 달고서 그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다. 무실하면 사람이 내려가고 돌이 올라가며 사실일 때는 돌이 무겁고 사람이 가볍다.
독이란, 한 마리의 암양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 고소되어 있는 자가 먹는 분량의 다소에 따라 여기서 독약을 섞어서 그 안에 놔둔다. 이 네 종류의 방법을 차례로 하여 만일의 경우 잘못된 재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다.

12) 경례(敬禮)

경의를 표하는 방법에는 9가지 방법이 있다. 1은 말을 걸어서 위문한다. 2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 3은 손을 높이 들어 읍한다. 4는 합장하여 보통 가슴 높이로 읍한다. 5는 허리를 구부린다. 6은 무릎을 땅에 대어 조아린다. 7은 손이고 무

릎이고 모두 땅에 대고 조아린다. 8은 오륜(五輪 : 五體. 양무릎 · 양팔굽 · 앞이마)을 모두 조아린다. 9는 오체(五體)를 땅에 조아린다.

대저, 이 9등급의 예는 다만 한 번 절할 뿐이며 조아려 상대방의 덕을 찬미한다. 이에 대해 경(敬)을 다한다고 한다. 멀 때는 이마를 땅에 대어 손을 마주하고 절하며 가까울 때는 발을 핥고 뒤꿈치를 어루만진다. 말을 하고 명을 받을 때는 옷자락을 여미고 길게 엎드린다. 손윗사람은 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위로의 말을 하고 그 목덜미를 만지며 그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간절한 말로 교훈을 내리고 친밀의 정을 표시한다.

출가사문(出家沙門)은 경례를 받아도 다만 선원(善願)을 가할 뿐, 조아림을 그치지는 않는다. 자기가 존경하여 모시고 있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주변을 곧잘 도는데, 혹은 한 번, 혹은 계속 세 번 한다.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을 경우 그 횟수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한다.

13) 병의 치료와 장의(葬儀)

병에 걸리면 7일 동안 단식한다. 이 기간 동안에 치료되어 버리는 일이 많다. 아무리 해도 낫지 않을 때 비로소 약을 먹는다. 약의 성질 · 종류 · 명칭은 중국과 같지 않고 의사의 기술 · 진단법에도 차이가 있다.

죽어서 상을 당하면 소리를 높여 울고 옷을 찢으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마와 가슴을 치며 슬퍼한다. 복상(服喪)의 제도에 대해서는 들은 일이 없고 그 기간 또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죽은 자를 보내고 장의를 치름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다. 제1을 화장이라 하는데 섶을 쌓아 태운다. 제2는 수장인데, 물에 가라앉혀 흩어 버린다. 제3은 야장(野葬)이라고 하며, 숲에 버려 짐승이 먹게 한다.

국왕이 붕어(崩御)했을 때는 장의에 앞서 후계자를 세워 장의를 주재하게 하며 서열과 상하를 정한다. 태어났을 때 덕호(德號)가 있으므로 죽음에 당하여 시호(諡號)를 보내지는 않는다. 불행을 당한 집에 사람들은 식사하러 가지는 않으나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보통 때와 같이 피하거나 조심함이 없다.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한 사람은 부정(不淨)하다고 생각하여 집 밖에서 목욕한 다

음 안으로 든다.

오래 살다가 드디어 죽을 때가 눈앞에 닥친 자, 큰 병에 걸려 생애가 다된 것을 두려워하는 자, 속진(俗塵)을 싫어하여 인간계를 버리기 원하는 자, 생사를 가볍게 여겨 세상에서 멀어짐을 원하는 자 등은 이웃이나 친지들이 음악을 연주하여 이별의 모임을 갖고, 배를 띄워 갠지스 강을 건너다가 중간에서 스스로 빠져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열 사람에 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지만, 아직 실제로 목도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

출가한 승려들은 제도로서 사자를 슬퍼하며 우는 일은 없으나, 부모의 죽음을 당해서는 마음에 떠올려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장의를 정중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명복의 일조도 되는 일이다.

### 14) 행정과 조세

정교(政教)도 관대하고 기구(機構)도 또 간단하다. 호적은 서책에 쓰는 법이 없고 백성을 노역에 과(課)하는 일도 없다.

왕령(王領) 안의 밭은 크게 네 개로 분류된다. 제1은 국비와 제사 비용에 충당된다. 제2는 보좌역의 대신들에게 봉록으로 지급한다. 제3은 총명한 학자나 재능 있는 사람들의 상으로 쓰인다. 제4는 공양하는 밭으로서, 여러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시(布施)하는 것이다.

세금이 적고 노역도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할당된 밭을 소작한다. 왕의 밭을 빌면 6분의 1을 세(稅)로 바친다. 상인은 이익을 좇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한다. 항구나 도로의 세관에서 가벼운 세금을 지불하고 통과한다. 국가의 사업에는 인민의 노역에 대해 그냥 일만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보수로서 지급한다.

병역이나 출정, 어전(御殿)의 영조(營造) 등에 있어서는 일의 양을 재어 사람을 모집하고 현상금을 내어 사람을 초빙한다. 보좌하는 대신이나 상하의 백관들은 각기 나누어진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봉록으로 생활하고 있다.

15) 물산(物産)

풍토가 다르면 지리(地利)도 다르고 꽃 · 풀 · 열매 · 나무 등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명칭이 달라진다.

이른바 암몰라과〔菴沒羅果 : 망고〕· 암미라과〔菴弭羅果 : 타마린도〕· 마두카과〔末杜迦果〕· 바다라과〔跋達羅果 : 식용 과일〕· 카피타과〔劫比他果 : 우드 · 애플〕· 아말라과〔阿末羅果 : 菴沒羅果 비슷함〕· 틴두카과〔鎭杜迦果〕· 우둠바라과〔烏曇跋羅果 : 菴沒羅果 비슷함〕· 모차과〔茂遮果〕· 나리켈라과〔那利蓟羅果 : 야자〕· 바나사과〔般椓果〕 등은 자상하게 기재하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세상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의 언급했다.

대추 · 밤 · 감은 인도에 있다고 들은 일이 없으며, 배 · 능금 · 복숭아 · 살구 · 포도 등의 과실은 카시미르국보다 이쪽〔북쪽〕에서는 가끔 심어져 있고, 석류 · 감귤 등은 어느 나라에서고 모두 심고 있다. 밭을 만드는 일, 심기, 거두기, 경작하기, 풀베기, 식수 등의 작업은 그 시절에 따라 행해지며, 각자의 작업에 의하기는 하나 땅에서 얻는 것은 벼나 보리가 가장 많다.

채소류에는 생강 · 겨자 · 오이 · 박 · 훈타채(葷陀菜 : 무엇인지 不明) 등이 있으며, 파 · 마늘은 적지만 먹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데다, 집안에서 이를 먹는 자가 있으면 냄새를 싫어하여 동네에서 쫓겨난다.

유락(乳酪 : 乳製品) · 고수(膏酥 : 乳製品) · 설탕 · 석밀(石蜜) · 겨자기름〔芥子油〕· 여러 가지 병초(瓶麨 : 밀가루로 만든 건조식품)는 보통 밥상에 오르는 것이다. 물고기 · 양(洋) · 노루 · 사슴은 때로 권장하지만, 소 · 당나귀 · 코끼리 · 말 · 돼지 · 개 · 여우 · 늑대 · 사자 · 원숭이 등 털이 난 짐승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입을 대는 자는 천하게 여기면서 추한 것으로 남의 혐오를 받아 동네 밖에 살고 사람들 속에 나오는 일이 드물다.

한편 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맛도 다르다.

포도나 고구마로 만든 술은 크샤트리야가 마신다. 누룩을 사용한 양조주는 바이샤들이 마신다. 사문이나 바라문은 포도나 고구마의 음료〔漿〕를 마시나 이는 주류라 할 수 없다.

잡성의 비천한 신분은 그 음료에 구별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에는 세공재질(細工材質)의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는 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족함이 없다. 솥은 사용하지만 시루는 사용할 줄 모른다.

식기는 토기를 많이 사용하며 적동(赤銅)의 것도 좀 사용한다. 식사는 하나의 그릇으로 여러 가지 조미료를 섞고 손끝으로 짐작을 하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이 없고 노인이나 병자만이 동(銅) 숟가락을 사용한다.

금 · 은 · 유석(鍮石) · 백옥(白玉 : 白瑪瑙인 듯) · 화주(火珠 : 水晶인 듯) 등은 이곳의 산물로서 아주 많다. 진귀한 것, 갖가지 보물은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명칭도 다르며, 바다 저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교환하여 무역하고자 하나, 그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서는 금전 · 은전 · 진주 · 소주(小珠)를 사용한다.

인도의 토지 경계는 대부분 나타내었고, 풍토의 차이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 공통점은 거의 설명한 셈인데, 정치나 풍속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다.

## 2. 남파국

남파국(濫波國 : 지금의 Lamghan 또는 Laghman 지방인 듯)은 주위가 1천여 리, 북으로 설산을 뒤로 하고 삼면은 흑령(黑嶺)을 경계로 하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0여 리이다. 이 수백 년 동안 왕족은 후사(後嗣)가 없어 호걸이 다퉈 대군주가 없었다. 근래에 이르러 카피시국에 예속되어 있었다.

땅은 메벼 짓기에 좋고 고구마가 많다. 수풀은 많지만 과실은 의외로 적다. 기후는 약간 따뜻하고 서리도 적으며 눈은 없다. 나라는 물건이 풍성하고 백성은 즐거워하여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성격은 겁쟁이이고 마음에는 거짓을 품어 서로 속이며 상대를 첫째로 추장한다는 법이 없다.

모습은 비천하고 작으며 동작에는 침착함이 없다. 대부분은 하얀 첩(氎 : 무명)을 입고 있으며, 몸에는 고운 장식품을 달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적고 모

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天祠)가 수십 군데로 이도(異道)가 대단히 많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가기 1백여 리 해서 큰 고개를 넘고 대하를 건너 나가라하르국에 이른다.

### 3. 나가라하르국

#### 1) 개관

나가라하르국〔那揭羅曷國 : 지금의 Jelabad를 중심으로 Cabul강 유역 남부인 듯〕은 동남 6백여 리, 남북 2백 5~60여 리, 산이 사방을 둘렀고 험준한 산으로 구분지어져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통치하는 대군주는 없고 카피시국에 예속되어 있다. 곡물이 풍성하고 꽃이며 과실이 많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질박하다. 용맹 과감하고 재화를 가벼이 여기며 학문을 즐긴다. 불법을 두터이 공경하며, 이도(異道)를 믿는 자가 적다. 가람은 많지만 승도는 적다. 모든 수토파〔窣堵波〕는 헐어 부서졌다. 천사는 5군데, 이도는 1백여 명이다.

#### 2) 연등불(燃燈佛)의 유적

성의 동쪽 2리쯤에 3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돌을 쌓아 아주 높이 조각하여 훌륭하게 만든 것이다.

옛날 석가보살이 연등불(燃燈佛)을 만났을 때 녹비(綠肥) 옷을 땅에 깔고 머리카락을 펼쳐 깔아 연등불이 지나는 길을 진흙으로 덮은 다음 수기(受記 : 미래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예언)를 얻은 곳이다. 세월은 이미 괴겁(壞劫 : 인도의 시간 구분법. 한 세계의 성립에서 다음 세계가 성립하기까지의 큰 시간을 成 · 住 · 壞 · 空의 四劫의 等量 시간으로 나누는데, 괴겁은 제3기로 세계의 파괴로 향하는 시기)의 기간을 거쳤건만, 이 유적은 멸망하지 않았다. 때로는 재일(齋日)을 당하여 하늘로부터 갖가지 꽃이 비로 뿌려, 군중은 마음으로 괴이하게 생각하면서 공양을 행하

는 일도 있다.

그보다 서쪽 가람에는 승도가 조금 있다. 그 남쪽의 작은 수토파는 그 옛날 석가가 머리카락으로 진흙을 덮은 곳으로서, 아쇼카 왕이 큰 거리를 피해 옆쪽에 세운 것이다.

성내에는 큰 수토파의 기초 유적이 있다. 이에 대한 고로들의 얘기인즉, 옛날 부처님의 이〔齒〕가 수납되었던 이 탑은 높기도 하고 넓기도 한 훌륭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제는 이도 없고 탑도 다만 기초의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곁에 높이 30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여기에 높이 기초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영서(靈瑞)스러운 것이 많다.

성의 서남쪽 10여 리에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중인도에서 허공을 헤집고 다니며 교화하여 이 나라에 유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 자취를 흠모하여 이 고마운 탑을 세운 것이다. 그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석가보살이 옛날 연등불을 만났을 때 여기서 꽃을 사서 연등불에 공양한 곳이다.

3) 불영굴(佛影窟)

성 서남쪽으로 20여 리 가면 자그마한 바위산에 이른다. 이곳에 가람이 있는데 높이 몇 층으로 된 당(堂)과 누각은 돌로 쌓아 만든 것이다. 뜰이나 건물은 조용하여 승려는 없다. 그 안에 높이 2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가람의 서남쪽에는 깊고 험한 골짜기에 폭포수는 퉁겨 흩어지고 낭떠러지는 벽과도 같다. 동쪽 벼랑의 석벽에 큰 동혈(洞穴)이 있다. 고팔라용〔瞿波羅龍 : 소치기, 牛飼라는 뜻〕이 산 곳이다. 어귀의 길은 좁고 작으며, 동굴 안은 깜깜하고 벼랑의 돌에는 물이 떨어져 가느다란 길에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 옛날 부처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 형상을 갖추어 눈앞에 있는 듯했다고 한다. 근년 들어서는 누구나 그것을 본다고 할 수는 없고, 혹시 본다고 해도 망연히 있을 뿐이었다.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자에게는 잠시 동안 분명히 보이지만, 역시 오래가지는 않게 되었다.

옛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이 용은 소를 치는 사내여서 왕에게 우유를 바쳐 왔던 것인데, 그 바침에 잘못이 있어 죄를 받고 마음으로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돈으로 꽃을 사, 수기 수토파를 공양, 악룡(惡龍)이 되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왕을 해치려고 서원했다.

그런 다음 돌벽을 향해 투신자살, 그대로 이 동굴에 달라붙어 대용왕이 되었다. 그 후에 구멍을 나와 본래의 악원(惡願)을 행하려 했다. 마침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여래가 이를 관찰하고서 이 나라의 인민이 용한테 해를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신통력을 써서 중인도에서 왔다.

용이 여래를 보자 악심은 그대로 가시고 불살계(不殺戒)를 받아 정법(正法)을 수호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런 다음 여래에게 언제나 이 동굴에 계셔서, 모든 제자들이 항상 나의 공양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래는 "나는 곧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므로, 너를 위하여 내 모습을 남겨 다섯 명의 나한에게 네 공양을 받도록 하리라. 설사 바른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스러져 없어진다 해도 이 일이 그치지 않도록 말이다. 네가 만약 악심이 생겨 성이 날 때면 내가 이곳에 머무른 모습을 보라. 그리하면 내 자선의 마음에 의해 네 악심은 걷히게 되리라. 현겁(賢劫) 중에 출세(出世)하는 세존(世尊)도 너를 불쌍히 여겨 반드시 그 영상(影像)을 머무르게 하리라"라고 말했다 한다.

4) 불족석(佛足石) 및 불탑(佛塔)

불영굴 문 밖에 두 개의 네모난 돌이 있다. 그 하나의 돌 위에 여래의 발바닥 자국이 있으며 윤상(輪相)이 희미하게 보인다. 때로는 광명이 번뜩이기도 한다.

불영굴 좌우에 석실(石室)이 많이 있다. 모두 여래의 제자들이 입정(入定 : 禪定으로 들어가는 것)한 곳이다.

불영굴 서북쪽 귀퉁이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경행(經行 : 散策)한 곳이다. 그쪽 수토파에는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있다. 이와 나란히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진실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하면서 온계처(蘊界處 : 五蘊 · 十二處 · 十八界의 三科를 생략한 말로서 일체의 존재의 理法을 파악 설명하는 분류 체

계)에 대해 설명한 곳이다.

불영탑 서쪽에는 크고 편편한 돌이 있다. 여래가 옛날 그 위에서 가사를 세탁한 곳으로서 그 무늬 자국이 희미하게 보인다.

5) 핫다 성

성의 동남쪽으로 34리를 가면 핫다 성(醯羅城 : 지금의 Hadda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교 유적이 가장 많다)에 이른다. 주위는 4~5리로 험준하다. 꽃 피는 숲에 못이나 높은 빛도 선연하여 거울과 같이 맑다.

성안의 주민은 질박하고 정법(正法)을 믿고 있다. 여기에도 2층의 누각이 있는데 그림을 그린 대들보에 붉은 서까래로 되어 있다. 2층에는 칠보의 자그만 수토파가 있는데, 여래의 정골(頂骨)이 안치되어 있다. 뼈는 주위 1척 2촌, 모공(毛孔)이 명료하고 색은 황백색이다. 보함(寶函)에 넣어 수토파 안에 안치해 두었다.

운(運)의 선악의 상(相)을 알고자 하는 자는 향(香) 분말을 흙과 섞어 정골의 인(印)을 뜨면 그 복운(福運)의 정도에 따라 무늬가 분명히 나온다. 또 칠보의 작은 수토파가 있는데, 여래의 촉루(髑髏)의 뼈를 담아 놓고 있다. 모양은 연잎과 같으며 색깔은 정골과 같다. 이것 또한 보함에 넣어 함봉해서 안치해 놓았다.

또 칠보의 작은 수토파가 있는데, 여래의 안정(眼睛)이 들어 있다. 안정은 크기가 능금 정도인데, 번쩍거린다. 이것 역시 보함에 넣어 함봉해서 안치해 놓았다.

여래의 상가티 가사로서 가는 무명으로 만든 것이 있다. 그 색은 황적색인데 보함 안에 안치해 놓았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조금 손상되어 있다. 그리고 여래의 석장(錫杖)이 있다. 백철로 환(鐶)을 만들고 전단(栴檀)으로 지팡이가 만들어졌다. 보통(寶筒) 안에 들어 있다.

근년 들어 어떤 국왕이 이 모든 보물은 모두 여래가 옛날 친히 사용했다는 것을 듣고 그 위력을 믿고 협박하여 뺏어 가지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어전에 안치했다가 12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찾았더니 없었다. 그래서 다시 찾았던바 이미 본디 장소로 돌아가 있었다.

이 다섯 군데의 성스러운 발자취는 영험이 각별하다. 카피시 왕은 다섯 명의 정행

(淨行 : 보통은 婆羅門인데, 여기서는 淨人과 同意인 듯)에게 향화(香花)를 공양하게 하고 있다.

배관예배(拜觀禮拜)하는 사람이 끊임없다. 정행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곳을 원해, 억지로 규칙을 만들어 시끄러운 것을 막으려 했다. 그 규칙의 대강은, 재물은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것이므로 여래의 정골을 배관하려 하는 자는 금전(金錢) 한 장을 낸다. 만약 인(印)을 뜨려 하는 자는 금전 다섯 장을 낸다. 그 밖의 단계도 순서에 따라 규정했다. 규칙은 무거웠으나 배관예배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다.

2층 누각 서북쪽에 수토파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높고 크며 영험 또한 각별하다. 사람이 손가락을 대면 곧장 움직인다. 기초까지가 움직이는 바람에 영탁(鈴鐸)이 그에 따라서 운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산골짜기 속을 가기 5백여 리 해서 간다라국〔옛날에 乾陀衛라 했으나 잘못임. 북인도 경계〕에 이른다.

## 4. 간다라국

### 1) 개관

간다라국〔健馱邏國 : 아프가니스탄領 쿠나르 강과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 사이로서 대체로 지금의 Peshawar縣에 해당한다〕은 동서가 1천여 리, 남북 8백여 리이며 동은 인더스 강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푸루샤푸라라 하며, 주위가 40여 리이다. 왕족은 후사(後嗣)가 끊겨 카피시국에 예속되어 있다. 촌락은 황폐하여 주민은 드물고 궁성의 한 귀퉁이에 1천여 호가 있을 뿐이다.

농업은 성하여 꽃과 과일이 잘 되는데 고구마가 많고 석밀(石蜜)을 산출한다. 기후는 따뜻하며 서리나 눈은 내리지 않는다. 백성들의 성질은 소심하고 학습을 즐겨 한다. 대부분이 이도(異道)를 공경하고 정법을 믿는 자가 적다.

예로부터 이곳 인도의 땅에는 작론지사(作論之師)가 많아서 나라야나데바 · 무착

보살 · 세친보살 · 법구(法救) · 여의(如意) · 협(脇)의 여러 존자들이 이곳 출신이다. 승가람은 1천여 군데 있으나 부서져 황량하게 내팽개쳐진 채이며 많은 수토파도 파괴되었다. 천사(天祠)는 1백을 넘어설 정도로 이도(異道)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다.

2) 불발(佛鉢) 및 핍발라수(卑鉢羅樹)

왕성 안의 동북쪽에 한 기초의 자국이 있다. 옛날 불발(佛鉢)이 안치되어 있었던 보대(寶臺)이다. 여래가 돌아가신 다음 발(鉢)은 이 나라로 흘러와서 수백 년 동안 정중하게 공양되어졌다. 그 뒤 제국을 유전한 끝에 지금은 페르시아국에 있다.

성 밖 동남쪽 8~9리에 높이 1백여 척 되는 핍팔라수〔卑鉢羅樹 : 菩提樹라고도 함〕가 있다. 가지와 잎은 무성하여 그늘져 있다. 과거 4불(過去四佛 : 석존 이전에 득도한 부처로 비파신불, 시킨불, 비샤부불, 크라쿠찬다불, 카나카무니불, 카샤파불, 샤캬무니불을 과거 7불이라 하며 이 중 앞의 3불을 과거장엄의 3불, 나중 4불을 현재 賢劫의 4불이라 함)이 그 아래 앉았던 곳으로 지금도 4불의 좌상(坐像)이 있다. 현겁 중 출세한 9백 96불〔賢劫에 千體의 佛이 출세할 것이고 그중 四佛이 출세했으니 앞으로 출세할 佛은 9백 96體)은 모두 여기에 앉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호로 지켜지고 있는 곳이다.

석가여래는 이 나무 아래서 남쪽을 향하여 앉고서 아난(阿難)에게 "내가 이승을 간 뒤 4백 년, 일세에 뛰어난 왕이 나와 카니시카라 이름하고 여기서부터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를 세울 것이다. 내 몸의 모든 골육사리(骨肉舍利)는 많이 여기에 모일 것이다"고 말했다.

3) 카니시카 대탑

핍팔라수 남쪽에 수토파가 있다. 카니시카 왕이 세운 것이다.

카니시카 왕은 여래가 입멸한 뒤 4백 년째에 천하에 군림하여 운에 따라 잠부주(瞻部洲)를 통일했다. 왕은 죄와 복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멸했다. 들로 사냥을 나가 흰 토끼를 만났는데, 왕은 토끼를 좇아 이 탑이 있는 곳까지 왔던

바, 문득 토끼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소 치는 아이가 숲 속에서 작은 수토파〔높이 3척〕를 만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왕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은즉 목동은 "옛날 석가모니불이 성명(聖明)한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어떤 국왕이 이 빼어난 곳에 수토파를 세울 것이다. 내 몸의 사리의 대부분은 그 안에 모일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대왕은 빼어난 덕을 전세에 심었고, 이름 또한 옛날 석가의 예언과 똑같습니다. 훌륭한 공과 빼어난 복운으로 이 시기를 잘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려드리려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자마자 홀연히 사라졌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자기의 이름이 성인의 예언과 맞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바른 신앙을 깨우쳐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모하게 되었다.
작은 수토파를 둘러 다시 돌 수토파를 세우면서 공덕의 힘으로 작은 수토파를 덮을 수 있도록 발원했다. 그런데 돌 수토파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 수토파도 크게 되면서 항상 3척은 나와 있었다. 이리하여 차츰 높아져 4백 척을 넘고, 그 기초가 서 있는 곳은 주위가 1리 반, 기단(基壇)은 5층으로 높이 1백 50척이 되어서야 겨우 작은 수토파를 덮을 수 있었다.
이에 왕은 기뻐하며 다시 그 위에 25층의 금동상륜(金銅相輪)을 세우고, 여래의 사리 1곡(斛 : 10말)을 그 안에 안치하여 공양했다.
공사가 끝나고 보니 작은 수토파는 큰 기단의 동남쪽 귀퉁이 아래 가로 절반을 나타내고 있었다. 왕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 곧 작업을 멈추어 버렸으므로, 그대로 수토파 2단째 기단의 중간 정도에 작은 수토파가 절반쯤 얼굴을 내민 채로 굳어 버렸다. 그 위에 본래의 장소에 또 하나의 작은 수토파가 나왔다. 이에 왕은 실망하여 "아, 사람의 일은 잘못되기 쉽고, 부처님 하시는 일은 덮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이 부조하시는 일, 제 아무리 울화를 터뜨린대서 어찌 따라갈 수가 있을 일이겠는가" 하면서 부끄럽게 여겨, 자기의 죄를 빌며 돌아갔다.

이 두 개의 수토파는 지금도 있다. 병에 걸려 낫고자 하는 자는 향을 바르고 꽃을 뿌려 진심으로 귀의하면 전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큰 수토파 동쪽, 석단 남쪽에 두 개의 수토파가 파져 있다. 하나는 높이 3척이고 하나는 5척이다. 만듦새와 모양은 대수토파와 같다. 또 불상 2개가 만들어져 있다. 하나는 높이 4척, 하나는 6척이다. 이는 보리수 아래 결가부좌(結跏趺坐) 한 모습을 본뜬 것이다.
햇빛이 나면 금빛으로 빛나며 해 그림자가 옮아감에 따라 돌무늬가 감색으로 되어 간다. 이에 대해서 고로들은 "수백 년 전에 돌 기단의 틈바귀에 금빛 개미가 있었다. 큰 것은 손가락만 하고, 작은 것은 보리알 정도였다. 그 개미들이 계속해서 이 석벽을 물어뜯었다. 그래서 그 무늬는 마치 조각하여 금모래를 섞은 것 같이 되면서 이 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지금도 상존한다.

#### 4) 불상도(佛像圖)

대수토파 석단 남쪽에 그린 불상의 높이는 1장 6척이다. 가슴에서 나뉘어 2개의 몸으로 되어 있고, 가슴에서 아래는 합하여 일체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고로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해 가면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한밑천을 잡게 되자 불상을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수토파 있는 곳에 가서 화가에게 '나는 지금 여래의 훌륭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한밑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의 대가로서는 오히려 모자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가난에 쪼들려 발원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화가는 의뢰자의 진심을 간파하고 값은 따지지 않고 일을 떠맡았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 사정은 앞의 사람과 같은데 한밑천 지니고서 불상을 그려 달라고 했다. 화가는 이때 두 사람의 돈을 받고 훌륭한 화구를 사 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상을 그렸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함께 와서 인사를 했다. 그래서 화가는 하나의 상을 두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이것이 당신들이 만든 불상입니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는 듯했다.

화가는 그 의념(疑念)을 간파하고 두 사람에게 "무엇을 그리 오래 생각하고들 계십니까? 당신들한테 받은 돈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말에 잘못이 없다면 이 상은 반드시 신비한 변화를 나타내리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은 영이(靈異)를 나타내 몸을 분리하고 그림자를 섞어 빛이 서로를 비추었다. 두 사람은 화가의 말에 틀림이 없다 하여 마음으로 믿고 기뻐했다는 것이다.

5) 백석(白石)의 불상

대수토파에서 서남쪽으로 1백여 보의 곳에 높이 1장 8척의 백석 불상이 북쪽에 면해 서 있다. 불가사의한 일이 많아서 가끔 광명을 발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불상이 밤의 산책(즉 經行)에 나가 대수토파를 도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
요 근년에 도둑의 무리가 몰려와 도둑질을 하려 했을 때, 불상이 도둑들을 맞아들였으므로 도둑들은 놀라서 도망을 쳤다. 불상은 본래의 곳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갔다. 도둑 떼들은 이것이 근원이 되어 잘못을 뉘우쳐 새 사람이 되어 촌락에 나가 이 사실을 원근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대수토파 좌우에 소수토파가 고기비늘과 같이 1백여 개 있다. 불상의 장엄은 교묘의 극치를 보여 좋은 향기나 불가사의한 음을, 때로는 코로 때로는 눈으로 대할 수 있다. 영력(靈力)이 있는 선인이나 덕이 높은 현인이 가끔씩 돌아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수토파는 일곱 번 타고 일곱 번 세우게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하리라고 여래가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선현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은 이미 세 번이나 파괴되었다고 한다. 처음이 나라에 왔을 때, 마침 큰 불을 만났다. 영조(營造)되어야 할 텐데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다.

6) 카니시카 가람과 협존자(脇尊者)

대수토파 서쪽에 낡은 가람이 있다. 카니시카 왕이 세운 것으로 여러 층의 집과 잇대어진 정자, 높은 전각, 깊숙한 방이 있으며 고승을 초대해 그 훌륭한 덕을 현창

(顯彰)하고 있다. 파괴되어 있다고는 하나 역시 세공이 훌륭하다. 승도는 줄어 있으나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다.

가람을 세운 이래 이때까지 뛰어난 사람이 가끔씩 나서 작론(作論)한 사승(師僧)이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영향은 많아 고덕(高德)이 스러지지 않는다.

세 번째의 중각(重閣)에는 파르시바〔波栗濕縛 : 唐에서는 脇이라 함〕 존자의 방이 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파괴되어 있으나 지금 오히려 표창되어 있다. 처음에 존자는 범지(梵志 : 婆羅門)의 스승이었다. 나이 80에 집을 버리고 옷을 물들여 출가했다.

성중의 소년들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늙은이가 무슨 얕은 짓인가. 대저 출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정(定 : 마음을 전념하여 움직이지 않음)을 배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경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이 늙은이는 아무런 진보도 없이 모처럼의 청류(淸流)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다만 배불리 먹는 것을 생각할 뿐이다.”

그때 협존자는 이와 같은 악담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또 스스로를 서원(誓願)하기를 “내가 만약 삼장(三藏 : 經律論)의 이(理)에 통하지 못하고 삼계(三界 : 一切衆生이 生死輪回하는 三種의 세계로 欲界, 色界, 無色界)의 욕(欲)을 끊지 못하며, 육신통(六神統 : 6종의 신통력으로 天眼, 天耳, 他心, 宿命, 神足, 漏盡)을 얻지 못하고 팔해탈(八解脫 : 8종의 定에 의해 번뇌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脫하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최후까지 갈비〔脇〕를 자리에 붙여 눕지 않겠다”고 했다.

이로부터 날이 모자라도록 걸으면서 사물을 생각하고 좌선해서는 사색에 잠기며, 낮에는 교리를 연구하고 밤에는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 3년이 지났을 때 학(學)은 삼장에 통하고, 삼계의 욕을 끊었으며, 삼명(三明 : 天眼, 宿命, 漏盡)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운데 협존자라 불리게 되었다.

### 7) 세친보살(世親菩薩)의 유적

협존자의 방 동쪽에 낡은 방이 있다. 세친보살이 여기서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

磨俱舍論)》을 저작했다. 보살을 존경하는 자가 방을 봉하여 이 유래를 쓰고 있다.

8) 여의논사(如意論師)의 유적

세친의 방에서 남쪽으로 50여 보의 곳에 제2의 중각(重閣)이 있다. 마노라타〔末笯曷刺他 : 唐에서 如意라 함〕 논사가 여기서 《비바샤론〔毗婆沙論〕》을 저작했다. 논사는 부처님이 열반한 뒤 1천 년 사이에 태어났다.

젊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말솜씨가 있어 그 세평이 멀리까지 미쳐 도속(道俗)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침 그때, 시라바스티국의 비크라마아디티야 왕〔唐에서 超日이라 함〕은 위풍을 멀리 뻗쳐, 모든 인도를 신하로 삼고 하루에 5억의 금전을 가난한 사람이나 고독한 사람에게 베풀고 있었다. 재무 장관은 국비가 축나는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간접적으로 간하였다.

"대왕의 위광(威光)은 이민족(異民族)을 덮고 은혜는 곤충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5억의 금전을 더 늘려서 천하의 빈약한 자들을 공궤하시옵소서. 관아의 창고는 이미 비어 버렸으니 나라에 세금을 더 거두도록 합시다. 거두는 것이 계속되면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군주는 위에 서서 천하에 널리 베푼다는 은덕에 기대고, 신하는 아래 있어서 직무에 불충실하다는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이 풍간(諷諫)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稅)를 거두는 데는 남음이 있을 정도이지만, 베푸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도대체가 짐을 위해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재무 장관의 말대로 5억의 금전을 불려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다.

그 뒤,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를 쫓았으나 잃어 버렸다. 멧돼지가 도망간 곳을 발견한 자가 있었으므로 1억의 금전을 상금으로 주었다.

한편 여의논사는 한 번 사람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서 그 자리에서 1억의 금전을 주었다. 그 나라의 사신(史臣)은 곧장 그 사실을 기록에 썼다. 왕은 여의논사 쪽의 상금이 값있다고 남들이 여기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해 마음속으로는 항상 좋지 않

게 생각했다. 그래서 여의논사를 여러 사람 앞에서 치욕을 주고자 이학(異學 : 外道)의 덕과 업적이 높고 깊은 사람 1백 명을 초청하면서 "현상계(現象界)만 돌아보는 것을 그만두고, 진실의 경지로 들어가고자 하나 여러 설이 분분하여 마음 붙이려 해도 붙일 곳이 없구나. 이제 이 모든 설의 우열을 가려 전적으로 하나만 받들려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선 논의를 모음에 이르러 거듭 명령을 내리기를 "외도(外道)의 논사(論師)들은 모두 수재들이다. 사문(沙門)의 신자들은 신봉하는 교의를 충분히 말하라. 이기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배하리라. 지면 승도를 사형에 처하겠다."

거기에서 여의는 외도들과 논전을 벌여 99명을 패퇴시켰다. 이제 좌석에 남은 한 사람은 여의를 멸시하듯 보았다. 그래서 이자와 격렬하게 논쟁하여 논의는 '불과 연기'에 이르렀다.

왕과 외도는 함께 큰 소리로 "여의논사의 어의(語義)에는 잘못이 있다. 대저 연기가 먼저고 그 다음이 불에 언급하는 것, 이것이 사리(事理)의 상궤(常軌)다"라고 부르짖었다.

여의는 이 비난에 해명하려 했으나 귀를 기울이고 곰곰이 생각하려 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뭇사람 속에서 모욕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 혀를 깨물고 문인인 세친(世親)을 훈계하여 "대수를 믿는 군중과는 진리를 다투지 마라. 미망(迷妄)한 자들 속에서는 정론을 말하지 마라"고 쓰게 했다.

이 말을 마치자 여의는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초일왕(超日王)은 나라를 잃었다. 흥성하는 나라의 왕이 운에 맞아 왕위에 있으면 영현(英賢)은 표창되는 법이다. 세친보살은 전번의 치욕을 씻으려고 와서 왕〔이 왕은 超日王의 아들 쿠마라굽타 1세〕에게 "대왕은 성덕으로 천하에 군림하여 중생의 수명을 주재하고 계십니다. 나의 선사(先師) 여의는 그 학문이 심오함에 달했었습니다만 전왕의 숙원을 사서 뭇사람에게 그 높은 이름을 좌절당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도를 받아 전번의 원한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왕은 여의가 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세친의 훌륭한 뜻을 찬미했다. 그래서 여의와 논쟁한 외도(外道) 사람들을 소집해 세친이 거푸 이전의 〔불과 연기의〕

논리를 설파했다. 외도는 굴복해 패퇴했다.

9) 푸시칼라바티 성

카니시카 가람에서 동북으로 가기 50여 리, 큰 강을 건너 푸시칼라바티 성(布色羯邏伐底城)에 이른다. 주위는 14~5리 된다. 주민은 많고 집들은 잇대어 있다. 성 서문 밖에 하나의 천사(天祠)가 있다. 대자재천상(大自在天像)은 위엄이 있고 불가사의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10) 세우(世友) 논사와 법구(法救) 논사

성 동쪽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기가 과거4불이 설법한 곳이다.

옛 성현 중, 중인도에서 강림하여 중생을 이끈 사적은 이곳에 참으로 많다. 예컨대 바수미트라(唐에서 世友라 함. 옛날에 和須蜜多라 했음은 잘못) 논사는 여기서 《중사분아비달마론(衆事分阿毘達磨論)》을 저술했다.

성의 북쪽 4~5리의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뜰과 건물은 황폐해 있다. 승도는 적지만 모두 소승(小乘)의 교리를 순봉하여 학습하고 있다. 다르마트라타(당에서는 法救라 함. 옛날에 達磨多羅라 했음은 잘못) 논사가 여기서 《잡아비달마론(雜阿毘達磨論)》을 저술했다.

11) 천생사안 탑(千生捨眼塔)

가람 쪽에 높이 수백 척의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나무의 조각이나 돌의 무늬는 인공의 것과 대단히 다른 바가 있다. 이는 석가불이 옛날 국왕이 되어 보살행을 수행했을 때, 중생이 청하는 바에 따라 베풂에 게으름이 없이, 마치 자기의 몸을 없애도 오히려 남아 있는 것과 같이 보시를 해 이 나라에 1천 번 태어나서 왕이 된 곳이다. 이 성지(聖地)가 천생사안(千生捨眼)이란 곳이다.

사안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두 개의 석조 수토파가 있다. 각각 높이 1백여 척이다. 우측이 범왕(梵王 : 王大梵天)이 세운 것이고 좌측은 천제(天帝 : 帝釋天)

가 세운 것이다.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했던 것인데, 여래가 적멸하자 보석은 돌로 변해 버렸다. 탑의 기반은 부서져 기울었으나 지금도 높이 솟아 있다.

12) 화귀자모(化鬼子母)의 유적

범석(梵釋 : 梵天과 帝釋天, 즉 天帝)의 수토파에서 서쪽으로 50여 리 가면 수토파가 있다. 석가여래가 이곳에서 귀자모(鬼子母 : 여러 가지 표기가 있는데 藥叉女神의 이름)를 교화하여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한 곳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풍속은 여기서 제사 지내 후사(後嗣)를 빈다.

13) 샤마카의 본생지

화귀자모의 수토파에서 북으로 50여 리 간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기는 샤마카(商莫迦) 보살(옛날에 睒摩菩薩이라 했으나 잘못)이 정성으로 눈먼 부모를 봉양한 곳이다. 그가 과실을 따고 있을 때 왕의 사냥 행차를 만나 독화살을 맞았으나 샤마카의 부모에 대한 효도에 감응하여 천제가 약을 주었다. 덕(德)이 명성(明聖)한 천제를 움직여 그 자리에서 소생한 것이다.

14) 바루샤 성

샤마카 보살의 피해지에서 동남쪽으로 2백여 리 가면 바루샤 성(跋虜沙城)에 이른다. 성의 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이는 수다타 태자(蘇達拏太子 : 唐에서는 善牙라 함)가 부왕의 대상(大象)을 바라문에 보시하여 질책받고 내쫓겼는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성곽의 문을 나서 이곳에서 고별을 했다.

그쪽 가람에는 50여 명의 승려가 있는데 모두 소승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 옛날, 이시바라(伊濕伐邏 : 당에서는 自在라 함) 논사가 여기서 《아비달마명등론(阿毗達磨明燈論)》을 저술했다.

바루샤 동문 밖에 한 가람이 있다. 승도는 50여 명인데 모두 대승 불교를 공부하고 있고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수다타 태자가 내쫓김을 받아 단탈로카 산(彈多落迦山 : 옛날에 檀特山이라 했으나 잘못)에 있을 때, 바라

문이 태자의 아들, 딸 두 자식을 구걸하여 이곳에서 두 자식을 팔았다.

15) 단달로카 산의 수행

바루샤 성에서 동북으로 20여 리 가면 단달로카 산(彈多落迦山)에 이른다. 산꼭대기에 수토파가 있으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수다타 태자는 여기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수토파가 있다. 태자가 이곳에서 아들딸 두 자식을 바라문에 보시했으며 바라문이 그들을 매질하여 유혈이 땅을 물들였다는데 지금도 초목은 적색을 띠고 있다.

암석 사이의 석실(石室)은 태자와 태자비가 좌선한 곳이고, 골짜기 숲의 나무들은 가지를 드리워 휘장과 같은데 이곳은 모두 옛날 태자가 산책했던 곳이다. 그쪽 멀지 않은 곳에 한 석려(石廬)가 있다. 이곳이 옛날 선인이 살던 곳이다.

16) 독각선인(獨角仙人)

선인의 석려에서 서북으로 1백여 리 가면 하나의 작은 산을 넘어 큰 산에 이른다. 산 남쪽에 가람이 있다. 승도는 적으나 모두 대승을 공부하고 있다. 그쪽 수토파는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독각선인이 있던 곳으로, 선인은 음녀에게 유혹당해 신통력을 잃었다. 음녀는 선인의 목말을 타고 마을로 되돌아왔다.

17) 비마천녀상

바루샤 성에서 동북쪽으로 50여 리 가면 높은 산에 이른다. 산에는 청석의 대자재천부상(大自在天婦像)이 있다. 비마천녀(毗摩天女 : 濕婆神의 아내 女神)이다. 그 고장 말에 의하면 이 대자재천부상은 자연의 것이라 한다. 영험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의 제국에서 복을 구하고 원을 걸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원근에서 모여든다. 천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정성으로 절식하기 7일이면 가끔 뵐 수도 있다. 발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소원 성취한다. 산 아래는 대자재천사(大自在天祠)가 있고 도회외도(塗灰外道 : 大自在天. 濕婆神을 만물의 창조신으로 삼고 몸에 회를

바르고 苦行하여 昇天을 구하는 一派)가 제사 지내고 있다.

18) 우타칸드 성

비마천사에서 동남으로 1백 50리 가면 우타칸드 성에 이른다. 주위는 20여 리이고 남으로는 인더스 강을 바라보고 있다. 주민은 부유하여 보화가 가득하고 여러 나라의 진귀한 것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든다.

19) 파니니선

우타칸드 성에서 서북으로 20여 리 가면 샬라투라 마을에 이른다. 여기는 《성명론(聲明論)》을 저작한 파니니선(波爾尼仙)이 태어난 곳이다.

태고의 옛날에는 문자가 아주 많았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사이 세계는 공허하게 황폐해졌다. 장수(長壽)를 지니는 여러 천인(天人)은 영(靈)을 내려 세속인들을 이끌었다. 이래서 문서가 생겼다. 이 이후에는 자원(字源)이 넘쳤기 때문에 범왕 · 천제는 법칙을 만들어 시절(時節)의 필요에 따르게 했다. 이도(異道)의 여러 선인(仙人)들은 각기 문자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각기 그 문자를 조술(祖述)하여 전래하는 문자를 다투어 학습했으나 학습자가 노력을 해도 그 공은 헛되어 여간해서는 상세히 구명하기 어려웠다.

인수백세(人壽百歲 : 人壽 八萬四千歲가 1백 년마다 一歲가 감하도록 계산해 人壽가 1백 세로 되었을 때) 때에 파니니선이 세상에 나왔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만물에 이르고 세상이 천박한 것에 마음 아파했다. 문자가 잘못된 것은 깎고 번잡한 점은 정리하고자 하여 세상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묻다가 자재천(自在天)을 만났다. 그래서 편찬의 뜻을 말했던바, 자재천은 "훌륭한 일이다. 나도 그대를 도우리라"라고 했다. 선인은 가르침을 받고 물러났다. 그는 정밀하게 조사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언어를 수집해 자전을 만들었다. 전부가 1천 송(頌)인데 1송이 32언(言)이다.

이는 고금을 섭렵하고 문자 · 어휘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를 봉함하여 헌상했던바, 왕은 대단히 신중히 여겨 나라 안에 영을 내려서 널리 전습시키면서 암송 활용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천금의 돈을 상으로 내렸다.
그래서 사제전수(師弟傳受)하여 당시에 널리 학습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 마을의 바라문들은 학문이 깊고 재주가 높으며 지식은 모든 사물에 이르며 깨우침이 좋은 것이다.

20) 한 나한이 파니니선의 후진을 교화
샬라투라 마을 안에 수토파가 있다. 나한이 파니니선의 후진을 교화한 곳이다.
여래가 세상을 떠나 5백 년이 될 때 어느 대아라한(大阿羅漢)이 카시미르 국에서 유화(遊化)하여 이곳에 이르렀는데 범지(梵志 : 婆羅門)가 아이를 매질하며 교육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아라한은 범지에게 "어째서 이 아이를 괴롭힙니까?" 하고 물었다.
범지는 "《성명론(聲明論)》을 가르치려 합니다만, 도무지 진전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라한은 다정한 미소를 띠었다.
범지는 "대저, 사문에 계시는 분은 자비를 마음에 두어 만물을 가엾게 여긴다는데 당신이 지금 웃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들려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아라한은 "이 일은 간단하지 않고 자칫 의문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찍이 파니니선이 《성명론》을 만들어 세상에 교훈을 남긴 얘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바라문은 "이 마을의 자제는 후배로서 덕(德)을 우러르고 그 상(像)은 지금도 안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라한은 "지금 당신의 이 아이는 다름 아닌 그 선인(仙人)입니다. 지금도 깨달음이 좋고 세상의 서적을 학습하고 있지만, 다만 이론(異論)을 입에 올릴 뿐 진리를 터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묘한 지혜는 헛되이 버려져 전전하면서 가라앉지 않지만, 오히려 전세(前世)의 여선(餘善)에 의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서적에 있는 문사(文辭)는 다만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래의 가르침인 복덕지혜(福德知慧) 모두 심오하고 풍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남해의 해변에 한 그루 고목이 있어 5백 마리의 박쥐가 나무 안에 굴을 파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들이 이 나무 아래 머물렀는데 마침 그때가 추운 철이라 사람들은 모두 동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섶을 쌓고 나무를 아래서부터 태웠던바 불길은 차츰 거세어져 고목은 드디어 타 버렸습니다. 그때 상인들 중 어떤 사람이 야반 이후 아비달마(阿毗達磨 : 經 · 律 · 論의 三藏 중 論藏)의 경문을 외웠는데 그 박쥐들은 불에 곤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법(法)의 성음(聲音)이 좋아 참고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쥐들은 지은 죄와 복에 따라 생을 받고 모두 사람의 몸으로 될 수 있었고 출가하여 학문을 했는데 법을 외는 성음을 들은 덕택으로 머리도 총명하고 지혜도 있어 모두 깨달음을 얻고서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성자(聖者)가 되었습니다.

요 근래, 카니시카 왕이 협존자(脇尊者)와 함께 5백 명의 현성(賢聖)을 카시미르에 모집하여 《비바사론(毘婆沙論)》을 만들었는데 이 현성들이 모두 고목 안에 있었던 5백 마리 박쥐의 후신이었습니다. 나는 불초(不肖)입니다만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열의 차이가 있고 세상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차이는 있으나 모두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의 출가(出家)를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출가하는 공덕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라한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신통력을 나타내어 홀연히 사라졌다.

바라문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에 잠겨 잠시 동안 기쁨에 젖어 있다가 이웃에 자세하게 선후를 얘기하고서 아라한의 말대로 아이를 출가시켜 수행하게 했다. 자기 또한 이를 계기로 신앙에 나가 불법승의 삼보를 존중하고 마을 사람들도 그에 따라 귀의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신앙을 두터이 하고 있다.

우타칸드 성에서 북쪽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6백여 리 해서 웃디야나국(烏仗那國 : 唐에서는 苑이라 한다. 昔輪王의 苑圃이다. 옛날에 烏場 또는 烏荼라 함은 모두 잘못임. 북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제 3 권

## 1. 웃디야나국

### 1) 개관

웃디야나국〔烏仗那國 : 지금의 Suat 강 유역〕은 주위가 5천여 리이다. 산과 골짜기가 이어져 있고 내와 못이 들에 이어졌다. 곡물은 파종하나 땅이 기름지지는 못하다. 포도가 많고 고구마는 적다. 금 · 철이 산출되고 울금향(鬱金香)이 재배된다. 수목은 무성하며 꽃 · 과일도 풍부하다.

추위와 더위가 적절하고 바람 · 비는 기후 절기에 알맞다. 사람들의 성질은 소심하고 거짓이 많다. 학문을 좋아하기는 하나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금주(禁呪)를 배우고 있다. 무명을 입은 사람이 많으며 약간의 사람들이 그 밖의 옷을 걸치고 있다. 언어는 다르지만 대체로 인도와 같다. 문자와 예의는 서로 대단한 관계가 있다.

불법을 존중하며 대승(大乘)을 신앙한다. 슈바바스투 강을 끼고 본래 1천 4백의 가람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이미 황폐해 있다. 옛날에는 승도도 1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차츰 줄어들었다. 모두 대승을 배우며 선정(禪定)을 중대사로 친다. 경문을 곧잘 외우기는 하나 그다지 깊이 뜻을 새겼다고 할 수는 없다. 지계(持戒) · 수행은 청결하고 특히 금주를 잘한다.

율(律)의 의범(儀範)으로 전해지고 있는 교훈에는 오부(五部)가 있다. 제1에 범밀부(法密部), 제2에 화지부(化地部), 제3에 음광부(飮光部), 제4에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제5에 대중부(大衆部) 등이다.

천사(天祠)는 10여 군데이며 이도가 잡거하고 있다. 견고한 성이 네다섯 군데 있으나 이 나라의 왕은 대부분의 경우 몽게리 성(城 : 이때까지는 지금의 Mangalaor로 쳐 왔으나 그 서남방의 Mingora라는 설도 있음)에서 다스리고 있다. 몽게리 성은 주위 16~7리이고 주민은 번영하고 있다.

### 2) 몽게리 성과 인욕선인(忍辱仙人)

몽게리 성 동쪽 4~5리 되는 곳에 수토파가 있다. 영험이 아주 많은 곳인데 여기는 부처님이 옛날 인욕선인(忍辱仙人)으로 되어 카리 왕(羯利王 : 당에서는 鬪諍이라

함. 옛날 哥利라 했음은 잘못)에게 지체(肢體)를 절단당했던 곳이다.

3) 아파랄라 용의 조복(調伏)

몽게리 성에서 동북쪽으로 2백 5~60리를 가면 큰 산이 나오고 아파랄라 용천에 이른다. 이곳이 슈바바스투 강의 근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남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봄이고 여름이고 늘 얼어 있다. 아침저녁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는데 무지개 색을 뿜고 빛을 사방으로 비추면서 흐른다.

이 용은 카샤파불 당시 인간계에 태어나 있었는데 이름을 간기(殑祈)라 했다. 주술에 능하여 악룡을 제어하고 호우가 내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덕택으로 여분의 식량을 비축할 수가 있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간기의 은혜에 감사하고 덕을 경모하여 집집마다 한 말의 곡물을 세로 내어 선물로 보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체납하는 자가 생겼다. 간기는 이에 성을 내어 청룡이 되어 폭풍우를 일으킴으로써 농작물을 손상시키겠다고 발원했다. 목숨이 다한 뒤 이 못의 용이 되면서 못은 하얀 물을 흘려 땅을 손상시켰다.

석가여래는 대자비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나 이 나라 국민만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이곳에 집금강신(執金剛神)을 내려 보내 이 못된 용을 교화하려고 생각했다. 집금강신이 절굿공이로 산의 벼랑을 쳤던바 용왕은 놀라 떨면서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굴복시켜 농작물에 손상됨이 없게 했다.

용은 "제가 식량을 얻는 것은 사람들의 밭 수확물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마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그 가르침과 같이하면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12년에 한 번만 양식을 수납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했다. 여래는 그 뜻을 알아차려 가엾게 생각하고 허락했다. 그래서 12년에 한 번은 백수(白水)의 재난을 당하는 것이다.

4) 불적석(佛跡石)과 탁의석

아파랄라 용천에서 서남쪽으로 30여 리 가면 백수(白水) 북쪽 기슭 큰 바위 위에

여래의 발자국이 있다. 보는 사람이 지니는 복덕의 힘에 따라서 발자국의 크기는 짧게도 길게도 보인다. 이는 여래가 이 용을 항복시키고서 자국을 남기고 떠난 것이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돌 위에 쌓아올려 방을 만들었다. 원근의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꽃이나 향기를 공양하고 있다. 흐름에 따라 30여 리를 내려가면 여래의 탁의석(濯衣石)에 이른다. 가사의 무늬는 분명히 조각한 것과 같다.

5) 핫다 산

몽게리 성에서 남으로 4백여 리 가면 핫다 산(醯羅山)에 이른다. 골짜기의 물은 서쪽으로 흐르다가 역류하여 동으로 간다. 갖가지 꽃과 진귀한 과일이 골짜기의 벼랑을 덮고 있으며 봉우리의 바위는 위태롭고 계곡은 구불구불 이어져 정다운 얘기를 듣는 듯하며 혹은 음악소리를 듣는 듯하다.

네모난 돌침대 같은 것이 있는데 마치 사람이 만든 것과 같다. 몇 개가 잇대어져 벼랑 끝과 연결된다. 여래가 옛날에 반송(半頌 : 옛날에 偈라고 했음은 梵文의 略이다. 혹은 偈陀라 함은 梵音의 잘못이다. 지금은 正音에 따라 마땅히 伽他라 해야 한다. 伽他는 唐에서 頌이라 한다. 頌은 32言이다)의 법을 듣기 위해 이곳에서 신명을 버린 것이다.

6) 사르바닷타 왕의 본생담

몽게리 성에서 남쪽으로 2백여 리 가면 큰 산 옆쪽으로 마하바나(摩訶伐那 : 唐에서는 大林이라 함) 가람에 이른다. 옛날 여래가 보살행(菩薩行)을 수행하면서 사르바닷타 왕(薩縛達多 : 唐에서 一切施라 함)을 일컫고 있을 때 적과 싸우는 것을 피해 나라를 버리고 몸을 숨겨 여기까지 왔다가 가난한 바라문이 마침 물건을 빌러 오는 것을 만났는데 왕위도 잃고 베풀어 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적의 왕이 있는 곳에 가 상금을 타도록 하여 그것을 시물(施物)로 했던 곳이다.

7) 마유 가람

마하바나 가람에서 서북쪽으로 3~40리 산을 내려가면 마유(摩愉 : 당에서는 豆라 함) 가람에 이른다. 높이 1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그 옆의 큰 네모진 돌 위에 여래의 발자국이 있다. 부처님이 옛날에 이 돌을 딛고 코티〔拘胝 : 億의 뜻〕의 광명으로 마하바나 가람을 비추면서 중생들을 위해 본생담(本生譚)을 설파한 곳이다. 이 수토파 기단 아래 황백색을 띤 돌이 있는데 항상 축축하고 반들반들하다. 여래가 옛날 보살행을 수행했을 때 정법을 듣기 위해 여기서 뼈를 갈며 경전(經典)을 썼다.

8) 시비카 왕 본생담

마유 가람에서 서쪽으로 6~70리 가면 한 수토파에 이른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가 옛날 보살행을 수행하면서 시비카 왕〔尸毗迦王 : 唐에서는 與라고 한다. 옛날에 尸毗王이라 함은 잘못〕이라 일컫고 있을 때 불과(佛果)를 얻기 위해 여기서 자기 몸을 찢어 매〔鷹〕에게 주기 위해 비둘기〔鴿〕로 변신한 곳이다.

9) 사르파오샤디사 본생담

시비카 왕 본생담〔伐鴿本生譚〕에서 서북으로 2백여 리, 사니라자 천〔珊尼羅闍川〕으로 들어가면 사르파오샤디〔殺地 : 당에서는 蛇藥이라 함〕 승가람에 이른다. 여기에 높이 80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옛날 제석(帝釋)이었을 때, 마침 기근으로 역병(疫病)이 유행하는 상황에 부딪쳤다.

의료도 아무 효험 없이 길에는 주검이 즐비했다. 제석은 이를 가엾이 여겨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커다란 구렁이〔蟒 : 망〕로 몸을 바꾸어, 그 바뀐 몸을 골짜기에 가로누이면서 공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소리를 들은 죽어가던 사람은 기뻐하며 줄지어 달려가서 구렁이를 찢어 먹음에 따라 원기를 되찾아 배고픔도 물리치고 병 또한 물리친 곳이 바로 여기다.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마〔蘇摩〕 대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옛날 제석이었을 때 세상에 역병이 유행하므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그 몸을 수마사〔蘇摩蛇〕로 변신한

곳인데 대저 이를 입에 대는 자치고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사니라자 천의 북쪽 돌벼랑 부근에 수토파가 있다. 병자가 찾아와서 발원하면 대부분 치료가 된다. 여래가 옛날 공작 왕이었을 때, 그 친구와 함께 여기에 왔다. 모두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어 물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때 공작 왕이 입부리로 벼랑을 찍었더니 용천(涌泉)이 흘러나왔다. 지금도 그대로 못이 되어 있고 마시면 병이 낫는다. 돌 위에는 지금도 공작의 발자국이 있다.

10) 상군왕 탑

몽게리 성에서 서남쪽으로 6~70리 가면 대하 동쪽에 높이 60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상군왕(上軍王)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가 정히 입멸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열반에 든 뒤 웃디야나국의 상군왕에게도 좋도록 사리를 나눠 주라고 말했다. 부처님 입멸 후 모든 왕장(王將)이 같은 양으로 나누고자 할 때 상군 왕이 늦게 당도했기 때문에 변방의 왕을 가벼이 여기는 논의가 나왔다. 이때 천인들이 여래의 유언을 거듭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탐 없이 같은 양의 몫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 정중하게 이 탑을 세워 봉안했다.
수토파 쪽 대하의 강변에 큰 돌로 코끼리 형상을 한 것이 있다. 옛날 상군왕이 큰 백상(白象)에게 사리를 지우고 여기까지 왔을 때 코끼리는 주저앉아 죽어 그대로 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옆에 수토파를 세웠다.

11) 자력 본생담

몽게리 성에서 서쪽으로 50여 리, 대하를 건너면 로히타카(盧醯呾迦 : 당에서는 赤이라 함) 수토파에 이른다. 높이 50여 척으로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가 보살행을 수행할 때, 대국왕이 되어 자력(慈力)이라 일컬었다. 여기에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어 다섯 명의 약차(藥叉 : 옛날에 夜叉라 했으나 잘못)에게 마시게 했다.

12) 아드부타 석탑

몽게리 성에서 동북쪽으로 30여 리 가면 아드부타〔遏部多 : 당에서 奇特이라 함〕 돌 수토파에 이르는데 높이가 40여 척이다. 옛날 여래가 인간과 천인에게 불법을 설교 교도하고 있었는데 여래가 입멸한 뒤 땅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사람들이 존경하여 향이나 꽃이 끊일 사이가 없다.

13) 관자재사

돌 수토파에서 서쪽으로 대하를 건너 3~40리 가면 하나의 정사(精舍)에 이른다. 안에 아발로키테시바라 보살상〔阿縛盧枳多伊濕伐羅菩薩像 : 당에서는 觀自在라 함. 字를 합해서 連聲하여 발음하면 梵語는 위와 같이 된다. 文을 나누어 하나씩 발음하면 즉 阿縛盧枳多(譯해서 觀이라 함), 伊濕伐羅(譯해서 自在라 함)이다. 옛날에 譯하여 光世音, 觀世音 혹은 觀世自在라 함은 모두 잘못임〕이 있다. 그 위령(威靈)은 고즈넉이 덮여 있고 신묘한 사적(事跡)은 세상에 명백하니 도속(道俗) 모두가 나가 공양함이 끊어지지 않는다.

14) 웃다야나국의 왕통과 석가 종족

관자재보살상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백 50리 가면 람발로 산에 이른다. 산의 정상에 용지(龍池)가 있다. 주위 30여 리인데 맑은 물결이 퍼져 있고 그 흐름은 명경(明鏡)과 같다.

그 옛날 비루다카 왕은 군을 동원해 여러 석가족을 정벌했다. 이때 저항한 4명의 석가 일족은 모두 쫓겨나 각기 분산됐다. 그중 한 석종(釋種)은 국도를 나서 산천을 방황하다가 피로에 지쳐 도중에서 쉬었다. 마침 그때 한 마리의 기러기가 그 앞으로 날아왔는데 금방 익숙해져서 곧장 기러기에 탔다. 그 기러기는 공중을 날아 이 못가에 내렸다. 석종의 사람은 하늘을 날아 멀리 외국에 나왔기 때문에 길도 알 수 없어서 나무 그늘에서 눈을 붙였다.

못에 사는 용의 딸이 물가를 산책하다가 문득 석종의 사람을 발견했으나 용의 모습으로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석종을 흔들어 깨웠다.

석종은 놀라 눈을 뜨고 인사했다.

"나는 여행에 지친 사람인데 어째서 친절히 대해 주는가?"

그러고는 가까워져서 무리하게 야합을 이루었다. 아가씨가 말했다.

"나는 부모의 교훈을 받아 근신하여 어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양친의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석종은 "이렇게 산이나 골짜기가 깊은데 너의 집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아가씨는 "저는 이 못의 용의 딸입니다. 당신들 일족이 유랑하며 난을 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알맞은 시간에 산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로를 위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친밀하게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부모님의 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쌓인 재화(災禍)로 인해 이와 같이 용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은 스스로 길이 다른 것인데 이렇게 된 얘기는 전에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석종은 "그 한마디로 진심을 알 수 있다. 지난날의 숙원은 벌써 풀렸다"고 말하자 용녀는 "삼가 알아들었습니다. 자, 가십시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석종은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대저, 내가 지닌 복덕의 힘으로 이 용녀를 전신 인간으로 만들자"고 서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복력이 미쳐 용은 그대로 인간의 형태로 변했다. 아가씨는 인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면서 석종에게 예를 올렸다.

"저는 악운(惡運)이 쌓여 나쁜 경우에 유전하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두터우신 정에 힘입어 당신의 복력 덕택으로 오랫동안의 이 지긋지긋한 몸이 일조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코자 합니다만 몸이 가루가 될 만큼 노력해도 감사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곁에 가까이 모시고자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세상에 물의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말씀드린 다음 예를 갖추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용녀는 못으로 올라가 부모에게 말했다.

"얼마 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득 석종의 사람을 만나 그분의 복력의 감응으로 저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심정이 맞았습니다. 감히 사실을 말

씀드립니다.”

용왕은 기꺼운 마음으로 딸이 인간계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했고, 또 석종 일족을 존중하고 있었으므로 딸이 원하는 대로 따랐다. 그래서 못으로부터 나와서 석종에게 예를 올렸다.

“이류(異類)의 것이라 하여 버리시지 않고 존위(尊位)에서 내려와 비천(卑賤)함에 따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집에 오셨으면 합니다. 접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석종은 용왕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 주거로 갔다. 용궁 안에서는 환영하면서 예를 갖춰 혼인의 연회를 하고 환락을 다했다. 그런데 석종의 사람은 용의 모습을 눈으로 보자니 마음으로 시종 두렵고 혐오의 정이 생겨 물러나려고 생각했다. 용왕은 만류하면서 말했다.

“아무쪼록 멀리서 살지 말고 이 주택 가까이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강역(疆域)에 웅거하여 왕의 대호(大號)를 칭하고 신민을 통괄하면서 왕조가 언제까지고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은 “그와 같은 말씀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용왕은 보검을 칼 상자 안에 넣고 훌륭한 무명으로 그 위를 싸면서 말했다.

“아무쪼록 이것을 가지고 가 국왕에게 바치도록 하십시오. 왕은 반드시 원래(遠來)의 사람의 선물을 손수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야 말로 왕을 살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에 근거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석종은 용의 지시를 받고 곧장 나가 웃디야나 왕에게 그 칼을 헌상했다.

왕이 손수 그 무명(칼이 든 상자)을 들었을 때 석종은 그 소매를 잡고 찔렀다. 곁에 있던 가신이나 위병들은 위아래로 대소동이었다. 석종은 검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내가 짚고 있는 검은 신룡(神龍)에게 받은 것이다. 늦게 항복하는 자는 이것으로 벌하거나 주살하고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도 죽이리라.”

모든 사람은 신(神)과 같은 무용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왕의 대위로 밀었다.

여기에 이르러 제(制)에 따르고 정치를 세웠으며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을 표창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 이리하여 사람들을 움직여 용궁으로 가서 보

고하고 용녀를 맞이하여 도읍으로 돌아갔다.
용녀는 전생의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아서 남은 업보가 있었다. 그래서 항상 화합하려 할 때가 되면 목에 아홉 개의 용의 목이 생겼다. 석종은 두렵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용녀가 자고 있는 것을 살핀 다음 예리한 칼로 그것을 잘라 버렸다. 용녀는 놀라 눈을 뜨고서 말했다.
"이는 뒷날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제 명에 다소의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은 반드시 두통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 까닭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계속되는 것은 아니나 가끔씩 일어나는 두통을 앓고 있다. 석종이 죽고 그 아들이 자리를 이었다. 이 사람이 웃타라세나 왕(嗢呾羅犀那王 : 唐에서 上軍이라 함)이다.

15) 상군왕의 어머니와 부처님 사리
상군왕이 즉위한 뒤, 그 어머니의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
여래가 아팔랄라 용을 항복시키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그 상군 왕의 어전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상군 왕은 마침 사냥을 나갔다. 그래서 여래는 그 어머니를 위해 불법의 요점을 설명했다. 성인을 만나 불법을 들었기 때문에 눈은 다시 보이게 됐다.
여래가 물었다. "당신의 아들은 내 일가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 사냥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여래는 사람들과 함께 곧 출발하려 했다. 왕의 어머니는 "저는 행운으로 신성한 종족의 아들을 기르고, 자비로운 여래께서 친히 와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존은 "그 사람은 내 일가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진실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친히 교회(敎誨)하지 않아도 발심할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거든 여래는 여기서 쿠시 성의 사라수 안에 가 열반에 들 것이므로 사리를 가져다 스스로 공양하라고 이르시오" 하고 말했다.
여래는 사람들과 허공을 가르며 떠났다. 상군왕도 마침 사냥을 하다가 멀리 궁전을 보았더니 광명이 훤하게 비쳐 화재가 일어난 것이나 아닌가 생각했다. 사냥을

중지하고 돌아와 본즉, 어머니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기뻐서 물었다.
"제가 떠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경사스런 일이 생겨서 어마마마께서 앞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까?"
어머니는 "왕이 떠난 다음 여래가 여기에 오셨소. 그리하여 설법을 들었더니 눈이 본래대로 됐소. 여래는 여기서 쿠시 성 사라수 안으로 가 열반에 든다는 것이니 왕도 어서 가서 사리를 분배받으라는 것이었소" 하고 대답했다.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 정신을 잃었지만 곧 제정신을 차려 수레를 돌려 쌍수(雙樹 : 일명 사라수) 있는 곳으로 갔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든 뒤였다. 그때 제국의 왕들은 상군왕이 변두리 땅의 왕인 것을 가벼이 여겨 사리를 보물로 생각하면서 나눠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천인들이 부처님 마음을 거푸 설명했기 때문에 제왕은 양해하여 똑같이 나누게 된 것이었다.

16) 다라다의 험로
몽게리 성에서 동북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인더스 강을 거슬러 간다. 길은 위험하고 산이나 골짜기는 어두컴컴하다. 혹은 큰 쇠발판을 밟고 혹은 쇠사슬에 의지한다. 허공에 걸리는 다리는 아스라하기만 하다. 말뚝을 잡고 오르고 층계를 밟고 오른다. 이렇게 해서 1천 리를 가면 다라다 천(達麗羅川)에 이른다. 이곳이 웃디야나국의 옛 도읍이다. 황금과 울금향을 많이 산출한다.
다라다 천 안의 대가람 옆에 나무로 조각한 자씨보살(慈氏菩薩 : 옛날 兜率陀, 術陀라 함은 잘못임. 俗界에 속하는 六天의 아래에서 네 번째 天으로 장래 부처님이 될 보살이 사는 곳)에 올라 부처님의 관상을 손수 세 번이나 본 뒤에 이 일을 완성했다. 이 상이 완성된 이후 불법의 흐름이 동쪽으로도 흘러간 것이다. 여기서 동쪽으로 고개를 넘고 골짜기를 건너 인더스 강으로 거슬러 허공에 매달린 다리나 잔도 등 위험한 곳을 밟고 험준한 지점을 지나 5백 리를 가면 발로라국에 이른다.

## 2. 발로라국

### 1) 개관

발로라국(鉢露羅國 : 지금의 Baluchistan)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대설산 사이에 있는데 동서는 길고 남북이 좁다. 보리와 콩이 많고 금과 은을 산출하는데 금을 이용하는 덕택으로 국가의 재정은 풍부하다. 기후는 오직 춥기만 하고 사람의 성질은 거칠고 난폭하다. 인의(仁義)가 없어 예절에 관해서는 들은 일이 없다. 용모는 흉하고 모피와 모직물을 입고 있다. 문자는 대체로 인도와 같으나 언어는 제국과 다르다. 가람은 수백 군데, 승도는 수천 명이다. 배우는 것은 뚜렷하지 않으며 계행(戒行)은 상당히 문란하다.

### 2) 발로라국에서 탁샤실라국까지

여기서 다시 우타칸드 성으로 돌아가 남쪽으로는, 강의 넓이 3~4리로서 서남쪽으로 흐르며 맑기가 거울과 같고 급류가 꿈틀거리며 흐르는 인더스 강을 건넌다. 독룡과 사나운 짐승이 그 강 속에 구멍을 파고 살고 있는데 만약 보물이나 진귀한 꽃, 과일 종자,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건너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배는 대부분 침몰하고 만다. 강을 건너면 탁샤실라국에 이른다.

## 3. 탁샤실라국

### 1) 개관

탁샤실라국(呾叉始羅國 : 지금의 Taxila, 土名은 Sarai-Kala)은 주위가 2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다. 호족들이 겨루고 있고, 왕족은 후사가 끊겼다. 전에는 카피시국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카시미르국에 예속되어 있다. 땅이 기름져서 농업을 많이 한다. 용천(涌泉)과 하류(河流)가 많고, 꽃과 과일이 풍성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사람들은 몸이 날렵하고 용감하며 삼보(三寶)를 마

음으로 존경한다. 가람은 많으나 이미 황폐해져 승도는 적고 모두 대승(大乘)을 학습하고 있다.

2) 엘라파트라 용왕못

대성 서북 70여 리에 엘라파트라〔醫羅鉢呾羅〕 용왕의 못이 있다. 주위는 1백여 보이다. 그 물은 맑고 갖가지 색의 연꽃과 함께 진귀한 색상으로 피어 있다. 이 용은 옛날 카샤바불 때 엘라파트라 나무를 손상시키고 파괴한 비크슈〔苾蒭：比丘〕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장에서는 비를 청하고 쾌청을 비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문과 함께 연못가로 오게 된다. 탄지(彈指：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문질러 튕기는 소리를 내는 것. 인도 습속으로 여러 경우에 하지만 여기서는 기뻐서 하는 동작)하여 위문하면 그 소원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3) 4대 보장(四大寶藏)

용지에서 동남쪽으로 30여 리를 가면 2개의 산 사이로 드는데 거기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 1백여 척이다. 석가여래가 장차 자씨세존(慈氏世尊：彌勒佛)이 세상에 나올 때 4대보장(四大寶藏：《增一阿含經》에 나오는데 乾陀衛國의 伊羅鉢龍의 大藏經, 蜜絺羅國의 斑稠大藏經, 須頼吒國의 迦羅大藏經, 婆羅棕國의 蠰佉大藏經)이 자연히 땅속에서 나오리라고 예언했던 것인데 이 명소가 바로 그중 하나이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때 지진이 일어 산들이 모두 진동했으나 이 장(藏)을 주변으로 백보(百步) 안쪽은 동요함이 없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각없이 발굴했던바 대지가 진동하면서 모두 주춤주춤 넘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 옆에는 가람이 있으나 이미 파손이 심하다.

4) 사두(捨頭) 수토파와 월광 왕 본생담

성 북쪽 12~3리에 한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어떤 때는 재일(齋日)이 되면 밝은 빛이 번쩍이고 신화(神花)가 내리며 천악(天樂)이 들리는데 이

를 보고 듣고 한 사람도 있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전에 어떤 부인이 악질 문둥병에 걸려 몰래 수토파로 와서 스스로의 행실을 책망하면서 예배 참회하며 그 주변 뜰에 변이며 오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치우고 청소하는 한편 향과 꽃을 뿌리고 청련화(靑蓮華)를 채집하여 땅에 깔았다. 그랬더니 나쁜 병은 낫고 외모도 한층 아름답게 되면서 몸에서는 좋은 향내를 뿜어 청련화와 같이 향기로워졌다는 것이다.

이 명소는 여래가 옛날 보살행을 수행할 때 대국왕이 되어 찬드라프라바(唐에서는 月光이라 함)라 일컫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고자 자신의 머리를 베어 보시했는데 이와 같이 몸을 내던져 이미 천생(千生)을 거친 곳이다.

5) 쿠마라라타 논사

사두 수토파 쪽에 승가람이 있는데 뜰이며 건물은 황폐하고 승도 또한 적다. 옛날 경부(經部 : 經量部라고도 하며 小乘 二十部의 하나로 上座部에 속한다. 經을 중시한다)에 속하는 쿠마라라타(拘摩羅邏多 : 唐에서는 童受라 함) 논사가 여기서 여러 종류의 책을 저술했다.

6) 아쇼카 왕의 태자 쿠날라의 전설

성 밖 동남쪽, 남산 북쪽에 높이 1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의 태자 쿠날라가 계모의 참언에 의해 눈알을 파인 곳인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맹인이 기원하면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많다.

이 태자는 정실의 황후가 낳은 사람인데 용모가 단아하고 자비심이 두터운 것으로 일찍부터 알려졌다. 모후가 돌아가신 뒤 계모는 제멋대로 음분(淫奔)하며 그 어리석음을 자행하다가 은근히 태자에게 접근했다.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면서 물러나 빌었으나 계모는 제 뜻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 한층 노하여 왕의 눈치를 보다가 극히 자연스럽게 “탁샤실라국은 나라의 요지입니다. 피를 이어받은 자제가 아니라면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태자의 인자효행은 천하에 높습니다만 현인과 친한 점에 세상의 물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무언가에 홀려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곧장 태자에게 명을 내리며 주의를 주었다.

“나는 조상의 뒤를 이어 일을 해 왔다. 혹시 실패하여 선왕을 욕되게 하지나 않을까 염려할 뿐이다. 탁샤실라국은 나라의 요지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그 나라를 지킬 것을 명한다. 국사는 중대하고 정에는 잘못이 있는 법이다. 진퇴(進退)에 소루(疏漏)함이 있어 치인(齒印)을 조사하라. 인새(印璽)는 내 입에 있으니 잘못을 저지를 일이 있겠느냐.”

태자는 명을 받들고 그곳으로 가 변경을 지켰다. 세월은 오래 흘렀으나 계모는 더욱더 성이 났다. 거짓으로 명령서를 꾸며 자니(紫泥)로 봉함하고 왕이 잠든 것을 보아 슬쩍 치인을 박아 사자(使者)를 통해 문책서를 보냈다. 가까이 있는 사자가 꿇어앉아 그 문책서를 읽으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태자가 “무엇을 그리 슬퍼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대왕께서 명령을 내려 편지에 태자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태자의 두 눈을 도려서 산골짜기로 내쫓되 태자 부부의 생사는 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신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묻기로 하고 묶여서 죄를 기다리도록 합시다”라고 대답했다.

태자는 “아바마마께서 죽음을 내린다면 사퇴할 수가 있겠는가. 치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다면 진실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찬달라〔旃荼羅 : 屠家 · 主殺人 · 魁膾 · 下賤種이라고도 譯함. 인도에서 가장 下賤한 계급〕에게 명해 그의 눈을 도려내게 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걸식하며 생활하면서 여기저기를 유랑한 끝에 아버지의 도성까지 갔다. 아내 칸차나말라는 태자에게 “여기는 왕성입니다. 아, 굶주림이나 추위는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자, 지금은 거지입니다. 아무쪼록 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하여 거푸 지난번의 책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왕의 외양간에 들어가 한밤중에 울면서 산들바람에 대고 소리를 길게 끌어 슬픈 노래를 부르며 공후(箜篌)와 북으로 반주를 했다.

이때 왕은 높은 누각에 있다가 그 고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사가 원망하는 듯 슬

펐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공후(箜篌)나 노랫소리가 내 아들과 닮았구나. 지금 어찌하여 이곳에 왔단 말인가" 하고 물었다.
곧 외양간으로 사람을 보내 누가 노래 부르는가를 알아보았더니 소경이 된 태자를 데리고 왔다. 왕은 태자를 보자 슬픔에 잠겨 물었다.
"누가 네 몸에 상처를 내어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게 했단 말이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실명한 것도 모르고서야 어찌 모든 백성을 명찰할 수 있다 하겠는가. 하늘이여, 하늘이여, 내 덕이 쇠잔했단 말인가."
태자가 울면서 사죄하며 왕에게 대답했다.
"진실로 불효 때문에 하늘 아래 죄를 짓고 모년 모월 모일에 갑자기 명을 받았습니다만 변명할 까닭 없이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계실의 음모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으나 구명(究明)할 방법도 없어 곧장 처벌을 가했다.
당시 보리수 가람에 고샤(唐에서는 妙音이라 함) 피아라한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변무애(四辯無礙 : 四無礙解 · 四無礙智라고도 함. 1은 法無礙, 즉 敎法에 통하여 막힘이 없음, 2는 義無礙, 즉 敎義에 통하여 막힘이 없음, 3은 辭無礙, 즉 諸方의 방언에 통달함, 4는 辯舌無礙, 正理의 辯舌에 막힘이 없음)하고 삼명구족(三明具足 : 三明이란 1은 宿命明, 즉 自他의 宿世에 있어서의 존재 양태를 아는 능력, 2는 天眼明, 즉 自他의 未來世의 존재 양태를 아는 능력, 3은 漏盡明, 즉 현재의 고통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는 능력. 이 三者를 갖춤)했다.
왕은 눈먼 아들을 데리고 가, 자초지종을 말하고서 오직 자비로써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해 달라고 원했다. 나한은 왕의 소원을 받아들여 곧 그날 나라 안의 사람에게 "나는 오래지 않아 부처님의 묘리를 설법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릇 하나씩을 갖고 여기에 와서 법을 듣고 눈물을 받도록 하라" 하고 선포했다.
그래서 원근의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다. 이때 아라한은 12인연(十二因緣 : 緣起라고도 함. 중생의 過現未 三世에 걸쳐 無常變遷하는 원인 관계를 설파한 것)에 대해 설법했다. 대저 이 설법을 듣는 자치고 울지 않은 자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흐르는 눈물을 받았다.

나한은 설법이 끝나자 사람들의 눈물을 모두 모아 금반(金盤)에 넣고 스스로 서약하기를 "내가 설법한 것은 제불(諸佛)의 지극한 이치로서 그 이치가 만약 진실이 아니고 설법에 잘못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원하옵건대 사람들의 눈물로 저 소경이 된 눈을 씻어 눈이 보이게 되고 그 보이는 것이 옛날과 같이 되어지이다"라고 했다.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의 눈물로써 눈을 씻었더니 눈은 그대로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태자 측근 사자들을 책망하고 아래 관속들을 힐문, 혹은 파면하고 혹은 추방하고 혹은 좌천시키고 혹은 사형에 처했다. 일에 관계된 모든 호족들은 설산 동북쪽 사막 안으로 이주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여러 산이나 골짜기를 넘어 7백리를 가면 싱하푸라국에 이른다.

## 4. 싱하푸라국

### 1) 개관

싱하푸라국(僧訶補羅國 : 지금의 Salt Range 북쪽 Ketaksh)은 주위 3천 5~6백리, 서쪽으로는 인더스 강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이다. 이 나라는 산령에 의지하고 지리는 험준하며 견고하다. 농사에 고생하는 일이 적은데 이는 지리(地利)에 수확이 많기 때문이다. 기후는 춥고 사람의 성질은 거세다. 나라의 습속으로 용감함을 존중하지만 한편에서는 사기나 거짓도 많다. 나라에는 군주 수령은 없고 카시미르국에 예속되어 있다.

### 2) 성 남쪽의 탑과 가람

성의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장식에 손상된 곳은 있지만 영험은 계속되고 있다. 곁에 가람이 있으나 승려는 없다.

3) 성 동남쪽 탑과 못과 늪

성의 동남쪽 4~50리에 석조로 된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는 2백여 척이다. 못과 늪이 10여 군데 있어서 좌우의 경치를 반영하고 있다. 조각한 돌로 기슭을 만들었는데 그 형식은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거센 물은 맑게 거품을 일으키며 급류로 흐르는데 용이나 고기 등 물에 사는 생물이 구멍 속에 살고 물 속 깊이에서 헤엄치고 있다. 네 가지 색의 연꽃은 맑은 못 가득히 피어 있고 갖가지 과일은 나무 가득히 열려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고 있다. 숲과 늪은 서로 비추며 놀고 즐기기에 참으로 알맞다.

4) 백의외도(白衣外道)

곁에 가람이 있으나 오랫동안 승려는 없다. 수토파 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의외도(白衣外道)의 개조(開祖)가 희구하는 이법(理法)을 깨닫고 처음으로 설법을 한 곳이다. 현재 봉한 표적이 있고 곁에는 천사가 세워져 있다. 그곳의 수행자는 밤낮으로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여 쉴 틈이 없을 정도이다. 개조가 설파한 법은 대부분 불전(佛典)을 표절했고, 부류(部類)에 따라 법(法)을 두고 궤범(軌範)을 정하고 있다. 연장자를 비크슈라 하고 연소자를 사미(沙彌)라 한다.

위의계율(威儀戒律)은 대체로 승려의 그것과 같으나 다만 약간의 두발을 남기고 거기에 노형(露形)인 점이 다르다. 의복을 입고 있는 자가 있는데 백색인 점이 다르다. 이에 의해 같은 종교라고는 해도 조금 구별된다. 그 제사 지내는 천사의 상은 불교의 여래를 본뜨고 있으며 의복의 차이는 있으나 모습에는 다름이 없다.

5) 마하삿트바 본생담

여기서 다시 탁샤실라국 북계(北界)를 돌고 인더스 강을 건너 남동쪽으로 2백여 리를 가서 대석문(大石門)을 지난다. 옛날 마하삿트바 왕자가 여기서 몸을 던져 주린 오탁(烏檡 : 音은 徒임.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불명)에게 먹힌 곳이다.

그 남쪽 1백 4~50보의 곳에 돌 수토파가 있는데 마하삿트바가 주린 짐승이 힘없이 있는 것을 가엾이 여긴 곳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마른 대(枯竹)로 자기 몸

을 찔러 피를 짐승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더니 짐승은 왕자를 먹어 버린 것이다. 이곳 땅은 초목에 이르기까지 조금 적색을 띠어 마치 피로 물들인 것과 같다. 그 땅을 밟는 사람은 가시에 찔린 듯함을 느낀다. 의심하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비창한 마음이 되지 않는 이가 없다.

### 6) 사신지 북쪽의 석탑

사신지(捨身地) 북쪽에 높이 2백여 척의 돌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조각은 진귀한데 가끔 불가사의한 빛을 내는 일이 있다. 작은 수토파나 석감(石龕)은 백을 셀 정도인데, 이 조역(兆域)을 둘러싸고 있다. 병이 나면 이곳을 돌 때 낫는 경우가 많다. 돌 수토파 동쪽에 가람이 있으며 승도는 1백여 명 모두 대승불교 경전을 학습하고 있다.

### 7) 고산(孤山) 중의 가람

여기서 동쪽으로 50여 리 가면 하나의 고산(孤山 : 떨어진 산)에 이른다. 산중에 가람이 있는데 승도는 2백여 명 모두 대승을 학습하고 있다. 꽃이나 과일이 잘 되며 샘이나 못은 거울과 같이 맑다. 곁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옛날 여기서 악약차(惡藥叉)를 교화한 곳이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5백여 리 가면 우라샤국에 이른다.

## 5. 우라샤국

우라샤국(烏라 尸國 : 지금의 Hazara 지방)은 주위 2천여 리이며 산과 언덕이 잇대어져 있고 밭은 좁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7~8리 된다. 대군주는 없고 카시미르국에 예속되어 있다. 농업에 좋은데 꽃과 과일은 적고 기후는 온화하여 서리와 눈이 조금 내린다. 풍속은 예의가 부족하고 사람의 성질은 용맹하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많고 부처

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적다.
대성의 서남쪽 4~5리에 높이 2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곁에 가람이 있다. 승도는 적고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산을 오르고 험로를 넘고 철교를 건너가기 1천여 리 해서 카시미르국〔옛날에는 罽賓이라 했으나 잘못. 북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6. 카시미르국

### 1) 개관

카시미르국〔迦濕彌羅國 : 지금의 Kashmir 지방〕은 주위 7천여 리이다. 사방은 산을 등지고 있고 그 산은 대단히 험하며 들어갈 길은 있다 해도 아주 좁다. 옛날부터 이웃나라도 이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다. 나라의 대도성은 서쪽으로 대하를 바라보고 남북은 12~3리, 동서가 4~5리이다. 농업에 알맞고 꽃이나 과일이 많다. 용종(龍種)의 말과 울금향(鬱金香) · 화주(火珠 : 水晶 같은 貝球인지 루비인지 불명) · 약초를 산출한다.
기후는 아주 춥고 눈이 많으며 바람은 적다. 털옷과 무명을 입는다. 토양에 따라 몸놀림이 가볍고 소심한 사람들이 많다. 나라는 용의 수호를 받아 이웃나라를 웅패(雄覇) 했다. 얼굴 생김은 잘 생겼으나 마음에는 거짓이 있다. 학문을 즐겨 공부하는데 사교(邪敎)와 정법(正法) 모두를 믿고 있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5천여 명이다. 4개의 수토파가 있는데 각기 여래의 사리가 한 되 남짓 들어 있으며 모두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 2) 마디얀티카의 개교와 건국 전설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나라의 땅은 본래 용지(龍池)였다. 옛날 불세존이 웃디야나국에서 악신(惡神)을 항복시키고 중국에 돌아가고자 하여 허공을 날아 이 나라 위까지 왔을 때 아난에

게 "내가 입멸한 다음 마디얀티카 아라한이 반드시 이 땅에 나라를 세워 인민을 편안하게 하고 불법을 두루 퍼지게 하리라"라고 말했다.

여래가 적멸한 뒤 50년째에 아난의 제자 마디얀티카 아라한〔末田底迦阿羅漢〕이 육신통(六神通)을 얻고 팔해탈(八解脫)을 갖추고 있었으나 부처님의 현기(懸記)를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여 곧장 여기에 왔다. 그리고 큰 산령의 수풀 속에서 좌선하여 신변(神變)을 보였다. 용은 이것을 보고 깊이 믿어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겠다고 했다. 아라한은 "아무쪼록 못 안에 내 무릎을 넣을 정도의 장소를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용왕은 물을 줄여 장소를 봉시(奉施)했다. 아라한은 신통력으로 신체를 크게 했기 때문에 용왕이 할 수 없이 더욱 물을 줄였던 바 못은 텅 비고 물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용이 자기 땅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아라한은 이 땅 서북쪽에 용왕을 위해 주위 1백여 리의 못 하나를 주었다. 또 그 밖의 권속들은 다른 작은 못에 거처를 정했다.

용왕은 "못의 토지 전부를 보시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언제나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마디얀티카는 "나는 곧 무여열반(無餘涅槃 : 煩惱도 육체도 함께 滅無에 歸하는 참깨달음)에 듭니다. 그대의 소청을 들으려 해도 어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용왕은 거푸 "오백 나한이 항상 나의 공양을 받는다면 법진(法盡 : 正像末의 三時를 지나 佛法이 아주 滅盡함)에 이를 것입니다. 법진이 된 뒤, 이 나라를 되돌려서 주거지로 하겠습니다"라고 청했다. 마디얀티카는 용왕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때 아라한은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대신통력을 발휘해 5백의 가람을 세우고 여러 외국에서 천인(賤人)을 사서 사역시켜 승려들에게 공급했다. 마디얀티카가 적멸에 든 뒤 그 천인들은 자기들의 군주를 세웠다. 인경(隣境)의 제국은 그들이 천종인 것을 업신여겨 친히 교류하지 않고 이들을 크리타〔訖利多 : 唐에서는 買得이라 함. '사들인(買)…'의 뜻〕라고 했다. 근래에는 천지(泉池)의 물이 범람하는 일이 많다〔佛法이 滅盡하는 시기가 차츰 다가옴을 뜻함〕.

### 3) 마하데바의 난과 근본 분열

마가다국의 아쇼카 왕은 여래가 열반에 든 뒤 1백 년 후 일세에 빼어나 천하에 군림하여 그 위광은 이 민족을 덮을 정도였다. 그는 불 · 법 · 승의 삼보(三寶)를 깊이 믿고 사생(四生)을 애무했다.

당시 5백의 나한승(羅漢僧)과 5백의 범부승(凡夫僧)이 있었는데 왕은 함께 존경하고 공양함에 차이는 없었다.

범부승에 마하데바(摩訶提波 : 唐에서는 大天이라 함)란 사람이 있었는데 박학다문 한 사람으로써 고요하게 명실(名實 : 名目과 實體)의 이(理)를 구해 깊이 생각한 가운데 작론(作論)했으나 그 이치는 성교(聖敎)에 다른 점이 있었다.

이를 들어 안 자들은 떼를 지어 그 이론(理論)에 따랐다. 아쇼카 왕은 범(凡)과 성(聖)과의 구별을 못하고 감정에 따라 친한 자를 총애하여 승도를 소집, 갠지스 강에 나가 나한승을 깊은 데 넣어 죽이려고 했다. 그때 나한들은 스스로의 생명에 위험이 다가왔으므로 모두 신통력을 발휘해 하늘 높이 허공을 날아 이 나라로 와서 산에 주거지를 만들고 골짜기에 숨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이 사실을 듣고 후회하여 스스로 나가 자기 잘못을 빌고 본국(마가다국)으로 돌아가도록 부탁했으나 그 나한들은 명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나한들을 위해 5백의 승가람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승려에게 보시한 것이다.

### 4) 카니시카 왕의 제4결집

간다라국의 카니시카 왕은 여래의 열반 후 4백년 기(期)에 따르는 운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왕의 덕화는 먼 곳까지 이르렀고 이(異)민족도 마음으로 복종하게 했다. 정무의 여가에 언제나 불경을 학습하고 날마다 한 승도에게 부탁해 궁전에 와서 설법하게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논의가 있고 따르는 부파(部派)도 같지 않아서 왕은 깊은 의념에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때 협존자(脇尊者 : 2권의 4-6 참조)는 “여래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세월은 이미 많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의 부파, 사제(師弟)의 이론(異論)은 각기 견문한 바에 따라 서로 모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마음이 아파 자주 비판했으며 존자에게 말하기를 “과분하게도 권세의 여복(餘福)을 받아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래의 적멸 후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아직 유법(遺法)을 들을 행운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범용(凡庸)을 잊고 불법을 흥륭(興隆)시키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부파에 따라 상세하게 경율론(經律論)의 삼장(三藏)을 주석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협존자는 “대왕은 전세에 선근(善根)을 심어 대단히 복운을 받고 계십니다. 마음을 불법에 두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사방에 영을 내려 학행(學行)이 뛰어난 사람들을 소집했다. 이리하여 여기저기서 현인과 성자가 모두 모였다. 7일간에 걸쳐 사사공양(四事供養 : 음식 · 의복 · 복구 · 湯藥의 네 가지 공양)을 한 다음 법을 설교하려 했으나 혼란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여 왕은 생각 끝에 여러 승도에게 고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머무르라. 그러나 아직 번뇌가 남은 자는 돌아가라.”

그래도 사람들은 많았다. 그래서 다시 영을 내렸다.

“학습을 다하여 나한과(羅漢果)를 얻은 자는 머무르라. 그러나 배울 것이 남은 유학자(有學者)는 돌아가라.”

그래도 사람들은 많았다.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다.

“삼명(三明)과 육통(六通 : 2권의 4-6 참조)을 갖춘 자는 머무르라. 그 밖의 자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아직 많았다. 왕은 다시 영을 내려 “내학(內學)은 삼장(三藏)에 통하고 외학(外學)은 오명(五明)에 통달한 자는 머무르라〔3권의 1-1 참조〕. 그 밖의 자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래서 4백 99명을 얻었다. 왕은 그 본국〔간다라국〕에서 일을 행하려 했으나 더위나 습기를 염려해 제1의 모임 장소인 왕사성의 대가섭(大迦葉) 결집의 석실(石室 : 9권의 2 참조)에서 하려고 했다. 그러자 협존자 등이 상의하여 “안 됩니다. 그곳은 다른 종교가 많아서 이론이 분분할 것입니다. 답변에 여가가 없을 정도여서는 어찌 작론하여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나라에 마음을 쓰

는 데 있습니다. 이 나라〔카시미르국〕는 둘레의 산이 견고하고 약차가 지키고 있습니다. 토지는 비옥하고 산물은 풍부합니다. 성현이 왕래하는 곳이며 선인(仙人)이 소요하는 곳입니다. 모든 의견도 여기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도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왕은 여러 나한과 함께 간다라국에서 카시미르국으로 와서 가람을 세우고 삼장을 결집해 여기에 《비바샤론〔毗婆沙論〕》을 만들려고 했다.

그때 존자 세우(尊者世友)는 문 밖에 있었는데 납의(納衣)를 입고 있었다. 여러 아라한이 세우에게 "번뇌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자는 의론에 오류를 가져오게 할 뿐이다. 당신은 여기서 멀리 떠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우는 "여러분은 법에 의문이 없고 부처님을 대신해 교화를 베풀려고 지금 중대한 도리를 결집해 정론(正論)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기롭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못합니다만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에 거의 통달하고 경 · 율 · 논삼장(經律論三藏)의 심오한 문(文), 오명(五明)의 지극한 이(理)도 어느 정도 연구해 그 지취(旨趣)를 터득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한들은 "말은 그와 같이 불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집 안에 틀어박혀 면학해서 조금도 배울 것이 더 없다는 것〔羅漢果〕을 증명하고서 여기에 집회해도 때는 늦지 않을 것이오"라고 했다.

세우는 "나는 무학(無學)의 나한 보기를 진정 눈물이나 침과 같이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루한 뭉텅이〔여기서는 納衣를 둘둘 말았던 뭉텅이인 듯〕를 던져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무학의 성과(聖果)를 증득(證得)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나한들은 거푸 세우를 책망하여 "증상만(增上慢 : 아직 證果를 얻지도 못하고서 얻었다고 오만을 부리는 일)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로다. 무학과라고 하는 것은 제불(諸佛)이 상찬할 정도의 것이오. 그대는 어서 그를 증명해 사람들의 의혹을 분명히 할 일이오" 하고 말했다. 여기에 이르러 세우는 곧장 남루한 뭉텅이를 공중으로 던졌더니 공중의 천인들은 이 남루한 덩어리를 손으로 받고 말하기를 "금세에서 불과를 증(證)하고 내세에서 자씨(慈氏 : 彌勒)의 뒤를 이으며 삼계에서 각별히 존경받고 사생(四生 : 생물이 태어나는 분류법. ① 胎

生으로 인간이나 짐승. ② 卵生으로 새 같은 것. ③ 濕生으로 벌레 같은 것. ④ 化生으로 의지할 데 없이 과거의 業力에 의해 자연히 生成하는 것. 예컨대 天人·地獄·최초의 인류 등) 모두를 의지할 곳으로 할 만한 분이 어찌하여 지금 이러한 무학(無學)과 같은 소과(小果)를 중시하려 하시는 겁니까?"라고 했다.

이때 나한들은 이 현상을 보고 자기들의 책망을 사죄하고 그 덕을 믿어 상좌에 앉히면서 의의(擬議)가 있을 때는 모두 결재하여 주도록 했다.

이 5백 명의 현성이 먼저 10만 송(十萬頌)의 우파데샤론〔鄔波第鑠論 : 옛날에 優波提舍論이라 했음은 잘못〕을 만들고 수트람장〔素呾纜藏 : 옛날에 修多羅藏이라 했음은 잘못〕을 주석(注釋)했다. 다음에 10만 송의 비나야비바샤론을 만들고 비나야장을 주석했다. 마지막으로 10만 송의 아비다르마비바샤론을 만들고 아비다르마장〔阿毗達磨藏 : 혹은 阿毗曇藏이라 함은 略임〕을 주석했다. 이는 전 30만 송, 9백60만 언(言)이다.

상세하게 삼장을 주석하고 이를 천고의 후세에 보였다. 그 지엽까지도 추구하여 그 깊고 얕음 또한 분명히 했다. 이리하여 불법의 대의(大義)는 계속 명백해지고 미묘한 말씀도 다시 분명해지면서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후진이 이를 의지하게 된 것이다.

카니시카 왕은 적동(赤銅)으로 판금(板金)을 만들고 논(論)의 문을 조각해 석함에 함봉하여 수토파를 세우고 그 안에 안치했다. 또 약차신에게 명하여 이 나라를 둘러 지키게 하고 이학(異學)의 자에게 이 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안에서 학업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하여 일을 성취시킨 다음 군(軍)을 본국의 도읍으로 귀환시키기로 했다. 이 나라의 서문(西門) 밖에 나가 동으로 향해 꿇어앉아 아쇼카 왕과 같이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모두 승도에게 보시한 것이다.

5) 설산하 왕의 카시미르 정벌

카니시카 왕이 죽은 다음, 크리타종은 또 스스로 왕호를 참칭하고 승도를 추방하며 불법을 파괴했다. 토카라국의 히마탈라〔呬摩呾羅 : 唐에서는 雪山下라 함〕는

그 조상이 석종(釋種)이었다.
여래의 열반 후 6백 년에 강 근처의 지역을 넓게 보유하고 왕업을 계승하며 마음을 보살에 걸어 불법 듣는 데 마음 쓰고 있었던 것인데 크리타가 불법을 괴멸했다는 것을 듣고 국내의 용감한 무사를 소집한바 3천 명을 얻었으므로 장사꾼으로 위장하여 많은 병기를 갖춘 다음 재보를 지니고 이 나라로 왔다.
이 나라의 군주는 특별히 예우로써 대접했다. 장사꾼 중에서도 다시 선택 모집하여 5백 명의 용맹스럽고 지모 있는 자를 얻었는데 그들은 각기 칼을 소매 속에 넣고 그와 함께 재보를 지니고서 헌상했다.
그때 설산하 왕은 그 관을 벗고 그 자리에 앉았다. 크리타 왕은 놀라고 두려워할 짬도 없었다. 설산하 왕은 그대로 그의 목을 자르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나는 토카라국의 설산하 왕이다. 이 천종(賤種)이 잔학한 장사를 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죄 있는 자는 주벌하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라고 고했다.
그러나 국정에 참여한 가신들은 외국을 방랑했다. 이 나라를 평정했기 때문에 승도를 소집하고 가람을 세워 이전대로 편안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의 서문 밖에서 동쪽으로 향해 무릎 꿇고 승도들에게 보시했다.
이 까닭에 크리타 종은 승도가 자기들의 종교를 뒤엎고 제사를 폐하고 없앴기 때문에 대대로 그 원한을 쌓아 불법을 증오했다. 세월이 이미 많이 지나 다시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있으며 지금의 이 나라는 그다지 정법을 믿지 않고 외도(外道) · 천사(天祠)에 특히 마음 쓰고 있다.

### 6) 부처님 치아(佛牙) 전래의 전설

신성의 동남쪽 10여 리, 구성의 북쪽 큰 산 남쪽에 승가람이 있다. 승도는 3백여 명이다. 그 수토파 안에는 부처님의 치아가 있다. 길이는 1촌 반 정도이고 황백색이며 때때로 재일(齋日)에 빛을 발하기도 한다.
옛날 크리타 종(訖利多種)이 불법을 괴멸하자 승도는 해산되어 각자 자기 살 곳을 찾아 정착했다. 어떤 사문은 인도의 여러 곳을 떠돌며 성적을 참배하여 신앙을 피

력하고 있었으나 그 뒤 본국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귀도를 서둘렀다.
도중에 코끼리 떼가 초원 가득히 울부짖으며 뛰고 있는 것을 만난 사문은 그를 보자 나무에 올라 난을 피하려고 했으나 코끼리 떼는 달려와서 다투어 못물을 퍼 나무뿌리에 적신 다음 힘을 합쳐 나무 밑둥을 팠으므로 나무는 넘어져 버렸다.
코끼리들은 사문을 사로잡아 등에 태우고 큰 숲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병든 코끼리가 있었다. 상처를 입고 누워 있다가 이 승도의 손을 끌어당기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곳에 승도가 손을 대어 보니 마른 대가 꽂혀 있었다. 그래서 사문은 대를 빼고 약을 바른 다음 입고 있는 옷을 찢어 그 발을 잡아매어 주었다. 그러자 다른 큰 코끼리가 금함(金函)을 받들고 병든 코끼리에게 주었다. 병든 코끼리는 그것을 다시 사문에게 주었다.
사문이 함을 열어 보니, 그것은 부처님의 치아였다. 코끼리 떼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승도는 거기서 나올 재간이 없었다. 이튿날 식사 때 코끼리들은 진귀한 과일을 가지고 와서 중식을 한 다음 승도를 등에 태우고 숲을 수백 리까지 나오자 비로소 승도를 내려놓은 다음 각기 꿇어 절을 하고는 떠났다.
사문은 그 나라 서쪽 경계까지 가서 급류의 강을 건너게 되었다. 강 중류까지 건넜을 때 배가 뒤집히게 되자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서로 "지금 이 배는 전복할 것 같은데 이 화근은 승려에게 있다. 반드시 여래의 사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용들이 이를 입수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공이 조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 치아가 있었다. 그래서 사문은 부처님 치아를 받들고 아래를 향해 용들에게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주는 터이지만 머지않아 되받으러 오리라"고 하면서 부처님 치아를 주고 그대로 강을 건너지 않고 배를 되돌려 갔다. 그리고 강을 되돌아보며 "나에게는 어찌할 재간도 없어 용과 같은 짐승에게 탈취당했다"라고 탄식하며 다시 인도로 가서 금룡(禁龍)의 법을 공부했다.
3년 뒤 다시 본국에 돌아가려고 강기슭까지 와서 법에 따라 단장(壇場)을 설치했다. 그러자 용은 부처님의 치아가 든 함을 받들고 와 사문에게 주었다. 사문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이 가람에 공양한 것이다.

7) 옛 도시 근처의 소가람

가람의 남쪽 14~5리에 소가람이 있다. 그 안에 관자재보살의 입상이 있다. 단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보살을 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상(像) 안에서 묘한 색깔의 모습을 나타낸다.

8) 중현논사의 유적

소가람 동남쪽 30여 리 해서 대산(大山)에 이른다. 이곳에 오래된 가람이 있는데 형상이나 축조는 굉장하지만 너무 황폐해져 이제는 오직 한 귀퉁이에 작은 중각(重閣)을 세워 놓고 있을 뿐이다. 승도는 30여 명, 모두 대승(大乘)을 학습하고 있다. 옛날에 상가바드라〔僧伽跋陀羅 : 당에서는 衆賢이라 함〕 논사가 여기에서 《순정이론(順正理論)》을 저술했다.

가람의 좌우에 수토파가 많다. 대아라한의 사리는 여기에 있다. 야수나 원숭이가 꽃을 따 공양하고 있는데 연중 그침이 없는 품이 마치 명령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산중의 많은 영적(靈跡), 예컨대 석벽이 가로 째졌다거나 봉우리에 말발자국이 남아 있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것은 그 존재 양태가 휼궤(譎詭)이다. 이것들은 나한이나 사미가 함께 거닐면서 손으로 그리거나 말에 타고 왕래한 것이다. 이러한 유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9) 오입 논사의 유적과 대식나한

불아(佛牙) 가람의 동쪽 10여 리, 북산의 벼랑 사이에 소 가람이 있다. 옛날 스칸딜라 대논사가 여기서 《중사분비바샤론〔衆事分毗婆沙論〕》을 썼다.

소가람 안에 높이 50여 척 되는 돌 수토파가 있다. 아라한의 유신사리(遺身舍利)를 봉납한 탑이다. 전에 몸집이 아주 큰 나한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는 양은 코끼리와 같을 정도였다. 당시 사람은 이를 비꼬아 “다만 배불리 먹을 뿐으로서 어찌 법의 시비를 알겠는가”라고 했다.

나한이 정히 적멸에 들려 할 때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곧 무여일반(無餘涅槃 : 3권의 6-2 참조)에 듭니다. 내 자신이 깨달은

묘법을 설파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조소했으나 모두 몰려와 함께 나한의 설법의 득실을 들으려 했다. 그때 아라한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일의 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몸의 전신은 인연 소생의 일체의 법으로서 코끼리의 몸을 받아 동인도 왕의 코끼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카시미르국에 한 사문이 있었는데 멀리 인도까지 나와 부처님의 경전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를 사문에게 보시하여 경전을 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그뒤 오래잖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짊어진 공덕의 힘덕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고 다시 여덕(餘德)의 덕택으로 일찍 염의(染衣)를 입고 출가하여 해탈(解脫)을 구해서 쉴 짬도 없었습니다. 육신통(六神通)을 얻고 삼계(三界)의 욕(欲)을 끊었습니다만〔이상 3권의 4-6 참조〕 그 식사의 습관은 역시 근본에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스스로 근신하여 3분의 1만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은 허공에 승천하여 화광정(火光定 : 몸에서 갖가지 빛의 화염을 내면서 드는 定. 三昧. 火光三昧. 火界定이라고도 함)에 들어, 몸에서 연기와 불꽃을 내면서 적멸에 들었다. 그 시신이 지상에 떨어져 수토파를 세운 것이다.

## 10) 상림 가람과 원만 논사

카시미르국 왕성에서 서북쪽으로 2백여 리 가면 상림 가람(商林伽藍)에 이른다. 푸르나〔布剌拏 : 唐에서는 圓滿이라 함〕 논사가 여기서 《석비바샤론〔釋毗婆沙論〕》을 지었다.

## 11) 붓딜라 논사

왕성에서 서쪽으로 가기 1백 4~50리, 대하 북쪽, 산 남쪽에 접하는 곳에서 대중부(大衆部)의 가람에 이른다. 승도는 1백여 명이다. 옛날 붓딜라〔佛地羅 : 覺取〕 논사가 여기서 《대중부집진론(大衆部集進論)》을 지었다.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험준한

산을 넘어 건너가기 7백여 리 해서 파르노차국에 이른다.

### 7. 파르노차국

파르노차국〔半笯蹉國 : 지금의 Uri에서 40km 南下한 Punch〕은 주위가 2천여 리이며 산천이 많고 경지는 좁다. 경작은 그때에 따라 하며 꽃이나 과일이 풍성하다. 고구마는 많으나 포도는 없다. 암라과〔菴沒羅果 : 酸性 飮料를 짜는 과일〕· 우둠바라〔烏淡跋羅 : 주먹만 한 크기의 과일〕· 모차〔茂遮 : 바나나〕 등의 과일나무는 집집마다 심어 숲을 이루고 있으며 그 맛을 진중히 여긴다.

기후는 따뜻하고 풍속은 용맹하다. 의복의 재료는 대부분 무명이다. 사람의 성격은 질직(質直)하고 삼보(三寶)를 신실하게 믿고 있다. 가람은 다섯 군데 있으나 거의 황폐해 있다. 대군주는 없고 카시미르국에 예속되어 있다. 성 북쪽의 가람에 승도가 조금 있다. 가람 북쪽에는 돌 수토파가 있는데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가기 4백여 리 해서 라자푸라국에 이른다.

### 8. 라자푸라국

라자푸라국〔曷邏闍補羅國 : 지금의 Rjaori〕은 주위가 4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다. 극히 험고하고 산이나 언덕이 많다. 하원(河原)은 좁고 땅은 기름지지 못하다. 산물과 기후는 파르노차국과 같다. 풍속은 거세고 성질은 용감하다. 나라에 군주가 없고 카시미르국에 예속되어 있다. 가람은 열 군데, 승도는 적다. 천사(天祠)는 한 군데, 외도(外道)가 아주 많다. 남파국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얼굴 모습은 추악하고 성질도 조포하며 언어도 야비하고 예의는 경박하다. 인도의 바른 존재 양태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변두리의 바르지 못한 존재 양태이다. 여기에서 동남쪽으로 산을 내려가고 물을 건너가기 7백여 리 해서 탁카국에 이른다.

# 제 4 권

### 1. 탁카국

#### 1) 개관

탁카국(磔迦國)은 주위 1만여 리이다. 동은 비파샤 하〔毗播河 : 지금의 Bias 江〕에 의지하고 서는 인더스 강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메벼에 맞고 보리가 많다. 금 · 은 · 동 · 유석(鍮石) · 철을 산출하며 기후는 덥고 회오리바람이 많다.

풍속은 조포(粗暴)하고 언사는 야비하다. 의복은 선백색(鮮白色)으로 코샤야 옷〔憍奢耶衣 : 2권의 1-6에 나오는 코세야와 같음〕 · 조하 옷〔朝霞衣 : 아주 엷은 線布로 朝霞와 같아서 붙은 이름〕 등이 있다.

불법을 조금 믿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천신(天神)에 봉사하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천사(天祠)는 수백이다.

이 나라의 다음부터는 수많은 복사(福舍 : 王이 세운 곳으로 行旅를 招延하고 貧窮에 給贍하는 곳)가 있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혹은 약을 주거나 먹을 것을 베풀거나 하는데 음식의 저장이 여행자에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 2) 샤칼라 고성과 미히라쿨라 용

대성의 서남쪽으로 14~5리 가면 샤칼라 고성(奢羯羅故城)에 이른다. 담장은 허물어졌으나 기초는 아직 단단한데 주위는 20여 리이다. 그 안에 다시 주위 6~7리의 작은 성을 쌓아 놓고 있다. 주민은 부유하며 여기가 이 나라의 고도(故都)이다.

수백 년 전에 미히라쿨라〔摩醯邏矩羅 : 당에서는 大族이라 함〕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이 성에 도읍하여 다스리면서 모든 인도의 왕이 되었다. 재주와 슬기가 있고 성질이 용감하여 이웃 제국으로서 신하가 되어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정무의 여가에 불교를 배우고자 하여 승려 중에서 한 사람의 지덕 있는 자를 추천하게 했으나 승도들은 그 명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 소욕(少欲)하고 무위(無爲)한 자는 명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박학하고 명민한 승려도 왕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점이 있었다. 마침 이때, 옛날 왕가에 있었던 동복(僮僕)으로, 출가하여 이미 오래되

었을 뿐 아니라 변론이 도도하고 말에 논리가 통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승려들은 일제히 그를 천거하여 왕명에 따랐다. 왕은 “나는 불교를 존경하여 멀리까지 명승(名僧)을 구했는데 승려들은 이런 심부름꾼을 천거하여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게 했다. 나는 항상 승려 가운데는 현명한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많으리라고 생각해 왔다. 이제 와서 분명히 알았다. 어떻게 불법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오인도(五印度)에 명해 불교에 관계되는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승도는 모두 내쫓아 버리도록 했다.

3) 유일왕의 정벌

마가다국의 할라디티야 왕(婆羅阿迭多王 : 당에서는 幼日이라 함)은 불법을 존경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대족왕(大族王 : 미히라쿨라 왕)은 무법적으로 형벌을 내리며 잔학한 정치를 하므로 스스로 국경을 굳히고 대족왕에게 조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족왕은 군대를 정비해 정벌하려고 했다.

유일왕은 그 소식을 듣고 군신들에게 “이제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군사와 싸우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을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몸을 용서만 해준다면 초야에 그대로 몸을 잠적할까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자 궁전을 나와 산야에 들어갔다.

나라 안 백성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격하여 국왕의 뒤를 따르는 자가 수만 명이어서 그들은 바닷속 섬에 은신했다. 대족왕은 군대를 아우에게 주어 바다를 건너 정복하게 했다. 유일왕은 땅의 험준한 곳을 지키면서 가벼운 복장을 한 병사로 하여금 적을 유인하게 했다. 금고(金鼓)가 한 번 울리자 뜻밖의 군사가 사방에서 나타나 대족(大族)을 생포하여 유일왕 앞에 대면하게 됐다. 대족왕은 잘못 든 길을 부끄러이 여겨 옷으로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유일왕은 왕좌에 앉고 군관(軍官)은 그 주위를 지켰다. 그리고 가신에게 명해 대족에게 “그대는 얼굴의 옷을 벗으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게 했더니 대족이 대답했다.

"주종의 위치가 바뀌었다 해도 적과 적이 마주보고 있다.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닌데 어찌 얼굴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재삼 벗으라고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대족의 죄를 책망하여 "삼보(三寶)의 복전(福田)은 사생(四生)이 의지하는 곳이다. 그대는 승냥이나 이리같이 제멋대로 행하고, 훌륭한 행업(行業)을 파괴했다. 그리하여 몸에 갖춘 복도 그대를 돕지 않고 나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죄상을 사면할 수 없으니 형벌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유일왕의 어머니는 듣고 아는 것이 많고 점복(占卜)에 통달해 있었는데 대족을 사형에 처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유일왕에게 "나는 일찍이 대족은 모습도 진기하고 지혜도 있다고 듣고 있소. 한번 만나보고 싶소" 하고 전달하게 했다.

유일왕은 대족을 끌고 모친의 궁전으로 가도록 명했다. 유일왕의 모친은 "아, 대족이여. 아무쪼록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오. 세상은 무상(無常)하고 명예와 치욕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오. 나는 마치 당신의 어머니와 같고 당신은 나의 아들과 같은 것이오. 아무쪼록 얼굴의 옷을 거두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대족은 "지난날에는 적국의 군주였고 이제는 사로잡힌 포로의 신세입니다. 저는 제왕의 업을 폐하고 선조의 제사를 멸했습니다. 위로는 조상의 영에 부끄럽고 아래로는 인민에게 면구스럽습니다. 진실로 사람과 마주할 얼굴도 없고 우러러 하늘을 보고 엎드려 땅을 대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어서 이와 같이 옷을 덮어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왕의 모친은 "흥하고 망함은 때에 따르고 존망(存亡) 역시 운에 있는 법이오. 그러므로 마음으로써 사물을 정제한다면 득과 실 모두 마음으로부터 잊을 수 있을 것이지만 사물로써 마음을 정제하려 한다면 치욕과 명예는 교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오. 아무쪼록 숙업(宿業)의 업보라는 것을 믿고 때의 변화에 거스르지 않도록 하오. 쓰고 있는 것을 벗고서 마주앉아 대화한다면 혹시 신명을 보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오"라고 말했다.

대족은 사례하며 "제가 비천한 몸으로 제왕의 업을 이었습니다만 사법과 행정 모

두 도에 벗어나 나라의 근본을 흩트리고 있었습니다. 결박을 당한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절박한 상황에 이른 목숨을 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얼굴의 옷을 거두어 후한 은혜에 사례드리고자 하는 터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쓰고 있던 옷을 벗어 얼굴을 내밀었다.

왕모는 "당신은 아무쪼록 자중자애하셔서 천수를 다하기 바라오" 하고 말했다. 그런 다음 유일왕에게 "옛 서적에 과오를 용서하여 생을 즐긴다는 교훈이 있소. 이제 대족왕은 악업을 오랫동안 쌓아오기는 했소만 그의 남은 복이 아직 다한 것은 아니오. 만약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12년 동안 청채(靑菜)와 같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될 때 그대는 중흥의 기질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대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북방에 웅거하여 작은 국토를 보유하게 될 뿐일 것이오" 하고 말했다.

유일왕은 자모의 명을 받고 나라 잃은 군주를 가엾게 여겨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면서 특별한 예우로 접대하고 그의 살아남은 병사를 모아 호위하게 했다. 또 바닷속의 섬에서 나가지 않은 사이, 대족왕의 아우는 제 나라로 돌아가 왕위를 이었다.

대족은 왕위를 잃고 산야에 숨어 북으로 가서 카시미르로 들어갔다. 카시미르 왕은 정중하게 예우하고 나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겨 토지를 봉해 주었다. 그런데 세 월이 지나자 대족은 영토의 인민을 이끌고 카시미르 왕을 속여 죽이고 스스로 그 왕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전승의 위광에 힘입어 서쪽으로 간다라국을 치려고 군사를 잠행하고 무기를 감추어 가서 그 왕을 죽이고 왕족과 장관까지 모두 죽여 버렸다. 수토파를 파괴하고 승가람을 폐지한 것이 거의 1천 6백 군데였다.

죽인 병사 외에 9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조리 주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 그때 보좌하는 관속들이 모두 간하여 말렸다.

"대왕의 위광은 강적도 진감하게 하여 병사들은 싸움을 돋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적의 수령은 주벌한다 해도 인민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희로써 죽음을 대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에 왕은 "너희는 불법을 믿어 명복을 존중하기 때문에 불과(佛果)를 이루어 본생

담에 있는 얘기를 흉내 내서 나의 악행을 미래세에 전달하려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제 자리로 돌아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3억의 상류인은 인더스 강의 물속에 처넣어 죽이고 3억의 중류인도 인더스 강의 물속에 수장하여 죽이고 3억의 하류인을 노예로서 병사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그 멸망시킨 나라의 재화를 갖고 군대를 정비해 카시미르국에 귀환했는데 해가 바뀌지 않은 그 해에 죽고 말았다. 그때 하늘은 운무로 깜깜해지고 대지가 진동하면서 강풍이 불어댔다. 그러자 증과(證果 : 깨달음)를 얻은 사람들은 가엾이 여겨 탄식하기를 "죄 없는 자를 부당하게 죽이고 불법을 괴멸시켰으니 무간지옥(無間地獄 : 阿鼻地獄이라고도 하는데 八大地獄 중에서도 극악한 자가 떨어지는 곳)으로 떨어져 유전하되 오히려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4) 샤칼라 고성 근방의 유적

샤칼라 고성 안에 하나의 가람이 있다. 승도는 1백여 명, 모두 소승의 법을 학습하고 있다. 세친보살(世親菩薩)이 옛날 이 안에서 《승의체론(勝義諦論)》을 저술했다. 그 옆에 있는 높이 2백여 척의 수토파는 과거사불(過去四佛 : 2권의 4-2 참조)이 설법한 곳이며 또 사불이 산책한 곳도 있다. 가람 서북쪽 5~6리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역시 과거사불이 설법한 곳이다.
신도 성의 동북쪽 10여 리에 돌 수토파가 있다. 높이는 2백여 척이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인데 여기는 여래가 북방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멈춘 곳이다. 《인도기(印度記)》에는 "수토파 안에 많은 사리가 있다. 재일에는 때때로 광명을 발하는 일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5백여 리 가면 치나북티국에 이른다.

## 2. 치나북티국

1) 개관

치나북티국〔至那僕底國 : 옛날에는 Chinapati라 추정하기도 했으나 지금의

Chiniyari인 듯)은 주위가 2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4~5리인데 농산물은 번무하고 과수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람들은 생업에 편히 종사하고 나라의 자재는 풍부하다. 기후는 덥고 사람들은 기력이 없다. 학문은 진속(眞俗) 모두 배우고 신앙은 정사(正邪) 겸해서 믿는다. 가람은 십여 군데, 천사는 여덟 군데이다.

2) 국호의 유래

옛날 카니시카 왕이 천하를 통치하자 그 성가는 이웃나라까지 울려 위광은 외국까지 덮었다. 하서(河西)의 외국인들은 위력을 두려워해 인질을 보냈다. 카니시카 왕은 볼모를 얻었기 때문에 따뜻이 환대하여 겨울 · 여름 · 봄가을의 세 시기에 주거를 보고 보(步) · 마(馬) · 차(車) · 상(象) 4병(兵)으로 경호하게 했다. 이 나라는 겨울 주거지였다. 그래서 치나북티〔당에서는 漢封이라 함〕라 한다. 볼모가 있었던 연유로 국호를 딴 것이다.

이 경역 다음의 여러 인도에 이르기까지 땅에는 배와 복숭아가 없었으나 볼모로 간 사람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복숭아를 치나니〔至那爾 : 당에서는 漢持來. 漢에서 가져온 것이라 함〕라 하고, 배는 치나라자푸트라〔至那羅闍弗呾羅 : 당에서는 漢王子라 함〕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나라 사람은 동토(東土 : 中國)를 존경하여 서로서로 현장(玄奘)을 가리키면서 우리들의 선왕의 본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3) 카티야야나의 유적

대성에서 동남쪽으로 50여 리 가면 타마사바나 승가람〔答秣蘇伐那僧伽藍 : 당에서 闇林이라 함〕에 이른다. 승도는 3백여 명인데 설 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학습하고 있다.

사람들의 위의(威儀)는 조심스럽고 온건하며 덕은 높고 행동 또한 깨끗하다. 소승(小乘)의 학을 특히 널리 연구하고 있다. 현겁의 천불(賢劫의 千佛 : 과거 · 현재 · 미래 중 현재의 住劫 사이에 千體의 부처님이 出世한다고 말해지고 이 때문에 현재의 주겁을 칭찬하여 현겁이라 함)은 모두 이 고장에서 천인들을 모아 심심(甚深)

한 묘법을 설파했다. 석가여래가 열반에 든 뒤 3백 년째에 카티야야나(迦多衍那 : 옛날에 迦旃延이라 함은 잘못) 논사가 여기서 《발지론(發智論)》을 저술했다.
암림(闇林) 가람 안에 높이 2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 곁에는 과거사불이 앉은 곳과 산책한 유적이 있다. 소수토파와 큰 석실이 고기비늘같이 차례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수는 확실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모두 겁초(劫初) 이래 많은 증과를 얻은 성인들 것으로 여기서 입멸한 사람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고 그 치아나 뼈가 지금도 있다.
산을 두른 가람은 주위가 20리 정도인데 부처님의 사리를 넣은 수토파는 수천 군데이며 그 귀퉁이를 이어 그림자를 잇댈 정도이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1백 4~50리 가면 잘란다라국(북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3. 잘란다라국

잘란다라국(闍爛達羅國)은 동서 1천여 리, 남북 8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2~3리이다. 농업에 적합하며 메벼가 많고 수림은 가지를 뻗고 꽃과 과일은 번무하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강맹하며 용모는 비천하나 사람들은 부유하다.
가람은 50여 군데, 승도는 2천여 명이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 하나를 전문으로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세 군데, 외도는 5백여 명이며 모두 도회외도(塗灰外道) 사람들이다.
이 나라 선왕은 외도를 숭배하고 존경하고 있었으나 그 뒤 나한을 만나 정법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중인도 왕은 그의 신앙이 두터운 것을 이해하고 오인도국(五印度國)의 삼보에 관해서는 일체 그에게 총감(總監)하게 했다.
왕은 사람을 구별함 없이 애증(愛憎)을 잊고 승도를 감독 시찰했으며 선을 잘 간파했다. 그래서 도덕이 훌륭한 사람은 진심을 다해 존경하고 계행을 범한 자는 깊이 책임을 묻고 벌을 가했다. 또 성적(聖跡)이 있는 곳은 어디고 표창영조(表彰營造)했다. 수토파가 있고 승가람이 있어 인도 국내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험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가기 7백여 리 해서 쿨루타국(屈露多國 : 북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4. 쿨루타국

쿨루타국(屈露多國 : 지금의 Kangra의 Kulu 지방)은 주위 3천여 리로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이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업은 적절한 때에 심고 있으며 꽃이나 과일은 번무하고 초목도 무성하다. 설산이 경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진귀한 약이 많고 금 · 은 · 적동 · 화주(火珠) · 우석(雨石 : 鍮石인지 隕石인지 불명)을 산출한다.

기후는 차츰 추워지고 서리와 눈이 조금 내린다. 사람의 용모는 흉하고 목에 혹이 있거나 다리가 부어 있거나 하며 성질은 강맹하여 용기를 숭상한다.

가람은 20여 군데, 승도는 1천여 명이다. 대개 대승을 배우고 소수가 소승의 제부(諸部)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5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다. 암석과 산령에 의지하여 석실은 서로 떨어져서 있다. 나한이 사는 곳도 있고 선인이 사는 곳도 있다.

이 나라에도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께서 이 나라에 와 설법하여 사람들을 제도(濟度)한 일이 있다. 유적에는 표적이 되어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기 1천 8~9백 리, 위험한 길을 지나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라훌라국(洛護羅國)에 이른다. 또 이보다 북쪽으로 2천여 리, 길은 험하고 바람이 차가우며 눈발 흩날리는 곳을 지나면 마라사국(秣羅娑國 : 또는 三波訶國이라고도 함)에 이른다. 또한 쿨루타국에서 남쪽으로 가기 7백여 리, 큰 산을 넘고 큰 강을 건너 샤타드루국에 이른다.

## 5. 샤타드루국

샤타드루국(設多圖盧國 : 지금의 Sutlej Satlej 강의 옛 이름)은 주위가 2천여 리, 서쪽으로는 강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지금의 Sarhind인 듯)은 주위가 17~8리 된다. 농업이 성대하고 과실이 풍부하여 금은이 많고 보석도 난다. 옷은 하얗고 치마는 화려한 것을 입는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온화하다. 사람들의 성격은 선량하고 위아래의 질서가 있으며 불법을 신실하게 믿고 일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왕성 안팎에는 가람이 10여 군데 있는데 뜰이나 건물은 황폐해 있고 승도의 수도 적다. 성의 동남쪽 3~4리쯤에 높이 2백여 척이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座所) 및 산책하던 유적이 있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기 8백여 리 해서 파리야트라국에 이른다.

## 6. 파리야트라국

파리야트라국(波理夜呾羅國 : 지금의 Bairat, Virata에 해당함)은 주위가 3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이다. 농업에 알맞고 보리가 잘 된다. 진귀한 종류의 벼가 있는데 씨를 뿌려서 60일이면 거두어들인다. 소나 양은 많지만 꽃이나 과일은 적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강맹하며 학예를 중히 여기지 않고 외도를 신봉하고 있다. 왕은 바이샤종(吠奢種)이며 성질이 용감하고 무략(武略)이 뛰어났다.

가람은 8군데 있지만 많이 손괴되어 있다. 승도는 적으며 소승을 학습하는데 천사는 10여 군데 되고 이도인(異道人)이 1천여 명이다.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5백여 리 가면 마투라국에 이른다.

## 7. 마투라국

### 1) 개관

마투라국〔秣菟羅國 : 지금의 Mathura, Muttra縣에 해당〕은 주위가 5천여 리 된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암라과〔菴沒羅果 : 망고〕는 집집마다 심어 숲을 이루고 있다. 이름은 같지만 두 종류인데 작은 쪽은 파랗다가 익으면 황색이 되고 큰 쪽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파랗다. 가느다란 무늬가 든 무명과 황금을 산출한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선량하다. 내세에 좋으라고 해서 행실을 잘하며 덕을 중히 여기고 학문을 존경한다.

가람은 20여 군데, 승도는 2천여 명이다. 대소승(大小乘)이 있으며 양쪽을 겸해 학습한다. 천사는 다섯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 2) 불제자상의 공양

3개의 수토파가 있는데 모두 아쇼카 왕이 세웠으며 과거사불의 유적이 아주 많다. 석가여래의 많은 성제자의 유신(遺身)을 위한 수토파, 예컨대 샤리푸트라〔舍利子 : 옛날에 舍梨子 또는 舍利弗이라 했으나 잘못임〕· 마우드갈랴야나〔沒特伽羅子 : 옛날에는 目乾連이라 했으나 잘못임〕· 푸르나마이트라야니푸트라〔布刺拏梅呾麗衍尼弗呾羅 : 당에서는 滿慈子라 함. 옛날에는 彌多羅尼子라 했으나 잘못〕· 우팔리〔鄔波釐〕· 아난다〔阿難陀〕· 라훌라〔羅怙羅 : 옛날에는 羅睺羅 또는 羅云이라 했으나 잘못임〕· 만지시리〔曼殊室利 : 당에서는 妙吉이라 한다. 옛날에는 濡首 또는 文殊師利, 曼殊尸利라 하고 옮겨 妙德이라 하나 모두 잘못임〕 등 여러 보살의 수토파가 있다.

1년의 삼장(三長 : 1월 · 5월 · 9월)과 한 달의 육재(六齋 : 8 · 14 · 15 · 23 · 29 · 30의 6일)가 될 때마다 승도들은 다투어 친구들로 하여금 공양품을 가져오게 하여 진귀한 것을 많이 만들고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상(像)을 만든다.

예컨대 아비다르마〔阿毗達磨〕를 학습하는 무리는 샤리푸트라를 공양하고 선정(禪定)을 학습하는 무리는 마우드갈랴야나를 공양하며 경(經)을 외는 무리는 푸르나

마이트라야니푸트라를 공양하고 비나야(毗奈耶)를 학습하는 무리는 우팔리를 공양하며 비크슈니〔苾蒭尼 : 比丘尼〕들은 아난다를 공양하고 아직 구족계(具足戒 : 比丘가 지켜야 할 2백 50戒, 比丘尼가 지켜야 할 5백 戒의 授戒)를 받지 않는 무리는 라훌라를 공양한다. 또 대승을 학습하는 무리는 여러 보살을 공양한다.
이날이 되면 많은 수토파를 다투어 공양봉수(供養奉修)하고 색깔 있는 기를 벌려 세우는가 하면 보석으로 장식한 양산을 양쪽에 늘어놓는다. 향의 연기는 구름 같고 꽃이 지는 모양은 비와도 같다. 해와 달도 뒤덮을 만한 인파로 골짜기가 떠날 정도로 붐빈다. 국왕이나 대신도 선행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 3) 우파굽타의 옛터

성에서 동으로 5~6리 가면 하나의 가람에 이른다. 벼랑에 구멍을 뚫어 주거로 삼고 골짜기로 문을 삼고 있다. 우파굽타〔鄔波毱多 : 優波崛多 · 優波屈이라고도 적는다. 당에서는 近護라 적는다〕가 세운 것이다. 그 안에 석가여래의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가람 북쪽 암석 사이에 석실이 있다. 높이 20여 척, 넓이가 30여 척이다. 4촌(寸)의 가느다란 셈대〔籌〕가 그 안에 높이 쌓여 있다. 존자 우파굽타가 설법으로 부처(夫妻)를 교화 지도하는데, 그 부처가 함께 나한과(羅漢課)를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셈대 하나씩을 던져 쌓아진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달리하거나 종족을 달리할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도 기록하지 않았다.

### 4) 미후(獼猴)가 꿀을 바친 전설

석실에서 동남쪽으로 24~5리 가면 크고 마른 연못에 이른다. 곁에 수토파가 있는데 옛날 여래께서 이곳을 지나셨다. 그때 큰 원숭이〔獼猴〕가 꿀을 갖고 와 봉양했다. 부처님은 물로 묽게 만들어 여러 사람에게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큰 원숭이는 기뻐 날뛰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나 그 복덕의 힘으로 인간계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5) 불타(佛陀)의 구적(舊跡)

연못 북쪽 멀지 않은 큰 숲 속에 과거사불이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그 옆에 샤리푸트라(舍利子), 마우드갈랴야나 등 1천 2백 50명의 대아라한이 선정을 닦은 곳이 있는데 모두 수토파를 세우고서 유적을 표시해 두고 있다. 여래는 재세 중에 가끔 이곳에 유화(遊化)했으나 그 설법한 장소에는 어느 곳이나 그 표시를 한 나무가 서 있다. 여기서 동북으로 5백여 리 가면 스타네시바라국에 이른다.

## 8. 스타네시바라국

1) 개관

스타네시바라국(薩他泥濕伐羅國 : 지금의 Thanegar)은 주위가 7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여 농업이 잘 되며 기후는 덥고 풍속은 인정이 박하다. 집집마다 부유하여 사치를 다투고 있다. 환술(幻術)에 능하며 특이한 재능을 존중한다. 이익을 좇는 자(장사치)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적다. 여러 곳의 진기한 물건들이 이 나라에 모여든다. 가람은 3군데, 승도는 7백여 명인데 모두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1백여 군데, 이도가 대단히 많다.

2) 옛 싸움터

대성 주위 2백 리는 그 고장 사람들이 복지라 이르고 있다. 고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오인도의 나라들은 두 사람의 왕이 나누어 통치했다. 그런데 서로 국경을 침범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래서 국왕들은 결전을 벌여서 자웅을 정함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고 합의했다. 백성들은 이를 원망하고 군명(君命)에 따르지 않았다. 왕은 '백성이란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함께 상의하기 곤란한 존재다. 신비는 사물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권도(權道 : 정상이 아닌 방법)는 공을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그때 범지(梵志 : 婆羅門)에 재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자가 있었다. 왕은 은밀히 선물을 보내 내전으로 들게 한 다음 법서(法書)를 만들어 이를 암굴 속에 감춰두게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자라 그 암굴을 둘러싸 버렸다. 왕은 조정의 신하에게 "나는 부덕함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더럽히고 있다. 그러나 천제께서는 보살핌이 있어 꿈에 영서(靈書)를 받았다. 어떤 산의 어떤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명을 내려 찾아내게 했던 바 산림 속에서 책을 발견해냈다. 군관은 축하할 일이라 했으며 백성들은 마음으로 기뻐했다. 그리하여 원근에 사실을 선포하여 뭇 백성에게 알렸다. 그 대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대저 생사란 끝없는 것이며 유전 또한 끝없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 빠져들어 스스로를 구할 방법이 없다. 나는 기묘한 계책으로 모든 고뇌로부터 이탈시키고자 한다. 이 왕성 주위 2백 리 땅은 고대의 제왕 시대에는 복리의 고장이었다. 세월이 오랜 일이라서 기록도 인멸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고해에 빠져들어 구원을 받지 못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 백성들이여, 적을 맞이하여 전사한다면 인간계에 재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록 죄 없는 자를 죽였다 해도 하늘의 복락을 받을 수 있다. 효자 · 효손이 노인을 부액하고서 이곳을 지난다면 복을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공은 적고 복은 많다. 어찌 이 기회를 놓칠까보냐. 사람이란 한번 죽어 인신(人身)을 잃으면 삼도(三途)의 어둠 속을 방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는 각자 맡은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사람들은 싸움을 배우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됐다. 그래서 왕은 명을 내려 용감한 병사를 모집했다. 두 나라는 교전하여 시체가 잡초와 같이 쌓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해(遺骸)는 들에 가득 널려 있다. 때는 비록 옛날이라 해도 사람의 주검이란 위대한 것이어서 이 나라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이곳을 복지라 하고 있는 것이다.

### 3) 불사리탑(佛舍利搭)

성의 서북쪽 4~5리의 곳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벽돌은 주황색이며 광택이 맑다. 그 안에 여래의 사리가 한 말이 들어 있는데 때로 광명을 비추는 일이 있고 이상한 사적(事蹟)이 여러 가지 있다.

4) 구혼다 승가람

성의 남쪽에서 1백여 리 가면 구혼다(俱昏荼) 승가람에 이른다. 중각(重閣)은 기와가 잇대어졌고 층대(層臺)는 길을 가운데 끼고 마주하고 있다. 승도는 행실이 바르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이 고상하고 우아하다. 여기서 동북으로 4백여 리 가면 스루그나 국에 이른다.

## 9. 스루그나국

1) 개관

스루그나국〔窣祿勤那國 : 지금의 Dehra Dun 지방에 가까운 Sugh〕은 주위 6천여 리, 동쪽으로는 갠지스 강을 바라보고 북으로는 히말라야를 업고 있다. 야무나 강〔閻牟那河 : 인도 5대 강의 하나로 耶蒲那 · 遙扶那 · 閻摩那 · 焰牟로도 표기되고 있음〕을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황폐한 정도가 극심하지만 기초는 아직 든든하다.

토지의 산물이나 기후의 상황은 스타네시바라국과 같다. 사람의 성질은 순박하고 외도를 신앙하고 있으며 학예를 높이고 복덕 · 지혜를 소중히 하고 있다. 가람은 5군데, 승도는 1천여 명인데 소승을 학습하는 자가 많고 다른 부파(部派)를 학습하는 자는 적다. 부처님의 미묘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심오한 점을 논하고 있으며 여러 곳의 준재들이 질문하고 논의하고 의문점을 생각하고 있다. 천사는 1백 군데, 이도가 대단히 많다.

2) 불탑과 나한탑(羅漢塔)

대성의 동남쪽 야무나 강 서쪽 대가람의 동문 밖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

운 것으로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설법하며 사람들을 제도했다. 그쪽에 있는 한 수토파 안에는 여래의 머리카락, 손톱이 든 수토파가 그 좌우를 둘러싸고서 수십 군데 있다.

여래가 적멸한 다음 이 나라는 여러 외도에 의해 현혹되었다. 사법(邪法)을 신앙하고 정법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현재 다섯 개의 가람이 있는 것은 외국의 논사가 여러 외도나 바라문을 불러 논쟁을 벌여 이긴 곳으로써 이로 인해 세운 것이다.

3) 갠지스 강 상류

야무나 강에서 동쪽으로 9백여 리 가면 갠지스 강 하원(河源)에 이른다. 넓이는 3~4리이다. 동남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곳은 넓이가 10여 리나 된다. 물빛은 파랗고 흐름은 잔잔하다. 재앙을 지닌 것은 많지만 해를 가하는 일은 없다. 그 맛은 감미롭고 아주 작은 모래는 흐름에 따라 퍼져 있다.

이 지방의 통속적 기록에는 이 강을 복수(福水)라 이르고 있는데 죄가 산처럼 쌓여도 이 강에서 목욕하면 제거되고 목숨을 가벼이 여겨 스스로 물속에 빠져 죽는 자는 하늘에 태어나 복을 받는다고 한다. 또 죽어서 그 유해를 이 강에 내던지면 지옥으로 가는 일 없이 거품 이는 물결과 소용돌이 치는 흐름에 따라 망혼은 제도된다는 것이다.

4) 데바의 유화

그 옛날 집사자국(執師子國 : 싱갈라국〔僧伽羅國〕. 현재의 실론)의 데바보살〔提婆菩薩〕은 깊이 실상(實相)에 통달하여 갖가지 법성(法性 : 萬有의 本體)을 깨달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범부(凡夫)들을 불쌍히 여겨 이곳에 와 교화하고 있었다.

이때 남녀들이 서로 모여 만났고 노약들 역시 모여들어 강변에서 목욕하는 가운데 물살을 높여 흐름을 거세게 하고 있었다. 데바보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에 들어갔는데 고개를 숙이고서 흐름에 거스르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고, 어떤 외도가 "당신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데바보살은 "나의 부모나 친족은 집사자국에 있습니다. 혹시 굶주림과 목마름에 괴로움을 받

고 있지나 않는가 하여 이 먼 곳에서 무사하도록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외도들은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 어째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고향은 멀고 산천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강물의 물결로 멀리 있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뒷걸음치면서 전진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때까지 들어 보지 못한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데바보살은 “저승의 죄 있는 사람도 이 물의 덕을 입는다는 것인데 비록 산천이 떨어져 있다 해도 이 세상 사람이 어찌해서 구할 도리가 없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외도들은 그 논리의 참됨을 이해하고 사죄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정법을 받아 과오를 깨달아 스스로를 새롭게 교도를 받겠노라고 가르침을 부탁했다. 강의 동쪽 기슭을 건너면 마티푸라국에 이른다.

## 10. 마티푸라국

### 1) 개관

마티푸라국(秣底補羅國 : 玄奬의 기술에 반하여 지금의 Rohilkhand의 Bijnor 북방 약 8마일의 Mandawar, Madavar라는 설이 주장되기도 함)은 주위가 6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곡물에 적합하고 꽃이며 과일이 많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학예를 존중하고 주술을 잘한다. 사도와 정법을 믿는 무리가 반반이다. 왕은 슈드라종(戍陀羅種)이다. 불법을 믿지 않고 천신을 신앙하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8백여 명이다. 소승교의 설 일체유부를 학습하는 자가 많으며 천사는 50여 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다.

### 2) 덕광에 대한 고전(古傳)

대성에서 남쪽으로 4~5리 가면 소가람에 이르며 승도가 50여 명 있다. 옛날 구나

프라바〔瞿拏鉢刺婆 : 당에서는 德光이라 함〕 논사가 이곳에서 《변진론(辯眞論)》 등의 논서를 전부 1백여 권 만들었다. 논사는 젊을 때부터 수재였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명민하고 박학다식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석학박문(碩學博聞)했다.

본래 대승을 학습했으나 그 심오한 경지에 이르기 전에 《비바사론〔毗婆沙論〕》을 읽었기 때문에 대승을 그만두고 소승을 학습, 수십 부의 논서를 만들어 대승의 체계를 논파하고 소승의 견해를 완성했다. 또 통속서를 수십 부 만들어 선배가 만든 논저를 배척했다. 경전을 깊이 고찰했으나 수십 개 조에 걸쳐 판명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으나 의문을 풀지 못했다.

그 당시 데바세나〔提婆犀那 : 당에서는 天軍이라 함〕 나한이란 사람이 있어 투시타천〔覩史多天 : 俗界에 속하는 六天의 아래에서 네 번째 天인데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으로 현재 彌勒菩薩이 여기서 說法하고 있다 함〕을 왕래하고 있었다. 덕광은 자씨(慈氏 : 彌勒菩薩)를 만나 의문을 해결하고자 하여 천군에게 신통력으로 천궁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리하여 자씨를 만나기는 했으나 두 손을 맞잡고 절을 했을 뿐 예배하지는 않았다. 천군은 "자씨보살은 다음 대에 부처님 자리를 이을 분이신데 어찌하여 자존(自尊)하는 가운데 정중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받고자 하면서 어찌하여 오만한 것입니까?" 하고 묻자 덕광은 대답했다. "존자의 말씀은 옳습니다만 나는 구계(具戒)의 비크슈〔苾芻 : 比丘〕이며 출가의 제자입니다. 자씨보살은 천상계의 복락을 받고 계신 분으로 출가의 벗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씨보살은 덕광이 오만하며 본래 법을 들을 그릇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덕광이 왕래하기 세 번이었으나 그래도 의문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게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천군은 덕광의 오만함을 싫어하여 경멸하면서 상대를 해 주지 않았다.

덕광은 소망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산림 속으로 가서 발통정(發通定 : 通이란 神通을 생략하는 말이기도 하니 神通力을 발하는 禪定이란 뜻)을 수행했으나 오만심이 없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증과(證果)를 얻을 수 없었다.

3) 중현논사와 세친

덕광 가람 북쪽 3~4리에 대가람이 있다. 승도는 2백여 명, 모두 소승의 교의를 학습하고 있다. 이곳에서 중현논사(衆賢論師 : 僧伽跋陀羅, 상가바드라)가 수명을 마쳤다. 논사는 카시미르국 사람이었다. 총명하고 박학하여 어려서부터 영예로운 세평이 자자했다. 특히 일체유부(一切有部)의 《비바샤론》에 대해 연구를 깊이 하고 있었다.

당시 세친보살(世親菩薩 : 5권의 2에 자세하게 나옴)이 오로지 마음을 불도에 두어 언외(言外)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여 비바샤사〔毗婆沙師 : 비바샤론을 지닌 학자〕의 소론을 설파하는 《아비다르마쿠샤론〔阿毗達麻俱舍論 : 有部의 敎學體系에 따르면서도 다른 부파의 설을 인용했기 때문에 대승과 소승 학도에게 있어 불교의 기초적 연구서가 됨〕》을 만들었다. 어의가 훌륭했고 이론은 고아했다. 중현이 이를 보자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에 빠져들기 12년 남짓하여 《구사포론(俱舍雹論)》을 만들었다. 2만 5천 송(頌), 모두 80만 언(言)이었다. 언사는 심원하고 세세한 것까지 구별한 것이었다. 그는 문인(門人)에게 말했다.

"나의 뛰어난 재능으로 정론을 펴, 세친을 쫓고 그 예봉을 꺾어 그 늙은이들에게 첫째의 명예를 독점시키는 일이 없게 하자."

그래서 중현은 그를 따라 배우는 서너 명의 준재와 함께 그의 논(論)을 가지고 세친을 방문했다. 세친은 이때 탁카국의 샤칼라 성에 있다가 멀리서 중현이 곧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친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 여장을 차렸다. 문인은 의아해하면서 세친에게 충고했다.

"대사의 덕은 선현보다 높고 명성은 당대에 드높습니다. 원근의 학도치고 추앙하여 흠모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 중현의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써 어찌 그리 당혹해 하십니까. 그에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치욕을 받습니다."

세친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젊은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안을 살피건대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현은 비록 후배이기는 하지만 그 궤변은 흐르는 물과 같고 나는 노쇠해 있기 때문에 논쟁을 지속시킬 수가 없을 것 같다. 한마디로써 그 이론(異論)을 설파하려고 하니 중인도에 데리고 가 훌륭한 사람들 앞

에서 그 진위를 명백히 해서 득실(得失)을 밝히려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곧장 동행자에게 명해 책 상자를 짊어지고 원유길에 나섰다. 중현논사는 하루 늦게 이 가람에 이르러 세친이 원유했음을 알고 갑자기 맥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편지로써 세친에게 사죄를 했다.
"여래께서 적멸하신 이래 제자들은 부파(部派)에 집착해 자기가 받드는 학을 전하면서 각자가 제 마음대로 처신하는 가운데 짝을 지어서는 다른 부파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민한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게 전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께서 지으신 《아비다르마쿠샤론〔阿毗達磨俱舍論〕》이 비바샤사의 요약한 뜻을 논파하고 있음을 배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역량도 헤아리지 못하고 연구에 잠겨 해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론을 만들고 '설 일체유부'의 종학을 선양하려 했습니다. 지혜와 역량은 적은데 계획은 크고, 그뿐 아니라 저의 죽음은 임박해 있습니다. 보살〔세친을 이름〕께서는 부처님의 미묘한 말씀을 분명히 해서 지극(至極)의 도리를 선양하고 계십니다. 만약 저의 소론을 무너뜨림이 없이 이 문장을 남겨주신다면 천행이겠으며 죽는다 한들 후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널리 문인(門人) 중에서 변설에 능한 자를 골라 "나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선배를 얕보았다. 운명이란 어찌할 수 없어 친보살께 인사드리면서 나 대신 과오를 빌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문인들은 편지를 가지고 세친 있는 곳에 이르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스승 중현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만 편지를 전달하도록 유언함으로써 스스로의 허물을 사죄했습니다. 중현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친보살은 편지를 자세히 읽고 논을 자세히 통독한 다음 한동안 신음하더니 문인들에게 "중현논사는 총명한 후배입니다. 이론에 모자라는 곳은 있습니다만 언사(言辭)에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중현의 논을 깨트리려 든다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입니다만 임종 때의 부탁을 생각하고 난제(難題)를 찰지(察知)한 언사를 중히 여기는 한편 비바샤사의 대의가 전달되었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중현의 숙원을 이루어 주도록 합시다. 하물며 이 논에서 우리의 종지(宗旨)를 발명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제목

을 바꿔 《아비다르마순정이론(阿毗達磨順正理論)》이라고 했다. 이에 문인들이 간했다.

“중현이 아직 타계하기 전에 대사께서는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논을 입수하여 개제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현의 문인들은 무슨 낯으로 이 치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친보살은 그들의 의문을 없애기 위해 송(頌)을 외웠다.

“사자왕(師子王)이 돼지를 피해 멀리 자국을 없애는 것과도 같은 것, 양자 중 힘의 승부는 지자(智者)만이 반드시 알리로다.”

중현의 시체는 태워서 뼈를 가람 서북쪽 2백여 보 되는 암라숲 속에 수용하고 수토파를 세웠다.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다.

4) 무구우논사의 고사

암라 숲 쪽에 수토파가 있는데 비말라미트라(毗末羅密多羅 : 당에서는 無垢友라 함) 논사의 유해를 모신 탑이다. 논사는 카시미르국 사람이며 설 일체유부에 따라 출가했다.

많은 경전을 널리 보고 이론(異論)을 연구했으며 오인도의 나라들을 널리 다니는 가운데 삼장의 현오(玄奧)한 문의(文義)를 배우고서 이름을 떨치고 업을 이루어 귀국하면서 도중에 중현논사의 수토파에 들렀다. 그리고서 탑을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생각건대 논사는 사람됨이 고매하고 대의를 선양하여 다른 부파를 꺾고 자기 파의 의(義)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랴, 수(壽)를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 무구우는 외람되게도 후학으로 비록 때를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스승의 의를 사모하고 대(代)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스승의 덕을 그리워하는 바입니다. 세친은 사몰했습니다만 그 학문은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학문을 다해 여러 종류의 논서를 만들어 잠부주의 여러 학자로 하여금 대승이라는 칭호를 끊게 함으로써 세친의 이름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이리하여 불후한 것으로서 지난날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정신 이상을 일으켜 오설(五舌 : 《大乘法敎》에 佛 · 法 · 慧 · 天 · 肉에 대한 말을 내는 혀라고 圖示하고 있으나 여기 해당될 것 같지는 않다)이 겹쳐 나오고 뜨거운 피가 넘쳐흘렀다. 목숨이 다할 것을 안 그는 편지를 썼다.

"대저 대승의 가르침이란 불법 중에서 최상지극의 말씀입니다. 설사 표현상 부르는 이름이 스러진다고 해도 진리는 유현(幽玄)하여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박하게 우둔한 몸으로서 선배를 면박했습니다. 이 보답은 명백하여 죽는 것도 당연합니다. 감히 학자들에게 충고하노니 그 표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각기 스스로의 뜻을 신중히 하여 의문을 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후회한 것이다. 대지도 이 때문에 진동했고 목숨은 그대로 끊겼다. 그런데 그 죽은 장소가 꺼지면서 큰 구멍이 되었다. 승도들이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거두고 표를 해 세웠다. 그때 한 나한이 그를 보고 탄식하여 "슬프구나, 괴롭구나. 이제 이 논사는 감정을 좇아 사견에 집착, 대승을 그르다고 비방했기 때문에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빠진 것이다"라고 했다.

5) 마유라 성

나라의 서북 경계, 갠지스 강 동쪽 기슭에 마유라 성(摩裕羅城)이 있다. 주민이 많고 맑은 물이 흐른다. 유석(鍮石) · 수정(水精) · 보기(寶器)가 난다. 성에서 멀지 않은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 곳에 큰 천사가 있으며 영험이 아주 많다. 그 안에 연못이 있는데 돌로 엮어 기슭을 만들어 갠지스 강물을 끌어들여 운하로 쓰고 있다. 오인도 사람들은 이를 갠지스 강의 문이라 하면서 복을 낳고 죄를 소멸시키는 곳이라 여기고 있다. 항상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목욕을 한다.

선행을 원하는 왕들은 복사(福舍 : 왕이 세워 行旅를 招延하고 가난한 자에게 結贍하는 곳)를 건립해 음식을 장만해 두고 의약(醫藥)을 갖춰 두며 의지할 곳 없는 남녀에게 베풀고 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3백여 리 가면 브라흐마푸라국에 이른다.

## 11. 브라흐마푸라국

### 1) 개관

브라흐마푸라국〔婆羅吸摩補羅國 : 지금의 Alakananda 강 유역 지방 Garwal에 比定됨〕은 주위가 4천여 리,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로 주민이 많고 집집이 부유하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업은 때에 맞춰 행해지고 있다. 유석과 수정이 난다. 기후는 찬 편이며 풍속은 용감하다. 학예에 정진하는 자가 적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장사치〕가 많다. 사람들의 성질은 난폭하며 사견(邪見)과 정법을 반반씩 믿고 있다. 가람은 다섯 군데로 승도는 적다. 천사는 10여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 2) 동녀국

이 나라 경계 북쪽 대설산 속에 수바르나고트라국〔蘇伐剌拏瞿呾羅國 : 당에서 金氏라 함. 산스크리트어로 수바르나가 金, 고트라가 氏임〕이 있다. 질이 좋은 금을 산출해서 그렇게 불렀다.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다. 이것이 동녀국(東女國)이다. 대대로 여자가 국왕이 되며, 남편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다만 전쟁을 하거나 밭을 일굴 뿐이다. 토지는 보리 심기에 적합하고 양이나 말을 많이 치고 있다. 기후는 대단히 추우며 사람들의 성질은 조포하다. 동쪽으로는 티벳에 접해 있고 북은 코탄국에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파가국에 접해 있다. 마티푸라국에서 동남으로 4백여 리 가면 고비사나국에 이른다.

## 12. 고비사나국

고비사나국〔瞿毘霜那國 : 지금의 Kashpur 동쪽 1마일 지점에 있는 廢址가 그 首都인 것으로 比定됨〕은 주위가 2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인데 위치는 높고 험고(險固)하며 성의 주민은 번화하고 풍성하며 꽃 피는 숲이나 연못

과 늪이 곳곳에 있다.
기후와 산물은 마티푸라국과 같다. 풍속은 순박하고 학문에 열심이며 굿을 좋아한다. 외도를 많이 믿으며 현실의 쾌락을 즐긴다.
가람은 2군데, 승도는 1백여 명이며 모두 소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30여 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다.
커다란 성 쪽으로 오래된 가람 안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 때 세운 것이다. 높이는 2백여 척.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제법의 요의를 말씀하셨다. 곁에는 과거사불의 좌소(座所)와 산책한 유적이 있다. 그 옆에는 여래의 두 발과 손톱을 수장한 두 개의 수토파가 있다. 각기 높이가 1장(丈) 남짓이다. 여기서 동남으로 4백여 리 가면 아히찻트라국에 이른다.

## 13. 아이찻트라국

아이찻트라국〔惡醯掣呾邏國 : 현재 Delhi 동쪽 Rohikhand 지방 동쪽에 Ahicchattra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은 주위가 3천여 리이다. 대도성은 주위 17~8리이고 험고한 지세에 의지하고 있다. 토지는 곡물에 알맞고 숲이나 우물이 많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며 도(道)를 숭상하고 학문에 열심이며 다재박식하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1천여 명이며 소승의 정량부(正量部 : 小乘 24部의 하나)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9군데, 이도 사람이 3백여 명이다. 이는 자재천(自在天 : 마헤시바라, 摩醯濕伐羅 또는 시바, 濕婆라고도 함. 三千界의 主)을 섬기는 도회(塗灰 : 外道)의 무리들이다. 성 밖 용지 옆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여래가 옛날에 용왕을 위해 7일 동안 설법한 곳이다. 그 옆에는 4개의 자그만 수토파가 있다.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2백 6~70리, 갠지스 강을 건너 서남으로 가면 비라사나국에 이른다.

## 14. 비라사나국

비라사나국(毘羅刪拏國 : 지금의 Etah縣의 Bilsar인 듯)은 주위가 2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0여 리이다. 기후나 산물은 아히찻드라국과 같으며 풍속은 난폭하지만 사람들은 학예를 이해하고 있다.

외도를 신앙하고 불법을 공경하는 자는 적다. 가람은 두 군데, 승도는 3백여 명인데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다섯 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다. 대성 안의 오래된 가람 안에 수토파가 있다. 기초는 기울어져 부서졌으나 그래도 높이가 1백여 척이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온계처경(蘊界處經 : 이런 이름의 經典은 없다. 《釋迦方志》에는 "부처님이 지난날 여기서 7일 동안 蘊界의 法을 말씀하시다"라 적고 있다)》을 설법하신 곳이다. 그 곁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2백여 리 가면 카핏타카국에 이른다.

## 15. 카핏타카국

### 1) 개관

카핏타카국(劫比他國 : 지금의 Farrukhabad 근방 Sankisa 마을에 비정됨)은 주위가 2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기후나 산물은 비라사나국과 같으며 풍속은 온화하고 사람들은 학예를 많이 즐기고 있다.

가람은 네 군데이며 승도는 1천여 명으로 모두 소승 정량부(正量部 : 〈아히찻트라국〉편을 참조할 것)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10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면서 대자재천을 받들어 섬기고 있다.

### 2) 불타상천(佛陀上天)의 전설

성의 동쪽 20여 리 되는 곳에 대가람이 있다. 규모가 광대한데 조각은 정수(精髓)

를 다했고 부처님의 존상(尊像)은 장엄하기 이를 데 없다. 승도는 수백 명, 정량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또 수만 명의 정인이 사원 쪽에 살고 있다.

가람 경내에 3개의 보계(寶階)가 남북으로 벌려져 동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여래가 33천(天)에서 내려오신 곳이다. 옛날 여래가 승림(勝林 : 祈園)에서 천궁(天宮)으로 올라 선법당(善法堂)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했다. 3개월이 지나 내려오라고 했을 때 천제석(天帝釋)은 신통력을 발휘하여 보계를 건립했다. 한가운데의 계단이 황금, 왼쪽이 수정, 오른쪽이 백은(白銀)이었다. 여래는 선법당에서 일어나 여러 천중(天衆)을 거느리고 가운데 계단을 밟고 내려왔다. 대범왕(大梵王)은 하얀 불자(拂子)를 손에 들고 은계를 딛고 오른쪽에 섰다. 천제석은 보개(寶蓋 : 寶傘)를 들고 수정계를 딛고 왼쪽에 가서 섰다. 천인들은 허공을 날며 꽃을 뿌리면서 덕을 찬양했다.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부서져 없어졌다.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보계를 볼 수 없음을 슬퍼하여 벽돌이나 돌로 쌓고 진보(珍寶)로 장식해 본래의 곳에 옛날의 보계를 재현시켰다. 그 높이는 70여 척인데 그 위에 정사를 세웠다. 그 안에는 석조의 불상이 있고 좌우 계단에는 제석과 범천의 상이 있으며 형태는 처음 것을 본떠 역시 내려오는 자세이다.

곁에 높이 70여 척이 되는 돌기둥이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감색 광택이 나고 질은 단단하며 결이 섬세하다. 위에 사자를 만들었는데 웅크린 채 계단을 향하고 있으며 진귀한 형태의 조각이 그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죄와 복의 차이에 의해 그림자가 기둥 속에 나타난다.

### 3) 여러 불탑

보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다. 그 옆의 수토파는 여래가 옛날 목욕하던 곳이며 그 옆의 정사는 여래가 선정(禪定)에 든 곳이다. 정사 옆에 큰 돌이 있다. 기저(基底)의 길이 50보, 높이는 7척이다. 여래가 산책한 곳인데 발을 디딘 자국은 모두 연화문(蓮華紋)이다. 기저 좌우에도 각기 자그마한 수토파가 있다. 제석과 범왕이 세운 것이다.

4) 연화색 비크슈니

제석과 범천의 수토파 앞은 연화색 비크슈니(蓮華色苾芻尼 : 연화색은 본래 欝禪國 사람으로 佛陀의 허락을 얻어 비크슈니, 比丘尼가 됨)가 맨 먼저 부처님을 뵈려고 하여 전륜왕(轉輪王) 차림을 했던 곳이다. 여래가 천궁에서 잠부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수부티(蘇部底 : 당에서는 善現이라 함. 옛날에는 須扶提 또는 須菩提라 하고 善吉이라 번역했으나 잘못임)는 석실에서 연좌(宴坐 : 坐禪)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제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인천(人天 : 人間界의 자와 天上界의 자)이 함께 온다. 그렇다면 나 같은 자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 좋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법은 공(空 :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제법의 성(性 : 實相)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의 법신(法身 : 참다운 모습)을 관찰했다. 그때 연화색 비크슈니는 최초로 부처님을 뵈려고 전륜왕의 차림을 하고 칠보(七寶 : 보통 말하는 金 · 銀 · 瑠璃 · 玻璃 등이 아니고 轉輪王은 즉위할 때 하늘이 感得하는 金輪寶 · 自象寶 · 紺馬寶 · 玉女寶 · 居士寶 · 主兵寶의 七寶와 勇猛한 千子를 이끈다고 함)와 함께 사병(四兵 : 步 · 馬 · 車 · 象)이 경위한 가운데 세존 앞에 갔다가 이내 비크슈니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여래는 "그대가 나를 최초로 본 것이 아니다. 선현은 제법의 공함을 보고 내 법신을 최초로 보았다"고 말했다. 성적(聖跡)의 경내는 영험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그 대수토파의 동남쪽에 하나의 연못이 있는데 용이 항상 성적을 수호하고 있다. 그들의 수호가 있기 때문에 가벼이 성적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월이 오래되어 자연히 파괴되어 오기는 했으나 사람이 들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2백 리를 미처 못 가면 카냐쿠브자국에 이른다.

# 제 5 권

## 1. 카냐쿠브자국

### 1) 개관

카냐쿠브자국(羯若鞠闍國 : 지금의 Kanauj kanoj)은 주위 4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서쪽으로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데 그 길이는 20여 리, 폭은 4~5리이다. 성곽과 성지(城地)는 견고하고, 크고 높은 집들은 잇대어 있으며 꽃 피는 숲이나 연못은 곱고 거울같이 맑다.

여러 곳의 진귀한 물건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주민들은 생활을 즐기고 집집마다 부유하다. 꽃이며 과일이 풍성하고 농업은 기절(氣節)에 따라 행해진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질박하며 용모는 고상하고 의복은 깨끗하다. 학예를 열심히 닦고 담론은 고매하다. 사신과 정법이 둘 다 있고 신자도 반반씩이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1만여 명이며 대승과 소승을 겸하여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2백여 군데, 이도 사람들도 수천 명이다.

### 2) 국호(國號)의 유래

카냐쿠브자국은 태고(太古 : 賢劫)의 사람들이 아직 장수했을 때 그 옛 왕성을 쿠수마푸라(拘蘇摩補羅 : 당에서는 花宮이라 함)라 일컬었다.

왕은 범수(梵樹 :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닷타)라 하며 복덕과 지혜를 전세에 받아 문무를 겸비하여 그 위광은 잠주부를 덮고 명성은 이웃나라를 떨게 했다. 1천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지용(智勇)이 뛰어났고 1백 명의 딸은 모두 행동이나 용모가 빼어났다.

그 당시 어떤 선인이 갠지스 강가에서 정신을 집중한 가운데 선정에 들었는데 수만 년이 지나 모습은 고목같이 되어 새떼가 놀면서 니구로다 나무(尼拘律樹 : 6권의 2와 3에 나오는 尼拘盧陀와 같음. 산스크리트어로는 냐구로다라 하는데 榕樹 비슷한 桑科植物로 인도나 실론에 많음)의 열매를 선인의 어깨 위에 떨구고 갔다.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하면서 그 열매의 씨앗이 자라나 늘어진 나무 그늘이 무성해 갔다. 선인은 오랜 세월이 지나 선정에서 일어나 그 나무를 제거하려 했으나

새집을 망가뜨리는 것이나 아닌가 염려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인의 덕을 상찬하여 대수선인(大樹仙人)이라 일컬었다.

선인이 강변을 바라보고 숲이나 풀밭을 보았을 때 왕의 딸들이 놀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때 욕계(欲界 : 욕계 · 색계 · 무색계를 三界라 하는데 欲界는 飮 · 食의 二欲을 지난 人間界)의 애정이 솟아 집착심이 생겼다. 그래서 화궁(花宮)에 나가 청혼을 하려고 했다. 왕은 선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마중 나가 위로하면서 "대선(大仙)은 세상 밖에 계신 터에 어찌 가벼이 출타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선인은 "나는 숲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선정에서 나와 왕의 따님들이 눈에 들어 애착하는 마음이 생겼기에 멀리서 청혼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인의 말을 들은 왕은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 선인에게 "이번에는 그냥 댁으로 돌아가서 좋은 시기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선인은 왕의 말을 듣고 그냥 숲으로 돌아갔다. 왕은 할 수 없어 차례로 딸들에게 의향을 물었으나 아무도 시집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선인의 위력을 두려워해 걱정 끝에 초췌해졌다. 이때 왕의 어린 딸이 왕의 공사분망 중에 여가를 틈타 조용하게 "아바마마께서는 천자(天子)가 모여 만국이 흠모해 오고 있는 터인데 어찌하여 걱정하시는 것이 마치 두려워하는 듯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왕은 "대수선인이 결혼하겠다고 청혼해 왔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인에게는 위력이 있어서 재복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만약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격노하여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조상의 제사를 근절하여 치욕이 선왕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재화를 깊이 생각할 때 정말로 두렵구나"라고 대답했다. 어린 딸은 사과하면서 "큰 근심을 끼쳐 드린 것은 저희들의 죄입니다. 아무쪼록 하찮은 제 몸으로 국운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바라옵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가마에 태워 시집보냈다. 선인의 움막에 이르러 사과하며 "대선(大仙)은 출세한 분으로서의 마음을 거두고 세상 사람의 감정을 지니시게 됐습니다. 이 어린 딸을 바쳐 몸을 돌봐드리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인은 보았으나 어리므로 기뻐하지 않고 왕에게 "내가 노인이라고 가벼이 여겨 이 하찮은 계집을 보내려 하는 것이오?"라고 말했다.

왕은 “딸들에게 모두 물었습니다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어린 딸만이 받들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인은 마음속으로 크게 노하여 곧 저주를 걸어 “99명의 딸은 한꺼번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모습이 추해지면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될지어다”라고 말했다. 왕이 가 보게 했더니 그 말대로 벌써 등이 굽어 있었다. 그런 다음부터 곡녀성(曲女城)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3) 계일왕(戒日王)과 그 조상

지금의 왕은 바이샤종 출신이다. 자(字)는 하르샤바르다나〔曷利沙伐彈那 : 당에서는 喜增이라 함〕이다. 이 고장에 군림한 지 2세로 3대 왕이다. 그 아버지의 자를 프라바카라바르다나〔波羅羯羅伐彈那 : 당에서는 王增이라 함〕이고 그 형의 자는 라자바르다나〔曷邏闍伐彈那 : 당에서는 光增이라 함〕이다. 왕증은 연장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아 덕으로써 다스렸다. 당시 동인도의 카르나수바르나국〔羯羅拏蘇伐剌那國 : 당에서는 金耳라 함〕의 샤상카 왕〔設賞迦王 : 당에서는 月이라 함〕은 항상 가신(家臣)들에게 “이웃나라에 현주(賢主)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화근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회합에 초대하여 왕을 살해해 버렸다.

그 주군을 잃은 탓에 국가도 문란해졌다. 그때 대신 바니〔波尼 : 당에서 辯了라 함〕는 견식이나 인망이 함께 높았는데 관료들에게 “국가의 대계를 오늘 정하도록 합니다. 선왕의 아들이며 망군(亡君)의 아우인 희증은 인자한 천성을 지니고 효경(孝敬)의 마음을 지녀서 친족현자(親族賢子)가 마음으로부터 열망하여 왕위를 잇게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관료들은 각자의 생각들을 말했는데 모두가 희증의 덕을 찬양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보좌하는 신하나 집사는 모두 권하여 “왕자여 들으소서. 선왕께서는 공을 쌓고 덕을 길러 국운을 융창하게 했습니다. 왕증이 대를 이어 천수를 다하려 했습니다만 보좌함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어 적의 손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국가의 큰 치욕이고 신하들의 죄입니다. 세상의 소문이나 항간의 유행가도 왕자의 명덕(明德)에 귀일합니다. 크게는 천하에 임하고 작게는 훌륭하게 형의 원수를 갚아 나라의 치욕을 씻고 아버지의 업을 완성시킨다 할 때 공적이 이보

다 크다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양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왕자는 "국가의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예나 이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군주가 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그 책립은 충분히 심의해야 합니다. 나는 덕도 박하고 하여 아버지나 형이 중책을 맡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주의 자리를 이었다 해도 그 임무를 과연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상의 소문이 나를 적임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천박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갠지스 강 기슭에 관자재보살의 상이 있어 영험도 많다고 하므로 가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곧장 보살상 앞으로 가 단식하면서 빌었다. 보살은 그 진심에 감동해서 모습을 나타내어 "그대는 무엇을 바라기에 이와 같이 은근(慇懃)한가?" 하고 물었다.
왕자는 "저는 죄가 깊어 아버님은 사망하고 다시 혹독한 벌을 받아 형은 살해당했습니다. 스스로는 덕이 엷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저를 믿어 군주의 대위를 잇게 하여 부조의 업을 완성시키라고 합니다. 저는 우매하여 해야 할 일을 모르니 감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보살은 "그대의 전세에 이 숲 속에서 아라냐 비크슈〔練若苾芻 : 산림에 사는 비구〕가 되어 정려함에 게으름이 없었기에 그 복덕의 힘으로 여기에 왕자로 태어난 것이다. 금이국(金耳國)의 왕이 불법을 파괴했으니 그대는 왕위를 이어 다시 흥륭시켜야 한다. 자비를 마음에 갖고 애민(哀愍)을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오인도의 왕으로 되리라. 국운을 신장하려 하면 나의 교시에 따르도록 하라. 하늘에서의 가호를 받아 이웃나라로서 적대할 수 있는 강국은 없으리라. 함부로 사자(獅子)의 자리에 오르지 말고 대왕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리하여 희증(喜增)은 교시를 받고 돌아가 곧 왕위에 즉위, 스스로 왕자라 일컫고 실라디탸〔尸羅阿迭多 : 당에서는 戒日王이라 함〕라 호(號)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형의 원수는 아직 갚지 못하고 이웃나라는 신복하고 있지 않다. 이러다가는 오른손으로 항상 무기를 쥘 뿐, 삶을 윤택하게 할 때가 없으리라. 관료들은 전원 마음을 함께하며 힘을 모아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라 안의 병사를 한 손에 통솔하고 군대를 훈련시켰다. 상군(象軍) 5천,

마군(馬軍) 2만, 보군(步軍) 5만이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 복종하지 않은 자를 징벌하는 가운데, 코끼리는 안장을 벗기지 않고 사람은 갑옷을 벗지 않은 채 6년 동안에 오인도를 복종시켰다.

그는 영토도 넓히면서 군대를 증강하여 상군 6만, 마병은 10만이 되었다.

30년 동안 연면히 병란은 일어나지 않고 정정(政情)은 평화로웠으며 검약에 힘쓰고 복덕을 쌓으면서 자선에 힘썼다. 오인도에 영을 내려 고기를 못 먹게 하고 만약 생명을 끊는 자가 있으면 주벌(誅罰)을 받을 뿐 절대로 용서받지는 못했다.

갠지스 강 기슭에 높이 1백여 척 되는 수천의 수토파를 세웠다. 또 오인도의 성읍이나 촌락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네거리에는 정려(精廬)를 세우고 음식물과 의약품을 갖춰 빈한한 자들에게 널리 공급함에 게으름이 없었다.

불타의 성적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고 가람을 세웠다. 5년에 한 번 무차 대회를 열고 국고를 기울여 군중에게 베풀었으나 병기만은 남겨 기사(寄捨)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여러 나라의 사문을 모아 삼칠일(三七日 : 21일) 동안 사사(四事 : 음식 · 의복 · 침구 · 탕약)의 공양을 하고 법좌를 장엄하게 하며 의논하는 좌석을 널리 꾸며 서로 의논시킴으로써 그 우열을 비교하여 성적이 좋은 자를 포상하고 열등한 자를 물러가게 했다.

만약 계행을 굳게 지키고 덕행이 현저한 자는 사자의 자리에 앉혀 왕도 스스로 가르침을 받았다. 지계(持戒)는 청정해도 학문이 없는 자는 다만 경의를 나타내어 존경할 점이 있음을 나타낼 뿐이었다. 계율위의(戒律威儀)도 형편없고 악덕이 분명한 자는 국경 밖으로 내쫓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웃나라의 소왕(小王)이나 보좌하는 대신들로서 복덕을 행하여 게으름이 없고 선을 구하여 피곤함을 잊을 정도인 자는 곧 손을 맞잡아 동석하면서 '선우(善友)'라 했다.

이와 같은 선우가 아닌 자와는 마주앉아 얘기하는 법이 없고 일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람을 왕복시킬 뿐이었다. 그 위에 지방을 순행하여 백성이 사는 것을 관찰하고 그 거소를 정하지 않은 채 아무 곳이나 움막을 지어 숙소로 삼았다. 다만 우기의 석 달 동안은 비가 많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항상 행궁(行宮)에 있으면서

날마다 성찬으로써 이학(異學)의 사람들을 대접했다. 승중(僧衆)은 1천 명, 바라문은 5백 명이었다. 언제고 하루를 세 부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일부의 시간에는 정무(政務)를 처리하고 다른 두 분의 시간에는 복(福)을 영위하고 선을 닦는 데 자자(孜孜)하여 게으름이 없는 것이 날〔日〕을 다해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였다.

4) 계일왕과의 회견

처음에 나〔玄奘〕는 쿠마라 왕의 초대를 받고 마가다국에서 카마루바국〔迦摩縷波國 : 지금의 Asam〕으로 갔다. 마침 계일왕은 순행 나가서 카춘기라국에 있었다. 그러나 쿠마라 왕에게 명하여 “멀리 날란다〔那爛陀〕에서 온 사문과 함께 빨리 와서 회에 참집하라”는 전갈을 보냈다. 그래서 명에 따라 쿠마라 왕과 함께 가서 회견했다. 계일왕은 노고를 위로한 다음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시려고?”라고 물었다. “대당국에서 왔습니다. 불법을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대당국이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신 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멉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에서 동북으로 수만여 리 됩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마하치나국이 그곳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나는 일찍이 마하치나국에 진왕(秦王)이라고 하는 천자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젊어서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녔으며 나이 들어서는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대에는 동란이 일어 천하는 분산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왕 천자는 일찍부터 원대한 계략을 갖고 대자비를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고 해내(海內)를 평정함으로써 그 교화는 멀리까지 미치고 은혜는 넓게 스며들어 모든 외국도 덕화를 사모하여 신으로써 칭종(稱從)하고 인민들은 그 무육(撫育)을 받아 모든 사람이 진왕파진악(秦王破陣樂 : 《唐書》〈二一禮樂志〉에 七德舞는 본래 秦王破陳樂이다. 太宗이 秦王이었을 때 劉武周를 격파, 軍中에서 秦王破陳樂曲을 만들었음. 즉위할 때 연회에는 반드시 이를 연주한다고 쓰여 있음)을 노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아한 무악(舞樂) 얘기는 오늘까지 참으로 오래 들

어왔습니다. 훌륭한 덕의 명예란 참으로 이같은 것일 겝니다. 대당국이란 바로 이 나라를 이름입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렇습니다. 치나(至那)란 이전 왕 때의 국호이고 대당이란 우리 왕조의 국호입니다. 전에 아직 즉위하지 않았을 때는 진왕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미 왕통을 이어 천자라 일컫고 있습니다. 전대의 명운이 다할 무렵, 국민은 군주를 추대하는 일이 없이 병란은 계속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진왕은 천성으로 광대한 덕을 지니고 마음으로 자비함을 지녀 위풍은 사방에 미친 가운데 흉적들은 멸망하고 나라의 사방팔방은 평온해지면서 만국이 조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애무하고 삼보(三寶)를 존경하며 과세를 적게 하고 형벌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여유가 생기고 백성 가운데 악인이 없어지고 도덕이 크게 교화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계일왕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성왕을 받드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5) 무차대회(無遮大會)

마침 그때 계일왕은 곡녀성에 돌아가 법회를 가지려고 했다. 왕은 수십만의 군중을 거느리고 갠지스 강 남쪽 기슭에 있었고 쿠마라 왕은 수만의 군중을 거느리고 갠지스 강 북쪽 기슭에 있으면서 강의 중류에서 좌우로 나눠 수륙병진(水陸竝進)했다.

두 왕이 선도하고 사병(四兵)이 엄중하게 호위했다. 어떤 자는 배에 타고 어떤 자는 상(象)에 타고서 북 치고 나팔 불며 현을 타고 관을 울리면서 90일이 지나 곡녀성에 이르렀다.

성은 갠지스 강 서쪽 꽃 피는 큰 숲 속에 있었다. 이때 제국의 20여 왕은 먼저 명을 받들고 각자의 나라에서 걸출한 사문이나 바라문 · 관리 · 병사들과 함께 대회에 참집해 와 있었다.

왕은 먼저 강 서쪽에 큰 가람을 세우고 가람 동쪽에는 높이 1백여 척의 보대(寶臺)를 세운 다음 그 안에는 크기가 왕의 신장만 한 금불상을 안치시켰다. 대의 남쪽에

는 보단을 만들고 불상을 목욕시키는 곳으로 삼았다. 여기서 동북 14~5리의 곳에 별도로 행궁을 지었다.

이때는 중춘(仲春)의 달〔바이샤카달 : 吠舍佉月〕이었다. 첫날부터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21일째〔三七日〕에는 행궁에서 가람까지 길을 끼고 누각을 만들면서 갖가지 장식을 다하는데 악인(樂人)은 이동하는 법이 없이 차례차례로 음악을 연주한다. 왕은 행궁에서 금불상 하나를 꺼낸다. 허공에 우뚝 솟아오르는 그 불상의 높이는 3척 남짓, 큰 코끼리에 태우고 멋들어진 장막을 친다. 계일왕은 제석천(帝釋天)의 옷을 입고 보개를 쥐고 왼쪽에 시립하며 쿠마라 왕은 범천왕(梵天王)의 위의를 갖추고 하얀 불자를 든 채 오른쪽에 시립한다. 각기 5백의 상군이 갑옷을 입고 불상 전후를 둘러싸며 호위한다. 1백의 큰 코끼리에는 악인이 타고 풍악을 울린다. 계일왕은 걸어가면서 진주와 갖가지 보물, 금은으로 만든 모조 꽃을 사방으로 뿌려 삼보(三寶)에 공양한다.

먼저 보단으로 올라 향수를 불상에 뿌리고 왕 스스로 등에 지고서 서쪽 대 위로 보내 갖가지 진귀한 보배나 코샤야옷〔憍奢耶衣 : 코세야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어로 카우세야라고도 하는데 비단이라는 뜻〕을 수없이 많이 공양한다. 식사를 마치면 여러 이학인(異學人)들을 모아 교의의 미의(微意)를 논정하고 묘리를 선양하며 해가 지려고 할 때 비로소 행궁으로 돌아간다.

6) 가람의 화재

이렇게 날마다 금상을 보내어 호종(扈從)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여 마지막 날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날 그 큰 대는 돌연히 화재를 일으켜 가람과 문루는 화염에 휩싸였다.

왕은 "국재(國財)를 다해 선왕의 추선(追善)을 하고자 이 가람을 세워 부처님의 위업을 세상에 밝히려 했는데 내 몸이 부덕해 하늘의 도움을 못 받고 이처럼 재난을 당했다. 부처님의 죄책의 징표가 이러할진대 어찌 살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향을 피워 예배하는데, "다행히 전세의 선업(善業)으로 하여 제인도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복덕의 힘으로써 화제를 진압시켜 주소서. 만약 들

어주신다면 당장 목숨을 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하고 몸을 날려 문지방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자 마치 두드려 끄기라도 하는 듯이 불길이 잡히고 연기도 사라졌다. 제국의 왕들은 이 이변을 눈으로 보면서 한층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계일왕은 벌써 안색이 변함없고 말씨 또한 본래와 같이 되어 제왕에게 "갑자기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해 준공한 것을 태워 버렸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회는 어떠한지요?" 하고 물었다. 제왕은 고개를 숙이고 슬픔에 젖어 "부처님을 받들 곳을 준공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했는데 순식간에 태워 버렸으니 어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외도들은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왕은 "이 사건으로 볼 때 여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외도 이학의 무리들은 상주(常住)와 법을 고집하지만, 다만 우리 대사(大師 : 佛陀)만은 무상(無常)이라고 가르치셨소. 그런데 나의 기사(寄舍)가 이미 차서 염원이 달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을 당하게 되니 더욱더 여래의 진실한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것 같소. 이 일은 크게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은 아니오"라고 말했다.

7) 계일왕 암살 음모

그리하여 제왕과 더불어 동쪽으로 가서 대수토파에 올라 높은 곳에서 관람한 다음 막 계단을 내려오려 했을 때 돌연 이상한 인물이 칼을 들고 왕에게 달려들었다. 왕은 그때 위급했으나 겁내지 않고 앞으로 계단을 밟고 나가 이 범인을 잡은 다음 관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관리들은 당황한 나머지 나아가서 왕을 구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왕은 한결같이 이 범인을 사형에 처하자고 했으나 계일왕은 특별히 성난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고는 오히려 제왕들의 분노를 말려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왕은 자세히 그 자객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폭거를 했느냐?" 하고 물었다.

"대왕의 은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고루 입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리석게 대왕의 훌륭함을 잊고 외도들의 한마디에 감화를 받아 곧장 자객이 되어 역살(逆殺)을 기도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외도는 어찌하여 이 같은 악심을 품었는가?" 하고 물었다.

“대왕께서 제국의 왕이며 백성을 모아서 국고를 기울여 사문을 공양하고 불상을 주조하고 계시는데 외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소집되어도 하문(下問)을 받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이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감히 악계(惡計)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외도의 종자들을 심문했더니 5백의 바라문과 재주 많은 사람들이 왕명에 따라 소집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사문들만 왕으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자기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질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전(火箭)을 쏘아 보대를 태우고 불을 끄는 북새통에 사람들이 빠져들었을 때 대왕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럴 틈이 없었던 차에 이 인물을 고용해서 좁은 곳으로 달려들어 척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때도 제왕이나 대신들은 외도를 주살하고자 청했으나 왕은 그 장본인만을 벌하고 그 밖의 자들은 벌하지 않은 채 5백의 바라문들은 인도 국경 밖으로 추방했다. 그런 다음 비로소 환도했다.

8) 곡녀성(曲女城) 부근의 불적(佛跡)

성의 서북쪽 수토파는 아쇼카 왕이 세웠는데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7일 동안 여러 가지 심묘한 설법을 했다. 그 곁에는 과거사불(過去四佛)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으며 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은 작은 수토파가 있다.

설법 수토파의 남쪽으로는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 세 개의 가람이 있는데 같은 담장 안에 있으면서 문만 별도로 나 있다. 불상은 장엄하고 승도는 근엄하며 사역하는 정인(淨人)이 사는 집이 수천여 호 된다. 정사(精舍)의 보함 안에는 길이 1촌 반이 되는 부처님의 치아가 들었는데 묘한 빛깔에 진귀한 색을 띠고 있다. 이 색이 아침저녁으로 변한다. 원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오고 사인(士人)과 서민이 모여 예배하는데 그 수가 하루 백 명 이상이고 천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를 지키는 자는 그 북적거리는 것을 싫어하여 비싼 관람료를 받기로 작정하고 원근의 사람들에게 부처님 치아를 보고자 할 때는 큰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참배하는 사람들은 불어날 뿐 돈 내는 것을 기꺼워할 뿐이었다.

재일(齋日)이 될 때마다 부처님의 치아를 내 와서는 높은 곳에 안치시킨다. 수백

수천의 군중은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린다. 꽃이 잔뜩 쌓여도 치함(齒函)을 완전히 묻어 버리는 일은 없다.
가람 앞쪽 좌우에는 각기 정사(精舍)가 있다. 높이는 1백여 척, 돌 기단(基壇)의 벽돌집인데 그 안에 있는 불상은 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어떤 것은 금은으로 주조했고 어떤 것은 유석(鍮石)을 녹인 것이다. 두 정사 앞에는 각기 작은 가람이 있다.
가람의 동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정사가 있다. 돌 기단과 벽돌로 된 높이 2백여 척의 건물이다. 그 안에는 높이 30여 척 되는 여래의 입상이 있는데 유석으로 주조되었으며 여러 보물로 장식되어 있다. 정사의 둘레 석벽 위에는 여래가 보살행을 수행했을 때 경험한 사적이 조각되어 있는데 아주 정교하다.
돌 정사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일천사(日天祠：修羅神을 받든 祠堂)가 있고 그 사당 남쪽 멀지 않은 곳에는 대자재천사가 있다. 그 모두가 청석을 갈아 만든 것인데 조각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양식이나 크기는 부처님의 정사와 같다. 정인이 사는 곳이 1천여 호로서 그 청소를 맡게 하고 있다. 큰 북을 치고 현(弦)을 켜는 음악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성 동남쪽으로 6~7리, 갠지스 강 남쪽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신(身)의 무상(無常), 고(苦), 공(空), 부정(不淨)의 이치를 설법했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다. 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은 작은 수토파가 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진심으로 이곳을 돌면 반드시 완쾌되는 부처님의 복덕을 입는 것이다.

### 9) 나바데바쿨라 성 부근의 불적(佛跡)

대성에서 동남쪽으로 1백여 리 가면 나바데바쿨라 성〔納縛提波矩羅城：新天寺의 뜻으로 지금의 노바트 강이라 하며 혹은 뉴얼이라고도 함〕에 이른다. 갠지스 강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주위가 20여 리로 꽃 피는 숲과 맑은 연못은 서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나바데바쿨라 성 서북쪽 갠지스 강 동쪽에 천사(天祠)가 하나 있다. 중층(重層)으

로 건축한 누각이며 여러 층으로 된 누대(樓臺)는 애써 만든 진귀한 것이다. 성의 동쪽 5리 밖에는 세 개의 가람이 있는데 하나의 담장 안에 문만 별도로 되어 있으며 승도는 5백여 명 정도이고 모두 소승(小乘)의 설인 일체유부(一切有部)를 학습하고 있다. 가람 앞 2백여 보 지점에 위치한 곳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기초는 부서져 있으나 그래도 높이는 1백여 척 된다.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7일 동안 설법했다. 안에 사리가 들었는데 더러 광명을 발하는 때가 있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다.

가람의 북쪽 3~4리,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 높이 2백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옛날 여래가 여기서 7일 동안 설법했다. 그때 5백의 아귀가 부처님에게 와서 설법을 듣더니 깨달음을 얻어 귀성(鬼性)을 버리고 하늘에 태어났다.

설법 수토파 옆에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다. 그 옆에는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서 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6백여 리 가면 갠지스 강을 건너 아유다국에 이른다.

## 2. 아유다국

### 1) 개관

아유다국〔阿踰陀國 : 阿踰闍 · 阿踰遮라고도 쓰는데 難勝 · 不可戰이라 譯함. 위치에는 諸說이 있는 바 지금의 Oudh 혹은 Fatepur라 하는 등 여러 가지〕은 주위가 5천여 리이고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농업이 성대하고 꽃이나 과일이 풍성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선량하다. 복업(福業)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학예에 힘쓰고 있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3천여 명인데 대승과 소승을 함께 학습한다. 천사는 10여 군데이며 이도 사람들이 적다.

2) 세친의 치적

대성 안에 오래된 가람이 있다. 바스반두 보살〔당에서는 世親이라 함. 옛날 婆藪盤豆라 쓰고 天親이라 譯했으나 잘못임〕이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대소승(大小乘)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작했다. 그 옆 낡은 건물은 세친보살이 열국의 제왕이나 사방의 영재들과 사문, 바라문들에게 강의 설법한 당(堂)이다.

3) 성 북쪽 가람과 승수(勝受)의 유적

성의 북쪽 4~5리, 갠지스 강 기슭을 바라보는 대가람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가 천인(天人)들을 위해 여기서 3개월 동안 제종의 묘법을 설법했다. 그 옆의 수토파는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 있다. 가람 서쪽 4~5리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은 수토파가 있다. 그 수토파의 북쪽에 파괴된 흔적을 남긴 가람이 있다. 옛날 경부의 시리라타 논사〔당에서 勝受라 함〕가 여기에서 경부의 《비바샤론》을 제작했다.

4) 무착(無著)의 강당과 자씨보살

성의 서남쪽 5~6리, 큰 암라〔망고〕 숲 속에 낡은 가람이 있다. 아상가보상〔阿僧伽菩薩 : 당에서는 無著이라 함. 산스크리트어로 '집착 않는', '속박 없는'의 뜻〕이 가르침을 청하고 범인을 인도했던 곳이다. 무착보살은 밤에는 천궁에 올라 자씨보살(慈氏菩薩)에게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 장엄대승경론(莊嚴大乘經論) ·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등의 가르침을 받고 낮에는 대중을 위해 묘리를 강선(講宣)했다. 암라 숲 서북으로 1백여 보 되는 곳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담은 수토파가 있다. 그 옆 낡은 건물은 세친보살이 투시타천에서 내려와 무착보살을 만난 곳이다. 무착보살은 간다라국 사람이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뒤〔正法이 행해지고 있는〕 1천 년 중에 운 좋게 태어나 그 여풍(餘風)을 이어 도를 깨닫고 마히샤사카〔彌沙塞部 : 化地 · 正地 · 敎地의 뜻〕를 따라 출가한 후, 얼마 뒤 대승으로 개종했다. 그 아우 세친보살은 설 일체유부로 출가 수업, 박문강기(博聞强記)하여 학문에 통달하고 기미(機微)를 연구했다. 무착의 제자 붓다싱하〔佛陀僧訶 : 당에서는 師子覺

이라 함)란 사람은 세부의 행동까지 터득하고 있어서 지계(持界)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고 재주 많기로 이름났었다. 두세 명의 덕자(德者)가 항상 서로 말하기를 "대저 수행하는 자는 자씨보살을 만나고자 한다. 만약 먼저 목숨을 버려 이 소원을 풀 수가 있다면 반드시 서로 알려서 다다른 곳의 형편을 통지해 주기로 하자"라고 했다.

그 뒤 사자각이 목숨을 버렸는데 3년이 지나도 통지해 오지 않았다. 세친보살 또한 이어서 목숨을 버렸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자 모든 이학 사람들이 한결같이 악담을 하는데 세친보살이나 사자각은 지옥을 유전하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착보살이 초야(初夜 : 밤낮을 六夜로 나누는 밤의 시작)에 막 문인(門人)들을 위해 선정(禪定)의 법을 교수하기 시작했을 때 등불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하늘이 아주 밝아지면서 한 사람의 선인이 허공에서 내려오더니 뜰 계단으로 올라와 무착에게 인사를 했다. 무착은 "그대가 오는 것이 왜 이리 더디오? 지금의 이름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린 다음 투시타천으로 가서 자씨보살의 내제자가 되어 연화 속에 태어났소. 연화가 꽃을 피우자 자씨보살은 '잘 왔어, 광혜(廣慧). 잘 왔어, 광혜' 하면서 찬탄하더군요. 보살께 인사드리고 그 주변을 돈 다음 곧바로 이리 와 보고하는 길이오" 하고 대답했다.

"사자각은 지금 어디에 있소?" 하고 묻자 "자씨보살의 모습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설법하고 있는 묘법은 의리에 관한 한 차토(此土 : 현재)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미묘한 소리는 맑고 유장하며 품위가 있어서 권태로움을 잊을 수 있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데 싫어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 5) 세친의 대승에의 개종

무착의 강당 건물에서 서북쪽으로 40여 리 가면 낡은 가람에 이른다. 북으로는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데 안에는 1백여 척 되는 벽돌로 쌓은 수토파가 있다. 여기가 세친보살이 처음으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곳이다.

세친보살이 북인도에서 이곳에 도착하자 무착보살은 자기 문인에게 명해 마중 나가게 하고 이 가람에 와서 만났다. 무착의 제자는 창 밖에 있었는데 한밤중이 지나 《십지경(十地經)》을 암송하고 있었다. 세친은 이를 듣자마자 깨닫는 것이 있어 후회했다. "이와 같이 깊은 묘법은 이때까지 들은 일이 없다. 대승을 나쁘게 말한 죄는 혀 밖으로 나온 것이다. 혀가 죄의 근본이니까 이제 곧바로 혀를 잘라 버려야겠다"라고 말하고 즉시 예리한 칼로 자신의 혀를 자르려고 했다. 그때 뜻밖에도 무착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무착은 "대저 대승교란 지진(至眞)의 도리요. 모든 부처도 찬양하고 모든 성자들도 대종으로 삼는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대는 스스로 깨달았소. 지금이야말로 깨달음을 얻는 데 알맞은 때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소? 제불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욕한 것인데 혀를 잘랐다 해서 허물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본래 그 혀로써 대승을 비방했으니 이제 그 혀로써 대승을 찬양한다면 과오를 씻고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되어 이 또한 훌륭한 일이 아니겠소. 만약 입을 막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익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문득 쓰러져 버렸다. 세친은 무착의 명에 따라 혀를 자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무착에게 가서 대승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연구 사색한 끝에 대승의 이론서를 만들었다. 전부 1백여 부인데 모두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3백여 리 가면 갠지스 강을 건너 북쪽으로 아야무카국에 이른다.

### 3. 아야무카국

아야무카국(阿耶穆佉國 : 지금의 Allahabad 서북쪽 Rae Bareilly, Pratapgarh 쪽 지방인 듯)은 주위 2천 4~5백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갠지스 강을 바라보며 주위가 20여 리이다. 그 기후나 산물은 마유다국과 같다. 사람은 순박하고 풍속은 질박하며 학예에 힘쓰고 복업을 좋아한다. 가람은 다섯 군데 승도는 1천여 명이며 소승의 정량부(正量部)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0여 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

고 있다.
성의 동남쪽 멀지 않은 곳에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높이가 2백여 척 되는데 이곳은 옛날 여래가 3개월 동안 설법한 곳이다. 그 곁에는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 있다. 또 여래의 두 발과 손톱을 담은 청석제 수토파가 있다. 그 옆에 있는 가람에는 승도가 2백 명 있다. 불상은 장엄하고 그 위엄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다. 대관누각은 굉장히 진귀하게 만들어 높이 치솟아 있다. 옛날 붓다다사논사〔佛陀馱娑論師 : 당에서는 覺使라 함〕가 여기에서 설 일체유부의 《대비바샤론》을 만들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7백여 리, 갠지스 강을 건너 남으로 가면 얌나하 북쪽에 있는 프라야가국에 이른다.

## 4. 프라야가국

### 1) 개관

프라야가국〔鉢邏耶伽國 : 지금의 Allahabad〕은 주위가 5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강의 교차점에 있으며 주위가 20여 리이다. 농작물은 풍성하고 과수도 무성하다. 기후는 온화하며 풍속은 선량하다. 학예를 좋아하며 외도를 믿고 있다. 가람은 두 군데이며 승도는 적고 모두 소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수백 군데이며 이도 사람이 대단히 많다.

### 2) 불타 및 데바의 유적

대성 서남쪽 참파카화〔瞻博迦花 : 金色花라 譯한다. 노랗고 芳香이 있는 꽃을 피우는 나무〕의 숲 속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기단은 허물어져 기울었으나 그래도 높이는 1백여 척이다. 여래가 옛날에 여기서 외도를 항복시켰다.
그 옆에는 여래의 두 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그 수토파 곁에 낡은 가람이 있다. 데바〔提婆 : 唐에서는 天이라 함. 麗本, 宋本 등에는 '天受'라 한다고 기록됨〕보살이 《광백론(廣百論)》을 만들었으며 소승(小乘)을

누르고 외도를 설복시킨 곳이다. 처음 데바보살이 남인도에서 이 가람으로 왔을 때 성중에 외도의 바라문이 있었다. 높은 견식을 지닌 위에 널리 들은 것이 많고 변설의 재능에 막힘이 없었는데 명칭에 따라 화제를 진행시키며 실질을 추구한 끝에 실질을 뒤집어 없는 방법을 취하는 사람이었다. 데바가 현오(玄奧)함을 다하고 있다 함을 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데바의 예봉을 꺾고자 하여 명칭에 따라 질문을 하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하고 묻자, 데바는 “천(天)이라 하오”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천은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나요”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나는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개(狗)요”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개는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그대요”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천(天)이오”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천은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나요”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나는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개(狗)요”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누가 개요?” 하고 묻자, 데바는 “그대요” 하고 대답했다.

외도가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묻자, 데바는 “천이요” 하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순환논법을 썼기 때문에 외도는 비로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불도를 존경하게 됐다.

### 3) 천사(天祠)와 식인귀의 미신

성중에 천사가 있다. 아름답게 꾸민 장대한 건물로서 영험이 아주 많다. 책에 따르면 여기서 중생이 복덕을 심는 데 좋은 곳이다. 이곳에 1전을 기부하면 그 공덕은 다른 곳에 천금을 기부하는 것보다 낫고, 또 스스로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 이 사(祠) 안에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천(天)의 복락을 받고 천계에 태어나 영겁(永劫)에 산다고 한다.

천사당 앞에 하나의 커다란 나무가 있다. 나뭇가지와 잎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데 식인귀가 이 나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나무 근방에는 유해들이 많다. 사람으로서 이 사안에 들어가 목숨을 잃지 않은 자가 없다. 이상야릇한 말에 홀린다고

도 하고 또 신이 유인한다고도 한다.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미신에 변함이 없다. 요 근래에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족성자(族姓子 : 산스크리트어로 쿨라푸트라라고 하는데 四姓 中의 隨一이다. 일반적으로 良家 胎生을 말하는데 善男子와 같은 뜻)였다. 마음이 넓고 지혜가 있으며 영민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사특한 습관이나 갈잖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도하기 어려운 법이다. 나는 이제 그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행한 다음에 교화를 하리라"라고 말했다.

나무에 올라간 다음, 아래를 향해 친구들에게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진실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신선들이 기악을 연주하면서 하늘에서 나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험이 새로운 곳에서 이 하찮은 몸을 버립니다"라고 말한 다음,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친우들은 그 생각을 고쳐먹도록 간청했지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옷을 땅에 깔고 나무 밑 주변을 둘러쌌다. 그랬기 때문에 몸을 던졌지만 몸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소생하자 "다만 하늘의 신선들이 손짓하는 것이 눈에 보일 뿐이었으나 이는 반드시 사신(邪神)에게 홀렸던 때문이고 천계의 음악은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4) 대시장(大施場)

대성 동쪽 두 개의 강〔갠지스 강과 얌나 강〕의 교차점은 넓이 10여 리, 토지는 높고 건조하며 모래밭이 넓게 깔려 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왕이나 호족들이 시주를 할 경우 이곳으로 오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 시주의 분량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을 대시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 당시 계일왕은 전대의 사업을 이어받아 마음으로 시주를 하고 있었다. 5년 동안 재산을 모아 일조에 이 시장에서 헌납해 버린다. 진귀한 물품을 많이 모아 제1일째 많은 보석으로 장식한 큰 불상을 안치하고 거기에 최상의 진품을 지참해 봉납한다. 제2일은 그곳에 상주하는 승도, 제3일은 눈앞의 승중(僧衆), 제4일은 재

주 많고 학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고 다능한 사람, 제5일은 외도의 학도나 세속에서 벗어난 은자(隱者), 제6일은 짝이 없는 사람이나 의지할 곳 없는 사람, 가난한 자나 걸식을 하는 자들에게 한다. 진귀한 물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진수성찬을 다 차린 다음, 이와 같이 차례를 정해 은혜를 베풀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다.

국고가 비고 복식품(服飾品)을 모두 나눠 줘 버리고 나면 상투에 꽂고 있는 보주(寶珠)나 몸에 붙이고 있는 갖가지 구슬 장식을 차례로 바치며 후회하는 법이 없다. 모두 베풀어 줘 버리고 나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일이다. 내가 지닌 것은 모두 금강석같이 단단한 창고 속에 넣었구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곧 제국의 군주들이 각자 진귀한 의복 따위를 헌상하여 열흘도 되지 않는 사이에 관청과 창고는 다시 가득 차는 것이었다.

5) 계일왕의 대시(大施)와 외도(外道)의 고행

대시장 동쪽 합류점에서는 날마다 수백 명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다. 그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이곳에서 절식(絕食)한 다음 강 속에 몸을 가라앉히면 되고 중류에서 목욕하면 죄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외국이나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묵으면서 7일 동안 단식하고 그 다음 목숨을 끊는 것이다. 산에 사는 원숭이나 들에 사는 사슴은 물가에 떼를 지어 희롱하는데 어느 것은 강에서 목욕하고 돌아가고 어느 것은 절식해 죽기도 한다.

마침 계일왕 대시 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강기슭에서 무리를 떠나 나무 아래 꼼짝하지 않고 절식한 끝에 수일이 지난 뒤 스스로 굶어 죽어 버렸다. 그리고 외도들로서 고행하는 자들은 강 속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한손과 한발로 기둥 끝을 잡고 옆에 있는 말뚝에 올린 다음 다른 한편의 손과 발은 다만 공중으로 뻗어낸 채 오그리지 않는다. 목은 뻗치고 눈은 해를 보고 크게 뜨면서 해가 이동함에 따라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다가 해가 다 저물 무렵 해서 비로소 내려온다. 이렇게 고행을 해 생사의 경지에서 해탈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한번도 태만히 한 일

이 없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면 큰 숲 속에 이르는데 이곳에는 맹수나 들 코끼리가 떼를 지어 여행자에게 난폭하게 굴어서 여행자들은 여럿이 집단을 이루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렵다. 5백여 리를 가면 코샴비국(憍賞彌國 : 옛날 拘睒彌國이라 했음은 잘못. 중인도의 국경. 고대 인도 16대국의 하나이다)에 이른다.

## 5. 코샴비국

### 1) 개관

코샴비국(憍賞彌國 : Allahabad 서쪽 약 60km에 있는 Kausam, Kosam)은 주위가 6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3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기로 유명하고 지리는 풍요하다. 메벼가 많고 고구마가 잘된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굳세고 용맹스럽다. 학예에 힘쓰며 복덕 선업에 마음 쓰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있으나 부서져 황폐해 있다. 승도는 3백여 명이며 소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50여 군데이고 외도 사람들이 아주 많다.

### 2) 우다야나 왕 각단(刻檀)의 불상

성내 옛 어전 안에 높이 60여 척 되는 대정사(大精舍)가 있다. 거기에 전단(栴檀)을 깎아 만든 불상이 있는데 위에는 돌 우산이 걸려 있다. 이것은 아다야나 왕(鄔陀衍那王 : 당에서는 出愛라 한다. 옛날에 優填王이라 했음은 잘못)이 만든 것인데 불가사의한 일이 가끔 일어나며 신묘한 빛을 내는 때가 있다. 제국의 군왕들은 스스로의 힘을 믿고 가져가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이전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양할 것을 계획하고 모사상(模寫像)을 만들어 놓고 모두 이 상의 진영(眞影)이라고 한다. 이 상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여래가 정각을 이룬 다음 천궁에 올라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돌아오지 못했다. 우다야나 왕은 여래를 사모하여 여래의 모습을 조상(彫

像)하고자 했다. 그래서 존자 마우드갈랴야나(沒特伽羅子)에게 부탁해 신통력으로 공인을 데리고 천궁에 올라 친히 부처님의 묘상을 관찰하고서 전단에 조상했다. 여래가 천궁에서 돌아오자 각단의 상은 벌떡 일어나 세존을 맞이했다. 세존은 "대중을 교화하는 데 수고합니다. 말세까지 교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정사의 동쪽 1백여 보 되는 곳에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 있다. 그 옆 멀지 않은 곳에 여래의 우물 및 욕실이 있는데 우물은 아직도 물을 길어낼 정도지만 욕실만은 부서져 버렸다.

### 3) 고실라 장자의 유적과 불적(佛蹟)

성내의 동남쪽 끝에 옛 집터가 있다. 고실라(具史羅 : 옛날에 瞿師羅라 했으나 잘못) 장자의 옛날 집이다. 안에는 부처님이 있었던 정사와 두 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또 다른 건물 흔적이 있는데 이 흔적은 여래의 욕실이 있던 흔적이다.

성 동남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고실라 장자의 옛 정원으로 안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 2백여 척이다. 여래가 여기서 수년 동안 설법했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 있으며, 또 여래의 두 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 4) 세친(世親) 및 무착(無著)의 작론(作論)의 터

가람 동남쪽 중각 위에 벽돌로 만든 낡은 방이 있다. 옛날 세친보살이 이곳에 살면서 《유식론(唯識論)》을 지어 소승을 논파하고 모든 외도를 논란했다. 가람 동쪽 암라 숲 속에 건물의 옛 터가 있다. 무착보살이 이곳에서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을 지은 곳이다.

### 5) 독룡(毒龍) 항복과 불법멸진(佛法滅盡)의 전설

성 서남쪽 8~9리에 독룡의 석굴이 있다. 옛날 여래가 이 독룡을 항복시켰었다. 석굴 안에 그림자가 남아 있다고 전기에서는 쓰고 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 그 옆

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가 2백여 척이다. 곁에는 여래가 산책한 유적과 두 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병에 신음하는 자가 기도드리면 낫는 경우가 있다. 석가의 가르침이 절멸하는 것은 이 나라의 마지막이라는 불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경계에 접어들면 스스로 마음이 아파 오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 않으며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

### 6) 카사푸라 성에서의 호법(護法)

용굴에서 동북쪽으로 큰 숲을 가기 7백여 리, 갠지스 강을 건너 북으로 가면 카사푸라 성(迦奢布羅城)에 이른다. 주위는 10여 리인데 주민은 부유하다. 성 옆에 낡은 가람이 있는데 다만 기초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옛날 호법보살(護法菩薩 : 다르마팔라, 達磨波羅를 이름)이 외도를 항복시킨 곳이다. 이 나라의 선왕이 사설(邪說)에 현혹되어 불교를 폐하고 외도를 존경하려 하면서 외도의 무리 속에서 현명하고 견식 있으며 심오하게 통달한 한 논사를 불러 사종(邪宗)의 서(書) 1천 송(頌) 등 모두 3만 2천 언의 것을 만들게 함으로써 불교를 비난하고 자신의 종(宗)을 성대하게 하려 했다.

그리하여 승도들을 소집해 외도와 토론을 시킨 끝에 외도가 이기면 불교를 폐하고 승도들이 지지 않으면 외도들이 혀를 잘라 사죄하기로 했다. 이에 승도들은 패퇴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여서 "혜일(慧日 : 부처님을 비유하여 말함)은 이미 가라앉아 사람을 피안으로 건너게 할 법의 다리는 부서지려 하고 있다. 왕이 외도와 친해졌는데 적대할 수가 있겠는가. 사태가 이러할진대 계획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상의했다.

모두가 침묵할 뿐 의견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호법보살은 아직 나이가 어렸으나 말도 잘하고 들은 바 지식이 풍부하며 사람됨도 컸다. 그가 대중 속에서 크게 소리치되 "저는 불민합니다만 제 계획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왕명에 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토론하여 훌륭하게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호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토론에서 진다고 해도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것이므로 불법에나 승중(僧衆)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모두들 "참으로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 계략대로 왕의 명에 응했다. 그런 다음 토론의 자리에 올랐더니 외도는 그 대강을 혹은 진행하고 혹은 그치는가 하면 논리를 혹은 누르고 혹은 올리는 가운데 스스로 채택하는 중지를 다한 끝에 상대방의 반론을 기다렸다.
호법보살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선 미소를 띠며 "나는 이겼소. 지금 한 말의 진의에 대해 말할까요, 아니면 대의(大意)에 대해 말할까요?" 하고 말했더니 외도는 불쾌하다는 듯 "너무 우쭐대지 마시오. 말에 대해 충분히 영회(領會)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승리요. 나의 문(文)을 순서대로 받아들인 다음 그 의의를 해석해 보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호법은 외도의 성음(聲音)대로 그 문의 의의를 말했는데 논리에 잘못이 없었고 취의(趣意)에 또한 차질이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다 듣고 난 외도는 스스로 혀를 자르려 했는데, 이때 호법은 "혀를 자른다 해서 사죄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종의를 바꿔야 비로소 과거의 허물을 깨닫는 걸로 사죄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 그들을 위해 설법했더니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믿게 되었다. 왕 역시 사도를 버리고 정법을 따르면서 공경했다. 호법이 외도를 항복시킨 곳 옆에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기초는 허물어져 기울었으나 그래도 2백여 척이 된다. 여래가 옛날에 여기서 6개월 동안 설법했다. 옆에는 과거사불이 산책한 곳과 여래의 두 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1백 7~80리 가면 비사카국에 이른다.

## 6. 비사카국

### 1) 개관

비사카국(鞞索迦國 : 이 위치는 지금의 Oudh라는 학설을 비롯, Biseipur라는 설

에 Nimkhar라는 설 등이 있다)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6리인데 농업이 성대하며 꽃이나 과일이 번성하고 풍부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며 학예를 즐기고 복락을 구하는 데 있어 마음이 변하는 법이 없다. 가람은 20여 군데, 승도는 3천여 명이며 모두 소승 정량부(小乘正量部)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천사는 50여 군데이며 외도가 대단히 많다.

### 2) 대성 부근의 옛터

성 남쪽 길 왼편으로 큰 가람이 있다. 옛날 데바샤르마 아라한이 여기서《식신론(識身論)》을 저술해 자기와 사람이 실재함을 설파했다. 이 법의 주장에 의해 뿌리 깊은 논쟁이 되었다.

또 호법보살이 여기서 7일 동안에 걸쳐 1백여 명의 소승 논사들을 굴복시켰다. 가람 옆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여래가 옛날에 여기서 6년 동안 설법하면서 사람들을 교화했다. 설법 수토파 옆에 높이 6~7척 되는 진귀한 나무가 있다. 세월이 바뀌어도 조금도 증감(增減)이 없다. 여래가 옛날에 이〔齒牙〕를 소제한 다음 그 남은 가지를 버려 거기서 뿌리가 돋아난 것으로 오늘날까지 무성하다. 사견(邪見)을 가진 사람이나 외도 사람들이 다투어 벌채하지만 곧 본래와 같이 돋아나곤 한다.

그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다. 또 여래의 두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수토파의 기초는 귀퉁이가 이어졌고 숲과 늪은 서로 비추고 있다. 여기서 동북으로 5백여 리 가면 시라바스티국〔옛날에는 舍衛國이라 했으나 잘못임. 중인도의 국경〕에 이른다.

# 제 6 권

## 1. 시라바스티국

### 1) 개관

시라바스티국〔室羅伐悉底國 : 고대 인도 16대국의 하나. 현재의 네팔 쪽에 가까운 Bahraich縣과 Gonda縣의 경계. Rapti 강 남쪽 기슭에 있는 Saheth-Maheth라고 하는 두 姉妹村에 걸쳐 遺跡이 있다〕은 주위가 6천여 리인데 성은 황폐하고 경계 또한 분명하지 않다. 궁성 건물의 유적은 주위 20여 리가 되며 심하게 황폐되어 있지만 주민은 있다.

농작이 풍성하고 기후도 좋다. 풍속은 순박하고 학예에 열심이며 복업에 힘쓰고 있다. 가람은 수백 개 있으나 무너진 곳이 대단히 많다. 승도는 적으며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백여 군데이며 외도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 2) 승군왕(勝軍王)

이곳이야 말로 여래 재세시 프라세나지트 왕〔鉢羅那多王 : 당에서는 勝軍이라 한다. 옛날에 波斯匿라 했음은 잘못〕이 다스렸던 국도이다. 옛 궁성 안에 낡은 건물터가 남아 있는데 승군왕의 어전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한 건물터가 남아 있는데 위에 자그만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옛날 승군왕이 여래를 위해 세운 대법당 터이다.

### 3) 지만(指鬘)이 회개한 곳

법당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건물터 위로 수토파가 있다. 부처님의 이모 프라자파티비〔鉢羅鉢底 : 당에서는 生主라 함. 옛날에 波闍波提라 했음은 잘못임〕비크슈니〔苾芻尼 : 비구니〕의 정사로서 승군왕이 세운 것이다. 동쪽으로 이웃에 있는 수토파는 수닷타〔蘇達多 : 당에서는 善施라 함. 옛날에는 須達이라 했으나 잘못임〕의 본래의 집터이다.

선시장자(善施長者) 집 옆에 큰 수토파가 있다. 앙굴리말라〔利摩羅 : 당에서는 指이라 함. 옛날에는 央掘摩羅라 했음은 잘못임〕가 사심(邪心)을 버린 곳이다.

앙굴리말라는 시라바스티의 악인이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도성에 행패를 부리곤 했다.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에 목걸이로 걸고 다녔다. 마침내는 제 어미를 죽여서까지 손가락의 수를 채우려 했으므로 세존은 불쌍히 여겨 교화하고자 했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세존의 모습을 보고 옳다구나 기뻐하면서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로는 벌써 정해졌다. 돌아가신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그 유언이 여기에 있다. 부처를 해하고 어미를 죽이면 반드시 범천에 태어나리라"고 생각하고서 그 어머니에게 "늙은이는 잠시 기다리시오. 먼저 저 대사문(大沙門)부터 죽이겠소"라 하고서 곧장 칼을 쥐고 세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여래는 침착하게 나아갔다가 물러났다가 하며 그를 상대했다. 악인인 지만은 쫓아다녔지만 따르지를 못했다.

세존은 "어찌하여 못된 생각을 계속 지니고서 선근을 버리고 나쁜 일에만 빠져드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만은 교회(敎誨)를 듣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을 깨달았다. 곧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하여 그는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정진해 드디어 나한과를 증득했다.

4) 기원정사(祇園精舍)

성의 남쪽 5~6리 되는 곳에 제타림〔逝多林 : 당에서는 勝林이라 함. 옛날에 祈陀라 했음은 잘못〕이 있다. 급고독원(給孤獨園)으로서 승군왕의 대신 선시(善施)가 부처님을 위해 정사를 세운 곳이다. 옛날에는 가람이었으나 이젠 황폐해져 있다. 동문 좌우에는 각기 높이 7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왼쪽 기둥은 고리 모양을 그 끝에 새기고 오른쪽 기둥은 소의 모습을 그 위에 새겨 놓았다. 모두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서 건물은 붕괴된 채 그 자국만 남았을 뿐이다. 다만 한 벽돌집만이 견고하게 홀로 남아 있다. 그 안에 불상이 있는데 옛날 여래가 33천에 올라 그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고 돌아올 때 출애왕이 전단(栴檀)의 불상을 새겼다는 말을 듣고 승군왕도 이 상을 만들었다.

선시장자는 정이 깊고도 총명한 사람으로서 재산을 모으기도 했지만 또 흩뜨리면서 어리석은 자를 구제하고 늙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고자

애를 썼다. 그 당시 그 덕을 찬미하여 급고독(給孤獨)이라 했다. 그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듣고는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정사를 세우고자 하면서 부처님이 나와 주기를 원했다. 세존은 샤리푸트라에게 명해 함께 측량하게 했다. 그런데 태자인 제타(逝多)가 소유하고 있는 원지(圓地)만이 위치가 높고 토질이 건조해서 적당했다. 그래서 태자를 방문하여 자세하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태자는 농담으로 "금을 그 땅 가득히 깔면 팔겠소" 하고 말했다. 선시는 이 말을 듣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셨다. 그리하여 즉시 가지고 있던 금을 내어 타자의 말대로 땅에 깔았으나 조금 부족한 데가 있었다. 태자는 그만두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참으로 좋은 밭과 같은 분으로 선근을 심을 만한 사람입니다. 즉시 공지(空地)에 정사를 세웁시다"라고 말했다.

세존은 이곳에 와서 아난에게 "원지는 선시가 산 것으로 나무들은 제타가 보시한 것으로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여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곳을 '제타림급고독원'이라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5) 병든 비크슈를 간병하는 불타

급고독원 동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병든 비크슈의 몸을 씻었던 곳이다. 옛날 여래가 재세했을 때 병든 비크슈가 괴로워하며 홀로 살고 있었다.

세존이 이를 보고 "그대는 왜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찌하여 홀로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저는 태생이 게을러서 남을 간병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병이 들었어도 간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여래는 이를 불쌍히 여겨 "선남자(善男子)여, 이제 내가 그대를 돌봐주리라" 하고 손으로 문질렀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문밖으로 데리고 나가 요를 갈아 바꾸고 여래가 친히 몸을 씻어준 다음 옷을 갈아 입혔다.

부처님은 비크슈에게 "스스로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비크슈는 감사하면서 심신이 모두 기쁨에 넘침을 느꼈다.

6) 사리불과 목련(目蓮)의 신통력

급고독원 서북쪽에 작은 수토파가 있다. 마우드갈랴야나(目蓮)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샤리푸트라의 띠를 들어올리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던 곳이다.

옛날 부처님이 무열뇌지에다 인계(人界)와 천계(天界)의 사람 모두를 모았는데 다만 샤리푸트라만이 그 회의에 모이지 않았다. 부처님은 마우드갈랴야나에게 명해 가서 샤리푸트라에게 어서 오도록 이르라고 했다. 마우드갈랴야나는 명을 받고 떠났다. 샤리푸트라는 그때 사위성(舍衛城)에서 법의(法衣)를 고치고 있었다.

마우드갈랴야나는 “세존께서 지금 무열뇌지에 계시는데 나에게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샤리푸트라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옷을 다 고치면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우드갈랴야나는 “만약 곧 가지 못하겠다면 신통력으로 당신의 석실을 들어 올려 대회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샤리푸트라는 그때 의대(衣帶)를 풀어 땅에 놓더니 “만약 이 띠를 들어올린다면, 혹 내 몸이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마우드갈랴야나는 대신통력을 발휘하여 띠를 들어올리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지면만이 이 신통력 때문에 진동했다. 그래서 신족(神足)으로 알려 부처님에게 돌아갔던 바 샤리푸트라가 벌써 회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우드갈랴야나는 고개 숙여 탄식하되 “이제야 비로소 신통력이란 지혜의 힘에 미치지 못함을 알았구나”라고 말했다.

7) 음녀 모살과 부처님 비방

거대(擧帶) 수토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있다. 여래가 재세 중에 물을 긷던 곳이다. 그 옆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그 안에 여래의 사리가 들어 있고 산책한 터나 설립한 터에는 각기 표적을 하여 수토파를 세웠다. 명계(冥界)의 신이 경위하고 영서(靈瑞)가 가끔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의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고 신묘한 향기가 나는 일도 있다. 큰 복덕의 징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가람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외도 범지(梵志 : 바라문)가 음녀를 죽이고 부처님을 비방한 곳이 있다. 여래는 십력(十力 : 여래만이 갖춘 열 가지 지력)과 사무소외(四無所畏 : 부처님이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 두려움이 없는 4가지 自信)를 갖추어서, 그 지혜는 일체의 가르침에 알지 못함이 없는 터라 인계 · 천계가 모두 존경하고 숭앙하여 성인 · 현자도 가르침을 청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때 외도들은 함께 상의하되 "속임수를 써서 중인 앞에서 부처님을 비방하여 치욕을 보이도록 하자"라고 하여, 음녀를 설득해서 매수한 다음 마음에도 없는 부처님 설법을 듣게 하여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고 나서는 은밀하게 이 여자를 죽여 그 시체를 나무 옆에 묻고 원성(怨聲)을 내세워 왕에게 고소했다. 왕이 수색을 명했던 바 제타원에서 음녀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러자 외도들은 소리 높이 "고타마 대사문〔喬答摩大沙門 : 석가를 이름〕은 항상 계율을 지니고 인욕(忍慾)하여 성내고 원한을 사고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찬양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여자와 정을 통한 후 죽이고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 사음(邪淫)하고 살생을 하는데 무슨 계(戒)며 무슨 인(忍)이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외쳐댔다.
그러자 천인들이 공중에서 외도의 소리에 이어 "외도의 악인들만이 이같은 비방을 하는 것이다"라고 외쳤다.

8) 데바닷타와 코칼리카의 지옥행

가람 동쪽 1백여 보 되는 곳에 크고 깊은 갱이 있다. 데바닷타〔提婆達多 : 당에서는 天授라고 함〕가 독약으로 부처님을 해치려고 하다가 맨몸으로 지옥에 떨어진 곳이다. 데바닷타는 곡반왕(斛飯王 : 석가와는 從兄弟 사이)의 아들로서 정근(精勤)하기 12년, 이미 8만의 법장(法藏 : 자세하게는 8만 4천의 법장이라 함)을 암송하고 있었다. 나중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신통력을 배우고자 악우와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나의 상(相)은 30이어서 부처의 32상보다 크게 부족함이 없는 터에 대중이 귀의하고 따르는 것이 어찌하여 여래와 다른가"라고 말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부처님의 승단(僧團)을 파괴 분열하기로 작정하고 이를 추구했던 바 마침내 부처님의 승단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샤리푸트라와 마우드갈랴

야나는 부처님의 지시를 받들고 부처님의 위세를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유했던바 승도들은 다시 부처님의 승단과 화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데바닷타는 악심을 버리지 못하고 맹독의 약을 손톱 속에 넣은 다음 예배드릴 때 부처님을 상해하고자 했다. 필히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오자 땅이 갈라져 버렸다. 그래서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그 남쪽에 또 하나의 큰 갱이 있다. 코칼리카 비크슈가 여래를 비방하다가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곳이다.

9) 친차가 지옥으로 떨어진 곳
코칼리카가 떨어진 갱의 남쪽으로 8백여 보 되는 곳에 깊은 갱이 있다. 친차(戰遮) 바라문녀가 여래를 비방하다가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진 곳이다. 부처님이 인계와 천계의 자들을 위해 제법의 요의를 강설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멀리서 세존의 모습을 보았더니 대중이 너무나 공경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오늘이야말로 고타마에게 치욕을 가해 명예를 상하게 함으로써 나의 스승이 홀로 명성을 독차지하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다. 그러고 나서 옷 속에 나무주발을 달고 급고독원으로 나가 대중 속에서 큰 소리를 질렀다.
"여기에서 설법하고 있는 사람은 나와 사통(私通)했소. 뱃속의 아기는 석종(釋種)이요" 하고 외쳤다.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 말을 믿었지만 신앙이 올바르고 독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비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 그때 제석천(帝釋天)은 사람들의 의혹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서 몸을 흰 쥐로 바꾸어 나무주발의 실을 갉아 잘랐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크게 대중 속에 울렸다. 그 밖에서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건의 처음과 끝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일어나 나무주발을 들고 그 여자에게 보이면서 "이것이 그대의 자식인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땅이 자연히 갈라지면서 그 여자는 산 채로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떨어져 갖은 고통을 받았다. 이 3개의 갱은 밑 빠진 굴로서 여름과 가을의 장마에 도랑이나 연못이 넘칠 때라도 이 깊은 갱만은 한 번도 물이 괸 일이 없었다.

10) 영복정사

가람 동쪽 60~70보 되는 곳에 60여 척 되는 하나의 정사(精舍)가 있다. 그 안에 동쪽을 향해 앉아 있는 불상이 있는데 여래가 옛날에 이곳에서 여러 외도와 토론을 벌였다. 동쪽 옆에 천사가 있고 크기는 정사와 같다. 해가 떠서 빛을 발할 때는 천사의 그림자가 정사를 덮지 않지만 해가 지려고 할 때는 정사의 그림자가 천사를 덮어 버린다.

11) 샤리푸트라가 외도를 항복시킨 곳

영복정사 동쪽 3~4리 되는 곳에 수토파가 있다. 존자 샤리푸트라가 외도와 토론한 곳이다. 처음에 선시장자가 제타태자의 동산을 사서 여래를 위해 정사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존자 샤리푸트라가 장자를 따라가 측량했다. 그때 외도의 육사(六師 : 六師外道라고도 함. 석가 재세시 중인도에 세력을 갖고 있던 6명의 외도)가 신통력을 비교하자고 했는데 샤리푸트라는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교화시키고 물건을 응하여 항복시켰다. 그 옆의 정사 앞에 수토파가 서 있다. 여래가 이곳에서 여러 외도를 논파했다. 또 여기에서 비샤카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였다.

12) 비루다카 왕

수청(受請) 수토파의 남쪽은 비루다카 왕(毗盧擇迦王 : 옛날에는 毗琉璃王이라 했으나 잘못임)이 군대를 일으켜 석가의 일족을 주륙하고 여기까지 와 부처님을 뵌 끝에 군대를 돌린 곳이다. 비루다카 왕은 왕위를 이은 뒤 전에 받은 치욕을 원한으로 생각하고 대군을 일으켜 각 부서까지 정한 다음 명령을 내려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비크슈가 이 사실을 듣고 부처님께 말했다. 그때 세존은 고목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비루다카 왕은 멀리서 세존을 보고 말에서 내려 경배한 다음 뒷걸음질하면서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앉지 않고 고목의 썩은 그루터기 위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세존은 “일족(一族)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나 잎과 같은 것입니다. 나뭇가지나 잎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몸을 감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더니 왕은 “세

존은 나의 친족입니다. 결코 칠 수 없으니 군사를 거둬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성자를 직접 뵈옵고는 느끼는 바가 있어 군사를 돌려 제나라로 돌아갔다.

왕이 군마를 돌려 돌아간 곳의 옆에 수토파가 있다. 석가족의 여성들이 몰살당한 곳이다. 비루다카 왕은 석씨 일가를 토벌, 승리한 다음 5백 명의 여자를 가려내 후궁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석씨 여자들은 분개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비루다카 왕은 종의 자식이라고 매도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영을 내렸다. 형리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석씨가의 여자들의 손목과 발목을 자른 다음 굴속에 집어던졌다. 그때 석녀들은 괴로운 나머지 부처님 이름을 불렀다. 세존의 혜안은 그 고난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비크슈〔비구〕에게 법의를 걸치고 어서 가서 석녀들을 위해 설법을 하도록 분부했다. 이른바 오욕(五欲：色 · 聲 · 香 · 味 · 觸)에 집착하면 삼도(三途：地獄 · 食鬼 · 畜生의 세 苦境)에 유전(流轉)하며 은혜와 두터운 애정은 서로 떨어지고 생사가 장원(長遠)하리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 이리하여 석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번뇌에서 이탈, 법안정(法眼淨：진리를 분명히 보는 것)을 얻는 가운데 동시에 목숨이 끊기면서 함께 천상계(天上界)에 태어났다. 그때 제석천은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해 시체를 모아 화장시켰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후세인이 전하고 있다.

석녀들을 주살한 곳의 수토파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마른 연못이 있다. 비루다카 왕이 빠져 지옥으로 간 곳이다. 세존은 석녀들을 구원한 다음 급고독원에 돌아와 비크슈들에게 "비루다카 왕은 앞으로 이레 후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왕은 부처님의 예언을 듣고 심한 공포를 느꼈다. 7일째가 되었으나 안온할 뿐 위험이 없었다. 왕은 기뻐하여 궁녀들에게 명해 연못가에 나가 연회를 벌였다. 그래도 화재가 날 것을 걱정하며 맑은 물에 배를 띄우고 있었다. 물결치는 대로 떠 있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일면서 배를 불태우고 왕의 몸을 떨어뜨려 무간지옥으로 빠뜨림으로써 갖은 고통을 받게 했다.

### 13) 득안림

가람에서 서북으로 3~4리 가면 득안림(得眼林 : 晝闇園이라고도 함)에 이른다. 여래가 산책했던 곳과 성자들이 선정(禪定)에 든 곳의 흔적이 있다. 모두 표를 해 놓고 수토파를 세워 놓았다.

옛날 이 나라에 도둑의 무리 5백 명이 촌락을 횡행하면서 도성에서 날뛰고 있었다. 승군왕이 이들을 잡아 눈알을 도려내어 깊은 숲 속으로 추방해 버렸다. 도둑들은 괴로운 나머지 도움을 청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여래는 제타정사(逝多精舍)에 있었는데 비탄의 소리를 아련히 듣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다. 맑은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자 설산의 약을 그 도둑들에게 바람결에 보냄으로써 눈에 약이 들어가게 하여 본래대로 눈을 뜰 수 있게 했다. 눈을 뜬 도둑떼들은 세존이 자기들 앞에 서 있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보리심을 일으켜 기꺼이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를 올린 다음 지팡이를 버리고 떠났다. 그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이 숲을 이룬 것이다.

### 14) 카샤바불의 본생지

대성에서 서북쪽으로 60여 리 되는 곳에 낡은 성이 있다. 현겁(賢劫 : 과거 · 현재 · 미래 중 현재의 住劫 사이에 千體의 부처님이 出世한다. 그래서 현재의 住劫을 칭찬하여 賢劫이라 함) 동안의 인수(人壽)가 2만 세였을 때 카샤바불(迦葉波佛 : 飮光이라 譯함. 過去七佛의 第六, 現在賢劫의 第三佛로 釋迦의 前生)이 탄생한 성이다. 성 남쪽에 수토파가 있다. 카샤바불이 정각(正覺)을 얻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난 곳이다. 성 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여기에 카샤바불 전신의 사리가 들어 있다. 이 수토파들은 모두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5백여 리 가면 카필라바스투국(옛날에는 迦毗羅衛國이라 했으나 잘못임. 중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2. 카필라바스투국

### 1) 개관

카필라바스투국(劫比羅伐窣堵國 : 釋迦 誕生의 故國으로서 유명하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諸說이 분분했으나 1895~6년께 Gorakhpur 북방, Vska 정류장 서북 38마일의 곳에서 Nigliva와 Lumbini-Vana, 藍毗尼園 의 아쇼카 왕의 石柱가 발견되고 그 뒤 Piprahva 古塔과 舍利壺는 古代 迦毗羅城의 위치를 확실한 것으로 했다)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빈 성이 여남은 개 되고 이미 황폐함이 심하다. 왕성도 퇴락하여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자상하지 못한다. 그 안의 궁성은 주위가 14~5리 된다.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기초는 아직도 높고 견고하다. 황폐함이 오래되어 사람이 사는 곳도 드문드문하다.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대군주는 없고 성은 저마다 우두머리를 내세우고 있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업은 제때에 하고 있다. 기후에 변덕이 없으며 풍속은 온건하다. 가람 터가 1천여 개 남아 있다. 궁성 옆에 가람 하나가 있는데 승도는 3천여 명, 소승의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2군데, 이도 사람들이 잡거하고 있다.

### 2) 석가의 탄생과 아시타선

궁성 안에 건물터가 남아 있다. 정반왕(淨飯王 : 悉陀太子. 釋迦의 아버지)의 정전(正殿)이다. 건물터 위에 정사가 세워져 있는데 안에 왕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 그 옆 멀지 않은 곳에 건물터가 있다. 마하마야(摩訶摩耶 : 당에서는 大術이라 함. 淨飯王妃로 釋迦의 生母) 부인의 침전이다. 그 위에는 정사를 세우고 안에는 부인의 상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 옆에 정사가 있다. 석가보살이 어머니 태내에 강신(降神 : 태내에 듦)한 곳이다. 정사 안에 보살 강신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 상좌부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보살은 웃타라아샤다 월(嗢呾羅頞沙多月 : '웃타라'는 '나중의 시기', '아샤다'는 '여름의 3개월')의 30일 밤 모태에 강신했다고 한다. 이는 당나라의 5월 15일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좌부 이외의 제부(諸部)에서는 이달의 23일 밤 모태에 강신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나라의 5월 8일에 해당한다.

보살 강신 정사의 동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아시타선(阿私多仙 : 五通을 具足하여 항상 三十三天을 출입했던 大仙)이 싯다 태자를 관상(觀相)한 곳이다. 보살 강탄의 날 축복하는 조짐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정반왕은 관상가를 불러 "내 아들이 태어났다. 선한가 악한가 충분히 마음을 써서 분명히 대답하도록 하라"라고 했더니 그는 "옛날 성자의 기록에 따라 축복된 현상을 생각해 보건대, 재가의 사람으로서는 전륜성왕이 되겠습니다. 출가를 한다면 반드시 등정각(等正覺)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침 이때, 아시타선이 멀리서 와서 문을 두드려 알현을 요청했다. 왕은 대단히 기뻐 스스로 마중 나가 경배하고서 보좌에 앉도록 한 다음 "대선인께서 오늘 여기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선인은 "저는 천궁에 틀어박혀 좌선하고 있었습니다만 천인들이 더불어 춤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여 이렇게 기뻐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선은 알지 못합니까. 잠주부 안의 석씨가의 정반왕 제1부인이 지금 막 태자를 낳았습니다. 반드시 삼보리(三菩提 : 等正覺의 原語)를 깨달아 일체의 법을 원만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와서 우러러 예를 다한 것입니다. 다만 슬픈 것은 제가 이미 늙어 성인의 교화를 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3) 석가의 체력

성 남문에 수토파가 있다. 태자가 석씨가의 청년과 씨름을 하고 코끼리를 내던진 곳이다. 원래 태자는 기예 다능하여 홀로 친구들 사이에서 뛰어났다. 어느 날 몰이꾼이 코끼리를 몰고 막 성을 나가려고 했다. 그때 힘센 것을 항상 자부해 온 데바닷타가 태자와의 씨름에서 지고 성 밖으로 오다가 몰이꾼을 만나 "훌륭하게 정비한 이 코끼리는 도대체 누가 타려는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태자가 돌아오려 하므로 마중 나가 태워 오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데바닷타는 경기에 져서 분한 마음에 태자를 싣고 올 코끼리를 끌어당겨 그 이마를 치고 가슴을 발로 차서 죽였다. 넘어져 죽은 코끼리 때문에 길이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길은 군중으로 가득 찼다. 난다(難陀 : 釋迦의 異腹동생)가 나중에 와서 몰이꾼에게 "누가 이 코끼리를 죽였는가" 하고 묻자 "데바닷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난다는 곧 이를 끌어내어 길을 치웠다.
그런 후에 태자가 와서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하여 코끼리를 죽였는가"라고 물었더니 "데바닷타가 죽여 문을 통과할 수 없었는데 난다가 이를 끌어내어 길을 치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태자는 코끼리를 높이 들어 올려 성 연못 저쪽으로 던져 버렸다. 그 코끼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깊은 갱이 패었다. 그 지방의 얘기로 상타갱(象墮坑)이라 한다.
그 옆의 정사 안에 태자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 그 옆에 또 정사가 있는데 태자비의 침궁이다. 안에 야소다라(耶輸陀羅 : 釋迦가 태자였을 때의 王妃로 羅怙羅의 생모)의 상이 만들어져 있고, 또 라훌라(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한 사람)의 상도 있다. 침궁 옆의 정사에는 태자가 학업을 받고 있는 상이 만들어져 있다. 곧 태자의 학당 터인 것이다.

#### 4) 석가의 출가

성 동남쪽 귀퉁이에 하나의 정사가 있다. 안에는 태자가 백마를 타고 허공을 가르며 달리는 상이 있다. 유성(踰城)터이다. 성의 네 대문 밖에는 각기 정사가 있는데 안에는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과 사문(沙門)의 상이 만들어져 있다. 태자가 사문유관(四門遊觀 : 出家動機의 제2단) 한 가운데 사람들의 늙고 병든 모습과 죽은 모습을 보고 감회에 젖으면서 마음으로부터 번뇌의 속세계를 싫어한 나머지 이곳에서 깨닫고 몰이꾼에게 명해 수레를 되돌리도록 했다.

#### 5) 과거이불의 본생성(本生城)

성에서 남쪽으로 50여 리 가면 옛 성에 이른다. 수토파가 있다. 현겁 중의 사람의 나이 6만 세 때에 크라쿠찬다불(迦羅迦村馱佛)이 탄생한 성이다. 성 남쪽 멀지 않

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 아버지를 만난 곳이다. 성 남쪽 수토파에는 여래의 유신사리(遺身舍利)가 들어 있다. 앞에 높이 3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다. 위에 사자상이 새겨졌고 옆에는 적멸의 사적이 적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크라쿠찬다불의 성에서 동쪽으로 30여 리 가면 낡고 큰 성에 이르는데 안에 수토파가 있다. 현겁 중의 나이 4만 세 때에 카나카무니불이 탄생한 성이다. 동북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깨달음이 있은 다음 아버지를 깨우친 곳이다. 불쪽으로 옆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의 유신사리가 들어 있다. 앞에 높이 2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서 있다. 위에는 사자상을 새겼고 옆에는 적멸의 사적을 적어 놓고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 6) 잠부나무 그늘 아래서의 좌선

성 동북쪽 40여 리에 수토파가 있다. 태자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밭을 가는 것을 본 곳이다. 여기에서 좌선을 하며 욕심을 떠날 수 있었다. 정반왕은 태자가 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禪定)에 들었는데 햇빛은 이미 돌아 다른 장소를 비추고 있는데도 나무 그늘은 옮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더욱더 경애하는 마음을 깊게 했다.

### 7) 비루다카 왕

대성 서북쪽에 수백수천 개의 수토파가 있다. 석씨 일가들이 주살당한 곳이다. 비루다카 왕은 이미 석씨 일가를 이겨 석씨 일족 9천 9백 90만 명을 잡아 몰살시켜 버렸다. 시체는 풀 더미 같이 쌓이고 피는 흘러 연못으로 괴었다. 하늘은 인심을 경계하고 시체를 거둬 매장했다.

석씨를 주살한 수토파 서남쪽에 4개의 작은 수토파가 있다. 45명의 석종이 비루다카 왕의 군세를 막아낸 곳이다. 처음에 승군왕이 즉위하자 석종에게 구혼(求婚)을 했다. 석종 사람은 왕이 동류인이 아님을 싫어하여 거짓으로 부리고 있는 여자를 정실부인으로 삼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이 비루다카 왕이었다. 비루다카는 장인

이 되는 석씨에게 학업을 가르침 받고자 하여 이 성 남쪽까지 왔을 때 새로운 강당이 눈에 띄었으므로 곧 수레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다. 석종들은 이를 알고 쫓아내면서 매도하는데 "비천한 부엌데기가 낳은 자식이 뻔뻔스럽게 이 집에 들어오다니, 이 집은 석종들이 세운 것으로 부처님의 주거지로 하려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비루다카 왕은 즉위하자 전에 받은 치욕을 복수하고자 곧장 군대를 일으켜 여기까지 와서 머물렀다. 석종 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바로 항전하여 침입군을 물리쳤다. 네 사람이 침입군을 물리치고 성으로 돌아오자 동족인들은 "우리 석종은 전륜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법왕(法王 : 釋尊)의 동족이다. 흉폭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일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 네 사람은 일족에 치욕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인연을 끊게 하고 멀리 추방했다.
추방된 네 사람은 북방 설산 쪽으로 가서 한 사람은 웃디야나국 왕이 되고, 한 사람은 바미얀국의 왕이 되었으며, 한 사람은 히마탈라국의 왕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상미국(12권의 17 참조)의 왕이 되어 대대로 왕업을 전하면서 혈통을 끊기는 일이 없었다.

8) 불타의 귀향
성 남쪽 3~4리 니그로다수(尼拘律樹 : 5권의 1-2 참조) 숲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석가여래가 정각을 얻고 나라에 돌아가 부왕에게 설법한 곳이다. 정반왕은 여래가 유혹하는 마군을 항복시키고 정각을 이루고서 곳곳을 다니며 교화하고 있음을 알고서 우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예를 다해 마중나갈 수 있도록 원했다. 그는 사자에게 명하여 여래에게 "지난날 '불도를 이루었을 때는 반드시 본생지에 돌아온다'고 했소.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소. 그럴 만한 시기에 와서 머물러 주도록 하오" 하는 말을 전달하게 했다. 사자가 부처님에게 가서 왕의 생각을 자세하게 말했더니 여래는 "7일 후면 반드시 본생지에 돌아가겠소" 하고 말했다.
사자는 돌아가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그래서 정반왕은 관민에게 명하여 도로를 청소하고 꽃과 향을 가득 마련했다. 그리고 그날 군신(群臣)들과 성 밖 40여 리 되

는 곳에서 수레를 멈추고 마중했다.
이때 여래는 대중과 함께 나가는데 팔금강(八金剛)이 주위를 호위하고 사천왕이 선도하며 제석천은 욕계의 제 천인(諸天人)과 왼쪽에 서고 범천왕은 색계의 제 천인과 오른쪽에 섰으며 제 비크슈 승은 여래의 뒤에 줄을 섰다. 부처님만은 대중 속에 있어 마치 달이 별을 비추듯 그 위용은 삼계를 움직일 정도였고 그 광명은 칠요(七曜 : 日 · 月 · 火 · 水 · 木 · 金 · 土의 七星)를 누르는 가운데 허공을 밟으면서 생국에 도착했다. 왕과 종신이 부처님을 경배하자 부처님은 그들과 함께 니그로다 승가람에 머물렀다.
그 옆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큰 나무 아래서 동쪽으로 향해 앉고서 이모〔생모의 누이인 프라자파티 : 鉢羅闍波底〕에게 금루(金縷)의 가사를 받은 곳이다. 이와 나란히 있는 수토파는 여래가 8명의 왕자와 5백 명의 석종들을 득도시킨 곳이다.

### 9) 자재천사

성 동문 안 길 왼쪽에 수토파가 있다. 옛날 일체의성태자(一切義成太子 : 사르바르싯다, 7권의 1-10 참조)가 여기에서 제종의 기예를 배웠다. 문 밖에 자재천사가 있다. 사안의 석조 자재천상(像)은 자세를 바르게 해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니다. 태자가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였을 때 들어간 사(祠)이다. 정반왕이 룸비니원〔臘毗尼園〕에서 태자를 맞아 돌아오는 도중 천사에 들러서 말했다. "이 천사는 영험이 많아서 석종의 자식들이 가호를 빌면 반드시 효험이 있다고 한다. 태자를 데리고 들어가 참배하자." 왕을 따라 유모가 태자를 안고 사 안으로 들어가자 돌로 된 자재천상이 불끈 일어나 태자를 맞아들였으며 태자가 나오자 자재천상 역시 본래대로 앉아 버렸다고 한다.

### 10) 석가 경기(釋迦競技)의 옛터

성 남문 밖 길 왼쪽에 수토파가 있다. 태자가 석씨 일족들과 힘을 겨루면서 활로 쇠북을 쏜 곳이다. 여기서 동남쪽 30여 리 되는 곳에 작은 수토파가 있다.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 흐름은 거울과 같이 맑다. 태자가 석종들과 함께 강궁을 당겨 재주를 겨룬 곳이다. 화살은 시위를 떠나 북을 뚫고 연못까지 이르러 깃을 떨구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맑은 물이 솟은 것이다. 당시 그 고장에 전해 오는 말로는 이를 화살샘(箭泉)이라 하여 만약 병든 자가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하면 낫는 일이 많고 멀리 사는 자는 그 진흙을 가지고 가 그 아픈 곳에 따라 물에 풀어 이마에 바르면 가호를 받아 전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11) 석가 탄생의 자취들

전천에서 동북쪽으로 80~90리 가면 룸비니 숲에 이른다. 이곳에는 석종들이 목욕하던 연못이 있다. 물은 맑아 거울과 같은데 갖가지 꽃이 다투어 피고 있다. 그 북쪽으로 스무 걸음 남짓 되는 곳에 무우화수(無憂花樹)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보살이 태어난 곳이다. 보살은 바이샤카월(吠舍佉月 : 2월)의 후반 8일에 태어났다. 이는 중국의 3월 8일에 해당한다. 상좌부에서는 바이샤카월의 후반 15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국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 동쪽으로 이웃에 서 있는 수토파는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인데 2마리의 용이 태자에게 목욕을 시킨 곳이다.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부축도 받지 않고 사방으로 각기 7보씩 간 다음, 스스로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한다. 앞으로 내가 지닌 생은 다했다. 이것이 최후의 생명이며 앞으로는 윤회전생(輪廻轉生)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발을 내디딤에 따라 큰 연꽃이 나오고 두 마리 용이 튀어나와서는 허공에 머물러 각기 물을 내뿜었다. 하나는 차고 하나는 따뜻했는데, 그 물로써 태자가 목욕한 곳이다.

태자가 목욕을 했던 수토파 동쪽에 2개의 맑은 우물이 있고 곁에 2개의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2마리의 용이 땅속에서 춤추며 나온 곳이다.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친족이나 관계자들은 서둘러 물을 구해서 씻기려고 했다. 그러자 부인 앞에 2개의 우물이 솟아난 것이다. 하나는 차고 하나는 따뜻해 그것으로써 몸을 씻은 곳이다.

그 남쪽 수토파는 제석천이 보살을 받들어 받은 곳이다. 보살이 태내에서 나오자마자 제석천은 무릎을 꿇고 미묘한 천의(天衣)로 보살을 받았다.

그 이웃에 4개의 수토파가 있는데 사천왕이 보살을 안고 왔던 곳이다. 보살이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자 사천왕은 금색 첩의(㲲衣)로 보살을 받들어 금 책상 위에 안치하고서 어머니 앞에 나아가 “부인께서 이 복덕 갖춘 아드님을 낳으신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모든 천인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의 기쁨이야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2) 아쇼카 왕의 돌기둥과 유하

사천왕이 태자를 안았던 수토파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돌기둥이 있다. 위에는 마상(馬像)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나중에 악룡의 벼락같은 큰소리에 그 기둥은 가운데쯤에서 부러져 땅으로 넘어졌다. 곁에 동남쪽으로 흐르는 자그만 강이 있다.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유하(油河)라 한다. 마야부인이 출산했을 때 하늘이 이곳을 아름답고 맑은 물로 만들어 부인에게 이 물로써 목욕하여 몸을 씻어내도록 한 곳이다. 지금은 그냥 물로 되어 있지만 그 흐름에는 아직 기름이 떠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광야와 숲 속을 가기를 2백여 리 하면 라마국에 이른다.

## 3. 라마국

1) 나라의 개관과 불탑

라마국(藍摩國 : 지금의 네팔과 Gorakhpur와의 경계에 있는 Dharmauri라고도 하고, Basti縣의 Rampur Deoriya라고도 한다)은 황폐화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나라의 경계도 분명하지 않고, 성이나 고을도 황폐해져 주민도 드물다. 옛 성 동남쪽에 높이 1백 척 되는 벽돌 수토파가 서 있다. 옛날 여래가 적멸하였을 때 이 나라의 선왕이 사리를 분배받고 본국으로 가져가 정중하게 모신 곳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가끔 일어나며 신묘한 빛이 번쩍이는 때가 있다.

수토파 옆에 하나의 맑은 연못이 있는데 용이 항상 못 밖으로 나와 뱀으로 변해 수

토파를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으며 들코끼리가 떼를 지어 가면서 꽃을 따 가지고 뿌렸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가호에 의해 처음보다 크게 손상되게 변하지는 않았다. 옛날 아쇼카 왕이 수토파를 분할하여 세우려 하였을 때, 7개국이 세운 것을 모두 열어 불사리를 발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작업을 하려 했을 때 이 연못의 용은 사리를 뺏길 것을 염려하여 바라문으로 변신, 왕 앞에 나아가 "대왕은 불법에 귀의하여 널리 복전(福田 : 福德을 生長시키는 것. 마치 밭 가는 것과 같은 작업)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아무쪼록 수레를 움직여 저희 집에 왕림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왕은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 여기서 먼가?" 하고 물었다.

바라문은 "나는 이 연못의 용왕입니다. 대왕께서 복업을 행하려 함을 알고 와서 배알하는 바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용왕의 소청을 듣고 용궁으로 갔다. 앉아서 얼마 안 되어 용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업 때문에 이렇게 용으로 변했습니다만 불사리를 공양하여 죄가 없어지게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가서 불사리를 보시고 예배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쇼카 왕이 사리를 보고 놀라 "모든 공양물이 도무지 인간계에 있는 것 같지 않게 훌륭하다"라고 말하자 용왕은 "만약 말씀대로라면 바라옵건대 이 수토파를 부셔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아쇼카 왕은 자기가 힘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알고 발굴하지 않았다. 왕이 연못을 나온 곳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 2) 사미의 가람

수토파쪽 멀지 않은 곳에 가람이 하나 있다. 승도의 수는 많지 않으며 행실이 맑고 조용한데 사미로 하여금 절의 일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 먼 곳에서 승도가 오면 대우를 충분히 하고 반드시 3일간은 머물게 하면서 의복 · 음식 · 침구 · 탕약의 4가지 물품을 공양하고 있다.

옛 노인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어떤 비크슈가 멀리서 친구들을 모아 와서 수토파를 참배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떼를 지은 코끼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은 상아로 풀을 뜯고 어

떤 것은 코로 물을 부으면서 각기 진귀한 꽃을 가져와서는 함께 공양하고 있었다. 이를 본 그들은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의 비크슈는 곧 구족계(具足戒)를 버리고(구족계를 버린다 함은 구족계를 받아 하나의 比丘가 된 자가 그 몸을 한 단계 낮추어 다른 승도의 雜務를 보는 沙彌가 됨을 이른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공양을 하겠다 하며 작별을 고하면서 "나는 다행히도 승도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은 빠르고 나의 행동에는 아무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수토파에는 불타의 사리가 있고 불덕(佛德)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통해 코끼리들까지 그 소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이곳에 머무르면서 코끼리들과 함께 남은 목숨을 다할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일행들은 "그거 훌륭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번뇌가 많아 그것에 미처 생각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시절이 바뀔 때마다 품행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친구들을 떠나 심원(心願)을 되풀이하면서 흔연히 혼자 살며 이 세상을 마칠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띠풀을 이어 집을 짓고 냇물을 끌어 연못을 만들며 철철이 꽃을 따서 공양하고 탑의 경역을 소제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도 마음 먹은 바에 변함이 없었다.

이웃나라 왕들도 이 소식을 듣고 훌륭하다고 느껴 다투어 재물과 보화를 희사함으로써 함께 가람을 세운 다음 그것을 계기로 삼아 그를 초청해 승무(僧務)를 보아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 다음부터 계속해 창시자의 공적은 스러지지 않고 사미로써 승무를 맡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석가 낙식(落飾)의 성적(聖跡)

사미가람 동쪽, 큰 숲 속을 1백여 리 가면 큰 수토파에 이른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태자가 성을 넘어 이곳까지 와서는 보의(寶衣)를 벗고 영락을 떼어낸 다음 종자에게 돌아가도록 명한 곳이다. 태자는 한밤에 성을 나와 새벽녘에 이곳까지 왔다. 이미 숙원을 이루어 마음속으로 "여기가 내가 세속이라고 하는 수레를 버

릴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천관(天冠) 속에서 마니보〔末尼寶 : 眞珠 · 珠玉 · 寶石의 뜻〕를 끌러 종자에게 주면서 "너는 이 보석을 갖고 돌아가 부왕에게 '이제 여기서 멀리 세상을 벗어나려 함은 경솔하게 부모를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무상을 끊고 모든 번뇌를 끊고자 함입니다'라 하더라고 아뢰어라" 하고 일렀다. 찬다카〔闡鐸迦 : 옛날에 車匿이라 했음은 잘못. 태자의 말몰이꾼 이름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레를 버리고서 어찌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으나 태자가 잘 설득시킨 덕분에 그는 태자의 마음을 알고 돌아갔다.

회가(廻駕) 수토파 동쪽에 잠부나루가 있다. 나뭇가지와 잎들은 말라 떨어졌으나 마른 그루터기는 아직 남아 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작은 수토파가 있는데 태자가 아직 몸에 남아 있는 보의를 녹비(鹿皮) 옷과 바꾸어 입은 곳이다. 태자는 머리를 자르고 의상을 바꾸고 영락을 떼어냈으나 그래도 천의(天衣 : 寶衣)가 남아 있었다.

"이 옷은 너무 사치스럽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숫다바사〔淨居天 : '聖者가 사는 하늘'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그곳에 사는 天人의 뜻〕가 사냥꾼으로 모습을 바꿔 녹비 옷을 입고 활을 들고 화살을 메고 나타났다.

태자는 자기 옷을 들고 "당신 옷과 바꾸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오" 했더니 사냥꾼은 "좋소" 하고 대답했다. 태자는 자기 웃옷을 벗어 사냥꾼에게 주고 사냥꾼은 태자의 옷을 받자 다시 천인이 되어 손에 받아 든 웃옷을 들고 허공을 헤치면서 사라져 갔다.

태자가 옷을 바꿔 입은 수토파쪽 멀지 않은 곳에 또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태자가 머리를 깎은 곳이다. 태자는 찬다카에게서 칼을 받아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제석천은 그 머리카락을 받아 쥐고 천궁으로 가서 공양했다. 그때 숫다바사가 삭발인으로 몸을 바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고요히 다가왔다.

태자는 "머리를 배코 칠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내 머리를 깨끗이 깎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변신한 천인은 부탁받은 대로 태자를 위해 배코를 쳐 주었다.

성을 떠나 출가한 때는 분명하지 않으나 혹자는 보살의 나이 19세라 하고 혹자는 29세라 한다. 바이샤카월의 후반 8일에 출가했다고 한다. 이는 당에서의 3월 8일

에 해당하는데 혹자는 바이샤카월의 후반 15일이라고도 한다. 이는 당나라에서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

4) 핍팔라바나 읍의 회탄 탑

태자가 삭발한 수토파에서 동남쪽으로 광야 속을 가기 1백 8~90리 해서 니그로다 숲에 이른다. 거기 높이 30여 척의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적멸했을 때 사리가 모두 분배되어 바라문들은 입수할 수 없게 되었다. 닛자파나(涅疊般那 : 당에서는 焚燒라 함. 옛날에 闍維라 했음은 잘못. 시체를 焚素하여 그 유골을 收藏하는 葬法)한 곳에서 남은 재와 탄을 모아 본국으로 가져가 이 영탑(靈塔)을 세우고서 공양한 곳이다. 그런 뒤로 기적이 계속 일어나 병든 자가 기도하면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회탄(灰炭) 수토파 쪽 낡은 가람 안에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 있다. 옛 가람의 좌우에는 수백의 수토파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기초는 기울어 있으나 높이 1백여 척 남짓하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큰 숲 속을 간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다. 들소, 들코끼리, 도둑떼, 사냥꾼 등이 여행자를 기다렸다가 해를 끼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숲을 벗어나면 쿠시나가라국에 이른다.

## 4. 쿠시나가라국

1) 개관

쿠시나가라국(拘尸那揭羅國 : 지금의 Gorakhpur 市 동쪽 30마일의 Kasia, Kasaya라고 하는 설과 네팔 領內 Gandak 江 동쪽, Little Rapti 강이 Gandak 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있었다는 등 諸說이 분분함)은 성곽이 붕괴되고 촌락은 퇴락해 있다. 벽돌로 된 옛 성의 기초는 주위가 10여 리 된다. 주민은 적고 거리도 황폐해져 있다.

2) 춘다의 옛 집

성안 동북쪽 귀퉁이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춘다(准陀 : 옛날에는 純陀라 했으나 잘못임)의 옛 집이다. 집안에 우물이 있는데 석존에게 공양드리고자 하여 판 것이다. 세월이 이미 많이 흘렀으나 물은 아직도 깨끗하다.

3) 불타 입멸의 성지

성의 서북쪽으로 3~4리 가서 아지타바티 강(阿恃多伐底河 : 당에서는 無勝이라 함. 이는 세상의 共稱일 뿐이다. 옛날에 阿利羅跋提河라 했음은 잘못. 典言에 이를 尸賴拏伐底河라고 번역하여 有金河라 한다)을 건너게 된다. 서쪽 기슭에서 조금 가면 살라 숲(娑羅林 : 龍腦香料에 속하는 喬木)에 이른다. 그 나무는 떡갈나무 비슷한데 거죽이 푸르죽죽하고 잎은 윤기가 있으며 이곳에 특별히 4개의 나무가 있는데 여래가 적멸한 곳이다. 그곳의 벽돌로 만든 큰 정사 안에 여래의 열반의 상이 있다.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누워 있다. 옆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기단은 허물어져 기울고 있으나 높이는 아직도 2백여 척이 된다. 앞에 돌기둥이 세워져 있고 여래가 적멸한 사적이 적혀 있는데 글은 있으나 적멸한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4) 불타 입멸의 연월일

불멸(佛滅)의 연월일을 선대의 기록에서 보면 부처님은 80이 되어서 바이샤카월의 후반 15일에 반열반(般涅槃 : 寂滅)에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의 3월 15일에 해당한다. 설 일체유부에서는 부처님은 카르티카월(迦刺底迦月 : 8월. 3권의 1-4 참조)의 후반 8일에 반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나라에서의 9월 8일에 해당한다.

부처님의 열반 연대에 관해서는 제부에 이론이 많아서 혹은 1천 2백여 년이라 하고 혹은 1천 3백여 년이라 하며 혹은 1천 5백여 년이라 하는가 하면, 혹은 이미 9백 년은 지났으나 1천 년은 되지 않았다고도 한다.

5) 치왕 본생담

불타가 입멸하여 열반에 든 정사 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보살행을 수도할 때 떼를 지은 꿩 무리의 왕이 되어 불을 끈 곳이다. 옛날 이곳에 큰 밀림이 있었는데 날짐승과 들짐승이 집을 짓고 굴을 파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돌풍이 갑자기 사방에서 불면서 맹렬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때 한 마리 꿩이 애련함을 느끼고서 깃을 맑은 물에 적셔 하늘을 날면서 힘껏 물을 떨궜다. 그러자 제석천은 천계에서 아래를 향해 “너는 어찌하여 어리석게도 쓸데없는 날갯짓을 하고 있는가. 큰 불이 일어나 숲이나 들을 모두 태우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같이 작은 날짐승이 불길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자, 꿩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제석천이다” 하고 대답하자 꿩은 “제석천이라 하면 큰 복력을 지녀서 소망한 것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재난을 구조하는 것도 손바닥을 뒤지는 것같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도리어 소용없다 힐책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불은 지금이 한창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만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곧장 되풀이하여 맑은 물로 날아갔다. 그래서 제석천도 물을 퍼서 그 숲에 뿌리자 불과 연기는 스러지고 생물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구화(救火) 수토파라고 한다.

6) 구생록 본생담(救生鹿本生譚)

구화 수토파 옆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보살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사슴이 되어 생물을 구한 곳이다.

옛날에 이곳에 큰 숲이 있었는데 불길이 들판 가득히 타올라 새와 짐승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앞에는 급류의 위험이 있고 뒤에는 큰 불길이 덮치는지라 물에 빠져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사슴은 불쌍히 여긴 나머지 자기의 몸뚱이를 강에 가로눕혀 생물들을 건너가게 했다. 가죽은 찢어지고 뼈는 부러졌으나 잘 견뎌 그들이 빠져 죽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절름거리는 토끼가 왔을 때도 지쳐 있는 몸을 가누어 구해 준 다음 그는 이내 힘이 빠져 그대로 물에 빠져 죽

었다. 천인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수토파를 세운 것이다.

7) 범지선현(梵志善賢)

사슴이 빠져 죽은 수토파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수바드라〔蘇跋陀羅 : 당에서는 善賢이라 함. 옛날에 須跋陀羅라 함은 잘못〕가 적멸에 든 곳이다. 선현은 본래 범지(梵志 : 婆羅門)의 스승이었다. 나이 1백 20세까지 장수했으며 지혜도 깊었다. 부처님이 적멸한다는 말을 듣고 사라쌍수 밑으로 가서 아난에게 "불세존께서 적멸하려 하십니다만 나는 아무래도 풀지 못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쭤 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자 아난은 "부처님은 이제 곧 열반에 들려 하십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선현은 "부처님〔一切智者〕은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정법은 듣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깊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만약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면 그때는 가르침을 청할 분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선현은 소원대로 들어가 먼저 부처님에게 질문하여 "여러 별파(別派)의 중도(衆徒 : 예컨대 六師外道)가 스스로 스승이라 일컬으면서 각기 다른 교의를 받들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타마(喬答摩 : 옛날에 瞿雲이라 함은 잘못임. 여기서는 釋尊을 이렇게 부른 것임)께서는 잘 아십니까?"라고 말했더니 부처님은 "나는 모두 깊이 연구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설명해 주었다. 선현이 이 말을 듣자 마음이 개운해지면서 이해하게 되었으며 불문에 들어 구족계(具足戒)를 받겠다고 했다.

여래는 "그대에게 가능할 것인가. 외도이학(外道異學)의 자로서 범행(梵行 : 淸淨無慾의 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4년간 그 행동을 잘 보고 그 성질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오. 행실이 조용하고 바르고 언어가 성실하면 우리 불문에 들어도 좋소. 맑은 마음으로 범행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에 있는 것이니 사람에 따라 빠르고 더딤은 있다 해도 어찌 어려운 일이기야 하리요"라고 말하자 선현은 "세존께서는 자비심이 깊어 중생을 제도함에 사심이 없으십니다. 나는 4년 동안 학습하여 3업(三業 : 身 · 口 · 意에서 오는 善惡의 행동)의 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렸을

뿐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선현은 출가하여 곧 구족계를 받고 심신을 함께 수양함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미 가르침에 의문도 없어지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그 밤이 새기 전에 나한과를 증함으로써 번뇌를 잊고 범행을 완성했다.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는 것도 보지 못하고 뭇 제자들 속에서 화계정(火界定 : 火光定 또는 火光三昧라고도 함. 몸에서 갖가지 빛의 火炎을 뿜으면서 드는 定)에 들고 신통의 사상(事象)을 나타내며 부처님보다 먼저 적멸했다. 여래 최후의 제자이면서 입멸을 먼저 한 것인데 이 사람이야 말로 그 옛날 마지막으로 강을 건넜던 절름발이 토끼였다.

8) 집금강신의 비통

선현이 적멸한 수토파 옆에 또 수토파가 있다. 집금강(執金剛)이 땅에 넘어져 슬퍼한 곳이다. 대비세존(大悲世尊)이 중생의 기미에 따라 교화의 공이 끝나고 안락에 들어 쌍수 사이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가로누웠다. 집금강신과 밀적역사(密迹力士 : 金剛力士의 한 사람)는 부처님의 멸도(滅度)를 보면서 슬퍼 탄식하며 "여래는 우리들을 버리시고 대열반에 드신다. 오늘부터는 귀의할 분들만 계시고 수호할 분은 안 계신다. 독전(毒箭 : 번뇌)이 깊숙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고뇌의 불길은 왕성하게 탄다"라고 말하고는 금강저(金剛杵)를 버리고 괴로워하더니 땅에 쓰러져 슬퍼했다.
잠시 후 다시 일어나 슬피 사모하면서 "가없는 생사의 대해에서 누가 우리를 태워 이끌어 줄 배를 만들어 주겠는가. 어둠 속의 긴 밤과 같은 생사계(生死界)에 유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이끌어 줄 등불 구실을 해 줄 것인가"라고 서로 말했다.

9) 불타 입멸 후의 7일 공양

금강벽지(金剛躃地) 수토파 옆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적멸한 뒤 7일 동안 공양한 곳이다. 여래가 적멸하려 하자 광명은 널리 비치고 인계 · 천계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서로들 “대각세존(大覺世尊)께서는 지금 정히 적멸하려 하신다. 중생의 복덕은 이제 다하여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지리라”고 말했다. 여래는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하고 사자상(師子床)에 가로누워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여래가 마침내 적멸해 버린다고들 말하지 말라. 육신은 멸해도 부처의 본신으로서의 법신(法身)은 남아 있어 모든 변이(變易)에서 떠나 존재한다. 그대들은 태만심을 버리고 어서 해탈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많은 비크슈들은 울면서 슬퍼했다. 그때 아니룻다는 비크슈들에게 “그만, 그만. 슬퍼하지들 마시오. 천인들이 노여워할 것이오” 하고 말했다.

마침 그때 말라(末羅 : 고대 인도 16대국의 하나) 종족의 무리가 공양을 마치고서 금관(金棺)을 받들어 닛자파나〔涅疊般若 : 6권의 3-4 참조〕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자 아니룻다는 “그만두십시오. 천인들이 여기 머무르면서 7일 동안 공양드리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천인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꽃을 들고 허공을 돌며 찬양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함께 되어 공양을 성대하게 베풀었다.

### 10) 마야 부인의 통곡

관이 머무른 수토파 옆에 수토파가 있다. 마하마야〔摩訶摩耶 : 6권의 2-2 참조〕부인이 부처님의 입멸을 통곡한 곳이다. 여래가 적멸하자 옷을 입히고 입관을 마쳤다. 그 다음 아니룻다는 천궁에 올라가 마야 부인에게 “대성법왕(大聖法王) 불타께서 이제 이미 적멸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소리도 막히고 숨도 끊어지는 듯했다. 여러 천인과 더불어 쌍수 사이에 이르렀더니 상가티와 발우와 석장이 눈에 띄었다. 이를 붙들고 소리 높여 울어 숨이 끊어지는 듯했는데 다시 소리를 높여 “인계와 천계 모두 복락이 다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스러졌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물건들은 공허하여 주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여래의 성덕의 힘에 의해 금관이 스스로 열리는데, 부처님은 광명을 내비치고 합장하여 앉아 있더니 어머니가 멀리 내려온 데 대해 “제행(諸行)의 법은 스스

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諸行無常].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하고 위로했다. 아난은 슬픔에 못 이겨 부처님에게 "후세 사람들이 저에게 세존의 적멸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옳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이미 열반에 든 다음 자모(慈母)인 마야 부인이 천궁에서 내려와 나무 사이로 오셨다. 여래는 모든 불효한 중생들을 위해 금관에서 일어나 합장 설법했다고 하라"고 말했다.

11) 여래의 다비소

쿠시나가라 성 북쪽, 강을 건너 3백여 보 되는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의 몸을 불태운 곳이다. 지면은 지금 황혹색이며 땅은 회탄(灰炭)이 섞여 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찾으면 불사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여래가 적멸했을 때 하늘과 뭇 대중이 모두 슬퍼한 가운데 칠보(七寶)로 관을 만들고 천첩(天氎)으로 몸을 싼 다음 향화를 실시하여 번개(旛蓋)를 세웠다. 말라족 사람들이 상여를 받들어 출발하고 대중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랐다. 북으로 유금하(有金河 : 6권의 4-3 참조)를 건넌 다음 향유를 가득 채우고 향나무를 많이 쌓아서 불을 놓아 태웠다. 그런데 2장의 첩만은 타지 않았다. 1장은 가장 몸 가까이 있던 것이고 또 다른 1장은 가장 밖을 덮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중생을 위해 여래의 유신은 타고 사리는 분산되었다. 다만 머리카락과 손톱 · 발톱은 그대로 남아 조금도 손상됨이 없었다.

12) 카샤바의 전설

분신 수토파 옆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카샤바[迦葉波]를 위해 두 발을 나타낸 곳이다. 여래가 금관에 들어가고 향목을 쌓아 불을 붙였건만 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아니룻다가 "카샤바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때 카샤바는 5백 제자와 더불어 산림 속에서 나와 쿠시 성에 이르러서는 아난에게 "세존의 존체를 지금도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하늘과 사람이 모두 슬퍼하여 그 무리의 눈물이 흘러 물들여서 이같이 다른 색이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카샤바가 예배드린 다음 관의 주변을 돌면서 찬탄을 올렸더니 향나무는 자연히 타올랐다. 이런 까닭으로 여래는 적멸한 다음 세 번 관에서 나온 셈이었다. 처음에는 팔뚝을 내어 아난에게 도로가 수리되었는가를 물었고 다음에는 일어나 어머니에게 설법했으며 마지막에는 두 발을 카샤바에게 내 보인 것이다.

13) 석가 사리의 분배

현족(現足) 수토파 옆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8명의 왕이 사리를 분배한 곳이다. 앞에 돌기둥이 세워져 그 사적을 새겨 적어 놓고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닛자바나〔涅疊般若 : 茶毗〕를 마쳤다. 8국의 왕들은 사병(四兵 : 步 · 馬 · 車 · 象)을 갖추고 와서 드로나〔直性 : 香姓 또는 姓烟이라고도 번역됨. 부처님에게 귀의한 바라문으로 사리를 원만하게 분배한 공에 의해 분배에 사용된 瓶을 얻어 탑을 세웠다고 함〕 바라문을 보내 쿠시나가라의 역사(力士 : 말라族)에게 “천계와 인계의 도사인 여래가 이 나라에서 적멸하였으므로 멀리서 사리의 분배를 부탁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게 했다. 역사는 “여래가 내려오신 곳은 이 말라 종족이 사는 쿠시나가라입니다. 세상의 훌륭한 도사를 잃고 중생의 자부(慈父)를 잃었습니다. 여래의 사리는 우리가 공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들은 먼 길에서의 내방도 헛수고가 되어 사리를 입수하지 못하게 되겠으므로 더욱 겸손하게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예로써 부탁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군대가 가까이에 있음을 아시오” 하고 말했다.

드로나 바라문은 소리를 높여 “잘 생각해 보시오. 대비세존은 힘써 복선을 타고 영겁에 드셨습니다. 자세하게 들은 바를 상기해 보건대, 여기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사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등하게 8개로 나누어 각기 공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하여 군대를 동원할 일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역사들은 그 말에 따라 곧 똑같이 8등분 하자고 했다. 그러자 제석천은 왕들에게 “천인에게도 분배는 있어야 한다. 힘을 믿고 싸우지 말도록!” 하며 당부했고, 아나바타프타 용왕, 무칠린다〔目支鄰陀 : 8권의 6-18 참조〕 용왕, 엘라팟트라〔醫羅鉢

咀羅) 용왕도 함께 "우리도 빠뜨리지 마시오. 만약 힘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소" 하며 나섰다. 드로나 바라문은 "떠들지들 마시오.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하고 곧장 3등분 했다. 하나는 제천(諸天), 둘은 용중(龍衆), 셋은 인간계에 주면서 8국이 그 하나를 겹쳐서 분배받았다. 하늘도, 용도, 인왕(人王)도 불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다.

14) 라훌라의 전설

분사리(分舍利) 수토파에서 서남쪽으로 2백여 리 가면 큰 촌락에 이른다. 여기 어떤 바라문이 살았다. 그 고장에서 견줄 사람이 없는 호족으로 거부를 지녔으나 다른 호족과는 분명히 같지 않았다. 학문은 5명(五明)에 이르렀고 삼보를 공경함이 두터웠다. 그 주거 옆에는 승방을 세우고 비용을 들여 장식을 했다. 승도로서 길을 가는 자가 있으면 묵어갈 것을 공손히 이르고 마음을 다해 공양하는 가운데 하루 혹은 7일 동안까지도 유숙하게 했다.

그러나 다음 대의 샤상카 왕이 불교를 궤멸함에 따라 승도들도 없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바라문은 항상 마음으로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산책 도중에 눈썹이 길고 백발이며 석장을 짚고 오는 한 사문을 만났다. 바라문은 달려가 마중하면서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고 위로를 보낸 다음 승방에 들 것을 권유하고 갖은 공양을 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순유(純乳)와 죽을 권했다. 사문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번 입에 넣더니 발을 놓고선 침울하게 장탄식했다. 바라문은 먹을 것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대덕(大德 : 貴僧)은 자비를 지니고 다행히도 인연이 있어 이곳에 오셨습니다만 혹시 간밤에 편히 못 주무신 것이나 아닙니까. 아니면 죽의 맛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문은 "나는 중생의 복덕이 차츰 희미해져 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문은 식사를 마치자 바로 의장을 갖추고 떠나려 했다. 바라문은 "아까 말씀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사문은 "내가 잊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용도 혹시 의혹을

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듣겠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탄식을 한 것은 당신의 죽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백 년 사이 이런 맛있는 것을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옛날 여래께서 제세하셨을 때, 나는 때때로 공양을 드리면서 왕사성(王舍城)의 죽림정사에서 맑은 물에 몸을 구부려 그릇을 씻기도 하고 혹은 양치질을 하고 목욕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지금은 순유마저도 옛날의 담수 맛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인천(人天)의 복덕이 흩어져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라문은 "그렇다면 대덕께서는 친히 불타를 모신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문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불타의 아들 라훌라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바로 라훌라입니다. 정법을 지키기 위해 아직 적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문득 모습이 사라졌다. 그래서 바라문은 사문이 유숙한 방에 향을 칠하고 청소를 하였으며 상을 갖추고 의례를 엄숙하게 하고 그 경배함이 오히려 실재함과도 같게 했다. 거기서 다시 큰 숲 속을 5백여 리 가면 바라나시국에 이른다.

# 제 7 권

## 1. 바라나시국

### 1) 개관

바라나시국(婆羅痆斯國 : 지금의 Benares로 고대 인도 16대국의 하나)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서쪽으로 갠지스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길이 18~9리, 넓이 5~6리이다. 민가는 빗살처럼 벌어져 있고, 주인이 많으며 집집마다 거금의 부를 쌓고 있는데 방마다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의 성질은 온순하고 관례로서 학예에 힘쓰는 것을 존중하고 있다. 대부분 외도를 믿고 있으며 소수가 불법을 공경하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고 농업이 성대하다. 과수는 가지를 엇섞고 있고 무성한 풀은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가람은 30여 군데, 승도는 3천여 명인데 모두 소승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백여 군데, 외도는 1만여 명인데 모두가 대자재천을 신봉하고 있다. 혹자는 단발하고 있고, 혹자는 상투를 높이 틀고 있다. 노형(露形)으로 옷을 안 입는 자, 몸에 회를 바른 자 등 고행에 정려(精勵)하며 생사의 경지에서 해탈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대성 안의 천사는 20여 군데이다. 여러 층 되는 대(臺)나 사(祠)의 건물은 돌을 새기고 나무를 장식해 놓고 있다. 무성한 숲은 그늘을 만들고 맑은 물은 교차하여 흐르고 있다. 유석(鍮石)으로 된 대자재천상은 1백 척이 미처 못 되는데, 그 위엄은 늠름하여 참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과도 같다.

### 2) 아쇼카 왕의 탑과 녹원

대성의 동북쪽 바르나 강 서쪽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높이 1백여 척인데 앞에 돌기둥이 서 있다. 파랗기가 거울과 같으며 광택은 물을 엉겨놓은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항상 여래의 영상이 나타나 있다.

바르나 강에서 동북쪽으로 10여 리 가면 녹야가람(鹿野伽藍)에 이른다. 구계(區界)는 8개로 나뉘었으며 잇대어진 담이 주위를 싸고 있다. 여러 층의 처마와 여러 층의 각은 아름다운 구상이 더할 데 없는 것이다. 승도는 1천 5백 명, 무두 소승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큰 담장 안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정사가 있는데 위에는 황금

으로 조각된 암라과가 만들어져 있다. 돌로써 기단과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벽돌로 여러 층의 감(龕 : 감실, 즉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 감은 건물의 둘레를 삥 둘렀고 그 계단은 1백을 헤아릴 정도인데 모두 황금불상이 조각되었다. 정사 안에는 유적의 불상이 있는데 그 크기는 여래의 몸과 같고, 법륜(法輪)을 전(轉)하는 설법 자세를 취하고 있다.

### 3) 초전법륜의 성지

정사 서남쪽에 아쇼카 왕이 세운 석조 수토파가 있다. 기단은 붕괴되어 기울었으나 지금도 1백 척 남짓 된다. 앞에 높이 70여 척 되는 돌기둥이 서 있다. 돌은 구슬 같은 윤기를 머금고 거울같이 곱게 영상을 비춘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타나며, 보는 사람의 선악의 상도 나타나는 때가 있다. 여래가 깨달음을 이루어 처음으로 법륜을 전한 곳이다.

그 옆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아지냐타콘디냐〔阿若憍陳如 : 淨飯王이 釋迦에게 衛從시킨 五釋種. 釋迦는 이들이 사는 鹿苑으로 가 최초의 설법을 했다. 먼저 憍陳如가 悟道했고, 이어 다른 4명도 悟入함으로써 최초의 제자가 됨〕 등이 보살이 고행을 그만둔 것을 보고 임금을 호위하는 것을 그만두고 여기에 와서 선정(禪定)에 들었다.

그 옆 수토파는 5백 명의 독각(獨覺 : 스승 없이 스스로 修行하여 깨닫는 자)이 동시에 열반으로 든 곳이다. 또 다른 3개의 수토파가 있다. 과거삼불의 좌소 및 산책한 유적이다.

### 4) 자씨보살 수기탑

삼불경행(三佛經行) 수토파 옆에 수토파가 있다. 마이트레야〔梅呾麗耶 : 당에서는 慈라 함은 姓이다. 옛날에는 彌勒이라 했으나 잘못임〕 보살이 부처님이 될 예언을 받은 곳이다. 옛날 여래가 왕사성(王舍城)의 취봉산에서 비크슈들에게, "다음에 올 세상에서 이 잠부주가 평화롭고 사람들의 수명이 8만 세 까지 살 때 바라문의 아들로 자씨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신체는 황금빛으로 광명은 주위를 비추고

출가하여 정각을 이룬 끝에 널리 중생을 위해 삼회(三會)의 설법을 행할 것이다. 거기서 제도(濟度)되는 자는 모두 나의 유법(遺法)을 이어받아 복선(福善)을 중생 가운데 심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삼보(三寶)를 일심으로 존경하며, 재가출가, 또는 계(戒)를 지키는 자, 범하는 자를 가릴 것이 없이 모두 가르침을 받고 해탈을 증득할 것이다. 삼회의 설법 중 먼저 나의 유법을 이어받을 자들이 제도되고, 그 다음 인연이 있어 우리와 더불어 선행을 함께하는 자들이 교화 되리라"고 말했다. 이때 자씨보살은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좌석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원컨대 나는 지금 말씀하신 자씨세존으로 되고자 합니다" 하자 여래는,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이 성불의 열매를 증득할 것이다 이때까지 내가 한 설법은 그대를 교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5) 호명보살

자씨보살수기 수토파의 서쪽에 수토파가 있다. 석가보살이 기(記 : 예언)를 받은 곳이다. 과거사불의 현재 현겁 중의 수명이 2만 세일 때 카샤바불이 세상에 나타나 묘법륜(妙法輪)을 전하여 중생을 깨우쳐 인도한 끝에 호명보살(護明菩薩)에게서 기(記)를 받는 가운데, "이 보살은 오는 세상에 중생의 수명이 1백 세일 때 반드시 성불하여 석가모니라 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6) 4불의 유적과 삼청지(三淸池)

석가보살수기 수토파 남쪽 멀지 않은 곳에 과거사불이 산책한 유적이 있다. 길이 50여 보, 높이는 7척, 푸른 돌을 쌓아 올렸는데 위에 여래가 산책한 상을 만들어 놓았다. 형상은 우아하고 위엄이 있으며, 그 육계(肉髻 : 無見頂相, 즉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 저절로 상투 모양이 된 것) 위에는 머리카락이 나와 있다. 불가사의한 모습은 숨김이 없고 영험은 새롭기만 하다. 그 녹야가람 담장 안에는 성적이 대단히 많은데 정사나 수토파는 수백 군데 있으나 대략 2~3개를 들 정도일 뿐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가람 담장 서쪽에 하나의 맑은 연못이 있다. 주위가 1백 80보인데 여래가 지난날

그릇을 씻은 곳이다. 그 북쪽에도 연못이 있다. 주위가 1백 50보인데 여래가 지난 날 옷을 빤 곳이다.

이 세 연못에는 모두 용이 살고 있다. 그 물은 깊고 그 맛은 달며 맑고 흐림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증감하는 법이 없다. 오만한 마음을 지닌 자가 이 연못에서 빨래를 하면 쿰비라수〔金毗羅獸 : 蛟龍인데 악어를 神格化한 듯〕가 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만약 경의를 품고 하게 되면 물을 길어도 아무 탈이 없다.

옷을 빨았던 연못 쪽에 크고 네모난 돌 위에 여래의 가사 자국이 있다. 그 무늬는 마치 새겨 놓은 듯이 분명하다. 신자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공양하고 있으며 외도나 악인이 경솔하게 이 돌을 밟으면 연못 속의 용왕이 곧잘 비바람을 일으킨다.

7) 육아상(六牙象)왕 본생담

연못 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보살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여섯 개의 이빨을 가진 코끼리왕이 되어 있었다. 사냥꾼이 그 상아를 입수하고자 하여 거짓 가사를 입고 승도 모양을 하고서 활을 쏘아 코끼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코끼리 왕은 가사를 존경한 나머지 상아를 비틀어 빼내어서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8) 치왕(雉王) 본생담

상아를 주었다는 수토파 옆 멀지 않은 곳에 또 한 개의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보살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세상에 예절이 없음을 애통히 여겨 교시하기 위해 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 본생담에 나오는 원숭이나 흰 코끼리와, 이곳에서 누가 맨 처음으로 니그로다수〔尼拘律樹〕를 보았는가를 말하면서 각자가 처음으로 본 나무의 크기 등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그에 따라 어른과 아이의 서열을 편성했더니 그 교화는 차츰 멀리까지 미치고 사람들도 상하의 절도를 알게 됨으로써 출가 · 재가를 불문하고 모두 귀의했다.

9) 사슴왕 본생담

치왕 수토파 쪽에서 멀지 않은 큰 숲 속에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데바닷타와 함께 사슴의 왕이 되어 사건을 처리한 곳이다. 옛날 이 숲 속에는 두 떼의 사슴이 있었는데 각기 5백여 마리씩이었다. 당시의 이 나라 왕이 사냥을 했는데 그때 여래가 변신한 녹왕이 왕 앞에 나아가, "대왕께서는 중원에서 사냥하시면서 불을 지르고 화살을 날리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목숨이 오늘에 다하여 며칠 안에 썩음으로써 상 위에 오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차례를 정하여 하루에 한 마리의 사슴을 보낼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에게는 신선한 요리감이 되고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절박한 목숨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서 수레를 되돌려 돌아갔다. 두 떼의 사슴들은 교대로 한 마리씩의 목숨을 왕에게 보냈다. 데바녹왕(提婆鹿王)의 사냥터 안에 새끼를 가진 사슴이 있었는데 순번에 따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나의 몸이 죽을 차례입니다만, 뱃속의 새끼는 아직 그 차례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더니 데바녹왕은 노하여 "누구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있겠는가(너에 가름할 자가 있을 리 없다)"라고 말했다.

암사슴은 비탄하면서 "우리 왕은 인자한 분이 아니다. 얼마 안 있어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서 긴급사태를 보살녹왕에게 말했다.

녹왕은 "어미의 마음이 그 얼마나 슬픈 것인가. 은혜는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않은 자식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이제 내가 너를 가름하리라"하고서 그대로 그 나라 왕의 성문으로 갔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저 큰 녹왕이 지금 성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외쳤다.

성안 사람들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달려 나와 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거짓이리라고 생각했으며 문지기가 사정을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곧이들었다.

왕이 "녹왕이 어찌하여 갑자기 왔는가?" 하고 묻자, 녹왕은 "암사슴이 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만 뱃속의 새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그 가련함을 참

지 못하여 내 몸으로써 가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서 감탄하여 "나는 사람 몸이면서도 사슴과 같은 마음인데, 그대는 사슴이면서도 참다운 사람이로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모든 사슴들을 해방하고 두 번 다시 목숨을 보내오지 말도록 했다. 그러면서 곧장 그 숲을 사슴들이 사는 곳으로 하였으니 그에 따라 이름도 시록림(施鹿林)이 되었다. 녹야(綠野)의 칭호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다섯 명의 석씨들

가람 서남쪽 2~3리에 3백여 척되는 수토파가 있다. 기단은 넓고 높으며 장식도 별나게 진귀한 것이다. 기단 위에 층감(層龕)이 없고 곧 바로 복발(覆鉢 : 塔身)이 놓였으며, 표주(標柱 : 傘竿)는 세워졌지만 윤탁(輪鐸 : 相輪과 거기에 다는 鈴鐸)은 없다. 그 옆에 작은 수토파가 있다. 아지냐타콘디냐〔阿若憍陳如〕 등 5명이 약속을 버리고 부처님을 봉영한 곳이다.

처음에 사르바르타싯다〔薩婆曷剌他悉陀 : 唐에서 一切義成이라 한다. 옛날에 싯다르타, 즉 悉達多라 했음은 잘못임〕 태자가 출가한 다음 산에서 살고 골짜기에 숨어 일신을 잊고서 법(法)에 몸을 바쳤다. 그리하여 정반왕은 가족 3명과 외숙 2명에게 명하여, "내 아들 일체의성은 집을 버리고 수행하여 친구도 없이 산야로 나가 홀로 숲 속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태자를 따라 태자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도록 명령한다. 안의 관계로는 숙부와 외숙이고 밖의 관계로는 군과 신이다. 태자의 동정에 관하여 충분히 그 진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명은 명을 받들고 서로 호위하면서 이를 기회로 하여 출리(出離 : 解脫)를 마음속에 기약하고자 했다. 서로에게 "도대체 수도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가운데 깨닫는 것인가 괴로움 없이 깨닫는 것인가" 하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안락이 도(道)이다" 했고 세 사람은, "고행하는 것이 도이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과 세 사람의 짝이 언쟁을 벌였으나 분명해지지는 않았다.

그때 태자는 지상(至上)의 진리를 사유(思惟)하는 가운데 고행하는 외도(外道)를 굴복시키기 위해 죽과 밥을 절식하면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두 사람 패는, "태

자가 하고 있는 것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 도대체 도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중에서 깨닫는 것인데 지금 태자가 고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무리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태자를 버리고 멀리 떠나 증과(證果)를 얻으려 했다.

태자는 6년 동안 고행을 했으나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고행은 참다운 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마을 아낙네로부터 젖죽을 받아 체력을 갖춘 다음 증과를 얻으려고 했다. 세 사람 패는 이 말을 듣고 낙담하여,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만두어 버렸다. 6년 고행의 공을 하루아침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함께 왔던 두 사람 패를 찾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다.

"옛날 태자 일체의성은 왕궁을 나가 황곡(荒谷)으로 갔다. 훌륭한 옷을 벗고 녹피(鹿皮)를 입으면서 정려근면하여 뜻을 외곬으로 깊은 묘법을 구함으로써 무상의 증과를 얻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 아낙네의 젖죽을 받고 법도를 깨뜨리면서 뜻을 굽히고 말았다. 우리는 잘 알았다. 태자는 아무 일도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고 세 사람 패가 말하자 두 사람 패는 "당신들은 어찌 그리 깨달음이 늦었습니까? 그 사람이야 말로 실패자입니다. 깊은 궁 안에서 자라면서 높은 지위에 익숙해 있었으니 뜻을 고요히 하여 거쳐 가는 곳을 산림 속 멀리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륜왕 같은 자리를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일이겠소. 말을 꺼내면 우수(憂愁)만 더 덮쳐 올 뿐이오" 하고 말했다.

보살은 니란자나 강〔尼連禪河 : 9권의 尼連禪那河가 바름〕에서 목욕하고 보리수 아래 앉아 등정각(等正覺 : 一切 法을 覺知함)을 완성하고서 천인사(天人師)라 일컬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먼저 제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 우드라카라마푸트라〔欝頭藍子 : 釋迦는 出家 後 이 仙人에게서 한때 修行했다〕는 비상정(非想定 : 자세하게는 非想非非想處定이라 함)을 깨달았으니 이 묘법을 이어받는데 충분하리라"고 했더니 공중의 제천은 태자의 소리에 따라 "우드라카라마푸트라는 명종(命終)하여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라고 알렸다.

여래는 "어찌하여 나를 만나 묘법을 들려주지 않고 멀리 변화사몰(變化死歿)한 것인가" 하고 탄식했다.

계속하여 세계를 관찰하면서 사람을 찾았더니 아람 가람이 있었다. 무소유처정(無

所有處定)을 증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상의 진리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제천은 또 "명종하여 이미 5일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여래는 다시 탄식하면서 그 박행(薄倖)을 슬퍼했다. 다시 또 누가 교법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똑똑히 살폈던 바, 다만 시록림(施鹿林) 속에 있는 5명만이 우선 이끌어 내기에 알맞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래는 보리수 아래서 일어나 녹야원(綠野園)으로 갔다. 위의는 조용하게, 장엄한 빛깔로 주변을 비추고 백호(白毫 : 부처님의 32相의 하나. 눈썹 사이에 난 털로서 광명을 無量世界에 비친다고 함)는 옥과 같은 색채를 띠고 몸은 황금색이었다. 고요하게 전진하여 그 5명을 인도하려고 했다. 그 5명은 멀리 여래를 보고서 서로 "저기 오는 사람이 일체의성이다. 세월이 빨리 흘러 오탈(悟脫)을 증할 수 없어 물러나가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모두 가만있도록 하자. 일어나서 맞는 예를 그만두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여래가 다가옴에 따라 위엄은 사물을 움직일 정도였기에 5명은 제지(制止)도 잊고 나가 마중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규칙 그대로였다. 여래는 순순(循循)하게 지도하면서 5명에게 지묘(至妙)의 도리를 깨우쳤는데, 우안거가 끝날 무렵 5명은 깨달음을 얻었다.

11) 구명지의 전설
시록림에서 동쪽으로 2~3리 가면 수토파에 이른다. 그 옆에 마른 연못이 있다. 주위는 80여 보 된다. 구명지(救命池)라고도 하고 열사지(烈士池)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 옛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백 년 전에 한 사람의 은사(隱士)가 있었다. 그는 이 연못 옆에 움막을 짓고 세상과 교섭을 끊는 가운데 널리 기술을 연마하고 신통(神通)의 비리(秘理)를 다하여 와력(瓦礫)을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과 짐승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었다. 다만 풍운(風雲)을 조어(操禦)하고 선인(仙人)의 수레에 모시고 타는 것만은 할 줄 몰랐다. 그는 그림을 열람하고 옛 것을 연구하면서 더욱 깊은 선술을 터득하기 위해 힘썼다. 그 술서(術書)에, "대저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장생(長生)의 술(術)이

다.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세운 다음 주위 1장(丈) 남짓한 단장(壇場)을 세우고 열사(烈士)로서 용무(勇武)가 현저한 자로 하여금 장검을 쥐고 단의 귀퉁이에 서게 하면서 숨을 죽이고 말을 하지 않은 채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있게 한다. 선술을 구하는 자는 단의 중간에 앉아 손에는 장검을 쥐고 입으로는 신주(神呪)를 외고 시력이나 청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벽녘에 이르러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데 손에 쥔 칼로 지휘하면 누구나 복종하게 되는데, 쇠약해지는 법이 없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느니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선술을 터득하였으므로, 열사를 찾아 나섰다. 이리저리 찾아다니기 몇 년,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성중(城中)에서 울면서 길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은사는 그 인상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곧장 "어찌하여 이리 슬퍼하고 있소" 하고 위로했더니 "나는 가난하여 막일을 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 특별히 신용을 얻으면서 만 5년만에는 두둑한 상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을 참고 괴로움을 잊으면서 일하는 가운데 5년이 다 되어가던 차에 한 번의 과실로 태형(笞刑)의 치욕을 받고 또 받기로 되었던 것도 못 받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만 슬퍼한다고 해서 누가 가엾이 생각하여 주기나 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은사는 함께 자기 움막으로 가자고 한 다음 술력(術力)으로 진수성찬을 차렸다. 연못에서 목욕하게 하고 옷을 새로 입힌 다음 5백금의 돈까지 주면서, "아무쪼록 잊지 말고 다 쓰면 또 달라고 하시오" 하고 말했다. 그 다음부터 몇 번이고 많은 선물을 하는 가운데 남모르는 음덕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감격시켰다. 열사는 가끔씩 목숨을 걸고라도 그 지기(知己)에 보답하겠노라고 했다. 은사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열사를 찾았던 것인데 다행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진기한 인상이 바로 그림에 나타난 대로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단 하룻밤만 소리를 안내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열사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거늘 다만 숨을 죽이는 것 정도가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단장을 설시하고 선법을 받아 지시한 대로 하기로 했다.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기다린 다음 해가 저물자 각기의 임무대로 은사는 신주를 외고 열사는 이도

(利刀)를 쥐었다. 그런데 막 밤이 새려 했을 때 열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길이 내려오고 연기와 화염은 구름같이 솟아올랐다. 은사는 재빨리 이 사람을 끌어 못 속에 넣고 난을 피하게 했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일렀는데 어째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열사는 “명을 받은 다음 밤이 되자 멍해져 꿈속같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찬찬히 보니 내가 섬기고 있던 주인이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당신에게서 받은 두터운 은혜를 느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그 주인은 격노했고 나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저 땅에 이르는 중간인 중음(中陰)에 몸을 받아 스스로의 시체를 보면서 탄식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몇 세에 이르더라도 입을 열지 않음으로써 후덕에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생을 남인도의 대바라문 집에 기탁하여 수태 · 출산 등 갖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덕을 받은 바를 생각하여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학업을 닦고 가관원복(加冠元服)하여 결혼했으며 어버이를 잃고 자식을 얻었습니다만 항상 은혜를 생각하여 참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일가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나이 예순을 지나고도 5년이 되었을 때 나의 아내는 ‘당신은 말을 할 줄 알지요? 만약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젠 전생에서부터 시간은 많이 흘렀으며 노쇠한 몸에 다만 이 자식만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자식을 죽이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입으로 해 버린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은사는 “내 잘못입니다. 이는 마물(魔物)에 씌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열사는 은혜를 느끼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슬퍼해 분한 나머지 죽어 버렸다. 화재의 난을 면했기 때문에 구명지라 하고 은혜를 느끼고서 죽었기 때문에 열사지라고도 하는 것이다.

12) 토왕 본생담(兎王本生譚)

열사지 서쪽에 세 마리 짐승의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보살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몸을 불태운 곳이다. 이 세상이 열렸을 때 이 숲에 여우 · 토끼 · 원숭이가 살았는

데 서로 의가 좋았다. 그때 제석천이 보살행을 수행하는 자를 시험해 보고자 하여 지상으로 내려와 한 늙은이로 변신한 다음 세 마리의 짐승에게 "너희들은 건강하냐? 걱정되는 일은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세 마리의 짐승은 "풍요로운 풀 속을 달려 다니고 무성한 숲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의가 좋아 안온하고 즐겁기도 합니다"고 대답했다.

늙은이는 "너희들이 자상한 정을 나누고 마음도 서로 맞아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듣고 나의 노쇠함도 잊고 이와 같이 멀리서 찾아왔다. 나는 지금 배가 몹시 고픈데 뭐 먹을 것을 좀 주렴" 했더니 짐승들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3마리는 마음을 합쳐 각기 길을 달리하여 찾아 나섰다. 여우는 강변을 따라가서 한 마리의 신선한 잉어를 입에 물고, 원숭이는 숲 속의 나무에 올라가 진기한 꽃과 과일을 따 가지고 와서 함께 노부에게 바쳤다. 그런데 토끼만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언저리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늙은이는 "내가 보건대 너희들은 아직 정말로 의가 좋은 것은 아니로구나. 원숭이와 여우는 각기 충분히 정성을 쏟았는데 다만 토끼만은 빈손으로 돌아와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내 말이 맞는 것 아니냐" 하고 말했다. 토끼는 자기에 대한 말을 듣고 여우와 원숭이에게 "섶을 많이 준비해 다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했다. 여우와 원숭이는 달려가서 풀을 물고 나무를 끌고 왔다. 그 초목이 높이 쌓이고 거센 불길이 한창 솟아오르자 토끼는 "노인장, 내 몸은 재주도 없고 그래서 찾아 나서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제 몸이나마 한 끼의 식사용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불속으로 뛰어들어 죽어 버렸다.

그때 노인장은 제석천의 몸으로 되돌아가 섶을 뒤져 토끼의 시체를 보고 잠시 탄식하더니 여우와 원숭이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까지 생각했단 말이냐. 나는 이 마음씨에 크게 감동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토끼를 달 속에 남겨두어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달 속의 토끼는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라고 말하고 있으

며 후세 사람이 여기에 수토파를 세운 것이다. 여기 갠지스 강의 흐름에 따라 동쪽으로 3백여 리 가면 전주국에 이른다.

## 2. 전주국

### 1) 개관

전주국(戰主國 : 이 國名은 意譯語. 지금의 Ghazipur가 主都에 해당함)은 주위가 2천여 리이다. 도성은 갠지스 강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위가 10여 리 된다. 주민은 안락하게 살며 마을들은 서로 접해 있다. 토지가 비옥하고 농업은 시기에 맞추어 행한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거칠고, 종교와 사교가 모두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1천 명이 못 되는데 한결같이 소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20여 군데 이도인들이 혼거하고 있다.

### 2) 불사리 탑과 불천이사

대성 서북쪽에 있는 가람 안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인도기(印度記)》에는 이 안에 사리가 한 말 들어 있다고 한다. 옛날 세존이 이곳에서 7일 동안 천인중(天人衆)을 위해 묘법을 설교했다. 그 옆에는 과거삼불이 앉았던 자리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그 이웃에는 또 자씨보살의 상이 있다. 형체는 작지만 위광이 있고, 사람들이 모르게 조감(照鑑)을 통해 기적이 간간이 일어난다.

대성에서 동쪽으로 2백여 리 가면 아빗다카르나 승가람〔阿避陀羯刺拏僧伽藍 : 당에서 不穿耳라 함〕에 이른다. 주위의 담장은 넓지 않으나 조각된 장식은 대단히 교묘하다. 피어난 꽃과 연못의 물은 서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대(臺)나 각(閣)은 지붕을 잇대고 있다. 승도들은 온화하고 예의도 장유(長幼)의 질서가 있다.

선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대설산 북쪽 토카라국에 음악을 배우는 사문이 있어 두세 동지와 경문을 외우는 여가에 서로 "미묘한 이론은 깊고 깊어서 말로써 표현

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에 있는 성스러운 발자취들은 분명하니 스스로의 발로써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친우와 상의하여 성적(聖跡)을 친히 참배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두세 친구와 석장을 짚고 여행길에 나섰다. 인도에 닿아 여러 가람에 들렀더니 그들이 변방 사람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면서 숙박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다. 밖으로는 찬바람과 이슬 등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굶주림에 괴로움을 받는 가운데 안색이 초췌해지면서 비쩍 말라 갔었다. 마침 그때 이 나라의 왕이 근교에 나왔다가 이 외국의 객승들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어느 나라의 걸사(乞士 : 比丘를 이름)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귀에는 인도풍의 귀걸이를 달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의복이 헤졌는데……" 하고 물었다.

사문은 "우리는 토카라국의 사람들입니다. 삼가 부처님이 남기신 교훈을 이어받아 세속의 더러운 먼지를 떠나 몸을 맑게 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성적을 참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몸의 복덕이 적어 사람들은 똑같이 대접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인도의 사문들은 나그네를 돌보아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만 순례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바라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가엾이 여겨 이 승지(勝地)에 가람을 세우고 하얀 천에 제자(題字)를 쓴 다음 칙명에 의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생각건대 나의 존위(尊位)는 세인의 위에 있고 귀함은 인간계에서 극에 달해 있으니 이는 모두 삼보의 가호에 의한 것이며 이미 인왕(人王)이 되어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대저 염의(染衣)의 승도는 내가 당연히 보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 가람을 세워 여행하는 스님을 초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귀를 뚫은 모든 인도의 승도는 나의 이 가람에 유숙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유래로 인하여 이 절 이름이 생겼다.

### 3) 마하샬라와 광야귀

아빗다카르나 가람에서 동남쪽으로 1백여 리 가서 남쪽으로 갠지스 강을 건너면 마하샬라(摩訶娑羅)읍에 이른다. 이 읍 사람들은 모두 바라문종으로서 불법을 일

정한 기준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문을 만나면 먼저 수행하고 있는 학업에 대해 질문한 다음 지식이 깊은 사람이라 생각되면 깊이 존경한다.
갠지스 강 북쪽에 나라야나 천사(那羅延天祠)가 있다. 여러 층의 각(閣), 여러 층의 대(臺)는 그 장식이 아름답다. 제천(諸天)의 상은 돌을 새겨 만들었는데 세공은 인공의 극치를 다하였고 영험을 헤아리기 어렵다.
나라야나 천사에서 동쪽으로 30여 리 가면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는데 거의가 붕괴되었다. 앞에는 높이 2장(丈) 남짓한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기둥 위에는 사자상이 만들어져 있고 귀신을 항복시킨 사적이 새겨져 있다.
옛날에 여기에 광야귀(曠野鬼)가 있었는데, 큰 위력을 믿고 사람의 몸을 먹고 생물에게 해를 가하면서 요괴 같은 짓을 제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 여래는 중생이 자신의 죽음이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신통력으로써 귀신들을 교화시키면서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불살생계(不殺生戒)로 근신하도록 일렀다.
귀신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행했다. 그리하여 돌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에게 안좌(安坐)하도록 한 다음 정법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 지키려고 했다.
그 뒤에 신앙이 없는 무리들이 귀신이 놔둔 석좌(石座)를 힘을 합해 움직이려고 한 일이 있었으나, 1천 명을 헤아리는 수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우거진 수풀과 맑은 연못이 그 수토파 좌우를 둘러쌌는데 그 옆을 지나는 사람 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없다. 복귀(伏鬼) 수토파 쪽 멀지 않은 곳에 몇 개의 가람이 있다. 거의 붕괴되어 기울고 있으나 승도는 아직도 있다. 모두가 대승의 교법에 따라 학습하고 있다.

4) 병(甁) 탑

이 복귀 수토파에서 동남쪽으로 1백여 리 가면 한 수토파에 이른다. 기단은 이미 붕괴되어 기울었으나 아직도 높이는 여러 장이 된다.
옛날 여래가 적멸한 뒤 8개국의 대왕이 사리를 분배했다. 사리의 분량을 잰 바라문은 병(甁) 안쪽에 꿀을 발라서 제왕에게 분배했다. 한편 바라문은 그 병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는 병도 함께 안치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된 것이다. 나중에 아쇼

카 왕이 탑을 발굴하여 사리와 병을 꺼낸 다음 새로이 큰 수토파를 세운 것이다. 재일(齋日 : 齋戒하는 날)이 되면 때때로 빛을 내뿜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갠지스 강을 건너 1백 4~50리 가면 바이샬리국〔옛날에는 毗舍離國이라 했으나 잘못. 중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3. 바이샬리국

#### 1) 개관

바이샬리국〔毘舍離國 : 고대 인도 16대국의 하나로, 지금의 Muzzaffarpur 지방 Basarh이다〕은 주위가 5천여 리이며 토지는 비옥하고 꽃과 과일은 번성하고 무성하다. 암라과와 모차과는 많으나 귀중하게 여긴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복업을 좋아하고 학예를 중히 여기며, 사종(邪宗), 정법 모두 다 믿고 있다. 가람은 수백 개가 있으나 대개는 붕괴되었다. 남아 있는 것은 네댓 개로 아주 적고 승도도 극히 적다. 천사는 수십 군데이며 이도 사람들이 혼거하고 있고 노형(露形 : 外道)의 무리는 대단히 많다.

바이샬리 성은 심하게 붕괴되었고 그 기초의 터는 주위가 6~70리이며 궁성의 주위는 4~5리로 주민이 조금 있다.

#### 2) 《유마경》을 설법한 곳

궁성 서북쪽으로 5~6리 가면 한 승가람에 이른다. 승도는 적고 소승 정량부(小乘正量部)의 교법을 학습하고 있다. 옆에 수토파가 있는데 옛날 여래가 비말라키르티경〔毗摩羅詰經 : 통상 줄여서 《維摩經》이라 한다. 《般若經》에 이은 초기 大乘經典임〕을 설법하고 장자(長者 : 維摩居士를 가리킴)의 아들 보적(寶積) 등이 보개(寶蓋)를 바친 곳이다. 그 동쪽에 수토파가 있다. 샤리푸트라 등이 여기서 무학(無學)의 과〔阿羅漢界를 말함〕를 증(證)했다.

3) 불사리탑

샤리푸트라 증과 수토파 동남쪽에 바이샬리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이 나라의 선왕이 사리를 분배받고서 세운 것으로《인도기(印度記)》에는 "이 안에는 본디 여래의 사리가 1곡(斛) 있었다. 그런데 아쇼카 왕이 발굴하여 아홉 말을 갖고 나머지 한 말만을 두었다. 나중에 어떤 국왕이 다시 발굴하여 꺼내고자 막 작업을 하려 했을 때 대지가 진동했기 때문에 발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4) 아쇼카 왕 탑과 돌기둥

그 불사리탑 서북쪽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는데 옆에 돌기둥이 있다. 높이가 5~60척인데 위에는 사자상이 만들어져 있다.

5) 원숭이 인연지

돌기둥 남쪽에 연못이 있다. 원숭이 떼가 부처님을 위해 판 것으로 옛날에 여래가 이곳에서 묵은 일이 있다. 연못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원숭이들이 여래의 발(鉢)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 꿀을 딴 곳이다. 연못 남쪽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수토파가 있는데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꿀을 바친 곳이다. 연못에서 서북쪽으로 한 귀퉁이에 지금도 원숭이의 형상〔꿀을 따서 바치는 모습〕이 있다.

6) 유마가 살던 옛 집터

가람 동북쪽 3리 되는 곳에 수토파가 있다. 비말라키르티〔毗摩羅詰 : 당에서 無垢稱이라 함. 옛날에 淨名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淨은 곧 無垢요 名은 稱의 뜻인데 同名이라 해도 다름이 있다. 옛날에 維摩詰이라 했음은 訛略임〕의 옛 집터가 있다.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의 영묘한 집이 있다. 모양은 기와를 겹쳐 쌓은 것 같은데 전해지는 말로는 돌을 쌓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가 무구칭 장자가 병자의 모습으로 설법한 곳이며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장자의 아들 보적의 집터이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

나의 수토파가 있는데 암라녀(菴沒羅女 : 吠舍釐城의 창부로 미모였는데 釋尊에 歸依,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菴沒羅園을 바쳐 부처님의 住居로 하고 나중에 比丘尼가 되었다)의 집터이다. 부처님의 이모 등 비크슈니 들이 여기서 입열반을 증(證)했다.

7) 최후의 관성과 암라녀의 헌납

궁성 서북쪽 5~6리에 있는 한 가람의 북쪽 3~4리 되는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막 코시나가라국에 가서 반열반에 들려고 했을 때 사람과 천인들이 세존을 따라 여기 까지 와서 서 있었던 곳이다. 서북쪽 멀지 않은 곳에 또 수토파가 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바이샬리 성을 찬찬히 바라다본 곳이다. 그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정사가 있고, 앞에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암라녀원으로서 암라녀가 부처님께 보시했던 곳이다.

8) 불타입멸의 예언

암라원 옆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열반을 예고한 곳이다. 부처님이 옛날 이곳에서 아난에게 "사종(四種)의 신족(神足으로 일으키는 네 가지 定으로 欲神族 · 念神足 · 勤神足 · 觀神足)을 얻는 자는 수일겁(壽一劫 : 원대한 시간을 말할 때 씀. 大時 · 長時라고도 함)을 하는 것인데 여래는 그 수명이 앞으로는 몇 년이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렇게 재삼 물었으나 아난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마(天魔의 마왕으로 항상 佛道를 障礙한다고 함)가 현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난은 자리에서 일어나 숲 속에서 좌선했다. 그때 천마가 와서 부처님에게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화하기 이미 오래고 유전 윤회하는 범부를 구제하신 그 수는 모래알과 같이 무수합니다. 적멸의 낙에 드시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세존은 약간의 흙을 손톱 위에 얹은 다음 천마에게 "대지의 흙이 많은가 손톱 위의 흙이 많은가" 하고 물었더니 "대지의 흙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내가 제도한 것은 손톱 위의 흙과 같이 적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것은 대지의 흙과 같이 많다. 앞으

로 석 달이면 나는 열반에 들리라"고 말했다.
천마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다. 아난은 숲 속에서 문득 이상한 꿈을 꾸고 부처님에게 와서 "제가 숲 속에 있다가 꿈에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가지나 잎이 무성하여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나무가 부러지고 잎이 흩어지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존께서 적멸에 들려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부처님은 아난에게 "내가 아까 그대에게 말했지만 그대는 천마의 훼방을 받고 나에게 이 세상에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마왕은 나에게 빨리 열반에 들도록 권했기에 이미 그 시기까지 약속했구나. 그대의 꿈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했다.

9) 천자탑(天子塔)
고 열반기(告 涅槃期) 수토파 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1천 명의 아들이 부모를 만난 곳이다.
옛날 어떤 선인이 암곡(巖谷)에 숨어 살고 있었다. 중춘(仲春)의 달 아래 맑고 푸른 물에 배를 띄우고 있을 때, 암사슴이 물을 마시고 나서 선인을 만나 여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외모는 사람과 같았으나 발만은 사슴과 같았다. 선인은 이를 거두어 키웠다. 그런 어느 날, 불을 구해 오라고 여자 아이를 다른 선인의 움막에 보냈더니 그가 남긴 발자국은 모두 연꽃이 되었다. 방문을 받은 선인은 이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여자아이에게 자기 움막을 돌게 한 다음 불을 주었다. 녹녀(鹿女)는 그대로 하고 불을 얻어 돌아갔다.
그때 범예왕(梵豫王)은 사냥 나갔다가 연꽃을 보고 그 자국을 더듬어 찾은 끝에 세상에 희한한 일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녹녀를 태우고 돌아갔다.
상사(相師)는 "반드시 1천여 명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고 점을 쳤다. 이 말을 들은 다른 궁중의 여자들은 이를 막고자 손을 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일월(日月)이 이미 차서 녹녀는 한 연꽃을 낳았는데 꽃에는 1천 개의 잎이 있고 잎마다 1명의 아기가 앉아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근거 없이 헐뜯으면서 상서롭지 못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갠지스 강에 던져 물결치는 대로 띄워 버렸다.
마침 그때 웃디야나 왕(烏耆延王 : 3권의 1에 나오는 烏仗那인 듯. 烏耆延이란 표기는 다른 곳에선 보이지 않음)이 갠지스 강의 흐름을 따라 유람하고 있었는데 노랑 구름이 우산처럼 덮고 있는 것이 물결 따라 흘러오는 것을 보고 주워 열어 봤더니 1천 명의 아기가 있었다. 그 아기들은 자랄수록 힘이 장사가 되었다. 그는 1천 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사방으로 영역을 넓혀 병력의 위세를 떨쳐 바이샬리국까지 뻗치려 했다. 범예왕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놀라 떨었지만 병력이 모자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때 녹녀는 마음속으로 이 1천 명의 적장은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고 왕에게 "이제 적군은 국경에 밀어닥쳐 상하가 모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임한다면 그 강적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왕은 이 말을 믿지 않고 걱정만 태산같이 했다.
그러나 녹녀는 성루에 올라가 적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천자(千子)의 장병이 성을 둘러싸자 녹녀는 "순리를 거스르지 마라. 나는 그대들의 어미이고 그대들은 나의 자식이니라"고 했더니 천자는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가?"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녹녀가 두 젖을 손으로 짰더니 젖이 1천 줄기로 흘렀고 그리고 하늘도 느껴 알았던지 1천 명 자식의 입으로 흘러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장을 풀고 종가(宗家)에 돌아갔으며 군대를 해산시켜 각기의 부족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리하여 두 나라는 우의를 맺게 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되었다.
천자 귀종(千子歸宗) 수토파 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는데 여래가 산책한 옛터이다. 여래가 이곳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옛날 나는 여기서 종족(宗族)한테 돌아가 부모를 만났다. 천자(千子)가 누구냐 하면 현겁 동안에 태어난 천불(千佛)이니라"고 말했다.

### 10) 중각강당

술본생(述本生) 수토파의 동쪽에 낡은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때때로 광명이 비추며 기도드리면 소원이 성취되기도 한다. 여래가 보문다라니 등의 경을 설법한 중각강당(重閣講堂)의 빈 터이다.

11) 성적(聖跡)의 황폐

강당 쪽 멀지 않은 곳에 아난의 반신(半身) 사리가 들어 있는 수토파가 있다. 그 수를 분명히 알고자 한 사람치고 그를 분명히 안 일이 없다. 1천 명의 독각(獨覺 : 스승 없이 수행해 홀로 깨닫는 자)들이 적멸에 든 곳이다.

바이샬리 성 안팎에는 호(濠)를 둘렀고 성적(聖跡)이 많은데 일일이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날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이 폐허가 되고 고기의 비늘처럼 잇따라 있던 것들이 지금은 떨어져 솟아 있으니 세월은 빨리도 바뀌고 한난(寒暖)은 빨리도 옮아가 버렸다. 숲은 이미 없어지고 연못 역시 물이 말랐으나 썩은 나뭇등걸이 자국을 남겨 분명히 그곳이었음을 설명해 준다.

12) 릿차바자가 여래와 헤어진 곳

대성에서 서북쪽으로 5~60리 가면 큰 수토파에 이른다. 릿차바자(栗呫婆子 : 옛날에는 離車子라 했으나 잘못임)가 여래와 헤어진 곳이다. 여래가 바이샬리 성에서 쿠시나가라국으로 갈 때 릿차바자의 사람들이 부처님이 곧 적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따라가며 울면서 배웅했다. 세존은 사람들의 애모하는 정을 말로써 달랠 수 없다고 보고 신통력으로 부처님과 사람들 사이에 큰 강을 만들었다. 강기슭은 깊게 파이고 강의 흐름은 빨랐다. 릿차바자 사람들은 슬퍼 통곡하면서 멈췄다. 여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추억의 기념품으로 삼았다.

13) 마하데바의 본생담

바이샬리 성에서 서북쪽으로 2백 리 못 미쳐 낡은 성이 있다. 황폐한 지가 오래되었으며 주민은 적다. 안에 수토파가 있는데, 부처님이 옛날 보살, 인천(人天), 대중들을 위해 스스로의 본생담을 들려주었던 곳이다. 부처님이 옛날 보살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 성에서 전륜왕이 되어 마하데바(摩訶提婆 : 당에서는 大天이라 함)라 일컫고 있었다. 칠보의 감응이 있어 사천하의 왕이 되었으나 세상에 애변(哀變 : 生老病死의 변화)의 상이 있음을 보고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마음은 세속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정(情)은 국왕의 대위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나라

를 버리고 출가하여 염의(染衣)를 두르고서 수행에 들어갔었다.

14) 칠백결집

성에서 동남쪽으로 14~5리 가면 큰 수토파에 이른다. 7백 명의 이름난 승도들이 거듭 결집(結集)한 곳이다. 부처님 열반 후 1백 10년에 바이샬리 성의 비크슈들 사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계율을 그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당시 장로 야쇼다〔耶舍陀 : 婆羅門種으로 出家, 佛門에 歸依해서 阿羅漢果를 證하고 六神通을 얻음〕는 코살라국에 살았고 장자 삼보가(三菩伽 : 王舍城의 長者로 부처님을 따라 깨달음을 얻음)는 마투라국에 살았으며, 장로 레바타〔氂波多〕는 한약국(韓若國 : 이 책의 다른 곳에서는 안 보이는 이름)에 살았고 장로 살하〔婆羅〕는 바이샬리국에 살았으며 장로 쿠브자소비타〔富闍蘇彌羅 : 부처님 寂滅 後 阿難에 의하여 入信함〕는 파탈리푸트라국에 살고 있었다.

대아라한들은 자재(自在)를 얻어 깨달음에 이르고 경 · 율 · 논(經律論)의 삼장(三藏)을 지녔으며 삼명(三明)을 터득하여 명성을 떨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존자 아난의 제자들이었다. 그때 야쇼다는 사람을 보내 이들을 모두 바이샬리에 모이도록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자라 7백 명의 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쿠브자소비타는 천안(天眼)으로써 여러 대현성(大賢聖)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신족(神足)으로 법회(法會)에 참석했다. 삼보가는 대중 속에서 가사의 오른쪽 어깨를 벗고〔경의를 나타내는 모습〕 장체〔양무릎을 땅에 대고 허리를 든 자세〕한 다음 소리를 높여 "여러분, 떠드는 것을 삼갑시다. 그리고 잘 생각해 봅시다. 옛날 적멸하신 이래 세월은 흘렀습니다만 그 말씀은 지금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샬리 성의 태만한 비크슈는 계율을 어겨 범하고 십사(十事)의 비법(非法 : 종래에 非法이라 했던 10개조의 행위를 合法으로 慣行하려 했던 것)을 행하며 십력(十力 : 십력의 가르침이란 如來의 가르침)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자 여러분은 계(戒)를 지키는 것과 범하는 바에 대해 명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대덕 아난의 지수(指數)를 받은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불은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고 거듭 부처님의 성지를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대중들 중에서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곧장 비크슈들을 소집하여 비나야(毗那耶 : 律)에 의거해서 질책하고 비법을 제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삭제하여 성교(聖教)를 널리 밝혔다.

15) 시베타푸라 승가람

7백 현성 결집 대수토파에서 남쪽으로 8~90리 가면 시베타푸라 승가람〔濕吠多補羅僧伽藍〕에 이른다. 여러 층으로 된 대(臺)는 장대하고도 미려하며, 여러 층으로 된 각(閣)은 꿩이 나는 듯이 화려하다. 승도의 위의(威儀)는 정숙하여 모두 대승을 학습하고 있다. 그 옆에 과거사불이 앉았던 자리 및 산책한 유적이 있다. 그 옆 수토파는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여래가 옛날에 남쪽으로 마가다국에 이르고 북쪽으로 바이샬리 성을 방문하던 중에 휴식했던 유적이다.

16) 아난분신의 전설

시베타푸라 가람에서 동남쪽으로 가기 30여 리, 갠지스 강 남북 기슭에 각기 하나의 수토파가 있다. 존자 아난다가 자기의 몸을 나누어 두 나라에 준 곳이다. 아난다는 여래의 사촌 아우였다. 법문(法門)을 많이 들어 모든 것을 지녀 박학다식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대카샤파〔大迦葉〕의 멸후(滅後)를 이어 정법을 지키면서 학습자를 지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가다 국에 머무르면서 숲 속을 산책하고 있을 때 한 사미가 불경을 풍송(諷誦)하고 있는데 장구(章句)도 잘못되어 있고 문자도 틀렸다. 아난은 이를 듣자 여래를 추모하는 마음이 새로워져, 고요히 사미한테 가서 잘못을 주의 지도했다. 그런데 사미는 웃으면서 "대덕(大德 : 年少한 比丘가 老僧에게 쓰는 호칭)은 이미 늙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습니다. 제 스승이 학덕이 뛰어났고 나이도 한창으로써 친히 지도를 받고 있으며 조금도 잘못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난은 입을 다물고 그곳을 떠나면서 "나는 비록 나이 들었다고 해도 모든 중생을 위해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정법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생의 번뇌는 무거워 말로 가르치기 어렵구나. 오래

이 세상에 머물러도 소용이 없으니 빨리 입멸(入滅)해야겠다"고 개탄했다.
그리하여 마가다국을 떠나 바이샬리 성으로 향하는 중, 갠지스 강을 건너려고 배를 중류에 띄웠다. 그런데 마가다 왕은 아난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덕을 깊이 흠모한 나머지 곧 수레를 준비해 달려와서는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고자 하여, 그 수천의 군대가 남쪽 기슭에 진을 쳤다.
한편 바이샬리 왕은 아난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아난의 낙담을 슬퍼하고 내방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왕과 군대가 모두 준비하여 달려 나가 마중했다. 그 수천의 사람들은 북쪽 기슭에 주둔했다.
양군은 서로 맞서 비치는 해를 가릴 정도였다. 아난은 양군의 병사가 서로 살상할까 두려워하여 배에서 일어나 허공으로 올라 몸을 변하여 그대로 입멸하면서 불을 일으키며 몸을 둘로 나누어 시해를 태워 버렸다. 그런데 그 시해는 다시 중간쯤에서 부러져 하나는 남쪽 기슭에, 하나는 북쪽 기슭에 떨어졌다. 그래서 두 왕은 각기 한 부분씩 입수할 수 있었다. 전군은 소리 높여 슬피 울면서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 수토파를 세워 공양했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5백여 리 가면 브리지국〔弗栗恃國 : 北人은 三伐恃國이라 한다. 북인도의 경계〕에 이른다.

## 4. 브리지국

### 1) 개관

브리지국〔갠지스 강 북쪽에서 네팔 구릉지대에 걸쳐 있었던 8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짐. 여기서 말하는 弗栗恃國은 北方 네팔에 인접한 지방으로 지금의 Darbhanga District 북부에 해당한다〕은 주위가 4천여 리이며 동서가 길고 남북은 좁다. 토지는 비옥하고 꽃과 과일이 굉장히 많다. 기후는 좀 차고 사람들의 성격은 조급한 편이며 외도를 많이 믿고 불법을 믿는 자는 적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1천 명이 못 되며 대승과 소승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 천사는 수십 개이며 외도인들이 대단히 많다.

나라의 대도성은 잠술라(占戌拏)라고 하며 거의 파괴되어 있으나 본래의 궁성 안에는 지금도 3천여 채의 집이 있고, 마을이나 고을을 이루고 있다. 대하(大河 : 지금의 캄라 江인지 불명)의 동북쪽에 가람이 있는데 승도는 적지만 학업은 맑고도 훌륭하다.

2) 어부의 교화

여기(대하 동북쪽 가람)에서 서쪽으로 가면 강변을 따라 수토파가 있다. 높이 3장 남짓, 남쪽으로 강의 흐름을 띠고 있다. 대비세존이 어부를 제도한 곳이다. 부처님이 재세시, 이곳에서 5백 명의 어부가 친구를 모아 떼를 이룬 가운데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강의 하류에서 한 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다. 18개의 머리가 있었는데, 각기의 머리에는 두 눈이 있었다. 어부들은 이 고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때 여래는 바이샬리국에 있었는데 천안(天眼)으로 이를 보고 자비심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때를 타서 교화시키고 깨달음을 열고자 하여 대중들에게 "브리지국에 큰 고기가 있다. 나는 이 고기를 교화 · 지도함으로써 어부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 그대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대중들은 여래를 둘러싸고 신족(神足)으로 허공을 헤쳐 달려 강변으로 와서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깐 다음 어부들에게 "그대들은 고기를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신통력으로 방편문(方便門 : 진실의 길로 이끌기 위한 假法門)을 열자 그 위력이 큰 고기에 미쳐 고기에게 숙명을 알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여래는 사정을 알면서도 짐짓 "그대는 전에 어떤 죄를 범하였기에 이처럼 추한 몸을 받았는가" 하고 물었다. 고기는 "옛날에는 세상의 행운을 받아 호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대바라문인 카피타가 바로 저입니다. 그 족성의 고귀함에 힘입어 도덕을 능멸하고 자기 지식이 넓다면서 경법(經法)을 천히 여겼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제불(諸佛)을 비방 · 증오하고 추악한 언어로써 승도들을 꾸짖으며 치욕을 보였습니다. 비유컨대 낙타와 당나귀, 코끼리와 말 같은 보기 흉한 형태의 대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악업으로 해서 이와 같이 보기 흉한 모습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오히려 과거로부터

전생의 업보 덕택으로 살면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 눈앞에 존귀한 교화를 보고 친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한 일을 참회했다. 고기는 이미 법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명종했으며 이 복덕의 힘으로 천궁에 올라 태어났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몸이 어떠한 인연으로 여기에 태어났는가를 관찰했다. 따라서 전생으로부터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다. 그랬기에 여러 천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되돌아와 여래를 예배한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 몸을 물리고서 하늘의 보배와 향화로써 여래를 공양했다.
세존은 이를 가리켜 어부들에게 일부 전말을 말하고 어부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법했다. 그러자 어부들은 즉시 감화를 받고 마음으로부터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물을 찢고 배를 불태우고 참마음으로 귀의하여 법을 받았다. 또 열의를 입고 출가하여 지묘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번뇌를 떠나 성과(聖果)를 증(證)하게 되었다.

3) 성적 기념의 탑

도어인(度漁人) 수토파에서 동북쪽으로 1백여 리 가면 낡은 성 서쪽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써 높이가 2백여 척이다. 옛날에 부처님이 여기서 6개월 동안 설법하면서 여러 천인을 제도하였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1백 4~50보 되는 곳에 작은 수토파가 있다. 옛날에 여래가 이곳에서 비크슈들을 위해 계를 제정했다. 이와 나란히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여래의 두 발과 손톱이 든 수토파가 있다. 옛날에 여래가 묵었던 곳으로써, 원근의 사람들이 줄지어 참배하여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면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북으로 1천 4~5백 리 산을 넘어 골짜기로 들면 네팔라국에 이른다.

## 5. 네팔라국

네팔라국〔尼波羅國：親踐國을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본다. 尼波羅國은 현장이 渡印할 때는 吐藩西藏에 예속되어 王玄策을 원조하여 摩揭多國을 토벌한 일이 있다〕은 주위 4천여 리로 설산 안에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산과 내가 연이어져 있고 농업에 알맞으며 꽃과 과일이 많다. 붉은 구리 · 얼룩소 · 명명조(命命鳥：산스크리트어로 지바지바카조〔耆婆耆婆鳥〕라 하는데 이는 一身兩頭라고 하는 전설상의 새임)가 나온다. 화폐로는 적동전을 사용하고 있다. 기후는 춥고 풍속은 비굴하며 성질은 강직하고 용맹스럽고 신의는 경박하다. 학예라고 할 것은 없고 다만 공예의 기술이 있다. 용모는 추악하며 사교 · 정법을 겸하여 믿고 있다. 가람과 천사는 담장을 잇대고 처마 끝을 이웃하여 빽빽이 들어찼다. 승도는 2천여 명, 대소승(大小乘)을 겸하여 학습하고 있다. 외도의 이학(異學)을 공부하는 자는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왕은 크샤트리아〔刹帝利〕로 릿차바종〔栗呫婆種〕이다. 그 지학(志學)은 맑고 높으며 오직 불법만을 믿고 있다. 가까운 곳에 안슈바르만〔鴦輸伐摩：당에서는 光胄라 함. 7세기 초엽에 난 英主로 642년께 사망. 타쿠리 왕조의 시조〕이라 일컫는 왕이 있었다. 그가 학문을 중히 여기고 덕 있는 자를 존경하는 것은 사방에 알려져 있었다.

도성의 동남쪽에 작은 연못이 있다. 멋모르고 불을 던지면 물은 곧장 타오르며 다시 다른 물건을 던지면 그것 역시 불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다시 바이샬리 국으로 되돌아간 다음 남으로 갠지스 강을 건너면 마가다국에 이른다.

# 제 8 권

## 1. 마다가국

마다가국(摩揭陀國 : 고대 인도 16대국의 하나로서 지금의 Bihar 州의 Gaya, Patna 두 縣을 중심으로 하는 갠지스 강 남방 지역에 해당한다. 옛날에 摩伽陀또는 摩竭提라 함은 잘못임)은 주위가 5천여 리이다. 성의 주민은 적지만 촌락에는 인가가 많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업이 성하다. 진귀한 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알맹이는 크고 향미는 유별나며 광택이 난다. 그 고장에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이 쌀은 대인(大人)에게 바치는 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토지는 습기가 많고 지대가 낮아 주민들은 고원에서 산다. 초여름부터 중추 전까지는 항상 물이 흘러 배를 띄울 수가 있다. 풍속은 순박하며 기후는 덥다. 학문을 중히 여기며 불법을 깊이 존경하고 있다. 가람은 50여 군데로 승도는 1만여 명인데 대부분 대승의 교법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수십 군데로 이도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 2. 파탈리푸트라성

### 1) 성의 명칭

갠지스 강 남쪽에 옛 성이 있다. 주위는 70여 리이다. 이미 오래 전에 황폐해졌지만 기초는 아직 남아 있다. 옛날 인수무량세(人壽無量歲)였을 때는 쿠스마푸라 성(拘蘇摩補羅城 : 唐에서는 香花宮城이라 함)이라 했었다. 왕궁에 꽃이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을 무렵 파탈리푸트라 성(波吒釐子城 : 옛날에 巴連弗邑이라 했음은 잘못)이라 이름을 고쳤다.

옛날 바라문으로 재주 많고 학식 깊은 사람이 있었는데 문인 수천 명이 학업을 받고 있었다. 하루는 학도들이 다 함께 유람하고 있었는데 한 학도만이 배회하면서 슬픈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대는 무엇을 번뇌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혈색이 한창인 나이에 유학하여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으나 세월이 흘러도 학업은 성취되는 바 없으니 이를 생각하면 우울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농담으로 "그렇다면 그대를 위해 짝을 지어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지" 했다. 그러고는 가짜로 두 사람을 세워 사내의 부모라 하고 다른 두 사람을 여자의 부모라 하여 파탈리 나무〔波吒釐樹 : 산스크리트어로 여성 名詞의 나무임. 淡赤色 나팔 모양의 꽃을 피운다〕 아래에 앉아, 계절에 걸맞은 과일과 맑은 물을 놓고 결혼의 형식을 차렸다. 그때 임시로 처의 아버지가 된 자가 꽃가지를 꺾어 학도에게 주면서 "좋은 배우자일세. 아무쪼록 사양하지 말게" 하고 말했다.

학도는 매우 만족하면서 날이 저물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머무르려고 했다. 친구들은 "아까 한 일은 다 장난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그러지 말고 함께 가야지. 숲 속의 맹수가 해를 가하는 것도 걱정이고 말이야"라고 했으나 학도는 그대로 나무 옆에 머물렀다.

그런데 날이 저문 뒤 이상한 빛이 들판을 비추면서 관현(管絃) 소리가 풍요롭게 흐르는 가운데 장막이 쳐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와서 인사를 하고 이어 한 노파가 소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많은 내객이 길 가득히 성장을 하고 음악을 연주했다. 노인은 소녀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그대의 젊은 아내일세"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연회가 베풀어지는 가운데 7일이 지났다. 친구 학동들은 혹시 짐승에게 살해당한 것이나 아닌가 하여 나가 찾았더니 오직 홀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손위 손님과 마주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함께 돌아가자고 했으나 듣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 그 후 그 학도는 스스로 성으로 돌아가 친척과 아는 사람을 만나 일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친구들과 함께 숲 속에 가 봤더니 과연 꽃나무는 하나의 큰 저택이었으며 남녀종들이 부산히 드나드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노옹은 침착한 태도로 접대하며 진수성찬을 차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빈객과 주인의 예를 다했다. 친구들은 성으로 돌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다.

1년이 지나 그들 사이에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학도는 그 아내에게 "나는 지금 돌아가고 싶지만 처자와 이별하는 것이 견뎌 내기 어렵소. 만약 그대로 여기 머무른다고 해도 언젠가는 방황하는 몸이 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 아내는 이 말을 듣

고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말했다. 노옹은 학도에게 “인생의 낙이 어찌 고향에 한정된 일이겠는가. 이제 내가 집을 지어줄 테니 아무쪼록 다른 생각일랑 하지 말게나”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사람들을 시켜 얼마 안 가서 집을 지어냈다. 그리하여 향화의 옛 성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그 아들을 위해 신령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파탈리푸트라 성이라 이름 지었다.

### 2) 아쇼카 왕의 뇌옥

고 왕궁(故王宮)의 북쪽에 높이 수십 척 되는 돌기둥이 있다. 아쇼카 왕이 지옥을 만든 곳이다. 석가여래의 열반 1백 년 후에 아쇼카 왕〔阿輸迦王 : 唐에서는 無憂라 함. 옛날에 阿育이라 했음은 잘못. 摩揭陀國 孔雀王朝 제3세. 그 主權의 범위는 西北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는 안드라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즉위 10년 후 불교에 귀의하여 ‘법에 의한 승리야말로 최상의 승리’라는 신념으로 통치했음〕이란 사람이 있었다. 빔비사라 왕〔頻毗娑羅王 : 당에서는 影堅이라 함. 옛날에는 頻婆娑羅라 했으나 잘못임〕의 증손〔후세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왕조의 시조 찬드라굽타 대왕의 손자로서 아버지는 빈두사라(賓頭娑羅)이니, 빔비사라의 증손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 한다〕이다.
왕사 성에서 도읍을 파탈리로 옮긴 다음 외곽을 거푸 축조하면서 본래의 성을 둘러쌌다. 그 연대가 오래되어서 이제 본래의 기초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가람 · 천사 및 수토파의 옛터는 수백이 남아 있으나 본래와 같은 것은 2~3개뿐이다. 다만 옛 궁의 북쪽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 작은 성안에 1천여 호가 있을 뿐이다.
처음 아쇼카 왕이 즉위한 후 행동이 대단히 난폭하여 지옥〔뇌옥(牢獄)〕을 만들고서 사람들을 살해했다. 둘레의 담장은 높이 솟아 있고 귀퉁이의 망루는 특히 더 높게 했다. 맹염(猛炎) · 홍로(洪鑪 : 큰 화로) · 섬봉(銛鋒 : 날카로운 창) · 이도(利刀) 등 갖가지 고문 도구를 마련하여 모양을 지옥과 같이 차리고서 흉포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옥주(獄主 : 교도소장)의 역을 맡겼다.
처음에는 나라 안의 법을 어긴 죄인을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조리 도탄의 고

통 속에 처넣었는데, 나중에는 감옥을 지나가는 자를, 그 다음에는 아무나 잡아와서 살육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자는 모두 죽게 되므로 그대로 입을 봉하여 밖으로 새어나가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사문(沙門)이 처음으로 승중(僧衆)에 들어 마을을 돌면서 얻어먹고 있다가 어찌어찌해서 감옥 문 앞으로 왔다. 그러자 흉포한 옥리가 잡아 죽이려고 했다. 사문은 놀라 삼보를 예배하여 참회하고자 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 사람이 꽁꽁 묶여 와서는 감옥 속에 던져지고, 이내 손발은 끊기고 몸뚱이는 잘라져,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었다. 사문은 이를 보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일으켜 무상관(無常觀 : 일체의 法은 生滅遺傳한다고 하는 진리를 達觀함)을 성취하여 무학과(無學果 : 阿羅漢果. 學統圓滿하여 더 修學할 것이 없는 경지)를 증(證)했다.

옥졸이 "그대는 죽을 수 있는가" 하고 묻자, 사문은 이미 성과(聖果)를 증했기 때문에 마음은 생사에 동요함이 없었고, 솥의 끓는 물에 들어가도 마치 맑은 연못에 있는 것 같고, 큰 연못이 사문의 자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옥주(獄主)는 놀라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도 스스로 보고서야 신불의 가호를 찬탄했다.

옥주는 "대왕은 죽지 않으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어째서 그러냐?"라고 물었다.

옥주는 "왕은 이미 형옥(刑獄)에 대해 명령하시기를 누구나 감옥의 담장 주위로 오는 자는 모조리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온 경우만 죽음을 면한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법은 한번 정해지면 다시 변경시킬 수는 없다. 나는 이미 영을 내렸지만 어찌 너만을 예외로 할 수 있겠는가. 네가 오랫동안 삶을 유지했던 것이 내 죄이다"라고 말한 다음 곧 옥졸에게 명하여 옥주를 홍로 속으로 던지게 했다. 옥주가 죽었기 때문에 왕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담장이나 웅덩이를 부수고 메워 옥을 폐지한 다음 형벌을 관대하게 했다.

3) 8만 4천 탑

지옥 돌기둥 남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기단은 허물어져 기울었으나 오히려 복발(覆鉢)의 세를 지니고 있다. 보석으로 장식했으며 돌로써 난간을 했다. 이것이 8만 4천 탑〔이는 물건이 많음을 가리키는 인도의 常數이지 반드시 實數를 말함은 아니다〕의 하나이다. 아쇼카 왕이 신력으로 어전에 세운 것이다. 안에 여래의 사리가 한 말이 들어 있는데 가끔씩 영험이 일어나며 신성한 광채가 비추는 일도 있다.

아쇼카 왕이 옥을 폐지한 뒤 근호 대아라한(近護大阿羅漢)을 만났다. 나한은 교묘히 유도하여 시기에 맞추어 교화했다. 왕은 나한에게 “나는 다행히 전세로부터의 복덕을 지녀 위(位)는 인존(人尊)을 다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장애가 많아서 부처님의 직접적인 교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래의 유신사리(遺身舍利)는 있습니다. 수토파를 많이 복건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나한은 “대왕께서 복덕의 힘으로 백령(百靈)을 부려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삼보를 호지(護持)함은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널리 토지 헌납의 유래, 여래의 예언, 불탑흥건(佛塔興建)의 공덕을 설명했다. 아쇼카 왕은 이를 듣고 대단히 기뻐하여 귀신을 소집해 명령하기를 “법왕〔부처님〕께서 공덕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서 기쁨이다. 나는 선숙(善宿) 덕택으로 존귀함이 인간계에서 극에 이르고 있다. 이제 여래의 유신사리를 거푸 공양하려고 하니 너희 귀신들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함께하여 땅으로는 잠부주(贍部洲)의 끝까지 집으로는 코티〔拘胝 : 億〕의 인구를 채운 곳에는 불사리로 수토파를 세우도록 하라. 이 서원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 일은 너희에 의하여 성공하는 것이다. 빼어난 복덕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각기 공사를 하되 나중에 명령을 기다려라”라고 말했다.

귀신들은 뜻을 받들어 여기저기서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가 끝나자 모두 와서 다음 명령을 청했다. 아쇼카 왕은 8국에 세운 수토파를 발굴했기 때문에 그 사리를 나누어 귀신들에게 준 다음, 나한에게 “나의 소원은 어느 곳의 탑이라도 동시에 사리를 수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나한은 "왕께선 귀신들에게, 기일이 되어 해가 감추어지는 상황이 손으로 덮은 것 같이 되면 그때 사리를 나누어 수장하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귀신들에게 선고했다. 기일이 되어 아쇼카 왕이 하늘을 관측하는데, 해가 정오에 이르렀을 때 나한은 신통력으로 손을 뻗어 해를 가렸다. 탑을 만들고 있던 모든 곳에서는 모두가 이를 쳐다보고서 때를 맞추어 한결같이 탑에 사리를 수장하여 공적을 모두 끝마쳤다.

4) 불족석(佛足石)
아쇼카 왕 수토파 옆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정사(精舍)에 큰 돌이 있다. 여래가 밟은 곳으로서 두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 길이는 1척 8촌 남짓에 넓이는 6촌 남짓 된다. 양쪽 발자국에는 모두 윤상(輪相)이 있고, 10개의 발가락에는 모두 꽃무늬가 있다. 고기의 무늬도 뚜렷이 부각되어 있는데, 때로는 빛을 발하는 일이 있다. 옛날 여래가 적멸하려고 하면서 북으로 쿠시나가라〔拘尸羅揭那〕성으로 가려 했을 때, 남쪽으로 마가다국을 돌아보면서 이 돌을 밟고는 아난에게,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자국을 남기고서 적멸에 들려고 한다. 마가다국을 보건대 1백 년 후에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천하를 통일하여 군림한 뒤 이곳에 도읍을 세우면서 삼보를 호지(護持)하고 백신(百神)을 부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쇼카 왕이 즉위하고서 도읍을 옮기고 고을을 이루는 가운데 불족석을 둘러싸 버렸다. 그리고 궁성에 가깝기도 해서 항상 친히 공양했다. 그 뒤 제국의 왕들이 서로 돌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돌은 크지도 않은데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샤샹카 왕〔設賞迦王〕이 불법을 파괴하면서 이 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성적(聖跡)을 은멸(隱滅)시키려 했으나 끌을 들이대고 쪼개고 나면 다시 본래대로 되고 무늬에도 변함이 없었다. 갠지스 강에 버렸는데도 곧바로 다시 자리로 되돌아가 결국은 없애지 못했다.
그 옆에 수토파가 있다. 과거사불의 앉았던 자리와 산책한 유적이다.

5) 아쇼카 왕의 돌기둥 각문(刻文)

불족석 정사 옆 멀지 않은 곳에 큰 돌기둥이 있다. 높이는 30여 척이고 문귀는 흐려져 있으나 그 내용은 "아쇼카 왕은 신심이 두터워 세 번이나 잠부주(贍部洲)를 법승에게 보시한 다음 세 번 모두 진귀한 보물로써 다시 사들였다"고 쓰여 있다.

6) 마헨드라

고궁 북쪽에 큰 석실이 있다. 외곽은 높은 산과 같고 내부는 넓이가 여러 장이 된다. 아쇼카 왕이 출가한 동생을 위해 귀신을 시켜 세운 것이다. 아쇼카 왕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아우로서 마헨드라(摩醯因陀羅 : 당에서 大帝라 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귀족 태생이면서 복장은 왕의 제례(制例)를 범하고 사치스럽고 난폭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한을 사고 있었다. 대신 중의 노신이 왕에게 "제멋대로 구는 아우님의 난폭한 행동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대저 정치가 잘 되면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화로우면 군주는 안심한다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의 명훈(明訓)이며 그 유래는 오래된 것입니다. 원컨대 국법을 생각하시어 그를 체포하여 관서에 넘겨서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간언했다.

아쇼카 왕은 울면서 아우에게 "나는 조상의 업적을 이어받아 백성을 지켜왔다. 하물며 너는 같은 어머니의 형제인데 어찌 애정을 잊어버렸겠느냐. 그러나 너를 먼저 지도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결국 형벌에 빠뜨리게 되었구나. 위로는 조상을 뵐 낯이 없고 아래로는 중의(衆議)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헨드라는 머리를 땅에 조아려 사죄하면서 "스스로 행실을 근신하지 못하고 나라의 대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생의 기회로서 앞으로 7일 동안만 유예기간을 주소서"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를 조용한 방에 가두고 엄중하게 경계하는 가운데 갖가지 진수성찬으로 대접했다. 경호하는 자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엿새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제6일이 되었을 때 불안이 깊어져 한층 심신을 격려했던 바 증과(證果)를 얻고 허공에 오르면서 신통력의 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속세계를 나와

멀리 암곡(巖谷)에서 살게 되었다. 아쇼카 왕은 손수 그에게로 가서 "본래는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네가 세속을 떠나 하늘로 오르고 증과를 얻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젠 과거에 쌓인 죄도 없어졌으니 이만 도성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

아우는 "옛날에는 애정의 끄나풀에 매여 마음은 음악이나 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한 곳을 나와 산골짜기에서 노니는 기분입니다. 아무쪼록 세속을 버리고 산속에 몸 붙이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말했다.

왕은 "심경을 고요히 하겠다고 하여 반드시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네 마음에 맞게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귀신들에게 명령하여 "나중에 성찬을 충분히 준비할 테니 너희들은 다 함께 내 모임에 오도록 하라. 또 그때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각각 의자로 하라"고 말했다.

기일이 되자 귀신들은 모두 모여들었다. 연회가 끝나자 왕은 귀신들에게 "돌의자가 종횡으로 불규칙하니 각자가 쌓아올리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다른 노력을 안 들이고도 그대로 석실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귀신들은 명령을 받고 며칠 안 가서 만들어 놓았다. 아쇼카 왕은 스스로 초대한 후 친히 나가서 이 산의 석실에 그 아우를 있게 했다.

7) 석조와 소석산과 오불탑

고궁 북쪽 지옥의 남쪽에 큰 돌자배기(石槽)가 있다. 아쇼카 왕이 귀신한테 시켜 만든 것으로, 승도들이 밥을 지을 때 쓴 것이다.

고궁 서남쪽에 작은 돌산이 있는데, 암곡 사이를 둘러 수십 개의 석실이 있다. 아쇼카 왕이 근호(近護) 등 여러 아라한을 위해 귀신을 부려 건립한 것이다. 옆에 오래된 대가 있으며 돌로 쌓은 기초만이 남아 있다. 연못이나 늪은 물결이 맑아 거울과 같다. 이웃이나 먼 나라 사람들이 이를 성수라 부르는데,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하는 사람은 죄업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산의 서남쪽에 다섯 개의 수토파가 있다. 기단은 이미 허물어졌으나 유지(遺址)는 지금도 오히려 높고 멀리서 바라보면 무성한 구릉과 같다. 한쪽 변이 각기 수백 보

되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위에 작은 수토파를 세웠다. 《인도기》에 "옛날 아쇼카 왕이 8만 4천의 수토파를 세웠으나 아직도 다섯 말의 사리가 남았기 때문에 달리 다섯 개의 수토파를 세웠다. 그것은 다른 곳의 것보다 더 진기한 것이었다. 불가사의한 일이 가끔 일어나며 여래의 5분(分)의 법신(法身 : 부처님 및 阿羅漢이 갖춘 다섯 개의 功德, 즉 戒身 · 定身 · 慧身 · 解說身 · 解說知見神의 5종으로써 이 순서에 따라 육체적 · 정신적 욕망을 억제하므로 차츰 悟境으로 듦을 나타냄)을 나타내기도 한다. 신앙심이 옅은 자들이 은밀하게 '옛날 난다 왕이 이것을 세워 칠보를 넣어 두었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그 뒤 신앙심이 없는 왕이 이 희미한 얘기를 듣고 탐욕을 일으켜 군대를 동원하여 발굴하려고 했다. 그때 대지가 진동하고 산은 기울며 구름이 끼어 햇빛을 가리고 수토파 안에서는 큰 음향이 울리면서 사졸들은 넘어지고 코끼리나 말은 놀라 도망쳤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탑을 기웃거리는 자가 없다"고 적어 놓고 있다. "세상에 말은 많지만 아직 확실한 얘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쓴 기록에 의해 일의 진실을 알 수가 있었다.

### 3. 계원사와 그 부근

#### 1) 계원사(鷄園寺)

고성의 동남쪽에 쿠르쿠타아라마〔屈屈阿濫摩 : 당에서 鷄園이라 함〕 승가람이 있다. 아쇼카 왕이 불법을 믿게 되자 법도에 따라 건립하고 선근(善根)을 심는 가운데 범부승(凡夫僧 : 출가하여 僧團에 들었으나 아직 斷惑證理하지 못한 僧)과 성승〔聖僧 : 證界를 얻은 僧〕 1천 명을 소집하여 사사(四事 : 의복 · 음식 · 잠자리 · 湯藥)의 공양을 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남김없이 공급했다. 가람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지만 기초는 지금도 남아 있다.

2) 아말라카 탑

가람 쪽에 큰 수토파가 있는데 아말라카(阿摩落迦)라고 한다. 아말라카란 인도의 약용 과실 이름이다. 아쇼카 왕이 병들어 오래 끌면서 중태가 되었을 때, 이제 여명이 길지 않을 것을 알고 진귀한 보물을 기사함으로써 복선(福善)을 낳는 공양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권력 있는 가신이나 정치에 발 딛고 있는 사람들은 왕의 뜻대로 하지 말도록 간했다. 그 뒤 식사 때 아말라카를 먹지 않고서 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더니 형태가 거의 망가졌으므로 과실을 손에 쥐고 장탄식하면서 가신들에게 "잠부주(贍部洲)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가신들은 "오직 대왕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주인이 아니다. 오직 이 반 쪼가리 과실만이 뜻대로 될 뿐이다. 아, 세상의 부귀라고 하는 것은 그 덧없음이 바람 앞의 등불보다도 더하구나. 자리는 천하의 최고이고 이름은 대왕이라 하여 높지만 임종에 있어서는 물건이 궁핍하고 강력한 가신들에 눌려 있다. 천하는 내 것이 아니고 반 쪼가리 과실만이 내 것으로서 여기 있을 뿐이구나"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측근에게 명하여 "이 절반의 과실을 가지고 계원으로 가서 중승(衆僧)에게 시주로 내되 '옛날의 전 잠부주의 주인이며 지금은 오직 반 쪼가리 아말라카 밖에 없는 왕이 대덕(大德)의 승도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지막 시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몸에 지닌 것은 이미 없고 이 반과(半果)만이 겨우 자유로울 뿐입니다. 나의 궁핍함을 가긍히 여겨 복덕의 자량(資糧)을 더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라"고 일렀다.

측근의 신하가 가서 그와 같이 했더니 승도 중의 상좌승이 "아쇼카 대왕은 널리 천하를 제도하고자 했습니다만 질병은 왕의 몸에 있고 간신은 명령을 어기며 왕의 적보(積寶)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오직 반과만을 시주하셨습니다. 왕께서 보내신 명령을 삼가 받잡고 널리 승도들에게 시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3) 데바(提婆)의 간타성 탑

아말라카 수토파 서북쪽 낡은 가람 안에 간타성 탑(建揵稚聲塔)이란 이름의 수토

파가 있다.

애초에 이 성안에는 1백여 개 되는 가람이 있었고 승도는 근신하고 학업열도 높아 외도의 학자들이 입을 다물어 논쟁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 뒤 이름 있는 승도가 차츰 죽어가면서 후진으로서 그 선배를 이을 자가 없게 되었다. 한편 외도의 사승(師僧)은 가르침을 전하여 학예를 훌륭하게 성취시켜 나아갔다. 그리하여 외도들이 동료를 소집했던 바 천을 넘고 만을 헤아릴 정도로 많이 모여 승방으로 와서는 큰소리로 "간타(揵稚 : 때를 알리는 器具 이름)를 쳐서 학자들을 모이도록 하라"고 했다.

어리석은 승도들은 떼를 지어 모였는데 그중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간타를 친 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외도들은 왕에게 양자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런데 외도의 제사(諸師)는 재주 있고 학예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으나 승도 쪽은 사람은 많으나 논리가 매우 천박한 자들뿐이었다. 외도 사람들은 "우리 쪽이 토론에서 이긴다면 앞으로는 어떤 승가람도 간타를 쳐서 승도를 소집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승도에 대한 제재를 주장했다. 왕은 청원대로 토론을 시킨 끝에 승도들이 외도들에게 패하자 앞서의 약속과 같이 간타를 치지 못하도록 했다. 승도들은 치욕을 받고 패퇴하여 그 후 12년 동안 간타를 치지 못한 채 지냈다.

그 당시 남인도의 나가아르주나(那伽閼剌樹那 : 당에서 龍猛이라 함. 舊譯에 龍樹라 함은 잘못임. 2~3세기에 생존한 南인도의 바라문으로 대승불교를 인도에 널리 퍼뜨렸다. 인도에서 中觀派의 鼻祖로 침)보살은 어려서 칭송을 받고 자라서는 이름을 드날리고 있었는데 애욕을 버리고 출가 수행하여 깊은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초지(初地)에 올라 있었다. 이 사람의 제자에 데바(提婆)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혜가 명민하고 기지에 찬 사람이었다.

이 데바가 그 스승 용맹에게 "파탈리 성의 모든 학자들이 외도에 굴복하여 간타를 치지 못하게 되어 세월이 흘러 어언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사견(邪見)의 산을 부수어 정법의 횃불을 높이 들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자 용맹은 "파탈리 성의 외도는 박학하므로 그대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내가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다.

데바는 "썩은 풀을 털어내는데 어찌 산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르침을 받고 이학인들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대사께서 외도의 논리를 세워 나가시면 저는 그 문구에 따라 논파함으로써 그 우열을 분명히 한 다음 그 다음 일을 상의하십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용맹은 외도의 논리를 세우고 데바는 그 문구에 따라 이론을 타파하여 나갔는데 7일 후에 용맹은 이론의 근본을 잃고 말았다. 외도의 논리가 타파되었으므로 용맹은 감탄하여 "잘못된 말은 근본을 잃기 쉽고 잘못된 도리는 지탱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대가 가도록 하라. 그들을 깨뜨릴 수 있음은 이미 정해진 바다"라고 말했다.

데바보살의 명성은 일찍부터 나 있었으므로 파탈리 성의 외도인들은 그가 온다는 말을 듣자 모두 곧바로 달려와서 왕에게 "대왕께서는 전에 스스로 들으신 가운데 사문들을 제하여 간타를 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바랍옵건대 명령을 내리시어 모든 문을 지켜서 이웃나라의 외국 승려를 성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저희 패거리와 짜고서 경솔히 앞서의 제약을 고치려 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왕은 그 말을 받아들여 엄중히 경계하게 했다.

데바가 이곳에 이르렀으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를 막기 위해 포고된 명령을 들은 데바는 의복을 바꾸고 상가티를 접어 풀 다발 속에 넣고는 짊어진 채 아랫도리를 걷어붙이고 질주하여 성문을 들어섰다. 성안으로 들어가 풀 다발을 풀어 가사를 입고 이 가람에 와서 숙박하기를 청했으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떤 사람도 그를 유숙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타의 대 위에서 밤을 밝혔다.

아침이 되자 간타를 큰 소리가 나게 쳤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을 자세히 봤더니 어제의 그 나그네 비구가 아닌가. 다른 승가람도 그 절의 간타 소리에 맞추어 간타를 쳤다. 왕은 간타의 소리를 듣고 질문했으나 최초에 울린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사자(使者)가 이 가람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데바를 외도와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데바는 "대저 간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두드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인데 이

것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무엇 때문에 걸어 두겠는가”라고 말하자 왕의 사자는 “지난날 승려들이 토론해서 패퇴하여 승도들에게 쳐서는 안 된다고 한 때로부터 벌써 12년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데바는 “내가 오늘 법고를 다시 울린 것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왕에게 “외국의 사문이 지난번의 치욕을 씻고자 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하게 했다.

그래서 왕은 학자들을 소집하여 제약을 정했는데 “취하는 바 논리가 그 논거를 잃게 될 때는 죽음으로써 사죄할 것”이라고 했다.

외도 사람들은 다투어 훌륭한 진용을 편 다음 외도의 도리를 입에 닳게 말하면서 각기 변사(辯辭)의 날카로움을 보였다. 데바 보살은 논좌(論座)에 오르더니 외도 사람들이 먼저 하는 말을 잘 들은 다음 그 논리에 따라 논파하여 12일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모든 외도 사람들을 굴복시켰다. 국왕이나 대신들로서 경축하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그래서 이 영탑(靈塔)을 세워 보살의 지덕을 기념했다.

### 4) 마명(馬鳴)의 옛터

간타 수토파 북쪽에 낡은 기초가 있다. 옛날 귀변(鬼辯) 바라문이 있었던 곳이다. 당초 어떤 바라문이 이 성의 숲 속에 집을 짓고 세상과 교섭을 끊는 가운데 귀신을 제사 지내고 복을 구하면서 도깨비[魍魎]와 친구가 되어 사람과 고담준론을 함에 있어 그럴듯한 말이 음향에 따라 입에서 나왔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막을 치고서 마주앉아 논쟁했는데 종래의 박식한 학자들도 그를 누르는 자가 없어서 세인들은 한결같이 이 바라문을 성인과 같이 우러렀다.

그 당시 아시바고사[阿濕婆窶沙 : 당에서는 馬鳴이라고 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지식은 만물에 걸쳤고, 불교의 수행은 삼승(三僧 : 사람의 능력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教法을 수레에 비유한 것으로 聲聞 · 緣覺 · 菩薩의 세 가지)에 이른 사람이었다. 항상 사람들에게 “그 바라문은 학문에 사승(師承)도 없고 기예에 전통도 없다. 언제나 문을 닫고 혼자 살며 고명함에 제멋대로 하고 있다. 신귀(神鬼)와 친구가 되고 도깨비가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어찌 이렇게 처신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가 그 변설은 귀신의 전수에 의한 것이며 그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한 번 들을 수 있어도 두 번 되풀이해서 할 수 없으니 못 듣는다. 나는 이제 그에게 가서 그 행동거지를 관찰하려 한다"고 말한 다음 그 바라문의 움막으로 가서 "귀하의 높은 덕을 우러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무쪼록 장막을 거두고 마주앉아 내가 지녀 온 뜻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으나 바라문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장막을 드리운 채 영영 얼굴을 마주 대해 주지 아니했다. 마명은 귀신과 도깨비의 마음이 그를 오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끝낸 다음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다 알았다. 그를 논파해 내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왕에게 가서 "아무쪼록 그 거사와 논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했더니 왕은 놀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삼명(三明)을 증하고 육통(六通)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바라문과 토론을 할 수 있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왕은 수레의 준비를 명한 다음 스스로 그 자리에 가서 토론을 자세하게 관찰하기로 했다.

이 토론에 있어 마명은 삼장(三藏 : 經 · 律 · 論)의 미묘한 언사를 논하고 오명(五明)의 대의를 논했다. 그 변설은 종횡으로 묘(妙)를 다하고 그 논리는 참으로 높고 깊은 것이었다. 그런데 바라문이 마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마자 마명은 "그대는 내 말의 본뜻을 엇바꿔 생각하고 있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해 주기 바라오"라고 했다. 그러자 바라문은 묵묵히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마명은 꾸짖어 "어찌하여 비난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오? 당신은 귀신이나 도깨비를 섬기고 있는 터이니 빨리 내 질문에 해답하도록 하오" 하면서 재빨리 장막을 거두자 이상야릇한 것에게 묻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라문은 당황하여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했다. 마명은 자리를 물러나 "이 사람은 이제야 그 성대했던 명성이 떨어졌습니다. 헛되게 난 이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이름입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사도(邪道)임을 감별할 수 있겠소.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의 그 명석함은 공전절후(空前絕後)한 것이었소. 나라에는 정해진 규율이 있으므로 이 훌륭한 인물을 표창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5) 화씨성 서남쪽 탑사

성의 서남쪽 귀퉁이에서 2백여 리 되는 곳에 가람터가 있는데 그 옆에 수토파가 있다. 신령스런 광명이 때로 비추는 일이 있고 불가사의한 현상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했다. 원근의 사람들로서 여기에 소원성취를 빌지 않는 이가 없다. 여기는 과거사불이 앉았던 자리 및 산책했던 곳이다.

## 4. 텔라다카 가람 및 그 부근

1) 텔라다카 가람

낡은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1백여 리 가면 텔라다카 가람〔鞮羅擇伽伽藍〕에 이른다. 뜰과 건물은 사원(四院)으로 이루어지고 관 · 각(觀閣)은 3층으로 되어 있다. 높은 대(臺)는 여러 길이고 겹겹으로 된 문은 크게 열려 있다. 빔비사라 왕의 말손(末孫)이 세운 것이다. 그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표창하여 초치(招致)하고 덕이 높은 사람을 널리 불렀으므로 외국의 학자나 멀리 있는 준재들이 무리를 이루어 찾아왔다. 중문으로부터의 길에는 세 개의 정사가 있고 위에는 윤상(輪相 : 相輪)을 안치하여 방울을 달아 놓았다. 아래에는 여러 층의 기단을 쌓고 난순(欄楯)을 빙 둘러 놓았다. 문 · 창 · 서까래 · 들보나 담장 · 계단에는 금동이 섞여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사 안의 부처님 입상은 높이가 3장(丈)이며 왼쪽에 타라보살〔多羅菩薩 : 多羅觀世音이라고도 함〕, 오른쪽은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로 이 세 개의 상은 유석(鍮石)으로 만들었다. 위엄이 있고 사람이 알지 못한 보살핌은 멀리까지 미치고 있다. 정사 안에는 사리가 각기 한 말씩 들어 있으며 이상한 광명이 비추는가 하면 불가사의한 상서로운 조짐이 가끔씩 일어난다.

2) 불타입정의 대산

텔라다카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90여 리 가면 큰 산〔이 산은 붓다가야의 북방

25~6km의 바라바트 산으로 比定됨]에 이른다. 구름과 돌이 유울(幽蔚)하여 선인이 사는 곳이다. 독사나 난폭한 용이 그 풀섶에 혈거하고 맹수나 사나운 새들은 숲 속에 집을 짓고 산다.

산꼭대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수토파가 서 있는데 그 높이가 10여 척이다. 부처님이 입정한 곳으로 옛날 여래가 하계에 내려와 여기에 머무르면서 이 반석 위에 앉아 멸진정(滅盡定 : 성자가 미리 涅槃에 드는 想을 하는 定)에 들었다. 이리하여 하룻밤을 지내는데 모든 천인과 성인들이 여래를 공양하고 천악(天樂)을 울리며 천화(天花)를 뿌렸을 때 여래는 정에서 나왔다. 천인들은 마음으로부터 사모하여 칠보로 장식한 금은으로 수토파를 세웠다. 태평성대를 지난 지 이미 오래여서 보석은 변해 돌이 되었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 본 사람은 아직 없는데 멀리 높은 산을 바라보노라면 금수 같은 이류(異類)가 보인다. 큰 뱀이나 맹수가 떼를 이루어 우선(右旋)하면서 경배하고 천인과 성인은 따라서 찬양하며 예배한다.

3) 덕혜대론(德慧對論) 가람

산 동쪽에 수토파가 잇다. 그 옛날 여래가 멈춰 서서 마가다국을 바라보았을 때 발디딘 곳이다.

산의 서북쪽 30여 리에 오목하게 파인 곳에 가람이 있다. 봉우리를 등에 지고 기초를 높이하고 벼랑을 파고서 각(閣)을 맞세웠다. 승도는 50여 명,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덕혜(德慧 : 구나마티라고도 함)보살이 외도를 굴복시킨 곳이다.

애초에 이 산에는 외도인 마다바(摩沓婆)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상캬법[僧佉法 : 數術 · 數論 · 制數論이라고도 함. 20종 외도의 하나로 카필라가 창도한 학파]을 조술(祖述)하여 도를 닦고 있었다. 학은 내외에 통했으며 언(言 : 如來가 보인 教法)은 공유이문(空有二門 : 一切存在에는 實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空이라 하고, 이에 대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有라고 함)을 겸함으로써 그 명성은 선배보다 높고 그 덕은 크게 숭상되었다. 그때의 군주는 이를 진중히 여겨 이 사람을 국보라

고 했다. 벼슬아치와 백성들은 우러르고 사람들은 모두 집의 스승이라고 했다. 이웃나라 학자들이 덕을 우러르면서 이 사람을 선배 속에 끼워 넣을 정도로 참다운 박달(博達)의 선비였다. 생활은 두 고을을 식읍(食邑)으로 삼아 이 두 고을을 마치 둥근 고리처럼 경계삼고 그 자신의 아성을 만들고 있는 품이 흡사 봉건제도 때의 제후 같았다. 그 당시 남인도의 덕혜보살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일찍부터 정밀하고 상세함으로 명성이 높았다. 학은 삼장에 통하고 이(理)는 사체(四諦 : 苦集滅道의 진리)를 다하고 있었다. 그는 마다바의 이론이 유미(幽微)를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기예를 꺾고자 하여 마다바에게 편지를 띄웠다.

"마다바 선생, 안녕하십니까. 노고를 잊고 구학(舊學)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3년 후에는 선생의 명성을 깨뜨리겠습니다."

이리하여 2년, 3년이 되어 사자를 보내 알렸다. 출발하려 할 때 거푸 편지를 보내 "약속한 날은 이미 왔습니다. 공부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가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마다바는 두려운 마음에 문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영을 내려 앞으로 사문이나 이도 사람을 유숙시켜서는 안 되고 그가 나타날 때는 서로 알림으로써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했다. 덕혜보살이 석장(錫杖)을 짚고 마다바 마을에 왔으나 마을 사람들은 영을 지켜 유숙시켜 주지 않았다. 바라문들은 매도하기를 "머리를 박박 깎고 기묘한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서 꺼져 여기 머물지 말라"고 했다.

이도를 깨뜨리려 한 덕혜보살은 이 마을에 유숙하고자 하여,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인사하면서,"여러분들은 재세간(在世間)의 수행자이고 나는 출세간(出世間)의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란 뜻에서 같은 처지인데 어찌하여 거절합니까" 하고 말했으나 바라문들은 영을 지켜 내쫓기로만 작정했다.

그리하여 동구 밖 큰 숲 속으로 쫓겨 들어갔다. 숲 속은 맹수들이 떼를 지어 난폭하게 굴고 있기 때문에 한 정신자(淨信者 : 淸淨한 信心을 가진 자)가 보살이 해 입을 것을 우려하여 횃불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보살에게 찾아와 "남인도에 덕혜보살이라는 분이 계시어 멀리 소문이 나기를, 이곳으로 와서 토론을 벌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주인은 명성이 실추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엄중

한 영을 되풀이해 내려 사문을 숙박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 나 당하지 않나 해서 새삼스럽게 와서 도와드리는 것이니 함께 가십시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고 말했다.

덕혜보살은 “심신이 두터운 당신에게 밝히겠습니다. 덕혜란 바로 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자 한층 더 경의를 표하면서 덕혜에게 “사실이 그렇다면 얼른 가십시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곧 숲 속을 나와 공지에서 쉬었다. 그는 불을 일으켜 준 다음 활을 들고 좌우를 돌면서 호위했다. 한밤이 지나자 덕혜에게 “자, 가십시다. 남들이 알고 달려들어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덕혜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대로 왕궁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이제 사문이 멀리서 왔다. 왕에게 아무쪼록 마다바와 토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여쭈어라”라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하고 말했으나 곧 사자에게 마다바한테 가서 왕명을 전하도록 했다.

“외국의 사문이 와서 토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토론장은 청소를 시켜 놓고 원근 사람들에게 영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어서 왕림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뢰었다. 마다바는 왕의 사자에게 “남인도의 덕혜논사가 아니던가” 하고 물었다.

사자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마다바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으나 사퇴하기도 어려워 토론장으로 왔다. 국왕을 비롯하여 대신에서 사민 · 호족 등 모두가 토론을 듣고자 모여들었다.

먼저 덕혜가 자파의 논지를 세우는데 그 말이 저녁 무렵까지 이르렀다. 마다바는 나이도 들고 분별력도 흐릿하여 답변할 것을 사퇴하면서 자택에 돌아가 생각한 다음 대답하겠노라고 했다. 그 후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마다 돌아가 생각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논좌에 올랐을 때는 특별한 대답도 못했다. 그러다가 제6일째가 되었을 때 피를 토했다. 그는 명이 다하려 하자 그 아내에게 “그대에게는 훌륭한 재능이 있으니 내가 치욕받은 바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하라”고 이

른 후 죽어 버렸다.

마다바는 죽었지만, 그 아내는 죽음을 감추고 발상(發喪)하지 않은 채 고운 옷을 입고 토론장으로 왔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마다바는 자기 재능이 높은 것을 자부하여 덕혜와 같은 자와 대적함을 부끄러이 여기면서 그 아내를 보냈다. 우열은 이미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덕혜보살은 마다바의 아내에게 “당신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이겼었다”라고 말하자, 마다바의 아내는 일이 난처함을 알고 퇴장해 버렸다.

왕은 “어떤 내용의 말을 했기에 그 여자가 침묵했는가” 하고 묻자 덕혜는 “애석하게도 마다바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나와 토론하고자 왔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고 말했다. 덕혜는 “마다바의 아내가 왔을 때 보니 그 얼굴에는 사상(死喪)의 색이 있었고 그 말에는 애원(哀怨)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바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을 가리켰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이 사자를 보내 알아봤더니 과연 그 말대로였다. 그래서 왕은 사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은 것이어서 성인 현자가 뒤를 이어받고 있으며 인위(人爲)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의 길이 지켜지면서 중생은 그 덕화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의 국법에 따라 덕이 있는 자를 포상함으로써 그에 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덕혜는 “나는 우매합니다만 도는 몸으로써 행하고 바른 것을 지키며 분수를 아는 가운데 사물을 평등하게 보아 왔습니다. 또 사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 먼저 사람들에게 있는 오만을 타파했습니다. 지금이 방편으로써 중생을 보호하고 가르쳐 인도할 때입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마다바 마을의 자손을 영원토록 항상 승가람에 근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훈계를 장래에 미치면서 이 아름다운 일을 영원히 전달할 것입니다. 또 저 깨끗한 신도는 저를 수호해 준 사람이므로 행복을 몇 대에 걸치게 해 주시고 식사나 그 밖의 일용

사 역시 승도와 함께 대우하면서 한편으로는 맑은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한편으로는 후덕을 포상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이 가람을 세워 훌륭한 사적을 표창한 것이다.

그러나 마다바가 논쟁에서 패배했을 때 수십 명의 정행(淨行 : 婆羅門)들이 이웃나라로 피난하여 외도들에게 치욕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준재를 모집하여 이 나라에 다시 와 앞서의 치욕을 설욕하려고 했다. 그런데 왕이 덕혜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덕혜한테 가서 "이제 외도들은 자기들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사는 이 모든 이도들을 논파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덕혜는 "논쟁할 자들을 모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외도들은 서로 흔쾌하게 "오늘은 우리가 이기기로 정해져 있다"고 위로를 주고받았다.

이때 외도들은 스스로 취할 의리를 명백히 했다. 덕혜보살은 "지금 외도 사람들은 난을 피하여 멀리 갔소. 이것은 왕이 지금까지 취해 온 율령으로 살펴볼 때는 모두가 천민이요. 내가 이제 어떻게 그들과 토론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덕혜 옆에는 좌상(坐像)을 등지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평상시부터 이런저런 논쟁을 들어 불법의 깊은 뜻에 통달해 있었다. 덕혜는 그 소년이 앉은 자리를 두드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네가 논리를 펴도록 해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그 명령을 기묘하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좌상에 앉은 소년은 곧장 입으로 논리를 폈는데 그 깊은 이치는 샘물이 솟는 것과 같고 청렬(淸冽)한 변설은 울림소리에 응하는 것과도 같았다. 몇 번 논쟁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외도들은 그 본지를 잃게 됨으로써 거푸 예봉이 꺾여 기를 잃게 되었다. 논쟁에 설파당한 이래 이곳은 가람 소유의 마을이 되었다.

4) 계현대론의 가람

덕혜가람에서 서남쪽으로 20여 리 가면 한 산에 닿는다. 거기에 가람이 있다. 계현(戒賢 : 실라바드라, 尸羅跋陀羅라고 함)논사가 논쟁을 하여 이김으로써 마을을 기증받아 세운 것이다. 높은 봉우리가 옆에 솟아 마치 수토파와 같은데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

논사는 사마타타국의 왕족으로 바라문의 종성(種姓)이다. 젊을 때부터 학문을 닦아 훌륭한 뜻이 있었다. 인도의 여러 곳을 돌면서 훌륭한 학자를 찾는 가운데 이 나라의 날란다 승가람에 와서 호법보살을 만나 불법을 듣고 눈이 트이면서 염의(染衣) 입을 것을 원하였으며 깨달음의 뜻을 묻고 해탈의 방도를 물었다.

그리하여 이론의 깊은 뜻을 터득하고 부처님의 미묘한 언설을 다하여 그 명성을 떨쳤으며 이름과 명예는 외국에까지 드높았다.

그 당시 남인도의 한 외도가 깊은 사리와 끝 모를 진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호법의 이름 높음을 듣고 자만심과 질투심이 생겨 산천을 넘어와 북을 치면서 논쟁을 요청했다.

"저는 남인도 사람입니다. 왕의 국내에 대논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불민합니다만 그분과 논쟁을 벌였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자 왕은 "있소. 말씀하신 대로요" 하고 대답한 다음 사신을 보내어 호법에게 "남인도의 외도가 천 리를 멀다 않고 와서 논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토론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듣자 호법은 곧 염의를 걸치고 나가려고 했다. 문인 중에 계현(戒賢)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어찌하여 급히 나가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호법은 "불타께서 적멸하여 불법을 전승하는 것이 소원해진 가운데 외도는 개미와 같이 모였고 이도의 무리는 벌떼같이 성가시게 군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들의 논리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계현은 "삼가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 온 터이므로 제가 나가서 이도를 논파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호법은 계현이 준영(俊英)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허락했다. 이때 계현의 나이 고작 서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젊은 것을 가벼이 여기고 혼자서 그 일을 맡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염려했다. 호법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염려를 풀기 위해 "재능이 탁월한 점을 귀히 여길 일이지 나이에 관해서는 말할 일이 아니오. 재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외도를 논파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오" 하고 말했다.
토론 날이 되자 원근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 외도는 대지(大旨)를 명백하게 말하고 미세한 점까지 논술했다. 그러나 계현은 이로(理路)에 따라 상대방의 내용을 찔렀으며 그 논리는 깊고 유현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도는 변론에 궁하여 치욕을 받고 패퇴했다. 그리하여 왕은 그 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마을을 하사하려 했으나 논사는 "염의를 입은 출가는 재화가 만족함을 알고 스스로 몸을 맑게 하여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설사 마을을 얻는다 해도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왕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신 다음 고해를 건너는 지혜의 배도 함께 없어졌는데 표창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후학들을 격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법을 널리 펴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아무쪼록 받아주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으므로 논사는 할 수 없이 이 마을을 받았다. 그리하여 가람을 세우고 모든 양식을 다했으며 그 마을의 사람들은 기사하여 봉양했다.

## 5. 불타성도 전의 사적

### 1) 가야성과 가야산

계현가람에서 서남쪽으로 4~50리 가서 니란자나 강〔尼連禪河〕을 건너면 가야성(伽倻城)에 이른다. 성은 대단히 험고하며 주민은 적고 다만 바라문 종들이 사는 집만이 1천여 채 있다. 대선인(大仙人)의 자손들이다. 왕은 신하와 함께 있지 않으나 사람들은 모두 존경하고 있다.
성 북쪽 30여 리 되는 곳에 고운 샘이 있다. 인도에서는 이를 성수(聖水)라 하는데 마시거나 목욕하거나 하면 죄장(罪障)이 소멸된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성 서남쪽으로 5~6리 가면 가야산에 이른다. 계곡은 어두컴컴하고 봉우리의 바위도 위태롭다. 인도의 국속(國俗)으로 영산(靈山)이라 일러 오고 있다.
옛날부터 국왕은 천하를 통일하면 "교화가 멀리까지 널리 이르고 덕이 전래〔前代〕

보다 성하소서" 하고 이 산에 올라서 흙을 쌓고 즉위를 하늘에 보고하지 않은 자가 없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험이 있고 때때로 불가사의한 광채가 번쩍인다. 옛날에 여래가 이곳에서 《보운경(寶雲經)》 등을 설법했다.

### 2) 세 카샤바의 탑

가야산 동남쪽에 수토파가 있다. 카샤바(迦葉婆 : 세 카샤카바라고도 함. 長兄이 우루빌바, 가운데가 나디카샤바, 끝이 가야카샤바)가 태어난 마을이다. 그 남쪽에 두 개의 수토파가 있다. 이것이 가야카샤바와 나디카샤바(옛날에 那提迦葉이라 함은 잘못임. 모든 迦葉은 하나같이 波字가 없으나 생략한 것임)가 불(火)을 섬긴 곳이다.

### 3) 전정각산(前正覺山)

가야카샤바가 불을 섬긴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대하(大河 : 니란자 강)를 건너면 전정각산(前正覺山 : 프라그보디 산, 鉢羅笈菩提山이라 함. 如來가 곧 正覺을 얻으려 하면서 먼저 이 산에 올랐다. 그래서 前正覺이라 한다)에 이른다.
여래는 수행하기 6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깨달음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고행을 단념하고 젖죽(乳粥)을 받았다. 그리고서 동북으로 와 이 산을 보자 유적(幽寂)의 느낌이 들어 여기서 깨달음을 열고자 했다. 동북쪽 언덕에서부터 정상에 이르자 대지가 진동하고 산도 흔들렸다. 산신은 놀라서 보살(成道 전의 釋迦를 가리킴)에게 "이 산은 깨달음을 여는 데 좋은 곳이 못 됩니다. 만약 여기서 금강정(金剛正 : 金剛三昧라고도 함. 一切諸法에 통달하는 三昧)에 드신다면 대지는 함몰하고 산도 전복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보살이 서남쪽으로 산을 내려오니 산의 중허리 벼랑 속에는 바위를 뒤로 하고 골짜기를 바라보는 큰 석실이 있었다. 보살은 여기에 들어가 발을 괴고 앉았다. 그런데 대지가 또 움직이고 흔들리며 산도 기울었다. 그때 정거천(淨居天 : 본래 성자가 사는 하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淨居天에 사는 天人이란 뜻)이 하늘에서 소리 높여 "이곳은 여래가 깨달음을 열 곳이 못 됩니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14~5리

되는 곳으로 고행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핍팔라수가 있고 그 아래에 금강좌가 있습니다. 과거 · 미래의 제불은 모두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거기 앉도록 하소서"하고 말했다. 보살이 일어나려 하자 석실 안의 용이 "이 석실은 깨끗하고 훌륭하여 깨달음을 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아무쪼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보살은 여기가 깨달음을 열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용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그림자를 남겨 놓고 떠났다. 〔옛날에는 그 그림자를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보았는데 이제는 더러 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여러 천인이 앞으로 인도하여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쇼카 왕이 흥륭했을 때 보살이 등산하면서 오르내린 자국에는 모두 기념하는 표지를 하고 수토파를 세웠다. 크기에 차이는 있어도 영험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는데 혹은 꽃이 공중에서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혹은 광명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비추기도 한다. 해마다 안거(安倨)가 끝나는 날에 여러 곳을 승속 모두가 이 산에 올라 공양하고 이틀을 묵은 다음 돌아간다.

## 6. 불타 성도지(成道地)의 사적

### 1) 보리수의 개관

전정각산에서 서남쪽으로 14~5리 가면 보리수(菩提樹)에 이른다. 주변의 담장은 기와를 쌓은 것으로 높고 험고하다. 동서는 길고 남북은 좁으며 주위는 5백여 보 된다. 진귀한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널려 그늘을 이루고 가는 모래 위에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풀이 무성하게 초록빛으로 덮고 있다. 정문은 동쪽으로 열려 니란자나 강을 향하고 남문은 큰 꽃이 핀 연못으로 이어졌으며 서쪽은 험한 땅으로 막혀 있고 북쪽은 대가람으로 통해 있다. 담장 안 경내는 성적(聖跡)이 이어져 있어서 수토파가 있거나 정사가 있는 그런 식이다. 모두가 잠부주 제국의 군왕 · 대신 · 호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기념으로 건립한 것들이다.

2) 금강좌

보리수를 둘러싼 곳 담장 한가운데에 금강좌(金剛座)가 있다. 옛날 현겁(賢劫)의 초엽에 생긴 것으로 대지와 함께 나온 것이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안에 자리 잡아, 아래로는 금륜(金輪 : 고대 인도의 宇宙觀에서는 세계의 最底가 風輪으로 우주에 떠 있고 이 풍륜 위에 水輪이 있으며 水輪 위에 金輪이 있다고 한다. 輪刑의 金剛으로 되어 金輪이라 하는데 그 金輪 위에 山과 바다의 地表가 있어 이를 地輪이라 한다)에 이르고 위는 지면에 나타났다. 금강으로 만들어졌는데 주위는 1백여 보가 된다. 현겁 중의 천불(千佛)이 여기에 앉아 금강정에 들었기 때문에 금강좌라 하고, 깨달음을 연 곳이기 때문에 보리토량(菩提道場)이라고도 한다.

대지가 진동해도 이곳만은 기울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여래가 정히 깨달음을 열고자 했을 때 이곳을 통과하자 대지는 기울고 흔들렸으나 그 다음 이곳에 오자 고요하여 기울지 않았었다. 그러나 세상이 흘러 정법이 차츰 쇠퇴하면서 모래나 흙이 덮여지는 가운데 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다음 제국의 군왕은 부처님이 금강좌의 크기를 설법한 것을 듣고 두 개의 관자재보살상(觀自在菩薩像)으로 남북 경계의 표를 하고서 동향(東向)하여 안치했다. 이 말을 옛 선인에게 들었더니 "이 보살상이 묻혀 보이지 않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남쪽 귀퉁이 보살이 묻힌 것이 가슴을 넘을 정도이다.

3) 보리수의 성쇠

금강좌 위의 보리수란 핍팔라(畢鉢羅)나무이다. 옛날 부처님의 재세 중에는 높이 수백 척이었으나 가끔씩 벌채당했음에도 아직도 높이가 4~5장(丈)은 된다. 부처님이 그 아래 앉아 깨달음을 열었기 때문에 이를 보리수라고 한다. 줄기는 황백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란데 겨울이나 여름이나 잎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윤이 난다. 해마다 여래의 열반일이 되면 잎은 모두 떨어져 버리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온다. 그날에는 소집하지 않아도 제국의 군왕이나 여러 곳의 승도 · 속인 등 수천만 명이 모여들어 향수나 향유를 붓는다. 그리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향

화를 벌여 놓고 등불을 켜고서 밤낮없이 다투어 공양을 드린다.

여래가 적멸한 다음 아쇼카 왕이 처음 즉위했을 때는 사도를 신앙하여 부처님의 유적을 파괴했다. 군대를 동원하여 스스로 나서서 보리수를 벌채한 다음 이를 토막 내어 그 서쪽 수십 보 되는 곳에 쌓아 올리고서 바라문에게 태우게 하여 하늘에 제사 지냈다. 그런데 연기나 불꽃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은 사이에 두 개의 나무가 솟아올라 불꽃 속에서 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를 회보리수(灰菩提樹)라 부르고 있다. 아쇼카 왕은 그와 같은 이변을 보고서 스스로 잘못을 후회했다. 그리하여 남은 향유를 뿌리에 뿌렸더니 이튿날 아침 나무는 본래대로 되어 있었다.

왕은 이 이상한 일을 보고 거듭 깊이 기뻐하면서 스스로 공양하는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그런데 왕비는 본래 외도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남몰래 사람을 시켜 다시 그 나무를 자르게 했다. 아쇼카 왕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갔더니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서 크게 슬퍼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고 향유를 뿌렸더니 그날이 저물기도 전에 본래 대로 자라났다. 왕은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 돌로 담장을 둘렀다. 그 높이가 10여 척인데 지금도 남아 있다.

요 근년 들어 샤상카 왕이 외도를 믿고 불교를 배척한 나머지 승가람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이 보리수도 잘라 뿌리를 캐어 수맥(水脈)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으나 뿌리를 파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불을 질러 태운 다음 고구마즙을 뿌려 그 뿌리를 말려서 남은 싹을 깡그리 없애려고 했다. 수개월 후 아쇼카 왕의 말손(末孫)인 마가다국의 푸르나바르만 왕〔補剌拏伐摩王 : 唐에서는 滿冑라 함〕이 말을 듣고 "불타께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시고 다만 부처님의 나무를 남겼을 뿐인데 다시 이 나무까지 잘라 버린다면 중생은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하면서 몸을 땅바닥에 던져 슬퍼했는데 그 슬퍼하는 마음은 물건들도 느껴 감동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수천 마리의 소의 젖을 짜서 뿌렸더니 하룻밤이 지나자 나무가 되살아나 그 높이 1장 남짓이 되어 있었다. 후세의 사람이 다시 벌채할까 염려하여 주위를 높이 2장 4척 되는 돌담으로 둘러쌌다. 그래서 지금의 보리수는 돌벽 안에 숨겨져 1장 남짓만이 위로 솟아나 있다.

4) 붓다가야 대탑(佛陀伽倻大塔)과 성도의 불탑

보리수 동쪽에 정사가 있다. 높이 1백 6~70척, 아래 기단의 넓이는 20여 보이다. 푸른 기와로 쌓았는데 석회가 칠해져 있다.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감(龕)에는 각기 금상이 들어 있다. 사방의 벽은 진귀한 조각으로 꾸며졌는데 구슬 모양을 잇대어 놓기도 하고 천선의 상을 새겨 놓기도 했다. 정사 위에는 금동의 아말라카(阿摩落迦 : 亦寶甁이라고 하며 寶壺라고도 한다)가 놓여 있다. 정사 동쪽에 접하여 중각(重閣)이 지어져 있다. 특히 차양은 세 겹으로 만들어졌으며 서까래 · 기둥 · 들보 · 대들보 · 큰 문 · 작은 문 · 창 · 영창 등은 금은 조각으로 꾸며 놓았으며 진주와 보옥을 박아 놓았다. 방은 크고도 깊숙하여 입구는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외문 좌우에는 각기 감으로 된 방이 있는데 왼쪽에는 관자재보살의 상이, 오른쪽에는 자씨보살의 상이 있다. 백은으로 주조한 것인데 높이는 10여 척 된다.

이 정사의 본래 땅에는 아쇼카 왕이 먼저 작은 정사를 세웠는데 나중에 어떤 바라문이 그를 한층 넓혀 지금처럼 세운 것이다. 애당초 그 바라문은 불법을 믿지 않고 대자재천을 섬겼다. 그는 대자재천 천신이 설산 속에 살고 있다고 전해 듣고는 아우와 함께 가서 소망을 빌었다. 천신은 “사람의 소망이란 복업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 것으로, 그대가 기원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가 그 소원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므로 바라문은 “어떤 복업을 닦을 때 저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신은 “선근(善根)을 심으려거든 먼저 훌륭한 밭부터 구해야 한다.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지금 곧 보리수 있는 곳으로 가서 큰 정사를 세우고 큰 연못을 판 다음 모든 공양을 성대히 할 것 같으면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니라”라고 대답했다.

바라문은 천신의 분부를 받고 크게 신심을 일으켜 형제가 함께 되돌아가 형은 정사를 세우는 한편 아우는 연못을 팠다. 그리하여 널리 공양을 닦고 소원성취를 빌었더니 그 뒤 그대로 되어 왕의 대신이 되었다. 그러나 봉록상여(俸祿賞與)는 이를 모두 기사(寄捨)했다.

정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공인을 모집하여 여래가 처음으로 성도(成道)한 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헛되이 세월만 흘러갈 뿐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

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을 때 어떤 바라문이 와서 사람들에게 “나는 훌륭하게 여래의 묘상(妙像)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므로 사람들은 “상을 만드는 데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향니(香泥)입니다. 향니를 정사 안에 두어 주십시오. 또 나를 비추는 등불 하나도 함께 놓아 주십시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입구의 문을 단단히 닫고서 6개월 뒤 비로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승도들은 모두 그 분부대로 했다. 6개월을 4일 남긴 날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고 자세히 봤더니 정사 안에는 불상이 훌륭한 모습으로 발을 괴어 오른발을 위에다 얹고 왼손을 샅 위에 두었으며 오른손을 늘어뜨려 항마인(降魔印)의 상을 지은 가운데 동쪽을 두르고 앉아 있었다. 그 근엄한 모습은 참으로 그곳에 부처님이 있는 것과 같았다.

대좌의 높이가 4척 2촌이고 넓이는 1장 2척 5촌이며 상의 높이는 1장 1척 5촌에 양 무릎의 거리가 8척 9촌이며 양 어깨는 6척 2촌이다. 얼굴 모습은 원만구족(圓滿具足)하여 그 자비로운 얼굴은 산 사람과도 같았다. 다만 오른쪽 젖가슴 위는 아직 칠이 덜 되었으나 이미 그곳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참으로 영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슬피 탄식하면서 진심으로 그것을 만든 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했다.

일찍부터 마음이 순박한 한 사문이 있었는데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전의 그 바라문이 “나는 자씨보살이다. 공인(工人)의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성용(聖容)을 추측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내 스스로 와서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난날 여래가 불과(佛果)를 증하려 했을 때 천마가 와서 괴롭히려 했다. 그때 지신이 천마가 오는 것을 알렸고 다른 지신이 나서서 부처님이 천마를 항복시키는 것을 도우려 했다. 여래는 “그대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인내력으로써 그들을 항복시킬 수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마왕은 “누가 증명합니까?” 하고 묻자 여래는 손을 늘여 땅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증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때 제2의 지신이 뛰어나와 증명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상의 손은 지난날 늘어

뜨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꿈에 나타났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험이 있는 유래를 알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젖가슴 위쪽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 가지 보석을 섞어 진주의 영락(瓔珞)에 보관(寶冠) 등 진귀한 것으로 장식했다.
샤상카 왕이 보리수를 베었을 때 이 상도 파괴하려고 했으나 상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자 마음에 불안을 느낀 끝에 수레를 되돌려 돌아가려 하면서 대신들에게 "이 불상을 제거하고 대자재천의 형상을 안치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대신은 명을 받았으나 두려워서 탄식했다.
"불상을 파괴하면 영겁에 걸쳐 재앙을 받을 것이며 왕의 명을 어기면 몸을 망치고 일족을 또한 망치게 될 것이 뻔하다. 진퇴가 이같이 어려울 때 어디로 가면 된단 말인가."
그리하여 신심이 깊은 자들을 노무자로 모아 불상 앞에 그를 막아 감출 수 있게 기와 벽을 세웠는데 꼼꼼하게 해 놓는다는 것이 마음 아파 등불을 켜 두었다. 그러고는 기와 벽 앞에 자재천상을 그렸다. 작업을 완성하고서 왕에게 그 사연을 보고했는데 왕은 그 말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 몸에 물집이 잡히면서 피부가 갈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대신은 뛰어가서 장벽을 파괴했던 바,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는데도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 상은 지금도 있으며 훌륭한 세공은 손괴된 데가 없다. 방 깊숙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 붙여 두고는 있으나 그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려 해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침 일찍이 큰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끌어들여 안을 비추면 비로소 영상(靈相)을 잡을 수가 있다. 그 자비로운 얼굴을 대한 사람 중에는 스스로 중압감을 느끼는 자도 있다.

### 5) 불타 성도의 시일

여래는 인도의 바이샤카월의 후반 8일에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었다. 이는 당(唐)의 5월 8일에 해당한다. 상좌부에서는 바이샤카 월의 후반 15일에 등정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는 당나라에서 3월 15일에 해당한다. 이때 여래는 30세였다고 하

는데 간혹 35세였다고도 한다.

6) 성도 후 경행(經行)한 곳

보리수 북쪽에 부처님이 산책했던 곳이 있다. 여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7일 동안 망념을 쫓는 가운데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일어나자 보리수 북쪽으로 가 7일 동안 산책하고 동서로 왕래했다. 걸어 다닌 10여 보에는 진귀한 꽃이 발자국을 따라 18개가 피었다. 후세인이 여기에 기와를 쌓고 높이 3척 남짓한 기초를 만들었다. 옛 선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성적(聖跡)의 기초는 인명의 장단(長短)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먼저 마음으로부터 소원을 일으킨 다음 나중에 측량하면 수명의 장단에 따라 길이에 증감이 있다는 것이다.

7) 불타가 나무를 바라본 곳

산책했던 기초의 북쪽으로 길 왼쪽 반석 위의 큰 정사 안에 불상이 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인데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7일 동안 보리수를 보는데 눈을 잠시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나무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에서 바라본 것이었다고 한다.

8) 칠보당과 칠보좌

보리수 서쪽 멀지 않은 큰 정사 안에 유석(鍮石)으로 된 불상이 있다. 진귀한 보물로 장식되었는데 동쪽을 뒤로 하고 서 있으며 앞에 이채로운 청석(靑石)이 있다. 옛날 여래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자 범왕은 칠보의 당(堂)을 세웠고 제석(帝釋)은 칠보의 좌를 만들었다. 부처님은 그 위에서 7일 동안 사색했는데 신기한 빛이 보리수를 비추었다. 성대(聖代)를 지나기 이미 오래여서 보석은 돌로 변해 버렸다.

9) 예초인탑(刈草人塔)

보리수 남쪽 멀지 않은 곳에 높이 1백여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보살이 니란자니 강(尼連河)에서 몸을 씻고 보리수로 가려고 했을 때 무

엇을 깔개로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마침내 정초(淨草)를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제석천은 그 몸을 꼴 베는 사람으로 변하여 정초를 짊어지고 나섰다.
보살이 "지고 계신 풀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사람으로 몸을 바꾼 제석천은 그 말을 듣고 공손히 풀을 바쳤다. 보살은 그것을 받고 보리수 있는 곳으로 갔다.

10) 청작군록의 상서(祥瑞)
수초(受草) 수토파의 동북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보살이 불과를 증하려 했을 때 청작(靑雀) · 군록(群鹿)이 상서를 나타내 보인 곳이다. 인도의 습속에서 이것은 아주 재수 좋은 표시이다. 그러므로 정거천(淨居天)은 세상의 습속에 따라 떼를 지어 날고 주변을 달리면서 영묘함과 신성함을 나타낸 것이다.

11) 마왕 · 마녀의 유혹
보리수 동쪽, 큰길 좌우에 각기 1개씩의 수토파가 있다. 바로 마왕이 보살을 괴롭힌 곳이다. 보살이 불과를 증하려고 하자 마왕은 석가가 전륜왕의 자리를 이어 천하를 통치하도록 권유했으나 그 모사가 성공하지 못하여 낙담하고 돌아섰다. 또 마왕의 여자들이 자청하여 유혹에 나섰으나 보살의 위신력(威神力)에 의해 그 아름다운 모습은 노인으로 변하면서 쇠약한 몸에 지팡이를 짚고 서로 도와가며 패퇴했다.

12) 카샤바불과 두 지신
보리수 서북쪽 정사 안에 카샤바불의 상이 있다. 영묘하고 신성한 상이라고들 하는데 때로 빛을 내는 일이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일곱 번 돌면 숙명지(宿命智 : 六通 · 三明의 하나. 過去世의 사실을 아는 智力)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카샤바불 정사의 서북쪽에 2개의 기와로 만든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기 지신의 상이 있다. 옛날 여래가 깨달음을 얻으려 했을 때 한 사람은 마가 오는 것을 알렸

고 한 사람은 부처님의 증인이 되었다. 후세 사람이 그 공을 기념하여 그 모습을 그려 공을 현창(顯彰)했다.

13) 울금향 탑

보리수의 담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울금향탑(鬱金香塔)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40여 척이며 자구다국의 장사치가 세운 것이다.

옛날 자구다국의 큰 장사치가 천신을 받들어 복리를 구하면서 불교를 경멸하고 인과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장사치 친구와 무역을 하는 가운데 배를 남해(南海)에 띄우고 있었던 바 풍랑을 만나 길을 잃고 표류하여 3년이 지났다. 식량도 다 떨어져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이 되었다.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힘과 마음을 합하여 믿고 있는 천신에게 기도했으나 마음은 이미 피로하여 있었고 아무런 효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문득 큰 산이 시야에 들어왔다. 높은 벼랑에 험준한 고갯마루, 두 개의 태양이 연달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사치들은 서로 “우리들은 행운이 있어서 이 큰 산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도록 합시다”라며 위안했으나 그 예의 장사치는 “그것은 산이 아닙니다. 저것이야말로 마카라(摩竭魚 : 전설상의 큰 물고기)입니다. 높은 벼랑, 험준한 고갯마루로 보이는 것은 수염과 갈기입니다. 두 개의 태양이 연달아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눈빛이고요” 하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배와 돛은 크게 흔들렸다. 그러자 그 장사치는 친구들에게 “나는 관자재보살에 대해 들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 안락하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그 이름을 외웁시다”라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곧 소리 맞춰 보살에게 마음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외웠더니 높은 산도 보이지 않고 두 개의 태양도 없어졌다. 그러더니 사문이 위의(威儀)를 갖추고 석장(錫杖)을 짚고 허공을 헤집고 와서는 빠져 죽을 것을 구해 주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신심을 굳히고 복덕을 구하여 마음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수토파를 세워 공양을 하고 울금향의 향니(香泥)로써 위아래를 모조리 발랐다. 이

읏고 발심(發心)하여 동지들과 더불어 스스로 인도의 성적을 돌면서 보리수를 보았는데 돌아갈 생각은 염두에도 없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나 버렸다. 장사치 친구들은 서로 "산천 저 멀리 고향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세운 수토파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누가 소제해 주고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고 보리수를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왔더니 수토파가 눈에 띄었다. 그 출현에 놀라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본국에 세운 수토파였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이에 따라 '울금'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14) 범천(梵天)의 청(請)

보리수 담 동남쪽 구석에 있는 니그로다 나무〔尼拘律樹〕 옆에 수토파가 있다. 그 옆에 정사가 있고 안에는 부처님의 좌상이 만들어져 있다. 옛날 여래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대범천왕이 묘법륜(妙法輪)을 설법해 주도록 부탁했었다.

15) 보리수 네 귀의 불탑

보리수 담 안의 네 귀퉁이에는 각기 큰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길상초(吉祥草 : 淨草)를 받고 보리수 쪽으로 갔다. 먼저 네 귀퉁이를 차례로 돌자 대지가 진동했다. 그러나 금강좌 쪽으로 갔을 때는 진동이 없이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보리수 담장 안의 성스러운 흔적은 대단히 많아서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다.

16) 목녀(牧女)의 봉죽〔奉糜〕

보리수 담장 밖 서남쪽에 있는 수토파는 젖죽을 바친 두 목녀(牧女)의 옛집이다. 그 옆의 수토파는 목녀가 죽을 끓였던 곳이며 이에 잇대어 있는 수토파는 여래가 죽을 받았던 곳이다.

17) 남문 밖의 두 연못

보리수 남문 밖에 커다란 연못이 있다. 둘레는 7백여 보 된다. 맑은 물은 거울과 같은데 용과 고기가 살고 있다. 바라문 형제가 대자재천의 말을 듣고서 판 것이다.

이어 남쪽에 있는 연못은 옛날 여래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세탁하려 했을 때 제석천이 부처님을 위해 만든 것이다. 연못 서쪽에 큰 돌이 있다. 부처님이 옷을 세탁하고 말리려 했을 때 제석천이 대설산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옆 수토파는 여래가 그곳에서 낡은 옷을 입었던 곳이다. 이어 남쪽 숲 속에 있는 수토파는 여래가 가난한 노파의 낡은 옷을 보시받았던 곳이다.

18) 무칠린다〔目支鄰陀〕 용왕 못

제석천이 만든 연못 동쪽 숲 속에 무칠린다 용왕 못이 있다. 그 물은 검은 기가 도는 아름다운 빛깔인데 그 맛이 좋다. 서쪽 기슭에 자그마한 정사가 있는데 안에 불상이 만들어져 있다. 옛날 여래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곳에서 좌선하여 7일 동안 선정에 들었다. 그때 용왕은 여래를 경호하여 그 몸으로 부처님을 둘러싸서 일곱 바퀴를 돌고 여러 머리를 내밀어 엎드려서는 우산을 만들었다. 그 연못 동쪽 기슭에 여래가 좌선했던 집이 있다.

19) 고행림(苦行林)

무칠린다 연못 동쪽 숲 속의 정사에 부처님의 수척해진 상이 있다. 그 옆에는 산책했던 곳도 있다. 길이가 70여 보 되는데 남과 북에는 각기 핍팔라수〔보리수〕가 있다. 지금도 이 고장의 습속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향유를 상에다 바르는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보살이 고행을 하던 곳이다. 여래는 외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또 마의 청을 받고 이곳에서 고행하기를 6년, 하루에 일마일맥(一麻一麥)을 먹을 뿐이어서 얼굴은 마르고 몸은 쇠약해져 산책 왕래하기 위해 일어설 때도 나무에 의지해야 했다.

20) 다섯 석종(釋種)의 터

보살이 고행한 핍팔라수 옆에 수토파가 있다. 아지냐타콘디냐〔阿若憍陳如〕 등 다섯 사람이 살던 곳이다. 애초에 태자가 집을 나갔을 때 산과 들을 방황하면서 숲이나 우물가에서 잤다. 그래서 정반왕은 다섯 사람에게 명해 태자와 함께 있도록 했

다. 태자가 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수행했다.

21) 니란자나 강에서의 목욕

콘디냐 등이 살던 곳 동남쪽에 수토파가 있다. 보살이 니란자나 강에 들어가 목욕했던 곳으로 강 쪽에서 멀지 않은 곳은 보살이 젖죽을 받아먹은 곳이다.

22) 두 상주의 공양

목욕 수토파 옆의 수토파는 두 장자가 초밀(麨蜜)을 바친 곳이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서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조용히 좌선한 가운데 해탈의 낙을 받고 있었는데 7일이 지난 뒤 처음으로 선정에서 일어났다. 마침 그때 두 상주(商主)가 숲 밖을 지나쳤던 바 숲의 신이 상주들에게 "석종의 태자가 지금 이 안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열어 마음을 열반의 경지에 두고 계십니다. 49일 동안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린다면 큰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두 상주는 각기 지니고 있는 초밀을 바쳤고 세존은 이를 받았다.

23) 사천왕의 봉발

장자가 꿀을 바쳤던 수토파 옆에 수토파가 있다. 사천왕이 봉발(奉鉢)한 곳이다. 성주가 초밀을 바쳤을 때 세존은 어떤 그릇으로 받을까 생각했다. 그때 사천왕이 사방에서 와 각기 금발(金鉢 : 금으로 된 바리때)을 바쳤으나 세존은 묵묵히 받지 않았다. 출가인에게 그런 그릇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천왕은 금발을 버리고 은발을 바쳤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파지 · 유리 · 마노 · 차거 · 진주의 발에까지 이르렀으나 세존은 금발의 경우와 같이 받지 않았다. 사천왕은 각기 어전으로 돌아가 석발(石鉢)로 감청색이 빛나는 것을 갖다가 정중히 바쳤다. 세존은 누구 것만을 받는다는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받은 다음 차례로 하나의 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바깥쪽에 네 개의 귀퉁이가 있다.

24) 마야 부인의 교화

사천왕 헌발(獻鉢) 수토파 옆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그 어머니를 위해 설법한 곳이다. 여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 천인사(天人師)라 일컬었다. 그의 어머니 마야(摩耶)는 천궁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 세존은 그 능력에 따라 법을 가르치면서 기쁘게 했다. 그 옆 마른 연못 기슭에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갖가지 신변(神變)을 일으켜 연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한 곳이다.

25) 세 카샤바의 불교에의 귀의

현신변(現神變) 수토파 옆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우루빌바카샤바〔優樓頻螺迦葉波〕의 세 형제와 그 천인(天人)의 문인들을 제도(濟度)한 곳이다. 여래는 탁월한 지도로써 사람들의 기량에 따라 승복시키고 있었다. 그때 장형인 우루빌바카샤바의 5백 명의 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카샤바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잘못 든 길을 되돌아서야겠다”면서 함께 부처님에게 왔다. 여래는 “녹피(鹿皮) 옷을 버리고 불을 제사 지내는 도구를 버려라”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범지들은 부처님만의 가르침을 삼가 받드는 가운데 그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도구를 니란자나 강에 던져 버렸다. 중형인 나디카샤바〔捺地迦葉波〕는 불을 제사 지내는 갖가지 도구가 강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해 오는 것을 보고 그 문인들과 형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가 형이 지금까지의 길을 반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뒤를 따라 염의 출가했다. 막내동생 가야카샤바〔迦耶迦葉波〕와 그 2백 명의 문인은 형들이 종래의 불을 섬기는 외도를 버렸다는 말을 듣자 그 또한 부처님에게 와서 범행(梵行 : 涅槃에 이르는 修行)을 닦고자 원했다.

26) 화룡(火龍)을 굴복시키다

카샤바 형제 수토파 서북쪽에 있는 수토파는 여래가 카샤바가 섬기던 화룡(火龍)을 굴복시킨 곳이다. 여래가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려 했을 때 먼저 신앙 대상을 굴복시키려 하면서 범지의 화룡방에 묵었다. 야반이 지났을 때 용은 연기와 불꽃을 내뿜었으나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있기도 했고 또 화광정(火光定)에 들어 불빛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은 훤하게 불꽃을 일으키며 타들어 갔다. 범지들은 불이 부처님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해 모여들더니 소리 높여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우루빌바카샤바는 문인들에게 "이 상태에서 판단하건대 반드시 용의 불길만이 아니다. 반드시 사문이 화룡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과연 여래는 화룡을 발 안에 담아 담아 아침에 외도의 문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옆의 수토파는 스승 없이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은 5백 명의 독각들이 동시에 열반에 든 곳이다.

27) 여래가 구름을 부르고 물을 밟은 곳

무칠린다 용 연못 남쪽 수토파는 카샤바가 물에 빠지려 하는 여래를 구하려 했던 곳이다. 카샤바 형제는 그 당시 신통력으로 추앙을 받아 원근의 사람들은 그 덕을 우러르고 있었다. 세존은 잘못된 길에 빠져든 사람들을 바로 이끌고, 가장된 모습으로 섭취교화(攝取敎化)하기 위해 구름을 하늘 가득히 하여 큰 비를 내리게 하면서도 부처님이 있는 곳 주변엔 물이 가지 않도록 했다. 카샤바는 이때 구름과 비를 보고 문인들에게 "사문이 있는 곳도 물이 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를 저어 구출하러 왔었다. 그런데 세존을 보자니 물 밟기를 땅 밟듯 하는데 강의 중류를 밟으니 물은 갈라져 모래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를 본 카샤바는 심복하게 되었다.

28) 눈먼 용이 눈뜨다

보리수담 동쪽 문에서 2~3리 되는 곳에 눈먼 용이 살던 곳이 있다. 이 용은 죄업이 과거세부터 쌓여 그 업보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의 신세였다. 여래가 전에 정각산에서 보리수 있는 곳으로 가는 중에 이 용실(龍室) 곁을 지나게 되자 용은 눈이 뜨이면서 마침 보살이 보리수 쪽으로 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보살에게 "당신은 곧 깨달음을 얻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눈이 안 보인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 제 눈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겁중의 과거삼불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사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나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9) 마왕의 협박

보리수담 동문 옆에 수토파가 있는데 마왕이 보살을 협박한 곳이다. 애초에 마왕은 보살이 정각을 이루리라는 것을 알고서 유혹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채 마음 아파했으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마신들을 모아 마군을 편성하고 그 군세를 움직임으로써 보살을 협박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비바람을 일으키고 캄캄한 하늘에 뇌성벽력을 일으키면서 불을 놓고 연기를 내뿜으며 모래를 흩뿌려 돌을 날리는 가운데 창과 방패를 정비하여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자 보살은 대자비의 마음으로 선정에 듦으로써 모든 병기를 연화(蓮花)의 모습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마군들은 대경실색하고 패퇴하여 달아났다. 그 옆 멀지 않은 곳에 2개의 수토파가 있는데 제석천과 범천왕이 세운 것이다.

30) 마하보디 승가람

보리수 북문 밖에 마하보디 승가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싱갈라국왕이 세운 것이었다. 뜰과 건물은 6개의 건조물로 되어 있고 전망이 좋은 누각은 4층으로 되어 있다. 주위의 담장은 높이 3~4장인데 인공의 묘를 다 냈으며 색채 수식도 잘해 놓았다. 불상은 금은으로 주조했으며 그 장식은 진귀한 보석류로 해 놓았다. 모든 수토파는 높고, 넓고, 곱게 꾸며졌으며 안에는 여래의 사리를 모셨다. 그 골사리(骨舍利)는 엄지손가락 절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하얗고 광택이 있다. 육사리(肉舍利)는 크기가 진주 정도 되는데 분홍색을 띠고 있다.
해마다 여래 대신변월 만일(如來大神變月滿日 : 보통 神變月은 神足日이라고도 하는데 正 · 五 · 九의 三長齊月을 이른다)이 되면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인다〔즉 인도의 12월 30일로써 唐의 정월 15일에 해당〕. 이때에는 빛을 발하기도 하고 혹은 꽃이 비처럼 뿌려지기도 한다. 승도는 1천 명이 못 되는데 대승 상좌부(大乘上座部)의 가르침을 학습하며 규칙이 엄격하고 행동 또한 바르게 하고 있다.

옛날 남해에 싱갈라국(僧伽羅國)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찌나 불교를 두터이 믿는지 마치 태어나면서 그런 것과도 같았다. 일족 중의 아우뻘 되는 사람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성스런 족적을 사모하는 가운데 멀리 인도에 나가 여러 곳의 가람에 묵었는데 어느 곳에서고 외딴 시골사람이라는 점에서 경멸당했다. 그래서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왕이 몸소 멀리까지 마중을 나오자 사문은 슬픔에 목이 메어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왕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문은 "우리나라의 위광(威光)을 믿고 멀리 나가 불도를 구하였습니다만, 외국 여행인지라 추위와 더위에 애를 먹고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치욕을 받고 말을 걸면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치욕을 받고서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어찌하여 그렇더라는 말인가?" 하고 왕이 묻자 사문은 "대왕께서는 복덕을 세우기 위해 인도의 여러 지방에 가람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적을 현창(顯彰)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왕명(王名)을 높이면서 선왕의 추선(追善)으로도 되어 그 높은 은혜는 대왕의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그것 참 희한한 생각이다. 어째서 지금껏 그 말을 안 들려주었더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나라 안의 귀중한 보화를 인도의 왕에게 헌상했다. 인도 왕은 헌상품은 가납(嘉納)했으나, 그 생각은 먼 나라들을 잘 달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에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하겠소?" 하고 물었다.

사신은 "싱갈라 왕은 고개 숙여 인도의 대길상왕(大吉祥王)에게 아룁니다. 대왕은 그 위덕이 멀리까지 미치고 그 은혜 또한 멀리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문이 귀국의 풍속 교화를 경모하여 귀국을 찾아 성적에 참배하고 여러 곳의 가람에 숙박하려 해도 재워 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도 심한 데다 치욕까지 받고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고 모범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인도의 여러 곳에 싱갈라 승려를 위한 가람을 세워서 인도를 방문하는 사문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면 나라들은 서로 친교를 맺게 되어 오고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옵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여래는 남모르게 교화하였소만 그 유풍(遺風)이 이처럼 남아 있다니 감격할 뿐이오. 가람을 세울 성적은 바라는 바에 맡기도록 하겠소"라고 말했다. 사자는 인도 왕의 말을 그대로 보고했고 군신은 바람직한 대답에 축하를 드렸다. 그리하여 사문들을 모아 놓고 가람 건립의 건을 의논했다. 어떤 사문이 "보리수의 땅은 과거 미래의 제불이 모두 깨달음을 얻은 곳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보리수의 땅에 건립한다고 하는 계획보다 낫다 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재보를 희사하여 이 가람을 세우고서 싱갈라국의 승도로 하여금 공양하게 했다. 또 동판(銅板)도 조각하여 기록을 만들었다. 그 글은 "대저 널리 베푸시어 불공평이 없는 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며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 선왕의 교훈이다. 이제 나는 왕업을 계승하고 가람을 세워 성적을 현창했다. 이는 조상을 추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다만 우리나라 승도만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역시 승도의 경우와 같다. 이를 후계자에게 전하여 영세토록 변함없기를"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이 가람에는 집사자국(執師子國 : 이는 '싱갈라'의 漢譯) 승도가 많다.

31) 안거(安居)

보리수 남쪽 10여 리 사이는 성적이 잇따라 있어서 일일이 매거하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해마다 비구가 우안거(雨安居)를 끝낼 무렵에는 사방의 승도와 속세인이 1백 1천만 명 떼를 지어 7일 밤낮 동안 향화를 들고서 음악을 연주하고 숲 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성적을 예배 공양하는 습속이 있다. 인도의 승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누구나 시라바나월〔室羅伐拏月〕의 전반 제1일에 우안거에 온다. 이는 당에서의 5월 16일에 해당한다. 아시바유자월〔頞濕縛庾闍月〕의 후반 제15일에 우안거는 끝난다. 이는 당에서 8월 15일에 해당한다. 인도의 월명(月名)은 성수(星宿)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데 고금에 걸쳐 변함이 없고 여러 부파(部派)에 걸쳐 다

름은 없으나 언어의 상이에 따라 통하지 않은 점이 있고 전역(傳譯)에 오역이 있어서 시간을 구분하고 월을 계산함에 있어 잘못되어 버렸다. 그래서 4월 16일에 안거에 들고 7월 15일에 안거를 마치고 있다.

# 제 9 권

### 1. 니란자나 강 동쪽 기슭의 사적

#### 1) 향상의 효양

보리수에서 동으로 니란자나 강을 건넌다. 그곳 큰 숲 안에 수토파가 있고 그 북쪽에 연못이 있다. 향상(香象 : 《注維摩經》에 몸에서 향기를 낸다고 적고 있다)이 어머니를 섬긴 곳이다. 여래가 옛날에 보살행을 닦고 있었을 때 향상의 새끼가 되어 북쪽 산속에 살면서 이 연못가로 놀러 나왔다. 향상의 어미는 소경이었다. 그래서 향상은 어미를 위해 연뿌리를 캐기도 하고 물을 긷기도 하면서 효도를 하는 동안 세월이 흘렀다. 어느 땐가 숲에 길을 잘못 든 사람이 있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소리 높여 울고 있었다. 향상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생각하여 이 사람을 안내해서 귀로를 가르쳐 주었다.

이 사람은 돌아가자 왕에게 "신은 향상이 숲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진귀한 보물입니다. 가서 사로잡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품의했다.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나갔다. 그 사람이 길을 인도하여 코끼리를 왕에게 가리켰더니 그 즉시 양쪽 팔이 떨어져 마치 잘라낸 것같이 되었다. 왕은 이 불가사의한 사실에 놀라기는 했으나 예정대로 새끼 코끼리를 포박하여 데리고 왔다. 새끼 코끼리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매여 있었으나 물도 풀도 입에 대지 않았으므로 상사(象舍)의 관리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몸소 나가 새끼 코끼리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새끼 코끼리는 "제 어미는 눈이 안 보이니 며칠이고 굶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붙잡혀 있는 몸으로 어찌 포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왕은 가엾게 여겨 그대로 놓아주었다.

그 옆 수토파 앞에 돌기둥이 서 있다. 옛날 카샤바불(迦葉波佛)이 좌선했던 곳이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 2) 우드라카마푸트라의 악원(惡願)

사불의 좌소에서 동으로 마하 강(莫訶江)을 건너 큰 숲에 이르면 돌기둥이 있다. 외도 사람들이 선정에 들어 악원을 일으킨 곳이다. 옛날 외도 우드라카마푸트라라

는 사람이 있었는데 뜻은 산천을 달리면서 그 몸은 초야에 머무르며 이 숲 속에서 수행해 온 정신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소재를 숨기고 있었다. 이미 5종의 신통력을 몸에 갖추었으며 제1의 선정을 습득하고 있었다. 마가다 왕은 특별히 깊이 공경하여 언제나 점심때가 되면 그를 불러 함께 어전에서 식사를 했다. 우드라카마푸트라는 언제나 허공을 건너 왕의 어전으로 왕래했다. 마가다 왕도 때가 되면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우드라카마푸트라가 오면 두 손을 벌려 공손히 환영하면서 자리에 앉히곤 했다. 어느 땐가 왕이 지방으로 가려면서 후사를 맡기고자 하여 궁중에서 사람을 뽑으려 했으나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에게는 젊은 딸이 있었는데 신중하고 예의바른 태도와 딸이라는 점과 아울러 덕도 갖추고 있어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마가다 왕은 딸을 불러 "나는 지금 멀리 나가려는데 너에게 후사를 맡기려 한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고 우드라카마푸트라는 본시 내가 공경하는 사람이니 시간이 되어 와서 식사하게 되면 내가 하듯이 공손히 대접하기 바란다"라고 명했다.

왕은 스스로 모든 일을 이르고 나서 순행(巡行) 길에 올랐다. 공주는 분부대로 점심때는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예법대로 이행했다. 그러다가 대선(大仙)이 오면 두 손을 벌려 받들어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우드라카마푸트라는 여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욕계(欲界)의 번뇌를 일으키면서 신통력을 잃고 말았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허공을 가르고 걸을 수가 없게 되자 마음속으로 부끄러이 여기면서도 거짓으로 말하기를 "나는 요새 선인의 도를 닦아 선정에 듦으로써 정신을 안락하게 하는 가운데 허공을 걸어 왕래하게 되어 거의 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를 보고자 한다는 말은 진작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선배들은 교훈을 보여 만물을 이롭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독선(獨善)만을 지켜 어찌 사람들을 제도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성문으로 나가 땅을 밟고 감으로써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모두 복리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왕녀는 이 말을 듣자 널리 포고를 내렸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다투어 길을 소제한 다음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다. 우드라카마푸트라는 걸어서 왕궁을 나와 그

숲까지 와서 좌선하여 선정에 들면서 마음을 외계로 뻗쳐 나갔지만, 마음은 숲에서 맴돌아 까마귀가 귀찮게 울고 연못으로 나가면 고기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마음이 풍비박산으로 흩어지므로 선정을 폐지해 버렸다. 그러고서 화가 나 악원을 일으켰다.

“바라옵건대 내세에 포악한 짐승이 되어 살쾡이 몸에 새의 날개를 달고서 생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의 넓이는 3천 리, 양 날개는 각기 넓이가 1천 5백 리, 숲에 가서는 새들을 잡아먹고 강으로 나가서는 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원을 세우자 노한 마음도 차츰 가라앉게 되어 얼마 동안 노력하자 곧 다시 선정에 들 수가 있었으나 수명이 다해 제일유천(第一有天 : 無色界의 最頂 第四天인 非想非非想處天)에 태어났다. 그 수(壽)는 8만 겁이다. 여래는 “천수를 다하면 반드시 이전의 원대로 보기 흉한 몸이 된 다음 악도(惡道)를 유전하게 되는데 언제 그것에서 빠져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예언하고 있다.

3) 계족산의 옛터

마하 강(莫訶江)에서 동쪽으로 큰 임야를 따라 1백 리 가면 쿡쿠타파다산(屈屈吒播陀山 : 唐에서는 鷄足이라고 함)에 이른다. 이는 구루바다 산(窶盧播陀山 : 唐에서 尊足이라 함)이라고도 한다. 높은 봉우리는 험하기가 이를 데 없고, 깊은 골짜기는 바닥이 없는 듯 끝이 없다. 산기슭 골짜기에는 교목이 뒤덮고 있고 산봉우리는 무성한 풀이 바위들을 뒤덮었다. 그중에서도 3개의 봉우리가 험준하게 솟았고 그 옆에는 절벽이 뻗쳤다. 기세는 하늘에 닿을 듯하고 형상은 구름과도 같다. 후에 존자 대카샤바(尊者大迦葉波)가 이 산속에서 적멸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를 저어하여 특별히 존족(尊足)이라 이르고 있다. 마하카샤바는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이다. 육신통(六神通 : 天眼 · 天耳 · 他心 · 宿命 · 神足 · 漏盡을 지닌 능력)을 얻고 팔해탈(八解脫 : 8종의 定에 의해 번뇌에서 벗어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갖추고 있었다. 여래가 이 세상에서 교화하는 인연을 마치고서 정히 열반에 들려고 하면서 카샤바에게 “나는 태고로부터 고행을 닦아 중생을 위해서 최

상의 가르침을 구하여 왔다. 그 옛날 원했던 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대열반에 듦에 있어 제법장(諸法藏 :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그대에게 의탁하려고 한다. 이를 지니고서 펴는 데 있어 결코 실추됨이 없도록 하라. 이모〔프라자파티 : 鉢羅闍鉢底〕가 바친 금란(金欄)의 가사는 자씨(慈 氏 : 彌勒菩薩)가 출세할 때까지 그대가 지니고서 전해 내려주도록 하라. 나의 유법(遺法)에 따라 수행(修行)하는 비구 · 비구니 · 우바사카〔鄔波索迦 : 唐에서 近事男이라고 함. 옛날에 伊蒲塞 · 優波塞 · 優婆塞이라 함은 잘못임. 부억데기의 뜻에서 在家 · 居士 등으로 번역된다〕 · 우바시카〔鄔波斯迦 : 唐에서 近事女라 한다. 옛날 優波斯 · 優波夷라 함은 잘못임. 近善女 · 淸信女라 번역된다〕들을 우선 모두 제도(濟度)하여 유전하는 윤회로부터 해탈하도록 하라"고 분부했다.

카샤바는 분부에 따라 정법을 지키고 있었으나 결집도 끝난 20년째에 세상의 무상을 싫어하여 적멸에 들려고 했다. 그리하여 계족산을 북쪽에서부터 올라서는 산을 돌아 서남쪽 언덕으로 왔다. 산봉우리는 험난하고 벼랑의 길은 막혀 있었다. 그때 석장(錫杖)으로 두드리자 길이 열리는 것이 마치 쪼개놓은 것과도 같았다.

산길이 열렸기 때문에 길을 따라가는데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비스듬히 뚫려 있기도 했다. 산꼭대기에 이르러 동북쪽으로 나왔다. 3개의 봉우리 한 가운데로 들었는데 부처님 가사를 받들고 선즉 원력(願力)으로 하여 3개의 봉우리는 존자(尊者)를 덮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산은 3개의 척릉(脊稜)이 융기하고 있다. 미래에 자씨세존(慈氏世尊)이 출세하여 삼회설법(三會說法 : 彌勒菩薩이 成佛할 때는 華林園 안의 龍華樹 아래서 법회를 세 번 열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함)을 한 뒤에도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있어서 이 산으로 카샤바를 찾아 나서려고 할 것이다. 그때 자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면 산봉우리는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카샤바를 보고 한층 더 교만해질 것이다. 그럴 때 대카샤바는 가사를 자씨에게 인도하면서 여래의 말을 전달할 것이며 그것을 마치자마자 몸을 허공에 띄워 갖가지 신변(神變) 현상을 나타낸 끝에 불을 내어 몸을 태우고서 적멸에 들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느낀 바 있어 모두 성과(聖果)를 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여 현

재 산상에 수토파를 세워 놓았다. 고요한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밝은 불빛을 볼 수 있으나 산에 오른 자로 그것을 본 사람은 없다.

## 2. 옛 왕사성 부근의 사적

### 1) 붓다바나 산

계족산에서 동북쪽으로 1백여 리 가면 붓다바나 산(佛陀伐那山)에 이른다. 봉우리는 험하고 벼랑이 솟아 있다. 바위 사이에 있는 석실은 부처님이 한때 머무른 적이 있는 곳으로, 곁에는 큰 돌이 있다. 제석천과 범천왕이 우두전단목(牛頭栴檀木 : 牛頭山에서 나온 香木)을 마찰시켜 여래의 몸에 바른 곳이다. 지금도 그 돌 위에서는 그 향기가 나고 있다. 오백나한(五百羅漢)이 여기에 영(靈)을 깃들이고 있으며, 불은(佛恩)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 때로는 사미의 모습이 되어 마을로 드나들며 걸식하기도 한다. 혹은 눈에 안 보이고 혹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자국은 필설로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 2) 장림의 전설과 승군논사

붓다바나 산의 인적 없는 골짜기를 동으로 30여 리 가면 야시티 숲(洩瑟知林 : 당에서 杖林이라 함)에 이른다. 숲의 대나무는 키가 크고 산이나 골짜기를 덮을 정도이다.

그 옛날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석가불의 키가 1장 6척이라는 말을 듣고 항상 의심하며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륙(丈六)의 죽장(竹杖)으로 부처님의 신장을 재려고 했으나 잴 때마다 지팡이 끝에서 1장 6척이나 몸이 삐어져 나가곤 했다. 이렇게 해서 차츰 높이가 불어나므로 실제의 높이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마침내 지팡이를 던진 채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뿌리가 심어진 것이었다.

숲 속에 큰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천인과 대중들을 위해 대신통(大神通)을 나타내면서 묘법을 설법했었다.

장림 안에는 요새 우바사카의 자야세나(闍耶犀那 : 唐에서 勝軍이라 함 西印度 蘇剌佗 사람. 어려서부터 學을 좋아하여 摩揭陀國의 滿胄王이 國師로 초청했으나 사양하고 山林 속에 머물렀음)란 사람이 살고 있다. 서인도의 크샤트리야종 사람이다. 그 사람됨이 담백하여 산림에 살기를 좋아하는데 몸은 몽환(夢幻)의 세계에 살고 마음은 진리의 경지에 노닐고 있었다. 내외의 전적을 그 미묘한 점까지 파고들었으며 논리는 맑고 높은 위에 그 위용은 풍아(風雅)로 왔다. 사문 · 바라문에서 외도이학(外道異學), 국왕 · 대신 · 장자 · 호족이 모두 이 사람한테 가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수업(受業)하는 문인은 항상 10실(室) 중 6실에 가득 찰 정도였다. 나이는 이미 70이 되었으나 연구에 게으름이 없었고 다른 모든 것을 폐지하고서 다만 불교의 경전을 학습하며 심신을 격려하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었다.

인도의 풍습에는 향목의 분말을 이겨서 높이 5~6촌의 자그만 수토파를 만들고서 베낀 경문을 그 안에다 안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법사리(法舍利)라고 한다. 이 수가 차츰 불어나면 큰 수토파를 세우고서 이를 그 안에 모아 항상 공양한다. 그리하여 승군은 그의 인과로써 입으로는 깊은 묘법을 강론하여 학도를 지도하고 손으로는 수토파를 만듦으로써 복선 쌓기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밤에도 산책 · 송경(誦經) · 좌선 · 사색으로 침식을 잊을 정도였다. 나이 1백 세에 이르러서도 그 뜻이나 일은 쇠퇴하지 않아서 그 30년 사이에 거의 7코티(拘胝 : 唐에서 億이라 함)의 법 사리 수토파를 만들었다. 1코티가 찰 때마다 큰 수토파를 세우고서 그 안에 모두 안치한 다음 성대하게 공양하면서 많은 승도를 불러 경축법요(慶祝法要)를 행했다. 그때에는 불가사의한 빛이 번쩍이며 기적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이후 가끔씩 광명을 발하기도 한다.

### 3) 장림의 유적

장림 서남쪽 10여 리 되는 곳에 있는 큰 산 남쪽에 온천이 2군데 있는데 그 물이 아주 뜨겁다. 옛날에 여래가 법력으로써 이 물을 끄집어내어 그 안에서 목욕했었다. 지금도 있는데 맑은 물이 끊이는 법이 없다. 원근 사람들이 모두 와서 목욕을

하고 있다. 오랜 중병이나 지병도 낫는 경우가 많다. 그 곁에 수토파가 있는데 여래가 산책했던 곳이다.

장림에서 동남쪽으로 6~7리 가면 큰 산에 이른다. 동남쪽으로 솟아 있는 영마루 앞에 돌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양삼월(兩三月 : 雨三月의 잘못인 듯) 동안 천인과 대중을 위하여 설법했던 곳이다. 그때 빔비사라 왕〔頻毗娑羅王〕이 설법을 듣고자 하여 산을 깎고 돌을 쌓아 계단을 만들어서 왔다. 그 계단은 넓이 20여 보, 길이는 3~4리이다.

큰 산에서 북으로 3~4리 가면 이산(離山)이 있다. 그 옛날 광박선인(廣博仙人 : 산스크리트어로 비야사〔毘耶娑〕. 이 말은 저작자 · 편찬자의 汎稱이나 보통은 《베다〔吠陀〕》의 편자)이 여기에 숨어 살았다. 그는 벼랑을 파고서 주거를 만들었는데 그 자국은 지금도 남아 있다. 가르침을 전하는 문인들이 있으며 그 유풍은 지금도 대단하다.

이산 동북쪽 4~5리 되는 곳에 자그마한 이산이 또 하나 있다. 산벽(山壁)의 석실은 넓어서 1천 명이 앉을 정도가 된다.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설법했다. 석실 위에 큰 바위가 있다. 제석천과 범천왕이 우두선단을 갈아서 부처님 몸에 발랐었다. 돌 위의 향기는 지금도 풍긴다.

석실 서남쪽 귀퉁이에 암석의 굴이 있다. 인도에서는 이를 아수라〔阿素洛 : 옛날에 阿修羅 · 阿須倫 · 阿蘇羅라 했음은 잘못임〕궁이라 이르고 있다. 지난날 호사가로서 주술을 하는 사람이 친구 14명을 모아 함께 일을 하자면서 이 굴속으로 들어왔다. 들어가기 3~40리쯤 하여 널찍하고 밝은 곳으로 나왔다. 문득 바라보니 성이며 읍 고루 거각이 모두 금 · 은 · 유리였다. 이 사람들이 도착하자 젊은 여자들이 문 옆에 서서 웃으면서 맞이하는데 여간 정중하지 않았다. 그 다음 차츰 안으로 들어가 내성의 문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의 심부름꾼이 각기 꽃과 향기가 듬뿍 든 금반(金盤)을 받쳐 들고 마중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연못에서 목욕한 다음 관에 향화(香花)를 바르고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방술이 싫으신 분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다른 13명은 곧장 들어가 목욕했다. 연못에 들어가자 황홀해져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잊어버릴 정도였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는 논밭에 앉아 있었던 것인데, 그곳은 그 굴로부터 북쪽으로 평탄한 냇가를 따라가기 3~40리나 되는 곳이었다.
석실 옆에 건널다리〔棧道〕가 있다. 넓이는 10여 보에 길이는 4~5리 된다. 그 옛날 빔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가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돌을 쪼고 골짜기를 트면서 벼랑을 깎아 내를 메우는가 하면 돌을 쌓고 바위를 뚫어 돌계단을 만들었다.

### 4) 상모궁성

이곳에서 큰 산속을 동으로 60여 리 가면 쿠샤그라푸라 성〔矩奢揭羅補羅城 : 唐에서 上茅宮城이라 함〕에 이른다. 상모궁 성은 마가다국(摩揭陀國)의 한가운데 있으며 고대의 군주가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다. 특별한 상품인 길상향모(吉祥香茅)를 산출한다. 그래서 이곳을 상모성(上茅城)이라고 한다.
높은 산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를 외곽으로 삼고 있다. 서쪽은 계곡을 따르는 길로 통해 있고 북쪽은 산을 향해서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동서는 길고 남북은 좁으며 주위는 1백 50여 리이다. 내성의 유지(遺趾)는 주위가 30여 리이다. 카르니카라 나무〔羯尼迦樹 : 지금 분명히 상고할 수 없는 나무 이름〕가 어느 골짜기의 길에도 가득 차 있는데 꽃은 특히 좋은 향기를 뿜고 잎 색깔은 황금빛으로 번뜩여서 늦봄의 숲은 황금빛을 띠게 된다.

### 5) 취상의 조복

궁성 북문 밖에 수토파가 있다. 여기는 데바닷타가 미생원 왕과 친구가 되어 감히 호재(護財)라고 하는 취상(醉象)을 풀어 여래를 해치려 했으나 여래는 그 손끝으로 5마리의 사자를 내놓았으므로 취상은 점잖게 여래 앞으로 나왔던 곳이다.

### 6) 사리자의 개오(開悟)

취상 수토파 동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샤리푸트라〔舍利子〕가 아시바지트〔阿濕婆恃 : 당에서는 馬勝이라 함〕 비구의 설법을 듣고 성과(聖果)를 증한 곳이다. 애초에 샤리푸트라가 재가하고 있을 때 그 재능이 높고 도량이 커서 존경받는 가운데, 문하

생과 학도들이 학업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마침 샤리푸트라가 왕사 대성(王舍大城：上茅宮城)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마승 비구가 거지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샤리푸트라는 멀리서 마승을 보고 문하생에게, "저기서 오는 자는 태도가 아주 훌륭하다. 성과를 증한 사람이 아닐 때야 어찌 저렇게 조용할 수 있겠는가. 잠시 동안 서서 저 사람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승 비구는 이때 이미 나한과(羅漢果)를 증했으므로 그 마음에 아무런 구애됨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용하고도 품위 있게 석장을 휘두르면서 위엄 있게 다가왔다.
샤리푸트라는 "장로께서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분을 스승으로 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기에 이처럼 마음 편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마승은 "모르고 계십니까. 정반왕의 태자가 전륜왕의 자리를 버리고서 육취(六趣：煩惱의 境에 있는 중생이 그 지닌 業因의 차별에 따라 가는 곳으로 여섯 군데가 있다. 즉 地獄趣·餓鬼趣·畜生趣·阿修羅趣·人趣·天趣의 여섯으로 六道라고도 한다)에 있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6년 고행을 한 끝에 삼보리(三菩提：正覺)를 깨닫고 일체지(一切智：일체의 法을 아는 지혜)를 몸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대저 법이란 것은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중도의 것인데 자세히 얘기하기는 곤란하나 다만 여래〔釋尊〕만이 부처님〔諸佛〕 앞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나같이 우매한 자가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게송(偈頌：韻文의 一體)을 불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칭찬했다. 샤리푸트라는 이를 듣자 곧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 7) 승밀(勝密)의 참회

샤리푸트라 증과 수토파 북쪽 멀지 않은 곳에 크고 깊은 굴이 있는데 옆에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여기가 사리굽타(室利毱多：당에서 勝密이라 함)가 화갱(火坑)과 독반(毒飯)으로 부처님을 상해하려 들었던 곳이다.
승밀은 외도를 깊이 믿는 가운데 사견(邪見)을 깊이 지니고 있었다. 범지(梵志)들은 "고타마를 국민들이 존경함으로써 우리는 의지할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고, 대문에는 커다란 함정을 파 놓은 후 그

안에는 불을 놓고 함정 위로는 썩은 나무를 걸친 다음 마른 흙으로 덮어 놓으시오. 또 음식물에는 모두 독을 섞어 놓으시오. 만약 불구멍의 화를 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독이 든 음식에는 걸려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승밀은 그 지시대로 독이 든 연회를 준비했다. 성안 사람들은 모두 승밀이 세존에게 해악심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부처님에게 나가지 말도록 청원드렸다.
세존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래의 몸은 그 무엇으로도 상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초대에 응해 나갔다. 그가 대문의 디딤돌을 밟자 불구멍은 연못이 되면서 맑은 물이 펼쳐지고 연꽃이 가득히 피어났다. 이를 보자 승밀은 견디다 못해서 친구에게 "술수로써 불시 화를 면했으나 아직 독이 든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존은 식사를 마치자 그를 위해 깊은 묘법을 설법했다. 승밀은 그 묘법을 다 들은 다음 자신의 죄과를 사과하고 귀의(歸依)했다.

8) 지바카대의의 옛터

승밀 불구덩이의 동북쪽 산성 골짜기에 수토파가 있다. 지바카대의(時縛迦大醫 : 옛날에 耆婆라 했음은 잘못)가 여기에 부처님을 위해 설법당을 세우고 담을 둘러 꽃과 과실을 심었다. 건물의 터와 나무의 그루터기 등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다. 여래는 재세 중에 이곳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 그 곁에는 또 지바카의 집터가 있다. 기초 자국이 오랜 우물은 지금도 공터나 여갱(餘坑)으로 남아 있다.

9) 영취산

궁성에서 동북으로 14~5리 가면 그리트라쿠타 산(姞栗陀羅矩吒山 : 당에서 鷲峯이라 하고 鷲臺라고도 한다. 옛날에 耆闍崛山이라 했음은 잘못)에 이른다. 북산(北山)의 남쪽으로 접한 봉우리가 특히 높은데 독수리도 살고 있고(이 대목을 《慈恩傳》은 형상이 독수리 같다고 적고 있다), 또 고대(高臺)로도 되어 있으며 하늘의 푸르름이 서로 비추어 짙거나 옅어짐으로 색을 나누고 있다. 여래가 성도 이후 세상에 있기 50여 년 가르침을 펴는 동안 이 산에 머무르는 일이 많았으며 널리 대

중에게 묘법을 설법했다.

빔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산기슭에서 산꼭대기까지 골짜기를 넘고 바위를 건너 돌로써 계단을 만들었다. 넓이는 10여 보, 길이는 5~6리나 되었다. 그 길 도중에 2개의 작은 수토파가 있다. 하나는 하승(下乘)이라 하는데, 왕이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은 걸어서 간다는 뜻이다. 하나는 퇴범(退凡)이라 하며 범부를 구별하여 여기서부터 함께 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산의 꼭대기는 동서가 길고 남북은 좁다. 벼랑 서쪽 가에 벽돌로 된 정사가 있는데 높고 넓으며 진귀하게 만들어졌고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다. 여래가 옛날에 여기 머무르면서 설법하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설법의 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크기가 여래와 같다.

### 10) 영취산정의 성적

영취산정 정사의 동쪽에 긴 돌이 있다. 여래가 산책할 때마다 갔던 곳이다. 그 곁에 큰 돌이 있다. 높이가 1장 4~5척, 주위는 30여 보 된다. 데바닷타가 멀리서 깨뜨리려 한 것이다. 그 남쪽 벼랑 아래 수토파가 있다. 그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했다.

정사 남쪽 벼랑 옆에 큰 석실이 있다.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선정에 들었다. 부처님 석실 서북쪽의 석실 앞에는 큰 암석이 있다. 아난(阿難)이 마왕한테 위협당했던 곳이다. 존자 아난이 여기서 선정에 들었는데 마왕은 독수리로 둔갑하여 흑월 밤중에 그 큰 돌에 머물려고 날개를 퍼덕이며 큰 소리로 울어대는 가운데 존자를 위협했다. 이때 존자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래는 신통력으로 이를 보고서 안심시키고자 하여 손을 뻗쳐 석벽을 통해 아난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대자비가 담긴 말로 아난에게 "마물이 둔갑한 것이니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난은 여래의 위로를 받고서 심신이 모두 안락해졌다. 돌 위의 새 발자국은 벼랑을 뚫는 구멍이 되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뚜렷하다.

정사 옆에 석실이 몇 개 있다. 샤리푸트라 등 대아라한들이 여기서 선정에 들었었다. 석실 앞에 큰 우물이 있다. 말라서 물은 없지만 그 자국은 아직 남아 있다.

정사 동북쪽 돌골짜기에 큰 암석이 있다. 여래가 가사를 햇볕에 말렸던 곳인데 가사의 무늬가 분명하여 그 선명함이 조각해 놓은 것과도 같다. 그 옆 돌 위에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다. 윤상(輪相)의 무늬는 명료하지 않으나 그 대충은 헤아릴 수가 있다.

북쪽 산꼭대기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마가다 성을 멀리 바라본 곳인데 이곳에서 7일 동안 설법했다.

### 11) 비풀라 산의 고적

산성 북문 서쪽에 비풀라 산(毗布羅山)이 있다. 그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 "산 서남쪽 벼랑 북쪽에 옛날에는 5백 개의 온천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십개 뿐인데 그것도 또한 냉천도 있고 온천도 있어서 모두 온수인 것은 아니다. 그 우물의 근원은 설산 남쪽 무열뇌지이며 여기까지 땅속을 흘러오는데 물은 대단히 맑고 아름다우며 맛 또한 본래의 연못에서와 같다. 우물의 흐름은 5백 가지로 나뉘었으며 소열지옥(小熱地獄)의 열기가 위로 뻗치기 때문에 이처럼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우물의 흐름의 출구에는 모두 돌로 조각해 놓았고 어떤 것은 석관(石管)으로 흘러내리도록 해 놓은 다음 그 아래에다 돌을 쌓아 연못으로 해 놓았다. 여러 고장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멱 감는다. 멱 감는 자 가운데는 지병이 낫는 자도 있다. 온천 좌우에는 수토파와 정사의 많은 터가 있다. 이것은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했던 유적이다. 이곳은 산수(山水)가 잇대어져 있어, 인지(仁智)의 인(人)이 있기에 알맞은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온천 서쪽에 핍팔라의 석실이 있다 그 옛날 세존은 항상 이곳에 있었다. 뒷벽에 있는 동굴은 아수라궁이다. 선정을 학습하는 비구(比丘)가 이 방에는 많이 있는데, 때로는 괴이한 것이나 용사(龍蛇) · 사자의 모습이 나타나 이를 보는 자 중에는 정신에 광란을 일으키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 승지(勝地)는 성인 · 선인이 있는 곳으로 그 자국을 밟고 그 기풍을 사모하는 자는 그와 같은 재난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최근에 한 비구가 있었다. 계행(戒行)이 모두 바르고 맑아서 마음으로 유적(幽寂)을 즐기는 가운데 이 방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자취를 감추어 선정을 닦고자 했

다. 어떤 사람이 충고했다.

"그곳에는 가지 마시오. 그곳은 재난이 많고 위해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선정도 닦기 어렵고 도리어 몸을 잃을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여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비구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불과(佛果)를 구하여 천마(天魔)를 조복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 위해 쯤 일러 무엇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면서 석장을 휘두르며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단장(壇場 : 曼荼羅의 諸尊을 안치하는 곳)을 설치한 다음 액막이 하는 주문을 외웠다. 10일 후에 구멍에서 소녀가 나와 비구에게 "존자는 염의(染衣)를 입고 계율을 지키고 있으며 중생이 귀의하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닦고 선정을 학습하며 사람들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계십니다. 여래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다.

비구는 "나는 정계(淨戒)를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세상을 떠나 산속에 살면서 잡담을 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비방받는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잘못이란 말인가" 하고 물었다.

소녀는 "존자가 주문을 외는 소리를 내자 불길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우리들의 거실을 태우고 우리들 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옵건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두 번 다시 주문을 외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비구는 "주문을 외운 것은 자위를 위해서였을 뿐 결코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함은 아니다. 얼마 전 어떤 수행자가 이곳에서 선정을 학습하여 성과(聖果)를 얻고 유도(幽塗 : 地獄 · 餓鬼 · 畜生의 三惡道)에 있는 자를 제도하려고 했으나 괴이한 것을 보고 놀라 신명(身命)을 잃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대의 소행이 아니었던가.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말했다.

소녀는 "우리의 죄업은 무겁고 지혜는 이렇게도 얕으니 앞으로는 문을 닫고 안에 처박혀서 우리의 분수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 존자께서도 바라옵건대 신주(神呪)를 외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비구는 주문 외우기를 그치고 처음과 같이 선정을 닦았는데 안전하고 위해

가 없었다.

비풀라 산 꼭대기에 수토파가 있는데 옛날 여래가 설법했던 곳이다. 지금은 노형 외도가 많이 이곳에 살면서 밤낮으로 태만함이 없이 고행을 하며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태양의 운행에 따라 일륜(日輪)을 관찰하고 있다.

12) 비구의 자해

산성 북문에서 왼쪽에 있는 남쪽 벼랑의 북쪽을 2~3리 동진(東進)하면 큰 석실에 이른다. 옛날 데바닷타가 이곳에서 입정(入定)했다. 석실 동쪽 멀지 않은 곳 반석 위에는 얼룩진 무늬가 있는데 마치 피로 물들인 것과 같다. 곁에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습정중(習定中)의 비구가 자해(自害)하여 증과(證果)한 곳이다.

옛날에 한 비구가 있었다. 심신을 격려하면서 문을 잠그고 선정을 닦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성과(聖果)를 증하지 못했으므로 물러나 자책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그러고 나서 "무학과(無學果 : 修學의 필요가 없는 자리. 阿羅漢果)를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번뇌를 지닌 몸이 굳이 살아서 무엇에 쓰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 돌에 스스로의 목을 찔렀다. 이 순간 아라한과를 깨달아 허공으로 솟으면서 신변(神變)을 나타내어 불을 내어 몸을 태운 끝에 적멸했다. 그 훌륭한 심근(心根)을 찬미하기 위해 이 수토파를 세워 기념한 것이다.

비구증과 수토파 동쪽 돌벼랑 위에 돌로 된 수토파가 있다. 습정 중인 비구가 벼랑에서 몸을 던져 깨달음을 연 곳이다. 옛날에 부처님 재세 중에 어떤 비구가 산림에서 좌선하여 불과(佛果)를 깨닫는 수행을 하고 있었으나 열심히 오랜 세월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정에 들 것만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여래는 그 비구가 깨달음을 열 능력이 곧 생기게 될 것을 알고서 비구에게 증과를 성취시키고자 하여 죽림원(竹林園)에서 벼랑 아래로 내려가 손가락을 울려 부른 다음 서서 기다렸다. 이때 비구는 멀리서 성자들의 모습을 보고 몸도 마음도 기쁜 나머지 벼랑에서 몸을 던져 떨어졌다. 비구의 맑은 마음은 부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그 비구는 몸이 아직 땅에 닿기 전에 깨달음을 얻었다. 세존은 "그대는 이 순간의 일을 잘 기억하도록 하라"고 말하

고서는 허공으로 올라 신변을 일으키면서 비구의 맑은 마음을 표창했기 때문에 이 탑을 세워 표기(標記)한 것이다.

13) 죽림정사

산성 북문에서 1리 남짓 가면 칼란다카 죽원(迦蘭陀竹園)에 이른다. 지금도 정사가 있고 벽돌집은 동향(東向)으로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여래는 재세 중에 이곳에 많이 있었으며 설법하고 개안(開眼)시키는 가운데 범속한 자들을 교화제도(敎化濟度) 했다. 지금은 여래의 몸과 같은 상이 서 있다.

당초 이 성안에는 대장자인 칼란다카란 사람이 있어 일세의 부호로서 찬양받고 있었는데, 큰 죽원(竹園)을 외도들에게 기증했다. 그 후에 여래를 만나 설법을 듣고 두터이 신앙하기에 이르러, 죽원에 그 외도들을 살게 하고 이제 천인사(天人師 : 天界 · 人界 兩界의 스승)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집이 없음을 후회했다. 이때 귀신들(諸天藥叉) 등은 장자의 진심에 감복하여 외도들을 내쫓으면서 "장자 칼란다카는 지금 죽원에 부처님의 정사를 세우려 하고 있다. 그대들이 빨리 나가야만 비로소 재난을 면할 수 있으리라"라고 말했다. 외도들은 분개하여 성을 내며 물러갔다. 그리하여 장자는 그곳에 정사를 세우고 일이 완성되자 스스로 나아가 부처님을 초청했다. 그때 여래는 장자가 청하는 대로 그 보시를 받아들였다.

14) 불사리 탑

칼란다카 죽원 동쪽에 수토파가 있다. 아자타샤트루 왕(阿闍多設咄路王 : 당에서 未生怨이라고 한다. 옛날 阿闍世라 함은 잘못)이 세운 것으로, 여래 열반 후 왕들이 함께 사리를 나누었다. 미생원 왕도 나누어 들고 돌아가 탑을 세워 공양했다. 아쇼카 왕이 신심을 일으켰을 때 탑을 열고 사리를 꺼내어 수토파를 세웠으나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서 가끔씩 빛을 발한다.

15) 아난(阿難)의 반신 사리탑

미생원 왕 수토파 옆에 있는 수토파에는 존자 아난의 반신(半身) 사리가 들어 있

다. 옛날 존자가 입멸하려 했을 때 마가다국을 떠나 바이샤리 성〔吠舍釐城〕으로 가고자 했다. 두 나라는 서로 존자를 맞아들이려고 다투기 시작하여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 존자는 이를 마음 아파한 나머지 스스로의 몸의 사리를 두 나라에 나누어 주었다. 마가다국 왕은 존자의 반신사리를 받들고 돌아가 이 승지에 탑을 세웠다. 그 옆에는 여래가 산책했던 장소가 있고 이와 나란히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여기는 샤리푸트라와 마우드갈랴야나 등이 안거한 곳이다.

16) 제일결집(第一結集)

죽림원에서 서남쪽으로 5~6리 가면 남산 북쪽의 큰 죽림 속에 커다란 석실이 있다. 존자 마하카샤바〔摩訶迦葉波〕가 9백 99명의 대아라한과 함께 여래가 열반에 든 다음 삼장(三藏)을 결집했던 곳이다. 그 앞에 낡은 건물 기초가 있다. 미생원 왕이 법장(法藏)을 모으는 대아라한들을 위해 이 건물을 세웠다. 애초에 대카샤바가 산림에 좌선하고 있었는데 문득 광명이 번뜩이더니 대지가 진동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천안통(天眼通)으로 보았더니 불세존이 쌍수(雙樹) 사이에서 열반에 드는 것이었다. 서둘러 제자에게 명해 쿠시 성으로 가게 했으나 나가다가 도중에 범지(梵志)들이 손에 아름다운 천계의 꽃을 들고 있는 것과 만났다.
카샤바는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우리의 대사(大師)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압니까" 하고 물었더니 범지들은 "우리는 지금 쿠시 성에서 오는 길입니다. 당신들의 대사께서 열반에 드시자 천인과 대중들이 공양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꽃은 거기서 입수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카샤바는 제자들에게 "혜일(慧日 : 盲闇의 세계를 비추는 지혜를 지니는 부처님)이 돌아갔으므로 세계는 어두워졌다. 중생을 선도할 분이 멀리 이 세상을 버렸으니 중생은 타락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게으른 비구들은 기뻐하면서 "여래가 입멸하면 우리들은 안락하게 됩니다. 만약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해도 누가 이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카샤바는 깊이 슬퍼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결하여 부처님의 가

르침에 준거해서 죄를 범한 자들을 단속하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쌍수 있는 곳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옵고 예배를 했다.
이미 교법(教法)의 왕인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인계 · 천계의 지도자가 없어졌으며 대아라한들도 잇따라 입멸하여 갔다. 그랬기에 대카샤바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법장을 집결시킬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는 수메르 산에 올라 대간타를 치면서 "이제 왕사성(王舍城)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증한 사람들은 곧장 집합하여 주기 바랍니다"라고 외쳤다.
간타 소리는 카샤바의 말을 전하여 삼천 대천세계에 미침으로써, 신통(神通)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서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카샤바는 사람들에게 "여래가 적멸하여 세계는 공허하게 되었으므로 법장을 결집하여 불은에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함에 있어서는 간이하게 하면서 또한 정숙하게 할 일입니다. 사람 수에 의지하게 될 때 이 성업(盛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삼명(三明)을 갖추고 육신통을 지녔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류가 없이 알고 있고 변재(辯才)에 막힘이 없는 상덕(上德)의 사람들만 결집에 참가했으면 합니다. 그 밖에 아라한과를 증한 사람이나 학습 중인 사람은 그대로 돌아갔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9백 99명이 남았다. 아난은 아직 학지(學地 :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학습 중인 것)에 있었으나 그곳에 남았다. 그러자 대카샤바는 아난을 불러 "그대는 아직 번뇌를 끊지 못하지 않았는가. 성과를 증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서 나가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난은 "저는 여래를 모시고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만 교법에 관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함에 있어 제가 배척당한다고 하면, 부처님이 적멸해 버린 오늘날 저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카샤바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라. 그대는 부처님 가까이에 있어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애욕(愛慾)은 아직 남아 있고 번뇌의 기색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난은 할 말이 없게 되어 거기서 나와 조용한 곳으로 물러간 다음 무학(無學 : 배울 것 없는 깨달음의 경지)의 경지에 들어서려고 노력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

다. 그래서 피로에 지쳐 잠깐 조는 사이에 나한과를 증했다. 그리하여 결집회장으로 나가 문을 두드리면서 도착을 알렸다. 카샤바는 물었다.
“그대는 번뇌를 씻어냈는가. 만약 그랬다면 신통력으로써 문을 통과하지 말고 들어오도록” 하고 말했다. 아난은 그 명에 따라 열쇠구멍으로 들어가 성승(聖僧)들에게 인사드리고서 말석에 물러나 앉았다. 이때가 안거(安居)의 초 15일〔즉 安居 시작 전날인 5월 15일〕이었다.
카샤바는 소리 높여 “잘 생각하고 분명히 듣기 바랍니다. 아난이 불어를 잘 듣고 있었음은 여래도 칭찬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트람〔素呾纜 : 옛날에 修多羅라 했음은 잘못〕장을 결집하고 우바리〔鄔波釐〕는 율(律)을 극명하게 연구하고 있음을 중인이 아는 일이므로 그가 비나야〔毗奈耶 : 옛날 毗那耶라 함은 잘못임〕 장을 결집하고, 나 카샤바는 아비다르마장〔阿毗達摩藏〕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우계(雨季)의 3개월 동안〔즉 雨安居로 5월 16일에 시작되어 8월 16일에 끝나는 3개월〕에 삼장을 결집시켰다. 대카샤바는 모든 승도 중의 상좌인(上座人)이었기 때문에 이 결집을 ‘상좌부 결집’이라고 한다.
대카샤바 결집〔석실〕 서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아난이 승도로부터 질책을 받고 결집에 참가하지 못한 채, 여기서 좌선하여 나한과를 증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서야 결집에 참가할 수 있었다.
아난 증과 수토파에서 서쪽으로 20여 리 가면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으로 대중부(大衆部)가 결집한 곳이다. 학습 중인 자, 증과를 얻은 자 등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은 대카샤바 결집의 축에 끼지 못하고 이곳까지 와서는 “여래가 재세 중에는 똑같이 스승으로서 배워 왔는데 법왕〔여래〕이 입멸하자 우리는 따돌림을 당해 버렸다. 그러나 불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서로들 말했다.
그리하여 범승(凡僧) · 성승(聖僧)이 모두 회합하고 우자 · 지자가 모두 출석하여 여기서도 수트람장 · 비나야장 · 아비다르마장 · 잡집장(雜集藏) · 금주장(禁呪藏)을 집대성하여 별도로 오장(五藏)이라 했다. 그리고 이 결집은 범성양중(凡聖兩衆)

이 회동했기 때문에 이를 '대중부 결집'이라고 한다.

### 17) 칼란다카 연못과 돌기둥

죽림정사에서 북으로 2백여 보 가면 칼란다카 연못(迦蘭陀池)에 이른다. 여래가 옛날에 이곳에서 설법을 많이 했었다. 물은 맑기도 하고 8공덕을 갖추고 있었으나 부처님 열반 후에 말라 버렸다. 칼란다카 연못에서 서북으로 2~3리 가면 아쇼카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높이는 60여 척으로 곁에 돌기둥이 있어 수토파를 세운 사적이 조각되어 있다. 높이가 50여 척인데 위에 코끼리 모습이 만들어져 있다.

### 18) 신 왕사 성의 연혁

돌기둥에서 동북쪽으로 얼마 동안 가면 라자그리히 성(曷羅闍姞利呬城 : 唐에서는 王舍라 함)에 이른다. 외측의 성벽은 이미 허물어져 흔적도 없지만 내성은 허물어졌어도 기초가 아직 높이 남아 있다. 주위는 20여 리로 그 각면에 문이 있다. 처음에는 빔비사라 왕의 도읍은 상모궁성에 있었다. 주민들의 집은 몇 번이나 화재를 만나 일가는 흩어지고 그 이웃도 재난을 입었다.

방화(防火) 덕분에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자산도 거덜나고 가업 또한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갔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왕은 "내 부덕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떠한 복덕을 닦는다면 이 환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신하들은 "대왕께서는 그 덕화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 정치는 구석구석까지 살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마음을 이완(弛緩)시키고 있기에 이와 같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화재를 내는 자가 있으면 그 원인을 구명하여 주거지를 한림(寒林 : 바르게는 시타바나(尸多婆那)로 王舍城쪽에 있는데 죽은 자를 그곳에 보낸다)으로 내쫓도록 합시다. 한림은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써 세상에서는 상서롭지 못한 곳이라 하여 점차 인적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내쫓는 것은 시체를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가 죽어서 살기를 부끄러이 여길 것이므로 반드시 각자가 조심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널리 선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사성 안에서 먼저 화재를 내 버렸다. 왕은 신하들에게 "나는 한림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말한 다음, 태자(후의 阿闍世王)에게 뒷일을 단속하도록 이르고서 국법을 지키기 위해 거처를 옮겼다.

그 무렵 바이샤리 왕은 빔비사라 왕이 한림에 거처를 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움직여 불의에 습격하려고 했으나 국경의 염탐꾼이 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에 성을 쌓은 다음 우선 왕을 그곳에 살도록 했다. 그래서 왕사성이라 일컫고 있으며 후에 관리로부터 군인 · 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왔었다고 하는데 혹은 일설에 의하면 태자가 미생원왕(未生怨王 : 阿闍世王)이 된 다음에 이 성을 쌓았다고도 한다. 미생원 태자가 왕위를 잇자 그대로 이곳에 도읍을 정한 것인데 아쇼카 왕 때에 이르러 도읍을 파탈리 성으로 옮기고 왕사성은 바라문에게 보시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중에는 평민은 없고 다만 바라문들이 1천호 정도 살고 있다.

19) 죠티시카와 라훌라

궁성 서남쪽 구석에 2개의 작은 가람이 있다. 제국에서 오는 객승(客僧)들이 이곳에서 묵는다. 여기는 옛날에 부처님이 날마다 설법했던 곳이다. 여기서 가까운 서북쪽에 수토파가 있다. 죠티시카(殊底色迦 : 唐에서 星曆이라 한다. 옛날 樹提伽라 했음은 잘못) 장자가 태어난 고장이다. 성 남문 밖 길 왼쪽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여기서 설법을 하기도 했고 라훌라를 출가시켰다.

## 3. 날란다 부근의 사적

1) 날란다의 명칭과 위치

신왕사성에서 북으로 30여 리 가면 날란다(那爛陀 : 당에서 施無厭이라 한다) 승가람에 이른다.

옛 선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가람 남쪽 암라 숲 속에 연못이 있다. 그곳에 사는 용 이름을 날란다라고 했다. 그 옆에 가람을 세웠기 때문에 용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었으나, 그 참된 뜻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다. 그 옛날 여래가 보살행을 닦을 때 대국왕이 되어 이곳에 도읍을 세우고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혜시(惠施)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왕의 덕을 찬미하여 "시무염(施無厭)"이라 불렀다. 그리고 가람 또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2) 불타 시대의 날란다

그곳은 본디 암라원이었다. 5백 명의 상인이 10억의 돈으로 사서 부처님께 보시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설법하고 상인들도 또 성과를 증했다.

3) 날란다 사의 연혁

부처님 열반 후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나라의 선왕 샤크라디탸〔鑠迦羅阿逸多 : 唐에서 帝日이라 함〕는 일승(一乘 : 成佛하는 유일의 가르침, 불교)을 깊이 믿고 삼보를 존중하는 가운데 훌륭한 고장을 가려 이곳에 가람을 세웠다. 마침 그때 점을 잘 치는 니르그란타〔尼乾〕 외도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예언하여 "이곳은 훌륭한 고장이다. 가람을 세우면 반드시 성대하게 되어 오인도의 모범으로 천 년을 지나도 오히려 번창할 것이다. 후진 학자들은 이곳에 오면 학업의 성취에 이익이 될 것이다. 다만 피를 토하는 자가 많겠는데 이는 용을 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샤크라디탸의 아들 붓다굽타 왕〔佛陀毱多王 : 당에서 覺護라 한다〕이 왕통을 이어 즉위한 다음 선왕의 숭불 사상까지 계승, 이 절 남쪽에 나란히 또 하나의 가람을 세웠다. 타타가타굽타 왕〔呾他揭多毱多王 : 당에서 如來護라 한다〕은 대대로 유업인 불교 사업을 돈독히 이행하면서 이 동쪽에 나란히 또 하나의 가람을 세웠다. 발라디탸 왕〔婆羅阿迭多王 : 당에서 幼日이라 한다〕이 왕위를 잇고서는 이 동북쪽에 또 나란히 가람을 세웠다. 가람이 준공되었을 때 축하회를 개최하는데, 유명 · 무명을 가리지 않고 범부 · 성자 또한 가리지 않으면서 모임에 초대했다. 그 회합에는 오인도의 승도들이 만 리를 멀다 않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사람들의 자리

가 정해진 다음 두 사람의 승도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3층으로 안내되었다.
어떤 사람이 "대왕께서 모임을 개최함에 있어 범성을 가지지 않고 모두 초대했습니다만, 대덕은 어느 곳에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지나국에서 왔습니다. 사승(師僧)께서 병환이 들어 식사 시중을 들고 있던 차에 멀리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기에 달려오는 길입니다"라고 답했다.
물은 사람은 놀라 급히 왕에게 보고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마음속으로 이는 성자임에 틀림없다 생각하고 몸소 인사하러 나왔다. 그리하여 계단을 올라갔는데 두 사람의 승도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왕은 한층 신심이 두터워져 나라를 버리고 출가했다. 그러나 그 계급은 승도 중의 말석이 되어 마음은 언제나 불쾌하고 즐거운 기분이 되지 않았다. 자기는 옛날의 왕이며 존귀함에서 최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출가했기 때문에 계급이 낮아져 중승(衆僧)의 말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아가 승도들에게 자기의 심중을 토로했다. 그리하여 중승은 상의한 끝에 아직 수계(受戒)를 마치지 못한 자는 연령으로써 석차를 정하기로 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가람만이 특별히 이와 같은 제도가 있게 되었다.
이 왕의 아들 바지라[伐闍羅 : 당에서는 金剛이라 한다]는 즉위 후 신심이 바르고도 굳어 이 가람 서쪽에 또 가람을 세웠다. 그 뒤 중인도 왕(中印度王 : 戒日王을 이르는 듯)이 이 북쪽에 또 하나의 큰 가람을 세웠다. 그러고서 주위에 담장을 높이 두르고 모든 가람을 같은 문으로 출입하도록 했다. 역대의 군왕들이 대대로 건축을 성대히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조각의 정교함은 실로 장관을 이룬다. 특히 제일왕(帝日王)의 대가람은 지금도 불상을 안치하고서 승도 중에서 날마다 40명을 골라 이곳에서 식사를 접대함으로써 시주(施主 : 帝日王)의 은덕에 보답하고 있다.

4) 날란다 사의 교화

승도는 수천 명인데 모두 재능이 높고 학식이 있다. 덕행이 당대에 존중을 받고 명성을 외국에까지 뻗치고 있는 사람만도 수백 명이다. 계행도 청결하고 수칙도 순

수하다. 승도에게는 엄한 규제가 있고 사람들이 이를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제국에서 모범으로 우러르고 있다. 교의(敎義)를 연구함에 있어 날을 다하고도 오히려 부족해 하며 아침저녁으로 서로 훈계하는 가운데 젊은이나 연장자나 서로서로 돕고 있다. 만약 삼장의 유현한 취지를 말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이경(異境)의 학자로서 성예(聲譽)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와 의의(疑義)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명성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유학했다고 허위로 말하며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해도 어디서고 정중한 예우를 받는다. 외국 · 이경 사람으로서 이곳 토론의 자리에 들려고 하는 자는 힐문당하여 굽히고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학식이 고금에 통달해 있는 자만이 비로소 입문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유학하러 온 후진의 학자로서 학문이 깊은 사람도 10사람 중 7~8명은 물러가게 마련이다. 나머지 2~3명의 박식한 사람도 승중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 꺾여 그 명성을 실추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5) 날란다의 학자

학자로서 재능이 높고 지혜가 깊고 지식이 넓으며 덕이 빼어난 철인이라면 빛을 내면서 전통을 잇게 된다. 예컨대 호법(護法 : 梵名 다르마풀라. 唯識十大論師의 한 사람)이나 호월(護月 : 梵名 칸드라굽타. 護法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 《辯中邊論》의 釋을 저술했다 하나 전하지 않음) 같은 사람은 불타의 유교(遺敎)에 훌륭한 업적을 올렸고 덕혜(德慧 : 구나마티, 唯識十大論師의 한 사람)나 견혜(堅慧 : 사라마티, 德慧와 같은 시대의 사람) 같은 사람은 그 명성이 당시에 크게 찬양되었다. 광우(光友 : 梵名 프라바미트라)의 청순한 논의(論義)나 승우(勝友 : 梵名 비세샤미트라. 唯識十大論師의 한 사람)의 고아한 담론, 또 지월(智月 : 梵名 지냐나칸드라. 唯識十大論師의 한 사람)의 견식명민(見識明敏), 계현의 고덕적정(高德寂靜)과 같이, 이들 성인들은 모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덕은 여러 선배보다 높고 그 학(學)은 과거의 저술에 통달했으며 경전의 논석(論釋)을 10수 부씩 저술하여 세상에 내 놓음으로써 일대에 존중받던 사람들이다. 가람의 둘레에는 성적이 1

백을 헤아릴 정도이다. 그중 두세 개로써 개략만 설명하고자 한다.

6) 불적과 관음의 입상

가람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정사가 있다. 옛날 여래가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천계 · 인계를 위해 묘법을 설법했다. 그 남쪽으로 1백여 보 되는 곳에 있는 작은 수토파는 멀리서 온 비구가 부처님을 뵈었던 곳이다.

옛날 어떤 비구가 멀리서 이곳까지 와서 여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 오체(五體)를 땅에 던지면서 덮어놓고 전륜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발원했다. 여래가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저 비구는 참으로 가련하다. 그는 복덕도 넓고 신심도 굳건하니 만약 성불하려고 한다면 오래지 않아 반드시 증과(證果)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전륜왕이 되기를 발원했으니 내세에 그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그가 오체를 던진 땅은 그 밑으로 금륜이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세진(細塵)의 수가 실로 무량(無量)한 것인데, 그 하나하나의 세진은 일륜왕(一輪王)의 응보에 해당하고 그 무량의 횟수에 걸쳐 윤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속의 즐거움에 빠졌을진대 성과(聖果)를 증하기는 바라기 어려우리라"고 말했다.

그 남쪽에 관자재보살의 입상이 있다. 어떤 때는 이 입상이 향로를 들고 부처님 정사에 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자재보살상 남쪽 수토파 안에는 여래가 3개월 동안 깎은 머리칼과 손톱이 담겨 있다. 병든 자가 돌면서 경배하면 낫는 경우가 많다.

그 서쪽 담장 밖에 있는 연못 쪽 수토파는 외도가 참새를 잡아서 부처님에게 사생(死生)에 관한 일을 질문했던 곳이다.

그 동남쪽 담장 안 50여 보 되는 곳에 진귀한 나무가 있다. 높이 8~9척으로 그 줄기는 두 가지로 뻗쳤다. 그 옛날 여래가 이쑤시개를 쓴 다음 버린 것이 뿌리를 내려 자란 것이다. 세월이 오래되었으나 그 크기는 처음과 변함이 없다.

그 동쪽 큰 정사는 높이 2백여 척이다. 그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4개월 동안 여러 묘법을 설법했다.

그 북쪽 1백여 보 되는 곳에 있는 정사 안에 관자재보살상이 있다. 맑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양을 성대히 하는 경우에 그 상을 참배하는 장소가 바뀌면 상이 서 있는 곳도 일정하지 않아서 혹은 문 쪽에 혹은 차양 쪽에 서 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 승속들이 이곳에 와서 공양드리고 있다.

7) 불타의 옛 자취와 왕이 세운 가람들

관자재보살 정사 북쪽에 큰 정사가 있다. 높이는 3백여 척, 발라디탸 왕이 세운 것이다. 그 장엄함이나 크기, 그리고 안에 있는 불상은 보리수 아래 있는 대정사와 같다.

그 동북쪽 수토파는 그 옛날 여래가 7일 동안 묘법을 설법했던 곳이다.

관자재보살 정사 서북쪽에는 과거사불의 좌소가 있다. 그 남쪽 유석(鍮石)의 정사는 계일왕이 세우고 있는 것이다. 작업은 끝나지 않았으나 그 계획하고 있는 크기는 10장(丈)으로 앞으로 완성시킬 예정이다.

그 동쪽으로 2백여 보 가면 담장 바깥쪽에 동(銅)으로 된 입불상이 있다. 높이는 80여 척으로 중각(重閣)을 6층으로 지어서야 겨우 덮을 수가 있었다. 옛날 만주왕이 만든 것이다.

만주왕 동불상 북쪽 2~3리 되는 곳에 있는 정사 안에는 타라보살상이 있다. 높기도 하려니와 영험도 있다. 해마다 원일(元日)에는 성대하게 공양드린다. 이웃 국왕이나 대신 · 호족들이 고운 향화를 가지고 오는데, 보석을 박은 기(旛)와 우산(蓋)을 들고 타악기를 치고 관현을 울리는 가운데 7일 동안 법회를 연다.

그곳 담장의 남문 안쪽에는 큰 우물이 있다. 옛날 부처님이 재세 시에 어떤 큰 상인들이 더워 목이 말라서 부처님에게 왔다. 세존은 그곳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상인들이 수레 축으로 땅을 찍었더니 땅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솟아올랐다. 상인들은 그것을 마신 다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모두 성과를 증했다.

8) 마우드갈랴야나의 고향과 그 귀불

날란다 승가람에서 서남쪽으로 8~9리 가면 콜리카 읍(拘理迦邑)에 이른다. 읍 안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존자 마우드갈랴야나가 태어난 고장이다. 옆에 수토파가 있는데 존자가 이곳에서 무여열반(無餘涅槃 : 寂滅)에 들었다. 그 안에는 유신사리(遺身舍利)가 담겨 있다. 존자는 명문 바라문 출신이며 샤리푸트라와는 젊을 때부터 친우였다. 샤리푸트라는 명민하여 세상의 존경을 받았고, 존자는 견식으로써 명예를 얻고 있었다. 재지(才智)는 서로 필적했으며 행동도 반드시 함께했다. 그들은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진퇴 또한 함께하기를 서약하는 가운데, 더불어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자고 하면서 산자야(珊闍耶)를 스승으로 삼았다. 샤리푸트라가 마승 아라한을 만나 설법을 듣고 성리(聖理)를 깨닫고 돌아와서는 존자에게 들은 바를 이야기했다. 존자는 듣자마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곧 초과를 증했다. 그리하여 자기 제자 2백 50명과 함께 부처님에게 갔다. 세존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저기 오는 사람은 내 제자 중에서 신족(神足)의 제일인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존자 등이 부처님에게 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하자 세존은 "잘 왔다. 비구야. 범행(梵行 : 淸淨無欲의 行)을 수습한다면 생사의 고통을 이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존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고 세속의 의상도 승의로 변했다. 그는 계율을 청정하게 하고 위의도 법대로 행함으로써 7일이 지나자 번뇌가 소멸하여 나한과를 증하면서 신통력을 얻었다.

9) 빔비사라 왕의 영불

마우드갈랴야나의 고향에서 동쪽으로 3~4리 가면 수토파가 있다. 빔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마중 나갔던 곳이다. 여래가 불과를 증했을 때 마가다국(摩揭陀國) 사람들이 마중하고자 열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빔비사라 왕의 초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을 잡은 다음 1천 명의 비구를 거느렸다. 이 사람들은 모두 고제자(高弟子)로서 본디 상투를 튼 바라문들이었으나 불법을 따라 출가한 축들이었다. 이들이 부처님의 앞뒤를 따라 왕사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제석천왕은 몸을 마나바〔摩那婆 : 儒童으로 譯함. '유'는 '柔善'이란 뜻〕로 바꾸어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왼손에는 금병, 오른손에는 보장(寶杖)을 들고서, 발은 허공을 디뎠으나 땅과는 손가락 4개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대중 속에서 부처님의 앞길을 인도했다. 한편 마가다국의 빔비사라 왕은 그 나라의 바라문 · 장자 · 거사 등 수많은 군중에게 전후 호위를 받는 가운데 왕사성을 나와 부처님 일행을 받들어 맞이했었다.

10) 샤리푸트라의 고향과 그 귀불

빔비사라 왕 영불 수토파에서 동남쪽으로 20여 리 가면 칼라피나카 읍에 이른다. 읍 안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존자는 명문 바라문 태생으로서, 존자의 아버지는 재능 많고 박식하며 견식이 깊은 정밀한 사람이었으며 전적(典籍)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아내가 꿈에 마음이 움직이는 바가 있어 남편에게 "저는 어젯밤 꿈에 이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몸에 갑옷을 걸치고 금강저(金剛杵)를 지녔는데 산들을 두드려 깬 다음 물러나 한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길몽이오. 당신은 반드시 사내를 낳을 것이며, 학예에 통달함이 일세에 빼어날 것이오. 모든 학자를 논파하여 그 소설(所說)을 깨뜨릴 것이나 오직 한 사람만은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과연 임신하자 그 어머니는 갑자기 총명해져서 훌륭한 담론을 펼치는데 그 변설에 조금도 굽히거나 막히는 데가 없었다.
존자는 나이 8세에 이미 명성이 사방으로 떨쳤다. 존자의 성격은 순박하고 그 심기는 자비로웠으며 번뇌를 깨고 진실한 이법을 터득하는 힘을 갖추고 있었다. 마우드갈랴야나와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아, 함께 이 혼탁해진 속세를 싫어하고 있었으나 아직 귀의할 만한 교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우드갈랴야나와 함께 산자야 외도에게 가서 수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가르침은 최고의 도리가 아니므로 생사의 고뇌를 구명해 낼 수는 없다. 각기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 먼저 그 정수를 시험한 다음 그 감로(甘露)를 함께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그 무렵 대아라한 마승이 발을 들고 거리에 나와 밥을 빌고 있었다. 샤리푸트라는

마승의 위의가 훌륭한 것을 보고 곧장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마승은 “석종의 태자로서 세속을 싫어하여 출가한 다음 일체의 이법을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샤리푸트라는 “그분이 설법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했더니, 마승은 “나는 이제 막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을 뿐으로 아직은 깊은 교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샤리푸트라는 “들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마승은 자기가 들은 바를 이야기했다. 샤리푸트라는 그 말을 다 듣자 벌써 초과를 증했다. 그는 그의 제자 2백 50명과 함께 부처님에게 갔다. 세존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은 내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존자는 부처님에게 가서 예배드린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청했다.
세존은 “잘 왔다. 비구야”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계품(戒品：五戒 · 十戒 등 戒의 品類를 이르지만, 여기서는 불교적인 德操를 뜻함)이 몸에 갖추어졌다. 그리고 반달이 지난 다음, 부처님이 장조범지(長爪梵志：산스크리트어의 디르가나카의 譯語. 샤리푸트라의 外叔. 五印度의 第一師가 안 되면 손톱을 자르지 않겠다면서 修行하여 붙은 이름)를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듣고, 그 뒤로도 갖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진리를 감득하여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 뒤 아난이 부처님의 입적 시기를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전달하는 가운데 모두 깊은 비탄에 젖어 있었다. 샤리푸트라도 깊이 석존을 사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세존에게 먼저 입멸하겠다고 청원드렸다.
세존은 “지금이 그때인 것을 알라”고 가르쳤다.
샤리푸트라는 문인들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시자 사미가 널리 성안이나 읍에 그가 온 것을 알렸기 때문에 미생원왕이나 국민들 치고 달려오지 않은 자가 없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샤리푸트라는 사람들을 위해 크게 설법을 행했으며 사람들이 다 듣자 사라져 갔다. 그는 밤중에 사념 없이 마음을 집중

시켜 멸진정(滅盡定 : 阿羅漢果 이상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잠시 동안 涅槃으로 드는 定)에 든 다음, 정에서 나와 이내 적멸했다.
칼리피나카 읍에서 동남쪽으로 4~5리 되는 곳에 수토파가 있다. 존자 샤리푸트라의 문인이 열반에 들었던 곳이다. 또한 카샤바불이 세상에 있을 때 삼코티의 대아라한이 이곳에서 똑같이 열반에 들었다고도 한다.

11) 제석굴산의 성적

샤리푸트라 문인 수토파에서 동으로 30여 리 가면 인드라샤일라구하 산(因陀羅勢羅窶訶山 : 唐에서는 帝釋窟이라 함)에 이른다. 그 산은 바위가 많고 골짜기도 어두컴컴하며 꽃핀 숲이 울창한데 산정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다. 서쪽 봉우리와 남쪽에 있는 바위 사이에 큰 석실이 있는데 넓기는 하지만 높지는 않다. 그 옛날 여래가 이곳에 머무른 일이 있는데, 그때 제석천이 42조의 질문을 돌에 썼으며 부처님이 설명을 했다. 그 글자를 쓴 돌의 자국은 아직도 남아 있다. 또 지금은 그 상을 만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안에 들어가 경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숙연해지며 경의를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없다. 산의 정상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동쪽 봉우리 정상에는 가람이 있다. 그 고장 전설에 의하면 그곳 승도 중의 어떤 무리는 밤중에 멀리 서쪽 봉우리 석실의 불상 앞에 언제고 불이 켜져 항상 밝게 비추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12) 안탑(鴈塔)

인드라샤일라구하 산 동쪽 봉우리의 가람 앞에 수토파가 있다. 항사(亘娑 : 당에서 기러기라 함)라 이르고 있다. 옛날 이 가람에서는 소승을 학습하고 있었다. 소승은 점교(漸敎)이다. 그래서 삼종의 정육을 면제하고 있었다. 이 가람은 소승의 가르침에 좇아 이 습관을 잃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에 삼종의 정육이 때로는 입수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산책하다가 문득 기러기 떼가 날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조로 “오늘은 승도들에게 식사가 충분치 못했다. 마하삿트바가 만약 기러기로 화했다면 지금이 그 고기를 베풀어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건

만……"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한 마리의 기러기가 뒤돌아서서 그 승도 앞에 떨어져 자살하고 말았다. 비구는 이를 보고 자상하게 승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승도들은 슬퍼하면서 "여래께서는 제종의 법문을 열어 사람들을 그 여건에 따라 지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점교를 신봉하고 있었소. 대중은 정리(正理)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고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를 일입니다. 이 기러기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후덕을 기려 이 사적을 영원히 전달합시다"라고 서로 말했다. 그리하여 수토파를 세워 그 유업을 명기하고 죽은 기러기를 그 탑 아래 묻었다.

13) 합 가람
인드라샤일라구하 가람에서 동북쪽으로 1백 5~60리 가면 카포타카(迦布德迦 : 唐에서 鴿一 비둘기라 함)가람에 이른다. 승도는 2백여 명, 설 일체유부를 배우고 있다. 가람 동쪽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부처님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하룻밤 설법했다. 그 당시 한 사냥꾼이 이 숲 속에서 새들을 그물로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수확이 없자 "나는 운수가 나빠서 항상 재미를 못 본다"라면서 부처님에게 와 큰 소리로 "오늘 여래는 이곳에 와서 설법함으로써 나의 그물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게 만들었소. 처자는 굶주리는데 어쩌면 좋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여래는 "불을 일으켜라. 그대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라고 말했다.
그가 불을 일으키자 여래는 큰 비둘기가 되어 불에 몸을 던져 죽었다. 사냥꾼은 그 비둘기를 주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처자와 함께 먹었다. 그 뒤 또 한 번 부처님에게 갔더니 여래는 사냥꾼의 여건에 적절한 편법으로 교화했다. 사냥꾼은 가르침을 듣고 잘못을 뉘우친 끝에 출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곳에 세운 절을 합 가람(鴿伽藍)이라 이르고 있다.

14) 고산의 관음

카포타카 가람에서 남쪽으로 2~3리 가면 이산(離山 : 孤山)에 이른다. 그 산은 험준하고 나무는 울창하여 아름다운 꽃과 맑은 물이 벼랑을 덮고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있다. 산상에는 정사나 영묘가 많은데 조각의 극치를 다하고 있다. 한 가운데 정사에는 관자재보살상이 있다. 몸체는 작지만, 위엄이 숙연하다. 손에는 연화(蓮花)를 들고 머리에는 불상을 이고 있다. 항상 여러 사람이 단식 서원 하면서 보살을 뵙고자 하는 가운데 7일~27일에서 1개월 동안 머물기도 한다. 감응이 있는 사람은, 관자재보살이 훌륭한 모습으로 몸을 꾸며 위광도 혁혁하게 상안에서 나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옛날 남해의 싱갈라국 왕이 아침 일찍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췄더니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잠부주의 마가다국 타라〔多羅 : 棕梠에 속하는 교목〕 숲 속의 작은 산 위에 이 보살상이 있는 것이 보였다. 왕은 크게 기뻐하여 상을 그림으로 그려 찾아 나섰다. 이 산에 와 보았더니 여기에 있는 상이 그 그림과 똑같았다. 그래서 정사를 세워 공양을 드렸다. 그리고 그 옆에도 정사나 영묘를 세웠는데 향화와 음악과 공양이 끊임이 없다.

15) 불타설법의 사적

이 산의 관자재보살상에서 동남쪽으로 40여 리 가면 한 가람에 이른다. 승도는 50여 명, 모두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가람 앞에 큰 수토파가 있는데 영험이 많다. 옛날 부처님이 이곳에서 범천왕 등을 위해 7일 동안 설법했었다. 그 곁에는 과거삼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가람에서 동북쪽으로 70여 리 가면 갠지스 강 남쪽으로 큰 취락에 이른다. 주민이 많고 몇 개의 천사가 있는데 어느 것이고 조각의 묘를 다하고 있다. 그 동남쪽 멀지 않은 곳에 큰 수토파가 있다. 옛날 부처님이 여기서 하룻밤 설법했다. 여기서 동쪽으로 들어가 1백여 리를 가면 낙바닐라〔落般膩羅〕 취락에 이른다. 그 가람 앞에 아쇼카 왕이 세운 큰 수토파가 있다. 옛날에 부처님이 여기서 3개월 동안 설법했다. 그 북쪽 2~3리 되는 곳에는 큰 연못이 있다. 주위는 30여 리로 네 가지 색의 연화가 4시간에 걸쳐 꽃피고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큰 산림 속을 2백여 리 가면 이라냐파르바타국에 이른다.

# 제 10 권

## 1. 이라나파르바타국

### 1) 국세의 개관

이라나파르바타국(伊爛拏鉢伐多國 : 지금의 Monghyr 지방)은 주위가 3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북쪽으로 갠지스 강을 바라보며, 주위가 20여 리인데 농업을 성대히 하고 있고 꽃과 과일이 풍부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가람은 10여 군데, 이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이웃나라 어떤 왕이 이 국왕을 폐하고 이 대도성을 송두리째 승도들에게 보시한 다음 성안에는 2개의 가람을 세웠다. 그곳에는 각기 1천 명이 미처 못 되는 승도들이 있는데 모두 소승의 설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 2) 이라나 산

대성쪽, 갠지스 강을 바라보는 곳에 이라나 산(伊爛拏山)이 있다. 안개나 연기(원문에 "烟霞를 含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설에는 火山活動의 噴煙이라고도 한다)를 내뿜는 것이 일월을 가릴 정도여서 고래로 선인 · 성인이 이곳에서 많이 살았다. 지금도 천사가 있는데 예전대로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옛날 여래도 한때 이곳에 머무르면서 천계 · 인계 사람들을 위해 묘법을 설했었다. 대성 남쪽에 수토파가 있다. 여래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설법했다. 그 옆에는 과거삼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 3) 문이백억(問二百億)의 귀불

삼불경행(三佛經行) 유적의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시로트라빈샤티코티(室縷多頻設底拘胝 : 唐에서 問二百億이라 함. 舊譯에 億耳라 함은 잘못) 비크슈가 태어난 곳이다.

옛날 이 마을에 장자가 있었는데 거액의 부호였으나 만년에 이르러서야 후사가 생겼다. 그때 그 사실을 알려준 자에게 곧장 금전 2백 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문이백억이라 이름 붙였다. 자라나면서도 단 한 번도 땅에 발을 댄 일이 없었기 때

문에 그 발바닥에는 털이 1척 남짓 자랐는데 윤이 나고 부드러우며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장자는 이 아들을 대단히 사랑하여 갖가지 노리개를 줌은 물론, 자택에서 설산에 이르는 사이에 숙소를 잇따라 두고 하인들에게 길을 왕래하며 시중들게 했으며 필요한 귀중한 약은 계속 보급하는 데 한 번도 차질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
세존은 장자의 아들의 숙선(宿善)이 이제 나타나려 함을 알고 마우드갈랴야나에게 가서 교화하도록 명했다. 목련(目連 : 마우드갈랴야나)은 장자 집의 문 앞까지 갔으나 자유로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장자의 집에서는 일천(日天 : 산스크리트어로 '수리야'의 譯. 日天子 · 日神이라고도 하는데 태양을 擬人化한 神으로 금색 마차에 타고 七子 즉 七曜를 거느리고 하늘을 周行한다고 함)을 만들어, 날마다 새벽이면 동향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일륜(一輪) 속에서 장자의 아들 앞으로 내려왔다. 왕자의 아들은 일천(日天)이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향반(香飯)을 보시하고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그 밥의 향기가 높아서 왕사성 구석구석까지 번졌다.
그때의 빔비사라 왕(頻毗娑羅王)은 그 이상한 향기에 놀라 가신(家臣)으로 하여금 샅샅이 알아보도록 했던 바, 죽림정사의 마우드갈랴야나가 장자 집에서 가져온 향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장자의 아들이 이상(異相)을 갖춘 것을 알고 불러들였다. 장자는 왕명을 받들었으나 어떻게 안전하게 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배를 띄워 가게 하면 풍파의 위험이 있을 것이고, 수레나 코끼리에 타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다. 생각 끝에 자기 집에서 왕사성까지 운하를 파 배가 통행할 수 있게 한 다음 겨자(芥子)를 운하 가득히 흘려 물결이 일지 않도록 한 가운데 배에 가만히 타고 있으면서 긴 밧줄로 끌어당기게 했다. 장자의 아들은 왕사 성에 가서 먼저 세존을 예배했다.
세존은 "빔비사라 왕이 사자를 보내어 그대를 부른 것은 발바닥의 털을 보고 싶어서였을 뿐이다. 그러니 왕이 보고자 하면 다리를 꼬고서 앉아라. 만약 다리를 뻗고서 앉는다면 국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자의 아들은 가르침을 받고 조정으로 가 왕을 배알했다. 왕이 발바닥의 털을 보려고 했더니 장자의 아들은 다리를 꼬고 앉았다. 왕은 장자의 아들의 예절을 칭찬

했으며 그래서 다시 왕궁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로 갔다. 여래는 그에게 설법했고 장자의 아들은 그를 듣고 느끼는 바 있어 그대로 출가했다. 그리고 수행에 힘써 증과를 얻으려고 하는 가운데 사색 경행함에 게으름이 없어 발은 피를 흘릴 정도였다.

세존은 “선남자(善男子)여, 재가해 있을 때 북을 치고 가야금을 뜯은 일이 있었던가?” 하고 물었다.

그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세존은 “만약 그랬다면 그것으로 비유하리라. 현이 급하게 흐르면 음성이 운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현이 너무 늦어지면 박자가 바른 악절(樂節)에 해화(諧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이 급하지 않고 느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음성이 해화되는 것이다. 수행하는 자 역시 그와 같다. 급하면 몸은 피로하여 마음이 말을 안 듣고 느리면 마음이 늘어져 뜻이 빗나가게 될 것이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얼마 하지 않아서 증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작은 고산의 성적

이 나라 서쪽 경계 갠지스 강 남쪽으로 가면 작은 이산(離山)에 이르며 첩첩한 준령들은 험하다. 옛날 부처님이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안거하면서 박쿨라약샤〔薄句羅藥叉〕를 항복시켰다. 산 동남쪽 암석 아래 큰 돌이 있고 그 돌 위에는 부처님이 앉았던 자국이 있는데 돌은 1촌 남짓 패어 있다. 길이는 5척 2촌으로 넓이는 2척 1촌 남짓이다. 그 위에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그 남쪽 돌 위에는 부처님이 쿤디카〔捃稚迦 : 즉 澡瓶이다. 옛날에 軍恃라 했음은 잘못〕를 놓아두었던 자국이 있다. 깊이는 1촌 남짓에 팔출화문(八出花文 : 여덟 개의 화판의 꽃무늬라는 뜻인지 不明)을 만들어 놓고 있다.

부처님이 앉았던 자국에서 동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박쿨라약샤의 발자국이 있다. 길이 1척 5~6촌에 너비가 7~8촌, 깊이는 2촌이 못 된다. 약샤 발자국 뒤쪽에 높이 6~7척 되는 좌상석불이 있다. 그 서쪽 멀지 않은 곳은 부처님이 산책했던 곳

이다. 그 산정에는 본래 약샤가 살았던 방이 있다. 그 북쪽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길이 1척 8촌 남짓이고 넓이 6촌 남짓에 깊이는 5부 정도이다. 그 발자국 위에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약샤를 항복시키면서 사람을 죽여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일렀던 곳이다. 약샤는 삼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듦으로써 나중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서쪽에 온천이 6~7군데 있다. 그 물은 아주 뜨겁다. 이 나라 남쪽 경계의 큰 산림 속에는 많은 들코끼리가 있다. 그 체구는 대단히 크다.

여기서 갠지스 강의 남쪽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3백여 리 가면 참파국〔瞻波國：中印度의 경계〕에 이른다.

## 2. 참파국

### 1) 국세의 개관

참파국〔瞻波國：釋尊時代에는 16대국의 하나인 Anga, 鴦伽國으로서 번영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占波는 이곳에서 移住한 자들이 그 출신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 듯. 지금의 Bhagalpur〕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그 북쪽으로 갠지스 강을 두고 있으며 주위가 40여 리이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농업이 성대하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순박하다. 가람은 수십 군데이나 손괴되어 있는 것이 많다. 승도는 2백여 명인데 소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20여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 2) 건국의 전설

그 도성은 벽돌로 지었는데 높이가 여러 장(丈)이며, 기초가 험준하고 보루(堡壘)가 높다. 그 옛날 천지개벽 시절, 인류의 조상은 들에 굴을 파고 살았으며 아직 집 지을 줄을 몰랐다. 그런데 천녀가 인간계로 내려와 갠지스 강에서 놀면서 스스로 미래를 짓는 가운데 영(靈)에 응하여 임신, 네 아들을 낳았다.

그 네 명을 잠부주에 분거시키고 경계 지역을 지배시키면서 도읍을 건설하고 마을

을 만들어 경계를 정하게 했다. 이 도성은 그 아들 중 한 사람의 국도로서 잠부주의 모든 도성 중 최초의 것이다.
성 동쪽 1백 4~50리 지점의 갠지스 강 남쪽은 강물이 성을 둘러쌌는데 그 섬의 벼랑은 험준하다. 산상에는 천사가 있는데 이곳은 영험이 많다. 벼랑에 굴을 파서 방으로 만들었으며 강물을 끌어들여 늪으로 만들었다. 꽃피는 숲에 진귀한 나무, 거대한 암석에 높은 봉우리는 인자지자(仁者智者)가 살기에 알맞은 아름다운 경관이라, 유람하는 자는 돌아가기를 잊을 정도이다. 나라의 남쪽 경계 산림 속에는 야생 코끼리 등 맹수가 몇 천 마리고 떼를 지어 산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4백여 리 가면 카추기라국에 이른다.

### 3. 카추기라국

카추기라국(羯朱嗢祇羅國 : Bhagalpur에서 동남쪽으로 약 80마일, 갠지스 강이 크게 남으로 구부러진 곳인 Rajmahal로 比定된다)은 주위가 2천여 리이다. 토지는 습윤(濕潤)하고 농업이 성대하다. 기온은 따뜻하고 풍속은 순박한데 재능이 높은 사람을 깊이 공경하며 학예를 존중한다. 가람은 6~7군데로 도는 3백여 명이다. 천사는 10여 군데로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곽은 폐허가 되어 있고 촌락에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계일 왕이 동인도에 나들이할 때는 그곳에 어전을 짓고 모든 국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면 모옥(茅屋)을 짓고 떠날 때는 불을 놓아 태워 버린다. 이 나라의 남쪽 경계에는 들코끼리가 많다. 북쪽 경계로 갠지스 강을 지나 멀지 않은 곳에 큰 고대(高臺)가 있다. 벽돌과 돌로 쌓은 것이다. 기초 자국은 높고 넓으며 진귀한 조각이 되어 있다. 그 각면에는 여러 성자의 상이 조각되어 있지만 부처님과 천인의 모습은 구별해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서 동으로 갠지스 강을 건너가기 6백여 리 하여 푼나밧다나국에 이른다.

## 4. 푼나밧다나국

### 1) 국세의 개관

푼다밧다나국(奔那伐彈那國 : 지금의 東파키스탄의 Rajshahi, Bogra 근방에 해당된다)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30여 리이며 주민이 많다. 연못을 바라보는 관저와 꽃피는 숲은 서로 비추어 교착한다. 토지는 저습하고 농업이 성대하다. 바나사과(般移娑果)는 많기는 하나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과일은 크기가 동과(冬瓜) 정도인데, 익으면 적황색이 된다. 이것을 가르면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열매가 들어 있다. 그 크기는 학의 알 정도이다. 또 다시 이를 쪼개면 그 즙은 적황색인데 맛이 달다. 나뭇가지에는 많은 과실이 함께 열매 맺은 것 같은데 뿌리께는 땅에 복령(茯笭)이 난 것처럼 보인다. 기후는 따뜻하고 풍속은 학예를 좋아한다. 가람은 20여 군데, 승도는 3천여 명이다. 대소승(大小乘)을 함께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백여 군데이며 이도인들이 잡거하는데 노형(露形) · 닐그란 다파가 가장 많다.

### 2) 바시바 승가람

성의 서쪽 20여 리 되는 곳에 바시바 승가람(跋始婆僧伽藍)이 있다. 정원이나 건물은 넓고 누각은 웅장하다. 승도는 7백여 명으로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동인도 경계의 유명하고 학식이 깊은 승도는 대개 이곳에 있다. 그쪽 멀지 않은 곳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3개월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천계 · 인계 사람들을 위해 설법했다. 재일이 되면 때로 광명이 번쩍이기도 한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사가 있다. 그 안에는 관자재보살상이 있다. 그 신위(神威)는 감소되는 법이 없고 영험 또한 각별하며 원근의 사람들이 식음을 폐하고 기도드리고 있다.

이곳에서 동으로 9백여 리 가서 큰 강을 건너면 카마루파국에 이른다.

## 5. 카마루파국

### 1) 국세의 개관

카마루파국(伽摩縷波國 : 오늘날의 Assam의 西部인 듯)은 주위가 1만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30여 리이다. 토지는 저습하며 농업은 때에 맞춰 적절히 행해지고 있다. 바나사과, 나리켈라과(那羅鷄羅果)는 그 나무가 많지만 귀하게 여겨진다. 하천이나 호수와 늪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며 풍속은 질박하다. 사람들은 작고, 용모는 누르스름하며 검고 언어는 다소 중인도와는 다르다. 성질은 거칠지만 면학에 열중하고 있다. 천신을 받들며 불법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출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람을 세운 일도 없고 승도들을 불러 모은 일도 없으며, 불법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은연중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천사는 수백이고 이도인들이 수만 명 있다.

### 2) 쿠마라 왕의 초청

현재의 왕은 본래 나라야나(那羅延天 : 天界의 이름. 혹은 梵天王의 異名이라고도 함)의 자손으로 바라문 종족이다. 자(字)는 바스카라바르만(婆塞羯羅伐摩 : 당에서 日胄라 함), 호(號)는 쿠마라(拘摩羅 : 당에서 童子라 함)이다. 이 경역에 의지하여 대대로 군림해 왔는데 현재의 왕에 이르기까지 천세가 지났다. 군주는 학예를 즐겨하며 서민의 그 덕화에 따르고 있는 바, 먼 곳의 재능 높은 사람들도 그 교풍을 따라 유학하고 있다. 불법은 그다지 신앙하지 않지만 학덕이 높은 사문은 존경하고 있다.

지난날 치나국의 사문이 마가다의 날란다 승가람에 멀리서부터 와서 부처님의 깊은 묘법을 배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사자를 두세 번 보냈으나 그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때 시라바드라 논사는 “불은에 보답하려 한다면 정법을 펼 일이오. 어서 가도록 하시오. 멀다고 해서 마다하지 마시오. 쿠마라 왕은 대대로 외도를 믿어오고 있는 터에 지금 사문을 초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오. 이를 계기로 그가 밟는 길을 고칠 수 있다면 복덕의 이익은 넓고 클 것이요. 당신

은 일찍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넓은 서원을 일으켜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이 이경(異境)에 유학하면서 구법을 위해 일신을 버리고 있소. 득실을 잊도록 하시오. 명예나 치욕에 또한 구애받지도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도하고,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내색하지 않는 가운데 명예를 잊고 불도를 널리 펴야 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거절하지 못한 채 사자와 함께 가서 왕을 알현했다.

쿠마라 왕은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훌륭한 학자들을 경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와 주십사고 소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사문은 "재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란 이 몸에 관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갈사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쿠마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법을 경모하고 학을 사모하여 자신을 뜬구름같이 가볍게 생각한 가운데 첩첩의 높고 가파른 곳을 넘어 멀리 이경(異境)에까지 유학을 했으니 말입니다. 이야말로 왕의 교화 때문이며 나라의 법도가 학예를 존중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인도의 제국에 마하치나국(摩訶至那國)의 진왕파진악을 노래하는 사람이 많소. 오래 들어오고 있소만 대덕의 나라 얘기가 아닌지요" 하고 물었다.

사문은 "그러하옵니다. 이 노래는 저희 군주의 덕을 찬미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쿠마라 왕은 "대덕이 그 나라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그 풍교(風敎)를 흠모하여 동쪽을 바라본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산천이 길을 막아 가 볼 재주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문은 "저희 군주는 그 덕이 멀리 미치고 교화 또한 널리 미침으로써 습속을 달리하는 외국 사람으로서도 궐하(闕下)에 엎드려 칭신(稱臣)하는 일이 아주 많사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쿠마라 왕은 "천자의 은덕이 그와 같다면 나 또한 조공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일왕은 카추기라국에서 대시(大施 : 食會)를 개최하여 복덕지혜의 선근을 심으려 하

고 있는바, 오인도의 사문이나 바라문의 학적(學積)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를 보내 초대코자 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함께 가도록 합시다"라고 말해서 그리했다.

3) 동쪽 경계의 지리

이 나라의 동쪽은 산과 언덕이 잇따라 있으며 큰 도시도 없고 경계는 서남이(西南夷)에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만료(蠻獠)와 비슷하다. 그 고장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두 달 정도 가면 촉의 서남쪽 경계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천은 험준하고 독사나 독초의 독기는 심하다는 것이다. 나라의 동남쪽에는 야생 코끼리가 많다. 그래서 이 나라의 상군(象軍)은 유명하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1천 2~3백 리 가면 사마타타국에 이른다.

## 6. 사마타타국

1) 국세의 개관 및 불적(佛跡)

사마타타국〔三摩呾吒國 : 지금의 東파키스탄, 갠지스 江口의 三角洲 지대〕은 주위 3천여 리이다. 끝이 대해〔大海 : 벵갈灣〕에 가깝기 때문에 토지가 저습하다. 나라의 대도성〔지금의 Bad Kamta로 比定됨〕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농업이 성대하고 꽃과 과일이 번성하고 많다. 기후는 온화하며 풍속은 질박하다. 사람들의 성격은 거칠며 모습이 비천하고 색깔이 검다. 학예를 좋아하고 근면하며 사신 · 정법을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30여 군데, 승도는 2천여 명인데 모두 상좌부(上座部)의 학을 준봉하고 있다. 천사는 1백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며 노형 · 닐그란다의 무리가 많다.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천인들을 위해 이곳에서 7일 동안 묘법을 설법했다.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가람 안에 청옥의 불상이 있다. 그 높이는 8척이며 모습은 원만한데 때때로 영험을 보인다.

2) 동방의 여러 나라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대해의 해안에 있는 산골짜기 안에 시리크샤트라국〔室利差呾羅國 : 이 유적은 지금의 Irawadi 江畔 Prome 마을 동쪽 수 마일 지점에 있음〕이 있다. 그 동남쪽 대해 끝에는 카말랑카국〔迦摩浪迦國 : 지금의 Pegu와 Irawadi 江口 델타 지역〕이 있다. 그 동쪽 드바라파티국〔墮羅鉢底國 : Siam, 暹羅의 苗都 Ayuthya, Ayudhya의 梵名이라는 說이 있다〕이 있다. 그 동쪽에 이샤나푸라국〔伊賞那補羅國 : 首都는 지금의 Tambor prei kuk인 듯〕이 있고 그 동쪽에 마하참파국〔摩訶膽波國 :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남해안〕이 있는 이 나라가 당에서 말하는 임읍(林邑)이다. 그 서남쪽에는 야마나국〔閻摩那洲國 : 지금의 Java를 이르는 듯〕이 있다. 이 여섯 나라는 산천이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경역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풍속과 경계는 사람들의 말로써 알 수 있었다. 사마타타국에서 서쪽으로 9백여 리 가면 탐랄리프티국에 이른다.

## 7. 탐랄리프티국

탐랄리프티국〔耽摩栗底國 : 지금의 Bengal洲 Midnapur縣의 Tamluk로 比定된다〕은 주위 1천 4~5백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0여 리이다. 나라의 경계는 해안에 가까워 토지는 저습하다. 농업을 적시에 행하고 있으며 꽃과 과일이 많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거칠다. 사람들의 성질은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사교와 정법을 모두 믿는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1천여 명이다. 천사는 50여 군데로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륙이 맞닿아 진귀한 보물들이 이 나라에서 집산된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거의 부유하다. 성쪽에 있는 수토파는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7백여 리 가면 카르나수바르나국에 이른다.

## 8. 카르나수바르나국

### 1) 국세의 개관

카르나수바르나국(羯羅拏蘇伐剌那國 : 金耳國. 갠지스 강 서쪽 기슭 Murshidabad縣 Rangamati로 比定됨)은 주위가 4천 4~5백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로 주민이 많고 재산도 넉넉하다. 토지는 저습하고 농업은 적시에 행하고 있으며 많은 꽃이 피고 진귀한 과일이 번식되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며 풍속은 부드럽고 무던하다. 학예를 사랑하며 사교와 정법을 함께 신앙하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2천여 명이며 소승 정량부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50여 군데로, 이도인들이 대단히 많다. 별도로 세 가람이 있는데 유락(乳酪)을 입에 대지 않고 데바닷타의 유훈을 받들고 있다.

### 2) 적니사

대성 옆에 락타마티(絡多末知) 승가람(唐에서 赤泥라 함)이 있다. 뜰과 건물이 광대하며 대각 또한 웅장하다. 나라 안의 재능 있고 학예에 능하며 총명하다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모여 서로 격려하면서 덕을 닦고 있다. 지난날 이 나라가 불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남인도에 한 사람의 외도가 있었다. 그는 배에다 동판(銅版)을 감고 머리에는 밝은 불을 이고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이 도성에 들어왔다. 그는 신호의 북을 울리면서 논쟁할 상대를 구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머리나 배는 어찌하여 학예를 한 사람과 달리 이상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학예 다능하여 지식을 담은 배가 가득 차 찢어질 것을 염려하여 배를 동판으로 둘렀고, 어리석은 자들을 슬퍼한 나머지 머리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오” 하고 대답했다.
그가 온 지 10여 일이 지났으나 문답할 사람도 없고 장로들을 방문했으나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은 “영내에 훌륭한 학자가 없을 리 없다. 그 이인과 논쟁할 상대가 없다면 나라의 수치가 아니냐. 한층 노력하여 숨은 학자를 찾도록 하라”고 분부했더니, 어떤

사람이 "큰 숲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사문이라 하면서 학예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법을 몸으로 체험하고 덕을 합치시키지 못할 때 어찌 이같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몸소 찾아갔다. 사문은 왕에게 "저는 남인도 사람이올시다.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업이 천박하여 대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나 않을지 염려되옵니다만, 굳이 분부하신 바를 사양하지는 않겠사옵니다. 만약 논쟁에 지지 않는다면 가람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그러면 승도를 모아 불법을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그렇게 하시오. 결코 은혜를 잊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사문은 왕의 청을 받아들여 토론장으로 나갔다. 거기서 외도는 그가 믿는 바를 3만여 언(言)이나 외워댔다. 그 뜻하는 바는 심원했고 내용은 간략했다. 그 논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을 모두 동원한 것이었다. 사문은 한번 듣고는 그 논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문구나 의미에 잘못 해석함이 없이 불과 수백 언으로 판별 · 해석하면서 외도에게 그 종의(宗義)를 물었다. 외도는 말에 막히고 논리에 궁하여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명예를 손상당했으므로 치욕을 느끼고 물러갔다. 왕은 깊이 사문의 덕을 공경하여 이 가람을 세웠다. 그 이후로 비로소 불교가 퍼지게 된 것이다.
가람 옆 멀지 않은 곳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여기서 7일 동안 설법하면서 대중들을 교화했다. 그 옆의 정사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다. 수토파가 여럿 있는데 그곳은 모두 여래가 설법했던 곳이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7백여 리 가면 우드라국에 이른다.

## 9. 우드라국

### 1) 국세의 개관

우드라국(烏荼國 : 지금의 Orissa洲 북부인 듯)은 주위가 7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

도성은 20여 리로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대하다. 대체적으로 과일들이 다른 나라 것보다도 큰 편이며 이상한 초목과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거칠다. 용모는 우람하고 얼굴색은 누렇고 가무잡잡한데 언어와 억양은 중인도와는 다르다. 게으름 없이 학예를 즐겨 하여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다. 가람은 1백여 군데로, 승도는 1만여 명인데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50군데이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수토파는 10여 군데로 모두 여래가 설법했던 곳이며 아쇼카 왕이 세웠던 것들이다.

2) 푸시파기리 승가람

이 나라 경계 서남쪽으로 큰 산속에 푸시파기리〔補澀波祇釐〕 승가람이 있다. 그곳의 돌로 된 수토파는 영험이 많은데 가끔씩 재일에 광명을 발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근에서 모여들어 아름다운 꽃 우산을 들고 공양을 드린다. 승로반(承露盤 : 盤蓋 혹은 相輪이라고도 함) 아래 복발세(覆鉢勢 : 탑 本體의 아래 부분) 위에 꽃 우산의 대로 된 자루를 놓을 때 꼿꼿이 서는 모습은 마치 자석이 바늘을 빨아들이는 것 같다.

이 서북쪽에 있는 산의 가람 안에 수토파가 있다. 보통 것과 다른 모양임은 앞서의 것과 같다. 이 두 개의 수토파는 귀신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영험과 기적이 그와 같은 것이다.

3) 차리트라 성

나라의 동남쪽 경계에 큰 해안을 바라보면서 차리트라 성〔折利呾羅城 : 唐에서는 發行이라 함〕이 서 있다. 주위가 20여 리로 바다를 건너는 상인과 먼 곳으로부터의 여객들이 왕래하면서 머무는 요지이다. 그 성은 견고하고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가 많다. 성 밖에는 나란히 5개의 가람이 서 있다. 대각(臺閣)이 높고 존상(尊像)은 아름답다. 남쪽 싱갈라국과는 2만 리 떨어져 있지만 고요한 밤에 멀리 바라보면 그 나라의 불아 수토파 위 보주(寶珠)가 횃불이 하늘에서 타는 것과도 같은 광명을 뿜는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큰 숲속을 1천 2백여 리 가면 콩고다국에 이른다.

## 10. 콩고다국

콩고다국〔恭御陀國 : 지금의 Orissa洲의 Ganjam縣으로 比定된다〕은 주위 1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나라의 끝은 바다의 만에 가깝고 산과 언덕이 험준하게 솟아 있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농업은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용렬(勇烈)하다. 체격들이 크고 살갗은 검다. 예의는 거의 갖추어져 턱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하지 않는다. 문자는 중인도와 같으나 언어의 억양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외도를 존경하며 불교를 믿지 않는다. 천사는 1백여 군데로 이도인들이 1만여 명 있다. 영역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성이 있는데, 산령에 접하여 구축하기도 하고 해안 쪽으로 구축하기도 했다. 성은 단단하고 병사 또한 용감하여 이웃 나라 치고 쳐들어 올 강국이 없다. 나라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귀한 보물이 많고, 갖가지 조개나 구슬은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커다란 파란색의 코끼리가 산출되는데 이를 타고 멀리 나들이 간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면 큰 황야가 나온다. 깊은 숲과 큰 나무가 하늘로 뻗어 해를 가릴 정도이다. 1천 4~5백리를 가면 칼링가국에 이른다.

## 11. 칼링가국

### 1) 국세의 개관

칼링가국〔羯陵伽國 : 보통 북으로는 Mahanadi江에서 남으로는 Godavari江 사이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Ganjam縣보다 남쪽을 가리킨다. 고대로부터 독자적 풍속을 형성했다〕은 주위가 5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농업을 적시에 행하며 꽃과 과일이 많다. 깊은 숲과 정글이 수백 리나 뻗어 있다. 파란색

의 야생 코끼리가 나며 이웃 나라에서 진귀하게들 여기고 있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조포하다. 성질은 거칠지만 타고난 성품은 신의를 존중한다. 언어는 빠른 편이지만 음조는 분명하고 바르다. 말이나 음성은 중인도와는 많이 다르다. 정법을 믿는 자가 적고 외도를 받드는 자가 많으며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5백여 명이며 대승상좌부(大乘上座部)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백여 군데, 이도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니글란다〔尼乾〕의 무리들이다.

### 2) 칼링가의 성쇠

칼링가국은 그 옛날 길을 갈 때면 어깨를 서로 스쳐야 하고, 수레가 서로 부딪히거나, 옷소매를 올리면 스스로 장막을 치는 것과도 같이 인구가 많았다. 그런데 5종의 신통력을 갖춘 선인이 암굴 속에 살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면서 수양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성정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 신통력을 잃었는데, 그에 따라 사람을 저주하는 주술로 국민을 참살함으로써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살아남는 자가 없고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었다. 그리하여 인연의 자국이 끊겨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겨우 사람이 이주하여 살아 오고는 있으나 아직 자리 잡지 못하여 이 나라는 인가가 드문 것이다.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높이 1백여 척의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국경 북쪽 큰 산의 영마루 위에 돌로 된 수토파가 있는데 높이는 1백여 척이다. 이것은 겁초(劫初) 인간의 수명이 무량수(無量壽)였을 때 한 독각(獨覺 : 緣覺)이 있었는데 여기서 적멸(寂滅)에 들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산림 속을 1천 8백여 리 가면 코살라국에 이른다.

## 12. 코살라국

### 1) 국세의 개관

코살라국〔憍薩羅國 : 보통 佛典 등에서 憍薩羅國이라 하면 舍衛城, 즉 室羅伐悉底

國(제6권의 1)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곳은 《慈恩傳》에 '南憍薩羅國'이라 하듯이 中印度에 속하는 내륙 지방임)은 주위 6천여 리이다. 산악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숲과 정글이 잇따라 있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40여 리이며 토지는 비옥하고 산물이 많다. 촌락은 서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밀집해 있고 인가가 조밀하다. 그 체격은 크고 색깔은 검은데 풍속은 모질고 사나우며 성질은 용감하다. 사교와 정법을 함께 신앙하며 학예에 힘쓰고 있다. 왕은 크샤트리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인자한 마음이 멀리까지 미치고 있다. 가람은 1백여 군데로 승도는 1만 명이 못 되는데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70여 군데이고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2) 인정 왕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그 옆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대신통력을 보임으로써 외도를 설복시킨 일이 있다. 훗날 용맹보살(龍猛菩薩 : 龍樹를 말함)이 이 가람에 들어와 살았다. 당시 이 나라 왕은 사타바하나(娑多婆訶 : 唐에서는 引正이라 함)라는 사람이었는데 용맹을 존숭하여 그가 사는 곳의 문을 경호시키고 있었다.

3) 용수와 데바

그 무렵 데바보살이 집사자국(執師子國 : 僧伽羅國)에서 와서 대담하기를 원하여 문지기에게 "아무쪼록 통과시켜 만나게 해 주시오" 했더니 문지기는 안에 곧장 보고를 드렸다. 용맹은 전부터 데바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발(鉢)에 물을 가득 채워 제자에게 "너는 이 물을 가지고 가서 데바에게 보여라"라고 말했다. 데바는 물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 바늘을 던져 넣었다. 제자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되돌아왔다.

용맹은 "뭐라더냐?" 하고 물었더니 제자는 "아무 말도 않고 다만 바늘을 물에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용맹은 "이 사람은 참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조그만 조짐을 꿰뚫어보

는 것이 신과도 같고 미세한 것을 통찰하는 것이 성인을 이을 사람이다. 이와 같이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을 빨리 들어오도록 해라" 하고 말하자, 제자는 "무슨 뜻입니까. 무언의 묘변(妙辯)이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 경우입니까?" 하고 물었다.

용맹은 "대저 물이란 것은 그릇에 따라 네모지기도 하고 둥글어지기도 하고, 섞는 물건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한다. 가득 차게 되면 틈바구니가 없게 되고 맑으면 그 깊고 옅음을 헤아리기 어렵게 된다. 발 가득한 물을 데바에게 보인 것은 내 학예의 지식이 주밀함을 말함이었다. 그런데 그는 바늘을 던져 넣음으로써 그 극저(極底)를 살피려고 한 것이다. 이는 예사 사람이 아니니 곧바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용맹의 풍채는 당당하고도 근엄하여 대담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데바는 전부터 용맹의 훌륭한 이름과 덕망을 듣고서 오랫동안 입문(入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함에 있어 먼저 신묘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리라 했으나 역시 위엄에 눌려 겸손하게 당에 올라 구석에 멀찍이 앉았다. 그러나 현묘(玄妙)한 담론이 종일토록 계속되는데 말과 논리가 다 훌륭했다.

용맹은 "후학인 당신은 실로 세상에 으뜸갈 분으로 그 웅변은 먼저 배운 나의 눈앞을 비추는 듯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 비로소 이 같은 준재를 만났구려. 자배기에서 물을 옮겨 붓듯이 모조리 기탁(寄託)한다 할 때 불법의 전등(傳燈)에 끊임이 없을 것이오. 불교의 홍양(弘揚)을 그대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바이오. 아무쪼록 더 가까이 와서 교의의 알차고 깊은 것을 말하여 주오" 하고 말했다.

데바는 이 말을 듣고는 자만심이 생겼다. 막 축적된 교의를 개진하려고 하면서 변론을 마음껏 하리라 마음먹고 말의 실마리를 준비하여 용맹의 질문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금방 그 위엄 있는 얼굴을 의식하게 되면서 하고자 한 말을 잊어버려 입이 막혔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 앉으며 잘못을 빌고 가르침을 청했다.

용맹은 "자리로 돌아가시오. 이제 그대에게 지묘한 진리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달하리다" 하고 말했다. 데바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예를 올리고 마음으로

부터 귀의하면서 "앞으로는 삼가 분부를 받들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4) 용수의 사몰

용맹보살은 약학(藥學)에 자상하여 묘약을 복용하면서 양생하고 있었다. 나이가 수백 세에 이르렀으나 기력이나 용모 역시 쇠퇴하지 않았다. 인정왕(引正王) 또한 그에게서 묘약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나이 수백 세였다. 왕에게는 나이 어린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저는 몇 살이 되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할 때 언제라고 말하기가 어렵겠구나. 부왕의 나이가 이미 수백 세이니 자손 중에 나이 들어 죽는 자들이 많다. 부왕의 장수는 모두 용맹의 복력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약술(藥術) 덕택이다. 보살이 죽는다면 부왕 또한 붕어하게 될 것이다. 용맹보살은 지혜가 넓고 깊으며 자비심이 두터운 분으로서 중생에 널리 공급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명을 개의치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 가서 넌지시 보살님의 머리를 갖고 싶다고 말해 보아라. 만약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왕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왕자는 어머니 말을 듣고 용맹이 있는 가람으로 갔다. 문지지가 황송하게 여겨 말리지 않았으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침 그때 용맹보살은 불덕을 찬송하면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문득 왕자를 보고는 멈춰 서서 "오늘 저녁은 무슨 용무가 있어 승방에 오셨습니까. 마침 신변에 위험이 닥친 듯 무엇인가에 두려움을 느낀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라고 물었다.

왕자는 "나는 어머님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있던 중 화제가 희사인(喜捨人)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인간은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경전의 문구에나 세상의 격언에도 수행의 공덕을 갖춘 그 몸을 가벼이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사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 십방의 부처님이나 삼세의 여래 등 제불은 그 옛날 발심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불도에 정진하여 인내를 수양했다. 혹은 몸을 내던져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주고 혹은 내 몸을 쪼개어 비둘기를 구했는가 하면 월광왕은 바라문에게 자신의 머리를 보시

했고, 자력왕은 굶주린 약사에게 스스로의 피를 빨아 마시게 했다. 이러한 일은 일일이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예를 깨달은 분들에게서 구한다면 어떠한 시대에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용맹보살은 제불과 똑같이 훌륭한 뜻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나는 바라는 바가 있어 사람의 머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기 수년이 됩니다만 아직 희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폭한 자를 살해한다면 죄과는 가장 무거워질 것이며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한다면 덕을 먹칠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보살은 불도를 수행하여 멀리 불과를 기억하고 계시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은혜는 한정이 없으며, 신병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뜬구름같이 하고 한 목숨을 천히 여기는 것은 썩은 나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원에 틀림이 없다면 소원한 바를 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용맹은 "좋습니다. 왕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나는 불과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보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음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無常을 말함〕. 사생(四生 : 불교에서 생물이 태어나는 데 대한 分類法. 첫째, 胎生으로 인간이나 獸類. 둘째, 鳥類 따위의 卵生. 셋째, 벌레 따위의 濕生. 넷째, 化生 즉 의지할 곳 없이 과거로부터의 業力에 의해 자연히 生成하는 것)을 유전하고 육취(六趣)를 왕래하고 있습니다〔상주하지 못함을 이름〕. 이는 전세로부터의 큰 소망은 모든 생물의 희망에 어김이 없음을 말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왕자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몸이 만약 종명하게 되면 부왕 또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를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립니다. 누가 부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용맹은 그 언저리를 배회하면서 자신의 목숨 끊을 곳을 찾은 끝에 마른 띠 잎으로 스스로 그 목을 잘랐는데 예리한 칼로 벤 듯이 목과 몸뚱이가 떨어져 나갔다. 왕자는 이를 보고 놀라 도망쳤다. 문지기가 왕에게 그 시말을 자세하게 아뢰었더니 왕은 슬퍼한 끝에 과연 얼마 되지 않아 왕 역시 사망해 버렸다.

5) 흑봉산

나라의 서남쪽으로 3백여 리 가면 브라마라기리 산(跋邏末羅耆釐山 : 唐에서는 黑蜂이라 함)에 이른다. 높이 솟은 봉우리나 암석은 험준한데 벼랑이나 골짜기가 없어 모두 돌로써 이루어진 것 같다.

인정 왕은 용맹보살을 위해 이 산을 파고 가람을 세웠다. 산을 뚫어 수십 리에 걸쳐 길을 내고, 그 산 아래서 위를 향해 파면서 돌을 깎았다. 그 내부는 장랑(長廊) · 보랑(步廊) · 고대(高臺) · 중각(重閣)으로 되어 있다. 각(閣)은 5층인데 각 층에 네 원(院)이 있다. 모두 정서를 세우고 각기 금상을 주조하여 안치해 놓았다. 크기는 부처님 몸과 같은데 조각의 요를 다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금은보주로 장식하여 장엄함을 다하고 있다. 높은 산봉우리에서 물을 끌어 우물로 했는데, 중각 사이를 돌아 흐르고 복도나 건물 주위를 돌고 있다. 승방은 밖으로 창구멍을 뚫어 광선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처음에 인정왕이 이 가람을 세움에 있어 백성들은 피폐되고 국고는 다 비었건만 작업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크게 걱정했다. 용맹은 "대왕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왕은 "큰 각오를 하고 무상의 복덕을 세워 먼 장래를 기대하기를 자씨보살의 출세 때까지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공이 모자라 준공도 되기 전에 비용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를 애통히 여겨 앉아서 날이 새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용맹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상의 복덕과 가장 위대한 선사(善事)는 그 이익이 결코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심원을 일으켰을 때 완성되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어전으로 돌아가시면 충분히 환락을 즐기십시오. 그 다음 내일 아침 어전을 나오시면 산야를 유람한 다음 이곳에 오셔서 건조작업에 관한 것을 상의하기로 합시다"라고 말했다.

왕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행동했다. 용맹보살은 이상한 약을 큰 돌에 흘려 그것을 모두 금으로 만들어 버렸다. 왕이 나와 이 금을 보며 마음과 입으로 기쁨을 나타내면서 수레를 돌려 용맹에게 가서 "오늘 나가 보았더니 귀신에 홀렸는지, 산림 속에 금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용맹은 “귀신한테 홀린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지성에 감동되는 바가 있었기에 이 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훌륭한 역사(役事)를 이룩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건조를 다시 시작했는데 건물이 준공되었는데도 금은 남아돌았다. 그래서 5층 안의 각실에 4개의 커다란 금상을 주조했는데 그래도 또 남았기 때문에 이를 유지비로 사용하여 1천 명의 승도를 초대하고 이 안에서 불덕을 예찬케 했다. 용맹보살은 석가불이 말한 교법 및 여러 보살이 말한 논서를 모아 분류하여 그 안에 수장했다. 그리하여 최상계(最上階)의 제1층에는 다만 불상과 여러 경론(經論)을 안치했을 뿐이고, 최하의 제5층에는 재속(在俗)하는 정인(淨人)의 자산과 집물들을 넣어 두었다. 그리고 중간 3층에는 승도들을 살게 했다. 옛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 왕의 건조 작업이 끝난 다음 직공들이 먹은 소금 값을 계산했더니 9코티〔拘胝：拘胝는 당에서 億을 이른다〕의 돈을 소비한 것이 되었다. 그 뒤 승도들이 언쟁을 일으켜 왕에게 판정해 주도록 했다. 그때 정인들은 모두 “승도들에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하는 바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악인이 이 틈을 타서 가람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각에서 승도들을 물리쳤다. 이 다음부터 승중(僧衆)은 없어졌다. 멀리서 산의 암석을 바라보아도 들어갈 길을 알 수 없었다. 그 당시 의사를 끌어들여 병을 치료시킨 일은 있었으나 얼굴을 가리고 출입시켰기 때문에 그 통로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큰 숲 속을 남쪽으로 9백여 리 가면 안드라국에 이른다.

## 13. 안드라국

### 1) 국세의 개관

안드라국〔案達羅國：지금은 Hyderabad 중심의 지방을 Andhra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Godavari강과 Crishna강 사이를 가리켰음〕은 주위 3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며 벵기〔瓶耆羅〕라 일컫고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하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난폭하다. 언어와 어조는 중인도와 다르나 문자의 법칙은 거의 같다. 가람은 20여 군데로 승도는 3천여 명이며 천사는 30여 군데, 이도인들이 많다.

2) 소행나한(所行羅漢)의 가람

벵기 성 쪽 멀지 않은 곳에 큰 가람이 있다. 여러 겹의 각(閣)과 여러 층의 대는 그 제작과 조각의 묘를 다했는데, 불상의 얼굴이 아름다운 점이 인공의 극치를 다하고 있다. 가람 앞에 높이 1백여 척되는 돌 수토파가 있다. 모두 아차라(阿折羅 : 당에서는 所行이라 함) 아라한이 세웠다.

소행나한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멀리 않은 곳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여기서 설법하는 가운데 대신통력을 보여 무량(無量)의 중생을 제도했다.

3) 딘나와 인명

소행나한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20여 리 가면 이산에 이른다. 산꼭대기에 돌 수토파가 있다. 딘나(陳那 : 당에서는 授라고 한다)보살이 이곳에서 인명론(因明論)을 지었다. 딘나보살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 덕풍을 이어 옷을 물들인 사람이다. 대비의 홍원(弘願)은 광대하고, 지혜의 힘은 굳건하며 세상 사람으로 의지할 곳 없는 이를 가엾이 여기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려 했다. 인명론은 논리가 깊고 넓어서 학자가 노력해도 이해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심산유곡에 숨어 선정에 든 가운데 인명에 관한 저술의 이해득실을 생각하면서 문리의 번간(繁簡)을 심구(審究)했다. 그때 벼랑과 골짜기가 큰 음향을 내면서 산의 모양이 일변했는데 산신이 보살을 만들어 올리기 수백 척,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옛날 불세존은 방편으로써 대중을 교도했습니다만 자비심으로써 인명론을 설법하는 가운데 심묘(深妙)한 논리를 총괄하고 미묘한 논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여래가 적멸한 다음 인명에 관한 논리는 중단되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딘나보살은 그 복덕과 지혜가 광대하여 깊이 부처님의 교의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인명론은 오늘부터 다시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보살은 크게 광명을 내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었다. 이 나라의 왕은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일었으나 이 광명을 보고서는 보살이 금강정에 든 것이나 아닌가 생각하여 보살에게 무생과(無生果：生死의 輪廻에서 解脫하는 羅漢의 자리)를 증하라고 말했다.
딘나는 “내가 선정에 들어 관찰하고 있음은 깊은 성교(聖敎)를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한 깨달음을 얻으려 할 뿐, 소승의 극과인 아라한의 무생과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무생과는 성자들이 존경하는 것으로서, 삼계의 욕을 끊고 삼명지에 통달함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증하시기를” 하고 말했다.
딘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왕의 소청을 기쁘게 생각하여 무학(無學)의 성과(聖果)를 증하려고 생각했다. 이때 묘길상(妙吉祥：文珠)보살은 딘나의 마음을 알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애석한 일입니다. 어찌하여 광대한 마음을 버리고 협소한 마음이 되어 내 한 몸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타의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까. 대리(大利)를 위하고자 한다면 자씨보살이 만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널리 세상에 전파할 일입니다. 후학을 유액(誘掖)할 것이니 그 이익은 심히 큽니다”라고 충고했다.
딘나보살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를 받들어 행동했다. 그리하여 깊이 연구한 끝에 인명론을 널리 펼쳤다. 그리고 아직 학자들이 그 문의의 미묘한 점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인문론(因文論)》을 지어 후학의 학자들을 지도했다. 그 이후로는 《유가사지론》을 크게 세상에 넓혔다. 그의 훌륭한 문인으로서 지금도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숲과 들을 남쪽으로 1천여 리 가면 다냐카타카국에 이른다.

## 14. 다냐카타카국

### 1) 국세의 개관

다냐카타카국〔馱那羯磔迦國 : 산스크리트어로 ‘곡식의 마을’이란 뜻. Crishna강어귀의 연안에 있음〕은 주위가 6천여 리이고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40여 리이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하며 황야가 많고 촌락은 적다. 기후는 덥고 사람들은 피부가 누렇고도 검으며 성질이 거치나 학예를 즐긴다. 가람은 처마를 맞대고 줄지어 있으나 황폐함이 심하다. 대부분 대중부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으며 천사는 1백여 군데, 이도인들이 대단히 많다.

### 2) 동산사와 서산사

성 동쪽에는 산을 의지하여 푸르바샤일라〔弗婆勢羅 : 당에서 東山이라 함〕 승가람이 있다. 성의 서쪽에는 산을 의지하여 아바라샤일라〔阿伐羅勢羅 : 당에서 西山이라 함〕 승가람이 있다. 이 나라의 선왕이 부처님을 위해 절을 세운 것이다. 내를 파고 길을 내고 벼랑을 깎아 각을 높이 지었다. 장랑(長廊)·회랑(回廊)은 암석을 베개같이 쌓은 것이 산마루에 닿을 만큼 높다. 산신이 수호하는 명산으로서 성인·현사들이 쉬는 곳이다. 부처님이 적멸하여 1천 년 동안은 해마다 1천 명의 범부승(凡夫僧 : 大衆部의 僧)이 함께 안거(安居)에 들었는데 풀리던 날에 모두 나한과를 증하여 신통력으로 허공을 가르고 돌아갔다. 1천 년 이후에는 범승과 상좌부의 성승(聖僧)이 동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 1백 년 동안 승려는 있지 않고 산신마저 모습을 바꾸어 혹은 시랑(豺狼)이 되고 혹은 원후(猿猴)가 되어 통행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황폐해져 고요해진 가운데 승도도 없다.

### 3) 청변의 옛 터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큰 산이 있다. 바비베카〔婆毗吠迦 : 당에서 淸辯이라 함〕 논사가 아수라궁〔阿修羅의 주거지로, 즉 洞窟〕에 머무르면서 자씨보살이 성불하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던 곳이다. 논사는 도량이 넓고 덕이 심원한 사람으로서 걸

으로는 상캬〔20종 외도의 하나로 迦毘羅가 창도한 學派〕의 법복을 입고 있었으나 내심으로는 용맹(龍猛：龍樹)의 학문을 받아 넓히고 있었다.
그는 마가다국의 호법보살이 불법을 넓히고 학도는 수천에 이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담론하고자 하여 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파탈리성〔波吒釐城〕에 닿았을 때 호법보살은 보리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논사는 문인에게 “그대는 보리수의 호법보살에게 가서 ‘보살은 부처님의 유교(遺敎)를 넓혀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덕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한 지가 이미 오랩니다. 그러나 일찍부터의 소원을 달성하지 못하여 오늘까지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리수는 공허하게는 보지 않을 것이며 한 번 보게 될 때는 반드시 증과를 얻어 천인사가 되고자 맹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 전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호법보살은 그 사자에게 “인세(人世)는 환영(幻影)과 같고 신명(身命)은 뜬 것과 같이 무상합니다. 날마다 수행하고 있어서 담론할 짬이 없소” 하고 대답하게 했다. 사자는 왕복을 거듭했으나 마침내 만나지 못했다. 논사는 본국으로 돌아가 고요히 자씨가 성불하지 않는 한 누가 나의 의문을 해결해 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관자재 보살상 앞에서 〈수심다라니〔隨心陀羅尼〕〉를 외우고 곡기를 끊는 가운데 물만 마시면서 3년이 지났다. 그제야 관자재보살은 무비(無比)의 색신(色身)을 나타내어 논사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논사는 “이 몸을 세상에 남기고 자씨를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관자재보살은 “사람 목숨은 여리고 세상은 환영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그대는 훌륭한 선행을 닦아 투시타천〔覩史多天：彌勒이 常住하는 곳〕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반드시 빠를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논사가 “나의 마음은 움직이기 어렵고 나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보살은 “그렇다면 다냐카타카국으로 가도록 해라. 성 남쪽에 있는 산에 집금강신(執金剛神)이 있는데 가서 마음을 다하여 〈집금강다라니〔執金剛陀羅尼〕〉를 왼다면 반드시 이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사는 그 곳에 가서 〈집금강다라니〉를 외웠다. 3년이 지나자 집금강신이 처음으로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처럼 노력하는가?” 하고 물었다.

논사는 “제 몸을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면서 자씨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자 소원했는데 관자재보살이 이곳에 와서 부탁드리도록 일렀습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집금강신은 비법을 가르쳐 주며 “이 암석 안에 아수라궁(阿修羅宮)이 있다. 법대로 소원하면 석벽(石壁)은 열릴 것이다. 열리거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자씨보살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려라”고 말했다.

논사가 “유거(幽居)하여 볼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미륵불(彌勒佛)이 세상에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금강은 “자씨가 세상에 나오면 내가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논사는 지시를 받고 열심히 비법을 외우면서 또 3년이 지났으나 처음과 하등 생각에 달라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겨자에 주문을 걸고서〔겨자는 密敎에 있어 諸難辟除를 위해 잘 쓰임〕 암석의 벽을 쳤더니 홀연히 큰 벽이 열렸다. 이때 수많은 무리가 황홀해져서 돌아갈 것을 잊고 있었다. 논사는 석실의 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나는 오랫동안 기념(祈念)하면서 자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령의 가호에 의하여 이 대원(大願)은 성취되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들어가 세상에 나오신 부처님을 뵙도록 하십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놀라서 문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사의 석굴이니 아마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들 말했다. 제삼 들어가자고 했을 때 단 6명만이 따라 들어갔다. 논사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인사하고서 침착한 태도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석벽은 본래와 같이 닫혔다. 사람들은 모두 애석히 여기면서 앞의 말에 잘못이 있었다고 후회했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1천여 리 가면 초다국에 이른다.

## 15. 초다국

### 1) 국세의 개관

초다국〔珠利耶國 : 지금의 Nellore를 중심으로 하는 Pennel 江 지역 일대인 듯〕은

주위가 2천 4~5백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며 들은 넓고 정글이나 연못이 많은데 황폐해져 있으며 주민은 적은데 도둑떼들이 횡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성질은 거칠고 외도를 신앙하고 있다. 가람은 파괴되어 있으나 승도는 조금 있다. 천사는 수십 군데이며 대부분이 노형외도〔露形外道 : 니글란다, 尼乾〕들이다.

2) 데바의 옛 자국

성의 동남쪽 멀지 않은 곳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대신통력을 나타내어 심심한 묘법을 설법하여 외도를 설복하고 천인(天人)들을 제도했었다.

성 서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데바보살이 나한과 논쟁했던 곳이다. 지난날 데바보살은 이 가람에 웃타라〔嗢呾羅 : 唐에서는 上이라 함〕 아라한이 육신통(六身通)을 얻고 팔해탈(八解脫)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듣고 멀리서 와서 그 사람됨을 살피려고 했다. 그는 가람에 도착하자 나한의 숙사에 들었다. 나한은 욕심이 없고 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다만 침대가 하나 놓여 있을 뿐 데바가 와도 앉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낙엽을 주워 모아 거기 앉으라고 했다. 나한은 선정에 들었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겨우 선정에서 나왔다. 그러자 데바는 의문난 점을 말하면서 설명을 부탁했다. 나한은 질문에 응하여 해석을 했고 데바는 나한의 설명에 이어 질문을 계속했다. 일곱 번째 질문이 나갔을 때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다가 슬며시 신통력으로 투시타천〔覩史多天 : 三十三天, 즉 慈氏가 常住하는 곳〕으로 올라 자씨에게 물었다. 자씨는 그 설명을 한 다음 이어 “그 데바라는 사람은 겁초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현겁(賢劫) 중에 부처님 자리를 이을 분이오. 그대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깊이 존경하도록 하오”라고 일렀다. 그는 손가락을 퉁길 아주 짧은 동안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서는 다시 또 부처님의 묘의(妙義)를 발양(發揚)하고 미언(微言)을 분석했다.

데바는 “이는 자씨보살의 성지(聖智)에 의한 해석이지 당신이 연구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요?” 하고 묻자 나한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래의 생각입니다” 하고 대답

했다. 여기에 이르러 나한은 자리에서 내려가 사과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부터 감탄했다. 여기서 남쪽으로 숲속을 걸어가기 1천 5~6백리 하여 드라비다국에 이른다.

## 16. 드라비다국

### 1) 국세의 개관

드라비다국(達羅毗茶國 : Dravida라는 말은 民族名 · 言語名으로도 쓰인다. 지금의 Madras市 西南 一帶)은 주위 3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업이 성대하고 꽃과 과일이 많고 주보(珠寶)를 산출한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용맹하다. 신의를 중히 여기며 박식을 존경한다. 언어와 문자는 중인도와는 약간 다르며 가람은 1백여 군데로 승도는 80여 군데, 노형외도가 많다. 여래가 재세 중 가끔 이 나라에 유세 설법하면서 사람들을 제도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여러 곳의 성적(聖跡)에 모두 수토파를 세웠다.

### 2) 호법(護法)의 출가

칸치푸라 성은 다르마팔라(達磨波羅 : 唐에서 護法이라 함)보살이 탄생한 곳이다. 보살은 이 나라 대신의 장남이었다. 어려서 이미 기량이 있었으며 자라서는 도량이 컸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왕희(王姬)가 강하하여 시집오게 되었다. 그 혼례의 저녁 때 마음이 울적하여 불상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기도드렸더니 지성이면 감천이었던지, 신이 보살을 등에 업고 멀리 도망갔다. 여기서 수백 리를 가 산중의 가람에 이르러서는 불당 안에 앉혔다. 문을 연 승도는 소년이 있는 것을 보고 도둑이 아닌가 하고 몇 번이고 힐문했다. 보살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출가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으나 그 뜻을 받아들였다. 왕은 영을 내려 원근에 그 신원을 탐문케 했다. 그러다가 비로소 보살이 신의 등에 업혀 세진(世塵)을 피했음을 알았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한층 외경하는 마음을 더하게 되었다. 보살은 출가 후 학업에 정려했다. 그 훌륭한 세평이나 교화에 관해서는 이미 논술한 바 있다.

3) 아쇼카 왕의 불탑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큰 가람이 있다. 나라 안의 총명한 인재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든다. 높이 1백여 척 되는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옛날 여래가 여기서 설법하여 외도를 설복하고 인간과 천인을 제도했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여기서 남쪽으로 3천여 리 가면 말라이콧타국에 이른다.

## 17. 말라이콧타국

1) 국세의 개관

말라이콧타국〔秣羅矩吒國 : Tamil語로 malai는 언덕 · 산의 뜻, Kotta는 지방 · 지대의 뜻〕은 주위 5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현재의 Madura인 듯〕은 주위 40여 리이다. 토지는 척박하고 산물은 많지 않지만 해산(海産)의 진귀한 보물들이 이 나라에 많이 모여든다. 기후는 덥고 피부가 누렇고 까만 사람이 많다. 성격은 격렬하며 사교와 정법을 모두 믿고 있다. 학예는 존중하지 않고 다만 이끗을 좇는데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가람이나 그 자국 등 폐지(廢址)는 아주 많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적고 승도 또한 적다. 천사는 수백이고 외도인이 많은데 노형(露形)이 특히 많다.

2) 마히다의 옛터

성의 동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뜰이나 건물은 황폐했으나 기초는 아직도 남아 있다. 아쇼카 왕의 아우인 대제(大帝)가 세운 것이다〔아쇼카 왕의 아우(혹은 아들)인 大天(즉 摩醯因陀羅. 舊譯에는 摩哂陀)은 실론에 布敎한 사람이니 그 길에 이 지방에 留錫한 일도 있었던 듯〕.

그 동쪽에 수토파가 있다. 기단(基壇)은 이미 붕괴되었으나 복발(覆鉢)은 아직 남아 있다.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설법하는 가운데 대신통력을 나타내어 무수한 사람들을 제도했다. 그래서 그 성적을 현창(顯彰)하기

위하여 이 표지를 세웠다. 세월이 흘러도 영험이 있어 기도드리는 자는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 있다.

3) 말라야 산

이 나라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말라야 산〔秣剌耶山 : 지금의 카르다몬 산맥인 듯〕이 있다. 높은 벼랑에 험준한 영마루, 동혈(洞穴) 같은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 이 산속에 백단향수(白檀香樹)와 찬다네바 나무〔栴檀儞婆樹〕가 있다. 나무 모양은 백단과 같아서 구별이 어렵다. 다만 한 여름에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볼 때 대사(大蛇)가 달라붙은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라고 알 수 있다. 그 나무의 성질이 차게 느껴지기 때문에 뱀이 칭칭 감아드는 것이다. 멀리서 보게 되면 화살을 쏘아 표적을 삼아 두었다가 뱀이 동면에 들었을 때 비로소 벌채한다. 카르푸라 나무〔羯樟羅香樹 : 樟腦〕는 소나무 같은 줄기에 다른 이파리를 달고 있으며 꽃과 열매 또한 다르다. 막 벌채했을 때는 축축하기 때문에 아직 향기는 없다. 나무가 마른 다음 결에 따라 자르면 그 안에 향기가 있다. 그 모양은 운모(雲母)와 같고 그 색깔은 눈〔雪〕과 같다. 이것이 소위 용뇌향(龍腦香)이다.

4) 포탈라카 산

말라야 산 동쪽에 포탈라카 산〔布呾落迦山 : 전설상의 산 같은데 半島南端 파파나삼 산으로 比定하기도 함〕이 있다. 산길은 위험하고 암곡은 험준하다. 산정에 연못이 있는데 거울처럼 맑다. 물은 대하(大河)로 되어 산을 둘러 흐르기를 스무 바퀴나 하여 남해로 든다. 연못 옆에 석조로 된 천궁(天宮 : 身命)이 있다. 관자재보살이 왕래하며 머무르는 곳이다. 보살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신명(身命)을 돌보지 않고 강물을 건너 산에 오른다.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도달하는 자는 아주 드물다. 그런데 산 밑의 주민으로서 모습을 보고자 기도드리면, 관자재보살은 때로는 자재천(自在天 : 시바신, 濕婆神)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회외도(塗灰外道)의 모습이 되어 기원하는 사람을 위유(慰諭)하면서 소원 성취시켜 주기도 한다.

이 산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해안에 성이 있다. 남해(南海)의 싱갈라국으로 가는 통

로이다.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여기서 바다로 들어가 동남쪽으로 천여 리 정도 가면 싱갈라국에 이른다고 한다.

# 제 11 권

## 1. 싱갈라국

### 1) 국세의 개관

싱갈라국(僧伽羅國 : 執師子國 또는 師子國이라 略稱함. 오늘날의 Ceylon섬)은 주위가 7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49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며 기후는 덥다. 농업이 적시에 행해지며 꽃과 과일의 품종이 많다. 인구는 조밀하나 자산은 부유하다. 사람의 체모는 검고 작으며 그 성격은 격렬하다. 학예를 좋아하고 덕을 존중하며 선행을 받들고 복업(福業)을 장려한다.

### 2) 세속의 건국 전설

이 나라는 본래 보저(寶渚)라 불린 나라였다. 진귀한 보물이 많으며 귀신이 살고 있었다. 어느 때 남인도의 국왕이 그 딸을 이웃 나라에 시집보내게 되어 길일을 택해 길을 떠났는데 길에서 사자(師子 : 獅子)를 만났다. 호위하는 자들이 딸을 놔둔 채 피난했다. 딸은 가마 속에서 목숨을 잃었구나 체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자는 딸을 등에 업고 심산으로 들어가 깊숙한 골짜기에 내리면서 사슴을 잡아 오고 과실을 따 와 적절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 세월이 지나 아이를 낳았다. 그 모습은 사람과 같았으나 성질은 짐승과 다름이 없었다. 사내아이는 차츰 자람에 따라 힘이 맹수에 필적할 만했다. 나이 스물이 되자 지혜도 생겨 그 어머니에게 "나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야수이고 어머니는 사람입니다. 동류(同類)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므로 어머니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 아들에게 말했다.
사내는 "인간과 짐승과는 사는 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나는 전에도 도망쳤으나 혼자서 탈출 할 수 없었단다" 하고 말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사자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영마루를 넘어가서 그 행동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나간 것을 보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짊어 메고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왔다.
어머니는 "너희는 신중하게 행동하여 일의 전말을 말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 사람

들을 만나면 우리를 경멸할 것이니 말이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서 어머니의 본국으로 갔으나 그 나라는 이미 일족(一族)의 것이 아니고 일족의 제사마저 끊겨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 집에 몸을 의탁했다. 마을 사람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는 본래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만 외국으로 흘러 다니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모두 가엾이 여겨 먹을 것을 주었다.
한편 사자는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사자왕은 크게 노하여 곧장 산에서 내려와 촌마을을 왕래하면서 크게 울부짖는 가운데 사람을 해치고 생물을 죽였다.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곧 죽여 버렸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북을 울리고 조개 피리를 불며 활을 메고, 창을 들고서 부대를 편성하여 나갈 때만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 나라 왕은 스스로의 인자교화(仁慈教化)가 충분하지 못해서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다. 그리하여 사냥꾼을 산과 들로 나가게 하여 그 사자를 잡도록 했다. 왕도 친히 사병(四兵 : 象 · 騎 · 車 · 步)을 이끌었는데 그 수는 만을 넘어 숲이나 정글을 덮고 산과 골짜기를 메울 정도였다. 그러나 사자가 포효하면 사람과 동물이 위축되어 포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모집하여, 사자를 잡음으로써 국난을 제거하는 자는 많은 상을 내려 그 공적을 표창하기로 했다. 아들이 그 포령(布令)을 듣고 어머니에게 "추위와 주림이 심하니 모집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생계가 훨씬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사자는 비록 짐승이기는 하되 역시 아버지가 아니냐. 생활이 어렵다 하여 어버이를 죽인다고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아들은 "사람과 짐승은 종류가 다르니 그 사이에 어찌 예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머니를 빼앗아간 비도(非道)를 했으니 순역(順逆)의 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작은 칼을 소매 속에 넣고 모집에 응했다. 이번의 왕의 군사 역시 천중만기(天衆萬騎), 운하(雲霞)와 같은 대군이었으나 사자가 숲 속에 웅크리고 있자 감히 다가가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인 사자 앞으로 다가가자 아버지인 사자는 점잖게 몸을 엎드려 버렸다. 사자는 친애(親愛)의 정으로 분노는

잊었고, 아들이 칼로써 아버지의 배를 찔러도 자애로운 생각을 지닌 채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은 배를 찌르자 괴로워하면서 죽었다.

왕은 “저 젊은이는 도대체 사람인가.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익으로 꾀고 혹은 위력으로써 협박하자, 겨우 사실을 사실대로 자세하게 말했다.

왕은 “아버지인데 살해한다는 것은 실로 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니 부자간이 아닐 때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 아니냐. 짐승 종류의 것은 달래기는 어렵고 포악한 정은 일으키기 쉬운 법이다. 국가의 어려운 일을 제거한 공적은 크다. 그러나 아비의 목숨을 끊은 그 마음은 도리에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큰 상으로써 그 공에 보답하되 멀리로 추방하여 그 비도(非道)를 벌주기로 한다. 그리하면 국법을 어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왕의 말에 거짓이 없었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두 척의 큰 배를 준비하고 많은 양식을 실었다. 어머니는 그 나라에 머무르게 하고 상금을 많이 주었으며, 오누이를 각기 한 척씩에 태워 물결치는 대로 표류시켰다. 그 아들의 배가 바다를 표류한 끝에 이 보저에 닿았다. 그는 진귀한 보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머물렀다. 그 뒤 상인이 보물을 캐러 이곳에 왔는데 그는 그 상인을 죽이고 그 딸을 잡아 놓았다. 이리하여 사람 수도 불어나고 자손도 많아졌기 때문에 군신(君臣)의 구별을 세우고 상하의 위치도 정하면서 국도를 세우고 촌락을 쌓아 강역(疆域)을 보유했다. 그 선조가 사자를 집포(執捕)했기 때문에 그 공을 기려 ‘집사자국(執師子國)’이라고 국호를 정했다. 그 누이동생의 배는 흘러서 페르시아의 서쪽에 닿았는데 신귀(神鬼)가 반해서 받아들여 많은 여자아이를 낳았다. 지금의 서대여국(西大女國)이 바로 이것이다.

하여간 이런 까닭으로 집사자국 사람들은 몸체가 검고 작으며 모난 턱에 큰 이마를 하고 있으며 성질이 격렬하여 태연하게 짐독(鴆毒 : 毒鳥인 짐새의 털을 술에 담가 만든 독)을 마신다. 이것은 맹수 종자로서 유전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 가운데는 용감한 사람이 많다. 이것이 건국 전설의 일설이다.

### 3) 불전(佛典)의 건국 전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건국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이 보주의 대철성(大鐵城)에는 5백의 나찰녀(羅刹女 : 魔女. 산스크리트어로 락사시)가 살고 있었다. 성루 위에는 두 개의 큰 기를 세워 길흉의 상을 표시했다. 길사가 있으면 길당(吉幢)이 움직이고 흉사가 있으면 흉당(凶幢)이 움직였다. 항상 상인이 이 보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찰녀는 미녀로 변장하여 향화를 손에 들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마중 나가 위문하고는 철성 안으로 유인해 들인 다음 면회가 끝나면 쇠 감옥 속에 넣고는 하나하나 꺼내 잡아먹고 있었다.

당시 잠부주에 큰 상주(商主)인 싱가(僧伽 : 산스크리트어로는 싱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싱갈라였는데, 아버지가 연로하므로 대신 가통을 이어받고 있었다. 그가 5백 명의 상인과 바다에 나가 보물을 채취하고 있던 중 풍파에 표류하여 우연히 보주에 닿았다. 그때 나찰녀들은 길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향화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모두 마중 나가 철성 안으로 유인해 들였다. 그래서 상주는 나찰여왕과 짝을 지어 환락의 극치를 다했다. 그 밖의 상인들도 제각기 짝을 구했다. 몇 해가 지나자 모두 한 명의 아들을 낳았다. 나찰녀들은 낡은 상대에 대해 이제는 소홀해지기 시작하여, 틈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쇠 감옥 속에 유폐하려고 애썼다. 그날 밤 싱갈라는 악몽을 꾸고 좋은 조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슬그머니 귀로를 찾고 있던 중 쇠 감옥 앞에 이르렀다. 그러자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므로 높은 나무에 올라 "붙잡혀서 슬퍼하고 있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은 아직 모르십니까. 성안의 여자들은 모두 마녀입니다. 그들은 옛날에 우리들을 유인하여 성안에 들어가 즐겼습니다. 당신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들을 유폐했는데 하나둘씩 잡아먹혀 이젠 태반이 없어졌습니다. 당신들도 곧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싱갈라는 "어찌하면 이 재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해안에 한 마리의 천마(天馬)가 있는데, 마음으로써 기원하면 반드시 구해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싱갈라는 비밀리에 상인들에게 알리고는 모두 함께 해안을 향해 열

심히 구해 줄 것을 빌었다. 그러자 천마가 달려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각자 나의 갈기를 잡되 뒤돌아보지만 않는다면 바다를 건너 당신들로 하여금 재난을 면하게 하는 가운데 잠부주 고향에 어김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같이 모두 그 천마의 갈기를 잡았다. 그러자 천마는 구름길을 날아 해안을 넘었다. 마녀들은 그들의 남편이 갑자기 도망친 것을 알고는 서로 상의한 끝에 모두들 별도로 각기 어린애를 데리고 하늘로 찾아 날았다. 상인들이 금방 해안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보고 모두 불러 모아 함께 해안으로 나갔다. 순식간에 상인들을 만나게 되자 희비가 엇갈려 눈물을 흘렸다. 모두 눈물을 얼굴 가득히 흘리면서 "우리는 다행히도 주인을 만나 가정이 원만한 가운데 은애(恩愛)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처자를 버려둔다면 나중에 남는 자식들이 불쌍합니다. 이 정황을 누가 참아내겠습니까? 아무쪼록 생각을 고쳐 성으로 다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웬만해선 돌아갈 마음을 갖지 않고 마녀들은 매달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갖은 교태를 다 부렸다. 상인들은 그동안 쌓은 정도 있고 하여 어찌할 것인가 주저하는 가운데 결국 몸은 마녀들의 술수에 떨어졌다. 마녀들은 기뻐하면서 상인들의 손을 잡고 되돌아갔다. 싱갈라는 지혜도 깊고 마음에 번뇌도 없었기 때문에 대해를 뛰어넘어 이 위난을 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마녀왕은 공허한 마음으로 철성에 되돌아왔다. 마녀들은 여왕에게 "당신은 지략이 없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는 몸에 갖춘 재주도 없는 것이니, 이곳에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마녀왕(나찰여왕)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싱갈라 앞으로 날아가 갖은 미태를 다 지으면서 되돌아가도록 유혹했다. 싱갈라는 입으로는 신주(神呪)를 외고 손에는 칼을 쥐고서 성을 내어 "너는 나찰이고 나는 사람이다. 사람과 귀신은 각기 길을 달리하는 것이니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더 조른다면, 내 너의 목숨을 끊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녀는 유혹이 성공하지 못하자 하늘을 날아 싱갈라의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 싱가를 속여 "저는 모(某)국의 왕녀입니다만, 싱갈라는 저를 아내로 삼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싣고 고

향으로 돌아오다가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자와 싱갈라는 겨우 살아났습니다만 산천의 길은 험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남편의 뜻을 못 받들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괘씸하다고 욕을 먹었으며 마녀라고 비방받았습니다. 돌아가자니 고향은 멀고 머무르자니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 신세, 진퇴양난이 되어 마음먹고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싱가는 "그대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서 이리 들어오라"고 말했다. 마녀가 이곳에 산 지 얼마 안 되어 싱갈라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찌하여 재보(財寶)를 귀하게 여기면서 처자를 가벼이 여기느냐"했더니 싱갈라는 "저 여자는 나찰녀(羅刹女 : 마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일을 상세하게 부모에게 말했다. 그래서 가족 · 친척 할 것 없이 모두 나찰녀를 추방하려고 했다. 그러자 마녀는 국왕에게 호소했다. 왕은 싱갈라를 벌주려고 했다.

싱갈라는 "마녀들 가운데는 사람을 홀리는 것들이 많사옵니다"라고 말했으나 왕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마녀의 미모가 마음에 들어 싱갈라에게 "아무래도 이 여자를 버리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후궁으로 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싱갈라는 "모르긴 해도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녀이니 음식은 피와 살코기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싱갈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그 뒤 어느 한밤중에 나찰여왕(마녀왕)은 보저(寶渚)로 날아 돌아가 남아 있는 5백 마녀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와서 독주술(毒呪術)로 궁중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인축(人畜)의 고기를 먹고 피를 빤 다음 남은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보저로 돌아갔다. 아침에 뭇 신하가 왕이 거처하는 문 앞의 조례에 모여들었는데 문은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사람의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문을 밀어 열고는 떼를 지어 어전 뜨락까지 몰려갔다. 그러나 사람은 그림자도 없이 고요할 뿐 다만 해골만이 널려 있었다. 신하들과 서리(胥吏)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성통곡할 뿐, 재난의 근원을 추측할 수가 없었다. 이때 싱갈라가 자세하게 일의 전말을 설명한 것을 듣고서야 사람들은 재앙을 자초한 것임을 알게 되었

다. 그리하여 왕을 보필했던 노신(老臣) · 군관(軍官) · 노장(老將)들은 명덕(明德)한 인물을 널리 찾는 가운데 덕 높은 사람을 천거하게 했던 바 모든 사람이 싱갈라의 복덕과 지혜를 갈앙(渴仰)했다.

모두들 "대저 인군(人君)은 가벼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복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 둘째, 총명하여 사리에 밝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복덕의 사람이 아니면 왕의 대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명철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추기(樞機)의 정무(政務)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싱갈라야 말로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다. 꿈에 재화의 조짐을 알고 천마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충성된 마음으로 주군(主君)을 간했는가 하면, 지혜의 점에서는 일신을 다하는 데 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천운(天運)이 이에 정해지므로, 서정일신(庶政一新)하여 기쁨을 노래하고 뭇사람들이 함께 기꺼이 싱갈라를 왕으로 옹립했다. 싱갈라는 이를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중용(中庸)의 길을 따라 군관(郡官)에게 인사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리하여 전대의 폐정(弊政)을 개혁하고 현량한 사람들을 표창하는 한편 영을 내려 "나의 옛날 친구들은 나찰국(羅刹國)에 있는데 그 생사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악 또한 판별이 안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한다. 군대들을 정비하도록 하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구하는 것은 국가의 복덕이며 진보(珍寶)를 수장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군대를 이끌고 바다로 떠나갔다. 그때 철성 위의 흉당은 사태에 따라 움직였다. 마녀들은 이를 보고 놀란 나머지 미태를 다하여 마중 나가서 홀리려고 들었다. 본디 왕은 그 행동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병사들에게 입으로는 주문을 외게 하고 몸으로는 무력을 휘두르게 했다. 마녀들은 일에 실패해 도망쳤는데 혹자는 고도로 도망가 숨고 혹자는 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그리하여 철성을 파괴하고 쇠 감옥을 부수어 상인들을 구제했으며 곁들여 많은 보화도 획득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주로 이주시켰으며 도읍을 세워 마을을 이룩하면서 이곳에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따서 국호로 삼았다. 싱갈라란 석가여래의 전신(前身)이다.

4) 싱갈라국의 불교

싱갈라국은 그 옛날 다만 음사(淫祠)를 제사할 뿐이었으나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1백 년 뒤 아쇼카 왕의 아우 마헨드라(摩醯因陀羅)가 애욕을 버리고 성과를 증하고자 하는 가운데 육신통(六身通)을 얻고 팔해탈(八解脫)을 구유하고서 허공을 헤집고 이 나라에 이르러 부처님의 유교(遺敎)를 펼쳤다. 이후부터 풍속은 신심이 두텁게 되었다.

가람은 수백 군데이며 승도는 2만여 명이다. 대승과 상좌부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다. 불교가 들어온 다음 2백 년 동안 각기 전문을 제 마음대로 해서 두 부(部)로 분파되었다. 하나는 마하비하라(摩訶毗訶羅住部)라 하여 대승을 배척하고 소승을 학습한다. 다른 하나는 아바야기리(阿跋耶祇釐住部)라 하여 대소승(大小乘)을 함께 학습하는데 널리 경률론(經律論)의 삼장을 학습한다. 승도들은 계행이 청정하고 선정 · 지혜가 명석하며 그 위의 풍채가 모범으로 삼을 만큼 참으로 훌륭하다.

5) 불아정사

왕궁 옆에 불아정사(佛牙精舍)가 있다. 높이가 수백 척이다. 주옥을 박았으며 보석으로 장식해 놓고 있다. 정사 위에는 표주(標柱)를 세웠으며 파드마라가대보(鉢曇摩羅伽大寶 : 蓮華色을 한 것이라는 뜻. 루비 · 紅玉)가 안치되어 있다. 하늘로 비추는 빛은 맑고, 잇대어진 빛은 번쩍인다. 밤낮 할 것 없이 멀리서 바라볼 수가 있으며 명성(明星)처럼 밝다. 왕은 불아를 하루 세 번씩 향수나 향말(香末)로 씻는다. 되도록 진귀한 보물로써 공양을 하는 것이다.

6) 부수(府首) 금불상

불아정사 옆에 작은 정사가 있다. 이 역시 많은 보물로 장식해 놓았다. 안에 금불상이 있다. 이 나라의 전왕이 자기의 키와 같이 주조한 것인데 육계(肉髻)는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했다. 한 도둑이 짬을 보아 이를 훔치려 했으나 문을 몇 겹으로 책(柵)을 둘러 호위가 견고했으므로, 도둑은 지하도를 파고서 정사로 들어갔다. 그런데 보석을 움켜잡으려 하자 상의 키는 차츰 커졌다. 도둑은 뜻대로 되지 않자 물

러나 실망하면서 "여래께서는 그 옛날 보살행을 할 때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홍원(弘遠)한 서원(誓願)을 일으켜, 위로는 여래 자신의 목숨으로부터 아래로는 소유하는 국성(國城)까지도 사생(四生)을 불쌍히 여겨 중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 모습을 나타낸 이 상의 보석을 아끼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정언(靜言 : 조용히 말한다는 뜻 외에 巧言令色의 巧言의 뜻이 있음)하면 옛 행동이 그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상은 고개를 수그리고 보석을 주었다. 도둑은 보석을 입수해 가지고는 곧장 팔려고 했다. 그러나 상을 본 일이 있었던 사람은 그 도둑에게 "이 보석은 선왕의 금불상에 있는 육계다. 그대는 어디서 입수하여 이를 팔려고 하는가?" 하면서 붙잡아 왕에게 품했다. 왕이 어디서 입수했느냐고 묻자 도둑은 "부처님이 스스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 알아보게 했더니 상은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왕은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듯했다. 그래서 신심을 굳히면서 그 도둑을 처벌하지 않고 고가로 다시 사서 불상의 육계를 장엄하게 다시 안치했다. 이런 까닭으로 불상은 고개를 숙인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7) 국왕, 중식(衆食)을 베풀다

왕궁 옆에 큰 조리장이 세워졌는데 날마다 1만 8천 명 승도들이 식사를 한다. 식사 때가 되면 승도들은 발(鉢)을 들고 식사를 받으며 끝나면 각기의 주거로 돌아간다. 불교가 유전(流傳)된 이래 지금껏 이 공양을 하고 있는데 자손들이 그 행사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십수 년 전 국내에 정란(政亂)이 일어 아직 정해진 군주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지되고 있다.

8) 보저(寶渚)

나라 해안 어귀에서는 귀중한 보물이 산출된다. 왕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며 신은 세상에 진귀한 물건을 내려주는 것이다. 마을의 남녀들이 나가서 채집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지니는 복덕에 따라 수확은 다르다. 입수한 진주는 그 과세(課稅)에 등급이 있다.

9) 랑카 산과 나리켈라주

나라의 동남쪽에 랑카 산〔駱迦山 : 실론 섬을 랑카드비파라고도 하고 또 실론의 首都를 랑카라고도 한다. 실론 南部에는 8천 피트급 高山이 있다〕이 있다. 산곡이 유수(幽邃)하며 신령이 사는 곳이다. 그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랑카경〔駱迦經 : 옛날에 '楞伽經'이라고 했음〕》을 설법했다.

나라의 남쪽 바다의 저쪽 수천 리 해서 나리켈라 주〔那羅稽羅洲 : 椰子島의 뜻인데 傳聞國으로 不詳〕에 이른다. 이 나라 사람은 몸체가 작아 키는 3척 남짓한데 몸은 사람이건만 입은 새의 부리이다.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야자만을 먹고 산다.

나리켈라 주 서쪽 바다 저편으로 수천 리 떨어진 섬 동쪽 벼랑에 높이 1백여 척 되는 석불상이 있다. 동쪽을 두르고 앉았는데 월애주(月愛珠 : 漢譯은 水晶이며 月長石이라고도 함. 月光이 凝結하여 月光이 비출 때만 번쩍인다고 함)를 육계로 하고 있다. 달이 비출 때가 되면 물은 폭포가 되어 벼랑을 흘러서 골짜기로 간다.

옛날 상인들이 폭풍을 만나 물결치는 대로 표류하여 이 외딴 섬에 왔다. 바닷물은 염분이 섞여 마시지 못한 채 목이 마른 지 오래되었다. 이때가 달의 보름이었다. 그런데 상의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 사람들은 진심이 부처님한테 통해 구제받은 것이라 생각했다. 이곳에 수일을 머물렀는데 언제고 달이 높은 산 속에 가리게 되면 그 물의 흐름도 멎었다. 그래서 상주(商主)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물이 흐른 것은 아니다. 월애주는 달빛이 비추면 물을 흘린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불상의 정상에 이 보주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고서 벼랑에 올라 살폈더니 과연 월애주를 상의 육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라의 서쪽 바다 저편으로 수천 리 가면 큰 보주(寶洲)에 이른다. 사람은 살지 않으며 다만 신령만이 산다. 고요한 밤에 멀리 바라보면 빛은 산수에 번쩍인다. 상인들도 가 보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별 수확을 얻지 못한다.

드라비다국〔達羅毗荼國〕에서 북쪽의 숲 속으로 고성(孤城)을 지나고 작은 마을을 지난다. 악인들이 작당하여 행인들을 해치기도 한다. 그곳을 2천여 리 가면 콩카나푸라국에 이른다.

## 2. 콩카나푸라국

### 1) 국세의 개관

콩카나푸라국(恭建那補羅國 : Crisha 江 상류 Tungabhadra 江, Varada 江 流域地帶를 포함한 해안인 듯)은 주위가 5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30여 리이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업이 성대하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격렬하며 얼굴은 누렇고도 검은데 성질은 거칠다. 그러나 학업을 즐기며 덕행을 존중한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1만여 명이다. 대소승(大小乘)을 겸해서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수백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 2) 왕성부근의 사원

왕궁성 옆에 대가람이 있다. 승도는 3백여 명인데 모두가 준재들뿐이다. 가람의 대정사는 높이가 1백여 척인데 그 안에 일체의성태자(一切義成太子)의 보관(寶冠)이 있다. 높이는 2척이 못 되지만 보물로 장식돼 있으며 보물함 속에 들어 있다. 재일이 될 때마다 꺼내어 높은 곳에 안치하고 향화로 공양하는데 때로는 광명을 발하기도 한다.

성쪽 대가람 안에 높이 50여 척 되는 정사가 있다. 안에는 전단(栴檀)으로 조각한 높이 10여 척의 자씨보살상이 있고 재일이 되면 이상한 빛을 발하는 일이 있다. 문이백억 나한(聞二百億羅漢)이 만든 것이다.

성 북쪽 멀지 않은 곳에 타라나무의 숲이 있다. 그 주위가 30여 리 된다. 그 잎은 길고도 넓으며 색은 윤이 난다. 그것은 여러 나라에서 서사(書寫)의 재료로 채용한다. 숲 안에 수토파가 있는데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다. 그 옆에는 문이백억 나한의 육산사리 수토파가 있다.

성 동쪽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기초는 이미 허물어져 기울었으나 아직도 높이가 3장(丈)은 된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안에 여래의 사리가 있는데 재일이 되면 이상한 빛을 낸다는 것이다. 그 옛날 여래가 이곳에서 설법했으며 신통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했다. 옆에는 기초만이 남아 있는 가람이 있다. 그 나한이

세운 것이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큰 숲 속으로 들어간다. 맹수들이 들끓고 무리 지은 도둑들이 흉폭한 짓을 한다. 그곳을 통해 2천 4~5백리 가면 마하랏타국에 이른다.

## 3. 마하랏타국

### 1) 국세의 개관

마하랏타국(摩訶剌侘國 : 영역은 그 Godavari 江 유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마하라시트라 洲에 해당함)은 주위가 6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서쪽으로 대하를 바라보며 주위 30여 리 이다. 토지가 비옥하며 농업이 성대하다. 기후는 따뜻하고 풍속은 소박하다. 그 신체는 크고 성질은 오만하며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갚고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남에게 모욕을 받게 되면 목숨을 걸고 복수를 한다. 위급한 친구에게는 자기 몸을 잊고 구제를 베푼다. 원한을 보복코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통보하고 갑옷을 걸치고서 무기를 사용한다. 싸움에 있어 패하면 형벌은 없으나 여자의 옷을 입혀 분격한 나머지 자살하게 만든다. 나라는 수백 명의 용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결전하고자 할 때는 술을 마셔 취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적의 예봉을 꺾고 만 사람이 적의 정예를 깨뜨린다.
사람들에게 난폭한 짓을 해도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왕이 외출할 때는 이 사람들이 북을 울려 인도한다. 또 난폭한 코끼리를 수백 마리나 기르고 있다. 전투가 시작될 때는 이 코끼리에게도 술을 먹여 떼 지어서 적을 유린하게 한다. 코끼리가 무인지경을 가듯 하는 것이다.
이 나라 왕은 이와 같은 사람과 코끼리를 믿고 이웃 나라를 업신여기고 있다. 왕은 크샤트리아 출신으로 이름은 풀라케신(補羅稽舍 : 찰루키아 王朝의 英主 풀라케신 2세로 그는 나르마다 江 이남에 군림, 625~626년에는 페르시아 왕 쿠스루 2세와 사절도 교환하고 있다)이다. 그 시정은 원대하고 인정(仁政)은 멀리 미치고 있으며 신하는 왕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계일왕은 동으로 서로 정벌하여 먼 나라도 와서 축하하고 가까운 나라는 숙연히 신하로 복종하는데, 이 나라만 홀로 신복(臣伏)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오인도(五印度)의 군병과 소집에 응한 제국이 용장을 이끌고 스스로 토벌에 나섰지만 승리를 얻지 못했다. 이 군대가 강성하기는 이와 같고 그 풍속의 충성심 역시 대단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학예를 좋아하며 사교와 정법 모두 신앙한다. 가람은 1백여 군데로 승도는 5천여 명인데 대소승(大小乘)을 겸하여 학습한다. 천사는 1백여 군데 있으며 이도인들이 아주 많다.

### 2) 부근의 유적

대성 안팎에 다섯 개의 수토파가 있다. 그와 나란히 과거사불의 좌소와 산책한 유적이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 밖에 돌과 벽돌로 된 수토파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그 안에 관자재보살의 석상이 있다. 영험은 은밀히 미치고 소원을 빌 때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 3) 아잔타 석굴

나라 동쪽 경계에 큰 산이 있다. 몇 겹의 봉우리로 이어지는 높은 산은 어느 것이나 깊고 험하다. 이곳의 깊은 골짜기에 그 기초가 있는 가람이 있다. 높은 당과 깊숙한 건물은 벼랑을 파 봉우리에 의지하고 있으며 중각과 층대는 암성을 등으로 계곡을 향하고 있다. 아찰라〔阿折羅 : 唐에서 所行이라 함〕 아라한이 세운 것이다.
나한은 서인도 사람이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나라에 전생(轉生)했는가 관찰했더니 이 나라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한은 이곳에 와서는 기근(機根)에 따라 섭취(攝取)하고자 하여 촌락을 돌면서 걸식, 그 어머니의 생가까지 왔다. 어떤 부인이 먹을 것을 들고 보시했는데 젖가슴에서 젖이 흘렀다. 집안사람들은 이를 보고 불길한 징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한이 본래의 인연을 설명했던 바 그 부인은 깨달음을 얻었다. 나한은 생육받은 은혜를 느끼고 인

연을 깊이 생각하면서 범상하지 않은 덕에 보답하고자 가람을 세웠다.
높이 1백여 척 되는 가람의 대정사 안에 높이 70여 척 되는 석상(石像)이 있다. 그 위에 일곱 겹 되는 돌우산이 있는데 허공을 향해 끝이 없다. 우산의 거리는 각기 3척 남짓이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나한들의 힘이 받치고 있다고도 하고 신통력이라고 하는가 하면 약술(藥術)의 효험이라고도 한다. 기록으로 알아보려 해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정사의 네 둘레에는 석벽을 조각했는데, 여래가 그 옛날 보살행을 한 것, 과거의 그때그때에 있어서의 불도수행의 정도와 깨달음을 얻은 길상(吉祥), 적멸에 든 신령의 감응 등을 그린 가운데 굵게 혹은 세밀하게 조탁(彫琢)해 놓았다.
가람 문 밖의 남북좌우에는 각기 하나의 돌코끼리가 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코끼리는 때로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대지는 그 소리에 진동한다는 것이다. 옛날 딘나보살이 가끔씩 이 가람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1천여 리 가면 나르마다 강(耐秣陀河 : 빈디야에서 일어 동쪽으로 흘러 캄베이 灣으로 드는 인도 및 서인도의 중요한 강)을 건너 바루카차파국에 이른다.

## 4. 바루카차파국

바루카차파국(跋祿羯呫婆國 : 지금의 Narmada 江口에 위치하는 항구도시 Bharoach, Broach이다)은 주위가 2천 4~5백리 된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토지는 염분이 있어 초목은 드문드문 나 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있으며 바다를 이용해 생업을 꾸려 나간다. 기후는 덥고 선풍이 인다. 고장의 풍속은 박정하고 사람들은 거짓이 많으며 학예에는 관심이 없고 사교와 정법을 모두 믿는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3백여 명이며 대승과 소승의 상좌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0여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한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2천여 리 가면 말라바국에 이른다.

## 5. 말라바국

### 1) 국세의 개관

말라바국〔摩臘婆國 : 위치에 대해 異說이 있다. 하나는 지금의 Kaira 및 Amadabad 즉 지방 중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Malwa, 즉 Ujjayini 주변 지역이라고 보는 설이다〕은 주위가 6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30여 리이며 마히 강〔莫醯河〕 동남쪽에 의거하고 있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업이 성대하다. 초목은 무성하고 꽃과 과일이 많다. 특히 숙맥(宿麥)이 잘되며 빵을 먹고 있다. 사람들의 성질은 순량하고 대체로 명민하다. 언어가 고우며 학예에 뛰어나다. 오인도 안에서는 두 나라가 학문을 중히 여기는데, 서남쪽의 이 말라바국과 동북쪽의 마가다국〔摩揭陀國〕이다. 덕을 귀히 여기고 인(仁)을 공경하며 도리에 밝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이 나라야말로 사교와 정법을 함께 믿는다. 가람은 수백 군데, 승도는 2만여 명으로 소승 정량부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도 수백이며 이도인들이 많은데 대개는 도회외도(塗灰外道)의 무리들이다.

### 2) 계일왕

나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60년 전에 실라디티야〔尸羅阿迭多 : 당에서는 戒日이라 함〕라 일컫는 왕이 있었다. 기지견식이 있고 재능 학식이 풍부하여 사생(四生)을 애무하고 삼보(三寶)를 숭경하고 있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굴에 노한 기색을 띠지 않았고 손으로 살생을 행하지 않았으며 코끼리나 말한테 물을 먹일 때도 걸러서 주었다. 물속에 있는 생명의 목숨을 해칠까 저어해서였다. 그 인자함이 그와 같았다. 재위 50여 년 동안 야수까지도 사람과 친하게 되어 나라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생하지 아니했다. 궁성 안에 정사를 건립했는데 정교한 장식을 다했고 안에 과거칠불 세존상을 만들었다. 해마다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어 사방의 승도를 초집하여 사사(四事)의 공양을 하고 삼의(三衣)를 갖추어 베푸는가 하면 칠보(七寶)의 진기한 것을 베풀기도 했다. 대대로 이어받아 이 아름다운 행사는 끊어진 법이 없다.

### 3) 현애(賢愛) 비크슈의 논쟁

대성에서 서북쪽으로 20여 리 가면 바라문 마을에 이른다. 옆에 푹 팬 구멍이 있다. 여름에서 가을에 걸치는 우계 때 장마중이라도 빗물이 괴는 것은 10일 정도이며, 많은 강물을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물이 오래 괴어 있지는 않다. 그 옆에 자그마한 수토파가 세워져 있다. 그에 대해 고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옛날 자만심 많은 바라문이 지옥으로 떨어진 곳이라는 것인데 옛날 이 마을에 바라문이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이 많고 학식이 당시의 영재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내외의 전적도 그 심오함을 다했으며 역수(曆數) · 천문(天文)을 손바닥 보듯 했고 풍채도 단아하여 명성은 멀리까지 미쳤다. 왕은 대단히 존경했으며 국민들 역시 그러했다. 문인은 천(千) 단위로 헤아릴 정도였으며 가르치는 길을 실천하는 가운데 학풍을 존숭했다.

항상 "나는 세상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성교(聖敎)를 가르쳐 범속(凡俗)을 이끌고 있다. 선현후철(先賢後哲)도 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저 대자재천(大自在天 : 濕婆) · 바수데바〔婆藪天 : 毘濕奴〕 · 나라야나〔那羅延天〕 · 불세존(佛世尊)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두고 그 가르치는 길을 이어받아 도상(圖像)을 만든 가운데 다투어 존경하고 있다. 이제 나의 덕은 그들을 능가하고 명성은 일세에 높아서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이를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빨간 전단나무로 대자재천 · 바수데바 · 나라야나 · 불세존의 상을 조각하여 의자의 네 다리로 하고서 가는 곳마다 항상 가지고 따라다니게 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와 같았다. 그 당시 서인도의 비크슈에 현애(賢愛 : 바드라투치, 跋陀羅縷支라 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인명(因明 : 論理)에 대단히 밝아 갖가지 이론(異論)에 통달하고 있었다. 학풍은 순수하고 계율은 맑고 정숙했으며 욕심이 적어 자족(自足)함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 바라문의 말을 듣고는 "오늘날 인물이 없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악덕을 제 마음껏 행할 수 있게 한대서야 되겠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리하여 석장(錫杖)을 짚고 멀리 이 나라에 와서 진작부터 품고 있던 속마음을 왕

에게 자세하게 말했다. 왕은 그 초라한 의복을 보고 경의를 품지는 않았으나 그 뜻이 훌륭하다 생각하고 일어서서 예우했다. 그리하여 논단(論壇)을 만든 다음 바라문에게 통지했다. 바라문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와 같은 뜻을 가졌다니” 하고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토론장으로 나갔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토론을 듣고자 모여들었다. 현애는 낡고 허름한 옷으로 몸을 감고서 풀을 깔고 앉았다. 그 바라문은 가져온 의자에 앉아 정법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사종(邪宗)에 관해 진술했다. 비크슈는 흐르는 물과 같이 변설하는데 종횡무진이었다. 바라문은 마침내 굴복했다. 그리하여 왕은 “오랫동안 허명을 제멋대로 날리면서 윗사람을 속이고 아랫사람을 현혹시켜 왔다. 고전에 ‘논쟁에 지면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서 쇠붙이를 화로에 달군 다음 거기에 앉히려고 했다. 바라문은 당황한 나머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다면서 도움을 청했다. 현애는 가엾이 여겨 왕에게 “대왕의 인정(仁政)은 멀리에 미쳐 명성은 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비로써 잔혹한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어 멀리 떠나도록 하십시오” 하고 청했다.

왕은 당나귀에 태워 온 시가를 돌게 했다. 바라문은 그 모욕을 부끄러이 여겨 분한 나머지 피를 토했다. 비크슈는 이 말을 듣고 가서 위로하여 “당신의 학문은 내외전(內外典)을 겸하여 명성은 멀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명예나 치욕은 당신의 진퇴에 의하여 반드시 분명해질 것입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체(實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라문은 성이 크게 나서 비크슈를 타매하고 대승(大乘)을 비방하면서 선성(仙聖)을 경멸했더니 그 말소리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땅이 갈라지면서 산 채로 떨어져 버렸다. 그 유적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서남으로 가면 해교(海交)에 들고〔이 말은 분명치 않음. 더러는 海交를 灣으로도 생각한다〕, 서북으로 2천 4~5백 리 가면 아탈리국에 이른다.

## 6. 아탈리국

아탈리국〔阿吒釐國 : 그 소재는 분명치 않으나 그 行程에서 볼 때 Kathiawar 半島 北岸인 듯〕은 주위가 6천여 리이며 대도성의 주위는 20여 리이다. 주민이 많고, 진귀한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 농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데도 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모래땅이어서 꽃과 과일은 적다. 호초(胡椒 : 후추)나무가 산출되는데 그 잎사귀는 촉초(蜀椒 : 중국 四川省에 있는 灌木)와 같다. 쿤두루카〔薰陸香樹 : 學名 Boswellia thurifera로서 고래로 갖가지 향료와 결합하여 燒香用으로 쓰였음〕를 산출하는데 그 잎은 능금 잎과 같다. 날씨는 덥고 바람과 먼지가 많다. 사람들은 박정하고 재물을 귀히 여기며 인덕(人德)을 우습게 여긴다. 문자나 언어 · 관습 등은 대체로 말라바국〔摩臘婆國〕과 같다. 복업(福業)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설사 믿는 사람이 있다 해도 천신을 믿는다. 천사가 10여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말라바국에서 서북으로 3일 동안 가면 캇타국에 이른다.

## 7. 캇타국

캇타국〔契吒國 : 위치에 諸說이 있다. 지금의 Kaira라고 하는 설, Cutch라고 하는 설 등이 그것이다〕은 주위가 3천여 리이며 집이 많고 모두가 부유하다. 대군주는 없으며 말라바국〔摩臘婆國〕에 예속되어 있다. 풍토나 산물 등은 말라바국과 같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1천여 명 대소승(大小乘)을 겸하여 학습한다. 천사는 수십 군데, 외도인들이 많다. 여기서 북으로 1천여 리 가면 발라비국에 이른다.

## 8. 발라비국

### 1) 국세의 개관

발라비국〔伐臘毘國 : 原注의 北羅羅國은 南羅羅國의 잘못인 듯. 이 기술대로라면

상당한 북쪽인데 史上의 Valabhi국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 이 기술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은 주위가 6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30여 리 된다. 산물이나 기후의 정도나, 풍속 · 성정 등은 말라바국과 같다. 주민이 많고 집집이 다 부유하며 1백억의 재산을 쌓은 집만도 1백 호나 된다. 먼 곳의 진귀한 물건들이 이 나라로 많이 모인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6천여 명인데 소승 정량부를 학습하는 자가 많다. 천사는 수백 군데로 이도인들이 대단히 많다.

2) 부근의 구적(舊跡)

여래가 재세했을 때 가끔 이 나라에 머물고는 했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부처님이 머무른 곳이면 어디나 기를 세우고 수토파를 건립했다. 과거삼불의 좌소와 산책 · 설법한 곳 등 유적은 여기저기에 있다.

3) 상예왕(常叡王)과 숭불(崇佛)

지금의 왕은 크샤트리야 출신이다. 즉 옛날의 말라바국 시라디티야 왕(戒日王)의 조카로서 지금의 카냐굽자국(羯若國闍國)의 시라디티야 왕의 사위인데 상예왕(常叡王 : 바드루밧타, 杜魯婆跋吒라 함)라고 일컬었다. 성격에 침착함이 없고 지모(智謀)는 천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삼보(三寶)를 두터이 믿고 해마다 무차대회를 7일간 개최하면서 성찬을 승도들에게 공양하고 삼의(三衣)와 의약의 비용, 칠보(七寶)등 값나가는 보물 등을 모조리 보시(布施)한 다음 값을 갑절로 쳐서 다시 사들였다. 덕자(德者)를 대접하고 현자(賢者)를 공경하며 도(道)를 존중하고 학(學)을 중히 여기는 가운데 멀리서 오는 고승(高僧)에게는 각별히 경의를 표했다.

4) 아차라(阿折羅)가 건립한 가람

성을 빠져나가 멀지 않은 곳에 큰 가람이 있다. 아차라 아라한이 세운 것으로 덕혜(德慧) · 견혜(堅慧) 보살이 유석(留錫)하면서 이곳에서 작론(作論)했다. 모두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7백여 리 가면 아난다푸라국에 이른다.

## 9. 아난다푸라국

아난다푸라국(阿難陀補羅國 : 지금의 Vadnagar로 생각됨. 지금도 종교 도시로 알려짐)은 주위가 2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집이 많고 또 부유하다. 대군(大君)은 없으며 말라바국에 예속되어 있다. 산물이나 기후 · 문자 · 관습 등도 말라바국과 같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1천 명이 못 되며 소승정량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수십 군데이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발라비국에서 서쪽으로 5백여 리 가면 수랏타국에 이른다.

## 10. 수랏타국

### 1) 국세의 개관

수랏타국(蘇剌咤國 : 지금의 Kathiawar 반도 남부에 해당)은 주위가 4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30여 리이다. 마히 강(莫醯河)을 서쪽으로 의지하고 있다. 주민이 많고 집집마다 부유하다. 이 나라 역시 발라비국에 예속되어 있다. 토지에 염분이 있으며 꽃이나 과일은 적다. 한란(寒暖)의 차이는 없으나 바람이 세고 시끄럽다. 인정은 메말랐으며 침착함이 없다. 학예를 좋아하지 않으며 정법과 사교를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50여 군데, 승도는 3천여 명인데 대부분이 대승 · 소승의 상좌부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백여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이 나라는 서해(西海)에의 길목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은 모두 바다의 이점에 따라 상업을 생업으로 하며 교역하고 있다.

### 2) 웃자얀타 산

성을 지나 멀지 않은 곳에 웃자얀타 산(郁鄯多山 : 현재 파키스탄의 기르나르 산)이 있다. 산정에 가람이 있는데 방이나 복도는 벼랑을 파서 만든 것이 많다. 숲은 울창하고 물은 경내를 돌아 흐른다. 성현이 머물고 선인이 모여들 것 같은 영묘한

곳이다. 발라비국에 북쪽으로 1천 8백여 리 가면 굿자라국에 이른다.

### 11. 굿자라국

굿자라국(瞿折羅國 : 지금의 Rajasthan 남부)은 주위가 5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빌라말라라고 하며 주위 30여 리이다. 산물이나 풍속은 수랏타국과 같다. 주민이 많고 가산들은 풍족하다. 외도를 믿는 자가 많으며 불도를 믿는 자는 적다. 가람은 한 군데로 승도는 1백여 명. 소승의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수십 군데로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왕은 크샤트리야 종인데 나이는 20살 정도로 지용(智勇)이 높은 사람으로서 불교를 깊이 믿으며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2천 8백여 리 가면 웃자야니국에 이른다.

### 12. 웃자야니국

웃자야니국(鄔闍衍那國 : 고대 16국 중의 하나로 문화가 계발되었고 수출입의 집산지였음. 지금의 Ujjain州 지방)은 주위가 6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30여 리이다. 농산물과 습속은 수랏타국과 같다. 주민이 많고 집집은 부유하다. 가람은 수십 군데 있으나 도괴된 것이 많으며 남아 있는 것은 서넛이다. 승도는 3백여 명으로, 대소승(大小乘)을 모두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수십 군데로,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왕은 바라문 종이다. 사교(邪敎)의 서적에 널리 통달해 있으며 정법을 믿지 않는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토파가 있다. 아쇼카 왕이 지옥(감옥)을 만들었던 곳이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1천여 리 가면 척지타국에 이른다.

## 13. 척지타국

척지타국〔擲枳陀國 : 원음은 미상. 지금의 Budelkhand 쪽에 해당한다는 설과 Ujjain보다 북쪽인 Chitorgarh쪽에 해당한다는 양설이 있음〕은 주위가 4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5~6리 된다.

토지는 비옥하다고 하며 농업이 성대하다. 콩 · 보리가 좋고 꽃이나 과일이 많다. 기후는 고르고 따뜻하며 사람들의 성질 또한 선량하고 온순하다. 외도를 믿는 사람이 많으며 불도를 믿는 사람은 적다. 가람은 수십 군데이며 승도도 조금은 있다. 천사가 10여 군데로 외도인이 1천여 명이나 된다. 왕은 바라문 종이다. 불도의 삼보(三寶)를 착실히 믿는 가운데 덕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므로 여러 곳의 학예에 깊은 인사들이 이 나라로 많이 모여든다.

여기서 북쪽으로 9백여 리 가면 마헤시바라푸라국에 이른다.

## 14. 마헤시바라푸라국

마헤시바라푸라국〔摩醯濕伐羅補羅國 : 이곳에 대해서 양설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 Mahesmatipura라고도 했던 Mandala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Gwalior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는 설이다〕은 주위가 3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며 농산물과 풍속은 웃자야니국과 같다. 외도를 숭상하며 불도는 믿지 않는다.

천사는 수십 군데, 대부분이 도회외도(塗灰外道)들이다. 왕은 바라문 종인데 불도는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굿자라국으로 되돌아와 다시 북쪽으로 거친 들판과 위험한 사막을 1천 9백여 리 가서 인더스 강〔印度大河〕을 건너면 신두국에 이른다.

## 15. 신두국

### 1) 국세의 개관

신두국(信度國 :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 Sind의 Sukkur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 생각되고 있다)은 주위가 7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비샴바푸라(毗苫婆補羅)라고 하며 주위가 30여 리이다. 농업에 알맞고 보리가 풍부하다. 금 · 은 · 유석(鍮石)이 산출되며 소 · 양 · 낙타 · 나귀 등의 동물이 있다. 낙타는 작고 혹이 하나 있는 것이다. 적염(赤鹽) · 백염(白鹽) · 흑염(黑鹽) · 백석염(白石鹽) 등이 산출되는데 외국에서는 이를 약으로 치고 있다.

사람들의 성질은 거세고도 곧아서 곧잘 다투고 비방하곤 한다. 학예를 깊이 닦기를 바라지는 않으나 불도를 깊이 믿고 있다. 가람은 1백 군데, 승도는 1만여 명인데 모두 소승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대체로 게으른 편이며 행실이 나쁜 편이다. 부지런하고 선량한 사람은 홀로 고요한 숲 속에 살면서 아침저녁 게으름이 없어 성과(聖果)를 증(證)한 자가 많다. 천사가 30여 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왕은 슈드라 종인데 성질이 순박하여 불도를 존경하고 있다. 여래는 그 옛날 가끔씩 이 나라에 왔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그 성적(聖跡)에 수십 군데 수토파를 세웠다. 우바구푸타 대아라한(烏波毱多大阿羅漢)도 이곳에 가끔씩 왔었다. 그래서 그가 설법하고 머물렀던 곳에는 모두 표적을 해 두거나 가람을 세우거나 수토파를 세우거나 해 두었다. 이런 것들이 엇섞여 잇는데 그 개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 2) 외승내속(外僧內俗)

인더스 강 1천여 리에 걸친 늪 사이에는 수백 수천의 집이 있다. 그 사람들은 성질이 드세어 생물 죽이는 일만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바, 소를 키워 자활하면서 소속된 곳이 없다. 남자건 여자건 귀천이 없으며 모두 머리며 수염을 깎고서 가사를 걸치고 있다. 모습은 비크슈와 비슷하지만 속인의 일을 하고 있다. 협소한 견해인 소승(小乘)을 취하면서 대승을 배척하고 있다. 고로(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옛날 이곳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잔인한 짓만을 하고 있었다. 마침 어떤 나한이 그 타락을 가엾이 여겨 그들을 교화시키고자 허공을 날아 왔다. 그리하여 대신통력으로써 세상에 볼 수 없는 일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신복시키는 가운데 말로써 지도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뻐하여 지도를 받고자 했다. 나한은 사람들의 마음이 솔직하게 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삼귀계(三歸戒 : 佛法會에 歸依하는 戒)를 준 다음, 흉폭한 짓을 그만두고 살생을 못하게 하면서 삭발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게 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선업(善業)을 행함이 없이 그 여풍(餘風)은 남아서, 비록 법복은 입고 있되 계율은 전혀 지키지 않은 가운데 자자손손 습관이 풍속으로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쪽으로 9백여 리 가서 인더스 강을 건너 동쪽 기슭을 따라가면 무라삼부로국에 이른다.

## 16. 무라삼부로국

무라삼부로국(茂羅三部盧國 : 이 원음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다. 인더스 강 상류 Chenab 강과 Sutlej 강이 합류하는 삼각주 일대, 지금의 Multan 지역이라 생각됨)은 주위 4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4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30여 리이다. 주민이 많고 집들은 부유하다. 탁카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땅은 비옥하고 기후도 좋다. 풍속은 질박하고 학예를 좋아하며 덕행을 존중한다. 천신을 받드는 사람이 많고 불도를 믿는 사람은 적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대부분이 파괴되어 있으며 승도는 조금 있으나 그 배우는 바에 전공이 없다. 천사는 8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일천(日天)의 사당이 있는데 장엄하다. 일천의 상은 황금으로 주조되어 있고 진보로 장식했다. 그 신의 돌봄은 넓고 그 영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결에 미친다. 부인들에 의한 음악이 차례로 연주되고 신 앞의 등촉은 끊이지 않고 켜진다. 향화(香花)의 공양은 처음부터 폐지된 적이 없다. 오인도 중의 모든

나라 왕족이나 호족은 모두 여기에 진보를 보시하고 복사(福舍)를 세우며 음식 · 의약품을 빈민 · 병자에게 공급, 구제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서 소망을 비는 자는 항시 1천 명을 헤아릴 정도이다. 천사의 주변에는 연못과 꽃밭이 있어 유람하기에도 알맞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7백여 리 가면 파르바타국에 이른다.

### 17. 파르바타국

파르바타국〔鉢伐多國 : 山이라는 뜻. 지금의 Montgomery 지구 Harappa 일대 지역으로 추정됨〕은 주위 5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인데 주민이 많으며 탁카국에 예속되어 있다. 올벼가 잘되고 보리도 잘된다. 기후는 쾌적하며 풍속은 질박하다. 사람들은 침착성이 없고 말에는 사투리가 많다. 학예는 깊고 넓으며 사교와 정법을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10여 군데, 승도는 1천여 명인데 대소승(大小乘)을 함께 학습하고 있다. 4개의 수토파는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천사는 20군데, 이도인들이 잡거하고 있다.
성(城) 쪽에 대가람이 있다. 승도는 1백여 명, 모두 대승교를 학습하고 있다. 이곳은 그 옛날 지나푸트라 논사가 이곳에서 《유가사지석론(瑜伽師地釋論)》을 저술한 곳이며, 현애논사 · 덕광논사가 출가했던 곳이다. 이 대가람은 천화(天火)에 불타 황폐해 있다.
신도국(信度國)에서 서남쪽으로 1천 5~6백 리 가면 아점바시라국에 이른다.

### 18. 아점바시라국

아점바시라국〔阿點婆翅羅國 : 이 국명의 원음 추정에도 異說이 있음〕은 주위가 5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카제시바라〔지금의 Karachi라 생각됨〕라고 하며 주위가 30여 리이다. 서경(西境)에 편재(偏在)하며 인더스 강을 바라보면서 대해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보물로 집안을 장식했으며 진귀한 보물이 많다.

최근에는 자신의 군주를 세우지 않고 신도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토지는 비습(卑濕)하고 토질은 염분을 머금고 있다. 잡초가 무성하며 전답은 조금만 경작되고 있을 뿐이다. 곡물은 충분하며 보리가 특히 많다. 기후는 조금 찬 편이며 선풍이 강하게 인다. 소 · 양 · 낙타 · 나귀 등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난폭하며 학예를 즐기지 않는다. 언어는 중인도와는 다소 다르다. 풍속은 순박하며 삼보를 두터이 공경한다. 가람은 80여 군데, 승도는 5천여 명, 대부분이 소승의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10여 군데, 도회외도의 주거로 되어 있다. 성안에는 대자재천의 사당이 있다. 조각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험이 대단하다. 그 옛날 여래는 가끔씩 이 나라에 와서 설법하고 제도하는 가운데 범속들을 화도(化導)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쇼카 왕은 그 성적에 수토파를 세웠다.

여기서 북쪽으로 2천 리를 못 가면 랑갈라국에 이른다.

## 19. 랑갈라국

랑갈라국(狼揭羅國 : 국명의 원음 추정에 諸說이 있다. 위치는 지금의 Mekaran 동부 Baluchista 동남부로 比定된다)은 동서남북이 각기 수천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30여 리 스투레시바라(窣菟黎濕伐羅 : 이 지명의 추정에는 諸說이 있으나 위치는 Khozdar와 Kilat 사이 Lakorian의 큰 廢都로 추정)라고 한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업이 성대하며 기후와 풍속은 아점바시라국과 같다. 주민이 많고 진귀한 보물이 많다. 대해의 해안을 바라보고 있으며 서녀국(西女國)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대군주는 없고 강을 거점으로 자립하고 있으며 그 명령은 받지 않으나 페르시아국(波剌斯國)에 예속되어 있다. 문자는 대체로 인도와 같으나 언어는 조금 다르다. 정법과 사교를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6천여 명, 대소승(大小乘)을 함께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수백 군데로 도회외도의 무리가 아주 많다. 성안에 대자재천의 사당이 있다. 아주 장엄하며 도회외도들이 신봉하고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국에 이른다.

## 20. 페르시아국

### 1) 국세의 개관

페르시아국〔波剌斯國 : 곧 지금의 이란〕은 주위 수만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수라스타나〔蘇剌薩儻那 : '神의 居所'라는 뜻. 페르시아의 Sasan 왕조의 국도는 Persepolis였음〕라고 하여 주위가 40여 리이다. 강도 많고 기후도 다르지만 대체로 따뜻하며 물을 끌어 밭을 만들고 인가는 부유하다. 금과 유석(鍮石) · 파디〔頗胝 : 玉 · 水晶〕 · 수정(水精) 등 세상에 진귀한 것들이 나며 대금(大錦) · 세갈(細褐) · 구유(氍毹) 따위를 훌륭히 짜낸다. 좋은 말과 낙타가 많으며 화폐로는 큰 은화를 사용한다. 사람들의 성질은 난폭하며 습속은 예절이 없다. 문자와 언어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학예는 없으나 공예에 뛰어나서 그들이 만드는 물건은 이웃 나라에서 귀중히 여기고 있다. 혼인이 난잡하여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체구는 크고 두 발을 갖춰 노두(露頭 : 冠을 쓰지 않음)로 하며 신분이 낮은 자는 가죽옷을 입고 높은 자는 비단과 면을 입는다.

집집마다 세금을 매기는데 한 사람 앞에 4은전(銀錢)을 거둔다. 천사는 아주 많은데 디나바디〔提那跋 : 산스크리트어로 dinapati는 '태양'의 뜻. 조로아스터교에서 태양은 神의 눈이라 하여 불〔火〕과 함께 숭배의 대상이었다. 디나바디 外道는 그를 가리키는 듯〕 외도의 무리가 받들고 있다. 가람은 2~3군데, 승도는 수백 명인데 모두 소승교의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석가불의 불발(佛鉢)은 지금 이 왕궁에 있다. 나라 동쪽 경계에 호르무즈성〔鶴秣城 : 페르시아灣口 Minad 부근에 옛날에 있었던 Hormuz인 듯〕이 있다. 내성(內城)은 넓지 않으나 외곽은 주위 60여 리이다. 주민이 많고 가산이 풍요하다.

### 2) 서방의 여러 나라

페르시아국은 서북쪽으로 프룸국〔拂懍國 : 이란語族이 시리아, 팔레스티나 등의 東로마를 가리키는 말〕과 접해 있다. 토지와 풍속은 페르시아국과 비슷하지만 용모나 언어는 조금 다르다. 진귀한 보물이 많고 이 나라 역시 부유하다. 프룸국 서

남쪽 섬에 서녀국이 있다. 모두 여자뿐으로 남자는 거의 없다. 갖가지 진귀한 물건이 많다. 프롬국에 신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롬왕은 해마다 남자를 보내 짝지어 준다. 그 습속은 남자를 낳으면 키우지 않는다. 아점바시라국에서 북으로 7백여 리 가면 피타샤일라국에 이른다.

## 21. 피타샤일라국

피타샤일라국〔臂多勢羅國 : 지금의 Hyderabad 부근인 듯〕은 주위 3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주민은 성대하다. 대군주는 없고 신도국(信度國)에 예속되어 있다. 땅은 소금기 있는 모래밭으로 찬바람이 거세다. 보리가 많고 꽃과 과일은 적다. 풍속은 난폭하며 언어는 중인도와 다르다. 학예를 즐기지는 않으나 신앙심은 있다. 가람은 50여 군데, 승도는 3천여 명인데 모두 소승의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20여 군데로 모두 도회외도들이다.
성의 북쪽 15~6리쯤 되는 큰 숲 속에 수토파가 있다. 높이 수백 척으로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 안에 사리가 들었는데 때때로 빛을 발한다. 여래가 옛날 선인(仙人)이 되어 국왕에게 살해당했던 곳이다. 그 동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옛날 대카티야야나〔大迦多延那〕 대아라한이 건립한 것이다. 그 옆에는 과거 사불의 좌소와 산책했던 유적이 있는데 수토파를 세워 표시해 놓았다.
여기서 동쪽으로 3백여 리 가면 아반다국에 이른다.

## 22. 아반다국

### 1) 국세의 개관

아반다국〔阿奮荼國 : 지금의 Brahmanabad 혹은 Khairpur 부근으로 比定됨〕은 주위가 2천 4~5백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대군주는 없고 신도국에 예속되어 잇다. 땅은 농업에 알맞고 특히 보리가 풍부하다. 꽃 · 과일이 적고 초목도 드문드문하다. 기후는 바람이 차고 사람의 성질은 거세다. 언어는 질박

하며 학업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도승은 삼보를 두터이 믿는다. 가람은 20여 군데, 승도는 2천여 명인데 대부분이 소승의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 천사는 5군데이며 모두가 도회외도들이다.

2) 계율의 특례

성의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 큰 숲 속에 가람의 폐허는 옛날 여래가 비크슈들에게 극박시(亟縛屣 : 당에서의 신〔靴〕, 屣는 짚신, 亟縛은 急縛, 즉 급하게 묶는다, 신는다는 뜻으로 해석됨)를 신게 했던 곳이다. 옆에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가 있다. 기단은 허물어졌으나 아직도 높이 1백여 척이 된다. 옆의 정사에 청석(靑石)으로 된 부처님의 입상이 있다. 재일이 되면 빛을 뿜는 수가 있다. 그 남쪽으로 8백여 보 되는 곳의 숲 속에 수토파가 있는데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가 옛날 이곳에 머물렀을 때 밤에는 추우므로 삼의(三衣)를 거푸 위에 덮고 이튿날 아침 비크슈들에게 납의(納衣)를 허용했다. 이 숲 속에 부처님이 산책했던 곳이 있다. 또 수토파가 줄줄이 많이 늘어서 있다. 모두 과거사불의 좌소이다. 그 수토파 안에는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 있다. 재일이면 빛을 뿜는 일이 많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9백여 리 가면 바르나국에 이른다.

## 23. 바르나국

1) 국세의 개관

바르나국〔伐剌拏國 : 지금의 Ghazni 동남에 있는 Bannu 지방인 듯〕은 주위가 4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 리이다. 주민은 성대하고 카피시국〔迦畢試國〕에 예속되어 있다. 산림이 많으며 농업을 적시에 하고 있다. 기후는 다소 추운 편이며 풍속은 거칠다. 성격은 단기이며 심성이 비열하고 언어는 중인도와 비슷하다. 사교와 정법을 함께 믿으나 학예는 좋아하지 않는다. 가람은 수십 군데이나 황폐해진 곳이 많다. 승도는 3백여 명으로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

다. 천사(天祠)는 5군데로 대부분이 도회외도들이다. 성 남쪽 멀지 않은 곳에 낡은 가람이 있다. 여래가 옛날 이곳에서 설법하는 가운데 선악을 가르치고 법리(法利)로써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중생의 눈을 띄웠다. 그 옆에는 과거사불의 좌소 및 산책했던 유적이 있다.

2) 코칸카나국

세상에서 하는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 나라의 서쪽은 코칸카나국(稽量那國 : Bannu의 서쪽 Waziristan인 듯)과 접경하고 있다. 큰 산 사이에 있는데 냇줄기마다 다른 군주를 세우고 있으나 대군주는 없다. 양과 말이 많다. 좋은 말은 그 체구가 크고 아름다우며 다른 나라에서 드물게 보는 품종이어서 이웃 나라들이 보배로 치고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큰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 작은 성과 마을을 지나가기를 2천여 리 해서 인도의 경계를 나서면 자구다국에 이른다.

# 제 12 권

## 1. 자구다국

### 1) 국세의 개관

자구다국(漕矩陀國 : 산스크리트어로 鬱金香. 지금의 Zaburistan인 듯)은 주위가 7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가즈나(鶴悉那 : 지금의 Ghazni)라고 하며 주위가 30여 리이다. 더러 가살라 성(鶴薩羅城 : 지금의 Helmund 강 유역 Guzar(Ghazoor, Guzuristan)에 比定됨)에 도읍하기도 한다. 그 모두가 험준한 곳에 있어 견고하다. 산도 강도 다 높고 전답 역시 높고 건조한 곳에 있다. 농사를 적시에 행하며 콩과 보리가 풍부하다. 초목은 가지를 뻗고 꽃과 과일도 번성하다. 울금향이 나고 힝구초(興瞿草 : 比丘가 먹지 말아야 하는 5종의 辛菜, 즉 五辛의 하나로 五葷이라고도 함)도 산출된다. 이 풀은 라마인두 강(羅摩印度川 : Helmund 강인 듯)에서 자란다. 가살라 성중에서는 용솟음치는 물이 갈라져 흐름으로써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하여 밭을 관개한다. 기후는 차고 눈과 서리가 많다. 사람들의 성격은 경솔하며 거짓이 많다. 학예를 즐기며 기술에 있어 다재하다. 곧잘 귀는 기울이나 도리에는 어두우며 날마다 수만 마디의 문구를 왼다. 문자나 언어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말을 수식하는 법이 많지만 알맹이 있는 것이 못 된다. 여러 가지 신을 받들지만 불도의 삼보도 믿는다. 가람은 수백 군데로, 승도는 1만여 명인데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현재의 왕은 대대로 이어온 신심 두터운 사람으로서 자선을 행하는 가운데 명민하고 학예를 좋아한다. 아쇼카왕이 세운 수토파가 10여 군데 있다. 천사는 수십 군데로 이도인(異道人)들이 잡거한다.

### 2) 슈나천의 숭배

이도인 중에서도 외도인(外道人 : Tirthaka)이 많고 그 무리의 세력은 융성하다. 그들은 슈나천(搊那天)을 받들고 있다. 그 천신은 옛날 카피시국의 아루노 산(阿路猱山 : 산스크리트어로 '黎明'의 뜻)에서 이 나라의 남쪽 경계 수나시라 산(搊那呬羅山)에 옮겨 살면서 위엄을 나타내어 복덕을 내리기도 하고 난폭한 악행을 저지

르기도 했다. 믿는 사람에게는 소원 성취하게 하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주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신앙하며 외경했다. 풍속을 달리한 이웃 나라의 군신 백관도 해마다 좋은 날이면 기약하지 않고 모여들어 금은 보화, 혹은 소나 말 등의 가축을 헌납함으로써 진심을 표시했다. 그리하여 금은은 땅에 가득히 쌓이고 가축이 골짜기에 가득 찼지만, 그것을 훔치려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오직 봉납(奉納)에만 힘썼다. 천신을 받드는 외도들은 한마음으로 고행을 했다. 그래서 천신은 그들에게 주술(呪術)을 전수했고 그 술수를 베풀어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서 북쪽으로 5백여 리 가면 브리지스타나국에 이른다.

## 2. 브리지스타나국

브리지스타나국〔弗栗恃薩儻那國 : 이곳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있으나 Kabul 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인 듯〕은 동서 2천여 리, 남북이 1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후비나〔護苾那〕라 하며 주위가 20여 리이다. 산물이나 풍속은 자구다국과 같으나 언어에는 차이가 있다. 기후는 혹독하게 차고 사람들의 성격은 거세다. 왕은 돌궐족(突厥族)이다. 깊이 삼보를 믿으며 학예를 존중하고 덕자(德者)의 말을 잘 들었다.

이 나라에서 동북쪽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카피시국 변경의 작은 마을을 수십 개 거치면 대설산의 바라세나 대령〔婆羅犀那大嶺 : 지금의 Khawak 峰인 듯〕에 이른다. 산마루는 대단히 높고 위험한 오르막길은 경사가 가파르다. 골짜기 길은 구불거리고 바위 고개는 돌고 도는데, 혹은 깊은 골로 들고 혹은 높은 벼랑으로 오르기도 해야 한다. 한여름에도 얼어붙어 얼음을 깨며 걸어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흘을 걸어 비로소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찬바람 거세고 눈은 골짜기를 덮어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는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새매〔隼〕는 높이 날아도 날아 넘을 수가 없어 발로 걸은 다음 날아 내려간다. 아래

쪽 산들을 내려다보면 자그만 묘를 보는 것 같다. 잠부주에서 이 봉우리는 특히 높은데 그 산마루에는 나무는 없고 오직 돌로 된 봉우리가 촘촘한 것이 마치 숲 속과도 같다. 다시 사흘을 가 비로소 봉우리를 내려가면 안다라바국에 이른다.

### 3. 안다라바국

안다라바국(安呾羅縛國 : Khawak 봉에서 서쪽으로 Doshi 강에 따르는 지역으로 지금의 Andarab라고 부른다)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 주위는 3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 되는데 대군주는 없고 돌궐에 예속되어 있다. 산과 언덕이 잇대어져 있으며 강이나 밭은 좁다. 기후는 춥고 풍설이 심하다. 농업에 좋고 꽃과 과일이 잘된다. 사람들의 성격은 난폭하며 풍속에 규율이 없다. 죄에 벌이 있고 복덕에 행복이 있음을 모르며 학업을 존중하지 않는다. 다만 신사(神祠)를 받들 뿐 불도를 적게 믿는다. 가람은 3군데, 승도는 수십 명 뿐. 모두 대중부(大衆部)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고 아쇼카 왕이 세운 수토파 하나가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골짜기를 지나고 고개를 넘어 여러 성을 지나기를 4백 4리 가서 카스타국에 이른다.

### 4. 카스타국

카스타국(闊悉多國 : 지금의 Khost로서 강으로 드는 Khost 강 유역의 한 상류였던 듯)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이다. 주위는 1천 리가 못 된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0여 리 이다. 대군주는 없고 돌궐에 예속되어 있다. 산은 많고 강은 좁으며 바람이 세차고 춥기도 하다. 농작물은 풍요하고 꽃과 과일도 잘 된다. 사람들의 성격은 난폭하며 그들 사이에는 법률이 없다. 가람은 3군데, 승도는 적다. 여기서 서북쪽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많은 성과 고을을 지나가기 3백여 리 해서 와르국에 이른다.

## 5. 와르국

와르국(活國 : 종래는 Ghur, Ghor로 音譯했으나 地名으로는 맞지 않는 듯. 지금의 Oxus 강에 가까운 Khunduz(Khuhandiz)인 듯)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서 주위는 2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며 자기들의 군주는 없고 돌궐에 예속되어 있다. 토지는 평탄하고 농사는 적시에 하고 있다. 초목이 번성하며 꽃과 과일이 잘된다. 기후는 순조로우며 풍속 또한 순박하다. 사람들의 성격은 거칠며 의복은 무명과 털옷이다. 삼보(三寶)를 믿는 자가 많으며 잡다한 신을 믿는 자는 적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수백 명이며 대소승(大小乘)을 함께 학습한다. 그 왕은 돌궐족이며 철문(鐵門) 남쪽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관할하고 있다. 새와 같이 여기저기 옮겨 살며 주거를 일정하게 갖지 않는다. 여기서 동으로 가면 파미르에 이른다.

파미르는 잠부주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대설산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열해(熱海) · 천천(千泉)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와르국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우사국에 이른다. 동서와 남북은 각각 수천 리가 된다. 벼랑을 이루는 봉우리는 수백 겹이 되며 깊은 골짜기는 아슬아슬하다. 1년 내내 눈과 얼음을 이고 있고 찬바람이 거세다. 파를 많이 산출하기 때문에 총령(葱嶺)이라 하며, 한편 산의 벼랑이 파랗다고 해서 그 이름이 된 것이다. 여기서 동쪽으로 1백여 리 가면 뭉간국에 이른다.

## 6. 뭉간국

뭉간국(瞢健國 : 지금의 Khanabad 근방인지 아닌지 불분명)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서 주위는 4백여 리이며, 대도성은 주위 15~6리이다. 산물이나 풍속은 대체로 와르국과 같다. 대군주는 없고 돌궐에 예속되어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아리니국에 이른다.

### 7. 아리니국

아리니국(阿利尼國 : 지금의 Hazrad Imam 근처인 듯)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이다. 옥수스강(縛芻河 : Oxus)의 양 기슭에 걸쳐 있으며 주위는 3백여 리인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5~6리이다. 산물이나 풍속은 대체로 와르국과 같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라그국에 이른다.

### 8. 라그국

라그국(曷邏胡國 : 지금의 Badakhshan의 수도 Faizabad 북쪽에 Ragh라는 臺地가 있는데 그곳인 듯)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이다. 북쪽으로 옥수스 강을 바라보며 주위는 2백여 리인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4~5리이다. 산물이나 풍속은 대체로 와르국과 같다. 뭉간국에서 동쪽으로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 강에 잇닿은 여러 성을 지나기를 3백여 리 해서 크리시마국에 이른다.

### 9. 크리시마국

크리시마국(訖栗瑟摩國 : 지금의 Kishm, 즉 Taliqan과 Faizabad 사이에 있으며 Kockcha 강가에 펼쳐져 있었음)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이다. 동서는 1천여 리, 남북이 3백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5~6리이다. 산물이나 풍속은 대체로 뭉간국과 같으나 다만 사람들의 성질이 비도(非道)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파리가르국에 이른다.

### 10. 파리가르국

파리가르국(鉢利曷國 : 여러 설이 있으나 불분명)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이다. 동서 1백여 리, 남북 3백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20여 리이다. 산물이나 풍속

은 대체도 크리시마국과 같다.
크리시마국에서 동쪽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3백여 리 가면 히마탈라국에 이른다.

## 11. 히마탈라국

히마탈라국(呬摩呾羅國 : 산스크리트어로 '雪山下'의 뜻. 지금의 Kwaja Muham-mad 산 북쪽 근방인 듯)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 주위는 3천여 리이다. 산천이 잇닿아 있고 토지는 비옥하다. 농작에 알맞으며 콩과 보리가 많은데 백화가 다투어 피고 과일도 많다. 기후는 대단히 차며 사람들의 성질은 거칠고 죄보복과(罪報福果)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모습은 비천하나 동작에 예절은 있다. 옷은 무명과 털옷을 걸치는데 돌궐과 아주 같다. 부인들은 머리에 모난 나무로 된 3척 남짓한 것을 쓰고 다닌다. 그 앞쪽에는 2개의 가지가 있는데 남편의 부모를 나타낸다. 위의 가지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래의 가지는 어머니를 나타내는데 먼저 돌아감에 따라 어느 쪽이건 하나씩 꺾어 없앤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돌아가시면 그 관을 그만 쓴다. 이 나라의 조상은 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왕은 석종(釋種)이었다. 파미르 서쪽 나라로서 신복하는 곳이 많았는데 돌궐과 접경해 있었기 때문에 그 풍속에 젖어들었다. 더구나 남의 나라에 침입 공략해서 스스로 그곳을 지켰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경(異境)에 떨어져 살았고 수십 개의 성에 각기 다른 군주를 세워 두고 있다. 천막을 치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다. 서쪽으로는 크리시마국과 접해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2백여 리 가면 바다크샤나국에 이른다.

## 12. 바다크샤나국

바다크샤나국(鉢鐸創那國 : 현재의 Badakshan에 해당함)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서 주위는 2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산벼랑 위에 위치해 있는데 주위가

6~7리이다. 산천이 잇대어져 있으며 모래와 돌이 많다. 토지는 콩과 보리에 알맞으며 포도 · 호도 · 배 · 능금 등 과일이 많다. 기후는 차고 사람들의 성질은 용맹스럽다. 예의범절도 없고 학예에 마음을 쓰지도 않는다. 그 모습은 비천한데 무명 · 털옷을 입고 있다. 가람은 3~4군데로 승도는 적다. 왕은 성질이 순박하며 삼보를 깊이 신앙한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산골짜기를 넘어가기 2백여 리 해서 얌바간국에 이른다.

## 13. 얌바간국

얌바간국(淫薄健國 : 지금의 Kokcha 강 유역의 옛 이름으로 Yamgan, Hamakan이라 부르는 지방이 이곳인 듯)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서 주위가 1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0여 리이다. 산과 언덕이 잇대어져 있으며 강이나 밭은 좁다. 토지의 산물이나 기후 조건, 주민의 성격 등은 바다크샤나국과 같으나 언어는 약간 다르다. 왕의 성질은 가혹하며 사물의 선악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가기 3백여 리 하면 쿠라나국에 이른다.

## 14. 쿠라나국

쿠라나국(屈浪拏國 : 지금의 Kokcha강 상류 Kuran(Koran) 강 유역)은 토카라국의 옛 영토로서 주위가 2천여 리이다. 토지 · 산천 · 기후는 얌바간국과 같다. 사람들 사이에 법률은 없으며 사람들의 성질은 난폭하다. 복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많으며 불도를 믿는 자는 적다. 사람들의 용모는 추악하며 무명이나 털옷들을 입고 있다. 산의 굴에서 많은 금정(金精 : 純金이란 뜻인 듯)이 난다. 그곳 돌을 깨서 입수한다. 사람이 적으니 신도 또한 적다. 이곳의 왕은 순박하여 삼보를 믿고 있다.

여기서 동북쪽으로 산을 오르고 골짜기에 들면서 길이 험한 곳을 5백여 리 가면 다르마스티티국에 이른다.

## 15. 다르마스티티국

### 1) 국세의 개관

다르마스티티국(達摩悉鐵帝國 : 산스크리트어로 dharma는 法, sthiti는 위치라는 뜻. wakhan의 남쪽 계곡 중 Chitral의 동북 약 90km 지점에 있는 이 지방의 요충 Mastuj로 들어가는 어귀에 Darah-i-Mastuj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라는 설이 있으나 불분명한 점도 있음)은 2개의 산 사이에 있는데 토카라국의 옛 영토이다. 동서가 1천 5~6백여 리, 남북의 넓이는 4~5리인데 좁은 곳은 1리가 못 되기도 한다. 옥수스 강을 바라보면서 구불거리는데 낮고 작은 언덕에는 모래와 돌이 많다. 찬바람이 거센데 다만 보리와 콩만을 심고 있으며 나무가 적고 꽃과 과일도 적다. 좋은 말(馬)이 많이 나는데 말은 몸체는 작지만 산과 들판을 곧잘 달린다. 사람들 사이에 예의가 없고 성질들은 난폭하다. 모습은 비천하며 무명과 털옷을 입는다. 눈은 푸른 점이 다른 나라와는 유별나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적다.

### 2) 칸다타 성의 옛터

칸다타 성(昏馱多城 : 계곡 중의 Ab-i-Panja 강 남쪽 기슭, 즉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부락으로 지금도 Khandud라 불린다)은 나라의 도성이다. 거기 가람이 있다. 이 나라의 선왕이 세운 것으로 벼랑을 파고 골짜기를 메워 당우(堂宇)를 지었다.

이 나라는 옛날에 아직 불교가 유포되지 않았을 적에는 다만 사신(邪神)을 받들고 있었는데, 수백 년 전 비로소 불교가 번져났다. 그 당시 이 나라 왕의 아들이 병에 걸려 오직 의술을 다해 치료했으나 낫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몸소 천사로 나가 도움을 빌었다. 그때 듣고 사주(祠主)가 신이 들린 모습을 하면서 신지(神旨)를 내려 "반드시 나으리니 구태여 걱정을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수레를 되돌렸다. 도중에 한 사문을 만났는데 그 행동거지가 참으로 훌륭했다. 그 차림새에 놀라면서 왕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이 사문은 이미 증과를 얻고 불도를 넓히려 했기 때문에 이같이 태도가 의젓

했던 것이다.

그는 왕에게 "저는 여래의 제자로 세상에서 말하는 비크슈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으므로 먼저 "내 자식이 병에 걸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나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사문은 "왕의 조상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재생시킬 수는 있어도 왕의 아들은 살려내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천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했더니, 사문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궁중에 도착하자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죽음을 감춘 채 출상도 하지 않고 다시 사주에게 가 물었더니 역시 죽지 않고 병은 반드시 나으리라고 말했다. 이에 왕은 크게 노하여 사주를 묶어 닦달하면서 "너희는 무리를 지어 악행을 함부로 하는 가운데 위력으로 겁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입히기도 하고 있다. 내 자식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낫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어찌 참아낼 수 있겠는가. 사주는 처형하고 사당은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사주를 죽이고 신상을 떼어 옥수스 강에 내던진 다음 수레에 타고 되돌아오던 중 그 사문을 또 만났다. 그를 보고 반가이 인사를 하면서 "이때까지 훌륭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그릇된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쁜 풍속에 젖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이제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나와 함께 가십시다"라고 말했다. 사문은 청을 받아들여 왕을 따라 궁궐로 갔다. 아들의 장례를 마치자 왕은 사문에게 "인간 세상은 헝클어진 실과 같고 생사는 윤회하여 그침이 없습니다. 나의 자식이 병에 걸려 그 생사를 물었을 때 신이라고 하면서 망령되이 반드시 낫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신봉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어여삐 여겨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런 다음 사문에게 의뢰하여 가람을 설계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곧장 건립했다. 이로부터 불교는 번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람 안의 정사는 이 나한을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가람의 대정사 안에 석불상이 있다. 상 위에는 금동의 원개(圓蓋)를 매달고 많은

보석으로 장엄하게 꾸며 놓았다. 사람들이 그 불상의 주위를 돌면 이 원개 역시 그에 따라 돌고 사람이 멎으면 원개 또한 멎는다. 영험도 헤아릴 길이 없어 옛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성인의 원력(願力)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하고 조작된 비술(秘術)이 그렇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당우를 잘 살펴보건대 석벽은 단단하여 조작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으며, 이런저런 말을 생각해 보았건만 그 실제는 알 길이 없었다. 이 나라의 큰 산을 넘어 북으로 가면 시키니국에 이른다.

### 16. 시키니국

시키니국(尸棄尼國 : 지금의 Wakhan 계곡 이북 파미르 高原 서남쪽 斜面 일대로 지금도 Shighan, Shughnan이라고 함)은 주위 2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5~6리이다. 산천이 잇대어 있으며 모래와 돌이 들을 덮고 있다. 콩과 보리가 많고 답작은 없다. 나무는 드문드문 서 있고 꽃과 과일도 적다. 기후는 차고 풍속은 용맹스럽다. 태연하게 살육을 하고 절도를 업으로 삼는다. 예의를 모르고 사물의 선악을 모른다. 미래의 화복에 마음을 괴롭히고 현세의 재액을 두려워하고 있다. 모습은 비천하고 가죽과 털옷을 입고 있다. 글자는 토카라국과 같으나 언어에는 차이가 난다. 다르마스티티국 대산의 남쪽으로 가면 상미국에 이른다.

### 17. 상미국

#### 1) 국세의 개관

상미국(商彌國 : 지금의 Chitral 및 Mastuj 지역)은 주위 2천 5~6백리 산과 강이 엇섞여 있고 언덕이 높게 또는 낮게 잇대어져 있다. 곡작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콩과 보리가 풍부하다. 포도가 많으며 자황(雌黃 : 流黃과 砒素의 화합물인데 천연의 것은 황색 결정체)이 산출된다. 자황은 벼랑을 파서 꺼낸 돌을 쪼개어 얻는다. 산신이 포악하여 때때로 재해를 일으키는데 산신을 제사 지낸 뒤 산으로 가면 평안하게 왕래할 수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은 때는 바람과 우박을 날린다. 기후는 차

고 풍속은 성급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순박하나 예의는 없고 지혜도 적으며 견식이 좁고 기능도 천박하다. 문자는 토카라국과 같으나 언어는 다르다. 무명이나 털옷을 입고 있다. 그 나라 왕은 석종이므로 불교를 존중한다. 국민들도 신앙하지 않는 자가 없다. 가람은 2군데이고 승도는 적다.

2) 파미르 강

상미국의 국경에서 동북쪽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위험한 길을 7백여 리 가면 파미르 강 유역에 이른다. 동서가 1천여 리에 남북이 1백여 리인데 좁은 곳은 10리도 못 된다. 2개의 설산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모질어 봄·여름에도 눈발이 날리며 낮과 밤이 없이 바람이 불어댄다. 토지는 염분과 돌멩이가 많으며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초목 또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량하기까지 하여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파미르 강 유역 안에 큰 용지(龍池 : 지금의 빅토리아 湖)가 있다. 동서 3백여 리에 남북 50여 리로 대총령(大葱嶺 : 파미르 고원) 안에 위치하는데 잠부주에서 그곳이 가장 높다. 물이 맑기가 거울과 같고 그 깊이는 헤아릴 길이 없는데 색깔은 검푸르며 맛은 달다. 물속에 사는 것은 교리(鮫螭 : 龍 비슷한데 뿔이 없음)·어룡(魚龍)·원타(黿鼉 : 靑海龜와 鰐魚)·거북·자라·원앙(鴛鴦)·홍안(鴻雁)·가아(駕鵝 : 기러기의 일종)·숙보(鸕鴇 : 기러기의 일종) 등이다. 큰 새의 알은 그 껍질이 들판·초원·물가에 버려져 있다. 연못 서쪽에서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서쪽으로 흘러 다르마스티티국 동쪽 경계에 이르러 옥수스 강〔지금의 얌타리아 강〕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이보다 오른쪽〔서쪽〕은 모두 물이 서쪽으로 흐르게 된다. 연못의 동쪽에서도 하나의 물줄기가 나와 동북으로 흘러 카샤국 서쪽 경계에 이르러 야르칸드 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보다 왼쪽〔동쪽〕은 물이 모두 동쪽으로 흐르게 된다.

파미르 강〔유역〕에서 남쪽으로 산을 넘으면 발티스탄이 있는데 금은이 많고 그 금 색깔은 불과 같다. 이 파미르 강에서 동남쪽으로 산을 올라 험한 길을 가면 도중에는 마을이 없고 오직 얼음과 눈뿐이다. 5백여 리 가면 카르반다국에 이른다.

## 18. 카르반다국

### 1) 국세의 개관

카르반다국(朅盤陀國 : 지금의 Tashkurghan)은 주위 2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큰 바위산을 기초로 했고 뒤에는 야르칸드 강이 있으며 주위가 20여 리이다. 산들은 잇대어져 있고 강은 좁으며 곡작은 적고, 콩과 보리가 많다. 수목 역시 적고 꽃과 과일도 적다. 언덕과 들도 황폐하여 주민이 적다. 예의도 없고 학예도 빈곤하며 성격이 거칠어서 무력에서는 효용(驍勇)이 있다. 모습은 흉하고 무명과 털옷을 걸치고 있으며 문자나 언어는 대체로 카샤국과 같다. 그러면서도 신앙은 있어서 불교를 존숭한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5백여 명이고 모두 소승의 일체유부를 학습하고 있다.

### 2) 건국 전설

지금의 왕은 순박한 사람으로 삼보를 존중하며 몸가짐도 우아하여 학문에 힘쓰고 있다. 건국해서 지금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왕은 스스로 치나데바고트라(至那提婆瞿呾羅 : 唐에서 漢日天種이라 함)라 일컫고 있다.

이 나라의 조상은 파미르 고원에 살았다. 그 옛날 페르시아국의 왕이 그 아내를 한나라에서 맞아들일 때 마중 나온 사신의 행렬이 이곳에 들렀다. 마침 병란을 당하여 교통로가 끊겼다. 그래서 그들은 왕녀를 산속에 숨겼다. 그 산은 아주 험해서 벼랑에는 사다리를 놓고 오르는 곳이었는데, 아래에 경호인을 둘러 세워 밤낮으로 경비케 했다. 이윽고 석 달 정도 지나 적군도 평정되어 나라에 돌아가려 했을 때 왕녀는 임신이 되어 있었다. 사신은 놀라 함께 간 사람들에게 "왕명으로 왕비를 마중 나온 길에 병란을 만나 황야에 야영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어찌될 줄을 알지 못할 운명이었다. 우리 왕의 덕의 감화에 의해 동란도 진압되어 이제 나라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당에 왕비 될 사람은 임신을 했다. 이를 생각하자니 걱정이 되어 어찌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범인을 찾아내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자부터 처벌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끄럽게 신문했으나 사실이 판명되지는 않았다. 그때 왕녀

를 시중들던 시동(侍童)이 사신에게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왕녀는 신과 만난 것입니다. 날마다 정오가 되면 한 사람의 헌헌장부가 햇무리 속에서 말을 타고 내려와 만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신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귀국해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군사를 보내 토벌할 것이다. 진퇴유곡이라 어느 쪽이고 다 어려운데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자, 모두가 “이 사건은 물론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 누가 처벌받아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처벌의 통지를 기다리면서 잠시 시일을 보내도록 합시다”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바위산 위에 어전을 짓고 숙사를 세웠다. 주위가 3백여 보 되는 것으로 어전의 주위에는 성을 쌓고 왕녀를 옹립하여 주군으로 삼으면서 관(官)을 설치하고 법을 제정했다. 산월이 되어 옥동자를 낳았는데 미목이 준수했다. 왕녀는 섭정이 되어 정무를 돌보았으며 그 아들은 허공을 날고 바람과 구름을 뜻대로 했으며 그 위덕은 먼 곳을 덮고 교화는 먼 나라까지 미쳐 이웃 여러 나라들이 모두 신하로서 복종했다. 그 왕이 수명이 다했을 때 이 성의 동남쪽 1백여 리 큰 산의 석굴 속에 장례 지냈다. 그 시체는 건석(乾腊 : 미이라)으로 하여 지금도 손괴되지 않은 채 모양은 마치 깡마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가끔씩 그 의복을 갈아주고 항상 향과 꽃을 갖추면서 자손대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나라의 조상이 어머니는 한토(漢土) 사람이고 아버지는 일천(日天) 종족인 까닭에 스스로 한일천종(漢日天種)이라 일컫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왕족의 용모는 중국인과 같고 머리에는 중국인 비슷한 방관(方冠)을 쓰고 있으며 호인(胡人)의 옷을 입고 있다. 후계자는 힘이 쇠미해져서 강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 3) 동수논사(童受論師)

이 나라 아쇼카 왕은 일세에 걸출했던 사람으로 그 궁중에 수토파를 세웠다. 이 왕은 나중에 궁중의 동북쪽 귀퉁이로 거소를 옮기고 본래의 궁전은 존자 동수논사를 위해 승가람을 세웠다. 누대나 전각은 높고 넓으며 불상은 위엄에 차 있다. 존자는 탁샤시라국(呾叉始羅國)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명민하여 일찍부터 속세를 떠나 마

음은 오로지 전적(典籍)에 뜻을 둔 가운데 불교의 깊은 뜻을 연구했으며 날마다 3만 2천 언을 암송하고 3만 2천 자를 썼다. 그리하여 그 학문은 당시의 준재 중에서도 윗자리에 있었고 그 이름은 일세에 드높았다. 그는 정법을 선양하여 사견을 깨뜨리고 고매한 논리를 훌륭하게 논술하는 가운데 어떠한 논쟁에도 응수하지 않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인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존자를 우러러보았다. 저술한 논부(論部)의 서적은 모두 수십 부가 되는데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학습하여지지 않는 것이 없다. 즉 경부(經部)의 본사(本師 : 경부의 본사란 오로지 經量部를 受授하는 스승이라는 뜻. 經量部는 小乘 18部의 하나로 부처님 4백 년에 一切有部에서 別派가 된 것으로 그냥 經量이라고도 함)이다.
이 무렵 동쪽에 마병이 있고, 남쪽에 데바가 있었으며 서쪽에는 용맹이 있고 북쪽에 동수(童受)가 있어, 세상에서는 네 성현이 세상을 비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 나라 국왕은 존자의 훌륭한 덕을 듣고 군대를 동원하여 탁샤시라국을 공격하고 협박해 존자를 모셔와 이 가람을 세움으로써 신앙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4) 두 석실의 나한

성에서 동남쪽으로 3백여 리 가면 큰 돌벼랑에 이른다. 거기에 2개의 석실이 있는데 각기 한 사람의 나한이 멸진정(滅盡定)에 들어 단정하게 앉아 있다. 그 모습은 깡마른 사람과 같은데 그 시해(屍骸)는 손후(損朽)되어 있지 않다. 이미 7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수염과 머리카락은 항상 자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도들은 해마다 이 나한의 머리를 깎아 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5) 푸냐샤라

큰 벼랑에서 동북쪽으로 고개를 넘고 험한 길을 2백여 리 가면 푸냐샤라(奔穰舍羅 : 福舍라는 뜻)에 이른다. 파미르 고원 동쪽 산에 있는데 사방에 둘러싸인 산의 한가운데에 있다. 1백여 경(頃 : 약 1백 아르) 평방인데 한가운데는 낮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눈이 쌓이며 바람은 차고 거세게 분다. 전답에는 모래와 돌이 많으며 농업은 은성하지 않다. 나무도 없고 다만 작은 풀이 있을 뿐이다. 때때로 더운 날씨

가 있으나 바람과 눈은 많다. 사람들이 이 경계에 이르자마자 구름과 안개가 일기 때문에 특히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애를 먹는다. 고로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력이 있었다.

옛날 어떤 상인이 종 1만여 명과 수천 마리의 낙타를 이끌고서 재화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러 왔다가 눈바람을 만나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잃어버렸다. 마침 그때 카르반다국(朅盤陀國)에 있었던 대나한이 멀리서 이 사건을 알고 그 위난을 가엾이 여겨 재난을 구하고자 신통력으로 이곳까지 왔으나 그 상인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래서 상인의 보물과 재산을 거두어 숙사를 세우고 자재를 가지고 이웃 나라 토지를 샀으며 그 시골 땅에 가게를 내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시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나그네나 상인들이 모두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파미르 고원의 동쪽 마루를 내려가게 되는데, 위험한 고개를 오르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만 한다. 골짜기의 길은 험한 데다 눈바람은 계속 내리친다. 8백여 리를 가서 파미르 고원을 나와 우사국에 이른다.

## 19. 우사국

### 1) 국세의 개관

우사국(烏鎩國 : 이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諸說이 분분하여 일정하지 않음)은 주위가 1천여 리이다.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10여 리이며 남쪽으로는 야르칸드 강(徒多河)을 바라본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대하며, 울창한 숲에 꽃과 과일이 많고 갖가지 구슬을 많이 산출한다. 즉 백옥과 예옥(瑿玉 : 검은 구슬) · 청옥 등이다. 기후는 온화하며 비바람도 순조롭다. 예절은 없고 성질이 거칠다. 거짓이 많으며 치욕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자나 언어나 카샤국(佉沙國 : 카슈가르)과 좀 비슷한 데가 있다. 용모는 추악하며 무명과 털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신앙심은 있어서 불도를 신봉한다. 가람은 10여 군데로, 승도는 1천 명이 못 되고 소승교 설 일체유부를 학습한다. 수백 년 동안 왕족이 끊겨 자신들의 군주는 없고 카르반다국에 예속되어 있다.

2) 나한입정의 산

성의 서쪽으로 2백여 리 가면 큰 산에 이른다. 산은 높고 안개를 띠고 있으며 돌을 따라 구름이 일고 있다. 벼랑이 험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만 같다. 그 꼭대기에 수토파가 크고 진기하게 지어졌다.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수백 년 전에 산의 벼랑이 허물어졌을 때 그 안에 한 비크슈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몸집은 크나 모습은 말랐으며 머리카락과 수염은 길게 자라 어깨를 덮어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 사냥꾼이 이를 발견하고 왕에게 품했던 바 왕은 몸소 만나러 나섰고 고을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건만 모두 와서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면서 다투어 공양드렸다.

왕이 "이분은 누구이실까. 이렇게 훌륭한 분은……" 했더니 한 비크슈가 "이렇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고 가사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멸심정(滅心定 : 滅盡定)에 든 아라한이 틀림없습니다. 멸심정에 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에 간타의 음을 듣게 된다든가 혹은 햇빛이 비치는 것을 기다리게 된다든가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신호가 있을 때 선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신호가 없으면 고요하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식(段食 : 團食이라고도 하며, 사람들이 상용하는 음식)을 하는 신체는 정에서 갑자기 나오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소유(蘇油 : 우유를 끓여 만든 기름으로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함)를 부어 몸에 윤기를 내게 한 다음에 간타를 울려서 정에 들어 있는 마음에 신호를 보내도록 합시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좋다고 말한 다음 그와 같이 하여 간타를 울렸다. 그 음이 울리자마자 이 나한은 눈을 떴다.

잠시 후, 왕이 "당신은 누구요? 모습은 비천한데 가사를 걸치고 있다니?" 하고 물었더니 "나는 비크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가 다시 "그런데 나의 스승인 카샤바여래(迦葉波如來)는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대열반에 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눈을 감고 사뭇 애석하다는 듯이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다시 "석가여래는 이미 세상에 나왔

습니까?" 하고 물었다.
"벌써 나오셔서 세상을 인도한 다음 이미 적멸(寂滅)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머리를 한동안 숙이고 있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더니 허공으로 승천한 다음 신변을 나타내어 화화(化火 : 火光定), 몸을 태우고서 유해가 땅으로 떨어졌다. 왕이 그 뼈를 거두어 이 수토파를 세운 것이다.
여기서 북쪽으로 산과 들을 건너가기를 5백여 리 하여 카샤국에 이른다.

## 20. 카샤국

카샤국(佉沙國 : 지금의 Taklamakan 사막 서쪽 끝의 要地 Kashgar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나 原音의 比定을 두고 諸說이 많다)은 주위 5천여 리이다. 사막이 많고 토양이 적으나 농업이 성대하고 꿀과 과일이 많다. 가는 무명과 가는 털실이 나는데 가는 털실은 구유(氍毹)를 교묘하게 짠다. 기후는 온화하고 비바람도 순조롭다. 사람들의 성질은 난폭하며 거짓이 많고 예절은 모자라며 학예는 평범하다. 자식을 낳으면 머리를 눌러 편평(扁平)하게 하는 습속이 있다. 용모는 비천하고 문신을 했으며 파란 눈을 가졌다. 사용하는 문자는 인도의 본을 뜬 것으로 생략과 개변(改變)은 있으나 인도의 양식과 필법을 보존하고 있다. 언어의 어휘나 음조(音調)는 다른 나라와 상이함을 보인다. 불교를 깊이 신앙하며 복덕에 정진하고 있다. 가람은 수백 군데이며 승도는 1만여 명이고 모두 소승교의 설 일체유부를 학습한다. 그러나 그 이론을 연구하지 않고 대부분 문구를 암송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5백여 리 가서 야르칸드 강을 건너고 큰 모래 산을 넘으면 차쿠카국에 이른다.

## 21. 차쿠카국

### 1) 국세의 개관

차쿠카국(斫句迦國 : 지금의 葉城 즉 Karghalik라 추정됨)은 주위 1천여 리이며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 10여 리이다. 험준하여 수비가 견고하고 인가는 대단히 많다. 산과 언덕이 잇대어졌고 돌멩이가 땅에 널려 있다. 2개의 강에 둘러싸여 농업이 성대하며 포도 · 배 · 능금이 나는데 그 과일이 풍부하다. 겨울철 바람은 차고 사람들은 난폭하다. 거짓이 많고 도둑질을 예사로 한다. 문자는 쿠사타나국(瞿薩旦那國)과 같으나 언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절이 모자라고 학예 또한 열다. 그러나 삼보를 깊게 믿으며 복덕(福德 : 慈善)을 즐겨 하고 있다. 가람은 수십 군데이나 파괴된 것이 많다. 승도는 1백여 명으로 대승교를 학습하고 있다.

### 2) 남쪽 경계의 영적(靈跡)

이 나라 남쪽 경계에 큰 산이 있다. 봉우리들은 험하고 산들은 겹쳐서 잇대어져 있다. 초목은 겨울의 추위를 겨우 이겨내고 봄과 가을에 조금 자라며 계곡과 물줄기는 사방으로 흩날린다. 벼랑의 암굴이나 석실은 산림 속에 점점이 흩어져 박혔는데 인도의 증과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신통력으로 이곳으로 와서 산다. 아라한으로 입적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은 수토파가 있다. 오늘도 세 사람의 아라한이 암굴 속에서 멸진정에 들었다. 그 모습은 깡마른 사람 같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항상 자라고 있다. 그래서 사문들이 가끔씩 가서 깎아 주고 있다.

### 3) 대승 경전

그 위에 이 나라에 있는 대승경전은 부수(部數)가 가장 많아서 불교가 이른 곳으로서 여기보다 더 은성한 데가 없다. 10만 송(頌)으로 1부를 이루는 경전이 모두 10수 경이 되며 그 이하의 것이 유포된 것도 참으로 광범위하다. 여기서 동쪽으로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가기 8백여 리 해서 쿠사타나 국에 이른다.

## 22. 쿠사타나국

### 1) 국세의 개관

쿠사타나국(瞿薩旦那國 : 지금의 Khotan)은 주위가 4천여 리이다. 모래와 돌이 태반이고 토양이 있는 곳은 조금뿐이다. 그곳은 곡작에 알맞아서 갖가지 과일이 많다. 구유(氍毹 : 毛織)·세전(細氈 : 가는 실의 毛織)이 산출되는데 시주(絁紬 : 明紬)를 잘 짜낸다. 또 백옥과 예옥이 난다. 기후는 온화하지만 회오리바람이 일어 흙먼지를 날린다. 사람들의 성질은 예절이 있고 성격은 온순하며 학예를 좋아하면서도 기예(技藝)가 발달했다. 모두가 부유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나라의 습속으로는 음악을 존중하고 가무를 즐겨 한다. 모직물이나 가죽옷을 입는 사람은 적고 시주와 흰 무명을 입는 사람이 많다. 입음새에도 예절이 있고 관습에 기율이 있다. 문자와 법칙은 인도를 따르고 있으나 자체(字體)와 필세(筆勢)를 조금 고쳐 변화를 보이고 말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불도를 존중하며 가람은 1백여 군데, 승도는 5천여 명인 바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학습하고 있다. 왕은 대단히 용감하며 불도를 깊이 믿는 가운데 스스로 비사문천(毘沙門天 : 印度 국토의 수호신 四天王의 하나)의 후예라 일컫고 있다.

### 2) 건국의 전설

이 나라는 그 옛날 넓은 땅을 가졌으나 주민은 적었는데 비사문천이 살고 있었다. 아쇼카 왕의 태자가 탁샤시라국에서 눈알을 도려내게 되었을 때 아쇼카 왕은 노하여 그를 보좌하는 신하를 벌주고 호족들을 설산 북쪽으로 추방하여 황폐한 골짜기에서 살게 했다. 유배당한 사람들은 짐승을 좇아 이 나라 서쪽 경계까지 와서는 우두머리 된 사람을 왕으로 내세웠다. 이때 동방의 나라 제왕의 왕자도 견책을 받고 유배당하여 이 나라 동쪽 경계에 살았는데 수행해 온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이 또한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다. 세월이 흘렀으나 두 왕의 덕풍교화(德風敎化)는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왕이 사냥을 나가 황야에서 만나게 되자 서로 가계(家系)를 물은 끝에 두 쪽 모두 자신이 낫다면서 말다툼을 벌여 전쟁을 벌

이게까지 되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지금 어쩌자고 허겁지겁 싸움을 벌인다는 것입니까. 사냥을 나왔을 뿐이므로 결전을 벌여 봤자 양군의 총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단 돌아가 군사를 정비한 다음 날을 정해서 다시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수레를 돌려 각기 자기 나라로 가서 병마를 훈련하고 사졸을 독려했다. 기일이 되어 군사를 모아 기고(旗鼓)도 당당하게 대치했다. 날이 밝아 결전을 벌였는데 서쪽 군주가 불리해져 쫓겨 도망하다가 목이 달아났다. 동방의 군주는 승리를 차지하자 나라를 잃은 서방의 사람들을 모아 안심시켜 놓고는 도읍을 중앙으로 옮겨 성곽을 쌓으려고 했다 그러나 적당한 곳이 없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나 아닌가 염려한 끝에 지리에 정통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내외에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널리 포고했다. 그때 어느 도회외도의 한 사람이 큰 물통에 물을 가득 짊어지고 나와서는 자기가 지리를 아노라고 말했다. 그가 물을 붓자 강의 자국을 따라 구부러져 그 땅을 둘러싼 다음 다시 본래와 같이 흘렀다. 그래서 물을 쫓아 달려갔던 바 홀연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 자국을 따라 성곽의 기초를 높이 쌓은 다음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현재의 왕은 바로 그곳에 도읍하고 있는 것이다.

성은 험준하지는 않지만 남이 공격해도 함락당하는 법이 없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승리를 얻은 사람은 없다. 그 왕은 도읍을 이곳으로 옮겨 취학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공적을 이미 이루어 노령에 이르렀으나 그때까지 후계자를 얻지 못하여 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했다. 그리하여 비사문천 신에게 가 후사를 얻게 해 달라고 기원했더니 신상의 이마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 그를 안고 돌아오자 온 나라 사람들이 경하의 뜻을 표했다. 그런데 아기가 우유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한 끝에 다시 비사문천 신에게 가서 거푸 잘 자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드렸더니 신전(神前)의 대지가 갑자기 불거져 솟아올랐다. 그 모습이 꼭 유방과도 같아서 아기는 그것을 마시고서 성인이 되었다. 그의 지용(智勇)은 뛰어났고 덕풍교화는 멀리까지 미쳤다. 그리하여 신사(神祠)를 짓고 조상을 제사지냈

다. 이로부터 대대로 계승하여 나라를 전해 군림하는 가운데 그 계통이 끊긴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신묘(神廟)에는 지금도 갖가지 보물이 많고 그 제사 또한 한 번도 폐지되어 본 일이 없었다. 대지의 유방으로 아기가 자랐기 때문에 지유(地乳 : gostana 大地의 유방)라 국호를 정한 것이다.

3) 불교 도래의 전설

왕성의 남쪽 10여 리 되는 곳에 큰 가람이 있다. 이 나라의 선왕이 비로차나(毗盧折那 : 唐에서 遍照라 함) 아라한을 위해 세운 것이다. 옛날 이 나라에 불교가 아직 행해지지 않았을 때 아라한은 카시미르국으로부터 이 숲 속에 와서 선정에 힘쓰고 있었다. 마침 이를 본 사람이 그 용모와 차림새에 놀라 그 모양을 왕에게 자세하게 고해 바쳤다. 왕은 몸소 나아가 그 거동을 보고서 "그대는 뭐하는 사람인가. 홀로 이 유림(幽林)에 있다니" 하고 묻자 나한은 "저는 여래의 제자로 조용한 데서 선정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왕께서는 아무쪼록 복덕을 행하여 불교를 넓히시고 가람을 지어 승도들이 모여들게 하시옵소서"라고 대답했다.

왕은 "여래에게는 어떠한 덕이 있으며 어떠한 신이기에 그대를 숲 속에 살면서 고행을 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다.

나한은 "여래는 사생에 자비를 베풀고 삼계(三界 : 欲界 · 色界 · 無色界)를 지도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생멸유전(生滅流轉)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귀의하는 사람은 생사의 경지를 떠날 수가 있고 그 가르침을 믿지 않는 자는 애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옵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진실로 말대로라면 이는 말보다 더욱 훌륭하오. 그분이 대성(大聖)이시라면 나를 위해 모습을 한번 나타내 주었으면 하겠소. 만약 우러러 볼 수가 있다면 반드시 가람을 세워 마음으로 귀의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나가도록 하겠소" 하고 말했다.

나한은 "왕께서 가람을 세워 준공한다면 반드시 감응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아주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청원에 따라 승가람을 세우고 멀고 가까운 곳 사람들을 모두 모아 법회를 열고 경찬(慶讚)하려 했는데 그때까지 사람을 모이게 할 때 두드려야 할 간타가 없었다. 왕은 나한에게 "가람은 지어졌소만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하고 물었다.
나한은 "정성을 보인다면 이내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왕이 부처님의 광래(光來)를 예청(禮請)하자 하늘에서 불상이 내려와 왕에게 간타를 건네주었다. 왕은 그로부터 진심으로 불교를 보급하게 되었다.

4) 우각산 정사
왕성의 서남쪽 20여 리 되는 곳에 고시링가 산(瞿室餕伽山 : 唐에서는 牛角이라 함. 黑玉河 동쪽 기슭에 있는 Kohmari Hill에 比定)이 있다. 산에는 2개의 봉우리가 솟았고 사방은 절벽인데 벼랑 사이에 가람이 하나 있다. 그 안에 있는 불상은 가끔씩 광명을 발하는 일이 있다. 옛날 여래가 이곳에 와서 천인들을 위하여 가르침의 요점을 약설(略說)하면서 이곳에 반드시 국가가 건설되는데 불도를 신앙하고 대승을 학습하게 되리라고 예언한 바 있다.
우각산의 암벽에는 큰 석실이 있다. 안에 아라한이 있는데 멸심정(滅心定 : 阿羅漢果 이상의 聖者가 잠시 동안 涅槃에 드는 定)에 들어 자씨불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이 아라한의 공양에 변함이 없었다. 근자에 벼랑이 무너져 문으로 가는 길이 막혀 버렸다. 국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허물어져 떨어진 돌을 제거하려 했더니 까만 벌떼가 날아와서 사람들을 쏘아댔다. 그래서 지금껏 돌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5) 티카바바나 가람
왕성 서남쪽 10여 리 되는 곳에 티카바바나(地迦婆縛那) 가람이 있다. 그 안에 협저(夾紵 : 이른바 乾漆法에 해당하는 唐代의 용어)의 입불상이 있다. 본래 쿠차국에 있던 것이 여기 와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이 나라에서 견책을 받고 쿠차국에 유배되어 간 신하가 이 상 앞에 항상 예배를 드렸다. 나중에 귀국하게 되

어서도 정성으로 멀리 있는 그 상에 예배드렸던 바 한밤중이 지나 상은 갑자기 이 나라에 왔다. 그래서 그 신하는 자기 집을 희사하여 이 가람을 세운 것이다.

6) 바가이 성

왕성에서 서쪽으로 3백여 리 가면 바가이성(勃伽夷城 : 이 對應 語原을 Bahgai 또는 Bhagya로 추측하나 확증은 없다. 어쨌건 Khotan에서 西進하는 幹線上의 Pialma 부근이라 추측된다)에 이른다. 성안에는 7척 남짓한 높이의 불상이 있다. 모습이 원만하고 위엄은 숙연하며 머리에 보석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는데 가끔씩 광명을 발하기도 한다.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상은 본래 카시미르국에 있었던 것이 이곳으로 청래(請來)한 것이었다. 옛날 한 나한이 있었다. 그 제자인 사미가 죽을 때쯤 되어서 초미병(酢米餠 : 餠은 出家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五食 중의 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지방의 특수한 기호품이었던 듯하다)을 먹고 싶어 했다. 나한이 천안(天眼)으로 살펴보고는 쿠사타나국에 이 진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신통력으로 거기에 가서 입수했다. 사미는 그것을 다 먹은 다음 이 진미가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소원했다. 그는 그 소원대로 쿠사타나국에 태어나 왕자가 되었다. 왕위를 잇자 그 무위(武威)는 원근(遠近)을 진감시켜 마침내 설산을 넘어 카시미르국을 토벌하게 되었다. 카시미르국왕은 병마를 정비하고 변경의 난을 막고자 했다. 그때 아라한이 나서서 왕에게 "군사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 마소서. 제가 침략군은 물리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쿠사타나 왕을 위하여 갖가지 불교의 요점을 설법했다.

처음에는 가르침을 믿지 않고 왕은 계속해서 군사를 움직이려고 했다. 그래서 나한은 저쪽 왕이 전세에 사미였을 때 걸치고 있었던 옷을 꺼내서 그가 보도록 했다. 왕은 그 옷을 보더니 숙명지(宿命智 : 前世로부터의 命運을 아는 지혜)를 깨달아 카시미르 왕에게 그 잘못을 사과한 다음 국교를 맺고 군사를 해체시킨 다음 되돌아갔다.

그때 사미가 전세에 공양한 불상을 받들어 군대와 더불어 가져갔던 바, 상이 이 고장까지 오자 운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을 삥 둘러 가람을 세운 다음 승

려를 초치하고 보관을 희사하여 불상의 머리 위에 안치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곧 선왕이 기진(寄進)한 것이다.

7) 서분(鼠墳)의 전설

왕성 서쪽 1백 5~60리 되는 곳 큰 사막의 길 한가운데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다. 이것은 쥐가 파낸 흙으로 된 것이다. 그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막 안의 쥐는 고슴도치와 비슷한데 그 털은 금색 · 은색 등 진귀한 색깔을 띤다. 이 쥐떼의 우두머리가 구멍에서 나와 걷게 되면 항상 그 떼들이 뒤따른다.

그 옛날 흉노가 수십만의 군세를 이끌고 변지의 성을 습격 · 약탈한 다음 이 서총(鼠塚) 곁에 군사를 주둔시킨 일이 있었다. 이때 쿠사타나 왕은 겨우 수만의 군사를 이끌었을 뿐이라 병력으로는 도저히 적을 당해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왕은 이 사막의 쥐는 진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력을 지닌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적군이 습격해 오기에 이르러 원조를 요청할 데도 없는 가운데 군신이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반신반의로 제를 올리고 분향하면서 쥐들에게 "신령이 있다면 적으나마 군세에 가담해 주길" 하고 기원했다. 그날 밤 쿠사타나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쥐가 나타나 "삼가 원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군사를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내일 아침 결전을 벌인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쿠사타나 왕은 신우(神佑)가 있음을 알고 서둘러 병마를 정비한 다음 장교에게 명하여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여 멀리 쳐들어가 적을 습격했다. 이 소식을 들은 흉노는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들은 말을 타고 갑옷을 입으려고 했으나 말의 안장과 사람의 옷, 활의 시위, 갑옷의 끈 등 사용하는 실은 모조리 쥐가 갉아 끊어 버린 뒤였다. 적군은 싸워 보지도 못하고 결박되고 살해되었다. 쿠사타나 왕은 이렇게 해서 흉노의 장수를 죽이고 병사를 포로로 잡을 수 있었다. 흉노는 놀라 떨면서 신령이 원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쿠사타나 왕은 쥐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려 대대로 존숭하는 가운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을 깊이 했다. 위로는 군주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제사

를 드리면서 신의 도움이 있기를 바랐다. 그 구멍 있는 데를 지나게 되면 수레에서 내려 걸으면서 진심으로 절하고 복을 내려 달라고 빌었고, 혹은 의복이나 활과 화살 혹은 향화, 진미를 바쳤다. 언제나 진심을 바치면 복리를 얻는 일이 많고 만약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난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8) 사마냐 승가람

왕성 서쪽 5~6리 되는 곳에 사마냐 승가람(娑摩若僧伽藍)이 있다. 안에 높이 1백 척 되는 수토파가 있다. 영서가 많고 때때로 광명을 발하기도 한다.
그 옛날 한 나한이 먼 곳에서 와 이 숲 속에 머물렀는데 신통력으로 큰 빛을 발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왕은 밤중에 중각에 머물러 있다가 숲 속에서 광명이 비치는 것을 멀리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어떤 사문이 멀리서 와 좌선을 하며 신통력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왕은 수레를 준비하여 몸소 그곳에 나가 보았다. 왕은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궁중으로 함께 가자고 했던 바 사문은 "사물에는 각기 그에 알맞은 장소가 있고 뜻에는 각기 향하는 장소가 있는 법입니다. 깊은 숲 속이나 늪은 저의 마음에 합당한 곳이지만 대하고당(大廈高堂) 같은 곳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사문을 위해 가람을 세우고 수토파를 쌓았다. 사문은 왕의 청을 받아들여 그 가람에 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얼마 있다가 왕은 불력의 감응에 의하여 사리 수백 알을 입수하고서 대단히 기뻐했지만 은밀히 "사리를 입수하는 것이 어찌 이다지 늦었는가. 참으로 서운한 일이다. 더 일찍 입수해서 수토파 아래 묻어둘 수 있었더라면 한결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한 왕은 서둘러 가람을 찾아 자세한 얘기를 사문에게 했다.
나한은 "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 · 은 · 동 · 철을 대석함(大石函)에 순서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직공에게 명하여 그것을 만들게 했더니 오래잖아 다 되었으므로 훌륭한 수레에 실어 가람으로 보냈다. 이때 왕족이며 고관은 사리를 호종(扈從)하고 백관서민으

로 사리를 지켜보는 수는 1만을 헤아렸다. 이때 나한은 오른손으로 수토파를 펴들어 손바닥에 올려놓더니 왕에게 "사리를 안치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래서 땅을 파고 함을 안치했는데 그 작업이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수토파를 땅에 내려놓았으나 조금도 손괴됨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일이라 감탄하면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더욱 두터워지고 법을 존경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왕은 관리들에게 "나는 일찍이 이렇게 들은 바 있다. 부처님의 힘은 헤아리기 어렵고 신통은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여서 어느 때는 그 몸을 1백억으로 나눌 수 있고 어느 때는 그 모습을 인계천상(人界天上)에 나타낼 수도 있다.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도 중생은 동요를 느끼지 못하고 가르침의 본질을 한소리로 들어서도 중생은 각기의 기류(機類)에 따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는 곧 부처님의 신력이 다른 데에 비길 수 없는 것이고 그 지혜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몸은 이미 이상에서 떠나 입멸했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 오히려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소나무 열매를 먹고 늪의 물을 마시듯이 열심히 수행하여 불도를 음미하고 그 경지를 사모한다면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파악할 수 있어서 크게 그 가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깊이 존경하면서 노력해 나가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 멀지만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말했다.

9) 마자 승가람

왕성 동남쪽 5~6리 되는 곳에 마자 승가람(麻射僧伽藍)이 있다. 이 나라 선왕의 왕비가 세운 것이다.

그 옛날 이 나라에서는 뽕과 누에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동쪽 나라에서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자(使者)를 시켜 구하게 했다. 그런데 동쪽 나라의 군주는 이를 비밀로 하여 알려주지 않고 관소(關所)에 명하여 뽕과 누에의 종자를 내지 말도록 엄명했다. 쿠사타나 왕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동쪽나라에 혼인을 신청했다. 동쪽나라의 군주는 먼 나라를 회유할 뜻이 있었으므로 그 소청을 받아들였다. 쿠사타나 왕은 사자에게 신부를 마중 나가라 이르면서 "그대는 동쪽나라 군주의 딸에게 말하길 우리나라는 원래 견사(繭絲)나 뽕 · 누에의 종자가 없으니 가져와서 손수

의복을 만들도록 하라고 말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왕녀는 그 말을 듣고 남몰래 뽕과 누에 종자를 입수하여 모자 속에 넣었다. 관소에 이르렀을 때 관리는 모든 곳을 검색했으나 왕녀의 모자만은 조사하는 비례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종자를 지닌 채 쿠사타나국에 들어와 마자가람이 있는 곳에 머무르면서 의례를 갖추고서 왕궁으로 들어갔다. 뽕과 누에 종자를 이곳에 두었다가 봄이 오자 그 뽕을 심고 잠월(蠶月 : 음력 4월)이 되었을 때 다시 이곳에 와 뽕잎을 따서 양잠을 했다. 처음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잎을 섞어서 양잠을 했으나 그 이후로는 뽕나무도 그늘이 질만큼 많아졌다. 그러자 왕비는 돌에다 "살상을 금한다. 나비가 되어 날아간 다음 비로소 고치를 처리하라. 이를 지키지 않은 자는 신령의 가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금제(禁制)를 새기게 했고 한편 앞서의 누에를 위하여 가람을 세웠다. 몇 그루의 뽕나무 고목이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나무였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도 이 나라에서는 누에를 죽이지 않는 습관이 있으며 은밀하게 실을 뽑아낸 사람은 이듬해 누에치기에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10) 용고지(龍鼓池)의 전설

왕성 동남쪽 1백여 리 되는 곳에 큰 강〔지금의 Yurung-Kash 강〕이 있는데 서북쪽으로 흐른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 강을 이용하여 밭에 관개를 했다. 언젠가 흐름이 끊긴 일이 있었는데 왕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여 나가 어느 나한승에게 "큰 강의 물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것입니다만 이제 갑자기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나라의 정치를 시행함에 불공평이 있기 때문일까요. 저의 덕이 미치지 않기 때문일까요. 어찌하여 문책함이 이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하고 물었다.

나한은 "대왕의 통치는 정교(政敎)에 걸쳐 훌륭하여 나라는 평온합니다. 강물의 흐름이 끊긴 것은 용의 짓입니다. 서둘러 용에게 제사 지낸다면 반드시 본래와 같은 이익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왕은 수레를 돌려 강의 용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돌연히 한 사람의 여자가 물결을 타고 와서 "저의 남편은 일찍 돌아

가셨으므로 따라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흐름은 끊기고 농민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나라 안에서 훌륭한 신하 한 사람을 가려 저에게 남편으로 삼아 준다면 물의 흐름은 옛날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알았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용은 그 나라의 대신이 마음에 든 것 같은 눈초리를 보였다. 성으로 돌아오자 왕은 군신에게 "대신은 나라의 중진이며 농민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이다. 나라를 지키는 자를 잃으면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친다면 죽게 될 것이다. 위험과 사망의 중대사인데 어느 것을 채택해야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대신이 자리에서 나와 꿇어앉으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용렬한 몸으로 중책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항상 보국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야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중책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민에게 이익이 간다고 할 때 어찌 한 가신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나라를 보좌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며 백성으로 말하자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이 이상 더 생각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만약 복을 내리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쪼록 가람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왕은 그 소원을 들어 얼마잖아 가람을 준공했다. 그러자 그 대신은 어서 용궁에 가게 해 달라고 다시 주청을 드렸다. 그리하여 나라 안의 관민 모두 음악을 베풀고 안전을 기원하면서 술잔을 들었다. 그 대신은 소복을 입고 백마에 올라 왕에게 작별인사를 한 다음 국민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그 후 말을 달려 강에 뛰어들어 물을 건넜건만 빠져들지 않았다. 중류까지 가서 채찍을 휘둘러 물에 선을 긋자 물은 둘로 갈라졌으며 그 다음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잠시 후 백마는 수면에 떠올랐다. 말은 단향목으로 된 북을 하나 짊어지고 한 통의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 편지에는 대강 "대왕께서는 능력 없는 저를 버리지 않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라옵건대 복업에 노력하여 나라를 부하게 하고 신하를 많이 가지시옵소서. 이 북은 성의 동남쪽에 걸어 놓으십시오. 만약 외적이 침략해 들어온다면 북은 그 전에 울릴 것입니다"라고 씌어 있었다.
강물은 지금까지 흐르고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다. 세월은 이미 흘러 용고는 없

어진 지가 오래되었으나 본디 걸었던 곳에는 지금도 본래와 같이 후대에 만든 북이 걸려 있다. 연못 옆의 가람은 황폐하여 승도도 없다.

11) 옛 싸움터

왕성에서 동쪽으로 3백여 리 가면 황폐해진 습지 안에 수십 경(頃 : 수십 헥타)의 토지가 있는데 초목은 없고 땅이 검붉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싸움에 패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 옛날 동쪽 나라 군사 1백만 명이 서쪽으로 쳐들어왔다. 이때 쿠사타나 왕도 병마 수십만의 군세를 정비하여 동으로 나아가 강적을 맞아 싸웠다. 이곳까지 왔을 때 양군이 만나게 되자 곧장 접전이 벌어졌는데 서군은 패하고 말았다. 동군은 승리한 김에 참살을 자행하고 왕을 포로로 삼았으며 대장을 살육했다. 사병도 모조리 죽여 누구 한 사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때 흘린 피가 땅을 물들여서 그 흔적이 지금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12) 피마 성

싸움터에서 동쪽으로 30여 리 가면 피마성(媲摩城 : 지금의 Chira Bazar 북쪽 사막 중의 Uzun-Tati와 Ulugh-Ziarat 지역에 比定)에 이른다. 그곳에 단향목으로 조각한 높이 2장 남짓 되는 입불상이 있다. 영험이 있고 때로는 광명을 발하기도 한다. 질병이 있는 자는 누구나 아픈 곳에 따라 금박을 불상의 부위에 바르면 낫게 되고, 충심으로 기원하는 자의 소청을 들어주는 경우도 많다. 그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 상은 옛날 부처님의 재세 중에 코샴피국의 우다야나 왕이 만든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 상은 거기에서 하늘을 날아 이 나라 북쪽 라우라카 성에 온 것이다. 왔던 처음 무렵에는 이곳 사람들은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으나 사견에 집착하여 부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여기에 온 유래를 말해도 이상한 일이라 생각은 하면서도 경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그 뒤 이 상을 예배한 나한이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놀라 그 용모와 복장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왕은 모래와 흙을 이 낯선 사람에게 뿌리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아라한은 온 몸에 흙과 모래를 뒤집어쓰고 먹을 식량까지 끊겨 버렸다. 그때 어느 자비로운 사람이 항상 이 상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나한의 몰골을 보고는 몰래 음식을 제공했다. 나한은 이곳을 떠나고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7일 동안 모래와 흙이 비같이 내려 이 성을 메워 남아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잘 알아차려 시급히 이곳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모래와 흙을 뿌린 사람들이 그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홀연히 그 모습이 사라졌다. 그 사람은 성에 들어가 친척과 친지들에게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으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조소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틀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일면서 더러운 흙을 날리고 갖가지 보물을 거리 가득히 흩날려 내리게 했다. 사람들은 충고한 사람을 매도했으나 그는 반드시 말한 대로 된다고 믿고 몰래 빠져나가는 구멍을 파고 성 밖에 나가서는 동혈 속에 들어가 있었다. 7일째가 되자 한밤중이 지나면서는 내린 흙모래가 성안 가득히 쌓였다. 그 사람은 동혈의 빠져나가는 길로 밖으로 나와 동쪽으로 이 나라에 이르러 피마 성에 머물렀다. 이 사람이 오자 그 상 또한 따라왔다. 그래서 공양을 드리면서 장소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옛 기록에는 “석가의 가르침이 다하면 불상은 용궁으로 들어간다”라고 적혀 있다. 지금 라우라카 성은 흙모래에 묻혀 큰 구릉을 이루고 있다. 여러 나라의 군주나 여러 곳의 호족들로서 발굴하여 그 보물을 입수하려 드는 자가 많지만, 그 옆에 당도하기만 하면 심한 바람이 불고 연운(煙雲)이 사방에서 일어나 길을 잃는다.

13) 니야 성

피마천〔媲摩川 : 옛 媲摩의 廢址인 Ulugh-Ziarat, Uzun-Tati에는 옛 灌漑水路 자국이 있다〕에서 동쪽으로 사막에 들어 걸어가기 2백여 리 해서 니야 성〔尼壤城 : 현재의 Niya Bazar 북방 65마일 사막 속에 있는 Niya 古址〕에 이른다. 주위는 3~4리로 큰 택지 안에 있다. 택지는 온도나 습도가 높아 건너가기는 곤란하며 갈대가 무성하여 길이 없는데 다만 성으로 갈 수 있는 길만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으로 이 성을 경유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서 쿠사타나는 여기를 그 동쪽 경계의 관소(關所)로 하고 있다.

14) 대유사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대유사(大流沙)로 든다. 모래로 온통 덮여 있는데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바람 부는 대로이다. 사람이 다녀도 발자국은 남지 않아 그대로 길을 잃게 되는 수가 많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저 망망사해로 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곳을 왕래함에 있어서는 유해를 모아서 목표물로 삼는다. 물과 풀이 없고 열풍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눈을 못 뜨고 병이 나며 때로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도 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디로 밀려왔는지 모르게 되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가끔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은데 이 모두가 악귀의 소행이다.

15) 토카라의 옛터

대유사를 4백여 리 건너가면 토카라의 옛터에 이른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성은 아주 황폐해 있다.

16) 찰마다나의 옛터

여기〔토카라의 옛 터 : 지금의 Endere〕에서 동쪽으로 6백여 리 가면 찰마다나〔折摩馱那〕의 옛터에 이른다. 즉 옛날의 찰마국〔沮末國〕이다. 성곽은 높이 솟아 있으나 인연(人煙)의 자국은 끊겨 있다.

17) 나바파의 옛터

여기서〔찰마다나 : 지금의 Charehan〕 동북쪽으로 1천여 리 가면 나바파〔納縛波〕 옛 나라에 이른다. 즉 누란(樓蘭)이다.


발문 · 찬

## 발문(跋文)

제국의 산천을 추측하고 그 경영을 생각해서 정하며, 나아가 그 나라 풍속의 강유(剛柔)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하고자 했습니다만 행동에 정해 놓았던 바가 없었으며 취사선택에도 한결같지 못함이 많았습니다. 사정을 꿰뚫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며, 그래서 자연히 지나간 곳에 따라 그 경개(梗槪)를 생략하여 기록하는 가운데 견문을 열거하여 왕화(王化)를 사모하는 나라들을 기술했을 뿐입니다. 이는 본디 인도에서부터 이쪽으로 모두가 대당(大唐)의 은혜를 입고 덕화가 미치는 곳은 모두 성덕을 흔앙(欣仰)함으로써 천하는 흔연히 동화되어 하나의 집안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단신으로 왕화가 미치지 않은 외국에 나갔어도 곤란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 찬(讚)

여래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실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영묘한 감화는 모르는 결에 각지에 번지고 그 신묘한 교법은 구석구석까지 이르렀으며, 그리하여 그 육체는 이 세상에서 다하고 그 행동은 진계(塵界)에서 자국을 끊었습니다. 육체가 다한 뒤에 기(機)에 응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도 육체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행동은 자국을 끊어 적멸을 나타냈다고 하나 그 정신은 결코 멸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가유(迦維 : 카필라바스투, 劫比羅伐窣堵國)에 생을 받고 사라(娑羅)에 입멸하기까지의 사이에만 국한시킬 수 있을 일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래는 중생의 기근(機根)에 응해 영력을 나타내고 인연에 따라 출세한 분으로서 크샤트리야종의 피를 이어받아 석가족의 계승자로서 인계의 존위를 이어받을 몸이면서도 출가의 길에 전심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금륜왕(金輪王 : 국왕)의 지위를 버리고 법계의 왕자가 되어 백호(白豪)에서 광명을 뻗쳐 중생을 무육(撫育)하셨습니다. 그 교법은 십방에 널리 미치고 그 지혜는 만물에 뻗쳤으며 보고 듣는 범위 밖의 것이라 해도 그 시청(視聽)에 넣는 능력을 갖추었고 법륜을 대천세계에 삼전(三轉 :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고집멸도의 四諦를 설법했을 때 사제의 존재 양태를 가르치면서〔示〕 수행을 勸하고 스스로 證했다. 이 示 · 勸 · 證을 삼전이라 하고 이 설법을 三轉法輪이라 함)했으며 불타 본래의 일음(一音)으로 중생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8만의 법문을 구별하고 12부의 경법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감화가 미치는 범위는 복림(福林 : 福德의 숲)에까지 미치고 그 교화가 성행하는 지역은 수역(壽域 : 長壽의 지역)에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성인 현자로서의 업적은 충실하여 천인(天人)의 스승된 의의 또한 완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견고림(堅固林 : 娑羅林)에 입멸하여 환영과 같이 이 현세를 떠나신 다음에는 인계에 후계자도 없고, 그 가르침을 고구(考究)하는 자 또한 없었습니다. 카샤바 존자(迦葉尊者)가 우수한 아라한을 뽑아 불은에 보답코자 불타의 유법을 결집하여 사아함(四阿含 : 雜一 · 中 · 長 · 雜)에 교법의 원류를 망라하고, 삼장〔經 · 律 · 論〕에 그 요의(要義)를 포괄한 이래 부집이견(部執異見 :

小乘 20부)이 일었다고는 해도 부처님의 정법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존의 탄생에서 적멸에 이르기까지 그 성적은 이르는 곳마다 미치고 그 영서(靈瑞)는 갖가지였습니다. 불멸의 교법은 더욱더 성대하게 되고 무위의 가르침은 더욱더 혁심되어 가서 그동안의 일은 경전에 상세하게 보존되었고 기전(記傳)에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이견(異見)이 난무하고 이론(異論)이 대립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론의 시종을 자상하게 살피건대 정확한 이설(理說)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구체적인 실록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같은 상태입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정법은 유현(幽玄)하고 그 이치에 이르는 길은 심원하건만 깊은 뜻을 연구함에 있어 이같은 논란은 문헌의 모자람에 있어서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학덕이 있는 선배는 일실된 경전의 학(學)을 전하고 준수한 후진은 궐일(闕逸)된 문서를 이어받기는 했으나 그 대의는 가려져 해명되지 못하고 정미(精微)한 언어 또한 궐문(闕文)으로 해서 물어볼 수조차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많은 햇수가 지났고, 한대(漢代) 이래 이 성대(聖代)에 이르기까지 불서 번역의 작업도 성대히 행해짐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둬 오긴 했습니다만, 그 유환(幽幻)한 교리는 아직 충분히 펼쳐지지 못했고 진실된 교법은 아직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는 성교(聖教)가 세상에 행해질 때와 세상에서 숨겨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두말할 것 없이 천자의 덕화가 그렇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당 제국은 천하를 통일하고 해외 제국을 심복시키면서 성인의 유훈(遺訓)을 명백히 하고 선왕의 구전(舊典)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이 불교를 천명하여 큰 가르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란 그것을 고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비로소 세상에 행해지는 것이며 또 그 도가 펼쳐지는 것은 천자의 명덕(明德)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승(三乘 : 여기서는 大乘에서 말하는 三乘으로 聲聞乘 즉 小乘, 그리고 緣覺乘, 菩薩乘 즉 大乘을 가리킨다)의 깊은 뜻은 천재(千載) 후의 현대에 성(盛)하고, 십력(十力)의 유법은 만 리 밖의 나라에 삼가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묘자연(靈妙自然)한 도는 융통무애(融通無礙)한 것이며, 부

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緣)이 있어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은 진리입니다.

현장(玄奘)이라는 사람은 그 청렬한 가계가 상고의 순(舜)에 이르고 그 근본은 규성(嬀姓)에서 출발된 진씨(陳氏)입니다. 그 사람됨은 훌륭한 덕의 상서(祥瑞)를 몸에 지녔으며 중정(中正)한 순수함을 몸에 쌓은 사람입니다. 그 행함에는 덕이 있고 몸을 놀림에는 절조가 있습니다. 그 복덕은 전생에 인연을 가졌고 그 명운(命運)은 융세(隆世)에 태어나는 행운이었습니다. 속진(俗塵)에서 벗어나 학사(學舍)에 정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승(師僧)의 가르침을 받들어 앞선 이의 미덕을 우러르고 갈망하여 급(笈)을 지고 유학하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연(燕 : 河北省) · 조(趙 : 山西省)의 땅을 순유(巡遊)하고, 노(魯 : 山東省) · 위(衛 : 河南省)를 순람(巡覽)했으며 삼하(三河 : 河南 · 河東 · 河北 즉 長安 부근)를 뒤로 하여 진중(秦中 : 陝西省)에 들어갔다가 삼촉(三蜀 : 蜀群 · 廣漢 · 犍爲 즉 四川省)을 걸어 회계(會稽 : 浙江省 紹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학문에 통달한 준수한 사람에게는 널리 가르침을 청하는 노력을 다하고 세상에 이름 높은 현자에게는 구법(求法)의 뜻을 말했으며 갖가지 논쟁에도 귀를 기울여 그 학문을 검토했습니다만 모두가 자기들 전문의 교의에 편들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교의의 학문을 혐오하고 있었으므로 불교의 근본의 뜻을 명백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상세한 연구를 하리라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사해(四海)가 평온하고 변경의 치안도 유지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정관 3년〔서기 629년〕 8월 1일 아침, 가사를 걷고 지팡이를 꼴고서 먼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천자의 교화의 덕택으로 길을 묻고 신불의 명조(冥助)에 의해 홀로 여행을 계속하여 철문(鐵門) · 석문(石門 : 迦濕彌羅國의 입구)의 난소(難所)를 지나고 능산 · 설산의 험한 길을 넘으면서 몇 번의 계절의 변화가 되풀이된 다음에야 비로소 인도에 이르러 우리 국풍을 외국에 선양함으로써 큰 교화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범학(梵學)을 배우고 현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가운데 다년간의 의문은 원문을 대하면서 해소되었으며 한편 교의의 깊은 뜻은 고학(高學)에게 널리 물어 터득해 나갔습니다. 심안(心眼)을 열어 교리를 연구하고 정신을 멀리해서 도를 체

득했으며 이렇게 해서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도를 배우는 마당에서의 훌륭한 인사로서 법문의 지도자가 될 인품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사의 인품은 현저해지고 덕행도 높아져, 학을 싸히 3년에 그 명성은 만리에 뻗쳤습니다. 인도의 학자들도 누구나 법사의 높은 덕을 경양하면서 혹은 경사(經笥 : 經典을 넣은 상자란 뜻으로 博學通達한 사람을 이름)라 하기도 하고 혹은 법장(法將)이라 하기도 하는가 하면, 소승의 학도는 목샤데바(木叉提婆)라 부르고 대승 법중은 마하야나데바(摩訶耶那提婆)라 불렀습니다만 이야말로 법사의 학덕에 경의를 품하여 미칭(美稱)을 전하고 인품을 존경하여 가명(嘉名)을 입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삼륜의 깊은 뜻(부처님의 몸 · 입 · 뜻. 부처님은 이 三業으로 惑業을 破摧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함)과 삼청(三請)의 미언(微言 : 부처님이 舍利佛의 세 번의 請願에 따라 《法華經》의 要義를 설법했다는 故事에 의함)과 같은데 이르러서는 그 근본 이론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지엽말단에 이르기까지 훌륭하게 조사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사의 질의 내용은 별록(別錄 : 무슨 책인지 불분명함)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사는 이미 깊은 뜻에 정통하여 덕풍의 명성은 높아져 있습니다. 법사의 학이 이미 박통(博通)해 있고, 덕망은 이미 성대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천을 역람(歷覽)하고 도시를 순유(巡遊)하기로 하고, 모성(茅城 : 上茅宮城)을 나와 녹원에 들어갔으며 장림에 유력하고 계원에 발을 멈추고 가유국(迦維國 : 劫比羅伐窣堵國)을 돌고 쿠시의 도읍을 보았습니다만, 강탄(降誕)의 유적은 강가와 마찬가지로 풀이 무성했고 입멸의 옛 터는 교외 언덕 위에 황폐해 있었습니다. 불적을 보면서는 회고(懷古)의 정을 더하고 덕풍(德風)을 우러르면서 가끔씩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은(殷)의 기자(箕子)가 맥수(麥水)의 노래에 은의 멸망을 슬퍼하고, 주(周)의 시인이 서리(黍離)의 노래에 주나라의 쇠미를 가슴 아파했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석가의 고사를 자세하게 적고 인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면서 그 위에 얼마간의 풍토에 대해서도 적었으며 이설(異說) 또한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 여름과 겨울이 몇 번인가 옮겨 지나갔습니다만, 안락한 고국이

그리워져 망향의 정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래의 육사리(肉舍利) 1백 50개와 금불상 하나〔광좌(光座)까지 높이 7척 6촌으로 마가다국 앞 정각산(正覺山)의 용굴에 있는 상을 모사한 것〕, 금불상 하나〔광좌까지 높이 3척 3촌으로 바라나시국 녹야원의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을 모사한 것〕, 전단(栴檀 : 단향목)으로 조각한 불상 하나〔광좌까지 높이 1척 5촌에 코상비국의 출애왕이 여래를 사모하여 전단에다 모사 조각한 상을 모사한 것〕, 전단으로 조각한 불상 하나〔광좌까지 높이 2척 9촌으로 카피타카국에서 여래가 천궁으로부터 보계(寶階)를 내려오는 상을 모사한 것〕, 은불상 하나〔광좌까지 높이 4척, 마가다국의 취봉산(鷲峯山)에서 《법화경》 등을 설법하는 상을 모사한 것, 금불상 하나〔광좌까지 높이 3척 5촌이며 나가라하르국에서 독룡을 항복시킨 상을 모사한 것〕, 전단으로 조각한 불상 하나〔광좌까지 높이 1척 3촌〕, 바이샤리국에서 성을 돌며 교화시키는 상을 모사한 것. 그리고 대승경 2백 24부, 대승론 1백 90부, 상좌부의 경률론(經律論) 14부, 대중부의 경률론 15부, 삼미티부〔三彌底部 : 大乘 20部 중의 正量部〕의 경률론 15부, 마히샤사카부〔彌沙塞部 : 小乘 20部 중의 化地部〕의 경률론 22부, 카샤피야부〔迦葉臂耶部 : 小乘 20部 中 飮光部〕의 경률론 17부, 법밀부(法密部 : 小乘 20部의 하나〕의 경률론 42부, 설 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경률론 67부, 인명론(因明論) 16부, 성명론(聲明論) 13부, 모두 5백 20협(夾 : 篋), 통틀어 6백 57부를 구하여, 무상의 교법을 펼치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거쳐 고국으로의 귀로를 서둘렀습니다. 사위성의 옛 도읍을 출발, 붓다가야의 구교(舊郊)를 등지고 파미르의 험준한 언덕을 넘고, 사막의 험로를 건너 정관 19년〔서기 645년〕 정월 경읍(京邑 : 長安)에 귀착, 낙양에서 천자께 배알했던 것입니다.

한편, 삼가 조칙(詔勅)으로 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고서 학자들을 모아서 함께 이 큰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은 구름과 같이 다시금 중국 땅을 덮으면서 불지(佛智)의 광대함이 더욱더 명백하게 되었으며, 궁전에서는 설법이 행해짐으로써 한토(漢土)에는 불법이 펼쳐져 불교는 더욱더 흥륭 성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법사는 범학에 정통해 있기 때문에 깊은 묘경(妙經)을 해명함에 있어 새로운 문장과 부딪쳐도 이미 보았던 것이나 다름없이 했고, 음을 나타냄에 있어서도

음향에 응하는 듯했으며 경전의 취지를 그대로 존중해서 문식(文飾)을 가하는 법이 없었으며 번역을 해서도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방언은 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원전(原典)의 취지를 살림으로써 경전(經典)의 말과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헤아리건대 원전의 기재에서 벗어남이 있을까 저어했던 까닭입니다. 어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안색을 바꾸어 근엄해진 태도로 와서는 "대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성인이 태어난 곳으로 현자가 생육되었던 문자는 천서(天書)라 하고 언어는 천어(天語)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 글과 말은 치밀하고 음운은 말과 말 사이에 연속되며, 더러는 한 낱말이 여러 가지 뜻을 포괄하기도 하고 더러는 한 가지 뜻이 여러 낱말로 표현되기도 하는가 하면 음성에는 억양이 있고 청탁(淸濁)으로써 분류되고 있습니다. 범문(梵文)은 뜻이 깊어서 번역은 석학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번역 문장을 수식한다거나 음률을 조정한다는 것은 의미 전달에 오류를 범할 뿐 정론(正論)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전의 깊은 취지를 전함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며 원전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장의 꾸밈이 지나치면 화려하게 될 것이나 그렇다고 평범이 지나치면 조야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전하면서도 문장 꾸밈의 지나침이 없고 의미를 충분히 터득하면서 평범에 흐르지 않게 한다면 우선 큰 잘못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번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李老 : 老子)는 '아름다운 말에는 믿음이 없고 믿음의 말에는 아름다움이 없다'고 했으며 한비자(韓非子)는 '이치가 바른 자는 그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이 수식된 자는 그 이치에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훈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할 때는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을 계몽하여 이치로써 이끄는 가운데 부처님을 찬탄하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원전을 무시하고 문장을 꾸민다면 본뜻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했습니다. 승려나 속인도 모두 지당한 말이라고 했던 바와 같이 그 말은 바른 것입니다. 그 옛날 공자는 관직에 있을 때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그 문서는 남과 함께 썼지 혼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춘추(春秋)》를 편찬함에 있어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가운데 자유(子游) · 자하(子夏)를 비롯한 그 문하의 문장으로써 이름 높

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한마디도 손을 다시 댈 수 없는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법사의 불경 번역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동수(童壽 : 鳩摩羅什)가 장안의 소요원(逍遙園)에서 경을 번역했을 때 생(生) · 조(肇) · 융(融) · 예(叡)가 붓대 움직이는 대로 맡겨두었던 것과는 유가 다릅니다〔道生 · 僧肇 · 道融 · 僧叡 네 사람인 듯. 그들은 모두 羅什 문하의 고제자였음〕. 더구나 오늘날은 네모난 것도 둥글게 모를 깎는 세상이어서 장식을 없애고 질박하게 하는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교지를 보태거나 깎거나 경문을 수식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변기(辯機 : 이 책을 편찬한 자)는 멀리 은둔자의 핏줄을 이어받아 젊어서 높고 고도한 인생을 살고자 하여 나이 열다섯에 세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 대총지사(大摠持寺)에 사는 사르바스티바다부〔薩婆多部 : 說一切有部〕의 도악법사(道岳法師 : 俗姓이 孟氏로 河南省 洛陽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 옛날의 명공 장석(匠石 : 《莊子》의 徐無鬼에 나오는 故事로 물건을 자르는 데 털끝만 한 誤差도 없는 名工)으로도 손쓰지 못할 썩은 나무의 신세이면서 다행히도 불문에 들어 청빈한 생활을 했다고는 해도 포식하면서 날을 보내고 견문을 넓히지 않고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 행운의 때를 만나 연작(燕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홍곡(鴻鵠)의 말석에 섞여 범용(凡庸)의 재능을 다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학문이 깊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문장을 쓸 줄 아는 주제도 아닙니다만 우둔한 몸을 격려하고 부족한 재주의 몸을 고무하면서 삼가 현장법사의 지기(志記 : 大唐西域記를 撰述할 때의 원래 자료나 메모 등을 총칭하는 듯)를 이어받아 문장에 차례를 매기는 가운데 상서성에서 종이와 붓을 받아 기록 · 편찬하였습니다. 천학비재로 인해 빠진 곳도 있겠고, 불필요한 문구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사마천은 훌륭한 역사가로서의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기(史記)》를 씀으로써 어렵사리 부자(父子) 2대의 업을 완성했습니다만, 책에 명(名)만을 쓰고 자(字)는 안 쓴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縣)의 이름만을 쓰고 군(郡)의 이름은 쓰지 않은 사례가 보이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제아무리 정밀하게 하려고 해도 생각이 많고 문장이 방대해지면 세부에 이르기까지 음미할 여유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매한 저에게 있어서 잘못 없는 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라 하겠습니다.

한편 서역(西域) 각지의 풍토 습속의 차이, 경역(境域)과 물산(物産)의 기록이나 국민성의 분류, 네 계절 기후의 한난(寒暖)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열에 대해 묘사했고 사실을 자상하게 기록했습니다. 호(胡) · 융(戎) 등 이민족의 성씨와 종족에 대해서는 대충 그 나라 형편을 적었습니다만 인도의 풍속 · 교화는 청탁(淸濁)이 가지가지여서 그 개략만을 기술했다는 것은 앞머리에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국가의 의전(儀典)이나 호구(戶口) · 군비 등에 대해서는 출가의 몸으로서 상세히 기록할 바가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신통력으로써 만물에 접하고 영묘(靈妙)의 화도(化導)로써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 불가사의한 힘은 현묘하고 그 이법(理法)은 인간계를 초월하고 있으며 그 영묘한 교화(敎化)가 은은히 나타나는 것 또한 인지(人智)의 밖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제불(諸佛)이 나타났던 곳이나 불타가 교화를 편 흔적 등에 대해서는 그 영적(靈跡)을 대략 열거하고 대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도로는 굴곡이 많고 국경선도 구부러져 있으므로 노정(路程)은 써 놓았다 해도 순서가 제대로 정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 여러 나라에 대해 국경을 나눠 적지도 못하고 다만 각 나라의 말미에 영역의 개략만을 적었을 뿐입니다. "行……"이라 쓴 것은 법사가 몸소 여행한 곳이며 "至……"라고 쓴 것은 전문(傳聞)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을 곧바로 쓴 경우도 있고 문장을 완곡하게 한 경우도 있는 등 부드럽게도 하고 수식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컨대 실록(實錄)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천자께 성의를 바치는 데 있었습니다. 20년〔서기 646년〕의 가을 7월에 각필(擱筆)하여 서책은 완성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천자의 용안을 어지럽힐 정도의 것이어서 도저히 성의(聖意)에 흡족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저 먼 곳에 있는 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대당(大唐)의 덕화(德化)에 의한 것이고 기이한 사실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실로 천자의 덕택에 의한 것이었으니 이제 태양을 대지의 끝까지 쫓아감에 있어서도 과부(夸父)의 힘을 내 힘으로 삼지 않아도 되고〔이는 《列子》 〈湯問〉편에서 따온 말이다. 夸父는 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자를 쫓고자 하여 마침내 그림자를 골짜기로 쫓았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여 강으로 가서 마셨다. 그러

나 강물이 모자라 북으로 달려 큰 늪에서 마시고자 했다. 그러다가 거기 이르지 못하고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전설 속의 故事], 서역(西域)에의 천 리 길을 열어 나아감에 장건(張騫)의 공적은 과거의 것으로서 듣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영취산(靈鷲山)을 중국으로 옮기고 녹야원(鹿野苑)을 외원(外苑)으로 삼는 것은 마치 천재(千載)의 옛날을 생생하게 목격함과 같고 만 리의 저쪽을 바라보는 것도 눈앞을 친히 보는 것과 같게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이는 옛날로부터 듣지 못했던 일이며 어떠한 옛 서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천자의 크나큰 덕이 사방을 덮어 모든 외국이 내조(來朝)하고 덕풍이 멀리까지 미쳐 지구 끝까지 뻗쳤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지(地志)가 《산해경(山海經)》의 모자람을 메울 수 있고 사관(史官)의 참고자료로서 반포되며 섭외(涉外)의 편람(便覽)으로서 갖춰지게 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은이 소개** | **현장** 玄奘 (602?~664)
당태종(唐太宗)의 후원을 받아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전 12권을 저술한 고승(高僧). 허난성〔河南省〕 뤄양〔洛陽〕 동쪽의 거우스현〔緱氏縣〕에서 태어났다. 10세에 뤄양 정토사(淨土寺)에 들어갔으며, 13세에 승적에 올랐다. 중국 중북부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불교 연구에 진력하다가, 의문점을 풀고 불교 경전을 가져오기 위해 627년〔일설에는 629년〕 인도로 떠났다. 이후 인도 나란다 사원에 들어가 계현(戒賢 : 시라바드라) 밑에서 연구에 힘썼다. 당시 하르샤 대왕 등의 우대를 받았는데, 641년 많은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라, 힌두쿠시와 파미르의 두 험로를 넘어 645년 정월에 조야의 대환영을 받으며 장안으로 돌아왔다.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漢譯)하는 업적을 남겼다.

**옮긴이 소개** | **권덕주** 權德周 (1934~2009)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중문학 석사를 마치고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중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14년간 동 대학 중국문화연구소장으로 있었다. 저서로 《중국 미술사상에 대한 연구》《대학한문》 등이 있으며 역서로 《서경》《입학도설》《고반여사》《중국사상의 근원》《대동서》 외 다수가 있다.

# 대당서역기

**©사단법인 올재**

---

**발행 |** 2017년 1월 30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

## Olje Classic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4 고운집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7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저 | 주요섭 역
08 청성잡기 성대중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09 한글중용 · 대학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10 팡세 파스칼 저 | 정봉구 역
11 군주론 마키아벨리 저 | 임명방 역
12 기측체의 최한기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13 우서 유수원 저 | 한영구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14 채근담 홍자성 저 | 송정희 역
1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저 | 김정진 역
16 천로역정 존 버니언 저 | 주요섭 역
17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18, 19 계원필경집1, 2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20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장병길 역
21 명심보감 추적 저 | 이민수 역
22 서경 | 권덕주 역
23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24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황문수 역
25 택리지 이중환 저| 이민수 역
26, 27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28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 최재서 역
29 유혹자의 일기 쇠렌 키에르케고어 저 | 황문수 역
30 에밀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31 땅의 양식 앙드레 지드 저 | 박은수 역
32 격몽요결 이이 저 | 정후수 역
33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34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저 | 김형효 역
35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 이정식 역
36 역옹패설 이제현 저 | 남만성 역
37 유리알유희 헤르만 헤세 저 | 노태한 역
38, 39 국부론1, 2 애덤 스미스 저 | 최임환 역
40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41 마음 나쓰메 소세키 저 | 김성기 역
42~45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46 난중일기 이순신 저 | 이은상 역
47 징비록 유성룡 저 | 구지현 역
48, 49 쇄미록1, 2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50 장자 장자 저 | 신동준 역
51 열자 열자 저 | 정창영 역
52 바가바드 기타 | 정창영 역
5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
54 산해경 | 장수철 역
55 박물지 쥘 르나르 저 | 손석린 역
56, 57 춘추좌전1, 2 좌구명 저 | 신동준 역
58~61 서유기1~4 오승은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62** 대당서역기 현장 저 | 권덕주 역

**63** 손자병법 손무 저 | 임용한 역

**64** 오자병법 오기 저 | 임용한 역

**65** 전술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 이영남 역

**66** 포화 앙리 바르뷔스 저 | 정봉구 역

**67** 시경 | 신동준 역

**68** 문심조룡 유협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69** 시학 · 데 아니마 아리스토텔레스 저 | 김완수 역

**70**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저 | 최재서 역

**71, 72** 지봉유설1, 2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73**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저 | 이민재 역

**74**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권혜련 · 김정석 · 박완신 · 이혜진 역

**75~78** 홍루몽1~4 조설근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79~83** 동주 열국지1~5 풍몽룡 저 | 신동준 역

## Olje Selection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04**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최재서 역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0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8**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09~12**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13, 14**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